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3호 2009. 3

차례

특집 동아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 허동현 ▣ 한국 근대에서 단일민족 신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 7
- 유용태 ▣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37
- 최병욱 ▣ 19세기 베트남의 단일민족 만들기 - ‘漢夷有限’에서 ‘一視同仁’으로 73
- 박종기 ▣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 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99
- 조병한 ▣ 근대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中華帝國의 전통
- 중국 민족주의의 제국적 기원 135

논문

- 임권웅 ▣ 고구려 고분벽화 회벽체의 재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진파리 4호분의 회벽체를 중심으로 205
- 조인성 ▣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39
- 이철성 ▣ 조선 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271
- 이현주 ▣ 1880년대 전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 연구 307
- 장 신 ▣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349
- 유인선 ▣ 전근대 베트남의 對中國 認識 - 조공과 대등의식의 양면성 389

Contents

Special Issue The Problems of Nation and Discourse of 'Oneness of Nation' in East Asia

- Huh, Donghyun ■ A Study on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Myth on the Ethnic Homogeneity in Modern Korea 7
- Yu, Yongtae ■ The National-Imperialism and the Logic of Unitary Nation in Modern China 37
- Choi, Byungwook ■ Creation of One People in the 19th-Century Vietnam : From '*Han di buu ban*' to '*Nbat thi dong nban*' 73
- Park, Jongki ■ The System of the State in the early Goryeo dynasty : With focus on the Configuration of the Residents 99
- Cho, Byonghan ■ The Formation of Nationalism and the Tradition of Chinese Empire in Modern China 135

Articles

- Lim, Kwonwoog ■ Study on properties of lime plaster at mural in Goguryo Tomb : A case Study on Jinpari Tomb No.4 205
- Cho, Insung ■ Shin Chae Ho's understanding of Koguryo History and It's Influence upon North Korea 239
- Lee, Chulsung ■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cognition of the Off-limits Zone between the Yalu River and Zahmen in Late Joseon 271
- Lee, Heonjoo ■ The Study on the Korean Enlightened Intellectuals' Recognition of 'Theory of Asia-Solidarity' in early 1880s 307
- Jang, Shin ■ A Study on Project of 'Joseonbandosa'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349
- Yu, Insun ■ The Vietnamese Perception of China in the Premodern Period 389

특 집

동아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한국 근대에서 단일민족 신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

허동현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부대학 교수

I. 머리말

한국은 단군을 선조로 하는 순수 혈통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지닌 韓民族만으로 성립되었다는 단일민족 관념은 광복 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반복 학습됨으로써 시민들의 역사적 기억을 專有해 왔다. 따라서 “우리 역사는 몇 년이지요?”라는 질문에 “반만년”이란 답변이 스스럼없이 나올 만큼 한국인 모두가 단군의 자손으로 한 핏줄이란 단일민족 의식은 초역사적 실체이자 신화화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존재한다.¹⁾ 그러나

- 1) 이지명은 광복 이후 현재까지 교과서에 보이는 민족담론의 특징은 단일민족 의식의 강조에 있다고 본다. 이지명, 2002,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본 도덕과 민족담론의 양상」, 『국민윤리연구』 51, 386~387, 390, 393쪽.

〈표〉 교육자원부가 발표한 교과서의 단일민족 사례

	학년	과목	교과서 원문 내용
초등 학교	2	생활의 길잡이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도덕	우리는 본디 하나, 땅도 하나, 민족도 하나, 말도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민족’이란 개념이 근대에 들어 창안된 ‘상상의 정치공동체’에 불과하다는 ‘탈민족주의 담론’이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대두되면서 오랫동안 절대적 권위를 누리던 단일민족 관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²⁾ 특히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globalization)에 따라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단일민족임을 전제로 했던 사회체제의 수정과 의식 변화에 대한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³⁾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주된 원인이 단일민족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그 극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사회만이 아니다. 2007년 8월 유

중 학 교	6	사회	우리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입니다.
	1	도덕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세월을……
	2	도덕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라는……
	3	사회	민족, 언어, 문화가 같은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고 등 학 교	1	도덕	본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으로서……
	1	국사	우리 민족은 반만 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	정치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해 왔다.

출전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다문화 가정 품에 안는 교육지원 대책」, 2006년 4월 28일 ; 한경구·한진수, 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 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87쪽에서 재인용.

- 2)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입에 따른 탈민족주의론의 대두 과정은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선민, 2008,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삼성경제연구소, 15~20쪽.
- 3) 최강민, 2006,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어문논집』 35, 287~312쪽 ; 송종호, 2007,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 90~122쪽 ; 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의 탐구』 24, 287~308쪽 ; 장인실, 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쪽 ; 한경구,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젠더리뷰』 8, 40~47쪽. 단일민족 의식을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그 폐기를 요구하는 견해는 다음에 잘 나타난다. “도무지 기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일민족 설 때문에 우리는 문화 민족입네, 동방예의지국입네 하면서도 한국전쟁 때 생겨난 혼혈아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피부색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턱없는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단지 피부색으로, 나라 이름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치졸한 국수주의적 민족의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박기현, 2007,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성씨』, 역사의 아침, 239쪽.

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인식이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우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를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 취하라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 전해 온 바 있다.⁴⁾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다. 요즘 농촌지역 신혼부부 열 쌍 중 두 쌍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맺어지고,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50만 명을 상회한다. 더 이상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이들은 낯선 타자가 아니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변화해 감에 따라 서양사학계가 주도하는 '탈민족주의 담론'은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상징하듯이 주변국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의 해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⁵⁾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근대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 관념이 신화화되는 과정을 구명해 그것이 당시 한국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 혹은 필요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열린 민족주의'임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⁶⁾

4)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07, *Press Release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s Report of Republic of Korea*, Geneva, 10, August.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고는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단일민족이란 생각이 빚은 '순혈'에 대한 자부심이 '혼혈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촉발했다.

5) 임지현, 2004, 「국사의 안과 밖」,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32쪽. “해체한 다음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은 없다. 대안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 잘 기획된 대안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6) 열린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허동현, 2008, 「근현대사와 열린 민족주의」, 『우리 역사 길라잡이』 2, 국사편찬위원회, 237~243쪽 ; 이선민, 2008, 앞의 책, 109~118쪽. 이선민은 열린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세계적 관점을 지닌 애국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는 보통의 민족국가나 여러 민

II. 근대 이전의 단일민족 논의의 문제점

오늘날의 한국의 시민사회가 품고 있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란 고정관념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한국사학자 이기동에 따르면, 한국사학계의 주류적 견해인 단일민족 의식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형성되기 시작해 고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⁷⁾ 이 의식은 신라 통일 이후 1,300년 이상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근대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견해의 이면에는 민족은

족과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사회 통합이념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북 분단과 광범위한 재외한인의 존재 때문에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주의만으로는 북한과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야를 더 넓혀서 이들과까지 포함하는 민족주의와 개방성·진취성을 결합한 ‘열린 민족주의’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선민, 같은 책, 114쪽.

- 7) 이기동, 2002, 「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 : 총설』, 111쪽. “민족학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하고, 문화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의식으로 뭉쳐 있는 인간집단을 민족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인은 한민족과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한국사에서 한국문화 내지 한민족의 출발점을 어느 때로부터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으나, 일단 신석기시대를 한국문화의 원점, 청동기시대를 한민족 및 한국문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족의식은 대체로 삼국시대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며,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에 따라 국토가 한반도로 고정된 뒤로부터 사회의 급속한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어 단일 민족의식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뒤 고려 초에 귀부해 온 발해 유민을 흡수 통합하고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정력적으로 추진된 북방 개척에 따라 고려에 편입된 국경지대의 여진인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한민족 형성의 최종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노태돈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태돈, 1992,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24쪽. “삼국통일과 함께 삼국민을 아우른 보다 큰 차원의 동족의식을 지닌 보다 큰 단위의 민족이 형성되었고, 고려 초 발해인의 합류로 한국민족의 틀이 확정되었다.”
- 8) 이기동, 2003, 「독자에게 드리는 글」,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iii~iv쪽. “근래 『상상의 공동체』로 일약 국제적 명성을 얻은 베네딕트 앤더슨 역시 ‘민족’이란 개념이 먼 고대부터 존재해 온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왕조국가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출현한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s)’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

혈연을 기반으로 자연히 발생한 단위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⁹⁾ 반면 서양사학자 임지현은 한국사학계의 단일민족론은 전근대사회에 존재하는 ‘민족체(nationality)’와 근대 ‘민족(nation)’을—종족적 차별의식에 기초한 민족체의 원초적 집단 정체성인 ‘원시 종족주의(nativism)’와 봉건사회의 신분적·계급적 장벽이 제거되어야 성립 가능한 근대 민족주의(nationalism)를—동일시해 민족을 초역사적인 자연적 실재로 부당 전제하는 과잉 민족의식이 빚은 오류로 비판한다.¹⁰⁾

물론 민족이 근대의 소산이라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이 주로 사용

통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한 이래 1300년 이상 줄곧 중국과 그 북방민족 그리고 일본 등 이민족의 압력에 맞서 항쟁해 온 한국역사에서 보면 이미 전근대시기에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굳건히 단련되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로 근대의 산물이란 견해에 대한 비판은 신용하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론’은 사회사적 인과관계 분석부터 잘못되어 있다. 민족주의가 먼저 형성되어 그 결과로 민족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출현하였다. 민족은 인간이 동일한 언어·지역·문화·혈연·정치·경제생활·역사·민족의식을 공동으로 하여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구체적 명칭까지 가진 실재의 인간 공동체이다. 인종자본주의가 지방어로 쓴 서적을 대량 공급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종족·원민족·전근대민족 또는 근대민족이 형성되어 있었다. 민족주의적 문필가들의 서적은 ‘민족’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던 민족의 민족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강화해서 ‘민족주의’ 형성에 일정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신용하, 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40-1, 33쪽.

9)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강석 역, 2003,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11쪽. “민족이 실재한다는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쿠르드인이나 조선인들은 원래가 각기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하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로 먼저 떠오르고, 정치적 사정 때문에 복수의 국가로 인공적으로 분단됐을 뿐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에는 민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자연히 발생한 단위라는 감각이 반영되어 있다.”

10) 임지현, 1999, 「한국사 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59, 65~66, 70~74쪽. 임지현이 말하는 ‘민족체’는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언어와 문화, 사회 역사적 의미에서의 혈연 등에서 동질화된 그러나 근대 민족에서처럼 모든 민족성원이 능동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민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주관적 의지는 아직 결여된 제한적 동질 집단”을 뜻한다. 임지현, 같은 글, 59쪽 주) 8 참조.

하는 근대 민족과 ‘전근대 민족’을 관통하는 종족적 유대감에 바탕을 둔 사람 집단을 일컫는 ‘에스니(ethnize)’가 한국에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¹¹⁾ 그러나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은 단군 시대부터 비롯되는 유구한 관념은 아니었다.¹²⁾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적 견해이다.¹³⁾ 소위 단군의 자손이란 주장은 소위 삼한정통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고려 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를 통해 문자로 기록되었고 조선 초 권근 등이 제기하여 실학자인 성호 이익 등을 통해 논의가 완성된 것이다.¹⁴⁾

분명한 것은 고려 말에 나온 『단군본기』와 『제왕운기』에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맥 등이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거나 “삼한 70여국의 군장들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는 인간 집단의 同源性을 강조하는 기록이 나온다 하여 이를 신분의 차등이 있던 전근대시기에 공동체의 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민족의 수직적 통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¹⁵⁾ 또한 조선시

11) Anthony D. Smith, 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 김현숙, 2006,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1, 118쪽에서 재인용. 노태돈도 “한국역사에서 근대와 전근대시기에 존재하였던 인간공동체들이 민족으로서의 공통요소를 지녔다”고 본다. 노태돈, 1992, 앞의 글, 23쪽.

12) 임지현, 1999, 앞의 책, 66, 69쪽. 임지현에 따르면, “한국 민족의 원형인 민족체는 삼국 통일부터 고려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지만,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곧 민족 구성의 객관적 측면에서 동질성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한국적 또는 조선적 표현일 뿐”인 것이다.

13) 서영대, 2000,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노태돈 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68~169쪽. “몽고 침입의 장기화는 고려로 하여금 저항을 지속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모색하게 했고, 여기서 단군이 부각되게 되었다. 단군은 민족사의 유구성을 인식케 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높일 수 있고, 또 삼국이 같은 뿌리라는 인식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민족적 결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은 고려 말로 오면서 더욱 확산된다. …… 단군이 역사의 근원이며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는 가운데 조선왕조가 건국된다.”

14) 한경구·한건수, 2007, 앞의 글, 89쪽.

15) 노태돈, 2000,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노태돈 편, 앞의 책, 21~27쪽 ; 임지현, 1999, 앞의 책, 72~73쪽. 노태돈은 “양반과 상민, 종과 상전의 신분구분이

대 三韓 정통론에서 비롯된 단군의 자손이란 주장도 단군이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고, 기자가 중국 못지않은 교화를 베풀었으니 단군과 기자를 계승한 조선은 중국에 필적하는 중화의 문명국이라는 의미가 담긴 華夷觀에 입각한 문명론이었지, 조선 사람 전체가 동일한 혈통집단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¹⁶⁾

Ⅲ. 계몽기 단일민족 관념의 맹아

홉스봄(E. J. Hobsbawm)의 견해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 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 모두는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으로 근대의 산물임이 분명하다.¹⁷⁾ 종래 ‘민족’에 대한 정의는 한스 콘(Hans Kohn) 등 영미학파의 ‘국가민족(statsnation)’ 담론과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등 독일학파의 ‘문화민족(Kulturnation)’ 담론으로 대별된다. 전자가 봉건사회의 왕조적 충성심을 뛰어넘어 인민주권론이 관철되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귀속의지를 증시하는 ‘시민혁명적 길’을 대변한다면, 후자는 민족적 정체

엄존하고 있던 사회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한 핏줄이라는 식의 주장은 비록 구조적인 것일지라도 일반화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임지현은 “몽고군에 대한 고려 농민군의 투쟁은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항쟁이라기보다는 향촌 혹은 농촌 공동체 수호투쟁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 프랑스 혁명기에 보편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가 이념적 무기로 내세웠던 근대적 민족주의를 13세기의 고려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다.

16) 한경구·한건수, 2007, 앞의 글, 89~90쪽. “민족주의의 맹아로 일컬어지는 실학자들의 삼한 정통론은 우리나라를 정통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혈통에 의한 화이의 구분보다는 문명화의 시기와 성숙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문명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다.” 한경구·한건수, 같은 글, 90쪽.

17) 에릭 홉스봄, 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40~41쪽.

성이나 소속감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先在하는 공동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프로이센적 길’을 대변한다. 전자의 민족담론은 수직적이고 종적인 혈연관계에서 해방된 시민들의 자유로운 수평적 결사로서 언어·공통의 문화유산·종교·관습 등과 같은 민족 구성의 객관적 요소를 달리하는 다양한 주민집단을 프랑스의 기치 아래 ‘단일민족’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¹⁸⁾ 반면 프랑스혁명의 근대사적 가치를 부정한 후자의 경우 종족·조상·종교·언어·영토라는 원초적 집단정서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¹⁹⁾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와 같이 겉으로는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혈통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하는 독일식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을 만들어내었다.²⁰⁾

시민혁명의 부재와 봉건 유제의 완강한 존속, 자본주의 발전의 지체와 그로 인한 부르주아지의 비혁명적 타협성이 관철되는 19세기 동유럽과 비서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컸던 쪽은 혈통·언어·관습·피부색 같은 종족적 요소를 강조하는 독일식 민족담론이었다.²¹⁾ 이러한 원초적·종족적 요소를 중시하는 독일식 ‘문화민족’ 개념은 주체적 개인의 형성이나 시민적 발전의 길이 부재했던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에게도 수용되었으며,²²⁾ 이는 메이지 일본에 유학했던 梁啓超(1873~1929)를 통해 계몽기 한국인들에게도 전파되

18) 임지현, 2000, 「민족담론의 스펙트럼 : 원초성, 근대성, 탈근대성」,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8, 66~67쪽, 프랑스에서 민족담론은 중세부터 독자적인 법률과 문화전통을 고수하던 랑그도크, 툴루즈, 생말로 등지, 교황령인 아비뇽과 베네신, 게르만 혈통이 대다수인 알자스·로렌, 그리고 켈트족의 아성인 브르타뉴 등도 주민투표를 통해 민족자결의 기초 위에서 혁명 프랑스로의 통합을 자청하게 만들었다. 임지현, 같은 글, 75쪽.

19) 임지현, 2000, 위의 글, 66, 76~78쪽.

20) 한경구·한건수, 앞의 글, 90쪽.

21) 임지현, 2007, 앞의 글, 78~79쪽.

22) 메이지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일하고 순수한 기원을 지닌, 공통의 문화와 혈통을 가진 민족만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구성되어 있다”는 단일민족 관념이 일본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다. 오구마 에이치, 조현설 역, 2003, 『일본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2~24, 27쪽 ; 조정남, 2001, 「일본의 단일민족 정책」, 『민족연구』 7, 44~47쪽.

었다.²³⁾

민족을 근대에 이르러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근대적 민족담론은 “中華·小中華·夷狄이라는 삼각형 구도의 문명화론이 서구문명·일본·조선이라는 새로운 삼각형 구도”로 바뀐 뒤에야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민족 형성을 위한 전제는 서구화된 일본에 의한 개항(1876) 이후 충족되어 새로운 삼각형의 구도가 조선에 전개되기 시작했다.²⁵⁾ 중화제국 청국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문명으로서의 유교는 폐기되었으며, 이적

23) 양계초가 nation의 일본식 번역어인 ‘민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일본 망명 한 해 뒤인 1899년에 쓴 「東籬月旦」이란 글에서였다고 한다. 백영서, 1995,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 형성과 변용」,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86쪽.

양계초가 발행하거나 주필로 활동한 『時務報』(1896. 8~1898. 7), 『淸議報』(1898. 12~1901. 12), 『新民叢報』(1902. 1~1907. 7)가 당시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구독되었으며, 1903년 간행된 그의 『飲氷室文集』도 바로 다음 해에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계몽기에 발행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등과 같은 신문만이 아니라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등의 학회지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그의 다양한 사상들이 번역·소개되거나 인용되었다. 김영희, 1999, 「대한제국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과 양계초」, 『한국언론학보』 43-4, 15~21쪽 참조. 양계초가 계몽기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다음을 참조. 백영서, 1998, 「양계초의 근대성 인식과 동아시아」, 『아시아문화』 14, 139~142쪽; 전동현, 2005, 「청말 양계초의 대한제국기 한국 인식」, 『중국사연구』 34, 139~169쪽; 전동현, 2004, 「대한제국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개념의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21, 121~151쪽; 우남숙, 2007, 「양계초와 신채호의 자유론 비교」, 『동양정치사상사』 6-1, 135~159쪽.

24) 고미숙, 1999, 「18세기에서 20세기초 민족담론의 변이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13, 58쪽.

25) 이 점은 일본에서 2년, 중국에서 3년, 미국에서 5년의 유학생활동을 한 개화기(1876~1905)의 대표적 지식인 윤치호가 남긴 다음 글들이 여실히 보여준다. “청국은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일본의 11배인데, 일본은 30년 내외로 更張·振作하여 문명 부강함이 60년이나 외국과 통상한 청국보다 백 배나 더 낫다고 사람들이 칭하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청국은 옛것만 지켰으나 일본은 옛것을 고쳐 새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개의 귀감이 있으니, 새것을 좇는 것과 옛것을 지키는 것의 이해가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윤치호 일기』 1884년 7월 22일자, 송병기 역, 2001, 『국역 윤치호 일기』 I, 연세대학교 출판부, 151쪽). “나는 과거에 유교의 四書를 정독하고 많은 교훈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교훈에 복종하여야만 될 까닭은 없었다. …… 나는 세례 받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내가 가

이었던 일본과 서양은 따라 배울 새로운 전범으로 대두되었다.²⁶⁾ 또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 성립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로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가로막는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와 계급 모순을 무마해 줄 수 있는 민족 통합의 이데올로기도 필요했다.²⁷⁾ 그러나 메이지유신(1868) 이후 서양을 거울로 삼아 일본인을 근대적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근대국가를 세운 일본과 달리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근대국가 수립을 꿈꾼 갑신정변(1884)과 갑오경장(1894~1896), 독립협회 운동(1896~1898)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17~18세기에 서구에서 시작된 민족을 단위로 한 근대국가의 시대가 19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에도 열렸을 때 그 수립을 둘러싼 ‘시간의 경쟁’에서 조선이 성공의 역사를 쓰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²⁸⁾

진 재능이 다섯 달란트이든지 한 달란트이든지, 나의 시간과 재능을 다하여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증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과 내 형제를 위하여 쓸모 있는 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윤치호, 1973, “A Synopsis of What I was and What I am”,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연세대학교 출판부, 176~177쪽). 특히 그의 기독교 개종은 “한국의 유교전통에 대해 총체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한 개인의 정신적 혁명”이었다. 유영익, 1992, 『개화파인사들의 개신교 수용 양태』, 『한국근현대사론』, 일조각, 106~107쪽. 윤치호의 새로운 문명 체험과 수용에 관해서는, 허동현, 2006,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1, 117~151쪽 참조.

26) 박정심, 2007, 「한국 근대지식인의 ‘근대성’ 인식 I : 문명 · 인종 · 민족담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52, 123, 126쪽. “서구문명이 배워야 할 전범이 되면서 유럽은 지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단순히 오대양육대주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중심으로서 정치적 ·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 서구문명을 지선(至善)과 당위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근대적 삶의 양식은 야만이 되고, 우리는 문명화를 실현하기 위해 서구를 이식해야만 했다.”

27) 임지현, 1999, 앞의 책, 73쪽.

28) 허동현, 2000, 「100년 전의 실패」,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57~275쪽. 이 점은 당대의 대표적 지성 중 한 명인 윤치호가 독립협회가 추진하던 중추원 발족이 무산된 데 대한 실망과 분노를 토로한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난다. “오늘의 관보는 독립협회의 혁파와 현의 6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파면시킨 칙령을 공포했다. 이것이 국왕이라니! 어떠한 거짓말을 잘하는 배신적 겁쟁이라도 이 大韓의 황제보다 더 비열한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윤치호일기』 5, 탐구당, 178쪽.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²⁹⁾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기보다 臣民으로 잠자게 하려 한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국가로 보기 어렵다.³⁰⁾ 1905년 이전 대한제국기(1897~1905)에는 ‘민족’이란 말은 쓰이지 않았고 ‘백성’·‘신민’·‘인민’·‘동포’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³¹⁾ 그러나 신분을 넘어선 동등성의 語感を 느끼게 하는 ‘동포’도 국권의 주체로서 평등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은 아니었다.³²⁾ “국가가 있으면 인민이 있고 국가가 없으면 인민도 없다”는 『황성신문』 1898년 11월 24일자 논설이 웅변하듯이, 당시의 신문·잡지·역사서 등 인쇄매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도 평등한 근대 민족의 창출이 아니라 황제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었다.³³⁾ 당시 민권은 국권보다

29) 서영희, 2006, 「국가론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성격」, 한영우 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서영희는 황제정의 기반이 되었던 근왕세력들의 인적 배경을 분석해 대한제국이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은 정권이란 점에서 조선왕조와 차별성을 갖는 근대국가로 비정한다. 또한 서영희는 대한제국의 권력구조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것으로 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독립협회 세력이 일본의 입헌정체를 실현 가능한 모델로 보았으며, 고종과 그 측근세력은 러시아의 차르체제를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한다. 허동현, 2005, 「대한제국의 모델로서의 러시아」, 정성화 등,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133~160쪽 참조.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둘러싼 최근의 연구 동향은 허동현, 2007, 「대한제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국사연구』 139, 247~257쪽 참조.

30) 김현숙, 2006, 앞의 글, 123쪽. “주권체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황제에게 충성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신민적 국민’으로 만들고 통합하기 위한 각종 국가주의적 상징의 창출과 보급이 모색되었다.”

31) 김동택, 2002,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379~380쪽 ; 권보드레, 2004,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102~103쪽.

32) 권용기에 따르면, 『독립신문』에 보이는 ‘동포’는 “국가 내부에서 문명개화론자의 운동에 동참하는 인민”에 국한되었으며,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지식인이 중국의 지식인을 향하여 ‘사해동포’라고 불렀듯이, 서양지식을 습득하고 서양문물을 받아들였던 문명개화론자들은 구미와 일본의 지식인들을 ‘세계동포’로 인식했다”고 한다. 권용기, 1999,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 260쪽. 또한 김동택도 『독립신문』에 보이는 “하느님이 위에 계시사 …… 우리가 모두 동포지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보편주의가 유교적 보편주의를 절묘하게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택, 2005, 「역사용어 바로 쓰기 : 동포와 형제」, 『역사비평』 73, 106쪽.

33) 김현숙, 2006, 앞의 글, 127쪽 ; 박노자, 2004,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

하위 개념으로, 국가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것에 불과했다.³⁴⁾

사실 청일전쟁 이후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이 땅의 지식인들은 자국을 지킬 근대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이 주창한 인종주의적 아시아 연대론에 희망을 품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연대 구상의 인식론적 기초는 인종과 문화의 유사성이었기에,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황인종’ 모두가 ‘동포’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자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자, 연대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대 구상의 붕괴는 “국가는 주인이요, 동양주의는 손님”이라는 신채호의 지적처럼 민족주의의 대두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었다.³⁶⁾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망국이 가시화되자 지식인들은 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민족을 조직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³⁷⁾ ‘민족’이란 용어와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탄생한 것이 바로 러일전쟁 후 계몽기였다. 국망의 위기가 몰아닥치자 이제 충성의 대상은 황제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지식인과 인민대중들은 신민이기를 거부하고 미래에 올 새로운 공화주의 정치체제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꿈꾸는 민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으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 담론도 창출되었다.³⁸⁾ 그러나 양계초의 「민

자들」,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240쪽.

34) 박찬승, 2002,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 205쪽.

35) 러일전쟁 개전 초기 이준과 정준만은 일본 부상병의 치료를 위해 적십자를 구성하려다 옥고를 치를 정도로 지식인 대다수가 인종주의에 입각한 동양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백동현, 2005,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와 근대·민족 담론」, 『내일을 여는 역사』 19, 168쪽. 당시의 동아시아 연대 구상 논의에 대해서는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4 참조.

36) 윤해동, 2007,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104~105쪽.

37) 이해진, 2006, 「근대 계몽기 ‘민족’의 탄생과 ‘국민’의 거처」, 『인문연구』 50, 52~55쪽.

38) 백동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민족’이란 용어는 『황성신문』 1900년 1월 12일자 「奇書」에서 ‘東方민족’과 ‘白人민족’이란 표현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때

족론」에 힘입어 만들어진 한국적 민족주의 담론은 대내적 불평등을 파타하는 쪽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에 주된 목표를 둘 수밖에 없었으며,³⁹⁾ 이러한 저항민족주의는 운명공동체적 단일성이라는 기치 아래 강제적 동원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기제로 작동할 위험이 큰 것이었다.⁴⁰⁾

총군을 대체한 대중 동원의 새로운 표상으로서 계몽담론에 의해 호명받은 민족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강건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한반도의 주민들을 영토적·역사적 운명공동체로 묶는 단일민족 관념이었다. 계몽의 주체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단군을 공동의 선조로 하는 ‘신성한 민족’으로 만듦으로써, 동일한 혈통과 역사를 공유한 단일민족의 신화를 만들어냈다.⁴¹⁾ 베네딕트 앤더슨이 근대 민족의 형성과 민족국가의 수립과정에서 인쇄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당시 이러한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매체는 『대한매일신보』였다.⁴²⁾ 계몽기를 대표하는 매체였던 이 신문은 영국인 베셀이 발행인이었던 관계로 언론 통제를 위해 1907년 일본이 만든 소위 광무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국의 위기가 가시화되던 당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의 주민들을 영토적·역사적으로 운명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민족으로 호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07년에서 1910년 사

쓰인 민족은 인종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황성신문』의 기사들에 보이는 민족의식이 인종주의 내지 동양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을 한반도 내의 주민집단에 국한하게 되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의 일이지만, 그 발간 주도세력이 개신유학적 성격을 가진 관계로 1909년 이전까지는 종족의 기원을 나타내는 단군과 유교문명권을 상징하는 기사를 함께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리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한다. 백동현, 2001,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163~179쪽.

39) 김현숙, 2006, 앞의 글, 128~129쪽. 양계초는 「민족론」에서 “민족주의란 세계에서 가장 광명정대하고 공평한 주의로서, 타민족이 아민족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며, 본국 내에서는 인권의 독립을, 세계 내에서는 국권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40) 임지현, 2000, 앞의 글, 79~80쪽.

41) 이혜진, 2006, 앞의 글, 56, 58쪽.

42) 매체로서의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광린 등, 1986, 『대한매일신보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국언론사연구회 편, 2004,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여러 논설들에서 산견되며,⁴³⁾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⁴⁴⁾

무궁화야 무궁화야 너의 토지는 십삼도의 금수강산이요, 너의 주인은
이천만의 신성한 민족이라. 네가 태백산 단목 아래에서 성인이 처음 나
시던 해에 뿌리를 박아서 부여 천년에 화신풀을 맞으며, 삼국이 성할
때에 봄빛을 자랑하고 고려 말년에 몽고의 침노하는 험한 운을 잠깐 당
하였으나 맹장열사의 칼이 필경 독립의 가치를 보호하여 무양케 하였
으며, 본조에 이르러서는 지나에 조공하는 치욕은 항상 받았으나 내지
외교의 도는 항상 자유로 하였더니.

계몽의 주체로서 지식인들은 단군을 선조로 하는 동일한 혈통과 역사를 공
유한 ‘신성한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관념의 맹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이전에는 ‘민족’이란 용어가 그다지
쓰이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인민·동포·국민 같은 용어와 큰 차이 없이 혼
용되고 있었다.⁴⁵⁾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
모두는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이란 관념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함께 싹튼
근대 계몽기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오늘날과 같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관념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맹아적 형태가 돌아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채호가 『독사신론』(1908)에서
한국 민족은 선비족·부여족·지나족·말갈족·여진족·土族 등 여섯 종족
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부여족이 다른 종족을 정복해 통합하였으므로 4천

43) 이혜진, 2006, 앞의 글, 57~58쪽; 정선태, 2006, 「근대계몽기 민족·국민 서사의 정치적 시학」, 『인문연구』 50, 154~156쪽.

44) 「논설」, 『대한매일신보』, 1909년 월 14일자.

45) 김동택, 2008,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민족’ 개념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11, 405쪽. 김동택에 따르면, 민족 용어가 사용된 빈도를 보면, 국한문본의 경우 1906년과 1907년 각각 26회와 47회였다가 1908년 139회로 급증하며, 한글본의 경우 1907년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08년 135회로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김동택, 같은 글, 415쪽.

년 우리 역사는 부여족의 흥망성쇠의 역사였다고 서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단일민족 관념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계몽기 위기의식의 산물로 짝튼 단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로서의 단일민족 관념은 일제하 이래로 국사 서술과 신문 논설, 그리고 강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⁴⁷⁾ 식민지로 전락한 한 해 뒤인 1911년에 민족주의 의식의 전파와 일제에 대한 저항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에서 펴낸 역사교과서 『大朝鮮史』를 통해 단일민족 의식은 계속 유포되어 나갔다.⁴⁸⁾ 이 책은 단군을 聖祖로 표현해 민족의 시조로 숭상하고 한국의 역사를 5천 년의 역사로 기술해 신화 영역에 머물렀던 단군을 역사적 실체로 부각시킴으로써 혈연공동체로서의 단일민족 관념을 생산·보급하였다.⁴⁹⁾

서양의 인문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일본의 국학자들의 후예들이 그러했듯이, 신채호나 최남선 같은 일제하의 지식인들도 고대사를 재구성해 민족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강력한 민족국가의 수립을 갈망하였다.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한 이후 박은식·정인보·최남선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단군을 정복영웅이나 자주문화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남선은 『불함문화론』과 『백두산근참기』 등을 통해 민족의 시조와 성산

46) 신채호, 1979, 『독사신론』, 안병직 편, 『신채호』, 한길사, 62쪽.

47) 김현숙, 2006, 앞의 글, 138쪽. 민족과 국가를 초역사적 실체로 만들어 온 국사서술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수걸, 2002,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기억과 역사의 투쟁 : 당대비평 특집호』 참조.

48) 김현숙, 2006, 앞의 글, 131~137쪽. 대성학교는 “민족정신의 고취와 민족성 개조에 치중하는 특수 훈련기관으로서, 민족운동가 양성 기관”이라는 목표하에 세워졌다. 주요한, 1984, 『안도산전집』, 삼중당, 62, 64쪽.

49) 김현숙에 따르면, “『대조선사』를 통해 이 시기 생산된 한국 민족의 이미지와 ‘상상된 공동체’의 신화는 바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한국 단일민족은 예로부터 광대한 영토를 영위한 제국으로서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불굴의 투지로 물리쳐 낸 용감한 단군의 후예라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 역사는 武의 역사이며, 피의 투쟁을 통해 주권, 독립회복을 독려하고 있는 실천적 저항 민족주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족 성원의 권리, 자유, 인권, 평등은 간과되는 것이다.” 김현숙, 2006, 앞의 글, 137쪽.

으로 단군과 백두산을 부각하고 한국인이 단일민족임을 강조함으로써 단일민족 의식을 확산시켰다.⁵⁰⁾ 그러나 “조선 민족도 純粹한 단일민족이 아니다. 인종적으로는 아리아족과 崑崙족이 혼합되었고 민족으로는 만주 제 민족 · 漢族 · 蒙族 등이 혼합되었다”고 한 김명식의 주장에 잘 드러나듯이, 민족보다 계급을 중시한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단일민족’ 관념을 부정하였다.⁵¹⁾ 이처럼 일제하에서 단일민족 관념에 대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긍부와 호오가 엇갈렸다.

IV. 광복 후 단일민족 관념의 신화화

식민지 시대에 유포된 단일민족 관념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민족주의의 핵심 논리로 기능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같은 시민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광복 후 남한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데 일조한 유전자로 기능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사가들의 역사 서술에 보인 단일민족 관념은 광복 후에도 이어졌다. 일례로 손진태는 “우리 민족은 지난 4, 5천 년 동안 만주와 반도라는 동일 지역 내에서 성장하였고, 동일한 혈족체로서 동일한 문화 속에서 변함없이 공동

50) 전성곤, 2006, 「최남선의 불함문화론 다시 읽기」, 『역사문제연구』 16, 69~88쪽.

51) 김명식, 1935,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삼천리』 7-1, 54쪽. 이 점은 김기진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김기진, 1925, 「十字橋 위에서」, 『개벽』 59, 29쪽. “箕子朝鮮 以前の 史實은 仔細히 물론다 하더라도 左右間 엇갯스나 神話的 傳說을 마더서 말하야 일은 바 檀君으로부터 箕子 40代 衛氏 3代 武帝 4郡과 三韓을 지나서 三國時代를 건너 新羅 高麗 朝鮮에까지 이르르는 所謂 半萬年 歷史를 確實히 물르기도 하려니와 또한 지금에 이르러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드러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民族이 單一民族이 아니고 蒙古族과 漢族으로 混成된 것인지 안인지도 또한 探根할 必要도 지금에 없다고 생각한다.”

운명체의 생활을 하여 온 단일민족이다”라고 썼으며, 이병도도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가든지 언어가 같고 풍속이 같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라 한다”고 서술하였다.⁵²⁾

특히 광복 이후 우파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단일민족을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수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⁵³⁾ 광복 두 달 후인 1945년 10월 김구는 임정요원 환영대회석상에서 “우리 민족 개개인의 혈관 속에는 다 같이 단군 성조의 성혈이 흐르고 있다”고 하거나,⁵⁴⁾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활동하던 1948년 초반에 다음과 같이 단일민족 감정에 호소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였다.⁵⁵⁾

이번 남북회담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많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으나 참으로 금차 회담에 큰 기대를 가져야 할런지 단언하기 어려움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과거 미소 양국의 힘으로서 조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상이 같고 피부가 같고 언어와 피가 같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앉아서 같은 민족정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나 하여 보자는 것이 진의이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깨끗이 조국통일독립에 바치려는 것이 금차 이북행을 결정한 목적이다. 금차 이북행에 있어 사실은 나의 운명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것이며 이것은 과거 金錫黃 문제에 아무 관계없는 나를 증인으로 출연시킨 것과 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을 볼진대 앞으로 나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며 5월 10일을 앞두고 그러한 위험성이 농후하

52) 손진태, 1948, 「자서」,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이병도, 1955, 「국사의 의의」, 『국사와 지도이념』, 삼중당.

53) 김수자, 2008, 「해방이후 우익 민족 담론의 공고화 과정(1945~1953)」, 『역사학보』 198, 89~112쪽.

광복 이후 단일민족 담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전개될 무렵 당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언론매체들이 한국이 자주적으로 국가를 세울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인이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임을 내세우면서부터이다. 김수자, 같은 글, 94~96쪽.

54) 「임정개선헌영대회」, 『동아일보』, 1945년 12월 20일자.

55) 김구, 「남북협상에 임하는 결의 표명」,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자.

게 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북조선에서는 김구는 김일성 장군에게 굴복하러 오느니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욕설도 많고 또 조선의 분열은 신탁통치를 반대한 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하나 나 역시 할 말이 없어 아니한 것도 아니며 다만 내가 서한을 보내되 조선 사람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니요 외인이 먼저 보는 관계로 해서 다만 좋은 말만 써서 보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이국 사람의 환경 아래 있다 하더라도 5천 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서로 같은 피와 피를 통해서 서로 통사정하여 보는 길밖에 이제는 남지 않은 것이다. 만일 내가 이번 북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김구는 통일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고 3천만 동포에게 전하여 주기 바란다.

이승만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본래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한 민족으로서 언제나 하나요, 둘이 아니다. 이 하나인 민족은 무엇이고 하나이어야 한다”고 하여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인 ‘일민주의’를 내세웠는데, 여기에도 단일민족 의식은 강력하게 표출되었다.⁵⁶⁾ 이 점은 그가 1948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연설한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에 잘 나타난다.⁵⁷⁾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전 세대를 통하여 동일한 혈통과 강토를 계승 보유하여 왔으며 공동한 문화와 운명을 창조 擔荷하여 온 우수한 단일민족입니다. 아득한 고대로부터 무수한 외부의 위협에 대하여는 항시 우리 조상 선인들은 鐵血의 英勇心과 견결한 민족의식으로 이를 극복 격퇴하였으며 안으로는 위대한 덕성과 창조적 자질로써 부단히 그 찬란한 예술과 발명으로 인류문화에 공헌 기여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역사를 관통하여 우리 민족의 불굴의 英勇性和 영민한 창발성은 지금도 우리의 혈관 속에 틀림없이 약동하고 있음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덕성과 우수한 자질은 이 강역이 불행히도 왜국에게 유린되었던 과거 40년간에도 연면히 承傳되어 한번 기미독립선언 시와 같이 민족의식 양양의 機轉에 당면하면 항시 그

56) 이승만, 1949, 『일민주의개설』, 일민주의 보급회, 46쪽.

57) 이승만, 1949, 「제1회 78차 국회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 『시정월보』 1, 4쪽.

본질을 顯現하여 정의와 인도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은 不可滅의 존재이며 대한국가 재생이 필연적임을 인식시켜 왔던 터입니다. …… 대한민국은 완전한 주권국가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독자성과 현실적 환경에 비추어 반드시 단일민족 국가인 것이며 결코 어떠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특권도 용허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민주의를 만들어낸 안호상은 이승만 정부의 초대 문교장관으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통해 단일민족의 관념이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머리 깊숙이 각인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⁸⁾ 중도세력인 안재홍도 당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단일민족 조국고토에서 다만 국제노력에만 끌려가고 있어 눈 멀건이 뜨고 민족이 분열 대립하여 패멸의 구덩이를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⁵⁹⁾ 광복 이후 단일민족 관념은 분단을 막아 남북통일을 이루려는 한국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것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당시 정치가들은 단일민족 관념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나 수사로 사용하였다.⁶⁰⁾ “만일 이전에 세계의 통일된 국가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조선이었습니

58) 서중석, 1997, 「이승만 정부 초기의 일민주의」, 『진단학보』 83, 155~183쪽; 연정은, 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활동」, 『역사연구』 12, 7~38쪽; 임종명, 2004, 「일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267~312쪽.

59) 안재홍,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내조와 국민의 태도에 대해 방송」, 『조선일보』, 1948년 1월 8일자.

60) 일례로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 파견되었던 수석대표 장면은 당시 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우리 한국인은 전부가 단일민족이고 따라서 자국애호가 외국에 대한 충성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은 희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였다. 장면, 1949, 「한국유엔대표, 유엔총회에서 한국승인을 요청하는 연설 내용」, 『시정월보』 2, 35쪽. 또한 1949년 1월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유엔한국위원단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정부를 수립하였고 舊臘 12일에는 유엔총회에서 세계민주주의 제 국가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으로 인한 38선은 수십 세기 동안 운명을 같이한 단일민족을 양분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면의 자유로운 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 장벽을 이루어 한국의 완전통일 수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하고 있

다. 조선은 단일민족으로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으며 동일한 전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단은 38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8선은 마땅히 철폐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적 분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중에는 조선은 단일체이며 결코 분단되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라고 한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회 임시의장 메논의 연설문에 여실히 보이듯이,⁶¹⁾ 우리 안을 넘어 국제기구 대표나 미군정 관계자에게도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⁶²⁾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현재적 시점에서 근대 계몽기에 단일민족 관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면서 우리 뇌리 속에 신화화된 역사기억으로 자리 잡아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한국사학계의 통설적 견해인 우리 안에 내재하는 단일민족 의식은

다. 『서울신문』, 1949년 1월 29일자.

(61) 「유엔조선임위 임시의장 메논, 위원단의 업무에 대해 방송」, 『동아일보』, 1948년 1월 22일자.

(62) 유엔한국위원단의 쌍 의장도 방북을 요청하는 대북 방송에서 “역사가 오랜 이 땅의 분할은 가장 부자연하고 비참한 사실임을 모든 한국 국민들이 시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분할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략적 요구에 의하여 生起된 것으로 평화시인 금일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존속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민들은 단일한 문화계승·전통·언어·풍속 및 습관을 가진 단일민족입니다”고 하였다(『경향신문』, 1949년 7월 1일자). 미군정의 마트 대령도 “조선인은 완강한 민족이다. 하여간 그들은 20세기 이상을 단일민족으로서의 개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들의 생활방식이 여러 번 외국의 위협을 당하였으나 다 무난히 통과하여 왔다. 그들의 특질과 개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일본인의 40년간 결심도 허무로 돌아갔다”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동아일보』, 1947년 2월 28일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형성되기 시작해 고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민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자연히 발생한 단위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의 단군과 기자 계승론은 화이관에 입각한 문명론이었지, 조선 사람 전체가 동일한 혈통집단이라는 점을 말한 것은 아니다.

둘째, 러일전쟁까지 당대의 대다수 지식인은 일본이 주창한 인종주의적 아시아 연대론에 함몰되어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황인종’ 모두를 ‘동포’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자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자, 망국의 위기에 맞서 충군을 대체한 대중 동원의 새로운 표상으로서 한반도의 주민들을 영토적·역사적 운명공동체로 묶는 민족 관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셋째, 계몽기의 위기의식의 산물인 단일민족 관념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까지 국사 서술이나 정치선동을 통해 지속되면서 초역사적 실체이자 역사기적으로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갔다. 또한 저항민족주의의 산물로서 갖게 된 집단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시민적 가치에 대한 간과 등은 광복 후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데 일조한 유전자로 기능함으로써, 단일민족 관념은 근대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나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냉전 붕괴 이후 북한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단군릉의 발견을 선전함으로써 흔들리는 지배체제를 강화하려 했듯이, 오늘날 남북한에서는 단일민족 관념이 근대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나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되기도 한다.

넷째, 민족의 동질성이란 의식이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한 것이라는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단일민족 의식이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고유한 혈통과 계보를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아 단일민족론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⁶³⁾ 그러나 오늘날 우리 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 모두는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이란 관념은 민족주의의

63) 신기욱, 이진준 역,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41~42쪽.

형성과 함께 싹튼 근대 계몽기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또한 일본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을 밝힌 오구마 에이치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일본에서 단일민족론은 이미 1880년대에 대두된 것이었다.⁶⁴⁾ 따라서 계몽기에 싹튼 우리의 단일민족론도 국가유기체론과 인종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독일식 낭만주의 민족이론과 정치이론의 영향 아래 형성된 일본의 단일민족론을 의식하면서 대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신화화된 단일민족 관념과 아직 충분히 자각되지 못한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현실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민족·인종·계급·성차(젠더) 등 모든 사회·문화적 울타리를 넘어 우리와 지향·이해·처지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열린 민족의식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한다.

64) 오구마 에이치, 조현설 역, 2003, 앞의 책, 54~55쪽. “일본민족론은 1880년대까지 두 조류를 형성했다. 하나는 일본민족은 후래의 정복자와 선주민족의 혼합이라는 혼합민족론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는 태고로부터 일본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혈통이 계속 이어졌다는 단일민족론이다. 사실 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민족 기원론은 이 틀의 변형에서 거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다문화 가정 품에 안는 교육지원 대책」, 2006년 4월 28일.
- 김구, 「남북협상에 임하는 결의 표명」,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자.
- 안재홍,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내조와 국민의 태도에 대해 방송」, 『조선일보』, 1948년 1월 8일자.
- 고미숙, 1999, 「18세기에서 20세기초 민족담론의 변이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13.
- 고자카이 도시아키, 방강석 역, 2003,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 권보드레, 2004,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 권용기, 1999,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
- 김동택, 2002,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 김동택, 2005, 「역사용어 바로쓰기 : 동포와 형제」, 『역사비평』 73.
- 김동택, 2008,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민족’ 개념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11.
- 김명식, 1935,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삼천리』 7-1.
- 김수자, 2008, 「해방이후 우익 민족 담론의 공고화 과정(1945~1953)」, 『역사학보』 198.
- 김영희, 1999, 「대한제국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과 양계초」, 『한국언론학보』 43-4.
- 김현숙, 2006,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1.
- 노태돈, 1992,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 노태돈, 2000,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노태돈 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박기현, 2007,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성씨』, 역사의 아침.
- 박노자, 2004,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 박정심, 2007, 「한국 근대지식인의 ‘근대성’ 인식 I : 문명 · 인종 · 민족담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52.
- 박찬승, 2002,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연세대학교출판부.
- 백동현, 2001, 「러 · 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 백동현, 2005,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와 근대 · 민족 담론」, 『내일을 여는 역사』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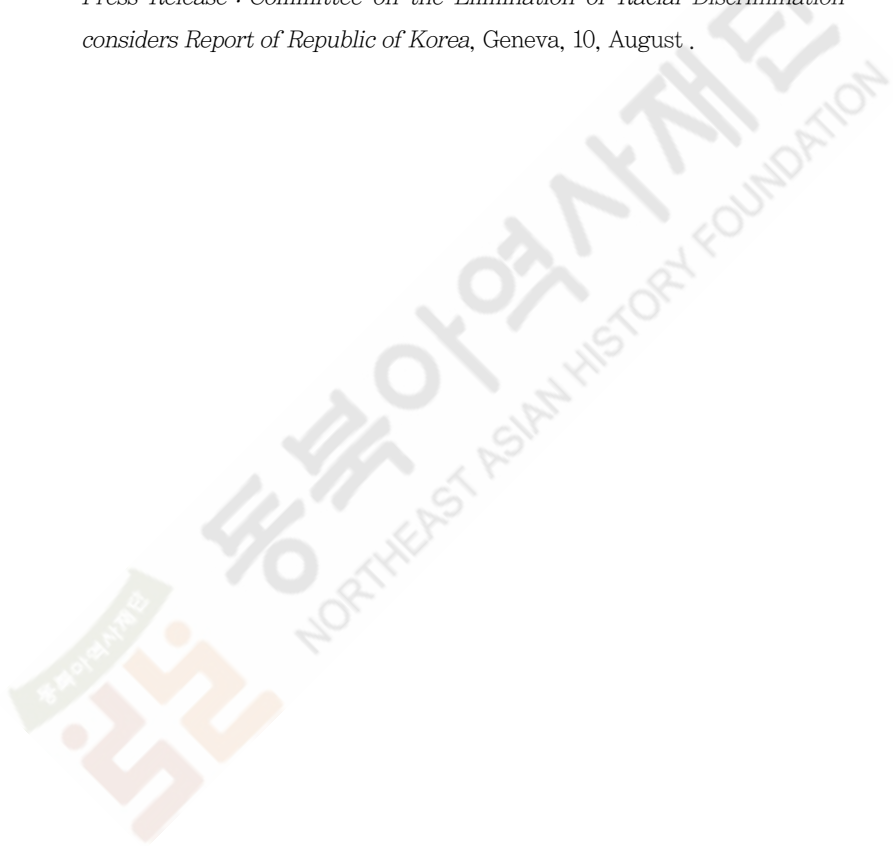
- 백영서, 1995,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 형성과 변용」,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 백영서, 1998, 「양계초의 근대성 인식과 동아시아」, 『아시아문화』 14.
- 서영대, 2000,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노태돈 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서영희, 2006, 「국가론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성격」, 한영우 편, 『대한제국은 근대 국가인가』, 푸른역사.
- 서중석, 1997, 「이승만 정부 초기의 일민주의」, 『진단학보』 83.
- 손진태, 1948, 「자서」,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 송중호, 2007,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
- 신용하, 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40-1.
- 신채호, 1979, 「독사신문」, 안병직 편, 『신채호』, 한길사.
- 에릭 홉스봄, 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연정은, 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활동」, 『역사연구』 12.
- 오구마 에이치, 조현설 역,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 우남숙, 2007, 「양계초와 신채호의 자유론 비교」, 『동양정치사상사』 6-1.
- 유영익, 1992, 「개화파인사들의 개신교 수용 양태」, 『한국근현대사론』, 일조각.
- 윤치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윤치호일기』 5, 탐구당.
- 윤치호, 송병기 역, 2001, 『국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희동, 2007,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 이광린 등, 1986, 『대한매일신보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기동, 2002, 「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 : 총설』, 국사편찬위원회.
- 이기동, 2003, 「독자에게 드리는 글」,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 이병도, 1955, 「국사의 의의」, 『국사와 지도이념』, 삼중당.
- 이선민, 2008,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만, 1949, 「제1회 78차 국회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 『시정월보』 1.
- 이승만, 1949, 「일민주의개술」, 일민주의 보급회.
- 이지명, 2002,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본 도덕과 민족담론의 양상」, 『국민윤리연구』 51.
- 이혜진, 2006, 「근대 계몽기 ‘민족’의 탄생과 ‘국민’의 거처」, 『인문연구』 50.
- 임종명, 2004, 「일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 임지현, 1999,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주의는 반역이

- 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임지현, 2000, 「민족담론의 스펙트럼 : 원초성, 근대성, 탈근대성」, 『안과 밖(영미문학 연구)』 8.
- 임지현, 2004, 「국사의 안과 밖」, 임지현 ·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장면, 1949, 「한국유엔대표, 유엔총회에서 한국승인을 요청하는 연설 내용」, 『시정월보』 2.
-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4.
- 장인실, 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 전동현, 2004, 「대한제국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개념의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21.
- 전동현, 2005, 「청말 양계초의 대한제국기 한국 인식」, 『중국사연구』 34.
- 전성근, 2006, 「최남선의 불함문화론 다시 읽기」, 『역사문제연구』 16.
- 정선태, 2006, 「근대계몽기 민족 · 국민 서사의 정치적 시학」, 『인문연구』 50.
- 조정남, 2001, 「일본의 단일민족 정책」, 『민족연구』 7.
- 주요한, 1984, 『안도산전집』, 삼중당.
- 지수걸, 2002,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기억과 역사의 투쟁 : 당대비평 특집호』, 삼인.
- 최강민, 2006,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어문논집』 35.
- 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의 탐구』 24.
- 한경구 · 한건수, 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 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운영과제 07-7』.
- 한경구, 2008,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젠더리뷰』 8.
- 한국언론사연구회 편, 2004,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동현, 2000, 「100년 전의 실패」,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 허동현, 2005, 「대한제국의 모델로서의 러시아」, 정성화 등,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 허동현, 2006,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1.
- 허동현, 2007, 「대한제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국사연구』 139.

허동현, 2008, 「근현대사와 열린 민족주의」, 『우리 역사 길라잡이』 2, 국사편찬위원회.

Smith, Anthorny D., 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New York : Basil Blackwell Lt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 *Press Release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s Report of Republic of Korea*, Geneva, 10, August .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Myth on the Ethnic Homogeneity in Modern Korea

Huh, Donghyun

This study looks into when the deep-rooted conception of the ethnic homogeneity of being one race of Dangoon began and how this conception has become a common sense and myth among contemporary Korean. Based 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is concep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as below :

First, the conception of the ethnic homogeneity is the invention of tradition in the modern as the result of the nationalism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in the late 1900s. Accordingly, this view challenges the common belief spread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that such a view has existed for more than 1300 years since it was formed right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by Shilla and completed in Korea dynasty. This is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unify all the people in a top-down manner with such a concept during the premodern era when there was explicit class discrimination. Furthermore, the idea of Koreans being the race of Dangoon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Three Koreas during the Chosun Dynasty also stems from the theory of the civiliz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Chinese and its neighboring races. Accordingly, such a view does not mean that all the people in the Chosun Dynasty were homogeneously tied to one blood or race.

Second,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the ethnic homogeneity began in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1905–1910)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intellectuals in the Chosun Dynasty had no choice but to make a desperate effort to create the myth of ‘one-race’ after realizing their destiny after Japan won against Russia, which provides a good rationale that the term of ‘ethnicity’ and the nationalism as an ideology had been formed at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righ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other words, instead of being loyal to a king, it was necessary to create a grand and robust view of the ‘ethnicity’ as a key signifier to mobilize the people though the discursive practic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is is the very reason that the idea of ‘one-race’ has been used as a means to homogenize the Korean people by homogenize them as a group sharing a common destiny.

Third,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idea of ‘one-race’ formulated in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was due to the Japanese’ view of ‘one-race’ influenced by the theory of organic nation or ethnic particularities based on the German’s romantic nationalism or political theories. The main body in the Enlightenment movement constructed an ‘holy race’ in which all Koreans are the descendants of Dangoon, they created a myth of all Koreans sharing the same blood and history.

Fourth, the idea of the ethnic homogeneity functioned as the symbol of resistant nationalism against the Japanese in the colonial period. As North Korea made an effort to bolster their hegemony by spreading the propaganda of finding the Dangoon tomb after the Cold War,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used this view of ‘one-race’ as the tool to ensure their identity as a modern state or their political

power and domination.

Last, the idea of Koreans as ‘one-race of Han with the same blood, language, and culture’ is repeatedly recycled in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textbooks and transforms the people’s memory on their history on a massive scale. Such a practice has turned the conception of the ethnic homogeneity as a trans-historical hyper-reality and a mythicized collective memory.

keywords

Dangoon, collective memory, the ethnic homogeneity, ethnicity, one-race, nationalism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유용태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원래 “中土”와 “中央之國”을 의미하는 “中國”의 범위는 유사 이래 끊임없이 팽창과 축소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국가로서의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광대하고 유구한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中土와 中央之國으로서의 中華帝國은 四土와 四邦을 흡수·정복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다원성을 광범하게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세기 정복사업을 통해 형성된 淸帝國이 특히 그러한데, 서방의 제국처럼 다수의 민족국가로 분리되지 아니한 채 근대국가로 전환하였다. 그 문화적 다원성의 담당 주체가 種族·民族이라면 원래 그것은 현재 중국 당국이 공식 인정한 56개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된 國定民族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당국의 시각은 갈수록 그 種族性(ethnicity)을 부각시키되 그 民族性(nationality)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56개 민족을 ‘민족’이 아니라 ‘族群(ethnic group)’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민족사

무'의 영문표기를 Nationalities Affairs에서 Ethnic Affairs로 바꾼 것 등이 그런 예이다.¹⁾ 이는 이른바 “多元一體格局論”으로 포장된 “中華民族”이 자각적 실체로서 확립되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안에서 유일한 민족은 중화민족 하나뿐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따라서 종래 당연시해 오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도 “일민족” 국가론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될 터이다. 그렇다면 중화민족 혹은 통일적 다민족은 56개 族群으로 구성된 다원적 단일민족이라는 뜻이고, 이때의 다원성은 곧 種族性인 셈이다.

이 글은 근대 중국에서 이 같은 단일민족론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탐색하여 그 안에 내면화된 제국성의 구조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20세기 벽두에 “중화민족”론으로 나타났는데, 1903~1922년 사이에 梁啟超와 孫文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淸帝國 판도 안의 漢族과 모든 異族을 포괄하는 ‘하나의 大民族’을 의미하였다.²⁾ 당시 동아시아에는 一民族이 一國家를 형성해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가장 유리하며 국가유리에도 합치한다는 독일의 민족론이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었다.³⁾ 이런 믿음이 반영된 單一大民族論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입헌파와 혁명파에 공유된 인식이었고, 民國시기 국공 양당의 중화민족론으로 계승되었다. 政派와 상관없이 그들의 민족론은 모두 동화와 융합에 의해 단일민족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다만 그 안에 단일민족 구성분자의 민족성을 인정하는 다민족결합의 것인가 아니면 종족성만을 인정하는 다종족결합의 것인가의 분기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근대 중국의 민족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단일민족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예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 黃帝

1) 馬戎, 2004, 『民族社會學』, 北京大學出版社, 55, 60~67쪽.

2) 朴章培, 1992, 「『中華民族』 概念의 形成에 對한 小考-淸末民國前期(1899-1928)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黃興濤, 2002, 「“中華民族” 概念萌生與形成的歷史考察」, 中國史學會 編, 『辛亥革命與20世紀的中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柳鏞泰, 2005. 12, 「中華民族論과 東北地政學: “東北工程”의 논리근거」, 『東洋史學研究』 93집.

3) 朴尙洙 外, 2005, 『東아시아 近代 ‘네이션’ 概念의 受容과 變容』, 高句麗研究財團, 95~97쪽.

神話を 이용해 중화민족의 공동조상을 창안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연구가 예외적으로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⁴⁾ 이 과정에서 흔히 排滿혁명파의 “驅除韃虜 恢復中華”는 滿蒙回藏苗 諸族을 배제한 漢族國家의 再造라고 이해되었다.⁵⁾ 이런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은 대부분 혁명파가 신해혁명 직후 排滿論을 포기하고 五族共和論으로 선회하였다고 보았으나, 특히하게도 손문이 죽기 직전까지 줄곧 漢族만의 단일민족국가 형성을 추구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 최근 1919~1921년에 孫文 등은 민족융합론에 의거해民国 초의 5족공화론을 부정하고 ‘하나의 중화민족’론을 주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⁷⁾ 요컨대 입헌파의 민족론과 달리 혁명파의 민족론은 세 차례(청말-민국 초-5·4 이후)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선동과정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내면적 지배논리면에서는 그들도 동화와 융합을 통한 대민족형성론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 그래야만 그에 의거해 청제국의 판도를 유지하면서 근대국가의 행정체제를 확장하려는 목표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필자는 혁명파의 민족론을 재검토할 것이다.

4) 千聖林, 2005. 12,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20세기 중국의 ‘黃帝’와 中華民族 만들기」, 『大邱史學』 81輯;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3期; 沈松橋, 1997. 12, 「我以我血 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 28기; James Leibold, 2006, “Competing Narratives of Racial Unity in Republican China: From the Yellow Emperor to Peking Man,” *Modern China*, Vol. 32-2, April.

5) 朴章培, 1992, 앞의 글, 21~24쪽; 白永瑞, 2000, 「中國의 國民國家와 民族問題」, 『동아시아의 歸還』, 창작과비평사, 74~76쪽; 朱況源, 1985, 『同盟會的革命理論: ‘民報’個案研究』,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章; 松本眞澄, 2003, 『中國民族政策之研究-以清末至1945年的民族論爲中心』, 北京: 民族出版社, 6쪽; Suisheng Zhao, 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p. 22; 耿云志, 2007, 「孫中山民族主義思想的歷史演變」, 鄭大華 外 主編, 『中國近代史上的民族主義』,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4~108쪽.

6) John Fitzgerald, 1999, *Awakening China: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Nationalist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80~185.

7) 裴京漢, 2000.2, 「신해혁명 직후 몽골독립에 대한 孫文과 革命派의 대응」, 『人文科學』(성균관대학교) 30집, 332~336쪽; 王柯, 2006, 『20世紀中國的國家建設と“民族”』, 東京大學出版會, 75~113쪽.

이렇게 청제국의 제국성을 그대로 내포한 채 근대적 국가지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형성된 중화민족론은 “민족제국주의”론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군주입헌제 개혁으로 제국의 재조를 꾀하면서 중화민족론의 토대를 닦은 梁啓超가 동시에 민족제국주의를 앞장서 주창한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거의 기울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러 외면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민족제국주의는 자본제국주의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자본주의 발전단계로서의 제국주의론이 수용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근래에 제국과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의 해외 팽창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국가지배의 영역과 그 강도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측면으로부터 접근하여 이민족과 異域을 위계적으로 포함하는 통치형태를 드러내려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⁸⁾ 단일민족론이 청제국의 제국성을 재현하려는 의도와 결부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시각에서의 접근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청말-민국시기 제국성을 내면화한 채 형성되어 전개된 단일민족론의 형성과 전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당시 중국인의 민족인식을 문화민족과 국가민족의 두 범주와 관련해 검토한 후 당시 중국의 민족론이 왜 어떻게 민족제국주의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일민족론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中土와 다른 四土의 시각에서, 中土의 논리에 의거한 민족인식의 제국성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민족인식의 이중성 :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중국 문헌에서 ‘민족’이란 용어는 아편전쟁 전에도 쓰였지만 외부집단에 대한

8) 山本有造 編, 2003, 『帝國の研究』 1~2장, 名古屋大學出版會.

他稱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중국인 자신에 대한 自稱으로서 淸朝의 국가 범위에서 파악되어 인식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국가 차원의 민족적 결집이 당면한 급무로 추구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신해혁명(1894~1911) 시기이다. 당시 가중되는 대외위기 속에서 사회진화론과 사회유기체설 및 群學의 영향도 받으면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며 그 단체를 얼마만큼 신속히 크고 강하게 형성하는가가 국력의 정도를 규정짓는 요체라고 인식되었다. 이 같은 단체결성은 당시에 合群이란 용어로 표현되었고 그 목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민국가의 형성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合群救國論인데, 그에 의거한 국민국가 형성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帝國性을 내포한 채 제기되어 전개되었다. 가령 康有爲는 단체결성을 지역과 직업 양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種族主義를 넘어서 漢滿蒙回藏族의 合群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⁹⁾ 이는 합군의 최종 단계가 중국 경내의 모든 種族을 아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梁啓超가 말한 “大民族”으로서, 이윽고 그와 손문을 포함한 여러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中華民族”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게 된다. 이는 약육강식의 주체를 種族으로 간주하여 “種戰”을 당연시하던 종족론적 사고로 인해 合群保種의 소리가 높아졌던 시대사조를 반영한다.¹⁰⁾ 중국 전통의 大一統論과 大同論도 이런 사유를 밑에서 떠받쳤으니 合種의 논리가 입헌파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출되고 전개된 것이다.¹¹⁾ 혁명파의 章炳麟도 亞洲和親會 성립에 즈음하여 모든 아시아 黃種이 단결하여 異種의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邦族을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심지어 黃帝의 黃色 이미지에 기대어 그것을 중국인이 아닌 아시아 전체 黃種 공통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상징부호로 삼자는 주장까지 나돌았다.¹²⁾ 이것이 중화민족

9) 柳鏞泰, 2007. 12, 「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 1901-1919」, 『東洋史學研究』 101집, 253~263쪽.

10)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의 神話』, 東京: 岩波書店, 35~68쪽; Peter Zarrow, 2006. 6, 「Liang Qichao and the Coceptualization of “Race” in Late Qing China」,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52기, 124~132쪽.

11) 安靜波, 1999, 「論梁啓超的民族觀」, 『近代史研究』 3기, 281~298쪽.

12) 沈松僑, 1997. 12, 앞의 글, 58~59쪽.

을 種族主義的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으려 한 주요 배경이다.

중국인이 자신을 민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이처럼 근대의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민족은 “市民的民族” 개념과 거리가 먼 “種族的民族”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전자가 “국가민족(state-nation)”이라면 후자는 “문화민족(culture-nation)”이라 할 수 있다.¹³⁾ 문화민족 개념에의 정도는 排滿革命派이든 容滿立憲派이든 근대 중국 사상계의 중심인물들의 민족론에 뚜렷하게 남겨져 있다.

입헌파의 양계초는 1903년 블룬츨리의 정의에 따라 8대 특질(동일한 거주지, 혈통, 신체형상, 언어, 문자, 종교, 풍속, 생계)을 갖춘 집단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他族과 구별하여 고유의 성질을 갖는 하나의 특수한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 이를 민족이라 한다고 하였다.¹⁴⁾ 입헌파와 논전을 펼치던 혁명파의 汪精衛는 1905년 민족이란 6대 특질(동일한 혈통, 언어문자, 거주지, 습관, 종교, 정신체질)을 갖춘 지속적인 인류단체라고 정의하였다.¹⁵⁾ 이 둘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둘 다 요즘 말로 種族(에스닉 그룹)에 가까운 개념이며 전통적 族類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⁶⁾ 이는 민족의 정의에서 인식주체의 주관적 요인보다 객관적 요인을 중시한 것이며, 동일한 정치공동체가 민족을 형성한다는 “國家民族” 개념보다 동일한 문화습속이 민족을 형성한다는 “文化民族” 개념에 가깝다. 아마도 블룬츨리의 정의를 전해 준 일본 사상계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族類가 아니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르다(『左傳』)”는 華夷大防의 논리와 “오직 교화가 있을 뿐 族類의 구별은 없다(『論語』)”는 華夷一統의 논리를 양날의 칼처럼 사유의 밑바탕으로

13) 문화민족과 국가민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고유경, 2003,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통일 이전 독일 민족형성의 길」, 『梨花史學研究』 30집 참조.

14)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1903), 『梁啓超全集』 2冊, 1999, 北京出版社, 1067쪽.

15) 精衛, 1905, 10-11, 「民族的國民」, 『民報』 1-2期; 張枬·王忍之 編, 1978,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이하 『辛亥選集』으로 줄임),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권 상책, 83쪽.

16) 漢籍에 빈번히 등장하는 “族類”란 용어가 전근대 민족 개념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彭英明, 1985, 「關於我 國民族概念歷史的初步考察」, 『民族研究』 2기, 5~7쪽 참조.

삼아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좌전』의 논리는 種族主義의 색채가 강하고 『논어』의 논리는 文化主義의 색채가 강하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런 종족적·문화적 의미의 민족이라면 그것이 굳이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등장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요컨대 국가주의가 아니라 문화주의, 市民的 기준이 아니라 種族的 기준이 강렬한 사유배경 속에서 민족인식이 진 행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계초와 왕정위는 현실의 만주족을 정 반대로 인식하였다. 양계초는 8대 특질의 기준에 따라 보아도 만주족은 이미 한족에 동화되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혈통은 다르나 문화가 같아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8대 특질 중 거주지를 혈통보다 우선 하여 가장 앞자리에 두었을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인식에 의거하여 容滿君主立憲論을 펼쳤다. 반면 왕정위는 위의 6대 특질을 가지고 만주족은 분명히 다른 민족이라고 구분하여 만주족 통치의 타도를 외치는 排滿共和革命論을 펼쳤 으니 그가 혈통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여 가장 앞자리에 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중대한 분기는 민족 개념의 차이라기보다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유 래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민족’ 개념만을 가지고는 다민족 현실의 근대국가 건설과 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에 ‘국민’이란 개념 이 이 같은 “문화민족” 개념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양계초는 블룬슬리의 견해를 따라 국민은 국가 안에서 생존하는 법률체로서 인격이자 法團이며, 따라서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는 인격이나 법단이 될 수 없고 단지 민족일 뿐이지 국민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한만몽회장을 합하여 하나의 大國民을 만들자”는¹⁷⁾ 주장이 “한만몽회장을 합하여 하나의 大民族을 만들자”는 주장보다 논리적으로 더 타당해 보이지만 뒤에 보듯이 후자 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17) 1907년 『大同報』의 주장인데, 沈松橋, 1997. 12, 앞의 글, 67쪽은 이를 “國民主義”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시 청조 국가는 앞에서 살펴본 문화민족 개념에 따르면 분명히 多民族國家이지 一民族國家가 아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가 문제로 떠오른다. 그에 따르면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一民族一國家로서 민족의 立國은 반드시 그 同族의 인민을 모두 남김없이 포괄하여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성립해야 한다. 이는 민족이 곧 국민인 단일민족 국가이다. 둘째, 多民族一國家로서 서로 다른 다수의 민족을 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족 간 내부갈등의 폐단이 많아 강력한 중심민족이 諸族을 통어해야 비로소 국가의 기초가 견고해질 수 있는데, 모든 세계문명은 여러 종류의 민족이 서로 교육하고 뒤섞여 발전된 것이므로 利點도 적지 않다. 따라서 폐단을 줄이고 이점을 키우려면 국내의 여러 민족을 연합(중국에는 同化로 바뀜)이나 전쟁을 통해 '하나의 新民族'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⁸⁾

현실에는 이 두 유형으로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민족이 여러 국가로 분할·분산되어 있는 경우인데, 각 국가가 그 인민을 하나의 新民族으로 만들어 本族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거꾸로 한 민족임을 근거로 각 국가를 아우르는 하나의 대제국을 형성하는 길이 있다. 또 국내 각족이 자신의 의지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 분리하는 길도 있다. 양계초 스스로 “어느 민족이든 고유한 立國意志와 이를 실행할 힘”을 가졌다면 자신의 국가를 창립할 수 있다고 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앞의 경우와 상응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상의 네 가지 경우를 관통하는 논리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그것은 1민족 1국가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민족을 창출하는 길도 불가피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문화공동체를 넘는 제국정책과 국가범위를 넘는 제국정책을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렇게 형성되는 “신민족”은 문화민족 개념이 아니라 국가민족 개념에 가깝다. 이 국가민족 개념의 도입이 뒷날 그가 소수민족의 독립을 부인하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는 모태가 될 터이다.

18)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1903), 『梁啓超全集』2冊, 1068쪽.

주목되는 것은 양계초가 국민의 3대 요건으로 중시한 개인의 자유, 평등, 전체의 동의를 민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점이다.¹⁹⁾ 그러니까 그에게서 민족은 반드시 인민주권을 전제로 하는 근대민족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입헌제 아래에서는 이민족도 똑같은 국민이며 자유경쟁으로 정치능력의 우열을 다투어 정치능력이 고도한 민족이 정치상의 세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가 되면 이는 국민 개인의 경쟁이지 민족 간 경쟁이라 하기 어렵다.”²⁰⁾ 그러니까 일단 국민이 형성되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면 민족의 의미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 사이에 민족의 동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적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 다민족 현실과 충돌할 뿐 아니라 앞서 그가 당초 정의한 문화민족 개념과도 모순되지 않을 수 없다.

왕정위 등 혁명파의 문화민족 개념도 마찬가지로 다민족국가 현실의 필요와 괴리되어 있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그는 민족과 국민의 관계를 ㉠ 1민족 1국민의 유형과 다민족 1국민의 유형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도 ㉡ 여러 민족이 각기 고유문화를 유지한 채 정치적 통일만을 이룩한 경우, ㉢ 여러 민족을 합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동화하고 이를 하나의 국민으로 삼은 경우로 나누었다.²¹⁾ 결국 ㉠은 오늘날 중국 당국이 중화민족론에 의거해 스스로 자처하는 다민족 통일국가 유형에 속한다면, ㉡와 ㉢은 1민족 1국민의 통일국가 유형에 속한다. 그는 후자를 “민족적 국민”, “민족적 국가”라고 불렀다. 이러한 1민족 1국가주의는 당시 민족론의 주류였다. 1903년 『浙江潮』는 “同種을 합하고異種을 분리시켜 一民族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 유럽 열강의 입국의 근본이라고 하였다.²²⁾ 陳獨秀도 “일국의 인

19) 위의 글, 1066쪽.

20) 「申論種族革命與政治革命之得失」(1905), 『梁啟超全集』 3책, 1659쪽.

21) 이때 그의 민족개념은 人種學上的 용어로서 혈통, 언어문자, 거주, 습관, 종교, 정신체질 등이 같은 지속적인 인류집단을 지칭한다. 그에 비해 국민은 法學上的 용어로서 국가의 구성분자를 지칭한다. 精衛, 1905. 10-11, 앞의 글, 83~84쪽.

22) 「民族主義論」, 『浙江潮』 1-2기, 『辛亥選集』 1권 하책, 486~488쪽.

민은 반드시 種類, 역사, 풍속, 언어가 같은 민족이어야지 결코 여러 種의 민족이 난잡하게 일국 안에 거주해서는 서로 편안해질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양 각국에서는 모두 一種의 인민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건립하여 他種人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국가주의이다”고 하였다.²³⁾李大釗도 “인류가 일민족 일국가를 형성한 것은 각기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우리 청년들은 “白首中華”를 “青春中華”로 再造하여 中華의 一民族一國家主義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백수의 민족과 국가를 청년의 민족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다름 아닌 중화의 再造, 중화의 回春이었으니 결국 그도 중화민족과 중화국가의 재조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었다. 손문조차 그의 사상이 가장 완숙한 경지에 다다른 1924년 시점에서 민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력”이라고 단언하였는데, 그 자연력이란 혈통, 생활, 언어, 종교, 풍속습관 등 5대 특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족의 문화적 동화력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秦漢 이래 중국은 1민족 1국가를 형성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民族이 곧 國族이며 민족주의는 곧 국족주의라고 보았다.²⁵⁾ 모두 종족적·문화적 민족 개념이 강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당시 중국인의 민족인식은 최근 사회과학자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겔러에 따르면 민족은 앞에 든 8대·6대·5대 특질과 같은 공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을 지칭하는데, 근대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문화적 단위와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를 민족주의라 하였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민족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민족주의는 근대에 비로소 등장한 것이 된다.²⁶⁾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인민주권설을 전제한 근대민족 개념이 수용되기 전에 이 같은 종족적 민족 개념

23) 三愛, 1904. 5. 1, 「論國家」, 『安徽俗話報』 5기, 3쪽.

24) 李大釗, 1916. 9. 1, 「青春」, 『新青年』 2권 1기, 5~7쪽.

25) 「三民主義：民族主義」(1924. 1), 『孫中山全集』 9권, 1986, 中華書局, 185~188쪽.

26) 어네스트 겔러, 이재석 옮김, 1988,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8~16쪽.

이 정착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된 근대민족도 종족성을 배제한 시민적 민족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필연적으로 시민적이며 종족적인” 민족이다.²⁷⁾

그런데 이러한 1민족 1국가주의의 민족·민족주의론에 따르면 현실 중국의 국가를 지켜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왕정위나 손문이 위의 민족 개념에 이어 민족동화를 극히 중시한 것도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전술인데, 논리적으로는 배만혁명론과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기보다 이민족 왕조를 전복하고 정권장악을 꾀하려는 저항논리와 다민족 현실 사이의 괴리를 넘어서려는 양날의 칼일 뿐이다. 뒤에서 검토할 동화론은 집권 이후의 지배논리이고 排滿革命論은 執權을 위한 저항논리이다. 이 괴리를 돌파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는 용어를 수용해 제시된 전술이 양계초의 민족제국주의이다.

III. 민족인식의 제국성 : 민족제국주의

양계초는 당시의 세계대세를 민족주의에서 민족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국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그는 1902년, 漢代에 흉노의 침략을 막아내고 서역을 개척한 위인 張騫과 班超의 전기를 써서 보급하였는데, 이 두 인물은 “華族(혹은 黃帝의 자손을 뜻하는 黃族이라고도 표기)의 위세를 域外에 떨친 걸출한 偉人”이며, “실로 우리 민족제국주의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模範人格”이라고 찬양하였다.²⁸⁾ 이어서 그는 “현재 서양 열강의 동방정책은 반초가 전에 西域을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인

27) 안쏘니 스미스, 이재석 옮김, 1997,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140쪽.

28) 「張博望班定遠合傳」(1902), 『梁啟超全集』 2책, 806~807쪽.

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반초 같은 인물이 천 년이 지나도록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면서, 이제 華族도 이들의 활약을 본받아 라틴민족이나 튜튼민족처럼 식민지를 영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가 반초의 西域經略과 근대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파악하여 이를 민족제국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민족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예상을 깨고 德에 의한 교화가 아니라 軍國民主義·軍國主義였으며, 이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戰國七雄 중 “趙의 武靈王이 軍國民主義로 10년 만에 四方八方을 정벌하여 趙를 당시의 일등국가로 만들었다”²⁹⁾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양계초가 파악한 민족제국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강대민족이 스스로 약소민족 거주지로 移植해 들어가 그 땅을 탈취하는 것으로 영국이 그 대표이다. 둘째, 강대민족이 동화력으로 약소민족을 받아들여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미국이 대표이다.³⁰⁾ 그에 따르면 당시 세계는 국가 간 경쟁으로 제국이 성립되고 제국 간 경쟁으로 대제국이 성립되어 마침내 대제국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며 이것이 민족경쟁의 대세였다. 과거의 제국이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민족제국은 민족의 생존욕구와 팽창에 의해 주도된다. 그는 이러한 민족제국이야말로 “天然에 합치하는 국가”라고 간주하고 중국이 이를 건설한다면 “天下第一帝國”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였다.³¹⁾

이런 필요에 따라 그는 1903년 제국정책에 의한 대민족의 형성이란 건국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他族에 대한 漢族의 小民族主義 외에 국내 本部和 屬部の 諸族을 합하여 국외의 諸族에 대항하는 大民族主義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帝國政策을 취하여 漢滿蒙回苗藏을 합하여 하나의 大民族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한

29) 「黃帝以後第一偉人趙武靈王傳」(1902), 위의 책, 810~811쪽.

30) 「論民族競爭之大勢」(1902), 위의 책, 887쪽.

31) 위의 글, 895, 899쪽.

다”고 주장하였다.³²⁾ 이 “대민족”이 1905년 그 자신에 의해 “중화민족”으로 개명되었고³³⁾ 뒤에 보게 되듯이 1907년 楊度和 1912년 孫文도 이를 따르게 된다. 그 이전의 ‘중화민족’은 모두 漢族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양계초의 대민족론에는 이미 중화민족론의 기본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外勢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제국정책에 의한 대민족의 형성이라는 강렬한 팽창주의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민족주의의 주체는 漢族이나 대민족으로 한정되어, 漢族에 대한 소수민족의 小民族主義는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이다. 뒤에 분명해질 중화민족론의 밑바탕에 자리한 팽창주의와 ‘민족의 專有’는 여기서 사실상 원형을 거의 갖춘 셈이다. 이는 그의 표현대로 민족제국주의라 할 만하다.

이때 민족제국주의론이 주창된 배경에는 제국일본의 국가정책과 사상계의 동향도 작용하였다. 명치 후기 일본 자유주의자들에게 문명화의 상징인 입헌주의는 제국주의와 内外의 관계로 파악되어 불가분의 일체로서 수용되었고,³⁴⁾ 이는 일본에 머물던 양계초와 손문 등 중국의 개혁파·혁명파가 제국지향의 대민족론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계초는 「민족경쟁의 대세를 논함」의 서두에 浮田和民의 『제국주의의 이상』 등 몇 권의 일본 서적을 참조하였음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의식 자체는 이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모두 전통적 중화제국의 제국성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秦漢帝國 이래 중국의 皇帝는 동시에 천하의 통치자라는 天子의 지위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한족 이외의 타민족과 4夷를 한족 중심의 제국의 지배하에 두거나 세력범위에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帝國性이라 한다면 제국성의 확보 여부가 중국 정

32)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1903), 위의 책, 1069~1070쪽.

33)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1905), 『飲氷室合集』 8책(專集 41), 1989, 北京: 中華書局, 4쪽.

34) “밖으로는 帝國主義, 안으로는 立憲主義가 黨派의 차이를 떠나 日本國民의 大主義 大方針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1902년 6월 『太陽』에 게재된 것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榮澤幸一, 1968, 「帝國主義成立期における浮田和民의 思想的特質」, 『歷史學研究』 332號; 石川禎浩, 1999, 「梁啓超と文明の視座」, 狹間直樹 編, 『梁啓超』, 東京: みすず書房, 120~122쪽.

통왕조 여부, 그리고 그러한 정통왕조의 수장으로서의 天子의 지위와 직결되었다.³⁵⁾ 여기에 조공국을 많이 거느릴수록 天子의 권위가 커진다는 관념도 가세하였는데, 이제 조공국은 근대 조약체제의 힘에 의해 떨어져 나갔으니 청조 전성기에 무력으로 확보된 이민족 지역은 세계적인 제국경쟁시대에 중화제국 재건의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국가적 공간이 된다. 1820년대 龔自珍 같은 경세가들이 위급족 자신의 자치에 맡겨져 있던 回部에 省을 설치해 내지 18성과 같은 군현지구로 편입하자는 식민주의적 西域建省論을 제기한 것은 그 전 주국에 해당한다.³⁶⁾ 양계초는 손문과 달리 청제국의 전복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면서 근대국가 건설을 도모한 군주입헌론의 입장에 있었기에 전통적 중화제국을 근대적 중화제국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의 가장 적합한 담당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누구보다 앞서서 그가 중화민족론과 민족제국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상적 역사적 배경이다.

양계초는 그러한 제국 재조의 모델로 미국민족을 제시하고 동화·융합(그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에 의한 대민족 형성을 중국 국가건설의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미국민족이란 원주민 인디언을 거의 멸절시키고 흑인 노예를 부리는 위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 입헌제를 통해 인민주권을 제도화함으로써 형성되었다. 1910년 그는 이 모델에 따라 몽골, 청해, 서장은 한족거주지와 종족, 언어문자, 습속상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이들을 합하여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입헌제의 도입이라고 하였다.³⁷⁾ 楊度도 만족은 이미 한족과 별 차이없이 동화되었지만 몽회장 3족은 여전히 宗法社會 단계에 처해 있으니 입헌제 실행으로 “하나의 국민”을 형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입헌으로 “漢滿을 一家로 만들어 몽회장 지역에 大殖民을 행하여 몽회장이 동화되면 그 이름은 없어질 터이니 수천 년간 萬種을 혼

35) 王柯, 2003, 「帝國と民族」, 山本有造 編, 앞의 책, 204~209쪽.

36) 유장근, 2004, 「清末 개혁가의 식민주의－龔自珍의 西域建省論을 중심으로」, 『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신서원, 413~454쪽.

37) 「中國國會制度私議」(1910), 『梁啓超全集』 4책, 2126쪽.

합한 中華民族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⁸⁾ 容滿입헌론 속에도 종족적 위계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입헌이라는 인민주권의 원리가 민족동화의 수단이자 민족제국주의의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문 등 배만혁명파의 민족주의는 민족제국주의와 무관한 것인가? 한족을 1민족으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려 하였는가? 嚴復은 “오늘 合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排外를 말하며 심지어 排滿을 외친다”면서 合群救國論에 의거해 혁명파의 배만론을 비판하였다.³⁹⁾ 그러나 혁명파의 배만 혹은 멸만홍한은 정권장악을 위한 저항논리이며 정권을 장악하기 전부터 이미 집권 후의 지배논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혁명파가 주창하는 배만이 種族이나 民族 차원의 논리가 아니라 政權 차원의 논리임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밝힌 사람은 光復會 회장으로 국내 혁명파의 영수였던 蔡元培이다. 그는 1903년에 쓴 「釋仇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주족이 이미 상당 정도 동화되어 한족과 별 차이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배만론이 나온 까닭은 그들이 政權과 軍權을 독점하고 漢人을 착취하면서 놓고 먹기 때문이니 “근래 仇滿論이 분분한 것은 모두 政略之爭이지 種族之爭이 아니다”고 하였다.⁴⁰⁾ 일본을 거점으로 해외에서 혁명파를 이끌고 있던 손문도 1906년 12월 이와 똑같은 논리를 펼쳤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 민족의 정권을 빼앗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 …… 사람들이 민족혁명은 만주족을 盡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말이다. …… 만주인이 우리를 阻害하지 않으면 그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결코 없다”고 하였다.⁴¹⁾ 국내외의 혁명파 영수가 모두 배만은 만주족의 배격이 아니라 만주정권의 배격에 한정된 전략적 주장임을 인정한 것이다. 혁명파 중에서도 種族主義 성향이 가장 강렬한 인물로 알려진 章炳麟 역시 1907년 「中華民國解」에서,

38) 「金鐵主義」(1907), 『楊度集』, 1986,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369쪽.

39) 沈松僑, 1997. 12, 앞의 글, 62쪽.

40) 蔡元培, 1903. 3, 「釋仇滿」, 『蘇報』, 『辛亥選集』 1卷 下冊, 678쪽.

41) 「在東京“民報”創刊周年慶祝大會的演說」(1906. 12), 『孫中山全集』 1卷, 324~325쪽.

“그동안 줄곧 내가 배만을 외친 것은 우리 국가를 회복하고 우리 국가주권을 빼앗기 위함이므로 만약 적을 물리쳐 이 목표를 달성하고 滿洲之汗이 宛平으로 퇴각해 黃龍之府에 순종한다면 일본이나 태국과 동일시할 것이며 그 種人이 順化하여 귀순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⁴²⁾고 하였다. 따라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는 당연히 排滿論이 容滿論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식주체의 입장변화에 따른 저항논리에서 지배논리의 전환이다. 중요한 것은 이 용만론이 신해혁명 후에 이른바 5족공화론과 함께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한 대로 그 이전에 배만론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順化歸順” 곧 漢族에의 동화를 전제한 논리이며 따라서 단일민족 형성을 지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학자는 혁명파의 배만론이 입헌파와의 논쟁과정에서 점차 수정되어 입헌파의 논리를 수용하였다고 보았지만,⁴³⁾ 필자는 그에 앞서 혁명파의 배만론이 본래부터 “政略之爭”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장병린은 혁명이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중화민국의 영토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漢帝國의 제국성을 회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중국은 漢郡縣과 華民을 경계로 삼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기준에 따라 한의 군현이 설치된 바 있던 조선과 월남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몽골, 회부, 서장은 종래 職方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자신의 거취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영은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이미 청조의 판도가 된 그곳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이 三荒服은 비록 고토가 아니지만 타국에 속한 것도 아니니 형세에 따라 잘 인도하면 조선·월남·미얀마를 회복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으며 그 동화는 쉬운 면도 있겠고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⁴⁴⁾ 나아가 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 후 그곳에 총독을 설치하고 농경을 보급하여 漢人으로 동화시켜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삼황복이 모두 우리에게 동화되면 민족주의의 실행범위는 더욱 넓

42) 太炎, 1907. 7, 『中華民國解』, 『民報』 15期, 『辛亥選集』 2卷 下冊, 737쪽.

43) 黃興濤, 2002, 앞의 글, 947쪽.

44) 太炎, 1907. 7, 앞의 글, 738~743쪽.

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荒服이란 전통적 天下觀에서 中土로부터의 교화정도에 따라 5개로 위계화된 공간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어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이족·이역을 가리킨다. 20세기 벽두에 장병린이 몽회장을 이러한 황복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곳까지 지배와 동화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은 한제국의 제국성은 물론 청제국의 제국성까지 재현하면서 그곳에 근대적 지배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동화에 의거한 제국 건설론은 그와 동일한 혁명과 영수 왕정위의 민족론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1905년 「民族的國民」에서 민족동화의 公例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동등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화하는 경우, ② 다수의 정복자가 소수의 피정복자를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경우, ③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정복자를 비상한 세력으로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경우, ④ 소수정복자가 다수 피정복자에게 동화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가 이처럼 민족동화를 중시한 까닭은 “무릇 어느 민족이든 種界를 엄격히 구별하여 뒤섞이지 않게 하면 그 種은 점차 쇠약해져 망하게 되나 異種을 널리 흡수해 種界가 뒤섞이면 그 사회는 날로 강성해진다”는 민족사회학의 견해를 믿었기 때문이다.⁴⁵⁾ 이 같은 민족동화론의 시각에서 그는 我民族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黃帝 이래 明末까지 4천 년간 아민족은 “다수민족이 소수민족을 흡수 동화하는” 위 ②의 公例에 따라 “4억의 大民族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동화에 의거한 대민족 형성론은 양계초의 제국정책에 의거한 대민족 형성론과 그 제국성(특히 포괄하는 민족범위)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소수의 만주족을 그대로 지배자 지위에 둘 것인가 피지배자 지위로 끌어내릴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대로 두자는 양계초가 보기에 만족은 皇族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漢人에 동화되어서 하나의 混同民族을 구성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⁴⁶⁾ 이에 비해 왕정위가 보기에는 만족이 軍權과 政權을 장

45) 精衛, 1905. 10-11, 앞의 글, 84~85쪽.

46) 「申論種族革命與政治革命之得失」(1905), 『梁啓超全集』 3책, 1657~1658쪽.

악한 정복자 지위에 있어서 동화되기 어려우니 피정복자 지위로 끌어내려야 비로소 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제국의 제국성을 재조하려는 이와 같은 민족제국주의는 국공합작 과정에서 수용된 레닌의 민족자결주의와 충돌할 수 있었지만, 손문 자신의 민족주의론에서는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그는 1924년 1~3월 민족주의 강연에서, 한족의 문화적 동화력이 蒙滿回藏苗人을 제외한 4억의 漢人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켰다고 하면서 중국은 민족이 곧 국족인 예외적인 사례라고 주장하였다.⁴⁷⁾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民族=國族은 漢民族이며 몽만회장묘인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그가 민족을 규정하는 5대 특질(혈통, 생활, 언어, 종교, 풍속습관)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몽만회장묘인을 자신의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 별개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열강의 침략에 대한 자위능력이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한민국가=중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가권력, 곧 覇道에 의해 이민족을 지배하겠다는 손문의 주장은 민족은 왕도에 의해 형성되는 단체이고 국가는 패도에 의해 형성되는 단체라는 그 자신의 논리 속에서도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적 모순은 그가 양계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민족제국주의를 공유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장차 이들 이민족에 대해서도 한민족의 동화력이 작용하여 결국 하나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민족주의 제3장에서 사실상의 민족제국주의론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역대왕조는 大一統의 堂堂大國으로서 “제국주의를 취하여 다른 민족을 정복하였으니 漢朝의 장건과 반초가 원정하여 30여 국을 멸하고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의 수십개 국을 모두 收服한 것이 그런 예”라고 하면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平天下主義를 실행하여 아시아의 각 소국을 완전히 정복하였으나 현재의 유럽인이 오로지 야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과

47) 「三民主義：民族主義」(1924. 1), 『孫中山全集』 9권, 186~188쪽.

달리 평화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王道를 상용하여 각 약소민족을 수복하였다”고 중국의 정복사업과 그로 인해 조성된 제국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그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과 같은 민족제국주의 시대를 당하여, “현재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사라진 것은 모두 중국이 수천 년 이래 제국주의국가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⁴⁸⁾ 宋教仁은 아예 약육강식의 시대에 한족이 약소민족이 아니었음을 과시하기 위해 漢族의 侵略史를 7개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는 “서양과 일본이 중국민족은 노예민족으로서 服從과 退守의 역사를 가졌을 뿐 遠略의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貶下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⁴⁹⁾ 여기서 보듯이 정복과 동화는 제국의 팽창하는 경계를 열어 놓고 제국성의 확장과 유지를 꾀하는 필수적인 機制이다.

당시에 이처럼 용만입현파와 배만혁명파가 공유한 민족제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 글이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끈다. 1907년 何震과 劉師培는 『天義報』에 게재된 글에서 일국 안에 동거하는 타족이 한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한몽회장이 만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를 민족제국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異民族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지 異民族의 混血을 금하는 것이 아니었다.⁵⁰⁾ 『新世紀』 잡지도 자신의 민족주의가 排滿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만주족 일반의 배제가 아니라 만주인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한족의 특권도 反特權 反強權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이 시각과 논리에 비추어 보아도 대민족론, 즉 중화민족론의 민족제국주의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반제민족론이 절대화되는 조건 속에서 이런 비판론은 사라져갔다. 이는 자유주의 지식인의 대표적 잡지로 알려진 『獨立評論』에

48) 위의 글, 215쪽.

49) 「漢族侵略史：序例」(1905. 2), 『宋教仁集』, 1981, 北京：中華書局, 2~9쪽.

50) 震·申叔, 1907. 9, 「論種族革命與無政府革命之得失」, 『天義報』 6~7기, 『辛亥選集』 2권 하책, 951면.

51) 民, 1907. 7, 「伸論民族, 民權, 社會主義之異同再答來書論“新世紀”發刊之趣意」, 『新世紀』 6기, 같은 책, 1005~1006쪽.

서 드러난다. 蔣廷黻은 중화민국의 외몽골 문제는 소련 제국주의와 중화 제국주의의 충돌이라고 규정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하지만,⁵²⁾ 동시에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하나의 중심민족이 기타민족을 합병하여 형성한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역사의 대세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승하는 민족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팽창을 추구하며 이는 자연적 현상이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팽창을 추구하여 외래의 팽창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고 민족제국주의를 옹호하였다. 그 후 『獨立評論』에는 변강소수민족지구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하여 국민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⁵³⁾ 그리고 198기(1936. 4)~209기(1936. 7)에 걸쳐 외몽골의 분리 독립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모두 민족제국주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IV. 다원적 단일민족론 : 종족성과 민족성

이상과 같은 민족제국주의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중국민족은 당연히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말 민국시기 중국인의 민족론은 대부분 단일민족론으로 기울어 있다. 다만 처음부터 동일한 조상을 가진 일원적 단일민족인가 서로 다른 족속이 점차 뒤섞이고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된 다원적 단일민족인가의 차이가 있다. 후자는 다시 그 다원성이 민족적인 것인가 종족적인 것인가로 나누어진다.

일원적 단일민족론의 단초는 강유위가 제시한 듯하다. 1902~1903년 그는

52) 陳儀深, 1994, 「二十世紀上半葉中國民族主義的發展」, 『認同與國家：近代中西歷史的比較』,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48쪽. 그는 蔣廷黻의 이런 주장을 “반성적 민족주의”라고 불렀으나 일면적인 이해이다.

53) 吳其玉, 1934, 「我們的邊疆問題」, 『獨立評論』 119호, 923쪽.

『史記』匈奴列傳의 “北方之人 皆吾同種”을 인용하여 滿漢同種이라 주장하면서 혁명파의 漢族中心主義를 비판하였다.⁵⁴⁾ 그러나 결국 그의 논리도 혈통을 중시하는 種族 위주의 단일민족론이었다. 이는 黃帝熱을 타고 확산되었다.

이에 비해 양계초는 다원적 단일민족론의 시조이다. 1901년 그는 중국사 범위에 포함되는 人種(1922년 이를 種族으로 표기)은 苗族, 漢族, 藏族, 蒙古, 匈奴, 통구스(이는 1922년 東胡族으로 표기됨) 등 6種이라고 파악하였다. “소위 黃帝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漢族도 동일조상에서 유래하였는지는 의문”이며 “漢 이전까지는 江南民族의 특질이 華北民族과 달랐기 때문”이라 하였다.⁵⁵⁾ 그러나 “漢 이후 種族의 경계가 사라졌으니 이것이야말로 그 후 중국이 영구히 통일된 주요 원인”이라 함으로써⁵⁶⁾ 다원적 단일민족론의 母胎를 제시하였다. 이는 한만몽회장묘족을 합쳐 하나의 대민족을 형성하자는 1903년의 주장과 합쳐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다원적 단일민족론은 청조의 예비입헌 공포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다. 黃帝를 공동조상으로 삼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입헌제로 漢滿蒙回藏 各族을 동일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 민족적 합군을 촉진하자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1911년 창간된 『民國報』의 6大主義, 합군을 잘해야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결성된 群進會의 6大綱領이 모두 “五族融合”을 제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⁵⁷⁾ 이러한 민족융합론은 5족의 종족적·문화적 특질을 인정한 위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향유되는 5족공화론과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서의 융합론은 엄밀히 말하면 동화론과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단일민족의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며 오직 그리하여 새로이 형성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단일민족의 국가를 추구한 것이다.

혁명파 영수 왕정위도 민족동화론의 시각에서 黃帝 이래 明末까지 4천 년

54) 沈松橋, 1997.12, 앞의 글, 50~51쪽.

55) 『中國史敘論』(1901), 『梁啟超全集』 1책, 450~451쪽.

56) 『論中國與歐洲國體異同』(1899), 위의 책, 313~314쪽.

57) 鷄鳴, 1911. 10. 1, 『民國報六大主義之宣言』, 『民國報』 1號; 『群進會總章』(1912. 10), 『歷史檔案』 1982년 1기, 44~45쪽.

간 “我民族”은 “多數民族이 少數民族을 흡수 동화하는” 민족동화의 公例에 따라 “4억의 大民族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元朝 붕괴 이후 중원에 남은 몽골족도 마찬가지로 동화되었지만 그때 장성 이복으로 퇴각한 몽골족, 그리고 청조의 만족은 한민족과 族類가 다른데다가 다수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한 각종 정책(滿漢通婚금지와 만주습속 유지)을 취한 결과 아직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⁵⁸⁾ 그러나 “我民族은 민족주의를 실행하여 1민족 1국민의 국가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我民族 형성의 역사적 모델(다수민족이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는 공례)에 따라 만족왕조를 타도해 스스로 다수의 정복자 지위를 회복하고 만족을 소수의 피정복자 지위로 환원시킨 다음 점차 동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我民族이 되게 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다수민족의 대칭어로 소수민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점, 漢民族이라 하지 않고 我民族이라 하여 한족 중심으로 여타의 여러 소수민족이 동화된 다원적 단일민족을 의미하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표적 種族主義者인 章炳麟조차 漢族 이전의 華夏族도 다원적 구성물이라고 전제하고 “오늘날의 同種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異種이었을 수 있고 오늘날 異種인 것도 옛날에는 同種이었을 수 있다”면서 天然的 異種이 오랜 세월 함께 뒤섞여 생활하는 속에 동종으로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歷史民族”을 “天然民族”보다 중시하였다.⁵⁹⁾ 혈통이 아니라 역사를 民族劃分의 기준으로 삼는 논리인 것이다.

이렇게 강렬한 清末 혁명파의 민족동화론을 감안하면 民國 초의 5족공화론은 분리 독립을 추진하려는 소수민족들을 잡아두기 위한 잠시 동안의 修辭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⁰⁾ 그 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모든 소수민족을 용

58) 「民族的國民」, 87~89, 100쪽.

59) 李朝津, 1996.1, 「章太炎의 민족主義-中國近代自由主義典範形成初探」, 『臺灣社會科學季刊』 21기, 197~19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초의 자유주의자로 간주되는 그 역시 黃帝를 중화민족의 시조로 간주함으로써 種族主義的 사고로부터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60) 金衡鍾, 2001, 12, 「清末 革命派의 排滿論과 五族共和論」, 『中國近現代史研究』 12집, 15쪽.

합하거나 한족으로 동화시켜 하나의 단일민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종래 혁명파의 민족론이 신해혁명 이전의 滅滿興漢論—혁명 이후의 五族共和論—5·4운동 이후의 中華民族論으로 변화해 갔다는 도식적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도식의 결합은 청제국의 국가경계로 민족의 범주를 재단하려는 國族主義的 발상으로서 이는 손문의 민족론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1912년 1월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면서 “국가의 근본은 인민에게 있으니, 한·만·몽·회·장 諸地를 합쳐 一國으로 하고 한·만·몽·회·장 諸族을 합하여 一人으로 한다. 이를 일러 民族統一이라 한다”고 선언하였다.⁶¹⁾ 이렇게 통일된 민족을 그는 대외선언에서 “중화민족”이라 불렀다.⁶²⁾ 이는 5족공화론이라기보다 다원적 단일민족론이라 해야 할 것이다. “合諸族爲一人”은 漢族에의 同化라기보다 한족도 자기 독자성을 버려야 하는 融合에 가깝다. 그 직후 반포된 中華民國臨時約法는 “중화민국 인민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種族(‘민족’이 아니다), 계급, 종교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선언과 묶어 보면 한만몽회장 諸族은 種族일 뿐 民族이 아닌 것이다. 민족은 곧 중화민국 전체인민을 의미하는 하나의 민족밖에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심지어 蒙藏青海回疆을 모두 種族的 의미의 同胞로 간주하고 함께 하나의 단체인 중화민족의 국가를 결성하여 문명대국으로 약진하자고 호소하였다.⁶³⁾ 그의 민족통일론은 인민주권의 共和論보다 同一種族이라는 同胞論에 더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포론에 의거한 손문의 단일민족론은 형식상 다원론을 부정하는 일원론에 가깝지만, 분리 독립하려는 몽장회족을 잡아두기 위한 다급한 필요에서 나

61) 「臨時大總統宣言書」(1912. 1. 1), 『孫中山全集』 2권, 1982, 北京: 中華書局, 2쪽.

62) 「對外宣言」(1912. 1. 5), 위의 책, 8쪽.

63) 「致貢桑諾爾布等蒙古各王公電」(1912. 1. 28); 「在北京蒙藏統一政治改良會歡迎會的演說」(1912. 9. 1); 「在北京五族共和協進會與西北協進會的演說」(1912. 9. 3), 같은 책, 47~48, 429~430, 436~440쪽. 여기서 그가 “5大民族”이란 용어를 “5大種族”이란 말과 함께 병용하여 만몽회장족을 각각 ‘민족’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 표현은 사라진다.

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어쨌든 중화민족의 일체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 후 더욱 강화되었다. 1919년 그는 漢滿蒙回藏族을 하나의 용광로 속에 溶解시킴으로써 “하나의 中華民族”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에는 그 범위를 5족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融化시켜야 한다”고 더욱 확대하였다.⁶⁴⁾ 蒙藏回族을 하나의 중화민족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는 이들이 구미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自衛할 능력이 없다면서 합군구국론을 다시 내세웠다. 이로써 그는 청제국의 무력에 의해 강역이 확장됨으로써 발생한 ‘소수민족’ 문제의 근원은 덮어둔 채 ‘변강민족’ 문제로 간주해버린 다음, 自衛能力의 결여라는 이유를 내세워 ‘변강민족’ 문제를 다시 ‘반제민족’ 문제(혹은 ‘식민지민족’ 문제)로 전환시켰다. 이들은 “4억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채 안 되므로 대체적으로 말해서 4억 중국인은 완전히 漢人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혈통, 언어문자, 종교, 습관 등이 동일하므로 완전한 하나의 민족이다.”⁶⁵⁾고 하였다. 이는 민족의 자연성을 중시한 견해로서 이 기준에 따르면 蒙滿回藏族은 분명 漢族과 다른 민족임에도 이들의 존재를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양계초는 1922년에 「中華民族之研究」에서 一民族은 복수의 種族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중화민족은 中華族, 蒙古族, 突厥族, 東胡族, 氐羌族, 蠻越族 등 6種族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몽골족과 돌궐족 등은 자신의 독자적 민족 의식을 갖고 있기에 아직 중화민족이 아니지만 중국에는 동화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중화족도 당연히 黃帝나 炎黃 등으로 일컬어지는 동일조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원적 결합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⁶⁶⁾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은 중화민족 하나뿐이고 한족을 지칭하는 중화족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64) 朴章培, 1992, 앞의 글, 30쪽; 齋藤道彦, 1999, 「中國近代と大中華主義—清末から中華民國へ」,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の變動』,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278~279쪽.

65) 「三民主義: 民族主義」(1924. 1), 『孫中山全集』 9권, 1986, 中華書局, 188쪽. 그럼에도 漢族이 민족으로서 형성되었는가의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54년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나마도 불과 3~4년 만에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다. 歷史研究所編輯部 編, 1957, 『漢民族形成問題討論集』, 北京: 三聯書店 참조.

66) 柳鏞泰, 2005, 앞의 글, 194~196쪽.

民族이 아닌 種族인 것이다. 다수의 種族으로 구성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다원적 단일민족론의 구조는 이로써 분명해졌는데, 여기서의 다원성은 종족 차원의 것일 뿐 민족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는 한걸음 나아가 그 이상으로 민족 확대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청초에 의해 정복되어 그 판도 안에 들어온 여러 種族을 흡수하여 중화민족으로 동화하는 것 외에 중화민족 자신이 外向發展하는 것도 중시하였다. 그 대상은 우선 역대 왕조가 일시 정복했던 조선과 베트남이 포함된다.⁶⁷⁾ 민족은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중국 바깥의 주변국까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강역 확대이지만 그것을 민족 확대와 통일시켜 보는 양계초의 인식은 손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모두 국가의 경계와 國制가 민족의 경계를 규정한다고 보는 국가민족 개념을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다원적 단일민족론은 곧바로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가르쳐졌다. 1922년 양계초가 제안한 中華教育改進社의 중학교 歷史教學大綱(案)은 “民族之部”를 따로 두어 “전적으로 중화민족의 성립과 확대를 기술하며 異族의 침입과 동화는 곧 本族 확대의 한 단계이므로 마땅히 상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⁶⁸⁾ 이런 대강에 의거한 교과서가 실제로 1924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보다 앞서 출간된 민국 초의 교과서에 孫文의 五族同胞論과 흡사한 일원적 단일민족론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1913년 출판된 공화국 역사교과서와 그 교수법에 5족공화의 명분과 달리 “중화민국의 5족통일은禍를 없애고 福을 만드는 큰 원천이다”는 정치적 필요를 앞세워 한만몽회장 5족은 고대 이래 中華民族으로서 역사적으로 일체였음을 강조하였다.⁶⁹⁾ 아마도 신해혁명의 와중에 蒙藏回族이 분리 독립하려던 당시 상황에서 단일민족론을

67) 柳鏞泰, 2005, 위의 글, 196~198쪽.

68) 梁啓超 提議, 1922.11, 「議案三：中學國史教本改造案并目錄」, 『今夏中華教育改進社關於史地教育提案及歷史教育組地理教學組之會議記錄』, 『史地學報』 2권 1호, 49~55쪽.

69) 田中比呂志, 2005, 「創られる傳統-清末民初の國民形成と歴史教科書」, 『歴史評論』 659호, 47~52쪽.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논리의 소산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이때부터 이렇게 학술연구를 앞질러 정치적 필요에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판 역사교과서는 한만몽회장묘 등의 諸族을 포함하는 하나의 중화민족이 청조 전성기에 형성되었음을 명기하여⁷⁰⁾ 일원적 단일민족론에서 다원적 단일민족론으로 회귀하였으나 처음에는 형성해야 할 ‘장래의 정치과제’로 제시되었던 중화민족이 이미 형성된 ‘과거의 歷史事實’로 둔갑하여 역사주의를 거스르기 시작하였다.

‘邊疆民族’ 問題의 ‘反帝民族’ 問題化야말로 양계초와 손문을 포함한 국공 양당이 공유한 중화민족론의 핵심이며, 이는 제국주의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굳어지고 널리 유포되었다. 1920년대의 국민혁명과정에서 국공 양당에 民族自決論이 일시 수용되었지만 양당 모두 점차 지배세력화하면서 부인되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민족자결론에 의거해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인정했다가 이윽고 중화민족 국가 안의 연방론으로 선회하더니, 항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단일민족론이 더욱 강화되자 1937년부터는 명시적으로 분리독립을 부인하고 자치론으로 후퇴하였다.⁷¹⁾ 그럼에도 공산당은 줄곧 다민족결합의 중화민족론을 견지하였는데, 국민당은 이와 달리 다민족성을 부인하는 다종족결합의 중화민족론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장개석의 『中國之命運』(1943)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중화민족은 여러 宗族의 융합”과 漢民族에의 동화로 형성되었고, 거란·여진·몽골은 “이웃한 사방의 각 宗族을 병합하여 중화민족의 영역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이는 1920년대 초 양계초와 손문의 단일민족론을 대체로 이어받아 중화민족의 일민족성을 더욱 강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족’이란 용어를 ‘中華’나 ‘漢’에게만 한정해 전유해버리고 여타의 소수민족을 宗族(이는 種族보다도 더 작은 범주의 혈족집단을 지칭한다)으로

70) 朴章培, 2003. 9, 「近現代 中國의 歷史教育과 中華民族 整體性 1」, 『中國近現代史研究』(서울) 19집, 82면.

71) 이하 국공 양당의 민족론에 대해서는 柳鏞泰, 2005, 앞의 글, 200~209쪽 참조.

지칭함으로써 각 宗族을 중화민족의 ‘支族’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그 한 사람만의 견해가 아니었다. 앞서 본대로 손문이 非漢族을 단일민족 범주에서 간단히 제외·무시해버리고 단지 동화와 융합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이웃한 四土四方의 各宗族은 中原에 들어가면 곧 동화되었는데, 이는 중국 고유의 德性에 의한 感化의 결과이며 朝貢에서 藩屬으로, 변속에서 自治로의 긴 과정을 거쳤다고 한 점이다. 조공이 국가 간의 외교의례임을 감안하면 조공국을 단계적으로 흡수 동화하여 중화민족제국의 강역으로 영토화하려는 팽창주의 논리가 여기에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강역 바깥의 조공국 민족에 대해서도 ‘민족’이 아니라 강역 내의 지족을 의미하는 ‘宗族’이라 칭한 것이다. 나아가 중화민족은 異族에 대하여 한번도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직 덕성에 의거해 동화시켰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제 장개석과 국민정부는 국가민족=국족으로 문화민족의 민족성을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근대 중국의 민족인식에서 중화민족은 동화와 융합에 의해 청제국 판도 안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이렇게 장차 형성할 정치적 목표로서의 중화민족은 분명 단일민족이었지만 그 始原의 이해방식에 따라 다민족결합의 단일민족론과 다종족결합의 단일민족론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두 민족제국주의와 결부되어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그 점에서는 서로 대립하던 容滿군주임현파든 排滿공화혁명파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양계초도 손문도 역대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고 하면서 그 정복사업을 계승하고 제국성을 회복하여 민족제국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단지 식자층의 談論에 그친 것이 아니고 청말

이래 중국 정부와 黨의 민족정책에 반영되어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

이러한 민족제국의 제국성은 민족 개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당시의 중국인은 거의 예외 없이 民族을 요즘의 種族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특질로 제시된 5대·6대·8대 특질을 보면 모두 제도성·시민성에 속하는 정치적 요소가 아니라 자연성·종족성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들이다. 그들은 민족을 일단 이렇게 국가민족이 아니라 문화민족의 의미로 규정한 위에서 군주입헌제나 민주공화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때 그 政體와 國體의 적용 범위는 문화민족이 아니라 국가민족=국족=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가를 형성할 권리도 문화민족에게는 없었고 오직 국가민족인 중화민족에게만 있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국가민족은 여러 문화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성을 內藏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화민족의 국가는 中華民族帝國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民族帝國이 전통적 제국과 다른 점은 동화에 의해 각 종족의 고유성을 제거하고 하나의 단일민족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제국 안에 다양한 이질적 종족들이 각기 자신의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위계화된 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동화·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국가민족이 절대화되는 대신 문화민족은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최근 일민족국가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민족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민족이 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형성의 윤리에 부합한다고 할 때, 그 일민족의 경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근현대 중국의 민족 인식은 민족을 국가민족, 곧 국가가 민족을 專有하는 단일민족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그 안의 종족적 다원성을 억압하고 제국성을 유지하는 데 복무하였다. 물론 이 제국성은 근대 중국의 특수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화한 국민국가의 일반적 현상에 속한다.⁷²⁾ 그럼에도 제국일본의 제국성과 대치하는 반제적 제

72) 山室信一, 2003, 「『國民帝國』論의 射程」, 山本有造 編, 앞의 책, 87~128쪽. 그는 이를 “國民帝國”이라 불렀지만 필자는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민족의 제국성을 더 분명

국성이었기 때문에 반제민족론의 절대화 속에 내면화된 채 잘 자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 자리잡은 제국주의 시대의 피해자라는 자의식 위에 낙후한 四土의 소수민족에 대한 中土의 문명화 사명과 中土의 전통적 천하관에서 나온 華夷一統의 의식이 가세하여 그러한 내면화를 더욱 조장하였을 터이다.

단일민족론의 제국성과 억압성을 드러내고 견제할 논리적 방안의 하나로 필자는 種族性에 의거한 “문화민족” 개념을 중시하여 種族을 곧 민족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주목하고 싶다.⁷³⁾ 20세기 초 중국인의 민족 개념, 그리고 오늘날 겔러와 스미스 등의 민족 개념도 문화적 동질집단을 지칭하였다. 다 아는 대로 국가민족 개념은 인민주권의 제도성에 의거해 민족의 정치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런데 이 인민주권론은 자본제국주의 국가가 문명화 사명을 내세워 소수자의 종족성을 억압하면서 제국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곤 하였다. 四土에 위치한 蒙藏回族的 시각에서 보면 中土의 “立憲”, “國會설립”, “共和” 등의 논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역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아니라 20세기의 소련식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 이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적 국가민족에서 분리 독립한 새로운 민족국가가 30여 개를 넘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근대로의 전환기에는 인민주권론이 민족형성의 불가결한 주요 기제이자 標識였지만, 인민주권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자연성·종족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건국의지가 민족의 재형성

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용어를 따라 ‘民族帝國’이라고 표기한다.

73) Walker Connor와 Prasenjit Duara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에만 국한시키려는 전제에 대항하면서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는 종족을 민족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유용태, 2006, 『탈냉전기 민족문제의 재인식: 동아시아적 시각의 성찰』, 『환호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434~441쪽 참조. 민족을 문화적 구성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를 다룬 구미 쪽 연구로 Kai-wing Chow 외 편, 2004, *Constructing Nationhood in Modern East Asi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참조.

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인간 해방의 가치에 더 복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을 것이다. 물론 종족성이라는 것도 소수자 자신의 실존으로서 추구되기보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택적으로 강조될 경우 왜곡될 수 있겠지만,⁷⁴⁾ 포스트모던의 시대조건에서 볼 때에는 그에 의거한 문화민족 개념이 국가민족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성찰하게 해 주는 지적 무기로 활용될 만하다. 다만 그 가치가 반드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몇 년 전 동유럽에서 자행된 잔혹한 “민족청소”는 민족을 전유하려는 다수민족의 제국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분리 독립이 하나의 길일 수는 있으나 유일한 길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한다. 21세기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국가형태를 새롭게 사고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74) 김광익 외, 2005, 『종족과 민족 :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83~84쪽.

참고문헌

〈연구서〉

- 김광억 외, 2005, 『종족과 민족 :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 박상수 외, 2005,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 유용태, 2006, 『환호속의 경중 :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유장근, 2004, 『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신서원.
- Anthony D., Smith, 이재석 옮김, 1977,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 Ernest, Gellner, 이재석 옮김, 1988,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 馬戎, 2004, 『民族社會學』, 北京大學出版社.
- 松本眞澄, 2003, 『中國民族政策之研究-以清末至1945年的民族論爲中心』, 北京 : 民族出版社.
- 歷史研究所編輯部 編, 1957, 『漢民族形成問題討論集』, 北京 : 三聯書店.
- 朱況源, 1985, 『同盟會的革命理論 : '民報' 個案研究』, 臺北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山本有造編, 2003,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王柯, 2006, 『20世紀中國の國家建設と"民族"』, 東京大學出版會.
-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の神話』, 東京 : 岩波書店.
- Chow, Kai-wing, ed., 2004, *Constructing Nationhood in Modern East Asi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itzgerald, John, 1999, *Awakening China :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Nationalist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Zhao, Suisheng, 2004, *A Nation - 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연구논문〉

- 고유경, 2003,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통일 이전 독일 민족형성의 길」, 『梨花史學研究』 30집.
- 金衡鍾, 2001. 12, 「清末 革命派의 排滿論과 五族共和論」, 『中國近現代史研究』 12집.
- 朴章培, 1992, 「'中華民族' 概念의 形成에 對한 小考-清末民國前期(1899-1928)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朴章培, 2003. 9, 「近代中國의 歷史教育과 中華民族 整體性 1」, 『中國近現代史研究』 (서울) 19집.
- 裴京漢, 2000. 2, 「신해혁명 직후 몽골독립에 대한 孫文과 革命派의 대응」, 『人文科學』 (성균관대학교) 30집.
- 柳鏞泰, 2005. 12, 「中華民族論과 東北地政學: “東北工程”의 논리근거」, 『東洋史學研究』 93집.
- 柳鏞泰, 2007. 12, 「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 1901-1919」, 『東洋史學研究』 101집.
- 千聖林, 2005. 12,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20세기 중국의 ‘黃帝’와 中華民族 만들기」, 『大邱史學』 81輯.
- 耿云志, 2007, 「孫中山民族主義思想的歷史演變」, 鄭大華 外 主編, 『中國近代史上的民族主義』,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3期.
- 沈松橋, 1997. 12,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 28기.
- 安靜波, 1999, 「論梁啟超的民族觀」, 『近代史研究』 3期.
- 李朝津, 1996. 1, 「章太炎的民族主義-中國近代自由主義典範形成初探」, 『臺灣社會科學季刊』 21기.
- 陳儀深, 1994, 「二十世紀上半葉中國民族主義的發展」, 『認同與國家: 近代中西歷史的比較』,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彭英明, 1985, 「關於我國民族概念歷史的初步考察」, 『民族研究』 2期.
- 黃興濤, 2002, 「“中華民族”概念萌生與形成的歷史考察」, 中國史學會編, 『辛亥革命與20世紀的中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石川禎浩, 1999, 「梁啟超と文明の視座」, 狹間直樹 編, 『梁啟超』, 東京: みすず書房.
- 榮澤幸一, 1968, 「帝國主義成立期における浮田和民の思想的特質」, 『歷史學研究』 332號.
- 齋藤道彦, 「中國近代と大中華主義-清末から中華民国へ」, 『民國前期中國と東アジアの變動』,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 田中比呂志, 2005, 「創られる傳統-清末民初の國民形成と歷史教科書」, 『歷史評論』 659호.
- Leibold, James, 2006, “Competing Narratives of Racial Unity in Republican

China : From the Yellow Emperor to Peking Man,” *Modern China*, Vol. 32-2, April.

Zarrow, Peter, 2006. 6, 「Liang Qichao and the Coceptualization of “Race” in Late Qing China」,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52기].



[ABSTRACT]

The National-Imperialism and the Logic of Unitary Nation in Modern China

Yu, Yongta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nation in modern China, reveals the logic of empire internalized therein, and explores the way to examine it. Both the Constitutional Monarchists including Liang Qichao and Republican Revolutionists including Sun Yatsen perceived *nation* as *culture-nation*, which is close to the concept of *ethnos* today. This perception, however, contrasted with the multi-ethnicity of the Qing Empire, which caused both of the group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one *state-nation* that includes all the culture-nations within the empire's boundary, and they regarded the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of various nations as natural in order to achieve one great nation. As a result, the term "the Chinese Nation(Zhonghua Minzu)" has been coined and used since 1905. Even the revolutionists, whose slogan was anti-Manchurian, made it clear before the revolution in 1911 that the revolution was not an ethnic struggle to seclude Manchurians, but a political struggle to overthrow Manchurian government.

In their perception of nation, the right to form a country did not belong to culture-nation, but only to the Chinese Nation which is a state nation. Thus, the state-nation inevitably implied imperialism which aims to combine various culture-nations. This is why Liang

Qichao and Sun Yatsen argued that China should implement national-imperialistic policy as Europe and America did. The Chinese Empire in the premodern era had once allowed culture-nations politic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ir own identity, but from now those nations had to be assimilated and integrated as one nation to form the Chinese Nation Empire. This is where national-imperialism boils down to unitary nation.

Nonetheless, Chinese people did not realize that such idea had been internalized in their perception because of the influence of anti-imperialistic nationalism and sino-centric imperialism in the premodern er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ethnic group, which is close to cultural nation, with nation in order to examine and disclose the internalized imperialism. The notion of state nation, which is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used to serve as a logical basis justifying the expansion of empire, oppressing the ethnicity of minorities. It stands to reason that in the 21st century where popular sovereignty is commonplace, the notion of culture-nation, which embraces cultural diversity, will be used as an intellectual weapon to disclose and examine the repressivism of the notion of state-nation.

keywords

perception of nation, national-imperialism, The Chinese Nation (Zhonghua minzu), empire-ness, culture-nation, state-nation, unitary nation

19세기 베트남의 단일민족 만들기

- ‘漢夷有限’에서 ‘一視同仁’으로 -

최병욱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베트남은 10세기에 중국에서 독립한 이래 꾸준히 남쪽으로 영토를 팽창하고 (흔히 南進이라 함) 그곳에 살고 있던 다양한 이민족을 흡수해 왔다. 잘 알려진 대로 현 베트남 중부의 주인이던 참인(Chams), 남부베트남 지역의 주민족이었던 크메르(Khmer)인이 베트남 영내로 편입되었고, 17세기부터 활발히 베트남으로 이주하던 중국인도 베트남인과 더불어 살게 된 주요 민족이었다. 이들 주요 세 민족 외에도 베트남 영역 안으로는 수많은 말레이(Malay)계, 몬-크메르(Mon-Khmer)계, 중국계, 타이(Tai)계의 민족이 흡수되었으니,¹⁾ 베트남의 남진 또는 영토 확장 과정은 곧 새로운 이민족들을 흡수하여 민족 종류 수를 증대하는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베트남의 남진은 18세기 무렵 완료되었다. 이때쯤 되어, 베트남인은 현재 베트남 남부에 해당하는 사이공과 메콩 지역을 전부 차지하였고, 캄보디아와

1) 현재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의 경계도 대략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확정되었다. 남진의 과정 속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16세기에 남북 두 개의 왕조가 들어선 바 있다. 두 정권 간의 적대관계는 약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 1771년에 남쪽 정권 내부에서 시작된 반란(떠이 썬 반란)과 그 뒤를 이은 치열한 내전을 거쳐서²⁾ 1802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되었다.

이 통일왕조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소수민족 동화작업을 보게 된다. 그동안 이민족을 포용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땅’만을 늘려왔던 베트남인이 이제 그 땅 안에 들어온 이민족들까지 베트남인으로 만들어 ‘사람’³⁾ 수까지 늘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이 사례는 동서의 역사 속에서 종종 보이는 한 개 민족(ethnic) 만들기의 전형으로서 이 작업에서 구사되던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둘째, 이는 19세기에 유럽에서 진행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한 국민(people) 만들기 작업의 선구적 형태이다. 셋째, 현재 베트남이 54개의 다민족 국가인데다가 민족 문제는 내연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민족 간 긴장관계의 시원을 이해한다는 데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프랑스 식민지배기로부터 인류학, 민족학, 언어학과 종교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당 응이엠 반(Dang Nghiem Van) 등이 저술한 *Ethnic Minorities in Vietnam*⁴⁾은 출판된 이후 10년 넘게 국내외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판 흐유 뎃(Phan Huu Dat)과 람 바 남(Lam Ba Nam)이 집필한 *Chinh Sach Dan Toc cua Chinh Quyen Nha Nuoc*

2) 이에 대해서는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34~236쪽 참조.

3) 베트남인에게 소수민족 특히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moi)’였다. 베트남인에게 ‘모이’는 ‘사람(nguoi)’이라기보다는 짐승과 사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의미였다. 이제 그들을 베트남화시켜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4) Dang Nghiem Van, Chu Thai Son, Luu Hung, 2000,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Hanoi : The Gioi Publishers.

Phong Kien Viet Nam X-XIX(『10-19세기 베트남 봉건 정권의 민족 정책』)⁵⁾도 중요한 저술이다. 그러나 베트남 내 소수민족 문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역사 연구의 주변부에서 맴돌고 있거나 우호적 관계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학자들의 베트남 소수민족 연구는 식민지 시대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콩도미니나(Georges Condominas)의 *We Have Eaten the Forest*⁶⁾나 히키(Gerald Cannon Hickey)의 *Free in the Forest*⁷⁾는 서구에서 진행된 베트남 소수민족 연구의 종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당대의 민족학적 사회상을 다루고 있을 뿐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거의 시도하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연구 대상도 식민지 시대부터 줄기차게 정치 이슈화되었던 서부 고원지대의 산지 소수민족(Montagnards) 문제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남부 지배 정책과 남부 사회의 변화상을 추적하며 각종 사료를 뒤져 왔던 필자로서는 베트남 중앙 조정의 중국인, 크메르인, 말레이인 등 남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 정책 관련 기사를 만나는 일이 잦았으며, 다음과 같은 수 편의 연구물도 생산해 왔다.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남부베트남을 중심으로」(『동남아시아연구』 9호, 2000), 「응웬 왕조의 중국인 정책」(『베트남연구』 1호, 2000), “Vietnamization of Southern Vietna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Asian Ethnicity Vol. 3, No. 1, 2003), 「베트남인의 서부고원지대 진출과 산지인 문제」(오명석 외, 2004,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오름). 연구 범위는 주로 소수민족 동화정책이라든가 그 정책으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의 문제였다. 아직도 베트남 역사 속에서 소수민족의 문제는 많은 분야가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Phan Huu Dat, Lam Ba Nam, 2001, *Chinh Sach Dan Toc cua Chinh Quyen Nha Nuoc Phong Kien Viet Nam X-XIX*, Hanoi : Nxb Chinh Tri Quoc Gia.

6) Georges Condominas, trans. by Adrienne Foulke, 1977, *We Have Eaten the Forest, The Story of a Montagnard Village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New York : Hill and Wang.

7) Gerald Cannon Hickey, 1982, *Free in the Forest, Ethnohisoty of the Vietnamese Central Highlands 1954-1976*, Yale University Press.

북부 산간 지대의 소수민족 문제는 민족학·언어학 연구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중부 베트남의 소위 떠이 응우옌(Tay Nguyen, 西原)으로 불리는 서 부고원지대도 역사 연구의 미답 지대이다. 남부베트남의 사이공과 메콩 지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역사학적 연구도 거대한 빙산의 극히 작은 일부 만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필자는 베트남 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역사적 조망의 시각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소수민족 정책 더 나아가 베트남의 한 개 민족 만들기 정책을 살피는데서 인식의 틀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이론적 배경을 보강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19세기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극단적 정책을 대비시켜 소개하겠다. 이 두 개의 정책은 응우옌 왕조의 1대 황제와 2대 황제가 각각 강조한 것으로서 통일 베트남 영역 내 민족 문제에 대한 두 황제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대변한다. 이는 개인적 차이일 뿐만 아니라 세대적(世代的) 차이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화 내지는 지역적 차이이기도 하다.

다민족이 공존해야 한다는 이념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인 관습이었다. 이에 비해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동북아적 관념이다. 제2절 ‘한이유한(漢夷有限)’은 1대 자 롱(Gia Long, 嘉隆, 1802~1820) 황제의 주장이었다. 베트남인과 이민족은 구별되는 존재이고 그런 차이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3절의 제목이 되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은 당대(唐代) 한유(韓愈, 768~824)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자문화권에서 두루 애용되어 온 용어로서, 19세기 베트남에서는 ‘오랑캐’에 대한 ‘사랑’ 내지는 ‘인자함’이 지나쳐 이민족의 문화, 전통, 혈통을 잊게 한 후 내 민족으로 동화하는 베트남적 동화정책 이념으로 변형되어 가기 시작했다. 2대 민 망(Minh Mang, 明命, 1820~1841) 황제에게 ‘일시동인’은 소수민족 동화 또는 베트남 단일민족 만들기의 핵심적 논리 근거였다.

II. 한이유한

‘한이유한(漢夷有限)’이란 베트남인(한)과 이민족(이)은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인정이며 비동질적인 민족 사이의 공존을 의미한다. 즉 베트남인(주 민족인 킨 Kinh 족)과 베트남 내 살고 있는 비베트남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전반만 해도 남부베트남의 메콩 유역에는 크메르인의 촌락이 매우 많았다. 베트남인이 이곳으로 들어가 거주하고 섞여 살면서 크메르인과의 갈등이 유발되자 자 롱 황제가 베트남인의 크메르 촌락 진입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섞이지 말고 따로 살아야 함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한이유한’이었다.⁸⁾

여기서 베트남을 의미하는 ‘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을 가리키는 ‘한’을 베트남이 차용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로부터 ‘한인(漢人),’ ‘한풍(漢風),’ ‘한어(漢語),’ ‘한음(漢音)’ 등의 단어도 파생되었다. ‘한(漢)’뿐만 아니라 ‘화(華)’와 ‘하(夏)’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념과 단어는 19세기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중국 본토가 만주족에게 지배되고 있던 현실에 더해, 베트남 역사상 가장 확대된 영토를 지배하는 데다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 조공국까지 거느리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황제국으로서 위상과 그로 말미암은 자신감에 기인한 발상이었다. 청조를 개의함 없이 19세기의 베트남 황제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비록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월남(越南)’을 사용했지만 정식 국호는 중국의 ‘대청(大清)’과 동등하게 ‘대남(大南)’이었고 옥새도 주조·사용하였다. 또한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은 여간해서 청조를 일컬어 ‘대국(大國)’ 또는 ‘천조(天朝)’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청국(淸國)’이었다. 중국 본토가 ‘만(滿)’(이 글자와 ‘蠻’은 공히 베트남 발음이

8) 『大南寔錄正編第一紀』(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 5 : 23b.

‘man’이다. 성조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발음가(發音價)는 비슷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으로 가득한 마당에 진정한 ‘한’의 도는 베트남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베트남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다.⁹⁾ 티에우 찌(Thieu Tri, 紹治, 1841~1847) 황제가 중국인의 두발이 만주식 변발로 바뀐 사례를 들어 “한당송명(漢唐宋明) 수천백 년의 백성들이 한번 변하여 만주의 모든 법령을 좇음이 이토록 재빠르니 무릇 중국의 땅은 있되 중국의 풍속은 없다”¹⁰⁾라고 개탄한 것도 베트남의 문화 수호자로서의 자부심에 근거한 것이라 보아도 좋다. 중국에는 ‘청국’만 있었던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은 ‘청인(淸人)’이었다.

베트남이 중국에서 독립한 10~19세기까지의 민족 문제는 대체로 ‘한이유한’의 인식 틀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이 남쪽으로 영토를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흡수되는 이민족들을(베트남의 주적이었던 참인이나 크메르인을 제외하고) 일일이 베트남인으로 만들 겨를은 없었다. 일찍이 리 타나(Li Tana)가 지적한대로 18세기까지 베트남인과 산지인들의 관계는 평화로웠으며, 북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남부 응우옌 치하의 베트남인들은 서부 산지민족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도 없었다.¹¹⁾ 단지 베트남인과 이민족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였다. 중국과 가까운 북부 산악지대에도 타이와 티베트 계통의 민족들이 산재했지만 그들을 베트남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전통시대 베트남에서 국가의 형태는 국가를 지배하는 주 민족이 중심부에 있고 그 주변에 이민족이 존재하는 형태이며 주 민족과 이민족 수장들 사이에는 명확한 관료제도를 통한 위계질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일반

9)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SEAP, Cornell University, pp. 136~137.

10) 『大南寔錄正編第三紀』(1894),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77, 17 : 25b.

11) Li Tana, 1998, *Nguyen Cochinchina,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SEAP, Cornell University, p. 133 ; 오명석 외, 2004,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 갈등』, 오름, 171쪽.

적이었던 느슨한 질서 즉,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ient)’이라 흔히 표현되는 관계를 매개로 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관찰되는 이런 관계는 ‘국가 내의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in a state)’라고도 부를 만하며, 20세기 중반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보편인 정체(政體, polity)였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사례를 보자. 동북부의 산(Shan) 족이 반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수장과 버마 중앙정권 지도자 사이에 일정한 정치적 상하 질서가 형성된다. 이때 산 수장은 산 인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것이니 버마 영토 내에는 버마 족과 산 족이 완벽하게 따로 존재했다. 이런 형태가 버마 내 카친(Kachin), 카렌(Karen), 쉐인(Chin) 등 여러 민족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버마는 하나의 국가이자 곧 지역 세계이기도 했다. 중심부의 버마족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중심 민족과 이민족의 공존인 것이다. 이것이 확대되면 소위 ‘만달라(mandala)’적 국제 질서가 되는 것이며, 베트남의 민족 간 관계, 더 나아가 국제관계도 이런 동남아시아적 만달라이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겠다.¹²⁾

동남아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여러 민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세 가지인데, 다민족 공존의 철학을 ‘한이유한’이란 개념으로 정리했던 자 룡 황제의 방식에서 이 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민족 지배자와 지배층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배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조정은 주 민족의 이민족 지역으로의 이주와 침투를 저지하려 노력했다. 셋째로 이민족의 문화(풍습, 종교, 언어, 복장 등)는 존중되었다. 자 룡 황제는 ‘한이유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 발성법을 ‘한이유한’에 다시 적용해 본다면 ‘한이유한’에서 원래의 중국적 용법과는 다른 베트남적 버전의 창출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한이유한’의 ‘이’란, 멸시의 염이 담긴 오랑캐 또는 야만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즉 ‘이’란 오랑캐가 아니라

12) 최병욱, 2008, 「18-19세기 베트남제국의 국제질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中華論』, 인하대학교HK 학술회의 발표집, 102~107쪽.

‘다른 이들’일 뿐이었다. 베트남어 발음으로 ‘夷’나 ‘異’는 한가지로 ‘지(di)’이다. 즉 주 민족과 여타민족은 서로 다르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이념이다.

자 롱 황제가 유난히 ‘한이유한’을 강조하게 된 데는 그의 성장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2세기 간의 남북 분립기가 깨지게 된 것은 1771년 발발한 떠이 썬(Tay Son, 西山) 농민 반란 때문이었다.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졌던 떠이 썬 군은 남부베트남의 수도 푸 쑤언(Phu Xuan, 富春)을 점령하고, 왕실의 일족이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살해하려 들었다. 이때 천행으로 살아남은 응우옌 폭 아인(Nguyen Phuc Anh, 阮福映, 자 롱 황제의 본명, 1762~1820)은 9살 때부터 남부의 사이공·메콩 지역을 전전하면서 성장했다. 사이공·메콩 지역은 당시로서는 최근 베트남 영토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베트남 내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군(民族群)이 분포하던 곳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캄보디아 영역의 일부였기 때문에 크메르인이 가장 많았다. 산간지역으로 연결되는 비엔 호아(Bien Hoa, 邊和)에는 농(Nong), 스퍼엥(S'tieng) 등 말레이와 몬-크메르계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17세기부터 대량 이주해 온 중국인도 비엔 호아, 미토, 사이공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포교를 위해 프랑스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등 서양인 선교사들도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¹³⁾ 말하자면 남부베트남 즉 사이공·메콩 지역은 다양한 인종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다.

떠이 썬과의 전쟁을 위해서 응우옌 폭 아인은 이 다양한 민족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내전 승리를 위한 이해 타산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땅 남부는 이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였으며,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은 이곳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베트남인

13) 램세이의 조사에 따르면, 16세기 말부터 메콩 지역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Jacob Ramsay, 2008, *Mandarins and Martyrs, the Church and the Nguyen Dynasty in Early Nineteenth-Century Vietnam*,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5~26.

의 전통이고 문화였다.¹⁴⁾ 떠이 썬 반란이 발발한 후 남부로 도망쳐 내려와 남부인들 사이에서 성장했던 응우옌 폭 아인은 남부인의 관습에 익숙했다. 그의 휘하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포섭되었다. 크메르인이 응우옌 폭 아인 군대의 지휘관군으로 활동하고 중국인이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으며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왕자의 스승이 되었고 프랑스·영국인이 해군 선단을 지휘했다.¹⁵⁾ 민족적 다양성은 응우옌 폭 아인이 떠이 썬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왕조 수립 이후에도 '한이유한'은 변함없는 정책으로 고수되었다. 중국인은 사이공을 근거지로 변영을 구가했다. 서양인 선교사들은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떠이 썬과의 전쟁에서 응우옌 폭 아인을 도왔던 서양인들은 조정의 관료로 활동했다. 장 밥티스트 세노(Jean Baptist Chaigneau)라든가 필립 바니에(Philippe Vanier)는 자 롱 황제 치세기에 각각 베트남 이름 완문승(阮文勝)과 완문신(阮文辰)으로 掌奇(연대장급, 정4품)의 직위를 받았고,¹⁶⁾ 한 크메르인 지휘관(該奇, 정4품, 베트남 이름 阮文存)은 은퇴 후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메콩 유역 속 짱, Soc Trang) 해당 지역을 지배하다가 여생을 마쳤다.¹⁷⁾ 비엔 호아 산간지대에 살던 스피엥 족은 여전히 자치를 누리고 있던 데다가 그 우두머리는 응우옌 폭 아인을 도운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응우옌 조정에서 두 민족의 우의를 상징하는 작위를 부여받았다.¹⁸⁾ 중부에 잔존하던 참파의 잔존 세력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수장 지휘하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

14) Philip Taylor, 1998, "Vietnamese Moderns, Interpretations of the State in Postwar Southern Vietnam," ANU, PhD dissertation, pp. 124~130 ; Philip Taylor, 2001, *Fragments of the Present, Searching for Modernity in Vietnam's South*, Allen & Unwin, pp. 101~106.

15) 이에 대해서는 Choi Byung Wook, 2004, pp. 33~43 ; George Dutton, 2006, *The Tay Son Uprising, Society and Rebellion in Eighteenth-Century Vietnam*,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72~211.

16) 『大南正編列傳初集』(1889),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2, 28 : 9b.

17) 『大南寔錄正編第一紀』(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 3 : 6 ; 『大南正編列傳初集』(1889),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2, 28 : 3a-4b.

18) 『大南寔錄正編第二紀』(1861),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 16 : 10a.

었다. ‘한이유한’의 이념이 지배하던 베트남은 이렇듯 다양한 인간군이 한데 어우러진 다민족 집합체였다.

Ⅲ. 일시동인

용어의 어의만 갖고 비교하자면 ‘한이유한’에 비해 ‘일시동인(一視同仁)’은 훨씬 부드럽고 자애로우며 관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시동인’의 본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하다. 응우옌 왕조의 제2대 황제가 등극하면서 ‘한이유한’ 이념은 폐기되었고, 대신 소수민족 동화정책, 다시 말하면 한 개 민족 만들기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변화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베트남의 역사 속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화의 노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이 수행되었던 때가 이때였으니 말이다. 국가 이념으로 유교화가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 이념의 수호자로서, 더 나아가 비유교권으로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채용된 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한민족 만들기는 이웃 국가 백성들에 대해서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웃 국가에 일방적으로 일시동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국을 편입해 내지의 일부로 만든 이후에 이 지역(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이었으니 국가 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연장이었다. 1835년 캄보디아를 정복한 베트남은 이곳을 베트남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 후 베트남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일시동인’의 수사(修辭)는 이때부터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1837년 캄보디아의 새로운 베트남식 명칭인 진서성(鎭西城) 산하 제 지방을 베트남식 사(社)와 촌(村)으로 분할하기로 했을 때 민 망 황제의 변은 다음과 같았다.

진서(鎭西)는 변강(邊疆)의 중지(重地)이다. 짐은 일시동인(一視同仁)하니, 번민(番民)으로 하여금 한풍(漢風)에 점차 물들어 균등히 왕의 교화(教化)에 젖게 하고자 한다.¹⁹⁾

위의 글에서 보듯 캄보디아(真臘)는 이미 진서라는 명칭을 갖는 베트남의 변경 지역이 되어 있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nuoc)’ 내부에 있는 이민족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변방의 낙후된 백성들[番民]로서 황제의 가르치고 감화시킴[教化]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들의 궁극적 도달점은 베트남적 풍습[漢風]에 물드는 것이다.

베트남은 유교의 유입이 한국, 일본보다 빨랐지만²⁰⁾ 온전하게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남쪽으로는 꾸준한 영토 팽창으로 인해 새로운 땅과 사람들이 흡수되었고, 그 새로운 땅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새 세대가 태어나면서 다시 유교적 이념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에 현재의 경계에 해당하는 국가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중앙집권화 또는 일체화가 시작되어 영토의 변화가 거의 없이 집권화·유교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 말기인 19세기 중반쯤 되면 사회 전체가 15세기에 비해 크게 유교화되고, 또 ‘단일민족화’ 되어 갔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19세기 초에나 가서야 현재에 조응하는 국가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영토 속에서 집권화·단일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미 ‘하나 만들기’의 선구적 형태가 보이긴 했었다. 1428년 수립된 레(Le, 黎) 왕조(1428~1787)는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어 조선과 유사한 국가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특히 제4대 성종(聖宗, 1442~1497)은 문물 정비, 내치, 외정 다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는데, 이때 전통적 라이벌 참파를 멸하고 라오스 쪽으로도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확대된 영토 쪽

19)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79 : 21a.

20) 기원전 111년 한에게 정복된 이래 특히 3세기 사섭(士燮, 137~226)이 교지태수로 베트남을 지배할 때 중국의 유학자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유입됨을 계기로 유학이 크게 발전했다.

으로는 베트남인 사민(徙民)이 실시되었고, 참파인들을 포로로 잡아 홍하델타의 왕도(王都) 주변 제 촌락에 삽민(挿民)하여 동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물론 정복지민에 대한 대량 살육도 행해졌다. 이민족 땅의 베트남화에 매우 효과적 인 방법이다. 이 시기의 역사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료인 『大越史記全書』의 성종이 참파를 멸한 후에 4만여 명을 참수하고 3만여 명을 사로잡았거나, 왕을 포함한 포로들을 대거 수도로 끌고 갔다는 기록들이²¹⁾ 그것이다.

이 시기에 단일민족 만들기와 관련해 주목되는 또 다른 작업은 지리지와 역사서의 편찬이었다. 성종의 연호를 딴 『洪德版圖』는 이때 편찬한 지리서였다. 이 지도(서)가 출현함으로써 베트남의 강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성종이 吳士連에게 명해 편찬한 역사서 『大越史記全書』는 베트남 역사의 상한을 락 롱 꾸언(Lac Long Quan)으로 시작되는 전설 시대까지 끌어올려 락 롱 꾸언이 어우 꺼(Au Co)라는 여성과 결혼해 나은 아들 백 명이 백 월의 시조가 되었다는 관념을 만들어 냈다. 즉 이 시대의 지리적 판도 내에서 살고 있던 다양한 민족이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적어도 평지에 살고 있던 ‘베트남인’은 동근(同根)의 공동체라는 인식의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기원전 2세기 한 무제 때 베트남 땅에 설치한 3군(郡), 즉 홍하 델타의 교지(交趾), 그 아래의 구진(九眞), 그리고 맨 남쪽의 일남(日南)이 단순히 지리적 차이가 아니라 민족적·문화적 차이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 것이라면,²²⁾ 15세기 성종기의 역사 쓰기는 세 지역의 백성은 원래가 하나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19세기 민 망 황제 시기에도 강계(疆界)를 표시하는(캄보디아까지 포함) 지도 ‘대남전도(大南全圖)’가 그려졌다. 그리고 이젠 역사만이 아니라 ‘일시동인’이라는 이념을 토대로 해서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는 대실함에 착수했다.

21) 陳荊和 編校, 1985, 『校合本大越史記全書』中, 東京大學校東洋文化研究所, 684, 690쪽.

22) 양승윤 외, 2002, 『베트남』,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49~50쪽.

그렇다면 베트남적인 한풍이 왜 주변의 이민족들이 받아들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19세기 베트남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중국의 도가 베트남에서 수호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이 된다는 자기중심적 논리가 그렇다고 쳐도, 왜 이 시기 민 망은 ‘한풍’이 타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 굳게 믿었을까? 그리고 ‘한풍’을 전파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한풍’이니 ‘일시동인’이니 하는 것이 침략과 팽창을 가장하기 위한 고급화된 명분이었던가?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남진’, 다시 말하면 남쪽으로의 침략과 팽창은 10세기 이후의 관행이었으니, 그렇다면 하필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명분이 고급화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일시동인’의 논리적 근거를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캄보디아 병합이 왜 어쥬[仁]의 구현이었던가? 베트남 측에서 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응우옌 왕조가 들어선 이래 자 롱 황제 치하 때부터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대한 자발적 번속국이였다. 18세기 내내 태국에서 아유타야 왕조(Ayuthaya, 1350~1767), 톤부리 왕조(Thonburi, 1767~1782), 짜끄리 왕조(Chakri, 1782~)가 명멸하는 가운데 태국의 매 왕조의 패권주의에 시달리던 캄보디아는 양짠 왕(Ang Chan, 1806~1837)이 등극하면서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매달렸다. 이후 친 태국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태국군이 개입할 때마다 양짠 왕은 사이공으로 도망쳤고(1812, 1833), 베트남군은 양짠을 호위하고 캄보디아로 들어가 그를 복위시킨 후 캄보디아 왕, 더 나아가 캄보디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 군대의 총지휘관의 직책이 ‘보호진랍(保護眞臘)’이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태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835년 양짠이 사망했다. 양짠은 딸만 셋 두었을 뿐 아들이 없었다. 베트남의 개입으로 둘째 딸이²³⁾ 왕위를 이었지만, 베트남으로 볼 때 여왕은 이미 왕이 아니었다. 티에우 찌 황제가 캄보디아의 반란을 진단하는 가운데

23) 첫째 딸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는데다가 친태국파로 간주되고 있었다. David Chandler, 2008, *A History of Cambodia*, Westview, p. 152.

베트남이 여지껏 캄보디아를 태국으로부터 보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번왕(藩王)이 이미 죽었으니 고만(高蠻, 캄보디아)은 이미 그 나라가 없는 것이라”²⁴⁾ 했으니 황제에게 여왕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나라가 이미 없어졌고, 이 나라는 여왕을 포함하여 태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 (베트남 측에서 볼 때) 인자하게도 조정의 ‘적자(赤子)’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호’ 다음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다음의 논리는 같아져야[同]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인바, ‘야만’의 캄보디아를 베트남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선, 1830년대부터 전국이 성제(省制)로 나뉘고 그 아래 부(府)-현(縣)-사(社)-촌(村)을 두게 되며 조정에서 과거제도를 통해 발탁한 관료들이 현 단위까지 파견되었다. 소수민족 거주지도 행정 개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현 단위까지 베트남인 관리가 임명되었으니 소수민족 거주지는 촌락으로 개편되고 베트남인의 행정 지도 아래로 들어갔다. 종종 이민족 거주지의 사(社), 그리고 심지어는 촌의 우두머리 직까지도 베트남인이 차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²⁵⁾ 베트남인 관리와 이민족 사이에는 언어 소통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한이유한’의 시기라면, 베트남인이 이민족의 말을 배우는게 일반적이었겠으나, ‘일시동인’의 시기에는 이민족이 ‘한어’와 ‘한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옳은 도리’였다. 민 망 황제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한인(漢人)이 번자(番字, 크메르 문자)를 먼저 배운다면, 그것은 용하변이(用夏變夷)의 정책을 거슬리는 것이다. 안강(安江), 하선(河僊), 영릉(永隆) 성의 토민(土民, 크메르인) 자제들로 하여금 부현(府縣)의 교육 담당자에게로 나아가 한자(漢字)를 배우도록 하여 비루한 습속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승려[크메르인에게는 불교 사찰이 교육기관임]로부터 배우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한자(漢字)를 습득하면 촌락의 장으로 임명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요구

24) 『大南寔錄正編第三紀』, 4 : 19a.

25) Choi Byung Wook, 2004, pp. 138~143.

되는지 알게 하라. 차후로 그들로 하여금 한인언어(漢人言語), 의복(衣服), 음식에 대해 배우게 해야 할 것이다.²⁶⁾

위에서 보듯 의복도 ‘한복(漢服)’이 장려되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을 먹는 방법도 바뀌어야 했으니, 손으로 먹는 야만의 풍속을 버리고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도 베트남화의 과정이었다.²⁷⁾

그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19세기 베트남의 자신감이었다. ‘한풍’이 베트남적인 것이라 할 때 단순한 유교 이념과는 큰 차이가 난다. ‘베트남적’이라는 것은 유교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문화 개념이다. 머리 모양, 글자, 의복, 음식 등 일상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례, 이념, 역사, 종교까지 포함한다.

베트남적인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권면하고 강요하는 데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베트남적인 것에 대한 인식 출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수 내지는 전파의 대상물의 실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베트남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우월 의식이다. 이 두 가지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문명화의 사명’을 떠오르게 한다. 곧 ‘문명화의 사명’의 제물이 될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동아시아적 ‘문명화의 사명’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베트남은 ‘베트남적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이런 작업은 15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성종 성세의 종말과 내전, 이백여 년에 걸친 남북 분립, 그 뒤를 이은 떠이 썬-자 딘 간의 내전으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세기의 응우옌 왕조가 주인이 된 ‘베트남’은 15세기 이래 최초의 한 개의 왕조였다. ‘베트남적 공동체 의식’은 이때부터야 비로소만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남에게 권면하고 강요해도 좋을 만큼의 우월의식은 확대된 영토, 중화적 가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 강력한 군사력, 활발한 대

26)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2 : 9b-10.

27) Choi Byung Wook, 2004, p. 145.

외 관계, 찌놈(chu nom)을 통한 민족 문학의 발전, 역사 의식의 고양 등등 자신감 넘치는 자 룡과 민 망 치세는 물론 19세기 전반과 중반기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고유의 근대성²⁸⁾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교 이념이라든가 한자는 중국의 독점적 문화 요소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이 요소를 공유해 오면서 함께 발전시켜 오던 한자 문화권 국가·민족들의 공통적 자산이다.²⁹⁾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의 한자 문화권 국가 중에서 당시 베트남이 보기에 ‘땅은 있되, 문화는 없는’ 만주인의 중국은 이미 중화 문화 수호의 정통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긴 하되 전통 시대 베트남인이 일본을 높게 평가한 부분은 교역의 힘과 무력이었다. 한국은 ‘문헌지방(文獻之邦)’으로 존중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조에게 봉쇄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이 ‘문명화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오직 베트남만이 문명화의 사명을 감당할 적임자였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베트남의 역동성은 유사한 시기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보이던 새로운 변화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세 개의 거대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 주역이 버마, 태국, 베트남이었다. 버마는 마지막 왕조인 쏼바웅 왕조(Konbaung, 1752~1885)가 수립되면서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몬(Mon) 족과 버마 족의 경쟁과 공존 관계가 종결되고 버마 중심의 거대 국가가 출현하였다. 태국에서는 노쇠한 제국 아유타야가 사라지고 그 대신 딱신(Taksin)의 신흥 톤부리, 짜끄리 왕조가 연속 들어서면서 태국 역사상 가장 확대된 제국을 건설했다. 란나(Lan Na, 치앙마이)를 흡수하고 란쌍(Lan Xang, 라오스)을 제압했으며 캄보디아까지 세력 판도 안에 끌어들이면서 베트남을 위협했다. 베트남에서도 떠이 썬의 봉

28) 최병욱, 2008, 『베트남근현대사』, 창비.

29) 그래서 필자는 ‘공교’나 ‘공자교’, ‘Confucianism’의 사용을 꺼린다. 중국인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대신 ‘유교’ (베트남 발음으로는 뇨자오 nho giao)를 선호한다. 한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자를 이용한 베트남적 표기방식인 ‘찌놈’을 많이 사용한 베트남에서는 ‘한자’는 곧 ‘베트남 글자’라는 것이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기에 따라 2백여 년 분립의 시대가 종결되고 통일의 길이 열렸으며 이 때이 켜를 진압하고 역사상 가장 큰 응우옌 왕조가 수립되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개의 강국이 각자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며 경쟁하는 형국이었다. '한이유한'은 이 경쟁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베트남이 중국 고전에서 차용한 언어적 포장이기도 했다.

이민족이 '한풍'에 얼른 물들게 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취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동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³⁰⁾ 세 가지로 대별해 보면 첫째는 교육, 둘째는 사람 섞기, 셋째는 행정체제 개편이었다.

교육은, 부르는[召] 방식과 보내는[差]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이민족의 자제들을 성·부·현 소재 각급 학교로 불러들여 가르치는 것이고 후자는 베트남인이 이민족 거주지로 들어가 가르치는 방식이다. 둘째, 사람 섞기 방식에는 이민족을 베트남인 거주지 안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고, 베트남인을 이주시켜 이민족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를 주둔시키는게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민 망 황제 시기에는 범법자들을 크메르인 거주지로 보내 살게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부-현-사-촌의 구획을 재조정하면서 이민족이 베트남인의 행정체제 아래로 편입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민족은 “점차 한풍에 물들게 되어(漸染漢風)” 베트남인이 되어가게 되어 있었다.

중국인 역시 동화의 대상이었다. 특히 '한풍(漢風)'을 입고 '만풍(滿風)'에 물든 머리 모양새나 복식은 베트남 지배층에게 질시의 대상이었으며 더 나아가 교화의 대상이었다. 정치 무대에서 중국인이 사라졌고 사이공에서 중국인의 교역 활동은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인의 대외교역 활동을 금지하는 이유로는 밀무역, 아편 수입 등 위법적인 행위가 나열되었다. 1838년부터 중국인들은 일체의 해외 무역은 물론, 바닷길을 통한 항해도 금지되었고, 해외 무역선에도 중국인의 고용이 불허되었다.³¹⁾ 민 망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인

30) Choi Byung Wook, 2004, pp. 138~146.

31)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2 : 9b-10 ; 최병욱, 2000, 「응웬 왕조의 중국인 정책」,

이란, 베트남에서는 살되, 만약 장사가 하고 싶다면 외국 무역은 불가하고 그냥 조용히 국내 교역이나 종사하면서 서서히 베트남인으로 동화되었으면 좋았을 존재였다.

서양인도 ‘일시동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큰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숫자가 적은데다가, 살다 보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자연스레 베트남인이 될 터이니 말이다. 1822년 베트남을 찾았던 존 크로퍼드 일행은 후에 왕궁 근처에 도달했을 때 필리페 바니에와 장 밥티스트 세노 등 두 명의 ‘프랑스인 관리들’의 방문을 받았다.

[行人司]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두 명의 프랑스인 관리들(French mandarins)을 만나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바니에(Vanier) 씨와 세노(Chaigneaux)씨로서 비단으로 된 코친차이나 옷차림이었다. 전자는 미국전쟁에 참여한 바 있다는데 60여 세 정도 되며, 후자는 약간 더 젊어 보였다. 그들은 프랑스혁명이 발발할 무렵 프랑스를 떠났으며 코친차이나의 전 왕(자 롱 황제)을 위해 헌신했다. 그 왕 때에 현재의 직위까지 승진했는데, 왕과 더불어 간난과 영화를 함께했다. 그 왕에게 봉사했던 스무 명의 프랑스인 중 그들 두 명만이 현재까지 살아 있다.³²⁾

그들은 이때까지 베트남인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 서양인이 자신의 혈연적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기에 모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민 망 황제의 ‘일시동인’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들은 베트남을 떠났다.³³⁾ 이들이 떠난 직접적인 이유가 일시동인 정책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 단지 무자비한 베트남화 정책의 도상에 민족적 다

『베트남 연구』 1호, 62쪽.

32) George Finlayson, 1826, *The Mission to Siam and Hue, the Capital of Cochin China, in the years 1821-22*, Singapore : OUP, 1988, pp. 253~254.

33) 최병욱, 1995, 「베트남 阮朝 (1802-1945) 초기의 嘉定城總鎮, 『慶大史論』 8집, 179쪽.

양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선대 자 룡 시대와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불편해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할 흥미로운 방법은 제의(cult)의 베트남화이다. 예를 들어 참파 왕과 캄보디아의 왕들의 위패를 베트남 수도에 두고 베트남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인데, 물론 정성어린 제사상을 차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베트남식으로 제사지내다가 결국 없애고 잊혀지게 한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남부베트남의 크메르인에 대한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캄보디아까지 내지화하는 작업을 전개하면서 역대 캄보디아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원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민 망 말기 캄보디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그 후 티에우 찌 시기에 다시 한번 건축 계획이 입안되었고 작업도 시작되었다.³⁴⁾ 불교 국가 캄보디아에서는 왕이 죽으면 화장을 한다. 베트남에서는 왕이 죽으면 시신을 묻고 능을 만든다. 사후 처리되는 방법이 전혀 다른 두 민족의 왕들에 대한 의례가 모두 베트남적 방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캄보디아 왕들의 혼령들로서는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곳, 전혀 캄보디아적이지 않은 건물 내에서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낯선 음식을 받으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되는 의식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으니, 영혼들에 행해지던 살아 있는 베트남인들의 극단적인 베트남화 작업이자 '일시동인'의 인정(仁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한이유한’은 19세기 초 베트남 통일 왕조를 건립한 자 룡 황제의 주장이었다. 베트남인과 이민족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여야 했다. 이런 다민족 공존의

34) 『大南寔錄正編第三紀』, 17 : 25b ; Choi Byung Wook, 2004, pp. 140~141.

전통은 베트남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되던 관념의 연속이었다. 전설과 역사가 혼재된 홍 브엉(Hung Vuong) 시대에 왕은 전국 15부(部)의 수장이었다고 하는데, 각 부의 구성원은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이었음이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³⁵⁾ 그 뒤에도 2세기 어우 락(Au Lac) 국의 수장은 북에서 왔고 이후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명확한 사실을 보건대, 10세기 베트남이 독립할 때까지 베트남의 구성원이 다민족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베트남이 10세기에 중국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다민족 사회는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되듯, 10세기부터 베트남의 역사가 ‘남진’의 역사라면, 그 남진의 과정 속에서 이질적 민족들을 흡수해 더 다양한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갔으니, ‘남진’과 ‘다민족화’는 동전의 양면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의 19세기 이전 역사는 성종 시기만 제외하고는 ‘한이유한’ 정책이었다고 일반화할 수 있겠다.

민 망 황제의 ‘일시동인’은 작게 보아서는 부왕의 정책의 파기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아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다민족 공존 전통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했다. 결별 이후의 새로운 시도는 무엇을 반영하는가? 필자는 이를 19세기 베트남의 ‘문명화의 사명’의 일환이었다고 보았다. 그 사명감의 배후에는 19세기에 형성된 베트남적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 수호자로서의 자부심과 우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일시동인’ 및 그에 수반되는 팽창과 동화는 이 시기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보이던 강국들의 경쟁이 나은 결과이기도 했다.

활발하게 진행되던 ‘일시동인’의 실험은 1859년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저지되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베트남에서 ‘하나 만들기’ 현상이 재현되고 있음을 본다. 20세기 중반까지 독립 쟁취를 위한 투쟁과 다시 그 후로부터 사반세기에 가까운 남북전쟁을 끝낸 후, 베트남의 영토는 남한의 약 반 정도 크기가 더 늘

35) 양승윤 외, 2002, 앞의 책, 22~23쪽.

어났다. 19세기까지도 '외국'의 범주에 들어가 있던 서부 고원지대가 프랑스 식민 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베트남 영토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곳에 살고 있던 12개의 소수민족도 베트남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영토 내에서의 일체화 작업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민 망 황제의 동화정책이 개국 후 약 30년이 지난 뒤부터 시작되더니, 1976년 베트남 통일 후 역시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인 요즘 21세기 초부터 베트남에서는 '동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음을 본다. 베트남인은 소수민족들을 동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

한 배에서 나왔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15세기 성종대에 정리된 '백월이 락 룡 꾸언과 어우 꺼 사이에서 나온 백 명 아들의 후손이다'라는, 다시 말하자면 백월이 모두 한 배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도 역시 레 왕조 건국 이후 약 30여 년이 지난 무렵에 나왔다)을 연상시킨다. 15세기 성종의 '한 배 설'과 19세기 민 망의 '일시동인설'은 21세기 소수민족에 대한 '동포설'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大南寔錄正編第三紀』(1894),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77
- 『大南寔錄正編第二紀』(1861),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 16 : 10a.
- 『大南寔錄正編第一紀』(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 5 : 23b.
- 『大南寔編列傳初集』(1889),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2, 28 : 9b.
- 양승운 외, 2002, 『베트남』,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陳荊和 編校, 1985, 『校合本大越史記全書』中, 東京大學校東洋文化研究所.
- 최병욱, 1995, 「베트남 阮朝 (1802-1945) 초기의 嘉定城總鎮」, 『慶大史論』 8집.
- 최병욱, 2000, 「응웬 왕조의 중국인 정책」, 『베트남 연구』 1호.
- 최병욱, 2008, 「18-19세기 베트남제국의 국제질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中華 論』, 인하대학교HK 학술회의 발표집.
- 최병욱, 2008, 『베트남근현대사』, 창비.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SEAP, Cornell University.
- Dang Nghiem Van, Chu Thai Son, Luu Hung, 2000,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Hanoi : The Gioi Publishers.
- David Chandler, 2008, *A History of Cambodia*, Westview.
- Fragments of the Present, Searching for Modernity in Vietnam's South*, 2001, Allen & Unwin.
- George Dutton, 2006, *The Tay Son Uprising, Society and Rebellion in Eighteenth-Century Vietnam*,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eorge Finlayson, 1826, *The Mission to Siam and Hue, the Capital of Cochin China, in the years 1821-22*, Singapore : OUP, 1988.
- Georges Condominas, trans. by Adrienne Foulke, 1977, *We Have Eaten the Forest, The Story of a Montagnard Village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New York : Hill and Wang.
- Gerald Cannon Hickey, 1982, *Free in the Forest, Ethnohisoty of the*

Vietnamese Central Highlands 1954–1976, Yale University Press.

Jacob Ramsay, 2008, *Mandarins and Martyrs, the Church and the Nguyen Dynasty in Early Nineteenth – Century Vietna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Li Tana, 1998, *Nguyen Cochinchina,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SEAP, Cornell University.

Phan Huu Dat, Lam Ba Nam, 2001, *Chinh Sach Dan Toc cua Chinh Quyen Nha Nuoc Phong Kien Viet Nam X–XIX*, Hanoi : Nxb Chinh Tri Quoc Gia.

Philip Taylor, 1998, “Vietnamese Moderns, Interpretations of the State in Postwar Southern Vietnam,” ANU, PhD dissertation.

[ABSTRACT]

Creation of One People in the 19th-Century Vietnam : From ‘*Han di huu han*’ to ‘*Nhat thi dong nhan*’

Choi, Byungwook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the creation of one people in Vietnam during the 19th century by examining of the policies of expansion and assimilation by the central court of Vietnam.

Vietnam had maintained multi-ethnic country until the 18th century with the concept of the ‘*han di huu han* (the Vietnamese and the barbarians must have clear borders).’ From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however, new idea of ‘*Nhat thi dong nhan* (No discrimination, same benevolence)’ replaced the ‘*Han di huu han*’. Though the meaning of the ‘*Nhat thi dong nhan*’ is quite soft and virtuous, the following policies for this idea was quite tough and cruel.

Different ethnics including Chinese in the territory of Viet Nam were forced by the main ethnic of the Kinh Vietnamese to change their outlooks, costumes, and even the way of life to those of Vietnamese, and they were forced to learn Vietnames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The policy of ‘*Han di huu han*’ was of the first emperor of Gia Long, while the ‘*Nhat thi dong nhan*’ was launched from the reign of the second emperor Minh Mang in the middle of 1830s. This discrepancy could be regarded to have come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erations. But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difference was more due to the appearance of new concept of the '*Nhat thi dong nhan*,' while the '*Han di huu han*' had been the continuous tradition of Vietnam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hat then were the reasons for the appearance of the new concept?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as the community of Viet Nam with the achievement of the first unification, discovery of Vietnam-ness, self-confidence for their own heritage, pride as the protector of the Middle Kingdom's heritage, military power stronger than any previous period were significant reasons for the change. In addition, the rivalry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big states, Burma, Thailand, and Vietnam in the mainland Southeast Asian world, also can be counted 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Vietnam to launch an active policy of expansion and assimilation with the idea of '*Nhat thi dong nhan*.'

keywords

han di huu han, *nhat thi dong nhan*, assimilation, Viet Nam, Minh Mang, ethnic minorities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 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기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고려 전기 五代와 송나라, 발해, 여진, 거란 계통 주민이 고려로 來投한 사실을 통해 고려왕조기 주민 구성과 민족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체로 학자들은 고려왕조 성립기를 전후하여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왕조 성립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 현상은 민족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주요한 소재가 된다.

고려 전기 역사 현상 가운데 특히 한국사의 역대 어느 왕조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국제적 파동 현상, 즉 매우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당시 대거 고려로 來投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10세기 초 당나라의 멸망과 동아시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來投 현상이 고려왕조 주민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來投인에 대한 고려정부의 정책을 통해 고려왕조의 특성과 국가 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¹⁾

1) 고려시대 고려로 來投한 주민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나, 이 글의 주제

나아가 그러한 특성과 체제가 민족문제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 고려왕조만의 일국사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의 정세변동과 관련하여 접근했다.

참고적으로 이 글은 먼저 논의의 진전을 위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한국 근대 이후 역사가들이 우리 민족의 구성과 주민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인 고려왕조기 ‘주민 구성’과 ‘민족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²⁾

II. 민족문제에 관한 제 논의 - ‘중심 민족론’과 ‘단일민족론’

1. 단재 신채호의 ‘중심 민족론’

단재 신채호는 국가 발생 이후 우리나라를 구성한 종족은 선비족, 부여족, 지나족, 말갈족, 여진족, 土族 등 모두 여섯 종족이며, 그 가운데 다른 다섯 종족을 정복하고 흡수하여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된 종족은 부여족이다. 4천 년 우리

와 직접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다음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南仁國, 1986,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歷史教育論集』 8 ; 韓圭哲, 1984, 「高麗來投・來往 契丹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47 ; 韓圭哲, 1994, 「高麗來投・來往 女眞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 『釜山史學』 25・26합집 ; 韓圭哲, 1997, 「渤海遺民의 高麗投化-後渤海史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33집 ; 朴玉杰, 1996,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한편 위의 연구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위의 남인국과 박옥걸의 연구에 잘 소개되어 있다.

- 2) 이에 관한 글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절에서 소개하겠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에는 신채호·손진태·이병도의 글, 현대의 것으로 노태돈과 북한의 연구 성과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글들에서 제기된 논의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역사는 부여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라고 했다.³⁾ 단재는 이같이 나라의 역사는 '주인이 된 종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역사는 부여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가는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므로, 단일한 피를 가진 종족의 국가이든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든 그 가운데는 주동이 되는 특별한 종족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 그 나라가 나라답게 된다고 했다.⁴⁾

이에 따르면 국가는 단일한 피를 가진 종족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여러 종족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종족으로 구성된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주동이 되는 특별한 종족' 혹은 '주인이 된 종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국가 형태는 후자의 유형이다. 단일한 피를 가진 종족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물론 '단일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부여족을 주인(혹은 주동)이 되는 민족으로 본 단재의 논리는 순수한 '단일민족론'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우리 역사는 국가 발생 이후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었지만, 역사 서술의 중심은 중심과 주동이 되는 민족인 부여족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외형적으로 단일민족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언급할 '단일민족론'을 주장한 손진태의 논리와는 실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중심(혹은 주인)이 된 종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단일민족론'과 구분하여 '중심 민족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재의 논리는 다음의 서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의 큰 迷惑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土地歷史가 있는 것만 알고 民族歷史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했던 종족이면 그들이 어떤 종족인 것도 묻지 않고 모두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의 토지를 관할했던 종족이면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3) 신채호, 1979, 「독사신문」, 안병직 편, 『신채호』, 한국근대 사상가선집 2, 한길사, 62쪽.

4) 신채호, 1979, 위의 글, 59쪽.

를 생각하지 않고 이를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에 넣고 있으니 그 어리석음이 어찌 이와 같은가.⁵⁾

동일한 역사공간(토지)에 존재했던 여러 종족의 역사를 ‘土地歷史’라 한 반면에 그 공간을 지배한 종족 중심의 역사를 ‘民族歷史’로 구분하면서, 민족 역사가 참된 역사라고 했다. 즉 국가 속에는 다양한 종족이 포섭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심(주동)이 되는 종족의 활동이 역사 서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재의 논리는 국가와 민족이 때로는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단일민족론’과 차이가 있다.

2_ 손진태와 이병도의 ‘단일민족론’

손진태는 단재와는 다른 입장인데,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민족은 지난 4, 5천 년 동안 만주와 반도라는 동일 지역 내에서 성장하였고, 동일한 血族體로서 동일한 문화 속에서 변함없이 공동운명체의 생활을 하여 온 단일 민족이므로, 우리 역사는 곧 우리 민족사가 되는 것이다.⁶⁾

즉 우리나라 역사는 순수한 피를 나눈 단일한 민족의 역사로서, 중심(주동)이 되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단재의 ‘중심 민족론’과는 다르다. 이를 ‘단일민족론’이라 할 수 있다.

손진태의 ‘단일민족론’은 다음의 견해에서도 확인된다. 즉 조선사는 조선 민족사로서, 유사 이래 동일 血族, 동일 地域, 동일 文化를 지닌 공동 운명 속에서 공동의 민족투쟁을 무수히 감행하면서 공동의 역사생활을 했다. 異民族

5) 신채호, 1979, 위의 글, 76쪽

6) 손진태, 1948b, 「自序」,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의 混血은 極少數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국민은 민족이며, 민족사가 곧 국사이다. 이 엄연한 역사 사실을 무시하고 조선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⁷⁾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 형성기부터 동일한 혈족체의 단일민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중심 민족론’을 주장한 단재와는 다른 입장이다.

다만 민족의식의 소유여부에 따라 국가와 민족이 구분될 수 있다고 했다. 즉 민족은 역사적 산물이며, 심리상·의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민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일부가 수천여 년 支那의 영지가 되어 지나의 말, 문화, 풍속과 습관을 가지고 지나 민족을 자칭하면 한국 민족이 아니라 지나 민족이 된다고 했다. 이같이 민족은 정치적 경계를 떠난 의식상·신앙상의 문제라고 했다.⁸⁾ 그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운 것은 동일한 언어·풍속·습관을 가졌지만, 각기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의식 때문이라 했다. 삼국 통일 후 신라 민족의식, 후삼국 통일 후 고려 민족의식을 가지면서 한국 민족이 형성되었듯이, 민족의식이 민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민족의 원형은 국가형성 초기에 형성되며, 민족이라는 말이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왕실 중심의 귀족 지배국가가 그러한 사상과 용어의 발달을 저해하였기 때문이고, 민족 자체는 말의 유무에 不關하고 엄연히 존재했다고 했다.⁹⁾ 구체적으로 씨족사(하한, 기원전 4~5세기)를 민족형성 배태기, 부족국가(하한, 기원후 1~3세기)를 민족형성 시초기, 삼국시기를 민족통일 추진기, 통일신라시기를 민족의 母體가 결정된 민족 결정기, 고려시기를 민족의식 왕성기, 조선시기를 민족의식 침체기, 19세기 이후 시기를 민족운동 전개기로 구분했다.¹⁰⁾ 국가 발생 단계부터 민족의 원형이 마련되었다는 그의 논리는 대단히 선형적이고 연역적으로 비춰진다. ‘단일민족론’이 지니는 한계는 이러한 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7) 손진태, 1948a, 『조선민족사개론』, 3쪽.

8) 손진태, 1981, 「한국민족의 구성과 그 문화」, 『손진태선생 전집』 6책 所收, 44~45쪽.

9) 손진태, 1948a, 앞의 책, 3쪽.

10) 손진태, 1948b, 앞의 책, 11~14쪽.

한편 이병도 역시 다음 글에서 ‘단일민족론’을 제기했다.

민족은 동일한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언어, 습속, 기타의 전통을 같이해 온 공동체라 하겠다. 더 간단히 말하면 민족은 역사공동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국적공동체인 국민의 개념과 다르다. …… 원시 민족에 있어서는 체질까지도 같이하지만, 발달된 민족은 그렇지 아니하여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우리 민족에도 외래의 요소 - 예하면 만주, 몽고, 漢人, 倭人, 기타의 피가 다소 섞여 있으나 그렇게 잡다한 복합체는 아니다. 대대로 우리 민족의 근본요소는 언제나 뚜렷하고 自若하고 우세적이어서 거기에 약간 다른 요소가 들어와도 곧 흡수하고 융화하여 혼연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가든지 대체로 언어가 같고 풍속이 같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우리 민족을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것이다.¹¹⁾

위의 글에 따르면 이병도는 민족을 역사공동체라 하여, 국적공동체인 국민과 구별했다. 우리 민족 속에 외래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역사’와 ‘민족역사’ 즉 국민과 민족을 구분했던 신채호와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외래문화를 바로 흡수하고 융화하여 혼연한 일체를 이루는”, 즉 “문화적 동화의 힘”이 결국 단일민족이 되게 한 것이라 했다. 한편 손진태는 중국의 지배를 받는 몽고와 西藏족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민’이지만, 각기 민족의식을 지니는 한 그들은 몽고와 서장민족이 된다고 했다. 즉 ‘단일민족’으로 유지된 것은 민족의식 때문이라 했다. 같은 ‘단일민족론’의 입장이지만,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

3_ 민족 형성과 고려왕조

이상 민족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 문제는 이 글의 중심 주제가 아니므로 자세하게 정리할 처지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

11) 이병도, 1953, 「국사의 의의」, 『국사와 지도이념』, 삼중당.

리한 것은 고려왕조기 주민 구성이나 민족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아쉽게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은 참고가 된다.

먼저 손진태는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고려 초기 여진·漢族 등의 내투와 귀화에 대해 주목한 유일한 연구자였다. 그는 내투와 귀화 사실로 인해, “지금 한국민족의 혈액 중에는 만주족, 몽고족, 漢族, 西伯利亞族, 인도지나족, 일본족 등의 혈액이 흘러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도에는 한족·몽고족의 그것이 우세하고, 함경도에는 만주족의 그것이 우세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쏠 한국의 민중은 全然 서로 혼혈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지남에 따라, 우리 전 민족의 피는 완전히 한국적 피로 化하였을 것이다”¹²⁾라고 하여, 다양한 종족의 내투가 다양한 민족의 구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결국 한국인의 피로 동화되었다고 했다.

단일민족론을 주장한 그가 우리 역사에서 예외 현상으로 고려 초기 발해, 여진, 漢族 등 다양하고 수많은 종족의 來投와 歸化 사실에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쉽게도 손진태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쳤을 뿐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다. ‘단일민족론’이라는 그의 연역적이고 선형적인 논리 때문에 다양한 종족과 주민이 내투한 고려왕조 초기의 역사상을 결과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글은 고려 초기 내투와 귀화 현상에 최초로 주목한 손진태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고려 전기 來投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진전하고자 한다.

다음 손진태는 통일신라기를 거쳐 고려왕조기에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도 그러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¹³⁾ 노태돈은 고대국가의

12) 손진태, 1981, 앞의 글, 44~45쪽.

13) 일제강점기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은 모두 고려왕조 성립기를 ‘민족 형성기’로 표현했다. 이 글도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따라서 표현했다. 그러나 고려시기의 ‘민족 형성’을 달리 ‘민족체의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자들과 같이 ‘민족 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성립으로 민족이 형성되는 단초가 열리며, 고려 초 한국 민족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때의 민족은 ‘전근대민족’이 되는데, 근대 국민국가의 ‘근대민족’ 즉 국민과는 다른 개념이라 한다. 그리고 고려왕조 이후의 역사는 전근대민족에서 근대민족으로의 전환과정, 즉 ‘우리 의식’이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과정이라 했다.¹⁴⁾ 북한 역사학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⁵⁾ 이상에서 해방 이후 남북한 역사학 모두 민족 형성시기를 고려왕조에서 찾고 있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민족이 형성된 고려왕조 건국기의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파장으로 나타난 역사 현상도 이 글의 또 다른 중심 주제가 된다.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Ⅲ. 고려왕조 건국기 동아시아 정세와 내투 현상

고려왕조 건국기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에서 비롯된 파장은 고려왕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국사의 다른 왕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려 전기 주변 여러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14) 노태돈,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재수록). 이러한 논리는 서구 특히 소련 스탈린의 민족이론에서도 찾아진다. 자본주의 단계에서 형성된 네이션(nation 혹은 나찌아 natsiya) 이전의 단계를 나로드노스치(narodnost) 혹은 에스니(ethnic group, ethnic) 혹은 히스토리크-네이션(historic-nation)으로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다(위의 책, 29~30쪽 참고).

15) 북한의 경우 1956년 『조선통사』 초판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준민족(나로드노스치)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2년 『조선통사』(상, 개정판)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최초의 국가 통일시기는 고려의 통일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전사』(5, 6권-중세편, 1975)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핏줄과 언어, 풍습,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혈연적 및 문화적 공통성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고려에 대량으로 來投한 사실이다.

고려국가가 등장한 1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는 唐나라 제국의 붕괴로 상당 기간 힘의 공백상태가 지속되었다. 중원에서는 5대 10국과 같은 평균 40~50여 년의 短命국가가 부침을 거듭하였다. 동북아 지역에는 발해국의 멸망과 거란·고려 등 통일국가가 등장하면서 다원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무렵 중화제국 중심의 朝貢·冊封질서는 형식적 儀禮관계로 기능한 측면이 강했다.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명목적 조공관계는 있었으나, 사실상 대등한 입장에서 국경분쟁을 둘러싼 외교협상이나 국제적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국가 간 협상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¹⁶⁾

반면에 강력한 중심국가가 없는 힘의 공백상태로 국가 간 해계모니 장악을 둘러싼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域內에는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대규모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그것은 고려 국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들이 대량으로 고려국가로 來投했다. 後周·吳越·宋·契丹·渤海국의 주민과 黑水·鐵利·靺鞨·達姑·鐵勒·東西蕃 酋長으로 호칭되는 다양한 갈래의 女眞系 주민이 고려국가로 來投했다.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고려로 來投한 사실을 『고려사』 등의 기록에는 ‘投化’·‘來投’·‘來附’·‘來朝’·‘來獻’·‘歸附’·‘歸朝’ 등 다양한 用例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사의 다른 왕조와 달리 고려왕조기에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구성원이 來投한 사실은 고려국가의 주민 구성 나아가 그 성격을 살피는 데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이 글은 설명의 편의상 다른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고려로 들어온 행위를 ‘來投’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의 來投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⁷⁾

16) 조병한, 2006, 「동북아 국제질서 속의 한국사」,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일조각, 36쪽.

17) 참고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로서는 다음의 연구가 가장 상세하고 대표적이다. 朴玉杰, 1996, 앞의 책. 박옥걸은 이민족이 고려에 들어온 행위를 현대적인 용어로서 좀 더 익숙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歸化’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박옥걸, 1996, 위의 책, 27~28쪽). 또한 박옥걸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고려 전 시기 歸化人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참고적으로 고려 전기 고려국으로 내투한 전체 숫자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¹⁸⁾ 12세기 고려국 인구를 200만 명으로 추산한 『宋史』의 기록에 근거할 때 내투인은 고려국 주민 구성에 적지 않은 비중이었다. 비중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한국사의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의 내투를 수용한 사실 자체는 고려국가의 체제와 성격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같은 무렵 한반도 내부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나타났다. 통일신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각 지역에는 城主·將軍을 칭하는 세력이 근거지였다 城邑을 구축하고 독자의 세력을 형성했다. 10세기 초 본격화된 통합전쟁의 와중에서 반독립적인 후백제와 통일신라 영역의 성주·장군이 고려국으로 歸附했는데, 이를 역시 '來投'로 기록했다.¹⁹⁾ 주변 국가와 종족은 물론 후백제와 통일신라의 반독립적인 성주·장군과 그 주민이 고려국으로 來投한 사실 역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지역의 遠近과 種族과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한 현상을 한결같이 來投로 인식한 사실은 고려왕조가 고려국을 중심, 내투 지역을 주변으로 하는 上國과 藩國이라는 上下의 관계로 편제하려는, 고려 중심의 독자적인 天下秩序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중국의 역대 왕조가 고려국을 부여족의 별종 혹은 동이족으로 본 것과 같이 특정 종족이 건국한 왕조라는 인식과 달리, 고려국은 다양한 국가와 종족의 주민을 망라한 영역국가 혹은 천하국가라고 스스로 인식했던 것은 왕조 건국기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來投라는 역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우리 민족 형성시기를 고려왕조기로 이해하려 한 점과 고려 전기 주변의 여러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고려에 대량으로 來投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고려왕조가 어떤 과정과 형식을 통해 당시 내투 혹

18) 박옥걸, 1996, 위의 책, 59쪽.

19)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제 사람 宮昌과 明權 등이 來投하자 토지와 집을 내려주었다.”(태조 4년 12월);
 “6월에 後百濟 甄萱이 來投하였다.”(『고려사』 권86, 年表 高麗 太祖 天授 18년);
 “丁巳 下枝縣 장군 元奉이 來投하였다.”(태조 5년 5월)

은 귀화한 종족과 주민을 고려의 주민으로 편제했으며, 그러한 주민 구성을 통해 드러난 고려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결국 고려왕조가 주변의 영역과 그 주민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추구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민족문제에 관한 어떤 단서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Ⅳ. 고려왕조 건국과 주민 구성

고려 당대인은 고려왕조를 어떻게 호칭했을까. 태조 왕건은 26년(943) 5월 반포한 「訓要十條」에서 자신이 건국한 왕조는 三韓을 통일한 왕조[一統三韓]이며, 이를 ‘我國家’라 했다²⁰⁾(이하 이 글의 본문과 각주에서 『高麗史』 世家의 기록은 줄여서 해당 國王의 年月日만 기록하기로 한다). 또한 그 영역을 중국과 다른 東方으로 표현했다.²¹⁾ 최승로 역시 시무28조에서 ‘我國家’, ‘我朝’, ‘我聖朝’, ‘我三韓’이라 표현했다.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이는 당대인이 고려왕조를 지칭하는 가장 상징적인 用例이며 그 속에 특정 종족을 표시하는 용례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한편 『後漢書』에 따르면 중국인은 우리나라를 東方이라 하면서 또한 夷라고 했다.²²⁾ 즉 우리나라를 영역 명칭 대신 특정한 종족 명칭으로 호칭했다. 물론 중국 漢代라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인식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華夷論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20) 朕亦起自單平 謬膺推戴 夏不畏熱 冬不避寒 焦身勞思 十有九載 **‘統一三韓’** 叨居大寶二十五年 身已老矣 …… 其一曰 **‘我國家’** 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태조 26년 5월).

21)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태조 26년 5월).

22) 王制云 東方曰夷 …… 夏后氏太康失德 夷人始畔(『後漢書』 권85, 東夷列傳 제75).

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 속에는 당시 우리 민족이 거주한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영역은 중국과는 종족적으로 다른 국가(고조선과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도 나타난다. 唐나라 이후 중국인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두 국가는 모두 ‘夫餘의 別種’이라 했다.²³⁾ 중국인은 이같이 고려를 중국의 漢族과는 다른 종족, 즉 東夷 혹은 夫餘족이 세운 국가로 인식했다. 앞에서 표현한 당대 고려인의 생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고려왕조를 인식했음을 읽을 수 있다.

고려 당대인들이 종족을 기준으로 자신의 왕조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대 역사가들이 ‘민족’이라는 역사공동체를 기준으로 우리 역사와 국가를 인식하려는 경향과도 다른 것이다.²⁴⁾ 그렇다면 고려 당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왕조를 인식했을까. 태조 왕건의 아버지 世祖는 896년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궁예에게 “大王께서 만약 朝鮮, 肅慎, 下韓의 땅에 왕이 되시고자 하면 먼저 松嶽에 성을 쌓고 저의 장남을 城主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다.²⁵⁾ 여기서 조선은 옛 고조선 지역과 한사군의 영역, 숙신은 말갈과 발해 주민 등이 거주했던 만주와 한반도의 동북지역, 변한은 지금의 한반도 남부지역인 삼한 지역이다.²⁶⁾ 이들 지역에는 다양한

23) 高麗 本扶餘之別種 …… 及唐之末年 中原多事 其國遂自立君長 前王姓高氏 唐同光天成中 累遣使朝貢(『舊五代史』 권138, 外國列傳 高麗 및 『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 高麗).

24) 물론 고려 당대인들이 생각한 국가는 영역을 기준으로 보되 풍속과 언어, 문물제도의 동질성을 전제로 他者와 구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訓要十條』에서 거란은 풍속과 언어, 문물제도에서 고려와는 다른, 더욱 열등한 禽獸의 나라로 표현한 사실(契丹 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주변 국가와는 다른 고려국가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숨을 지니는 데 불과할 뿐이지, 이러한 기준으로 국가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재단한 것은 아니었다.

25) “世祖 時爲松嶽郡沙梁 乾寧三年丙辰 以郡歸于裔 裔大喜 以爲金城太守 世祖說之曰 大王 若欲王朝鮮肅慎下韓之地 莫如先城松嶽 以吾長子 爲其主 裔從之.”(太祖世家總序)

26) 김광수, 1986, 「고려 건국기 일국가의식의 이념적 기초」,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489~491쪽.

갈래의 많은 종족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조나 궁예 등 당시 지도자들은 특정한 種族보다는 한층 더 넓은 영역과 그 속에 거주한 다양한 종족을 아우르는, ‘통일 영역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공유했던 것이다.²⁷⁾

이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기로 한다. 고려 태조 19년(936) 9월 지금의 경북 선산 지역의 一利川에서 후백제 神劍 군사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동원된 고려의 군대 가운데 諸蕃의 군사가 포함되어 있다. 즉 ‘大相 庾黔弼과 元尹·官茂·官憲 등이 거느린 黑水·達姑·鐵勒 등 諸蕃의 勁騎兵 9,500명’ 바로 그것이다.²⁸⁾ 이는 후삼국 전쟁기 태조의 군대 속에는 다양한 종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데, 일리천 전투의 경우 동원된 黑水·達姑·鐵勒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諸蕃의 군사가 전체 군사 87,500명의 10%를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에 관한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 확인된다. 庾黔弼은 3,000명의 開定軍(북방이나 국경 밖 영토의 開拓과 劃定에 동원된 군사로 추정됨)을 이끌고 北狄의 잦은 침입을 받았던 지금의 함경도 安邊 지역인 鶻巖城에 가서 北蕃 酋長 300여 명을 회유하여, 그들 휘하 1,500여 명과 포로가 된 고려인 3,000여 명을 고려로 來投시켰다.²⁹⁾ 고려 태조 3년(920)의 일이다.³⁰⁾ 위에서 300여 명의 諸蕃酋長과 그들 휘하 1,500여 명의 무리는 유사시 군사

27)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김광수는 고려왕조의 출현으로 하나의 국가라는 一國家意識이 형성되는데, 그 근저에는 삼한으로 표현되는 민족적인 영역의식과 朝鮮을 시원으로 하는 민족사적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고려국가에서 형성된 영역 개념은 후삼국 지역과 서경과 압록강을 아우르는 한층 더 확대된 지역이라 했다. 이를 ‘민족적 영역 개념’이라 했다. 즉 고려국가의 성립은 단순한 민족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영역 개념까지 아우르는 것이 된다. 이 역시 고려국가가 특정의 종족보다는 다양한 종족과 그들의 영역을 아우르는 통일 영역 국가를 지향했음을 밝힌 연구이다(김광수, 1986, 위의 글, 488~489쪽).

28) 大相庾黔弼元尹官茂官憲等 領黑水達姑鐵勒諸蕃 勁騎九千五百(태조 19년 9월).

29) 『高麗史』 권92, 庾黔弼 열전, “太祖 以北界鶻巖鎮 數爲北狄所侵 會諸將議曰 今南境未滅 北狄可憂 朕 寤寐憂懼 欲遣黔弼 鎮之如何 僉曰可 乃命之 黔弼 卽日 率開定軍三千以行 至鶻巖 於東山 築大城以居 招集北蕃酋長三百餘人 盛設酒食 饗之 乘其醉脅以威 酋長皆服 遂遣使諸部曰 旣得爾酋長 爾等亦宜來服 於是 諸部相率來附者千五百人 又歸被虜三千餘人.”

30) 『高麗史』 권82, 병지 鎮戍군조, “太祖三年三月 以北界鶻巖城 數爲北狄所侵 命庾黔弼 率開定軍三千 至鶻巖 於東山 築一大城以居 由是 北方晏然.”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이들 집단이 이후 일리천 전투에서 유검필이 지휘한 ‘黑水·達姑·鐵勒 諸蕃’의 勁騎兵 9,500명의 모태로 판단된다. 후삼국 통합전쟁이 끝난 후 이들 집단의 상당수가 고려국가의 군사조직 속에 編制되었을 것이다. 이같이 고려왕조는 성립기부터 다양한 갈래의 종족이 고려의 주민으로 편제되었음을 알려 준다.

V. 고려 전기 내투의 실상

고려 전기 고려에 來投한 종족은 漢人系·女真系·契丹系·渤海系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내투한 주민은 발해계이다. 고려 전기 38회에 걸쳐 122,686명이 내투했다. 고려로 내투한 전체 인원의 73%나 된다. 이 가운데 7만 2,000여 명이 고려 太祖~定宗대(918~949)에, 5만 명이 光宗~景宗대(950~981)에 내투했다.³¹⁾ 태조에서 경종대까지의 기간은 926년 발해국이 멸망하고 928년 그 遺民이 東丹國을 세웠으나 거란에 의해 内地로 옮겨졌으며, 뒤에 다시 발해 유민이 後渤海 定安國 등을 건국했으나 내분과 거란의 압력으로 986년 정안국이 멸망한 기간에 해당한다. 즉 발해계 주민이 대규모로 내투한 시기는 발해국의 멸망과 그 유민들의 국가 건설과 해체가 반복된 혼란의 시기였다. 발해계

31) 여러 국가와 종족의 來投에 관한 통계 수치는 박옥걸의 다음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朴玉杰, 1996, 앞의 책). 이하 이 글에서 전거 없이 인용된 내투에 관한 수치는 박옥걸의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러나 통계 수치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규철은 당시 발해계 내투인의 총 숫자를 42,677명이라 했다(韓圭哲, 1994, 앞의 글, 9쪽). 박옥걸의 경우 數萬을 최소치 1만과 최대치 9만의 중간인 5만으로 추정한 반면, 한규철은 數萬을 1만으로, 數千을 1천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계 방식 때문에 여진인과 거란인 내투 숫자도 한규철은 각각 23,806명과 986명으로, 박옥걸은 각각 44,226명과 1,432명으로 집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민의 대규모 내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934년(태조 17)³²⁾ 7월 발해국 세자 大光顯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려로 내투했고,³³⁾ 938년 발해인 朴昇이 3,000여 호를 이끌고 고려로 내투한 예가 그러하다. 특히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내투했을 때 그에게 王氏로 賜姓하고 宗籍에 올려 왕실의 族員으로 삼았으며, 그의 막료들에게도 官爵을 내리고 田宅을 준 사실은 고려국가가 다른 종족과 달리 발해계 유민을 우대하였음을 알려 준다. 그와 함께 온 수만 명의 무리도 고려의 주민으로 편제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초기의 이러한 조치가 이후 발해 유민의 내투를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내투한 종족과 주민은 여진계이다. 앞에서 언급한 태조 3년 골암성 북방의 ‘北狄’ 즉 ‘諸蕃’으로 칭해진 黑水·達姑·鐵勒 종족 등을 유점필이 고려로 내투시킨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女眞系는東西의 女眞人과 靺鞨人 등 매우 많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고려 전기 여진계의 내투는 52회 모두 44,226명이나 된다. 여진계의 내투가 많았던 것은 12세기까지 국가가 건국되지 않아 발해·거란국 등 주변국의 지배를 받다가, 발해국

32) 『高麗史』年表(권86)와 『高麗史節要』에서는 大光顯이 來投한 시기를 太祖 8년(925) 12월로 기록하고 있어 『高麗史』世家의 기록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규철은 대광현은 후발해국의 세자로서 내투했다고 하여, 위의 기록보다는 『高麗史』世家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한규철, 1997, 앞의 글, 24~25쪽 참고).

33) 景宗 4년(979)에도 발해인 數萬 명이 내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옥걸은 이 두 사례의 數萬을 최소치 1만과 최대치 9만의 중간인 5만으로 推算했다(박옥걸, 1996, 앞의 책, 101쪽).

34) 여진계의 경우 현재의 기록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었음은 東蕃 黑水族의 경우 30여 종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사실(“東蕃黑水人 其種三十 號曰三十徒”, 문종 27년 5월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원래 여진족은 肅慎·挹婁·勿吉·靺鞨 등으로 불렸으며, 만주 길림성과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종족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래 고구려와 발해에 속해 있던 종족이었다. 발해가 멸망하면서 女眞으로 불렸다. 또한 길림성 동북방의 여진을 生女眞, 서남지방의 여진을 熟女眞이라 했다. 또한 契丹국이 들어선 후 그 지배 아래 있는 여진을 熟女眞, 그렇지 않은 경우 生女眞이라 했다. 고려에서는 지금의 함경도인 동계지역의 경우 東女眞 혹은 東蕃, 지금의 평안도인 북계지역의 경우 西女眞 혹은 西蕃이라 했다(박옥걸, 1996, 앞의 책, 39~40쪽).

의 멸망과 고려와 거란 사이의 전쟁 등 급격한 주변정세의 변동 때문이다. 그것은 발해 멸망기인 고려太祖~定宗대(918~949) 11,300여 명, 고려와 거란 전쟁의 막바지 단계인 顯宗~靖宗대(1010~1046) 19,000여 명이 집단으로 내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여진계 내투인의 약 70%가 이 무렵 내투했다. 여진족이 金國을 건국한 1115년 이후에는 내투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거란국은 907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여진계 주민과 달리 거란 건국 초기에는 契丹系 주민이 내투한 사례는 없다. 현종 7년(1016) 거란계의 내투가 시작되어, 정종대까지 집중적으로 내투했다. 전체 54회 가운데 42회의 내투가 이 무렵 이루어졌으며, 인원도 전체 1,432명 가운데 1,068명이 이 무렵 내투했다.³⁵⁾ 이 무렵은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이 막바지 단계였다. 특히 현종 20년 5월 “이때부터 내투하는 거란과 발해 주민이 매우 많았다”라는 기록과 같이,³⁶⁾ 이후 고려로의 내투가 집중되었다. 또한 내투한 거란계 주민은 거란국 건국 당시 피정복민인 原契丹族이거나, 거란국의 지배 아래 정치경제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종족의 일부로 판단된다.³⁷⁾

기록상 고려에 내투한 거란계 주민은 1,400여 명이라 하나,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고려에 내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거란과의 전쟁 당시 고려에 온 거란인 포로가 수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³⁸⁾만으로도 연대기에 기록된 내투 숫자의 10배나 된다. 물론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후 거란으로 송환되었을 것이지만, 고려에 정착하여 고려 주민으로 편제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대량으로 내투한 또 다른 증거는 南京 관내 거란 내투인들이 南京에 행차한 예종에게 거란의 雜戲를 연주한 사실이다.³⁹⁾ 이들은 집단으로 거주

35) 박옥길, 1996, 앞의 책, 59쪽.

36) 乙丑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 來投 自是 契丹渤海人 來附甚衆(현종 21년 5월).

37) 박옥길, 1996, 앞의 책, 56쪽 참고.

38) 『高麗圖經』 권19, 工技조,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39) 丁卯 王至南京 契丹投化人 散居南京圻內者 奏契丹歌舞雜戲 以迎駕 王駐蹕 觀之(睿宗 12년 8월).

하면서 고유한 풍속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후대 기록이지만 高宗 3년(1216) 금나라와 몽고에 쫓겨 고려에 들어왔다 포로가 된 거란인을 각 州縣에 分送하여 閑曠地에 거주케 하고 양식과 토지를 주어 농업에 종사하게 했는데, 그들의 거주지를 契丹場이라 했던 사실⁴⁰⁾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漢人系 내투 주민 속에는 송나라는 물론 송의 건국 이전인 吳越·後周·閩 등 五代 국가의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내투인의 경우 溫州·泉州·楊州·咸州·明州 등 그 출신지가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단순히 契丹漢兒(거란에 거주한 漢族으로 추정) 혹은 漢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遼나라를 통해 고려에 내투한 경우이다. 고려 전기 한인계 내투는 모두 42회, 155명이었다. 한인계의 경우 文士 출신이 많고, 이들은 내투 후 고려 정부에서 관직을 제수받아 관료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들도 고려의 臣民으로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 전기 고려에 내투한 국가와 종족은 매우 다양했다. 즉 後周·吳越·閩 등 五代 10국과 송·거란·발해·여진계 주민이 고려로 내투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소속된 漢人·奚·黑水·達姑·鐵勒(利)·北狄 등 種族名稱을 띠거나 東蕃·北蕃 등 단순히 지역 명칭을 띤 종족들도 내투했다.⁴¹⁾ 내투인 가운데 왕족과 관료집단, 文士와 進士와 같은 지식인, 武將과 酋長 등 군사집단, 승려와 상인, 工匠, 醫術과 占術人, 歌樂人 등 특수한 기능을 지닌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다음에는 내투인에 대한 고려정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0) 『高麗史』 권102, 金就礪전, “沖 以契丹俘虜 分送州縣 擇閑曠地居之 量給田土 業農爲民 俗呼爲契丹場.”

41) 『고려사』 기록 가운데 다양한 종족이 함께 내투한 대표적인 사례는 거란·여진·奚·발해·한인이 동시에 내투한 기록이다. 당시 내투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좋은 예이다.

是月 契丹三十三人 漢五十二人 奚一百五十五人 熟女眞十五人 渤海四十四人 來(예종 11년 12월); 壬辰 渤海五十二人 奚八十九人 漢六人 契丹十八人 熟女眞八人 自遼來投(예종 12년 1월).

VI. 來投人에 대한 정책

1. 居住와 編籍

來投人에 대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은 文宗 35년(1081)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정부는 蕃賊에게 변방으로 납치되었다 귀환한 고려인과 才藝가 있는 송나라 사람에게만 내투를 허락한다. 또한 黑水女眞과 같은 내투자들은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舊制에 입각하여 來投人을 처리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다만 이해 내투한 서여진의 漫豆 등 17인은 고려를 사모하여 왔기 때문에 예외로 山南州縣에 보내 고려인으로 編戶한다고 했다.⁴²⁾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舊制는 그 내용을 미루어 보아 문종 35년 이전에 제정된 것이 분명한데, 그에 따르면 고려정부가 취한 두 가지의 내투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책은 내투인 가운데 포로로 귀환한 고려인과 송나라 사람 가운데 文士層이나 특별한 才藝를 지닌 자들만 선별하여 내투를 허용했다. 두 번째 정책은 문종 35년까지 송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주민이나 종족은 내투하더라도 다시 돌려보내고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비교적 잘 지켜졌다. 송나라 내투자 가운데 姓名이 밝혀진 39명 가운데 25명이 실제로 고려의 관리가 되었다.⁴³⁾ 문종은 송나라 진사 張廷이 투화하자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他山의 돌도 필요하다며 그에게 秘書校書郎을 除授했다.⁴⁴⁾ 고려국가는 당시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로

42) 己未 西女眞漫豆等十七人 挈家來投 禮賓省奏曰 舊制 本國邊民 會被蕃賊所掠 懷土自來者 與宋人有才藝者外 若黑水女眞 並不許入 今漫豆 亦依舊制遣還 禮部尙書盧旦奏曰 漫豆等 雖無知之俗 慕義而來 不可拒也 宜處之山南州縣 以爲編戶 從之(문종 35년 8월).

43) 참고적으로 내투인 가운데 姓名을 남긴 경우는 漢人系 39명, 女眞계 62명, 契丹계 7명, 渤海계 22명 등 모두 131명에 불과하다(박옥걸, 1996, 앞의 책, 78쪽).

44) 戊寅 宋進士張廷 來 授秘書校書郎 敎曰 …… 授汝文職 輔予朝綱 他山之石 諒符於我(문종 6년 6월).

내투한 사람들을 적극 수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키려 했음이 문종의 언급에 나타나 있다. 張廷의 경우와 같이 관직을 받아 관료생활을 지속한 漢人系 내투인은 대부분 文士와 進士층으로, 雙冀·雙哲·周佇·劉載·胡宗旦·愼安之·愼脩·林完 등은 『고려사』 열전에 실려 있을 정도이다.⁴⁵⁾ 송나라뿐만 아니라 발해계 내투인도 고려에서 관료로서 활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大光顯은 왕실의 족보인 宗籍에 올라 白州守에 임명되었고, 함께 온 막료들도 官爵과 田宅을 받았다. 大道秀·大集成·大公器·大守正 등도 관료로서 활약했다.⁴⁶⁾

관료 외에 각종 才藝와 技能을 가진 내투인 가운데 송나라 張琬은 占術에 능하여 太史監候에 임명되었으며(문종 11년 7월), 송나라 樂人 龔中立도 樂官에 제수된 예(권97, 金富佺전)가 대표적이다. 한편 『高麗圖經』에 따르면 거란과의 전쟁 때 획득한 수만 명의 포로 가운데 10분의 1이 工技, 즉 기술자인 工匠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능이 뛰어난 자들을 개경에 머물게 하였다. 이들의 기술로 고려의 그릇이나 복식 제품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고 했다.⁴⁷⁾ 才藝者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고려국가의 내투정책은 다재다능한 내투인을 그야말로 適材適所에 배치시켜 국력을 신장하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⁸⁾

그러나 송환된 고려인과 송나라 才藝者를 제외한 내투인의 경우 자국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두 번째 정책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문종 35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내투한 여진·거란과 발해계 주민을 内地로 옮겨 고려의 주민으로 편적시킨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기록이 그러하다.

45) 박옥걸, 1996, 앞의 책, 77~78쪽.

46) 박옥걸, 1996, 앞의 책, 111~117쪽.

47) 『高麗圖經』 권19, 工技조,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48)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33~39, 118~121쪽 참고. 한편 박옥걸은 수만 명의 무리와 함께 내투한 대광현을 대외 무역의 중심지이자 고려의 관문인 예성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白州를 지키게 한 사실은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발해국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박옥걸, 1996, 앞의 책, 109~110쪽).

- A-① 흑수말갈 사람 阿離弗 등 6명이 내투하자, 그들을 江南의 州縣에 나누어 살게 했다(黑水靺鞨 阿離弗等六人 來投 分處江南州縣. 현종 8년 8월).
- ② 이달 거란 사람 奚哥와 발해 주민 500여 명이 내투하자, 그들을 江南의 州郡에 거주하게 했다(是月 契丹奚哥 渤海民 五百餘人 來投 處之江南州郡. 현종 21년 10월).
- ③ 을축일 서여진 사람 만투 등 27호가 내부하자, 東界에 거주하게 했다(乙丑 西女眞 曼圖等二十七戶 來附 處之東界. 현종 21년 11월).
- ④ 갑신일 制를 내려 내투한 여진 장군 아두한 등 340호를 嘉州와 鐵州 땅에 강제로 머물게 했다(甲申 制曰女眞將軍 阿豆閑等三百四十戶 來投 勒留嘉鐵二州之地. 德宗 즉위 8월).
- ⑤ 임신일 북여진 장군 우화골보가 내투하자, 집과 땅을 주고 京畿 지역 안에 거주하게 했다(壬申 北女眞將軍 迂火骨輔 來投 賜田宅 處之圻內. 靖宗 6년 9월).
- ⑥ 갑신일 서북여진 사람 잉화노 등 13명이 내투하자, 課戶로 삼게 했다(甲申 西北女眞 仍化老等十三人 來投 命充爲課戶. 靖宗 6년 10월).

위의 기록과 같이 여진계 내투인(黑水靺鞨)을 내지로 옮겨 살게 짓은 현종 8년(1017)의 기록이 가장 이르다(A-①). 또한 거란계 주민이 내투한 경우는 현종 21년 기록이 가장 이르다(A-②). 위 기록 외에도 문종 이전에 내투인을 內地로 옮겨 살게 한 기록은 많이 나타난다. 이같이 현종·덕종·정종으로 이어지는 치세에 거란·여진·발해계 주민이 대거 내투했고, 이들을 고려의 주민으로 編籍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문종 35년 당시까지 黑水女眞 내투인의 경우 거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舊制는 현실과 다르다. 舊制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종대 이후 그 규정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실은 고려정부가 내투인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내투인에게 投化田을 지급하고 관직을 받은 내투인은 口分田을 받게 하여⁴⁹⁾을 고려에서의 정착을 도왔다. 또

49) 『高麗史』 권78, 식화1, 祿科田, “(昌王卽位)七月 大司憲趙浚等 上書曰 …… 一 投化

한 군사적 기여가 있는 경우 주진군으로 편성했다. 이들을 投化丁이라 했으며, 그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한 사실⁵⁰⁾에서 확인된다.

지식층이나 재예자의 경우 내투 자체가 선진 문물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⁵¹⁾ 이는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他山の 돌이라도 필요하다”는 문종의 言明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 않은 일반 내투인을 현종대 이후 고려의 주민으로 編籍한 까닭은 무엇일까.

발해의 멸망과 유민들의 부흥운동,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 등 대륙정세의 커다란 변동과 파동이 대규모 내투를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현종 21년부터 거란과 발해계 주민의 來附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⁵²⁾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발적이기보다는 불안한 주변 정세에 쫓겨 流移民의 형태로 들어온 내투인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이 사료 A-①~⑥과 같이 거란·발해·여진계 주민을 현지로 돌려보내는 대신 고려의 주민으로 編籍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발해계 주민을 비롯해 많은 내투인을 수도 개경 이남의 江南이나 嶺南의 州縣 등 内地로 옮겨가 살게 한 것은 이들이 원래의 곳으로 歸還하는 것을 막아 고려의 주민으로 編制하여 농업생산 등에 종사케 하여 생산력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한편 고려정부는 내투하여 관리가 된 사람에 한해 본국에 있는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휴가를 주어 귀국을 허용했다.⁵³⁾ 그렇지 않은 내투인은 함부로

田 向國之人 食之終身 身歿則還公 受官職 有口分田者 不許.”

50) 『忠烈王』五年六月 都評議使言 又給兩界亡丁投化丁 田各四結(『高麗史』 권82, 兵 站驛조); 高州 都領一 郎將三 別將七 校尉十五 隊正三十二 抄軍左軍 各一隊 右軍八隊 寧塞二隊 投化田匠各一梗(『高麗史』 권83, 兵 州縣軍 東界조).

51) 여진인이라도 譯語의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 다음의 기록과 같이 향직 대신 일반 관직을 주었다.

丙午 制曰 黑水譯語加西老 諭東蕃 爲州縣 可授監門衛散員 賜名高孟(文宗 27년 9월).

52) 乙丑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 來投 自是 契丹渤海人 來附甚衆(顯宗 21년 5월).

53) 『高麗史』 권64, 禮6, 凶禮 五服制度조, “宣宗二年六月制 異國投化官吏 父母在本國身死 自聞喪日 依制給暇.”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히 규제했다. 또한 郡縣에 거주하다 범죄를 저지른 내투인은 水路지역 즉 연해지역으로 옮겨 살게 하여, 다시 군현과 내통하지 못하게 했다.⁵⁴⁾ 이러한 정책은 고려정부가 내투한 주민은 받아들이되, 그들로 하여금 고려의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고려의 臣民’으로 동화시키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점이 고려정부가 시행한 내투정책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賜物과 賜爵

來投人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의 하나는 다음의 기록이다. 주로 여진계 來投人에게 시행된 정책이다.

- B-① 병인일 흑수말갈 사람 알시경·고지문 등 24명이 고려 조정에 와서 土物을 바쳤다(丙寅 黑水靺鞨關戶頃·高之間等二十四人來獻土物. 顯宗 11년 1월).
- ② 기유일 동여진 추장 達魯 率衆이 고려 조정에 와서 蓄米 3백 석을 바쳤다(己酉 東女眞酋長達魯 率衆 來獻蓄米三百石. 顯宗 11년 4월).
- ③ 동여진 懷化將軍인 모이라 등 57명이 고려 조정에 來朝하자, 그들에게 물품을 차이가 있게 주었다(東女眞懷化將軍毛伊羅等五十七人來朝 賜物有差. 靖宗 1년 1월).

사료 B에 따르면 흑수말갈 주민(B-①)과 동여진 추장(B-②)이 고려에 와서 토산물과 米穀을 바쳤다. 고려정부 역시 그들에게 물품을 내렸다(B-③).

위의 기록은 앞의 사료 A와 같이 내투인을 內地에 거주하여 編籍시킨 경우와는 다른 정책이다. 來投 행위와 달리 B-①~②은 그들의 행위를 ‘來獻’, ‘來朝’라 표현했다. ‘來獻’은 ‘고려 조정에 와서 물건을 바쳤다’는 뜻으로, 來

54) 『高麗史』 권85, 刑法 盜賊조, “諸投化人 犯盜 配南界水路 不通州縣.”

朝와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용례가 고려국가와 주변 종족 사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⁵⁵⁾ 이는 천자-제후국 관계를 상징하는 儀禮의 용례로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朝貢-冊封 질서체제에 파생된 것이다. 그 속에는 상하의 관계와 질서를 전제로 한다. 고려정부는 來朝한 종족에 대해 물품을 하사함으로써 일종의 優越意識을 갖게 되며, 종족들은 來朝를 통해 고려정부로부터 종족의 안정을 얻고 域內 주민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고려국가와 주변 종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계의 저변에는 宗蕃意識이 깔려 있다. 來獻과 來朝는 上國과 蕃國이라는 宗蕃意識을 전제로 한 用例인 것이다.

來朝한 여진계 주민을 ‘化外人’으로 표현한 것도 宗蕃意識의 또 다른 표현이다. 靖宗 9년(1043) 東女眞 將軍 冬弗老·沙伊羅 등이 來朝했다. 고려정부는 이들을 ‘化外女眞’ 혹은 ‘化外人’이라 했다. 또한 이들이 과거 망령된 생각으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한 잘못을 뉘우치고 고려의 邊民이 되기를 원하니 받아들여기로 하고 물품을 하사했다.⁵⁶⁾ 여기에서 ‘化外人’은 고려의 邊民이 아닌, 즉 고려 영역 밖에 있으며 때로는 적대적인 행위도 일삼는 여진족을 뜻한다. 또한 고려국왕의 德治와 敎化를 직접 받지 않은, 敎化의 범위 밖에 있었던 종족이다. 고려조정은 이들의 來朝를 수락하고, 또한 상호 禮物의 授受를 통해 천자-제후 관계와 宗蕃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고려 전기 주변 종족의 내투는 이같이 고려적인 천하질서를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더 진전하면 來朝한 주민들에 대해 官爵을 내리는 형식으로 발전한다. 다음의 기록이 그러하다.

55) 다음의 기록과 같이 土物이나 禮物의 수수 없이 단순히 來朝했다는 기사도 적지 않은데, 역시 같은 내용의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丙子 東女眞酋長于那等 來朝(현종 10년 1월).

是月 女眞歸德將軍高豆等七十餘人 來朝 骨夫 率部落五百戶 來附(현종 19년 1월).

56) 庚辰 東女眞寧塞將軍冬弗老柔遠將軍沙伊羅等 率化外女眞八十人 來朝 奏云 化外人 妄懷狼戾 曾擾邊疆 泊蒙洪有 頓改前非 今引水陸蕃長 詣闕陳款 願爲邊民 自今每侯 隣寇動靜以報 王嘉之 特賜金帛 加等(정종 9년 9월).

- C-① 기유일 女眞靺鞨 사람 木史가 부락민을 이끌고 고려 조정에 來朝하자, 그들에게 官爵과 衣物을 주었다(己酉 女眞靺鞨木史 率部落來朝 賜爵及衣物. 顯宗 8년 7월).
- ② 동여진 사람 牛那·持烏·伊弗 등 30여 명이 고려 조정에 와서 土馬와 兵器를 바쳤다. 또한 그들에게 官爵과 衣物을 주었다(東女眞 牛那持烏伊弗等三十餘人 來獻土馬兵器 竝賜爵及衣物. 顯宗 9년 5월).
- ③ 임자일 동여진 사람 送逸羅가 무리를 이끌고 고려 조정에 來朝하자, 그들에게 階職을 더해 주었다(壬子 東女眞送逸羅 率衆來朝 增階職. 顯宗 10년 8월).
- ④ 동여진 사람 尼弓弗가 고려 조정에 來朝하자, 그들에게 鄉職을 더해 주었다(東女眞尼弓弗 來朝 增授鄉職. 顯宗 9년 9월).

사료 C-①과 ②는 고려 조정에 來朝한 여진족에 대해 ‘賜爵’ 즉 官爵을 내린 기록이다. 이들에게 준 ‘爵’은 단순한 관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원래 封爵制의 爵位를 뜻한다. 주지하듯이 封爵制는 중국 周나라의 5등 爵制에서 유래된 것으로, 작위를 받은 자는 領地가 分封되어 대대로 계승되는 封建制의 遺制이다. 주나라가 宗室에게 작위와 함께 分封을 한 것은 天子를 중심으로 하는 天下질서의 外延化를 상징한다. 고려왕조 역시 당나라의 봉작제를 받아들여 왕족, 즉 宗室과 異姓에 대해 각각 爵位를 내리는 등 봉작제를 시행했다.⁵⁷⁾ 그런데 여진 내투인에 대해 그러한 用例가 보인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것이며, 나아가 ‘賜爵’ 행위 자체는 당시 내투의 성격, 나아가 고려의 국가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문제는 고려의 封爵制는 宗室과 異姓의 고위 관료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來投人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투인에 대한 ‘賜爵’ 행위는 어떤 형식으로든 봉작제의 상징성을 지닌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사료 C-③에 따르면 내투한 동여진인에게 階職이 더해졌다고 한다. 이 역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연구가 있다. 金基德, 1997, 「고려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國史館論叢』 78; 金基德,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시 ‘賜爵’ 행위의 다른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참고로 階職의 ‘階’는 官職이 아니라 官階·文散階·武散階 등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가운데 무산계는 鄉吏·工匠·樂人 등 고려인은 물론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도 제수되었다.⁵⁸⁾ 따라서 사료 C-③의 ‘階職’은 무산계로 판단된다. 사료 C-④에서 來朝한 여진족에게 鄉職을 내려 주고 있다. 이 역시 ‘賜爵’의 다른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현종 8년 7월 邊功에 대한 포상으로 ‘鄉職’을 내렸는데, 이를 다른 기록에서는 ‘鄉爵’이라 했다.⁵⁹⁾

이로 미루어 보아 사료 C-①과 ②의 賜爵에는 鄉職도 포함된다. 실제로 내투한 東北女眞의 首領 阿道閒에게 향직인 正甫(5품)를 내린 사례도 있다.⁶⁰⁾ 참고로 鄉職의 ‘鄉’은 중국과 구별되는 高麗風, 즉 고려적인 관직 질서의 하나로, 고려 독자의 질서를 상징하는 관직체계이다. 또한 고려 고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역 밖의 주민과 사회를 영역 내로 편제하는 수단으로 고려왕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질서세계를 상징한다.⁶¹⁾ 향직뿐만 아니라 무산계도 그러한 역할을 했다.

앞의 사료 B-①~③에서 고려 조정에서 와서 물품을 바친 여진계 주민을 ‘化外人’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사료 C-①~④과 같이 고려 조정에서 ‘賜爵’의 대상이 된 來投人은 ‘化內人’이 된다. 平虜鎮 가까이 거주한 蕃帥 柔遠將軍 骨於夫 등은 일찍 거란에서 大完이라는 직명을 받았는데, 문종 23년 고려에 來朝하여 관직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 같은 왕 27년 ‘契丹化內蕃人’을 이끌고 고려의 주민으로 附籍되어 藩屏이 될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다.⁶²⁾ 여기서 ‘契丹

58) 旗田巍, 1961, 「高麗時代의 武散階」, 『朝鮮學報』 21·22.

59) 庚子 兵部奏 正輔李龍奉正朝任述光等三十人 皆有邊功 請加鄉職一級 從之(현종 8년 7월); 兵部奏 正甫李龍奉 正朝任述光等三十人 皆有邊功 請加鄉爵一級 從之(『高麗史節要』 권3, 현종 8년 7월).

60) 乙丑 東北女眞首領太史阿道閒等五十九人 來朝 有司言 太史 契丹職名也 阿道閒 今既歸化 請改授正甫 從之(정종 2년 4월).

61) 武田幸男, 1963, 「高麗時代의 鄉職」, 『東洋學報』 47, 190~194쪽.

62) 又奏 平虜鎮近境 蕃帥柔遠將軍 骨於夫及覓害村 要結等告云 我等曾居伊齊村 爲契丹大完(職名) 邇者 再蒙招諭 於己酉年(문종 23)十一月 赴朝 厚承恩賚 且受官職 不勝感戴 顧所居去此四百里 往復爲難 請與狄耶好等五戶 引契丹化內蕃人 內徙覓害村

化內蕃人'은 거란에서 관직을 받은 내투인을 뜻한다. 한편 문종 33년(1079) 4월 西女眞 須于那 등 7인이 來朝하자, 고려는 그들이 北朝, 즉 거란에서 받은 職牒을 거두어들이고 이들에게 鄉職인 元甫(4품)를 제수한 바 있다.⁶³⁾ 이들은 고려에서 '賜爵'의 대상이 된 내투인으로, 달리 '高麗化內蕃人' 즉 '化內人'이 된다. 동북아시아의 천자국으로 자처했던 고려와 거란은 경쟁적으로 주변 종족에 대해 爵位를 부여해서, 그들을 포섭하여 '化內蕃人' 즉 그들의 藩屏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이 같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鄉職과 武散階는 이같이 고려로 내투한 종족에게 내려진 일종의 爵位체계의 하나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賜爵' 행위는 고려국가가 천자국으로서 여진·탐라·일본 등 주변 종족과 국가를 포섭하여, 고려적인 천하질서로 흡인하는 상징적인 제도의 하나였다. 그러한 사실은 八關會 儀式에서도 나타난다. 태조 때부터 시작된 팔관회는 정종 때부터 송나라 상인, 여진, 탐라, 일본인이 來朝하여 고려 국왕에게 方物을 바치고 朝賀하는 일이 팔관회 의식의 주요한 순서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고려국에도 중화제국과 같이 德化에 따른 秩序理論이 존재했으며, 이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국가구조가 팔관회였다. 따라서 팔관회 의식은 그와 같은 德治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장이었다.⁶⁴⁾ 팔관회 의식 역시 향직과 무산계와 함께 고려적인 천하질서를 상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郡縣 新設과 歸順州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여진인의 내투가 계속되자, 靖宗 9년(1043) 9월 고려 조정은 來朝 인원을 줄여 순차적으로 내조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

附籍 永爲藩屏 於是 檢得戶三十五口二百五十二 請載版圖(문종 27년 5월).

(63) 西女眞須于那等七人 來朝 納北朝所授職牒 有司 請改授元甫職 從之 賜金帛(문종 33년 4월).

(64) 奧村周司, 1979, 「高麗에 있어서 八關會의 秩序와 국제환경」,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73~84쪽.

위의 인용문에서 편의상 女眞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기록에는 이들을 黑水, 東西蕃, 東女眞, 東西蕃子, 東西蕃酋長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⁶⁵⁾ 또한 東西 酋長이 來朝할 경우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 入關하게 하거나,⁶⁶⁾ 來朝하더라도 개경 체류기간을 15일을 넘지 못하게 했다.⁶⁷⁾ 그러나 계속되는 내조로 인해 이러한 대책도 항구적이지 못했다.

關防을 만들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蕃族의 歸順이 끊이지 않자, 고려 정부는 州縣을 신설하여 朱記를 주어 내투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다.⁶⁸⁾ 그러한 조치는 이미 정종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종 9년 동여진 내투인의 거주지에 築城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이는 물론 고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같이 축성을 통해 그들을 고려의 백성으로 臣服케 하는 한편으로 이들을 울타리로 삼아 외침을 방지하고자 했다.⁶⁹⁾ 축성은 새로운 영역을 확정하고, 域內 주민을 編籍시켜 사실상 새로운 군현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었다.

내투인의 거주지에 군현을 신설하는 정책은 집단내투에 대한 또 다른 고려 정부의 정책이다. 군현 신설 정책은 문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동북 여진 지역에 많은 군현이 신설되었다. 문종 27년(1073) 2월 東女眞의 歸順州都領 大常 古刀化와 益昌州都領 歸德將軍 高舍 등이 무리를 이끌고 와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를 요청했다. 고려정부는 古刀化에게 孫保塞, 高舍에게 張誓忠이라는 姓名과 함께 懷化大將軍의 관직을 하사하는 등 各州의 都領에게 姓氏와 官爵을 하사했다.⁷⁰⁾ 이는 고려 초기 왕조에 歸附한 지방의 城主·將軍에

65) 戊戌 東北路兵馬使奏 女眞柔遠將軍沙伊羅 誘致水陸賊首羅弗等四百九十四人 詣和州館 請朝 有司議奏 此類人面獸心 宜令兵馬使 量減人數 分次赴朝 從之(정종 9년 4월).

66) 辛酉朔 西女眞酋長遮亶等六人 來獻鐵甲兵仗 賜衣帶·綵帛有差 制曰 凡東西酋長欲來見者 兵馬使申報 取旨後 方許赴關 以爲永制(문종 35년 2월).

67) 己丑 東女眞酋長陳順等二十三人來獻馬 制曰凡蕃人來朝者 留京毋過十五日 竝令起館 以爲永式(문종 35년 5월).

68) 今諸蕃 絡繹歸順 不可遮設關防 宜令有司 奏定州號 且賜朱記 從之(문종 27년 6월).

69) 癸未 東女眞將軍烏乙達等男女一百四十四人 來獻駿馬 奏曰 我等 在貴國之境 慕化臣服有年矣 每慮醜虜來侵 未獲奠居 今築三城 以防賊路 故來朝謝恩 王 優賞遣還(정종 9년 9월).

70) 乙未 東女眞歸順州都領大常古刀化 副都領吉舍 益昌州都領歸德將軍高舍 都領黔夫 訶城州都領奉國將軍耶好 歸德將軍吳沙弗 恭州都領奉國將軍多老 番長巴詞弗 恩服

게 本貫과 姓氏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왕조의 지배질서로 포섭하려 했던 정책을 연상케 한다. 같은 해 4월 東北邊 15개 주의 外蕃人이 고려에 귀부하여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여 州縣을 拓定하는 예를 시행했다.⁷¹⁾ 여기서 군현으로 편입되기 전의 여진을 ‘外蕃’으로 표현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고려에 내투하여 주민으로 편적된 내투인을 국왕의 德化를 입은 ‘化內人’으로 표현한 용례와 반대의 ‘化外人’을 뜻한다.

이같이 고려정부는 여진족이 집단적으로 내투하자, 이들을 고려의 領內로 옮겨 거주하게 하는 대신 현지에 군현을 신설했다. 또한 이를 ‘拓定’ 즉 영토 개척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한편 서북병마사도 서여진 내투(투화)인에 대해서도 東蕃의 예에 따라 州郡을 설치하여 이들을 고려의 蕃翰, 즉 藩屏을 삼을 것을 요청했다.⁷²⁾ 즉 내투(투화)인 거주지를 군현으로 삼고, 그것을 藩屏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참고로 藩은 중국이 天子國으로서 異域의 封臣 諸侯와 정치의 교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이다. 이는 ‘천자의 藩屏’이라는 의미이다.⁷³⁾ 고려는 내투(투화)인의 거주지를 군현으로 편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각각 化內와 化外, 즉 內蕃과 外蕃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이는

州都領元甫阿忽 都領那居首 溫州都領三彬 阿老大 誠州都領尼多弗等 率衆內附 乞爲郡縣 賜古刀化名孫保塞 高舍名張誓忠 各授懷化大將軍 耶好名邊最 多老名劉咸賓 各授奉國大將軍 吳沙弗名魏蕃 授懷化將軍 阿忽名揚東茂 授歸德將軍 古舍名文格民 黔夫名康績 巴阿弗名盧守 那居首名張帶垣 三彬名韓方鎮 阿老大名高從化 尼多弗名趙長? 各授大常 仍賜物有差(문종 27년 2월).

71) 丙子 制曰 東北邊十五州外蕃人 相繼歸附 願置郡縣 于今不絕 此實賴宗廟社稷之靈 其令宰臣 先告事由 待遠近畢納款 拓定州縣而後 親行恭謝 其行禮及太子攝事之儀 有司詳議以聞(문종 27년 4월).

72) 丁未 西北面兵馬使奏 西女眞酋長曼豆弗等諸蕃 請依東蕃例 分置州郡 永爲蕃翰 不敢與契丹蕃人交通 制 許來朝 因命後有投化者 可招諭而來(문종 27년 5월).

참고로 서여진의 諸蕃이 고려에 내조하자, 고려정부가 그들에게 군현을 설치해 거주케 한 경우의 來投者를 위의 인용문에서는 投化者라 했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고려에 들어온 다른 종족과 국가의 주민을 편의상 ‘來投者(人)’로 규정했지만, 이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投化者(人)’로 칭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가 될 것이다.

73) 추명엽, 2002, 「고려전기 ‘蕃’의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16쪽.

앞에서 밝혔듯이 내투인에 대해 물품만을 하사하는 경우와 官爵을 내리는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그들을 化內人과 化外人으로 구분한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즉 그 배경에는 고려를 천하의 중심에 두고 그 주변과의 관계를 上國과 蕃國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 바탕에 宗蕃意識이 깔려 있으며, 나아가 고려의 원래 영역과 내투지역의 군현을 천자-제후 관계로 인식한 근거가 된다. 고려정부는 이렇게 신설된 군현을 歸順州라 했다. 예를 들면 東女眞의 大蘭 등 11개 촌락이 內附하자, 그들 거주지를 濱·利·福·恒·舒·濕·閩·戴·敬·付·宛州 등 11개 주로 만들어 朱記를 내리고 歸順州에 예속시켰다.⁷⁴⁾ 귀순주는 주변 종족들이 내투(투화)한 지역을 군현으로 만들고 이들을 고려 영내의 군현과 구별하여 부른 호칭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고려 영내의 군현과 귀순주를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한 宗蕃意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VII. 맺음말

고려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고려로 내투한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을 별다른 거부 없이 고려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지녔다. 그것은 '다민족', '다종족'의 존재를 용인하고, 그들의 영역을 고려의 '蕃'으로 인식하며 고려국의 영역으로 간주한 '다민족(종족) 영역국가'라는 국가체제를 지향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 하겠다.

고려로 來投한 종족과 주민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層位로 편제되었다. 먼저 내투하여 관직을 제수받아 지배층으로 편입되거나 內地로 옮겨져 고려 주민으로 編籍된 층이다. 아마도 이들이 전체 17만으로 추산되는 내투 인구의 주

74) 翰林院奏 東女眞大蘭等十一村內附者 請爲濱利福恒舒濕閩戴敬付宛十一州 各賜朱記 仍隸歸順州 從之(문종 27년 9월).

류를 이루었다. 다음은 ‘賜爵’의 대상이 된 층, 즉 鄉職과 武散階를 수여하여 그들을 고려적인 천하질서에 포섭하여, 고려 국왕의 德治와 教化를 받게 했다. 또한 그들의 근거지에 築城과 郡縣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그들을 ‘化內人’, ‘化內蕃人’으로 간주하고 天子國 고려의 藩屏으로 삼았다. 八關會 질서 역시 그들을 포섭하는 제도장치의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고려왕조에 來朝하여 土物을 바치는 등 고려국과 상호 禮物의 授受를 통해 조공-책봉관계를 형성한 ‘化外人’, ‘化外蕃人’도 있다.

고려왕조는 이같이 다양한 주변 종족과 국가의 주민을 다양한 층위로 편제시켜, 고려의 臣民으로 삼거나 고려의 蕃屏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배경 속에는 고려와 주변 종족을 중심과 주변, 즉 天子와 諸侯로 의식한 宗蕃意識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宗蕃意識에 기초한 天下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후삼국 통합과정에서 來投한 城主·장군들도 이러한 제도와 의식에 포섭되었다. 고려국은 이러한 제도와 의식을 통해 天子國 體制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한 국가체제, 즉 천자국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동아시아 세계의 불안한 정세의 산물로서의 내투인 수용 정책뿐만 아니라, 반세기간의 치열한 통합전쟁이라는 국내정세의 커다란 파장을 극복하고 옛 삼국의 다양한 인적·문화적 자원을 흡수하여 성립된 통합국가라는 역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건국 초기부터 불교·유교·도교·풍수지리·무격신앙 등 다양한 사상이 별다른 충돌 없이 공존하고, 청자와 불화로 대표되는 문벌집단의 중앙문화와 거대한 石佛과 鐵佛로 대표되는 지방 세력이 주도한 지방문화가 공존하는 등 다양한 사상과 문화의 공존, 대외무역을 장려한 개방성과 하층민의 활발한 신분 이동으로 상징되는 역동성을 특징으로 한 多元社會라는 특성을 낳게 했다. 다양한 종족과 국가 주민의 내투를 수용했던 고려왕조의 개방적인 정책은 다원 사회를 지향했던 사회문화적 기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⁷⁵⁾

앞에서 밝혔듯이 근대 이후 역사가들은, 논자에 따라 민족의 성격을 ‘근대

75)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6~39쪽.

민족' 혹은 '전근대민족'으로 보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통일신라에서 고려 왕조기를 '단일민족'의 형성기로 이해하였다. 즉 '고려왕조기 단일민족 형성론'을 지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글에서 지금까지 논증했듯이 '고려왕조기 단일민족 형성론'은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9~10세기 급변했던 동아시아 정세와 치열한 후삼국 통합전쟁과 같은 국내외의 정세에 따라 한국사의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다양한 종족과 국가의 주민이 대규모 형태로 고려국으로 내투했다. 고려국가는 내 투인을 수용하여 다층위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가체제를 '多民族 多種族'의 領域國家를 지향한 천자국 체제로 간주한 바 있다. 이러한 주민구성과 국가체제에서 '단일민족론'이 수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논의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고려왕조의 국가 성격과 체제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거나, 근대 식민지시기의 민족운동과 해방 공간의 신국가 건설이라는 실천적 과제에서 비롯된 연역적·선형적 역사인식의 산물로서 '단일민족론'이 제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연구사적 반성을 하게 된다.

다양한 종족과 국가 주민의 내투로 인해 형성된 다민족(종족) 영역국가 체제는 '단일민족론'을 수용하기에 구조적으로 적합한 체제는 아니었다. 반면에 그러한 체제는 항상 분열과 대립의 위험성을 지닌다. 왕조 건국 이후 끊임없이 나타나는 三國의 遺民意識, 고구려와 신라 계승의식, 서경과 개경의 지역 간 대립과 갈등, 농민항쟁기 삼국 부흥운동이 그러한 예가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불가피했다. 고려 초기 제기된 '一統三韓' 혹은 '三韓一統' 의식은 그러한 국가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념장치였다. '一統'은 기존의 설명과 같이 국가의 통일·통합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중국 고전⁷⁶⁾에서 표명된 '大一統'의 뜻이 있다. 천

76) 春秋 公羊傳, "隱公 元年 何言乎正月 大一統也 (注) 統者 始也 揚繫之辭 夫王者始受命 改制布政 始教於天下 自公侯至於庶人 自山川至於草木昆蟲 莫不一一繫正月 故云政教之始 (疏) 王者受命 制正月以統天下 令萬物無不一一皆奉之以爲始 故言大一統也."

명을 받은 천자가 제도를 정하고 천하에 政敎를 반포한다는, 즉 천하국가의 시작과 출발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 점에서 一統意識은 통합전쟁의 승자로서 천하를 통일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분출되는 삼국 遺民意識이라는 분열의식을 해소하고 '삼국에 대한 동일체 의식'⁷⁷⁾을 고양시켜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된 영역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 이병도의 '우리 민족이 지니는 외래문화를 바로 흡수하고 융화하여 혼연한 일체를 이루는' 즉 '문화적 동화의 힘'도 사회문화적 통합력을 제고시켜 나갔던 것이다. 특히 몽골과의 항쟁을 겪으면서 我邦의 시원으로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一然과 李承休의 역사학을 통해 뚜렷이 부각되는데, 이 역시 다양한 주민과 영역을 통합하여 삼국 유민의식을 청산하는 '동일역사체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다.⁷⁸⁾ 一統三韓 의식, 문화적 동화의 힘, 고조선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한 동일역사체 인식 등은 다종족(민족) 영역국가가 지닌 분열적 요소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영역과 종족으로 구성된 고려국가는 점차 종족과 국적을 초월하여 '고려의 臣民'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제고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논자에 따라서는 '단일민족으로의 결집과정'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내투로 특징지어지는 '고려 전기'의 역사와 '고려 중기' 이후 '고려의 臣民化'라는 역사과정은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역사과정을 하나의 단일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고려의 신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제고시켜 나간 '고려 중기' 이후의 역사 역시 고려왕조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역사 개념을 선부르게 재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고려 중기 이후 특히 단군을 공동의 시조로 하는 역사 공동체 인식의 대두는, 비록 그것이 몽골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든

77) 노태돈, 1997,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95쪽.

78) 노태돈, 1997, 위의 책, 107~116쪽.

중국 중심의 유교역사학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든,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그러한 인식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고려 전기의 역사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경우 수용될 수 없을 것 같던 ‘단일민족론’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이유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단재 신채호선생 전집』, 1975.

『손진태선생 전집』, 1981.

김광수, 1986, 「고려 건국기 일국가의식의 이념적 기초」,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南仁國, 1986,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歷史教育論集』 8.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朴玉杰, 1996,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이병도, 1953, 『국사와 지도이념』, 三中堂.

조병한, 2006, 「동북아 국제질서 속의 한국사」,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일조각.

추명엽, 2002, 「고려전기 '蕃'의 인식과 '동·서변'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韓圭哲, 1984, 「高麗來投·來往 契丹人- 渤海遺民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47.

韓圭哲, 1994, 「高麗來投·來往 女眞人- 渤海遺民과 관련하여」, 『釜山史學』 25 · 26
합집.

韓圭哲, 1997, 「渤海遺民의 高麗投化-後渤海史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33집.

[ABSTRACT]

The System of the State in the early Goryeo dynasty :
With focus on the Configuration of the Residents

Park, Jongki

There was the great power vacuum after the collapse of Tang dynasty in mainland China at the early 10th century in the East Asia. By taking advantage of an opportunity Kithan founded the country and collapsed the kingdom Balhae in the northeastern part of main land. Goryeo dynasty founded the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ung dynasty founded the country in the Main land. So it was formed the plural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middle 10th century in the east Asia. Each dynasty struggled to take the leadership in east Asia. Many tribes and residents of foreign country who are estimated seventeen hundred thousand took refuge to Goryeo dynasty untill 12th century. Goryeo dynasty opened the doors to them and organized them the citizen of the dynasty. So the national character of Goryeo dynasty was multinational state and was different from the unitary state as we know.

keywords

Goryeo dynasty, Kitan, Balhae, multinational state, refuge, unitary state

근대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中華帝國의 전통

- 중국 민족주의의 제국적 기원 -

조병한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근대 民族主義 형성의 첫 단계는 대개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의 근대화 경쟁 속에서 통치집단 내의 국가주권(國權) 의식의 발생에서 출발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록 서구와 같은 市民社會의 전통이 취약했다 해도 고대국가 이래 국가적 통일의 전통이 서구에 비해 강력했기 때문에 전근대적 형태의 문화적·종족적 정체성이 근대 民族主義의 출현을 위한 유리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각국에는 패권국가 영국을 비롯해 소수의 경쟁적 서구 國民帝國들¹⁾의 범세계적 제국주의 질서의 外壓이 날로 강화

1) 山室信一, 2004, 「國民帝國論の射程」, 山本有造 編, 『帝國の研究－原理・類型・關係－』, 2쇄, 名古屋大學出版會, 93~98쪽. 그의 학설에 따르면 국민제국은 역사적으로 전근대적 家産制 王朝帝國의 계승인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의 확장으로서 1870년대 이후에는 제국 형성이 국민국가가 추구할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 국경 내의 균질적 민족 영역인 국민국가와 그 주변부의 이질적 차등 지배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주의적 보편성의 이념이 결여된 점이 세계제국과의 차이이라 한다. 주목되는 점은 헌법상 '다민적 통일국가'로 규정된 현재의 중국이 근대국가의 대외

되는 한편, 전통시대의 王朝的 中華帝國[天朝]인 淸朝 중국을 중심으로 각기 小中華를 주장하는 주변 王朝국가(조선·베트남 등)·封建국가(일본)들 사이에는 중화적 국제질서,²⁾ 구체적으로는 ‘朝貢·冊封 질서’라는 전통적인 지역 권 국제질서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두 질서가 각기 상·하위의 질서로 기능하며 당분간 공존하는 가운데,³⁾ 근대 국민국가로 먼저 개편된 일본이 지역 내 중화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서구 국가들의 압력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첨예한 위기로 발전해 갔다.

새로운 지역질서를 강요하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의 전 지구 질서는 서로 경쟁하는 자립적 주권국가들과 이에 종속된 소국·보호령·식민지 등 다양한 정치·지역·종족·문화권 단위들로 구성된 다원적 국제사회였다. 서구형 근대국가 발전의 모델은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반으로 민족국가의 부강과 국권의 대외적 확장이 제국주의로 연결된 것이었다. 서구의 압력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지역 내의 보편적 중화제국과 중화적 국제질서가 해체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국가 형성의 길을 위의 서구형 모델에서 모색하게 되어 한때는 그것을 필연적 국가발전의 목표로까지 일반화한 적도 있었다. 구미 각국의 외압과 특히 1870년대 이래는 일본에 의한 지역 내 경쟁의 형성으로 인해 청조 중국도 구제국의 國體와 변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 보수적 洋務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립적인 각 정파 간에 국권 관념도 성장해 갔다. 국내에서도 국가 주권을 강화하는 방책으로 太平天國 이후 확산되는 地方分權을 중앙에 회수하고 구체제 범위 내의 행정적 차원에서

적 팽창이 아니라 전통적 중화제국의 영역을 계승한 채 국민국가로의 개편을 이룬 국가 형성의 과정상의 차이만 빼면 이 국민제국 개념의 射程圈에 들어간다는 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 중국은 역사적으로 타고난 제국의 구조를 내장한 근대국가로 보일 수도 있다.

- 2) 동아시아의 전통적 중화질서가 중국 대중심과 주변국 소중심의 중화주의의 다원적 관계망으로 구성된 것임은 閔斗基, 2001. 2, 「동아시아의 실체와 그 전망－역사적 접근」,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출판부, 40~46쪽.
- 3) 坂野正高, 1959, 「總理衙門の設立過程」, 『近代中國研究』 제3집, 東京大學出版會, 43, 51~61, 68~75쪽.

제국의 법제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多元的 청제국 통치하에서 漢族의 중국 본토와는 분리된 영역으로 주변부 이민족 지구이던 몽골·新疆(伊犁 몽골·위구르)·티베트 등 藩部와 청조의 고토 滿洲가 열강의 변경 침식에 대응한 전략으로 19세기 말 이래 점차 중국 본토와 같은 행정체제로 편입되어 갔다. 구제국의 국내 통합을 강화하려는 행정제도의 재편 과정은, 19세기 전반까지 각 종족 간의 분리정책에 기초한 청조의 제국 통치의 원리와는 모순된 漢化정책의 심화 현상이었으며,⁴⁾ 제국의 변질에 따른 국내의 권력 구조의 변화 속에서 滿·漢 지배층 사이의 협력과 갈등 관계도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청말·민국 초에 형성된 근대 중국 민족주의의 특징은 이 같은 중화제국으로서 청조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하는 국체와 민족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특히 역점을 둔 것은 청말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의 기원에 관해, 아편전쟁 전후부터 쇠퇴하는 청조 제국의 몰락을 저지하려는 中華帝國 中興의 유교적 經世사조와의 관련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 유교 경세사조가 근대 민족주의로 연결되는 데는 19세기 후반 구미 제국주의의 외압, 특히 1870년대 이래 동아시아 지역 내의 청조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촉진된 경쟁적 국권의식의 성장을 매개로 해서, 전통적 중화제국의 체제 옹호론인 유교적 논리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논리로 전환하는 사상적 단절과 연속성의 측면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아편전쟁 이전부터 발생한 前期 今文經學(春秋 公羊學)派의 선구적 중화제국 중흥의 예언은 태평천국 동란기 이후 실용적 양무개혁의 추진이나 그 반대파인 淸流派의 비판적 여론(淸議)에서 더욱 광범위한 사조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제국 중흥 사조와 대외 위기의 상호작용이 19세기 후반 국권의식의 성장 배경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권 국가들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은 청일전쟁의 참패로 중화제국과 이를 중심으로 한 조공·책봉 질서라는 구질서가

4) 茂木敏夫, 2002, 「中華帝國の解體と近代的再編成への道」, 東アジア地域研究會・片山裕・西村成雄 編, 『東アジア史像の新構築』, 青木書店, 27~28쪽.

해체되고 주권에 대한 전면적 각성이 출현한 데서 마련되었다. 전쟁 후 파탄된 전통적 제국체제에 대한 근대적 개혁이라 할 청조의 변법운동에서는 황제나 통치집단뿐 아니라 민간사회의 지배층인 紳士層이 政體 개혁을 통해 국권의 공유자로 참여를 확대하려는 근대화운동이 시작됨으로써 민족주의 사조는 본격적인 태동기에 들어섰다. 19세기 말 變法派 康有爲의 후기 금문경학을 통한 국가개혁 구상 속에는 국권과 아울러 民權 개념도 존재했으나 민족주의 이론 체계가 확립된 것은 1901~1902년, 그 제자 梁啓超가 금문경학의 유교적 잔재를 청산한 근대 계몽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국민국가론을 형성한 이 초기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유교를 포함한 중국 문화전통도 민족주의적 國學으로 개편될 것이었다.

이 글은 아편전쟁(1840~1842) 시기부터 시작해 1860년대 이후 양무개혁과 그것을 통한 海防체제의 시기에 걸쳐 중화제국 체제와 그 이념의 붕괴를 역사적 배경으로 금문경학과 龔自珍·魏源, 양무파 曾國藩·左宗棠·李鴻章과 이에 대항한 청류파 등 전통적 제국 국체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우선 검토할 것이다. 다음에 19세기 말 청일전쟁(1894~1895) 후 변법운동(1895~1898) 과정에서 개혁 이념의 이론적 기초라 할 大同 관념, 즉 강유위의 유토피아적 세계주의를 통해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을 준비한 과도기적 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19세기 말 제국 해체와 20세기 초두 共和혁명 사조의 발생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배경으로, 아편전쟁 시기 이래 중화제국의 변모와 근대 국권의식의 성장이 양계초에 의한 中華 大民族主義 이론체계의 형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불과 반세기 간에 전개된 급속한 역사적 대변동을 고려한다면, 청제국 후기의 유교적 중화제국 중흥 이념과 근대적 국권의식, 근대 민족주의 사조라는 각 단계 간에는 근대 서구와 일본의 개입으로 인한 사상적 단절이 크게 작용할 터이지만 유교를 포함한 중국의 주체적 문화전통 속에서 제국체제로부터 민족주의에 이르는 역사적 변화의 연속적 측면을 제시해 줄 설명틀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유교적 중화제국 체제 이념은 해체될 운명이었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통합 논리 속에서 유교적 문화전통과 제국 관념의 작용방식

과 그 근대적 변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국 민족주의의 구체적 성격을 드러내는 역사적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구적 시민사회의 기초 없이 출발한 중국 민족주의가 서구의 이념들을 차용할지라도 그 내용이 중국의 문화전통의 선택과 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유교적 제국 이념의 근대적 변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중국 민족주의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화제국 중흥 이념, 근대 국권 의식과 민족주의 사조의 연속적 전개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시각은 18세기 청제국 전성기의 乾隆代에 절정에 달한 유교적 보편문화와 이에 기초한 세계주의적 중화제국 관념이 아편전쟁 이후 19세기 쇠퇴와 동란, 그리고 근대 제국주의의 압력과 그에 대응한 개혁을 거치는 역사적 변동 속에서 어떠한 사상적 변질을 겪고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특수한 작용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건륭대에 완성되었다는 청제국이 만주족 주체의 정복왕조로서 전통적 한족 제국과는 달리 독특한 다원적 제국 구조를 가졌으며, 중화 관념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만주족의 주체성과 민족적·문화적 다원구조가 유교적 중화제국의 체제이념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청제국이 중국 본토에서 만·한 민족 모순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해 갈수록 만·한 지배층의 문화적 동화, 즉 유교 중심의 漢化 과정이 심화되어 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외압과 태평천국 등의 대동란은 이 같은 과정을 더욱 촉진했는데, 이 문화적 동화는 청말까지도 소멸하지는 않았던 만·한 종족집단의 정치적 갈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청말까지 중국의 한족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았던 변부의 이민족을 만·한 지배층 간의 동화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대의 대중국에서 이들 주변부의 이른바 ‘소수민족’의 ‘민족자결’의 운명은 만주족 청조의 몰락과는 별개의 것임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한족 제국과 구별되는 이민족 정복왕조인 청제국을 넘어서 청조도 포함한 보편적 중화제국의 이념을 근대 민족주의의 성립과 연결시키려는 이 글의 의도는 결코 한족 지배층의 유교적 동화 논리에 동조해 현대 중국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대 이후 청제국 내에서 주도권을 강화한 한족 지배층이 근대 국민국가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민족주의 이념을 중화제국의 전통과 연결시킨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고, 근대 중국 민족주의의 기원이 근대 서구 민족·제국주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유교 문화보편주의에 입각한 제국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또한 유교 제국 이념에 치중한 이 글의 의도는 청제국 관료행정의 중앙집권적 발전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를 경시하려는 것은 아니며, 중국 민족주의 형성의 이념적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려는 것일 뿐이다. 끝으로 이 같은 중국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분석이 동아시아 각국 민족주의의 특수성에 관한 필자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권에 특유한 역사적 전통으로서 중화주의나 제국과 같은 문화·정치 현상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전개 양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설명이 더 필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II. 19세기 清朝의 中華帝國 이념과 西北개발론의 전개

1. 春秋公羊學派의 帝國中興 이념과 서북개발론

아편전쟁에서 14세기 明朝 제국 이래 海禁체제의 전통을 돌파한 영국 중심 서구 砲艦정책의 압박으로 19세기 중엽 동아시아 각국이 海防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魏源(1794~1856)의 『海國圖志』(1842)가 명성을 얻고, 특히 도쿠가와[德川] 幕府 말기[幕末] 일본에서 많이 번각·번역 출판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⁵⁾ 그 이유는 船堅砲利를 앞세운 서구의 압도적 외압에 대항해 군사적 海防 전략으로서 이 경세서가 서구의 역사·지리·풍속 등

5) 王曉秋, 1997, 『近代中日關係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5~154쪽.

당시로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와 아울러 서구 船砲와 기술체계를 도입하려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해방 전략의 이면에는 18세기 乾隆代 청제국의 전성기에 대한 회고와 아울러 18세기 말 이래 드러나기 시작한 왕조제국 쇠퇴의 징후라는 장기적 역사 순환에 대한 깊은 우환이 깃들어 있었다. 外夷에 대한 정보와 연해를 방어하려는 해방 전략을 제시한 『해국도지』의 내용만으로 외국 오랑캐의 제어가 가능한가라는 自問에 대해 위원은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군사의 기회[兵機]일 뿐이고 군사의 근본은 아니며, 有形의 군사이지 無形의 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조 군사력의 만회와 夷狄의 응징에는 왕조의 氣數·運會를 만회하기 위한 人心의 쇄신, 人才 배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易』의 작자가 품은 憂患을 알겠다. 분노와 근심은 天道에서 否卦[막힘]가 다 하고 泰卦[통함]로 나아가게 하며, 人心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人才를 비어 있는 데[虛]서 차 있는 데[實]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다. 옛적에 준가르[準噶爾]부(서부 몽골)가 康熙·雍正 兩朝에 날뛰더니 건륭년간에 번개같이 소탕되었는데, 영국 오랑캐[英夷]의 아편 해독은 죄가 준가르 오랑캐보다 만 배나 된다. …… 무릇 耳目과 心知가 있는 자로서 강구해야 할 것은 거짓과 꾸밈, 두려움과 어려움, 마비·謀利를 제거하면 인심이 잠들 근심[寐患]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사실(實事)으로써 실제 효과(實功)를 헤아리고, 실제 효과로써 실제 사실을 헤아리면 …… 인재가 비어 있을 근심[虛患]이 없어질 것이다.⁶⁾

장기적 왕조순환의 역사관으로 볼 때 청제국 운명의 쇠퇴를 상징하는 아편 전쟁의 패배는 위에 지적된 인심의 부패와 인재의 빈약에 기인한 것인데, 전통적 유교 經世論에서 인심은 도덕·풍속과 연관된 것이고 인재는 교육·科擧 제도[법]와 연관된 것이었다. 아편전쟁 직후 위원의 저술인 『聖武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청조의 쇠퇴 현상을 보면 그가 태어난 건륭 말 고향 湖南의 苗族

6) 魏源, 1847, 『海國圖志序』, 『海國圖志』, 道光 27년 丁未 古微堂版, 60권본, 臺北: 成文出版社, 卷首, 1뒤-2뒤.

반란으로부터 다음의 嘉慶代 白蓮教亂, 東南 海賊을 거쳐 과거고시를 위해 처음 북경에 입도했을 무렵 天理教亂, 그리고 內閣 微官으로 入仕했을 때는 道光朝 回疆(新疆 위구르 지역) 정벌 같은 내란이 잇달아 일어났었다고 회고했다. 盛衰의 원인으로 “財用의 부족이 아니라 인재의 부진을 국가의 빈곤이라 하며, 해외가 아니라 국경 내에 법률이 미치지 않는 것을 국가의 쇠약이라 하니” 인재 배양과 인심 숙정 같은 국내의 內政 강화를 통해 四夷의 제어가 가능할 것이었다.⁷⁾

청조 쇠퇴의 원인에 대한 위원의 진단은 그의 동료, 龔自珍(1792~1841)에게도 공유된 것인데, 뛰어난 시인으로 비판적 清議 名士의 기질이 있었던 공자진의 시적·예언적 표현에는 쇠퇴기 위기의식에 따른 우환과 분노가 더욱 농도 짙은 애수를 띠고 있다. 대단히 조숙한 정론가로서 23세이던 1814년(가경 19)과 25세에 이미 저명한 『明良篇』과 『乙丙之際箸議』를 저술한 공자진은 보다 학자적인 위원과 더불어 위기가 시작된 18세기 말 이래 부흥한 유교 今文經學派로서 春秋公羊學이 그 학문의 중심을 이루었다. 중국 근대의 분기점을 이루는 아편전쟁 패전의 위기 이전에 그들은 전성기인 건륭제 말기부터 잠복해 있던 청조 쇠퇴의 징후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면 19세기 전반기 금문경학파가 청조 쇠퇴기의 형세를 만회하고 실현하려 했던 중화제국 중흥이라는 유교 경세론의 이상은 무엇이었던가? 공자진의 세계관에 따르면 청제국은 서방을 제외하고 대지의 동·남 2면을 바다까지 아우르고 북으로도 몽골을 제압해 바다에 근접했으며, 건륭제의 서북 邊疆 개척으로 하늘이 장차 서해와 통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있다.⁸⁾ 특히 대일통 제국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중국의 전통적 대항세력인 기마민족 몽골을 청조가 완전히 통합한 업적을 높이 찬양했다. 그 점에서 청조는 漢族 중화제국의 전형이라 할 漢·唐의 실력을 훨씬 능가해 진정한 ‘中外一家’의 대통일을 실현한

7) 魏源, 1976, 『聖武記敘』, 『魏源集』, 北京: 中華書局, 166쪽.

8) 龔自珍, 1975, 『西域置行省議』, 『定盦文集』 권중, 7~8쪽, 『龔定盦全集』, 臺北: 新文豐出版社(1975판) 수록.

것이였다.⁹⁾ 춘추공양학의 이론에 따르면, 後漢 何休의 三世 전개설(張三世)에는 중국이 변강의 이민족과 대립해 羈縻정책으로 그들을 간접 통어하던 華夷 大防의 升平시대에서 화이 두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中外一家’, ‘天朝無外’라는 대일통의 太平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셈이었다. 중국과 외국이 통일되어 중화제국, 즉 천자의 王朝(天朝)는 그 바깥 경계가 없는 天下國家로서 세계제국의 보편 이념을 구가하는 것이 왕조 중흥의 내용이었다. 강희·옹정·건륭 3대의 청조 제국은 滿洲·몽골·漢族을 중심으로 중국 본토의 고유한 한족 세계와, 그 바깥으로 청의 본거지인 만주(동북)는 물론 북경 중앙 理藩院 관리하의 통치영역인 內外 몽골·신강(伊犁와 위구르)·칭하이[靑海]·티베트[西藏]까지의 광대한 변방 세계, 두 세계를 군사적·정치적으로 과거 어느 통일제국보다 더욱 긴밀한 제도적 수준으로 통합한 다민족 중화제국이었다. 그 시대는 오늘날 근대 국민국가를 이룩한 中共 치하의 현대 중국이 그 정통성의 계승을 강력히 주장하는 시대이며, 그 판도는 다민족 통일대국으로서 현대 중국의 기본적 통치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북방민족의 정복에 의한 확대된 중화제국으로서 청조의 위대함에 공자진이 심정적으로 얼마나 경복하고 있었는지는 그가 북경 북방 萬里長城의 居庸關을 답사한 감회를 적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江左[江東]의 선비로서 만약 趙宋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燕·趙[河北·山西]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을 터인데, 어찌 (몽골의) 모피 파는 자와 이 첩첩 산중에서 서로 치며 놀 수 있었겠는가? 우리 성스러운 청조의 ‘중외일가’의 시대에 태어나 어찌 옛 사람에게 자부를 느끼지 않겠는가?¹⁰⁾

이 청조 성세의 內政에 대해서도 강희·옹정제 시대에 실현된 地丁銀을 찬양해 人丁의 賦[인두세]를 없애 토지세 속에 합친 것은 (商鞅·漢武帝 같은) 2천

9) 龔自珍, 1975, 「御試安邊綏遠疏」, 「定齋文集補篇」 권2, 1~3쪽, 위의 책 수록.

10) 龔自珍, 1975, 「說居庸關」, 「定齋續集」 권1, 5쪽.

년의 가혹한 정치를 개혁한 것으로, 이는 실로 堯·舜의 仁政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¹⁾ 유교 德治의 실현 기준으로 부세·형벌·徭役 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강희·옹정·건륭 시대는 동남 지역을 비롯한 지정은·漕糧의 대폭 감면, 사형의 신중과 연좌의 축소, ‘중외일가’의 시대에 변경 수자리 백성이 없고 축성·황하 치수[河工]·內廷 營造·도로 공사 등 일체 사업에 백성을 유료 고용한 점에서 이상시대라는 三代를 능가하는 위대한 시대였다고 찬미했다.¹²⁾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북방 이민족의 정복왕조인 청조의 통치는 17세기 명·청 왕조 교체기의 대동란 시대에는 辮髮의 강제나 『揚州十日記』의 대도살 등으로 상징되듯이 한족 士大夫로서는 중화가 이적에 유린당한 종족적·문화적 대치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의 한족 경세론자 공자진은 역사상 전례없는 위대한 중화제국 실현으로 청조를 찬양하고 있으니, 이 같은 華夷論의 대역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주족 지도력의 위대한 성취 시기였던 강·옹·건 성세는 만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조의 점진적 漢化 과정이 진척된 시기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嘉慶·道光 시기의 衰運을 저지시켜 盛世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쇠퇴기의 모순적 상황을 폭로한 공자진은 자신이 “3천 년 史氏의 책을 물려받은 良史의 憂患으로 천하를 근심한다”고 표현했다. 그의 예언자적 경고에 따르면 “밤낮 좋은 정치를 호소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불평 인재[遊士]가 “밤낮 동란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천하동란의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이다.¹³⁾ 그의 과격한 경세론은 백련교란 이후부터 아편전쟁 시기를 넘어 청말까지 확장되어갈 유교 관료·사인층의 비판적 정치 공론인 淸議의 부활과 관련해 상징적 지위를 갖는다. 금문경학파의 이 같은 경세사상은 내정면에서는 정치제도와 행정 개혁론으로 전개되었고, 서북 변경의 방어[邊防]와 동남 연해의 방어[海防]와 관련한 주요한 저술들이 남아 있다. 공자진은 아편전쟁 중 사망했으므로 위원의 『해국도지』와 같은

11) 龔自珍, 1975, 「地丁正名」, 위의 책, 권2, 36~37쪽.

12) 龔自珍, 1975, 「昇平分類讀史雅詩自敘」, 위의 책, 권3, 6~7쪽.

13) 龔自珍, 1975, 「乙丙之際箸議第九」, 「定盦文集」 권상, 13~14쪽.

海防論에 관한 저술은 없으나 서북 변방에 대해서는 위원과 더불어 서북역사 지리학[西北史地學]과 신강 개발론에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아편전쟁의 책임자로 영국 측의 압력을 받아 1841년 서북 텐산[天山]산맥 이북의伊犁로 유배되어 『荷戈紀程』이란 저술을 남긴 兩廣總督 林則徐는 공·위 두 사람과 밀접한 정치적 인맥을 형성한 인물이었는데, 對英전쟁과 신강의 답사체험을 배경으로 동남 연해에서의 영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국적 위협은 북방 내륙의 러시아일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후일 海防·陸防 논쟁에서 서북 내륙의 失地 회복을 동남의 해방보다 강조한 左宗棠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임칙서의 선구적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되기도 한다.¹⁴⁾ 신강 유배 시기 임칙서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된 사실은, 아편전쟁에서 서구를 대표한 영국의 침공으로 중국 변방의 취약성이 노출됨으로써 중국과 외국 간의 군사력 균형이 급속히 무너진 새로운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북의 내륙 지역은 강희에서 옹정을 거쳐 건륭제에 의해 완결되기까지 4단계, 약 70년간에 걸친 준가르[準噶爾]전쟁(1690~1757)의 결과 청조 제국에 정복되고, 내외 몽골은 물론 서부의 오이라트[厄魯特] 몽골, 칭하이 몽골까지 청조 통치영역에 편입됨으로써 전통적 북방·내륙 아시아의 邊防 문제가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당분간 소멸된 듯했다. 내륙아시아 배후의 러시아가 과거 북방민족의 군사적 역할을 이어 중국에 압력을 재가하게 된 것은 근대로 진입한 1850년대의 일이었다. 영국이 동남 연해에서 중국의 해방체제와 廣東 무역체제를 쳐부순 아편전쟁은 북방 내륙의 변방 문제, 이른바 陸防[塞防]의 위기를 동시에 조성한 것이다. 이제 청조 중국은 동남 연해로부터 서북 내륙에 이르는 양 방면에서 유럽 열강의 포위망 속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통적 국방전략의 중심인 육방과 함께 해방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전 아직은 러시아의 직접적 침략 위협이 예상되지 않던 시기에 신강 개발과 省 설치를 주장한 공자진의 제안은 1883년 양무파 陝甘總독 좌중당을 통해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 경세론은 아편전쟁 직후 위원의 『성무기』에서 좀

14) 楊國楨, 1989, 「有關林則徐的事件與人物的討論」, 『林則徐論攷』, 福州, 85쪽.

더 학술적 형태로 제안되었고, 이는 같은 동향 출신의 고위 관료 좌종당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신강 개발의 역사적 배경에는 청대의 인구 폭발과 대규모 인구 이동 현상이 있었다. 18세기 청조 전성기의 인구 이동의 방향은 동남 도시지역, 陝西·湖北 交界지역이나 서남부 중국(四川·廣西·貴州·雲南)과 같은 내지 이외에도 臺灣·만주·몽골 같은 주변부 지역(후일의 변강), 그리고 南洋(동남아)으로 향하고 있었다. 滿蒙의 封禁은 물론 동남 도서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청 조정의 통제는 상당히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부터 그 통제력은 점차 이완되었고, 또 이 같은 인구 이동과 수리·농업 개발로 인해 주변부 지역과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¹⁵⁾ 18세기 말 중국의 인구론으로 유명한 고증학자 洪亮吉(1746~1809)에 따르면 인구증대와 토지겸병으로 인한 경지·주거·식량의 부족,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 水旱·疾疫 같은 자연의 인구조절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군주·관료의 행정능력도 토지 개간, 강토 개척과 이민·감세·사치 금지, 토지겸병 억제, 재민 賑恤 등의 한정된 방법뿐이라는 것이었다.¹⁶⁾ 홍량길의 인구론이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구론이 생산력과 물가 문제와 결합해 제기됨으로써 전통적 農本主義 경제와 황제·관료 체제의 행정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데 있다.

공자진의 신강 개발론이 제기된 역사적 계기는 도광 초년인 1820년대 신강의 위구르족 회교 인민 자항기르[張格爾]가 파미르고원 서쪽 코칸드[浩罕]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반란과 관련이 있다. 1820년(가경 25) 과거 會試에 실패하고 內閣中書가 된 29세의 공자진은 「西域置行省議」와 「東南罷番舶議」를 저술해 서북 변방과 동남 해방에 관심을 보였고, 회시에 합격한 1829년, 朝考의 試題에 따른 저술 「安邊綏遠疏」는 자항기르 반란의 평정 직후 신강의 선후방책을 논한 것이었다. 서양 무역을 철폐하자는 그의 논의는 본문이 전하지 않아

15) 郭松義, 1984, 「清代的人口增長和人口流遷」,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清史研究室 編, 『清史論叢』 제5집, 北京: 中華書局, 113, 116~119, 129~132쪽.

16) 洪亮吉, 1983, 「意言」 20편 중 治平篇·生計篇, 『洪北江詩文集』 上, 臺北: 世界書局, 33~34쪽.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820년 고증학으로 이름 높은 양광총독 阮元이 영국 등의 아편밀수 금절을 위한 최초의 강경대책의 추진에 실패한 사태와 관련이 있다. 신강 반란의 진압 책임자인 만주인 장군 長齡 등은 天山南路의 8城 중 카슈가르[喀什噶爾]·잉기사르[英吉沙爾]·야르칸드[葉爾羌]·호탄[和田] 등 서쪽 4성을 방기하자는 주청을 했다가 道光帝의 책임추궁을 받았지만 반란 진압 후에도 청 조정의 신강 통치는 전통적 羈縻정책을 통한 간접지배에 머물렀다. 따라서 行省 설치를 통해 신강의 내지화를 주장한 공자진의 제안은 채택될 수 없었다.¹⁷⁾ 서북 신강 지역의 개발에 대한 공자진의 경세론은 또한 『大清一統志』·『會典』 등 내각의 편수작업과 관련해 徐松·程同文 등의 西北史地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자신은 이 학문을 ‘天地東西南北之學’이라 부르기도 했다.¹⁸⁾

공자진은 신강 개발안이 건륭제의 공적을 이어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損益의 도리를 헤아리는 것이라 하면서 “損益의 道는 사람 수는 중국에서 덜고 서쪽에 보태며, 재물은 서쪽을 줄여서 중국에 보탬 따름이었다”고 했다. 즉 중국 본토의 과잉인구는 신강으로 보내고 신강의 개발 이익을 중국이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해야 할 근거는 지금 중국에는 인구가 날로 번식하고 氣象은 날로 좁아지며, 黃河는 날로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데도 청조 君臣은 捐納·부세·소금 값에만 집착하는 가운데 건륭 60년간의 태평성세 끝에 인심·풍속이 타락하고, 관리와 士民은 건륭 말 이래 과반이 본업의 능력을 상실해 아편이나 邪教에 빠져 처형되거나 빈곤으로 굶어 죽는다는 것이다.¹⁹⁾

華夷 대립의 명조와는 달리 청조와 같은 ‘중외일가’의 대통일을 이룬 정복 제국의 경우에는 邊防의 전략 개념도 다를 것이었다. 공자진의 다음 글에는 신강 같은 정복지역에 군사통치가 아닌 이민·개척의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17) 羅耀九, 1989, 「張格爾之亂與龔自珍의 安邊策」, 『中國史研究』 第47期, 150~151쪽.

18) 吳昌綬, 1975, 「定齋先生年譜」, 『龔定齋全集』, 21쪽.

19) 龔自珍, 1975, 「西域置行省議」, 『定齋文集』 권중, 8~9쪽.

臣이 듣기로는 前史에 변경을 안정시키는 책략은 다만 羈縻하고 控制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비록 먼 곳을 부리고 제어하는 군주가 있어 병력의 강성함에 편승해 빈 곳을 뚫어서 변경을 열더라도 어느 날 그것을 보유할 수 없으면 논의자들이 분분히 땅을 포기하거나 혹은 물러나 九邊을 지키도록 요청할 뿐이었다. 참으로 그 땅을 경계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國朝(청)의 변방 정세는 이전 역사와는 달라서 땅을 개척한 것이 2만 리이니 단지 빈 곳을 뚫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臺·堡가 연이어 있어서 구변의 명칭이 없어졌다. 그 땅을 경계로 만들고 그 백성을 신민으로 삼아 천만 년에 걸쳐 한 치라도 포기를 논의할 수 있는 땅은 없다. 中外가 一家가 됨으로 인해 이전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天山)南路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北路의 그것과는 다르다. …… 지금 남·북로를 합쳐 모두 안정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변방의 힘으로 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변방으로 변방을 안정시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과 병력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도는 어떠한가? 개간은 남로에 맡기고 훈련은 북로에 맡기는 것이다.²⁰⁾

이처럼 청조는 화이 대립을 넘어 중국 본토와 동북·내륙 아시아를 진정으로 통합하는 다민족 세계제국의 이념을 표방함으로써 한족만의 중화가 아닌 한족과 만·몽의 종족적 구별을 넘은 大中華의 실현이 더욱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변경으로 변경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으로 이민·개간을 통한 변방의 내지화 정책을 제창한 공자진은 북경의 놓고 먹는 비토착민과 直隸·山東·河南·陝西·甘肅 인민을 위주로 하고 淮北(鳳·潁·淮·徐州)·山西(大同·朔平)의 강건한 백성, 江西·福建의 아편 재배 奸民을 이민시켜 서부 변경의 有産民이 되도록 했다. 또 三代의 兵農합일 관념에 따라 私民에게 公田을 경작시키는 것은 곤란하니 屯田을 철폐해 私田化하며 客丁을 民戶로 편제, 토착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²¹⁾ 또 남로의 회교 인민 반란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내지

20) 龔自珍, 1975, 「御試安邊綏遠疏」, 『定齋文集補編』 권2, 1~2쪽.

21) 龔自珍, 1975, 「西域置行省議」, 『定齋文集』, 9~10쪽.

화 추진과 아울러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 대우를 주장하기도 했다.²²⁾ 건륭제의 준가르전쟁에서 진행된 준가르 部民의 대도살에 대해서는 준가르부가 천하질서의 도전자로서 천산남로의 回部[위구르]·칭하이와 티베트를 위협하고 러시아에 접근함으로써 강희·옹정·건륭 3세에 걸쳐 중국 서부 변경의 근본 우환이었기 때문에 도살도 당연한 업보로 간주했다.²³⁾ 이 지역에서 몽골의 패권 추구는 저지되어야 하고 그들을 통어할 방안으로 라마불교의 정치적 유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²⁴⁾ 한·당의 실력을 넘어서 청조의 몽골 지배를 매우 찬양해서, 몽골 49旗가 개국 佐命의 훈공이 있고, 內臣이 될 뿐 아니라 대대로 淸 조정과 혼인하고, 內廷에 宿衛하며 諸王처럼 연화와 賜與를 받는 사실을 열거했다.²⁵⁾

18세기 전반기 曾靜·呂留良 文字獄을 계기로 雍正帝가 지은 『大義覺迷錄』은 한족 신사층을 대상으로 문화투쟁을 전개한 문헌으로 저명하다. 그는 滿·漢 두 종족 간의 모순 문제와 관련해 中華 관념을 둘러싼 이념적 正統性을 확보하고자 종족과 지역을 초월한 유교의 보편적 문화(윤리) 이념으로 중화를 해석했다. 또한 사대부 分權을 강조하는 黃宗羲·顧炎武 등 명말·청초 경세학의 封建論의 영향을 공격함으로써 중앙집권 황제전제 체제를 옹호했다.²⁶⁾ 만·한 관계와 봉건·군현 문제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초 청말·민국 초의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주의 형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유교적 보편제국으로서 청조 중화제국에서 유교의 보편문화를 통해 만주족 황제권의 정통성을 확보한 사실은 만주·몽골 등 종족적 고유성의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種族 차이를 넘어 滿·漢의 동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역설도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중화제국으로서 청조의 정통성 강화 노력은 건륭제의

22) 龔自珍, 1975, 「御試安邊綏遠疏」, 앞의 책, 2~3쪽.

23) 龔自珍, 1975, 「上鎮守吐魯番領隊大臣寶公書」, 「定盒文集」 권중, 40~42쪽.

24) 龔自珍, 1975, 「與人箋」, 위의 책, 53~54쪽.

25) 龔自珍, 1975, 「蒙古冊降表序」, 「定盒文集補續錄」, 3쪽.

26) 閔斗基, 1973·1980, 「淸朝의 皇帝統治와 思想統制의 실제-曾靜謀逆사건과 〈大義覺迷錄〉을 중심으로」, 『중국근대사 연구』, 일조각, 39~49쪽.

1770년대 『四庫全書』 편찬사업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당시 청조의 학술·문화계는 시간적으로 고대로 소급하는 복고적 사조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통적 제 학파를 折衷·會通하는 다양한 학문의 대통일 현상이 나타났다.²⁷⁾ 중화제국의 영토적 완결, 보편제국으로서 大一統 중화질서와 그 보편적 王道 이념의 국제적 구현을 위해 무력을 과시하며 10차의 원정을 결행한 乾隆代를 정점으로²⁸⁾ 청제국의 華夷 관념은 이제 만주·한족·몽골을 동등한 중화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제국 내의 여러 중화와 국내외 여러 夷族을 통합하는 ‘華夷一家’의 세계관을 형성했다.²⁹⁾ 그 외부의 조공국 등 광범한 외국과의 사이에도 화이一家 관계의 이념적 적용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에는 서구 열강과 그 문명의 압력에 맞서 중국과 서양 사이에 새로운 화이 대립의 경계가 그어지고, 중화제국 내부의 화이 제 종족에 대한 통합 대책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한편 공자진과 마찬가지로 서북사지학의 영향을 받은 위원도 신강 이민·개발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성무기』 저술 때의 회고에 따르면 도광조 回疆[위구르]의 자항기르 반란 정벌(1826~1828) 시기에 자신이 수도에 머물하면서 청대 군사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³⁰⁾ 위원이 서북사지학을 익힌 배경은 도광 2년(1822) 古北口에 주둔한 직례제독 楊芳 家의 塾師로 초빙되면서 고금 兵家와 서북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데서 시작되고 이어 서북사지학자 徐松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한다.³¹⁾ 當代史 연구의 실천적 관심이 돋보이는 위원도 춘추공양학에 기원을 갖는 대일통 천하관에 따라 다민족 중화제국에서 대일통 세계를 만회하려는 목적지향적 이념이 작용하고 있다. 금문경학파의 서북 개발론도 공자진의 첫 제안을 거쳐 위원의 『성무기』를 통해 한층 더 학문

27) 曹秉漢, 1994. 12, 「乾嘉 考證學派의 體制統合 이념과 漢宋 折衷思潮—阮元·焦循·凌廷堪의 古學과 實學」, 『명청사연구』 3집, 56~112쪽 참조.

28) 莊吉發, 1987, 『清高宗十全武功研究』, 北京: 中華書局, 1~7쪽.

29) 安部健夫, 1971. 2, 「清朝と華夷思想」, 『清代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52~54쪽.

30) 魏源, 1976, 「聖武記序」, 『魏源集』 上, 166쪽.

31) 王家儉, 1981, 『魏源年譜』 재판,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1쪽.

적 체계를 갖춘 역사학 저술로 완결되었다. 위원은 漠北의 내외 몽골에 대해 理藩院과 主客司를 통해 직접 지배한 사실이 청대만의 역사상 전례 없는 업적이라고 찬양했다.³²⁾ 유명한 표트르대제의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1689)을 체결하자마자 1690년 이래 강희제가 막북으로 침략자 준가르의 갈단칸(噶爾丹汗)을 3차나 親征한 壯舉를 찬양하면서 황제가 그 功業을 비에 새겨 太學에 세움으로써 先師(孔子)에 고하는 선례를 만든 것은 옛 제왕에 유례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古制로의 복귀를 실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³³⁾ 난폭한 夷狄에 대한 대일통 황제의 군사적 정벌은 王道의 도덕적 통치이념, 즉 교화를 천하 萬邦에 실현하는 불가결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1750년대 건륭대의 준가르 원정, 대규모 도살과 伊犁의 직할지 편입 과정을 서술하면서 준가르 종족의 절멸은 청조 君臣의 분노를 여러 차례 자극한 준가르가 하늘 뜻에 따라 받은 자멸이라 하고, 건륭제가 서양인 기술자들을 시켜 地圖를 작성하고 천산북로 각지에 兵屯·回屯·民屯·旗屯 등 각종 둔전이 설치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³⁴⁾

특히 중국 본토의 호구 격증과 토지 부족으로 중국인의 신강 이민과 水利를 통한 농업 개발, 교역의 이익, 금·동광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는 하늘이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를 남겨두어 성세 消息[증감]의 배출구로 삼은” 것이며, “이제 中外가 一家가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군사 보급과 군인 녹봉의 증가, 河工 비용, 八旗軍의 식량, 紋銀의 外洋 유출이 모두 건륭 중엽 이전보다 배가 늘었는데도 “그 근본은 탐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강 경영에 탓을 돌린다”고 비판했다.³⁵⁾ 신강의 남로 回疆(위구르)의 서쪽 4성의 비옥함을 지적하면서 북로와 같은 정

32) 魏源, 1980, 「國朝綏服蒙古記」二, 『聖武記』 권3, 臺北:世界書局, 72~73쪽.

33) 魏源, 1980, 「康熙親征準噶爾記」, 위의 책, 권3, 82~83쪽. 1991년 한국 동양사학회 연구자들의 첫 중국 방문에서 유명한 北宋 范仲淹의 치적이 남은 蘇州府學을 방문했을 때 강희제의 원정 기념비가 이 학교 안에도 세워져 있음을 보고 필자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34) 魏源, 1980, 「乾隆蕩平準部記」, 위의 책, 권4, 106~107쪽.

35) 魏源, 1980, 위의 글, 107~108쪽.

규병의 駐防과 둔전, 內地 商民의 이민 개간을 요청하고, 그것이 회교 인민의 控制와³⁶⁾ 인구 증대 문제의 해결에 이점이 많을 것이라 했다. 한편 서남부 지역의 苗族 등 소수민족에 대해 토리를 통한 간접지배를 폐기하고 옹정제 때 오르타이[鄂爾泰]로 하여금 직접지배와 강제적 동화를 추진한 改土歸流도 지지했다. 五帝·三王이 禮樂을 서로 답습하지 않는다는 춘추공양학의 이념을 통해 토사와 같은 분권적 봉건제가 후대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라 정당화했다.³⁷⁾ 동남해상의 臺灣에 대해서도 서양의 점거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그 군사적·경제적 이유를 들고 대만 쌀 공급과 내지 인구의 이민을 거론했다.³⁸⁾

2. 洋務改革 시기 제국증흥 노력과 國權 관념의 발생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을 종결시킨 1860년 北京條約은 영·불 연합군의 북경 함락에 따른 중국 무역의 전면적 개방과 서구적 ‘조약체제’의 진정한 수용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 근대의 본격적 시작은 제1차 아편전쟁(1840~1842)과 그 南京조약에 따른 불완전한 상징적 개항이 아니라 북경조약 때부터라 할 수 있다. 洋務개혁도 이 북경조약의 다음 해(1861) 북경의 새 외교기구로서 恭親王 등의 總理各國事務衙門 설립에서 출발해 1865년 최대의 신흥 條約港 上海에 曾國藩·李鴻章이 건립한 江南製造總局의 완공으로 본격도에 올랐다. 양무개혁은 중국변·좌종당·이홍장 등 湘軍·淮軍 세력을 중심으로 추진된 연해 중심의 지방적·분산적인 일련의 개혁사업 또는 활동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은 청조의 ‘自強’을 통해 유교적 중화제국을 옹호하기 위한 海防체제의 구축으로 군사·외교·통상 부문이 개혁의 중심 부문이었다. 1870년대부터 제국주의 국제환경의 압력이 심화됨으로써 국가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근대적 국가 주권, 즉 國權

36) 魏源, 1980, 「道光重定回疆記」, 위의 책, 128~129쪽. 앞의 「乾隆湯平準部記」, 109쪽.

37) 魏源, 1980, 「雍正西南夷改流記」下, 위의 책, 권7, 200쪽.

38) 魏源, 1980, 「康熙裁定臺灣記」, 위의 책, 권8, 231쪽.

관념의 초기적 형태가 제국체제의 방어를 위한 해방전략의 범위를 넘어 일환으로 王韜·薛福成·鄭觀應·馬建忠 등 양무파 내의 초기 변법론자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민간 紳士層의 정치동원을 통한 근대 민족주의 단계로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양무파의 국가·세계관을 이해하자면 양무 이론의 기원을 이루는 아편전쟁 시기 위원의 『해국도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편전쟁 후 서구 해양국가들을 상대로 한 해방전략의 중요성이 급격히 중요성을 얻어감에 따라 북방과 내륙 아시아의 游牧민족의 중요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이들 북방민족의 배후에서 그들의 군사적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에 관해서 위원은 比達王[표트르대제]이 서양의 조선창·火器局으로부터 工藝를 학습했던 사실을 부강의 계기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네르친스크조약이나 뒤이은 준가르 원정에서 강희제가 러시아와의 적극적 접촉을 통해 정책 목표를 성취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해, 준가르가 멸망당하자 러시아는 청조 중국의 兵威에 진동되어 200년 간이나 변경의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다.³⁹⁾ 러시아에 대한 위원의 관심에는 아편전쟁 후 주적 영국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 러시아가 미국·프랑스와 함께 영국에 적대해 중국에 협력할 우호적 夷狄의 하나로 생각되었다.⁴⁰⁾ 『해국도지』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서구 중심의 다른 세계가 하나로 결합하는 세계적 變局을 배경으로 중국이 전통적 중화주의 지역질서에 기초한 조공·책봉이나 海禁체제를 수정해 새로운 海防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저술이었다. 그의 표현대로 이제 새로이 고조된 ‘華夷의 변국’은 과거 중국 역사상에 흔히 있었던 화이 변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위원은 중국과 세계가 새로운 역사변천의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천지의 氣가 明代에 이르러 一變했는가? 푸른 바다의 운세는 地圓體[지구]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 중국이 조공국을 잃고 있는 반면 “동쪽으로 달리는 붉은 오랑캐[紅夷]의 배”는 해안과 섬들을 차지하고 城과 부두, 방어 시설을 설치해 교통요지마

39) 魏源, 1980, 「國朝俄羅斯盟聘記」, 「俄羅斯附記」, 위의 책, 권6, 167, 171쪽.

40) 魏源, 1980, 「俄羅斯附記」, 위의 책, 171쪽.

다 서양 도회가 되었다고 개탄했다.⁴¹⁾ 이러한 세계관의 확장에 따라 위원은 우주적 氣運의 변동에 입각해 공양학의 전통적 3世說에다 중국사 전체의 3차 기운 재조설이라는 것을 첨가했다. 三皇 이후 秦까지를 한 氣運, 漢 이후 元까지를 한 기운, 명대 이후를 또 한 기운으로 3단계 구분을 한 것이다.⁴²⁾

홍콩을 할양받고 포함정책으로 위협하며 중국 연안에 자유로이 출몰하는 영국 등 해상 강국들의 요구에 따라 위원은 조약체제를 수용하면서도 연해 방어를 위한 새로운 해방책으로서 양무론을 제시했다. 총포의 제조와 전함파 상선의 구분이 없는 초보 단계의 함선 제조 등이었다. 아편전쟁의 경험을 비판하면서 守備가 가능한 다음에야 전쟁도 화친도 가능하며, 수비는 外洋보다는 연안의 海口, 해구보다는 內河의 수비가 효과적라고 했다. 나아가 오랑캐를 공격하는 데는 반목하는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공격하는’ 것과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어하는’ 두 계책이 있으며, 오랑캐와 화친하는 데도 각국에 互市(통상)를 허용해 화친하는 것과 아편(금지) 初約을 갖고서 무역을 통하는 두 계책이 있음을 논했다.⁴³⁾ 그리고 임칙서가 번역한 『四洲志』를 확장, 보완해 발전시킨 『해국도지』의 저술 의도가 적을 방어하고 적과 화친하는 데 적의 형세와 실정을 알 필요가 있다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⁴⁴⁾ 따라서 그는 이 저술에서 남양·서남양·북양은 서양을 기록하기 위해, 또 小西洋(인도양)·外大西洋은 대서양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서양을 기록함은 영국을 기록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했다.⁴⁵⁾

『해국도지』의 공헌은 以夷攻夷나 서양 船砲를 모방해 연해를 방어한다는 구체적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로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敵情, 즉 서양에 관한 광범한 정보·지식을 제공한 데 있었다. 선포의 모방 제작은 위원

41) 魏源, 1847, 「叙東南洋」, 앞의 책, 권3, 1뒤-앞.

42) 魏源, 1976, 「默觚下」, 「治篇 十六」, 『魏源集』, 앞의 책, 78~79쪽.

43) 魏源, 1847, 「籌海篇 一」, 앞의 책, 권1, 1앞-뒤.

44) 魏源, 1847, 앞의 책.

45) 吳澤·黃麗鏞, 1963, 「魏源『海國圖志』研究」, 『歷史研究』, 第4期; 寧靖 編, 1990, 『鴉片戰爭論文專集』續篇 2쇄, 北京, 361쪽.

의 독창적 견해가 아니라 당시 청조의 도광제나 임칙서 이하, 전장이었던 광둥과 江浙 지역의 관료·막료 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공유된 인식을 대표한 것이었다고 한다.⁴⁶⁾ 또 그의 해방전략이 해군력의 건설과 함께 일본(東洋)과 전통적 동남아(南洋) 조공권을 결속하고, 영국과 러시아·미국·프랑스 간의 반목을 이용해 영국을 견제, 포위하는 광대한 해상전략 구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⁴⁷⁾ 그러나 그의 해방전략이 서양식 함선·총포와 제조창 건설을 통해 大洋 작전이 아닌 연안 방어에 치중했음은 사실이며, 서양 국가들의 반목이나 동남아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전술적으로 이용한다는 구상은 전통적 以夷制夷의 羈縻 전술로서 객관적 현실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구의 근대국가들을 제어하는 전략으로서는 너무 시대에 뒤진 것이었다. 당시 수입된 『해국도지』를 보고 일본의 해방론자 사쿠마 조잔[左久間象山]이 그 유용함에 탄복하면서도 船砲의 운용과 같은 구체적 해방책에는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짐을 비판한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⁴⁸⁾ 하물며 그러한 남양 조공권의 ‘이이제이’ 외교술이 중국의 통상이나 해군력의 남양 확장에 뒷받침되는 정밀한 해상전략 구상으로 진전된 것은 더구나 아니었다.

그의 세계 인식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양 각국이 로마[大秦], 즉 이탈리아[義大里] 敎皇의 천주교 종주권 아래 종속되었다가 분립했다는 것, 영국은 더욱 강성해져, “敎를 행함은 힘쓰지 않고 오로지 상업만 행하며, 또 군사를 통해 상업을 돕는데 군사와 상업이 서로 도와 마침내 섬 오랑개[島夷] 가운데 웅대한 세력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⁴⁹⁾ 또 『성무기』에서도 兵과 商이 일체가

46) 呂良海, 1980, 「魏源向西方學習問題的探討—兼與侯外廬同志商榷」, 『近代史研究』 제2기, 243~254쪽.

47) Jane K. Leonard, 1984,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41~146, 180, 197~199. 또 “Chinese Overlordship and Western Penetration in Maritime Asia: A Late Ch'ing Reappraisal of Chinese Maritime Rel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 6, No. 2(1972), pp. 170~173.

48) 王曉秋, 1997, 앞의 책, 152~154쪽. 吉田松陰도 魏源의 서양에 대한 以夷制夷 외교에 회의를 보였다.

49) 魏源, 1847, 「大西洋歐羅巴洲各國總叙」, 『海國圖志』(四), 1457~1459쪽, 권24, 卷首

된 붉은 오랑개[紅夷]는 육전에 강한 流賊식의 倭寇에 비해 강력한 船砲를 갖고 해전에 능한 大商人 세력으로서 약탈보다는 무역항을 장악하고자 하며 천주교를 무기로 삼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⁵⁰⁾ 특히 이색적인 것은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해 각 부락에서 公舉된 의회[巴厘滿 회의]라는 紳士 회의기구가 군주와 더불어 政事를 관장하는 君臣共主 체제라고 한 것이었다. 또한 풍속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군주에 대한 跪拜禮가 없어 중국과는 거꾸로 전도된 사회였다. 산업면에서는 商工이 중심이고 농업이 취약하며, 기계화된 방직·수리 등 技藝가 발달하고 탐욕과 사치를 추구하는 반면 식량은 부족해 수입하는 나라라고 했다.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생활하고 해외 이민, 미개지 개척이라는 植民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이었다.⁵¹⁾ 자유주의 代議制 국가, 공업화된 자본주의 식민국가로서 영국의 본질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 국가 체제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三綱五倫의 名教과 農本주의 경제를 여전히 옹호하고 서양을 이적시하는 관념을 아직 완전히 탈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의 양무론은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1860년 馮桂芬의 『校邠廬抗議』를 통해 더욱 발전된 이론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太平天國 진압과정에서 관군을 대체해 주력군으로 대두한 일부 한족 관료·신사층 주도의 지방 의용군, 湘軍과 淮軍의 지도자들이 江南의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서 북경조약 이후의 새로운 정세를 이용해 太平軍 등 반란세력 진압과 아울러 그 후의 장기 전략[遠略]으로서 서구에 대한 海防체제 구축과 그를 위한 양무개혁을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1860년대 양무개혁의 출발점에서 태평천국을 포위하며 중국 동남 연해의 江浙 지역의 세력기반을 장악한 曾國藩·左宗棠·李鴻章 등 상·회군계 漢人 總督·巡撫들의 양무개혁 출범은 1861년 咸豐帝 급사후 쿠데타[辛酉정변]를 통해 북경 중앙의 聯政 실권자로 대두한 西太后나 議政王 恭親王(奕訢) 등 總理衙門 권력으로부터 비

1앞-2앞.

50) 魏源, 1980, 『武事餘記』(軍政篇), 『聖武記』 권14, 393쪽.

51) 魏源, 1847, 『大西洋英吉利國總記』, 『海國圖志』(四) 권33, 3앞, 6앞, 7뒤; 「英吉利國廣述」上, 『海國圖志』 권34, 1뒤, 3앞-4앞, 6앞-뒤, 9뒤-10뒤, 14뒤.

교적 자율성을 가진 독자적 지역 기반을 갖고 출현했다. 1860년과 다음 해에 걸쳐 청조 관군의 江南大營·江北大營이 태평군의 명장 忠王 李秀成에게 대파된 것은 양무파의 강절 진입과 태평군 진압을 위한 군사·재정권 독점을 청조가 허용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당시 상·회군 세력 전체를 대표한 중국변이 咸豐帝의 장기간 박해를 벗어나 북경의 공친왕-서태후 새 聯政 세력으로부터 兩江總督으로 보임되고 江蘇·浙江·安徽·江西 4개 성의 군사를 통제할 최고 지휘권을 인정받은 것은 강남 양무관료 집단의 성립을 표징하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한편 강·남북 대영만 믿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독자적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했던 何桂清[양강]·薛煥[강소]·王有齡[절강] 등 강절 督撫 집단이 완전 몰락하는 데는 태평군의 강절 점령이 계기가 되었으나 이 패전에 편승한 중국변 등 상군·회군의 전략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⁵²⁾ 강절 관료집단이 처형·패사·축출당한 강절 지역은 중국변 휘하의 이홍장의 회군계가 강소성을, 좌종당의 상군계가 절강성을 인계했다.

제2차 아편전쟁에서 廣州의 兩廣總督을 대체해 서양과의 교섭을 맡은 上海의 하계청 등은 그들의 운명이 태평천국의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걸려 있었으므로 황제를 비롯한 북경 중앙의 배외적 主戰論에도 불구하고 영불과의 和議를 통해 제2차 아편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었다.⁵³⁾ 이에 비해 상군의 중국변은 차용한 서양병의 內地작전 범위를 제한했으며,⁵⁴⁾ 상해의 서양인 용병인 常勝軍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門生 출신의 이홍장에게 依他나 權術을 버리고 自立을 바탕으로 해서 誠意로 대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⁵⁵⁾ 그리고 서구와의 외교는 국가의 自強을 전제로 할 것이며 자강은 用人 행정, 즉 內政을 우선으

52) 청조 관군 江南大營의 궤멸이 曾國藩 등 湘軍에 江浙 장악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朱孔彰, 1969, 『中興名臣史略』(光緒 辛丑, 上海書局 石印, 臺北: 華文書局, 16쪽, 左宗棠의 待望에서도 확인된다.

53) 中國史學會 主編, 1978, 『第二次鴉片戰爭』(四, 上海人民出版社, 376~379쪽, 欽差大臣何桂清等奏.

54) 曾國藩, 1888, 「議覆借洋兵剿賊片」, 『奏稿』 권15, 6뒤-7앞, 『曾文正公全集』(光緒 14년, 鴻文書局 수록.

55) 曾國藩, 1888, 「覆李少荃中丞」, 『書札』 권19, 12앞, 위의 책.

로 하고 船砲 제작의 학습에서 착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서양과의 條約 외교의 핵심을 約定과 禮讓으로 파악하기도 했다.⁵⁷⁾ 양무론의 초기 형태가 그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양무개혁은 북경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 체제의 수용을 전제로 하지만 서양에 대한 중국의 자강·자립을 개혁의 토대로 삼고 양무가 내정 개혁과 함께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편전쟁 이래 서양에 대한 타협적 유희론의 계통을 잇는 강철 관료집단에 대한 상군집단의 대립은 湖南省 출신 상군계 관료·신사 자체의 오랜 反영국의 排外 정서와도 관련이 있었다. 후일 양무관료 가운데 이 같은 주체적 정서가 가장 치열한 것이 좌종당이였다. 아편전쟁 시기의 이른바 ‘애국주의 저항파’라는 林則徐·魏源의 계보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좌종당은 청년기부터 군사·역사지리를 연구하고 호남 출신 고관 賀長齡과 막료 魏源이 편찬한 『皇朝經世文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⁵⁸⁾ 또한 태평군 진압에서 중국변과 필적할 중심인물인 知友 胡林翼을 통해 도광조의 저명 개혁관료 陶澍·임칙서의 인맥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⁵⁹⁾ 『황조경세문편』 등을 통해 위원의 영향을 받은 좌종당은 양무사업과 서북 신강문제 등에서 위원의 경세론을 높이 평가했다.⁶⁰⁾ 임칙서를 몹시 존경한 좌종당은 아편전쟁 기간 중에 “公이 深海에서 用兵한 이후로는 黃河에 가고 關을 나서고 들어오는 여러 役에서 내 마음은 매일같이 공의 좌우에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⁶¹⁾ 임칙서의 사후에도 그를 만난 날 밤 湘江 배 속의 대화를 잊지 못하고 전쟁 시기 임칙서의 ‘성대한 절개·苦心’과 당시의 國是를 후세에 전하도록 촉구하고, 새로 즉위한 함풍제가 굴욕적 主和派

56) 曾國藩, 1888, 「治道」, 『求闕齋日記類鈔』 上, 21앞, 위의 책.

57) 曾國藩, 1888, 「議覆調印度兵助剿摺」, 『奏稿』 권16, 9앞-10앞, 위의 책.

58) 羅正鈞, 1982, 『左宗棠年譜』, 長沙: 岳麓書社, 7~8, 16, 18쪽.

59) 羅正鈞, 1982, 위의 책, 15, 19, 25~27쪽; 秦翰才, 1986, 「左宗棠是怎樣一個人」, 楊慎之 編, 『左宗棠研究論文集』, 長沙, 10~11쪽; 秦翰才, 1984, 『左文襄公在西北』, 長沙, 10~11쪽.

60) 孔令謹, 1986, 「左宗棠生平及其學行」, 『左宗棠研究論文集』, 78~79쪽.

61) 左宗棠, 1890, 「答胡潤之」, 『書牘』 권1, 49뒤, 『左文襄公全集』, 對北: 文海出版社 영인본.

(穆彰阿 등)를 비판한 諭旨에 통쾌함을 느끼고 있다.⁶²⁾ 그는 주화와 畸善을 군대 앞에서 斬刑할 것을 주장하고 임칙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임칙서의 상주문을 읽고는 자신의 海防 논의와 많이 합치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⁶³⁾ 아편전쟁 중 그는 개인적 서신에서, 겹겹의 바다 9만 리를 넘어온 서양 수십 척의 배로 인해 淸兵이 연전연패함을 보고 通市 중의 30여 개 국가들이 서로 본받아 일어나고 내지의 奸民과 해적이 이에 편승해 亂局을 일으킬까 草莽[재야]의 신하가 근심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⁶⁴⁾ 아편전쟁에 대한 이상과 같은 좌종당의 견해는 실용적 경제학에 기초하면서도 중국의 대외적 위신을 중시하고 강경한 비타협적 대외정책을 주장한 점에서 비록 舉人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재야 신사층의 淸議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었다. 더욱이 군사·사직학과 농법 같은 전문적 실용 학문을 중시한 그의 경제학은 건고한 朱子學 옹호자로서 考證學의 時流를 비난하면서, 고증학에 대한 안휘 桐城古文派의 학문적 공적은 주자학을 옹호함으로써 士人의 풍습, 인민의 기세(民氣)와 관련이 깊은 학술을 통해 禮義廉恥를 밝힐 수 있게 한 점에 있다고 평가했다.⁶⁵⁾ 이는 당시 호남의 주자학적 재야 경제파가 실용 학문을 중시하면서도 중화제국의 유교 이념과 대외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淸議의 경향이 강했음을 나타낸다.

태평천국과 제2차 아편전쟁의 협격으로부터 중화제국의 부흥을 목표로 대두한 양무개혁은 동란의 진압이 성공함에 따라 이홍장의 회군계 집단을 핵심으로 점차 개혁의 중심이 군사 부문, 특히 海防전략으로 이동해 갔다. 양무개혁의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서, 일본과의 臺灣사건(1874)을 계기로 발생한 陸防(塞防)·海防논쟁(1874~1875)은 각기 좌종당과 이홍장을 대표자로 한 양무파 진영 내의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와 비용 분배를

62) 左宗棠, 1890, 「唁林鏡帆」, 위의 책, 53앞-뒤.

63) 左宗棠, 1890, 「上賀蔗農先生」, 「書牘」 권1, 16뒤-17앞.

64) 左宗棠, 1890, 「上賀蔗農先生」, 위의 책, 13앞.

65) 羅正鈞, 1982, 앞의 책, 23쪽; 左宗棠, 1890, 「上賀蔗農先生」, 앞의 책, 38뒤, 40뒤. 고증학 비난은 그의 「馬徵君遺集序」, 「文集」 권1, 7앞-뒤.

둘러싼 논쟁인 동시에 양무개혁의 제2단계 전진을 둘러싼 보수·진보 간의 정파 투쟁이기도 했다.⁶⁶⁾ 당시 대만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였고 신강 수복 문제는 회교 인민 반란의 진압이 陝西·甘肅省 지역만 끝나고 정작 신강 지역은 아직 진행 중인 현안이었다. 더욱이 좌종당의 신강 수복론은 해방과 육방이 모두 불가결함을 인정하면서 육방의 현실적 중요성을 더 강조한 절충적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이홍장의 해방론은 불모지 신강이 많은 비용을 허비하며, 또 반란정권(야쿠브 벡)이 러시아·영국·투르크 같은 외국과 결탁되어 있으니, 더 중요한 해방에 비용을 집중하도록 차라리 신강을 방기하고 중국 서남부 토스나 베트남·조선 같은 조공관계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⁶⁷⁾ 내륙 영토를 포기하자는 해방론은 후술하듯 주체적 대외강경론의 입장에 있는 보수적 청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고, 좌종당도 원래 바다의 방어란 방어만 있고 전투는 없어 곤란한 군수물자를 소모해 싸우지도 않는 군대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홍장의 전략적 소극성을 비난했다.⁶⁸⁾ 회군계 양무파 이홍장에 대항한 張之洞·張佩綸 등 청류파계 관료의 대외강경론은 러시아와의伊犁문제 교섭(1879~1881)에서 프랑스와의 청불전쟁(1883~1885)에 이르기까지 상군계 양무파 좌종당 등과 정치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⁶⁹⁾

그런데 이 해방과 육방 논쟁의 역사적 의미는 각자의 국가관과 개혁관을 비교하는 데서 찾는 것이 더 유효하다. 좌종당은 자신의 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양무개혁의 기존 군사적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서구 열강에 대해 통상이 주목적이라는 진부한 관점에서 그들의 군사적 침략 의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해군의 연안 방어라는 낡은 개념에 머물러 해군의 공격전이나 外洋 해전 같은 작전의 신개념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나아가 1877년 제시

66) 崔熙在, 1985, 12, 「1974-5년 海防·陸防論의 성격」, 『동양사학연구』 22집 참조.

67) 李鴻章, 1965, 「籌議海防稿」,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권99, 臺北: 國風出版社, 23뒤-24뒤.

68) 左宗棠, 1890, 「答譚文卿」, 「書牘」 권17, 44뒤, 앞의 책.

69) 馮天瑜·何曉明, 1991, 『張之洞評傳』, 南京大學출판사, 47~50쪽; 唐上意, 2004, 『中法戰爭與張之洞』, 廣州: 暨南大學출판사, 45~51, 59~56쪽.

된 좌종당의 신강 방위 전략을 보면, 중국 변경의 근심은 예로부터 大海에 가로막힌 동남이 아니라 언제나 지리적 天險도 없고 선박 轉運의 편리도 없는 내륙 서북이었다고 했다. 또 청조, 특히 건륭제가 확보한 신강의 邊防체제가 확고하지 않으면 몽고·陝甘에서 山西·북경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하고, 天山 남북로 서부에 商民·散勇·토착민에 의한 屯田 개간, 신강에 行省·郡縣의 설치를 요청했다.⁷⁰⁾ 그 근거는 청조 祖宗의 영역을 방기할 수 없으며,⁷¹⁾ 신강의 확보로 오히려 군비가 감소하고⁷²⁾ 청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전통적 주장이었다.⁷³⁾ 위의 좌종당의 주장은 아편전쟁 전후 공자진·위원의 신강 개발론과 행정 건설론 등 이민족 변강의 內地化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청조의 失地 이리를 수복해, 건륭제 시대 청조의 최대 판도를 청조 조종의 영역으로서 계승한다는 大一統 중화제국의 전통에 강한 이념적 집착을 보였다. 이제 보편적 중화제국의 이념을 포기하고 열강과 국경의 주권을 다투는 경쟁적 국제상황에서 청조 중흥의식은 동아시아 지역제국으로서 국내 체제와 대외 국권을 유지하고 국제적 지위의 열세를 만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좌종당의 신강 수복에서 나타난 제국 중흥의 현실은 과거 청제국의 역사에서 섰던 없는 滿漢 일체의 중화왕조로서 청조가 漢族 장군 지휘하의 한족 군대 湘軍을 통해 고토 수복을 추진한 것이었다. 또한 좌종당에 보이는 제국중흥 의식은 양무개혁의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과대평가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같은 피상적 제국의 중흥의식이 세계적 變局의식을 대체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변국의식으로 상당히 억제될 수 있었을 중국의 우월감과 보수적 주장을 강화시켰을 것이었다.⁷⁴⁾ 이 점은 이홍장의 양무개혁과 부진한 海防전략에 대한 의기양양한 좌종당의 비난에서도 간취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시 양무개혁과 海防의 최고 책임자인 이홍장의 입장에서는 신

70) 左宗棠, 1980, 「遵旨統籌全局摺」, 「奏稿」 권50, 75뒤-77뒤, 앞의 책.

71) 左宗棠, 1980, 「與雲貴總督劉蔭渠制軍」, 「書牘」 권16, 72앞.

72) 左宗棠, 1980, 「與王若農」, 앞의 책, 37뒤.

73) 左宗棠, 1980, 「答劉克庵」, 앞의 책, 권20, 4앞.

74) 崔熙在, 1985. 12, 앞의 글, 95쪽.

강 방기론은 물론 해방전략의 소극성도 선진 열강의 치열한 기술·財富의 경쟁과 중국의 기술적 낙후성 및 양무개혁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자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청조가 지역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국방전략도 좌종당의 설명과 같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이홍장이 인식한 대로 아편 전쟁 이래 지구상의 변혁은 중국의 전통적인 서북 중심의 전략 관념마저 뒤바꾸어 놓았다. 좌종당의 강경책으로 인해 청조의 러시아 외교가 서북 변경에서 결렬될 경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전략은 먼 내륙의 서북 변경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큰 수도 북경과 근접한 동북의 만주나 황해 해상에서 주 공격이 전개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공격 주력에 대한 방어 책임은 좌종당이 아니라 오히려 유화론자인 이홍장의 회군과 취약한 해군이 맡게 될 것이었다.⁷⁵⁾ 동남 해상국가들의 교류와 분규가 매우 번잡하고 각국의 병기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그가 ‘수천 년 이래의 變局’ 또는 ‘수천 년 이래의 강적’이라 표현한 문명과 국제 정세의 신속한 변화도⁷⁶⁾ 이 동남의 해상 강국들의 경쟁적 발전을 지칭한 것이다.

한편 서구적 조약질서와 전통적 조공·책봉 질서라는 이중구조를 이루며 공존하던 동아시아 지역권에서 전통적 제국 國體를 견지하던 청조 중국에도 저급한 수준이지만 조속한 國權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1870년대 이래 대두한 국권의식은 1880년대 대만·신강의 行省 건립, 壬午軍亂(1882) 후 이홍장의 조선 정책에서 보인 조공국에 대한 屬國化 정책은 그러한 중국 측 국가관과 세계관의 변동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이다.⁷⁷⁾ 이 같은 국권 관념은 이홍장 등 실권적 양무파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양무 진영 내의 진보적 초기 변법론자의 국제인식과 양무파에 대항한 보수적 청류파 관료들의 강경한 주체 외교의 주장에서 더욱 강력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파에 따라 구체

75) Immanuel C.Y. Hsu, 1965, “The Great Policy Debate in China, 1874 : Maritime Defense vs. Frontier Defens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5, p. 224.

76) 李鴻章, 1965, 「籌議海防摺」, 「奏稿」, 권24, 11앞-뒤, 앞의 책.

77) 鈴木智夫, 1974, 「中國における國權主義的外交論の成立」, 『歴史學研究』 404, 30쪽.

적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같은 국권의식은 1870년대 이래 청조 변경 및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심화된 영토 분쟁과 경쟁적 지역질서의 형성이라는 지역 내 국제위기의 격화와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대만·류큐·이리·베트남·조선을 둘러싸고 청조와 일본·러시아·프랑스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위기가 그러하다. 前期 청류파의 핵심 인물인 張佩綸의 상서에는 신강 북부 영토 이리를 둘러싼 청조와 러시아의 담판 기간 중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본의 류큐[琉球] 병탄(1879)과 조공국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에 대해 청조가 힐문할 수 없었던 현실을 비판하고, 外夷의 도전을 공멸하기 위해 증기선으로 이뤄진 外海[沿海]수군, 즉 해군 건설을 제창했다.⁷⁸⁾ 또 壬午軍亂(1882) 시기 조선 속국화 정책에 대한 제안에서 조선에 동란이 일어나면 일본에 병탄될 것이라 경계하고, 청조가 通商대신을 파견해 그 외교정무[商政]를 관리할 것이며 중국 교관을 파견해 조선의 병권을 장악할 것 등 6조를 헌책하고 있다.⁷⁹⁾ 그럼에도 19세기 중국의 국권주의 경향은 동아시아 지역권에서 구래의 조공·책봉 질서의 변질을 초래했지만 아직 완전한 근대 민족주의적 국가주권 개념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양무시기에 미숙하나마 국권주의가 발생한 것은 1860년대 이후 국제법 질서의 수용과도 관련이 있다.

1860년 양무개혁 초기의 변질된 중화주의 세계관은 풍계분의 세계인식에 전형적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서구를 夷狄視하는 위원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풍계분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제국으로는 남았지만 지구적 보편성을 상실했으며 전 지구적 수준에서 서구 열강과 경쟁하는 다원적 세계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인식했다. 이 다원적 경쟁관계는 국제질서에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관계로 자리잡았으며, 이 같은 경쟁관계와 병행해 국제법이나 조약이 국제질서 유지의 효과적 방안으로서 전술적 방편이 아닌 합리적 상호 신뢰 관계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78) 張佩綸, 1918, 「保小扞邊當謀自強摺」, 『濶于集』, 豐潤濶于艸堂, 臺北: 文海출판사 영인본, 「奏議」, 183~184쪽.

79) 張佩綸, 1918, 「條陳朝鮮善後六事摺」, 위의 책, 307~310쪽.

동아시아 지역권 내의 중화주의적 구질서로서 종래의 조공·책봉 질서의 관념이 변질된 형태로 여전히 존속함으로써 평등한 주권을 갖는 국민국가만의 다원적 세계관에는 이르지 못했다.⁸⁰⁾ 총리각국사무아문 산하의 양무교육 기관인 京師同文館의 총교습 마틴(W. A. P. Martin)이 『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번역, 출간한 미국인 휘턴(H. Wheaton)의 『국제법원리』에는 당시의 불평등조약이 국제법에 수용되는 모순도 있었으나 국가 주권, 국가의 자연권, 국가 간 평등 외교 등의 근대국가의 성격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⁸¹⁾ 국가 간의 교섭과 경쟁의 격화에 따라 전통적 중화주의 세계관, 즉 중국 중심의 同心圓的 華夷 세계관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1976년 郭崇燾 이래 구미와 일본에 상주외교관이 파견되고, 1870~1880년대에 초기 변법론자를 중심으로 관세자주권·치외법권 철폐 등 국권과 重商주의적 국가 이익의 수복을 주장하는 논의도 나타났다.⁸²⁾ 비록 근대 민족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지향한 과도기적 양상이었음에 틀림없다. 결국 청일전쟁으로 양무개혁의 실패와 청조 海防체제의 최종적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자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던 청의 제국체제는 물론이고 그나마 근대적 국권 관념의 발생으로 변질되어 가던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질서도 완전 붕괴되고 말았다.

80) 曹秉漢, 2002, 12, 「초기 洋務論의 형성과 上海지역」, 『中國近現代史研究』 제16집, 25~27쪽.

81) 田濤, 2001, 『國際法輸入與晚清中國』, 濟南출판사, 48쪽.

82) 重商주의적 국가 경쟁으로 인해 양무파 내의 초기 변법론자 사이에 商戰 관념이 발생했다. 胡濱, 1964, 『中國近代改良主義思想』, 北京, 11~16쪽; 崔熙在, 2003, 「洋務運動期 民族意識 발전의 一端: 同治末 光緒初의 國權과 華僑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85집, 176~187쪽.

Ⅲ. 清末 제국의 國體·國權 관념에서 근대 민족주의 형성

1_ 19세기 清朝 제국의 中興과 內政改革論의 발전

아편전쟁 직전 道光代의 아편밀수 금절을 둘러싼 논쟁에서 弛禁論보다 黃爵滋·林則徐의 엄금론을 지지한 今文經學派[춘추공양학] 공자진과 위원은 嘉慶代 이래 아편 금지를 명한 국법의 이완이 급기야 제국의 도덕적·행정적 위기와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몰고 온 사태의 심각성에⁸³⁾ 격심한 위기감과 분노를 느꼈다. 공자진은 “開闢 이래 인민이 교만하고 거칠어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오늘날의 중국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고 언명하고,⁸⁴⁾ 당시 이른바 廣東 무역체제하에서 서구와의 유일한 무역항이던 廣州를 향해 아편 엄금의 중임을 띠고 떠나는 欽差大臣 임칙서에게 아편 흡연 및 판매자의 사형과 밀수 夷人에 대한 제한된 무력 사용을 격려하고 있다.⁸⁵⁾ 인심의 도덕성과 인재의 효율성이 회복됨으로써 법적·군사적 위력이 국내외에 관철되는 대통일 중화제국의 위엄은 아편전쟁 직후 위원이 쓴 아래의 글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인재가 나오면 軍政이 다스려지고, 인심이 肅正되면 國威가 강화된다. (군주가) 한번 기뻐하면 四海가 봄이고 한번 성을 내면 사해가 가을이다. 五官이 강력하고 五兵은 창성해 禁畝는 시행되고 사방 이적[四夷]은 귀순하니, 이를 廟堂에서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후세 聖人は 지난 시대의 성인을 본받고 후세의 왕은 지난 시대의 왕을 본받으니, 우리 (청조의) 빛나고 신성한 祖宗보다 가깝고 절실한 모범은 없다.⁸⁶⁾

83) 아편밀수의 영향과 아편엄금론의 배경에 대해서는 曹秉漢, 1996, 2, 「鴉片전쟁 시기 '저항파' 林則徐의 개혁사상과 淸議」, 『동아시아역사연구』 제1집, 9~30쪽.

84) 龔自珍, 1975, 「與人箋」, 「定盦文集補編」 권4, 24~25쪽, 『龔定盦全集』 수록.

85) 龔自珍, 1975, 「送欽差大臣侯官林公序」, 동 권2, 25~28쪽.

86) 魏源, 1976, 앞의 글, 166쪽.

이처럼 제국의 부흥은 인심·인재 문제와 관련해 법적·군사적 개혁을 통한 내정의 정비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人治에서 출발해 제도개혁으로, 도덕에서 출발해 부강의 功效로 나아가는 유교 경세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국이 쇠퇴기로 기울면서 여러 가지 은폐된 위기가 노정되는 가운데 시대의 징후에 민감한 공자진은 전율을 느낀 나머지 이 퇴폐적 시대의 기울어가는 운세를 만회할 匹夫의 ‘마음의 힘[心力]’을 믿으려 했다. 救世의 待望에 따라 인위적 주관 능력에 대한 과도한 主意주의적 신념을 표현해 공자진은 “큰 원수[大仇]를 갚고 큰 병을 고치며 큰 곤란을 해결하고 큰 일을 도모하며 큰 도리[大道]를 배우는 것은 모두 마음의 힘에 의거한” 것⁸⁷⁾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천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그것도 聖人이 아니라 “衆人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⁸⁸⁾ 그의 이 같은 주관적 능동성의 강조는 儒者の 任俠정신으로 연결되었다.⁸⁹⁾ 융성에서 쇠퇴로 기우는 역사적 운세의 순환을 만회하려는 노력에 대해, 공자진은 “하늘은 順의 敎를 사용하고 성인은 逆의 敎를 사용한다”는 말로 표현했다.⁹⁰⁾ 그것은 필연적 역사의 쇠운에 저항하는 유교 지식인의 경세적 사명의식이었다. 위원도 같은 사상을 표현해, 음과 양,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한 번씩 교체되는 것(一陰一陽, 一治一亂)은 하늘의 道이지만 聖人은 언제나 양을 부지해 음을 억제하고 어지러움을 다스려 올바른[正]을 회복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늘 이기는 것이 陰이니 道의 마음[양]은 지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사람 마음[음]은 이끌지 않아도 저절로 치열하기 때문이었다.⁹¹⁾ 주자학적 道心·人心의 이분법이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란의 극복을 위해 인심의 능동성을 정치적 실천으로까지 밀고

87) 龔自珍, 1975, 「任癸之際胎觀 第四」, 『定齋續集』 권2, 18쪽.

88) 龔自珍, 1975, 「任癸之際胎觀 第一」, 위의 책, 14쪽.

89) 龔自珍, 1975, 「尊任」, 앞의 책, 권1, 30쪽.

90) 龔自珍, 1975, 「壬癸之際胎觀 第五」, 앞의 책, 권2, 19쪽.

91) 魏源, 1976, 「默觚 上」, 「學篇四」, 『魏源集』 상, 10쪽. 특히 성인·제왕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해 그들은 우환의 지위로서, 성인은 情에 거역해 性을 회복하고, 제왕은 氣運[형세]에 거역해 亂을 다스리고 治를 회복하는 것이라 했다. 이는 「默觚 下」, 治篇二, 위의 책, 39쪽.

나가는 것이 도덕적 이데올로기에 고집하는 주자학의 관념성과는 다르다. 고증학 시대의 텍스트[경전] 중시 패러다임 속에서 춘추공양학은 今文經을 텍스트로 하는 새로운 해석학으로 파생했는데, 문헌학적 實事求是를 강조하는 고증학 전성기에 이미 퇴조한 경제적 이념의 부활을 주장하며 주자학의 도덕적 義理[이념]學을 정치적 의리학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채택했다.⁹²⁾

진룽 말 이래의 쇠퇴기 제국의 현실에 대한 공자진의 풍자는 신랄하기 짝이 없었다. 청초 중국의 士民은 “士도 아니고 農도 아니고 工도 아니며 商도 아닌 사람들이 열에 대여섯이나 되며”, 쇠퇴기의 표면적 현상은 治世처럼 평온하지만 재상·史官·장군·士人뿐 아니라 농·공·상, 심지어 惡人 모두에 인재가 없고, 인재가 나와도 재능 없는 무리들에게 속박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인재가 도태되는 과정은 “겉치레[문식]와 명성, 웃는 모습” 같은 쇠퇴기 風俗에 따라 10년, 100년 지나는 사이 서서히 사람의 마음, 즉 근심·분노·思慮·作爲·廉恥의 인심을 죽이는 과정이었다.⁹³⁾ 또 공자진과 위원이 신봉한 춘추공양학의 특징으로 前漢 이래 『춘추』경이 갖는 법률 해석, 운용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전한 이후 유가의 禮가 형법 적용의 근거가 되고 법률의 禮敎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董仲舒의 춘추공양학이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 褒貶을 적용한 비교 사례, 즉 決事比가 법률적 판결에서 類推의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漢代 공양학과 法家 간의 관계가 후세 주자학의 도덕적 이상주의에 비해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었다.⁹⁴⁾ 공자진은 유교 5경 중 『춘추』를 매우 존중해, 『춘추』는 “禮義의 표준이면서 상벌을 판결하며, 그 判決이란 법을 만들려는 것이고 주인을 처벌하며 (천자처럼) 南面해 여러 왕들을 판결하는” 것이라 했다. 또 『춘추』가 한 사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만세의 일

92) 曹秉漢, 1997, 4, 「清 乾嘉朝 이래의 經世思潮 부흥—考證學 융성기의 桐城 古文派와 常州 公羊學」, 『명청사연구』 6집, 136쪽.

93) 龔自珍, 1975, 「乙丙之際箸議 第九」, 앞의 책, 13~14쪽.

94) Benjamin A. Elman, 1984, *Classicism, Politics, and Kinship: The Ch'ang-chou School of New Text Confucianism in Late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59~266.

을 결단하는” “만세의 刑書[형법서]”라 규정하고, “刑書란 예의를 행하는 수단으로서 예에서 나와 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⁹⁵⁾ 유교 경학의 한 갈래로서 춘추공양학이 유교의 禮가 갖는 중심적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교의 도구로 법률의 운용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그 법률은 전제적 고대 법가의 법률로서 예교의 정신과 결합한 것이니 근대적 法治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춘추공양학파의 경세론은 제국 쇠퇴의 근본 원인을 해외(이적)의 도전보다 內政의 인심·인재 문제에서 찾고 그 쇄신책으로서 사대부의 학문과 국가 행정 및 법률 운용의 현실에 유의했다. 특히 위원이 “국가의 수백 년에 걸친 장점과 폐단을 일으켜 세워” 청조 盛世의 통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행정에서 名實을 종합·검토[名實綜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었다. 명실의 종합은 바로 과거고시의 작문 방식(楷書·帖括)이나 胥吏 법률 규제(例案)를 타파하고 조정과 국가 행정의 제도 문헌(章典·掌故)에 대한 實學的 연구와 이에 바탕을 둔 근본적 장기 정책[大計·遠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⁹⁶⁾ 금문경학파는 법률의 전제적 규제 기능보다 학문적·정치적 단안을 중시하는 점에서 진보적 법률 운용의 지향도 보인다. 전제군주의 관료행정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고대 法家가 제시한 ‘명실종합’의 방법이 1840년대 초 유교 경세론자 위원의 국정개혁론에서 효율적 행정 쇄신의 핵심 내용으로 응용되고 있다. 위원은 “공자 70 제자의 微言大義를 이어받은” 前漢의 금문경학에서는 『춘추』가 재판[법률]을, 『禮』는 제도를 논했음을 지적하고, 訓詁·音韻[고증학]을 통해 後漢代 典章制度의 학문으로 소급하고, 다시 政事와 經術·문장이 합일되는 전한대 ‘미언대의’의 학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주장했다.⁹⁷⁾ 원래 정치적 예언[미언]과 도덕적 평가, 즉 褒貶[대의]을 의미하는 미언대의의 학문으로서 금문경학에 대해 그는 제도·법률

95) 龔自珍, 1975, 「春秋決事比自序」, 「定盦文拾遺」, 앞의 책, 12쪽.

96) 魏源, 1980, 「武事餘記」(兵制兵餉), 『聖武記』 권11, 臺北: 世界書局, 352쪽.

97) 魏源, 1976, 「劉禮部遺書序」, 『魏源集』, 241~242쪽.

이 주요 내용인 정치의 연구와 경학·문장이 일치를 이루는 유교의 이상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이상시대로서 제국 정통성의 역사적 근원이라 할 夏·商(殷)·周 삼왕조, 이른바 三代는 君·師, 즉 政·教가 합일된 시대인데, 후세에 정·교가 분리됨에 따라 禮樂이 실질성을 잃고 형식화되었다고 한다. 예악과 군사·형법[兵刑]과 재정경제[食貨]가 각기 유교적 道의 일단이므로 예악으로 教化를 하고 『춘추』로 일을 결단하는 것이 삼대 정치의 원리였다는 것이다.⁹⁸⁾ 封建制의 분권보다 郡縣制의 통일을 지지만 그는 삼대의 聖君인 三王의 예악은 도덕에 의존하고 정벌은 위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春秋戰國 이래 漢初까지 功利가 王道를 압도한 폐단을 비판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로서 세력[勢]·공리[利]·명분[名]을 중시하면서도 이들 통치수단이 삼대 성인에게는 公天下를 위해 사용된 데 반해 후세에는 통치자 일신의 私欲을 위해 사용된 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⁹⁹⁾

그렇다면 이 같은 쇠퇴기의 풍속과 법제를 개혁할 방법은 무엇인가? 공자진은 앞서 말한대로 자신의 경세의식을 국가 典章制度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지녔던 고대 史官의 직분에 대한 계승 의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중국 역사상의 官制를 검토해 볼 때 皇權專制가 절정에 달한 청대의 행정제도·관행만큼 사대부 인재의 능동성이 말살된 최악의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청조의 관료는 唐·宋에 비해 형편없는 薄俸으로 '집안 보존[保身家]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염치심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조정 儀禮에서 황제와 대신 간의 준비 차별이 漢·唐·宋에 비해 너무 격심해, “아침에 뵈는 때 길게 무릎 꿇고 저녁에 뵈는 때 길게 무릎 꿇은 나머지” 염치심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¹⁰⁰⁾ 이는 명·청대의 군주알현 의례인 굴욕적인 三跪九叩를 비판한 것이다. 또 관료의 진급이 형식적 경력[閱歷資格]만 따르기 때문에 “대책략을 세우고 대사를 말할 인재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 했다.¹⁰¹⁾ 바꿔 말해 과도한 군주전제와 관료

98) 魏源, 1976, 「默觚 上, 「學篇 九」, 위의 책, 23~24쪽.

99) 龔自珍, 1975, 「默觚 下」, 「治篇 三」, 앞의 책, 43~45쪽.

100) 龔自珍, 1975, 「明良論 一」, 『定盦文拾遺』, 2~3쪽. 또 「明良論 二」, 5쪽.

101) 龔自珍, 1975, 「明良論 三」, 위의 책, 7~8쪽.

조직의 침체를 개혁해 君臣共治라는 유가적 이상의 실현을 바란 것이었다. 이처럼 고대 사관의 책임의식으로 士人의 개혁적 능동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전환할 변혁의 궁극적 가능성은 역시 그가 비판해 마지않는 전제군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개혁은 “古法으로 오늘날 속박의 병폐를 구하는” 것이며, 법제의 개변[更法]은 天子가 “千載一遇의 一代의 정치에 뜻을 두고 몸소 크나큰 紀綱을 총람해 一世를 주지해야” 가능한 것이었다.¹⁰²⁾ 공자 진보다 좀 더 보수적인 위원의 군주관은 사물에는 對稱이 있으나 그것은 主輔의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라는 우주관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乾坤[천지]·군신·부자·부부의 尊卑 질서와 마찬가지로 “四夷는 중국이 아니고는 통제하지 못하고, 소인은 군자가 아니고는 차단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비록 秦[始皇]의 통일이 그 폭정의 죄가 있어도 夷狄를 塞外로 몰아낸 공을 인정했던 것도 당연하다.¹⁰³⁾ 고대 이래 유교의 전통적 범주였던 人治[덕치]와 법치[전제], 예와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제도 등 국가제도의 변통을 주장한 것이 아편전쟁 시기 금문경학파의 내정 개혁론이었다.

과연 전제 군주권과 무기력한 관료제 앞에 제국 중흥을 위한 공자진의 개혁론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제안은 고독한 유교 경세론자의 비판적 公論인 清議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역대 전장제도의 관찰에서 대세와 제도[事例]와 風氣의 변화, 즉 변법은 불가피하지만 믿을 것은 인재뿐이라 하고, 개혁적 인재가 해야 할 실천적 선택으로 개혁과 청의를 거론했다. 是非가 있어 감개·분발[奮激]할 때 “(인재가) 상위에 있어 힘이 있으면 옳은 것은 따르고 그른 것은 제거할” 것이고, “하위에 있어 힘이 없으면 나의 시비를 거리낌 없이 크게 말할” 것이었다.¹⁰⁴⁾ 개혁이나 청의냐의 선택만 강요하는 어려운 시국에서, 明末의 東林·復社 운동처럼 개혁론이 실행되지는 못하고 저항적 공론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102) 龔自珍, 1975, 「明良論 四」, 위의 책, 11쪽(명량론 자체가 明君과 良臣을 논한 것이다).

103) 魏源, 1976, 「默觚 上」, 「學篇 十一」, 앞의 책, 26쪽.

104) 龔自珍, 「上大學士書」, 『定盒文集補編』 권2, 4~5쪽.

아편전쟁 시기 공양학과와의 이러한 청제국 中興의식은 1860년대 이래 洋務 개혁 등장의 이념적·정치적 배경을 이룬 사조와도 공통적인 것이었다. 점증하는 서구의 해상 위협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로서 양무개혁이 海防 대책으로 강구되었는데, 서구의 방법을 차용한 양무사업은 시행 당초에는 전통적 제국 체제의 부흥을 위한 유교 경세론의 일환으로서 광범한 내정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으며 행정 개혁을 보조하는 변통 수단으로 출발한 것이었다.¹⁰⁵⁾ 이를테면 양무개혁 이론의 전형이라 할 馮桂芬의 『校邠廬抗議』도 일부 서구와의 외교와 군수산업·과학기술에 대한 논급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은 전통적 국내 정치·사회를 대상으로 광범한 행정·제도 개혁에 관한 유가적 경세론으로 채워져 있었다.¹⁰⁶⁾ 이를테면 제국 행정체계의 개혁과 관련해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合治]과 고대 鄉職 복구를 통한 지방분권[分治]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인민의 생계와 교화의 기반으로서 고대 宗法의 부활을 제안하고 그것을 保甲과 결합함으로써 家를 기반으로 한 제국의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현재의 보갑·社倉·團練의 기능도 중법을 통해 효율화될 것이라 했다. 또한 토지 측량과 지도 작성을 통한 토지세의 형평[均賦]의 모색도 태평천국 등 대동란의 수습 대책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¹⁰⁷⁾ 그 밖에 농업과 黃河 治水·江南 漕糧·兩淮 소금전매의 개혁, 과거제와 관료제 및 교육·형법 개혁 등 수많은 전통적 제도·행정 개혁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양무개혁의 대표적 이론가인 풍계분의 경세사상은 분명히 그의 양무론 속에 초기 변법론으로 발전할 논리적 구조를 내포하고는 있었으나 당장의 실천적 정책 제안

105) Mary C. Wright, 1957,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University Press 참조.

106) 馮桂芬, 1897, 『校邠廬抗議』(光緒 丁酉, 聚豐坊校刻) 참조.

107) 馮桂芬, 1897, 「復鄉職議」, 위의 책, 10앞-12앞, 「復宗法議」, 49앞-52앞, 「均賦稅議」, 22앞-23뒤 등 곳곳 참조. 馮桂芬의 개혁안 중 黃河 치수와 江南 漕糧의 海運, 兩淮 소금전매의 개혁은 아편전쟁 이전 1820~1830년대 강남 3大政으로서 개혁관료 陶澍·林則徐 등, 막료로서 개혁이론가인 包世臣·魏源 등이 관여한 중대한 행정개혁 사업이었다. 이는 魏秀梅, 1985, 『陶澍在江南』,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등 참조.

은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양무론을 제시하는 범위에 그쳤다.¹⁰⁸⁾

양무개혁의 선구적 실천자인 중국변도 道光 30년(1850) 1월 도광제가 사망하고 咸豐帝가 즉위하자 그 해와 다음 해 함풍 원년(1851)에 걸쳐 7건의 잇따른 상서를 통해 아편전쟁 이래 동요해 가는 중국의 정치적 만회 방책으로 인재양성·조세행정·군사·刑政·銀價 문제·황제의 修身에 이르는 광범한 범위의 대책을 제안했다.¹⁰⁹⁾ 특히 황제에 대한 간쟁은 극형의 가능성까지 무릅쓴 것으로, 이 일련의 경제적 언론은 아편전쟁 중 黃爵滋와 공자진 등의 언론의 맥을 이어 청말 사대부 淸議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변의 이 같은 경제적 청의의 배경에도 廣西 上帝會의 太平軍 봉기가 시작되기 직전 자신의 고향 湖南省을 비롯한 전국 각처의 파국적인 민란·會黨·土匪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이 있었다. 마침 관직을 사임한 在籍신사 신분으로서 중국변은 함풍 2년부터 호남성의 지역 무장치안 조직인 團練의 책임자로 임명되자 紳士層 중심의 지역 의용군 鄉勇을 토대로 전국적 규모의 湘軍을 양성하고 태평천국 대동란과의 대결에 나섰다. 천하 동란의 대국을 만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그는 부패한 官風의 개혁을 경제적 관료·신사층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 심지어 관료들의 인습적 풍기에 대해 “긴 소매를 끌며 개 같은 걸음을 익히고 일종의 희지도 검지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풍기를 이루었다”고 비난했다.¹¹⁰⁾ 따라서 그는 신중하지만 타성적인 관료 기질[官氣]과 조야하지만 진취적인 향촌 기질[鄉氣]로 인재를 구분하고 향촌 기질의 인재를 더 평가했으며,¹¹¹⁾ 관료기구의 쇄신을 위해 재야 신사층의 활력과 재능을 동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행정·군사 개혁의 기획은 두 가지 수준에서 착수되었다. 하나는 신사층의 의용군인 鄉勇을 전국적 규모로 확장한 상군으로 발전시켜 八旗·綠營

108) 馮桂芬, 1897, 「製洋器議」, 앞의 책, 71앞; 曹秉漢, 2002.12, 「초기 洋務論의 형성과 上海 지역」, 『중국근현대사연구』 16집, 30~31쪽.

109) 曾國藩, 1990a, 「應詔陳言疏」, 「敬陳聖德三端預防流弊疏」, 「備陳民間疾苦疏」 등, 「奏稿」 권1, 3뒤-19뒤, 『曾文正公全集』, 長沙: 岳麓書社.

110) 曾國藩, 1990a, 「覆龍翰臣」, 「書札」 권4, 16앞, 위의 책.

111) 曾國藩, 1990a, 「覆李甫堂」, 「書札」 권12, 9앞, 앞의 책.

같은 청조의 정규 관군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전국적 명성을 얻은 중국 번 幕府를 양성해 대규모의 신사층 인재를 그의 막료[幕友·委員]로 집결시키고 그들을 중·고급 관료로 천거[保舉]한 것이었다.¹¹²⁾ 이 같은 그의 사적 권력의 확장은 호남성을 비롯한 지방 당국의 대관료는 물론 북경의 함풍제로부터 심한 견제와 박해를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¹¹³⁾

함풍 4년(1854) 초 상군을 이끌고 태평군의 수도 남경[天京]을 향해 출진하면서 중국번이 선포한 「討粵匪檄」은 유교문화의 도덕이념과 제도에 기초한 제국체제를 수호하려는 대표적 사상공세의 문헌으로 당시 청조 신사층의 위기의식의 소재와 그의 經世 禮學의 정치적 소임을 잘 설명해 준다. 이미 청조 제국 안의 반체제 국가를 형성한 태평천국의 도전은 중화제국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제도가 당면한 분열의 심각성에서 중국사의 전통적 민란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번은 堯舜·三代 이래 중국의 역대 성인의 名教·人倫, 즉 군신 부자·상하 준비의 질서가 태평군이 서양에서 표절한 天主教[기독교]로 인해 파괴되고, 士人이 읽는 공자의 신성한 經典이 예수[耶蘇]의 설·新約의 책으로 대체되어, “중국 수천 년의 예의·인륜, 詩書·典則을 모두 하루에 깨끗이 탕진했다.” 이는 大清의 變일 뿐 아니라 “개벽 이래 명교의 奇變이고 우리 孔子·孟子께서 九原에서 통곡할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전면적 경제 통제에 저항하는 신사층의 경제적 권리 주장을 반영해 태평천국의 「天朝田畝制度」에서 표방한 토지와 재화의 公有 이념도 집중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¹¹⁴⁾ 「토월비격」이 태평천국에 대한 漢族 관료·신사층의 격렬한 반응을 압축한 문건이라면 이에 대응할 만한 태평군 측의 선전 문건이 「奉天討胡檄」으로, 그것은 야만인인 滿洲 胡族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억압·수탈에 대항해 문화 種族으로서 漢族의 종족적 復仇와 아울러 유교가 아닌 고대 중국의 문화원형으로 상상된 종교(上帝敎)제국의 부흥을 선전한

112) Jonathan Poter, 1972, *Tseng Kuo-fan's Private Bureaucracy*,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참조.

113) 羅爾綱, 1984, 『湘軍兵志』, 北京: 中華書局, 48~52쪽.

114) 曾國藩, 1990a, 「討粵匪檄」, 「文集」 권3, 1앞, 앞의 책.

것이였다.¹¹⁵⁾

중국변의 상군과 태평천국 양측의 위와 같은 사상적 분열은 각기 유교와 上帝敎라는 문화 또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天朝로서 중화 제국의 부흥을 표방한다는 공통성이 있다. 중국변은 중화제국 체제의 근본을 유교적 名敎에 바탕을 둔 禮의 질서에 두고 만주와 한족의 협력을 통한 제국의 대통합을 지향한 반면, 태평천국은 상제교의 입장에서 만주족을 야만적 이단 종족으로서 토멸해야 할 지상의 妖魔로 보고 한족 중심의 종교 제국을 건립하려 했다. 태평천국이 서방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종교적 연대감을 갖는 동시에 그들을 오랑캐(蕃·夷) 형제로 호칭하면서 眞命天子로서 萬國眞主인 天王(洪秀全)을 중심으로 만국이 進貢할 것이라는 전통적 朝貢·冊封 질서 속에서 세계를 인식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¹⁶⁾ 다시 말해 태평천국의 세계인식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상제교의 四海同胞 의식에도 불구하고 중화제국의 차별적 華夷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이단적 종교제국의 출현과 그에 따른 중화제국의 대분열과 전례 없는 문화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제국 중흥을 위한 중국변의 반태평군 투쟁은 중화제국 체제의 이념적·제도적 본질로서 유교적 명교와 禮制의 수호를 선포했다. 종족의 차이를 넘어선 유교적 문화 이데올로기로 滿漢 不分的 중화제국을 통합하는 전략은 앞서 말한 청조 황제 옹정제의 『대의각미록』의 통치이념과 연속성을 갖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내전의 귀결로서 중화제국의 주도권이 만주 황제·군사귀족으로부터 한족 문관·신사층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태평천국 진압 이후 상·회군계 중심의 한족 대관료들은 다수의 분권화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양무개혁의 추진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권력이 약화되고 총독·순무 중심의 省 단위 지방분권화가 크게 진행되었다.¹¹⁷⁾ 이 같은

115) 「東王楊秀清西王蕭朝貴發布奉天討胡檄布四方論」, 太平天國歷史博物館 編, 『太平天國文書彙編』, 1979, 北京: 中華書局, 104~107쪽.

116) 「東王楊秀清答覆英人三十一條並質問英人五十條詰論」, 위의 책, 299~307쪽.

117) 何烈, 1981, 「清咸同時期的財政」, 臺北, 231~249쪽. 태평천국 동란 중 각 성 재

대세를 몰아 반태평군 주력인 상·회군계 한족 관료들은 중국 본토의 통합과 아울러 1870~1880년대에는 열강에 침식된 제국 주변지역의 실지 회복과 해륙 양면의 변경 방어를 위한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新疆(이리·위구르)·대만처럼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가 아니었던 청조의 주변부 영토가 行省으로 재편되어 중국의 직할 행정하에 편입되고 개발이 진척되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중국 ‘邊疆’으로 통합된 이민족 지역의 통치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유교적 중화제국 재통합의 기획에서 풍계분과 더불어 양무개혁의 경세론을 대표하는 중국번의 사상은 아편전쟁 전후의 공양학, 특히 공자진의 경세론에 비해 제도 개혁의 급진성이란 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체제 통합을 위한 행정 개혁의 측면에 치중한 경향이 짙다. 그의 학문은 桐城古文派의 문장학에 기초한 朱子 義理學을 중심으로 실증적 考證學과 공리적 경세학을 융합해 경세적 禮學으로 折衷·會通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평천국과 제2차 아편전쟁의 체험을 통해 전통적 유교 경세학의 이론 틀 안에서 西學의 채택을 첨가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해 간 것이었다.¹¹⁸⁾ 중국 古今의 학문을 절충·회통한 경세학이 양무론을 통해 中西 학문의 절충·회통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풍계분에서 이론적 완성 형태를 갖는 이른바 中體西用 논리는 양무론에서 시작되어 변법론으로까지 연장되는¹¹⁹⁾ 새로운 방법론으로 유교 경세론에 편입된 것이다. 이처럼 예학으로 통합된 중국번의 유교 경세학은 관념적 義理[이념]에 빠지는 폐단을 고쳐 주자학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名實의 부합을 검

정의 분권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상군계 督撫급 지방관의 각 省 대거 진출에 대해서는 龍盛運, 1990, 『湘軍史稿』, 成都, 282~286쪽.

118) 曹秉漢, 1978.12, 「曾國藩의 經世禮學과 그 역사적 기능 - 태평천국과 양무운동에 관련하여」, 『동아문화』 제15집, 98~114쪽.

119) Joseph R. Levenson,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Berkeley & Los Angeles, pp. 49~53. 그러나 전통 중국 학문들의 절충·회통 경향은 중국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18세기 고종학 시대에 이미 형성된 광범한 사조의 새로운 확장일 뿐이다. 그리고 中體西用論이 양무파뿐 아니라 변법파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는 閔斗基, 1985, 「中體西用論考」, 『중국근대 改革운동의 연구 - 康有爲 중심의 1898년 개혁운동』, 일조각 참조.

증하는 法家的 방법으로 엄격한 功效를 추구하고 있다.¹²⁰⁾ 중국변은 태평천국 진압의 전선에 나서면서 이완된 관료행정의 부패를 숙청하는 과격한 방편으로 嚴刑峻法の 法家사상을 채택함으로써 유교적 禮, 즉 名敎 질서의 만회를 시도했다. 동란 시대에 예의 질서는 엄법을 통해 엄치심이 없는 인심·풍속을 만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원래 民本的 德治 禮敎의 이상을 지향하는 주자의 리리학이 그의 경제학의 중심이므로 功利的 입장의 법가적 엄형과는 본질적 모순관계에 있는데도 그는 유교적 이념과 고대 법가의 방법을 통합하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나갔다.

청대 고종학에서 주자학 정통과는 달리 情欲을 긍정하면서도 이를 禮로써 절제하려는 학설은 맹자·순자를 회통한 戴震학파의 凌廷堪의 禮論이 대표적이며,¹²¹⁾ 중국변은 청 중기 예문가로서 이 능정감과 秦惠田 등의 학설을 수용해 그들을 순자와 北宋 張載를 이은 청 중기 예학의 대가로 존중했다.¹²²⁾ 그런데 덕치 예교를 전제적 엄형의 법가사상과 결합한 것은 태평천국과의 대결에 임한 중국변의 결의의 비장함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모든 일이 황폐하고 온갖 상처가 혈어버린” 당시의 동란기에 亂民과 대결해 “멋대로 흐르는 人欲을 막아 亂을 싫어하는 天心을 회복하려면¹²³⁾ 周公·공자도 주멸을 꾀할 名敎의 적인 태평군에 대해서는 대량살육을 후회할 이유가 없다”고 격려했던 것이다.¹²⁴⁾ 그는 天地會를 비롯한 호남의 비밀결사[會黨]들이 창궐하는 현상을 보고하며, 오늘의 거대한 도적을 만든 것이 “수십 년 이래 事案을 방치해 죽일 자를 살려 둔” 결과라 하고, 時勢의 핍박으로 인해 강폭을 제거해 연약한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는 이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했다.¹²⁵⁾ 이 엄격한 형법적 법령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예의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분열된

120) 曾國藩, 1990b, 「覆賀耦庚中丞」, 「書札」 권1, 1앞, 『曾國藩全集』.

121) 大谷敏夫, 1983, 「揚州·常州學術考—その社會的關連」, 小野和子 編, 『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東京, 328~334쪽.

122) 曾國藩, 1990a, 「筆記二十七則(禮)」, 「雜著」 권2, 1앞, 앞의 책.

123) 曾國藩, 1990a, 「與江岷樵左季高」, 「書札」 권2, 5뒤, 앞의 책.

124) 曾國藩, 1990b, 「致沅弟季弟」, 「家書 一」, 앞의 책.

125) 曾國藩, 1990b, 「與魁陰亭太守」, 「書札」 권2, 4앞-뒤, 앞의 책.

제국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유교적 중화제국에서 도덕적 文治, 즉 예의 통치는 군사와 형벌이라는 무력의 정벌과 병행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었고, 예악·정벌로 대표되는 황제의 두 권능은 제국 통치의 본질로서 중화제국의 국내 제 종족 통치와 대외 이민족 통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중국변의 경세학에서 예의 개념은 추상적 통치원리, 즉 治道로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통치 정책과 제도, 즉 治法으로도 확대 적용되었다. 원래 유교의 禮는 고대 이래 도덕적 측면의 禮敎와 아울러 제도적 측면의 禮制라는 두 개념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변은 동란 시대의 통치술로서 예의 도덕적 측면인 주자학적 명교를 예의 제도적 측면인 행정제도와 결합했으며, 그 광의의 제도의 범주 속에는 형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儀禮』·『禮記』·『周禮』의 三禮를 모두 존중했으나 특히 『주례』의 官制 사상에서 예의 경세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주례』에 기원을 갖는 경세적 제도학으로 『通典』(杜佑)·『文獻通考』(馬端臨) 같은 制度史와 함께 禮書인 진해전의 『五禮通考』를 매우 중시했다.¹²⁶⁾ 그는 이 같은 예의 제도적 해석에 따라 예의 범주를 국가의 행정·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그 극한에까지 확대하고 정치상의 공리적 효과를 추구했다. 그의 예의 범주는 천하의 大事 14항, 官制·財用(재정)·鹽政(소금전매)·漕務(漕運제도)·錢法(화폐제도)·冠禮·혼례·상례·제례·兵制(군사제도)·兵法·刑律(형법)·地輿(지리)·河渠(치수)에 걸친 것이었다.¹²⁷⁾ 그의 경세론의 핵심인 禮治는 致賢(用人)과 養民(民生) 두 범주로 구성되었는데,¹²⁸⁾ 그가 관료행정의 요체로서 인재 배양과 민생의 향상을 강조한 것도 예치의 범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淸議와 實用을 경세의 양 측면으로 파악한 그는 사대부 인재의 양성을 위한 방법으로, 젊은 날 京官시기의 상서에서부터 “是非(공론)는 천자와 천하인의 공유”이므로 言路를 열어 평시에 강직한 신료를 길러 비상시의 인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사대부가 실용적 학

126) 曾國藩, 1990a, 「聖哲畫像記」, 「文集」 권3, 8앞, 앞의 책.

127) 曾國藩, 1990a, 「治道」, 「求闕齋日記類鈔」上, 19앞-뒤, 위의 책.

128) 曾國藩, 1990a, 「治道」, 「求闕齋日記類鈔」上, 20앞, 위의 책.

문인 역사서와 本朝(청)의 군사·형법·재정을 연구하도록 황제에게 촉구했다.¹²⁹⁾ 아울러 민생의 대책으로 토지세(錢糧)와 會黨, 그리고 刑政 세 가지 행정, 즉 재정과 치안을 포함시켜 행정의 누적된 폐단을 개혁하도록 통론했던 것이다.¹³⁰⁾ 형정은 태평군·회당과 같은 반체제 세력에 대한 진압 수단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화시 민생을 위해 재판의 부패를 숙정하는 民本주의적 德政의 도구로서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었다.

태평군과 화북의 捻軍 같은 중국 본토 중심부의 반란이 기본적으로 진압된 이후 개혁의 중점이 서구 열강에 대한 海防 문제로 옮겨가자 1865년 江南製造局의 설립을 전환점으로 양무개혁이 본격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양무개혁의 총체적 추진 방향은 특히 중국변 사후 1870년대부터 直隸總督 北洋大臣으로서 주류파를 형성한 李鴻章을 중심으로 청일전쟁(1894~1895) 때까지 장기간 주도되었는데, 海防을 위한 通商과 외교·군사라는 측면의 부분적이고 미봉적 개혁에 국한됨으로써 양무개혁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타협해 서구 열강의 압력을 완화하고 그 하위질서로서 기존 동아시아 중화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하는 宥和的인 대외전략만으로 그치고 말았다. 결국 양무가 개혁이 정체된 중화제국 해방체제의 도구라는 보수적 전략으로 고착됨에 따라 체제화한 양무 현상은 원래의 기획과는 달리 내정상의 變法 관념과 분리되었다. 그 결과 양무는 후일 체제변혁운동으로 목표가 상승된 근대적 변법과는 아주 대립적인 개념으로 당대인의 관념 속에서 통속화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홍장 주도하의 양무개혁이 열강의 외압에 타협으로 일관하고 제국 내외의 국권 강화에 실패한 것은 유교적 正統 이념과 국체를 중시하는 명분론적 清議의 저항 표적이 되었다. 한편 보수적 청의에도 구제국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서 양무의 현실적 필요성을 시인하는 사상적 변용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淸流派 관료들의 양무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양무개혁 자체의 반대보다는 오히려 제국체제의 강화에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비친 양무파에 의한 정치적

129) 曾國藩, 1990a, 「敬陳聖德三端預防流弊疏」, 「奏稿」 권1, 15앞-뒤, 위의 책.

130) 曾國藩, 1990a, 「備陳民間疾苦疏」, 「奏稿」 권1, 16앞-18뒤, 위의 책.

지방분권화와 양무개혁 성과 자체의 부진함에 더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¹³¹⁾ 그럼에도 청류파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해 양무파 정도의 현실적 개방성을 갖지 못한 고유한 이념적 결합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홍장 중심의 양무파와 그 분권화를 견제하려는 청류파의 정파 투쟁은 양 정파의 균형 위에 자리잡은 청조 중앙의 최고 실권자 西太后的 권력 게임을 통해 당쟁적 양상이 조정될 수 있었다.¹³²⁾ 그러나 그러한 朋黨정치의 균형 상태는 개혁의 장기적 정체와 부패를 초래하는 함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청의도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일본의 臺灣사건 이래 류큐 병합, 러시아와의 伊犁문제 교섭,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청불전쟁까지 1870~1880년대의 前期 청류파가 서태후와의 협력하에 성장한 반면 청불전쟁으로 전기 청류파가 후퇴한 다음 청일전쟁 전후에 활동한 翁同龢 등 후기 청류파는 光緒帝 주변의 (황)제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양무파 이홍장과 결합한 서태후 중심의 (태)후당과 대립한 것이다. 청일전쟁 후 康有爲 등 변법 維新派의 급속한 정치적 진출은 후기 청류파와의 결합이 그 정치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현상이다.¹³³⁾

전통적 제국체제의 이념은 19세기 후반 청류파의 國權주의적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청류파에 따르면 양무파가 유럽·일본과의 국권 경쟁에서 제국의 대외적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언제나 守勢에 몰리는 개혁의 부진함은 목전 평화 국면의 유지라는 현상에 안주하는 실용적 양무파의 무원칙성에 원인이 있었다.¹³⁴⁾ 한편 양무개혁은 부분적 개혁에 머물고 국민 전체를 위한

131) 崔熙在, 1996. 6, 「光緒初 清議經世論의 발전과 그 지향」, 『사학지』(단국사학회) 29집, 109~110, 115~117, 121~123쪽.

132) 베트남 주권을 둘러싼 청불전쟁(1883~1885) 시기의 양무파·청류파 당쟁에 대해서는 Lloyd E. Eastman, 1967, *Throne and Mandarins: China's Search for a Policy during the Sino-French Controversy, 1880-1885*,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133) 초기 청류와 후기 청류의 구분은 閔斗基, 1985, 「戊戌改革운동과 清流派·洋務派의 관계」, 앞의 책, 111~124쪽. 帝黨과 后黨의 구분은 湯志鈞, 1984, 『戊戌變法史』, 北京: 人民 출판사, 141~147쪽; 孔祥吉, 1988, 『戊戌維新運動新探』, 長沙: 湖南人民 출판사, 2~23쪽 참조.

134) 閔斗基, 1985, 앞의 글, 114~117쪽.

국운을 건 전면적 개혁이 아니었던 점에서 후일 변법파의 공격도 받게 되었다.¹³⁵⁾ 청류와 변법은 근대 서양 문명 수용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나 개혁의 범위 면에서 내정 중심의 체제 문제를 중시한다는 공통성이 있었다. 구제국 체제의 재정비에 치중한 청류파의 내정개혁 가운데 가장 유의할 것은 태평천국 동안 이래 양무파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확산된 지방관료 권력의 편의적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조치로서 관료행정의 정돈과 이완된 구래 법제의 회복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의 정상화를 시도한 것이었다.¹³⁶⁾ 구제국의 체제 또는 그 위신이라는 의미에서 국체를 중시한 청류파와는 달리 청일전쟁 후 등장한 변법파는 구제국 체제의 붕괴 이후 진전된 서구화를 통해 전통적 국체 자체의 근대적 재편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단계의 변법으로 개혁이 연속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무파 내 세력 분화의 과정에서 변법론의 정치세력화가 발생하거나 보수적 청류파가 변법으로 극적 전환을 함으로써 변법의 주체적 동력이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변법 주체의 형성을 위한 국내외적 계기는 변법 없는 양무라는 오래 지체된 개혁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海防체제가 청일전쟁으로 완전 궤멸됨으로써 급작스레 도래했다.

2_ 제국의 國權 · 世界大同에서 근대국가의 大民族主義로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토대로 省 단위로 강화된 분권적 지역 기반을 확보한 상군 · 회군계 한족 관료 · 신사 집단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북경을 점령한 영불 연합군에 청조가 무조건 항복한 북경조약(1860)을 전후해 국제적 개항장의 중심인 上海를 주요 창구로 삼아 양무파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개항장이 집중된 동남 沿海의 경제 선진지역, 특히 江蘇 · 浙江의 지방 督撫들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대두한 양무개혁은 1860년대 일본의 경우와는

135) 康有爲, 1981, 「上清帝第六書」(應詔通籌全局摺), 『康有爲政論集』, 211쪽; 梁啓超, 1960, 3, 「中國積弱溯源論」, 『陰冰室文集』 5, 臺北: 中華書局, 38~39쪽.

136) 崔熙在, 1997, 6, 「光緒初 官료기구의 정비와 法律行政의 정돈」, 『역사학보』 154 집, 171~182쪽.

달리 30여 년간이나 메이치유신과 같은 근대적 변법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이홍장 등 양무 대관료들이 일본의 도쿠가와막부 권력에 비견할 서태후의 중앙권력과의 협력관계에 안주함으로써 개혁이 정체되었던 것이다. 1870년대부터 이홍장계 주류파 양무개혁의 부분적 발전 시도가 봉당적 견제로 좌초되는 동안 주류파 양무 진영 내의 진보적 이론가들인 초기 변법론자들은 변법을 지향한 점진적 사상적 진화의 과정을 겪었으나 실천면에서 양무 대관료의 개혁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자적 반대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적 발전에도 제약이 불가피했다. 막부를 타도한 일본의 倒幕처럼 양무체제에 대한 전면 도전의 계기는 중국 국내 개혁세력의 분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청일전쟁에서 낡은 청제국이 붕괴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역내 국제환경의 돌변을 통해 외부로부터 찾아왔다.

1870년 天津教案을 계기로 외압과 청의의 내외 협공에 몰린 직례총독 중국번이 남경으로 복귀해 곧 사망한 후 그를 계승한 北洋大臣 이홍장은 대만사건에서 촉발된 海防·陸防 논쟁을 통해 해방의 입장에 서서 ‘3천 년 이래의 變局’이라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 대응할 연해 방어전략의 개선을 위해 양무개혁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청제국 안에서 상군계 양무파와 청류파 등 분열된 정파들과 경합하는 가운데 서태후 권력과 제휴한 회군계 양무파의 이홍장은 자신이 중심이 된 국가적 정책 통합을 희망했으나 자신의 고유한 지역적 권력 토대를 위협할 중앙 정치제도 개혁을 스스로 추진할 강한 의지는 없었다.¹³⁷⁾ 그러나 여러 이유로 좌초된 그의 양무개혁은 구미 열강의 불평등조약 체계와 정체된 중화제국의 海防체제를 돌파하지 못한 채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근대적 변법의 길로 연속적 상승을 할 수가 없었다. 이는 1860년대의 단기간 쿠데타와 내전을 통해 막부를 타도한 메이치 일본의 유신파(변법파)가 군사적 해방의 단계를 벗어나 중앙집권적 중앙정부를 통해 통합적 정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

137) Stanley Spector, 1964, *Li Hung-chang and the Huai army : A Study in Nineteenth-Century Chinese Regionalism*,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 235, 238.

던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가 점차 쇠퇴하면서도 청일 전쟁 이전까지 서구의 국제법질서와 함께 한동안 공존한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청조의 정체된 양무개혁과의 관련 속에 일어난 평행 현상이었다.

정책의 통합과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홍장의 희망은 해방전쟁 이전 1872년 초 중국번에게 보낸 글에 이미 명백히 표명되었다. “중국의 政體가 官과 民, 안(중앙)과 밖(지방)이 모두 합일되기 어려워서” 개혁 추진이 부진하니, “일본은 그 군주가 主持하고 臣民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는데 “중국은 한두 사람의 外臣(지방관)이 주지해 아침의 논의는 저녁에 변하고 아침에 만든 것은 저녁에 중지된다”는 것이다.¹³⁸⁾ 정책 통합의 구심점이 형성되고 일정한 國是하에 국가의 개혁이 추진된다는 것이야말로 일본 메이지유신의 혁명적 개혁의 동력인 동시에 청일전쟁 패전 후 강유위 등 근대 변법파가 추진한 변법운동의 핵심 전략이었다. 다분히 일본의 개혁을 의식한 이홍장의 이 같은 진보적 개혁지향은 이미 변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나,¹³⁹⁾ 정작 그가 현실적으로 추구한 제도 개혁안은 단순한 兵制 개혁이나 과거제의 科目 변통과 같은 단편적·실용적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이홍장 자신이 의거하고 있는 지방분권적 기반과 중앙의 봉당정치를 스스로 타파할 의지가 없으면서 메이지유신을 선망하는 듯 전국적 정치 통합을 주도하려는 그의 발상은 역사적 의미가 그다지 없는 것이었다. 메이지유신의 倒幕派와 같은 쿠데타·내전 방식이 불가능한 중국의 상황에서 그의 정치통합 발상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결국 그의 개혁사상과 정책조차 현실적 제약을 받아 의미 있는 전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근대적 민족주의 출현은 청일전쟁이라는 궤멸적 참패를 계기로 청제국과 양무 해방체제가 붕괴한 다음 전면적 변법을 촉구하는 민간 신사층의 대규모 동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패전과 민간사회의 동원, 전국적 공론의 형성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공론장, 사회적 공공역역이 배태되기

138) 李鴻章, 1965, 「復曾相」, 朋僚函稿 권12, 3앞-4앞, 앞의 책.

139) 章鳴九, 1989, 「論李鴻章的變法思想」, 『歷史研究』 제6기, 66~69쪽.

시작하는 징후이기도 했다. 역동적 움직임을 시작한 민간사회를 배경으로 근대적 민족주의가 종래의 유교적 청의를 대체한 새로운 전국적 공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¹⁴⁰⁾ 공론 주체로서 재야 신사층이 정치세력으로 결집해 부패한 전제적 궁정정치와 봉당적 관료행정의 균형 상태라는 정체된 구도를 타파한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권국가 간의 전 지구적 국제경쟁 국면을 인정하고 민족주의적 근대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급진적 개혁이나 혁명으로서의 정국 전환이었다. 그런데 근대적 정치 국면의 발전 과정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통적 유교 사대부의 청의와 봉당을 대체하기 시작한 재야 신사층의 전국적 공론과 정치개혁 운동은 계몽적 신지식층, 근대 인텔리겐치아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20년쯤 후 5·4시기에는 민중과 각계 사회조직의 동원을 통한 민족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래 청조 해체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을 배경으로 중국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중화주의가 민족주의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전통적 중화주의는 문화적(유교)·종족적(漢族)·정치적(天朝, 왕조제국)·지리(中原)적 요소를 갖춘 보편적 제국 이데올로기였지만¹⁴¹⁾ 청일전쟁에 따른 제국의 해체를 계기로 이들 중화주의의 요소들은 제국적 보편성에서 분리되어 민족적 특수성의 개념으로 개조·치환될 것이었다. 다시 말해 보편 제국 대신에 主權국가 중국이, 유교적 보편 문화 대신 민족적 고유 문화인 國粹·國學이, 한족 대신 중국 國民(民族), 세계 중심으로서의 중원 대신 중국 고유의 國土가 강조되면서, 이들 개념은 원래의 중화의 의미를 치환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기 마련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조의 항복이 확정되자 군사력이나 관료적 권력 기반이 전혀 없는 康有爲 등 한중의 변법파 紳士 집단이 上書와 學會와 報刊·新學堂이라는 조직과 公論을 동원해 북경 조정과 湖南의 관료기구를 한때 진동

140) John Shrecker, 1969, "The Reform Movement, Nationalism and China's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4, No. 1, Nov. 참조.

141) John Shrecker, 1969, 위의 글, pp. 17~29.

시켰는데, 이는 바로 전쟁의 참패와 제국의 몰락이 청조 지배층에 미친 충격과
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이었던가를 반영한다. 이제 제국의 잔영조차 사라지고
일본을 포함한 구미 열강의 분할 대상이 된 청조 중국은 완전한 의미의 반식민
지 국가로 망국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다. 불평등조약은 그 자체가 반식민지
의 동의어는 아니며 반식민지적 조건 중의 한 요소일 뿐이었으나 이제 반식민
지로 이미 전락한 중국은 불평등조약 폐지 운동의 주체도 반식민지 국가가 아
니라 민간사회의 지식인과 민중의 등장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구
형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변법운동이 민간 신사층의 주도로 발동되었
으며, 서구적 근대화를 잘 토착화시킨 모형으로서 근대 일본의 메이지유신 과
정이 학습대상이 되었다. 일본 주재 중국 공사관의 參贊이었던 黃遵憲이 1880년
대 후반에 저술한 『日本國志』, 1898년 초 戊戌변법의 추진 중 강유위가 光緒
황제를 알현하고 그를 위해 저술한 『日本變政考』가 변법운동의 지침이 되었
다.¹⁴²⁾ 변법운동은 개혁정책을 논의하는 의정기구로서 制度局을 설치하고 그
아래 전문적 개혁 추진을 위한 12局을 두었다. 그 가운데 근대국가 수립과 관
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법률국인데, 서구 근대 법률제도의 도입을 위해 강
유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중국에 온 외국인이 중국 내의 자기 국민을 스스로 다스리고, 우
리와 평등하지 않은 특권(治外法權)을 누리니 실로 비당한 치욕이다.
그들은 우리의 형벌이 너무 무겁고 법규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 로마 및 영·미·독·불·일본의 법률을 채택·개정해 시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내지에 시행할 수는 없으니 역시 우선 각 개항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민법·民律·상법·市則·泊則·訟律·군률·국제법
은 서양인이 모두 매우 상세히 알고 있는데, 이미 관문을 닫고 거래를
끊을 수 없으니 통상·외교에서 일체 이를 통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
이다.¹⁴³⁾

142) 王曉秋, 1997, 앞의 책, 36~82쪽.

143) 康有爲, 1981, 「上清帝第六書」(『應詔統籌全局摺』, 「制度局摺」)(1898. 1. 29), 湯志
鈞編, 『康有爲政論集』, 北京: 中華書局, 215쪽.

강유위가 서구 근대 법률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적 요청보다는 서구 제국주의의 외압에 대응해 외교적·경제적으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민족주의적 반응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治外法權을 비롯한 불평등조약에 대처하고 평등한 국제법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서구 간의 법률적 차이나 전통 법률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들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또 근대적 경제질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적합한 각종 법률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아가 서구 법률의 수용이 정치면의 官制(행정법) 개혁에도 적용되면 근대적 政體의 제도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었다. 이 관제 개혁은 과거제 개혁과 더불어 끝내 서태후를 정점으로 개혁정치에서 소외된 구관료층의 정변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관제 개혁에서 핵심 기구는 制度局과 그 예하의 12국이었는데, 메이치유신의 개혁 이념을 모방한 이 제도국은 단순한 집행기구가 아니라 議政기구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立法의 취지를 내포한 것이었다.¹⁴⁴⁾ 강유위의 변법은 황제 권력에 의존하는 정치적 한계로 인해 당장 의회제의 건립을 추구할 수는 없었으나 그 관제 개혁의 결정적 의도는 皇權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의정 기능과 근대적 法治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국체 변혁을 위해 서구의 법률제도를 채택하고, 나아가 입헌제를 지향한 변법파의 필연적 동인은 그들이 청일전쟁 이후 서구 근대 주권 국가와 경쟁적 세계질서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데 있었다. 강유위의 새로운 세계질서 인식을 보면,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開創의 형세로 천하를 다스려야지 守成의 형세로 다스려서는 안 되며, 列國 竝立의 형세로 천하를 다스려야지 一統시대 치마를 드리운 형세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개창에는 온갖 제도를 更新하며, 열국이 병립하면 힘과 지혜를 겨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⁵⁾ 그런데 “중국은 옛부터 통일되어 주변에 늘어선 것은

144) 康有爲, 1974, 「日本變政考」, 黃彰健 編, 「康有爲戊戌真奏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06~107쪽.

145) 康有爲, 1981, 「上清帝第二書」(1895. 2), 위의 책, 122쪽.

모두 작은蠻夷뿐이었으므로 바깥으로 패권을 경쟁하는 마음이 없고 아래로 내란을 방지하려는 뜻만 있었다. 明代에 이르러 治法이 더욱 주밀해지며 八股(과거문)로 士人을 뽑고 복무 기간으로 관직을 쌓음으로써 智名·勇功의 선비를 곤경에 빠뜨리려 애써 학문을 발휘할 수 없게 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략 春秋·戰國 시대의 (국가) 병립·경쟁과 같고 다시는 漢·唐·宋·明처럼 正統을 독차지한 때가 아니니 이른바 수천 년 이래 없었던 변동”이라는 것이다.¹⁴⁶⁾ 이제 아편전쟁 시기 공자진·위원의 춘추공양학을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 개혁 이데올로기를 준비한 청말 공양학과, 강유위 등에게는 이번의 법제 개혁이 과거의 왕조국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체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청조의 제2건국이었던 셈이다. 그의 견해로는 “중국이 2천 년 이래 법으로 천하를 다스렸는데” 지금 國勢가 빈약해 긴박한 위험에 이르게 된 것은 “법의 피폐로 초래된” 것이며, 청조 祖宗의 법도란 것도 실은 “明朝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이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¹⁴⁷⁾

변법운동은 황제에의 상소와 아울러 학회라는 단체와 민간 언론기구를 새로운 정치운동의 도구로 삼아 추진되었다. 강유위는 북경에서 翁同龢를 수뇌로 하는 청류파 관료들의 지원을 얻어 強學會를 조직하고 정치활동을 신사 집단에서 북경 관료계로 넓혀갔는데, 근대적 민간 집합체의 형성으로서 ‘合群(단체 결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風氣는 종래 산만하고 사대부가 명대 結社(社會)의 금령을 경계해 서로 모여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轉移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풍기를 열고 지식을 열고자 생각하면 대규모의 무리를 합치지[合大群] 않으면 안 되며, 또 반드시 대규모의 무리를 합친 다음에야 역량이 커진다. 무리를 합치려면 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데, 外省에서 회를 열면 지방관이 충분히 제압하니 사대부를 합쳐 수도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된다.¹⁴⁸⁾

146) 康有爲, 1981, 「上清帝第四書」, 위의 책, 151쪽.

147) 康有爲, 1981, 「上清帝第三書」(1895. 5. 2), 위의 책, 140쪽.

148) 康有爲, 1992, 『江南海自編年譜』, 北京: 中華書局, 28~30쪽.

이 같은 ‘합군’은 관료·신사층의 학회에서 장래 상공인을 비롯한 사회 각 계의 직업이나 계층·신분, 연령·성별 집단에까지 확장되어 근대 민간사회 나아가 국민 형성의 매개가 될 것이었다. 또한 강유위 등 변법파는 민간의 제도화된 淸議 기구로서 서구의 新聞이라는 언론제도에 주목했다. 서양의 신문에는 고대의 鄉校처럼 청의가 있으며 건문을 넓혀 時務에 통하는 이점도 있다고 하여, 유교적 사대부 공론(청의)과 경세의 의미를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君民, 官紳 간의 (의사의) 隔絶을 비판하고 공론을 官制와 연결, 역사상의 言官 제도의 전통을 기반으로 근대적 의회제의 시행을 논하기도 했다.¹⁴⁹⁾

1897년 말 독일의 山東 膠州灣 점거에 이은 열강의 중국 분할, 이른바 ‘瓜分豆剖’의 위기에 직면하자, 다음 해부터 변법운동은 취약한 황제의 지지에 의존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더니 3개월 만에 서태후의 정변을 맞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해의 변법운동의 여러 특징은 중국의 부강을 추구하기보다 임박한 亡國滅種의 위기를 구하려는 절망적 노력이었다는¹⁵⁰⁾ 긴박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과거 半開化된 오만자존의 국가로 서구의 미움을 받던 중국이 이제는 아프리카 黑奴와 마찬가지로 멸시받게 되니, 원래 문명국끼리만 적용되는 서구 公法(국제법)의 세력균형과 보호의 사례는 중국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기독교 “교회가 도처에 있어 분규가 없을 때가 없고, 광산이 도처에 있어 요구가 없을 때가 없으며”, “철로가 남의 손에 있어 남북의 咽喉이 이미 단절되고 지역 대관료가 (외압으로) 축출되니 관료 임용권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¹⁵¹⁾ 이 같은 국가의 절대 위기 속에서 강유위의 保國會는 “국토가 날로 분할되고, 國權이 날로 깎이며, 國民이 날로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권·영토를 보존하고, 인민·種族의 자립을 보전하고, 聖敎(유교)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¹⁵²⁾ 국가의 주권과 영토·

149) 康有爲, 1981, 「上清帝第二書」(1895. 2), 앞의 책, 117, 130~132, 134~135쪽.

150) 閔斗基, 1985, 「戊戌改革運動의 國際的 環境」, 『中國 近代 改革運動의 연구』, 일조각, 219쪽.

151) 康有爲, 1981, 「上清帝第五書」, 앞의 책, 201~203쪽.

152) 康有爲, 1981, 「附 保國會章程」(1898. 4. 17), 앞의 책.

인민, 즉 국권·국토·국민, 근대국가의 3요소가 모두 언급되었다. 다만 비록 국가가 중심이지만 종족(인종)과 국교(유교)가 3대 요소로 병열되어 강유위 춘추공양학의 유교주의와 종족주의 특색이 드러나 있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란 용어를 梁啓超에 앞서 강유위가 사용했고,¹⁵³⁾ ‘중국’의 국호로 왕조 명칭이 아닌 ‘中華’를 채택함이 좋다는 건의도 하고 있다.¹⁵⁴⁾ 강유위의 제자 양계초는 20세기 초두 일본 망명기에 시대에 뒤진 유교 국교화에 반대해 강유위의 保教 관념을 폐기했으며, 종족 개념은 그 범위가 모호할 뿐더러 국가의 보존이 종족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국가’를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¹⁵⁵⁾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란 용어를 제국주의와 민족제국주의란 용어와 함께 처음 사용한 것은 1901년 양계초였으며, 이 무렵 그는 민족주의의 체계적 이론화도 진행했다.¹⁵⁶⁾

강유위의 국가·민족 관념 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세계주의 유토피아 관념인 大同사상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토피아적 세계 통일·세계정부론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세계주의 이념은 전통적 세계제국 관념에서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국가·세계관의 큰 특색을 이루고 있다. 전통시대 보편적 중화제국의 대일통 관념에서 그 사상적 기원의 하나를 찾을 수도 있는 대동사상은 서구의 진보적 근대 문명관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 신분화의 차별관을 벗어나 그야말로 전 지구적 규모의 세계 대통일, 즉 민족·계급, 심지어 가족과 남녀 性別까지 타파된 유토피아 사회주의적 세계 공동체로 확장·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의 유가 고전, 『춘추공양전』과 『禮記』 「禮運」편의 재해석을 통해 강유위는 전통적 대일통 세계관을 근대의 과학적 公理와 進歩史觀 및 공상적 사회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근대적 유토피

153) 康有爲, 1981, 「請君民合治滿漢不分摺」(1898. 8), 앞의 책, 340쪽; 王春霞, 2005, 『排滿與民族主義』,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3~24쪽.

154) 康有爲, 1981, 앞의 글, 342쪽; 王春霞, 앞의 책, 24쪽.

155) 梁啓超, 1960.3, 「保教非所以尊孔論」, 앞의 『飲冰室文集』 9, 50~51쪽.

156) 梁啓超, 1960.3, 「國家思想變遷異同論」, 위의 책 6, 13~18쪽.

피아로 개조한 것이다.¹⁵⁷⁾ 대동사상의 핵심이라 할 지구 통일의 유토피아적 평등사상은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의 절정기에 거의 망국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입장에서 비록 관념적이지만 소극적 반제국주의 논리를 내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도의 불평등조약 폐지가 불가능한 半식민지 상황에서 中西 문명의 융합을 통해 중국을 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자주·평등이 보장되는 미래의 유토피아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변법운동 시기 강유위 집단의 개혁 이데올로기로서 운동의 이념적 추동력으로 고안된 것이기도 했다.

한동안 이 대동설의 세계주의에 얽매어 있던 변법파 양계초는 일본 망명 초기 일본 계몽사상과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며, 스승의 유토피아적 세계주의를 이탈해 1901~1902년 두 해 동안 중국에서는 최초로 근대적 국민도덕(公德)과 民權, 중국 고유의 종족 관념과 전통문화(國學)를 결합한 근대적 민족주의 이론 체계를 완성했다.¹⁵⁸⁾ 그가 이상주의적 세계주의를 폐기한 것은 당시의 제국주의적 현실 세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통찰 때문이었다. 근대 세계는 서구를 선두로 주권국가의 민족주의로부터 선진국의 '민족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민족제국주의 시대에 중국은 漢族을 중심으로 중국 내의 다민족을 同化, 통합하는 '中華民族'의 강대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양계초의 大민족주의로서, 辛亥共和革命 당시 동시대의 孫文 등 혁명파가 만주족을 축출하고 한족 중심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던 小민족주의에 대비되는 것이었다.¹⁵⁹⁾ 이 대민족주의 노선은 후일 1920년대 이후 손문의 중국국민당과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의 민족주의에 기본적으로 수용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데 양계초에 기원을 갖고 현대 중국에서 한족 중심

157) 曹秉漢, 1999, 1, 「康有爲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中西文化 인식 - 근대 개혁 이데올로기의 탐색」, 『동양사학연구』 65집, 103~109, 128~134쪽.

158) 梁啓超, 1960, 3, 앞의 「國家思想變遷異同論」, 13~22쪽; 「中國史敘論」, 『文集』 6, 2~22쪽; 「新史學」, 『文集』 9, 1~26쪽; 「新民說」, 『陰冰室專集』 제3책, 3~22쪽.

159) 王春霞, 2005, 앞의 책, 25~31, 147~159쪽. 종족·인종 문제는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の神話 - 人種・身體・ジェンダー』, 東京: 岩波書店, 45~53, 59~68쪽. 국민국가론의 관점에서 民權·公德과 민족주의의 관련은 曹秉漢, 2007, 12, 「梁啓超의 국민국가론과 民權・民族 관념」, 『西江人文論叢』 22 참조.

의 다민족 통일국가의 국민통합 이념이 되고 있는 이 대민족주의가 국가와 문화 양면에서 고대 중국의 秦漢제국 이래 유교적 대일통 중화제국의 정치적·문화적 전통과 일정한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양계초는 신해혁명에서 공화파의 만주·한족 분리주의에 반대하면서, 미래의 신중국이 청조 제국을 계승해 제국 내의 만주·몽골·신강(伊犁·몽골·위구르)·티베트 및 기타 소수민족들을 한족 중심으로 동화·통합하는 다민족 국민국가로서 미국과 같은 대국의 건설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역사학은 『춘추』 등 유교 고전에 유래하는 보편적 문화주의와 동화론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비록 그가 유교의 국교화는 반대했지만 그의 國學이나 민족주의 이론에는 유교적 중화주의 전통의 근대적 변용을 통해 문화·종족 개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근대 중국의 국체와 관련해 국민국가의 규모와 국민 통합의 기제를 제시한 양계초의 근대 민족주의 이론은 서구적 근대 민족제국주의 이념이 물론 토대가 되었으나 중화제국과 유교적 문화주의 요소가 변질된 형태로 결합된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20세기 초에 걸친 청말의 중화제국 해체와 이에 따른 신해 공화혁명 시기의 한족 單一民族論은, 진시황 이래 중국의 장구한 제국의 전통은 말할 것 없고 청제국에서 현재의 통일중국에 이르는 시기만을 시야에 넣더라도 망국 또는 분열 시기의 비교적 단기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민족 정복왕조로서 제국 내 여러 민족의 분리를 전제한 청제국의 多元 구조는 청조 말기 만·한 동화의 진전과 이민족 邊疆지구의 行省 설치를 통해 변질되기 시작했다. 양계초의 대민족주의는 한족 지배층이 청조의 정통성과 지배 영역을 계승한 한족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근대 중국의 국민국가는 그것이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청제국의 양 측면 가운데 이민족 제국으로서 청조의 다원적 구조보다는 보편 유교의 문화주의적 동화 이념과 중앙집권적 행정 통일이라는 一元的 중화제국의 전통을 전 영역에 관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원래 청조 지배자로서 만주족이 근대 중국에 통합된 결과 그들의 운명과 무관하게 독자적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여러 변강 이민족들의 민족자결이 봉쇄되고 만 것은 근대 중국의 국민국가 형성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남았다.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자결을 요구한 근대 중국의 국민국가가 다민족 제국인 청조를 대체하면서 한족과 동등한 자결권을 제국 영역 내 타민족에게는 부정한 모순적 발전과정은 제국주의 세계질서하의 반식민지로서 반제국주의 투쟁의 와중에서 탄생한 중국 국민국가가 동시에 제국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모순적 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Ⅳ. 맺음말

19세기 말 康有爲 등의 變法운동은 청일전쟁으로 완성된 반식민지 상황으로부터 근대 국민국가의 건립을 지향한 개혁·혁명 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중국 근대 민족주의 형성의 첫 국면이라 할 수 있다. 한족이 중심이 된 이 변법운동의 성격은 청조 군주제 유지를 표방했음에도 滿·漢 종족 융합을 통해 전통적 제국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체를 근대 주권국가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 해체하려 한 滿洲族의 清朝는 원래 이민족 정복왕조로서 17세기 말 이래 康熙·雍正·乾隆 3帝의 盛世를 거치며 만주족의 주체성과 민족적·문화적 多元 구조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편적 유교 문화주의에 입각한 중화제국 이념을 통해 만·한 모순을 대체로 극복하고 중국 본토의 왕조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전 이미 쇠퇴기에 들어선 청조는 19세기 중엽 아편전쟁 이래 서구의 압력과 太平天國의 내전으로 위기에 직면했으나 만·한 지배층의 동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내외의 동란에 대응한 洋務개혁을 통해 일시 쇠운을 저지하고 동아시아 지역권 내의 지역제국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왕조의 中興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19세기에 국가 개혁을 지향하는 漢族 士大夫의 유교적 經世論의 핵심을 이룬 사조가 18세기 건륭대에 절정에 이른 청조 전성기의 중화제국을 회복해 왕조의 증흥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경세사조는 아편

전쟁 이전에 출현한 龔自珍·魏源 등의 今文經學(春秋公羊學)의 대통일 제국 이념이었다. 제2차 아편전쟁 후의 1860년대 양무개혁과 그에 의존한 海防체제 구축에 이르러 중화제국 중흥의 경세론은 아편전쟁 시기의 단순한 개혁 이론에 그친 정치적 비판의 공론, 즉 淸議의 단계를 넘어 전통적 경세학의 內政 개혁론을 바탕으로 서구의 방법을 차용한 대외적 양무론을 결합해 국가 개혁의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의 외압에 타협해 그들이 강제한 국제법·불평등조약 질서를 수용하고 朋黨의 국내 관료정치와 파벌 간 균형에 타협함으로써 양무개혁은 근본적 제국 國體의 개조와 같은 내정개혁의 토대 없이 대외적 海防체제를 위한 군사적 현상유지 대책으로 정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차의 아편전쟁 패전에도 불구하고 1860년대 이래 30여 년간 청조 중국이 태평천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내 반란을 진압하고 변경의 방어를 어느 정도 강화하며, 지역 내에서 낡은 중화제국이 당분간 신흥 국민국가 일본과 경쟁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무개혁의 군사적 성과에 의존한 측면도 있었다. 범세계적 서구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되면서도 그 하위 질서로서 동아시아 지역권에는 전통적 朝貢·冊封 질서에 기초한 중화적 구질서가 작용하는 이중구조가 당분간 존속했던 것이다. 이 기간 중 청조 제국 내의 주변부(邊疆) 이민족 지역의 재정복과 行省 건설 등 內地化 정책을 통해 다민족 제국의 통합을 추진하고, 서구 국제법을 수용하면서 중국이 구래의 조공국을 屬國化하려는 중화주의 국제관의 변질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구미와 일본의 압력으로 지역 내에 출현한 경쟁적 국제질서 속에서 낡은 청제국이 國權 강화를 위해 시도한 새로운 전략적 적응으로 인정된다. 양무파와 그 진보적 분파인 초기 변법론자들은 물론이고 보수적 청류파 관료·신사층 사이에 그들이 추구한 개혁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대적 주권국가의 국권의식이 초기적 형태로나마 발현하기 시작한 것은 공통적 현상이었다. 주변부 이민족 지구, 특히 新疆의 형성 건설 정책에는 아편전쟁 시기 林則徐와 금문경학파, 湘軍系 양무파 左宗棠 사이에 인맥과 경세사상 면의 강력한 연속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실 타협적 개혁 실권파인 李鴻章 중심의 양무관료와 그 宥和의 대외정책에 반대

해 제국의 유교적 주체의식을 강조한 보수적 淸議 세력 淸流派 사이에 구제국 체제의 현상유지적 균형상태가 지속되고 개혁이 정체된 것은 국권의식의 성장에 근본적 제약이 되었다. 이 국권의식이 민간사회에 기초한 紳士層의 광범한 정치적 동원에 따라 근대적 ‘청의’의 형태로 민족주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청조 중흥이 아니라 청일전쟁에서의 청조의 치명적 패배였다. 패전의 결과로 낡은 중화제국 체제와 동아시아의 중화주의 지역질서가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중국이 분할과 망국의 위기에 직면한 다음이었다.

태평천국 진압과정에서 형성된 湘·淮軍系 양무파 관료집단의 경세사상에 아편전쟁 전후의 중화제국 중흥 의식이 계속된 사실은 태평천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선명히 나타났다. 태평군이 種族的 復仇를 표방하며 上帝敎의 종교왕국을 통해 고대 한족 제국의 부흥을 호소한 데 반해, 상군 최고 지도자 曾國藩은 중화제국의 전통적 기반인 유교적 禮敎문화와 신사층 지배하 사회질서의 지속성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제국 중흥의 전략으로서 문화적·사회적 통합을 추진했다. 상당히 급진적인 제도개혁론을 제시한 공자진 등 초기 금문경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측면이 있었으나 그는 유교적 중화제국의 치명적 분열을 저지하고 전통적 국체를 수호하려는 이데올로기적 노력은 매우 치열했다. 초기의 양무개혁은 내정개혁론에 토대를 둔 광범한 유교 경세론의 일부로 출발한 것이었다. 동란의 위기에 유가적 禮治와 아울러 고대 이래의 專制的 法家の 운용을 적극 도입한 것도 제국 체제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대책이었다. 예·법의 조화를 중시한 점에서도 중국변의 경세론은 아편전쟁 시기 금문경학파의 선구적 경세론과 연속성이 확인된다. 이 동란 중 청조의 지방 관료기구에 한족 官紳層이 대량 진출해 滿·漢 일체의 청제국 중흥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적 갈등은 존속했으나 청조 국가의 행정적·문화적 漢化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무개혁 시기 상군·회군계 한족 督撫 세력을 중심으로 省 단위 지방분권이 진행된 것은 유교적 청의를 대표하는 보수적 청류파를 중심으로 제국의 중앙집권적 통합을 회복하려는 저항에 부딪혔다. 청류파가 체제 재통합을 위해 정상적 법제의 회복을 시도한 것도 제국 중흥의 경세의식으로 주목된다. 19세기 후반 근대적 국권 관념은 국외의 경쟁과 국내의 분열에

대항해 초기 변법론자를 포함한 양무파를 비롯해 유교적 이념과 체제의 주체성을 강조한 청류파 모두에게 초보적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적 민족주의의 발전을 억제하던 전통적 王朝帝國의 국체와 중화주의 국제질서의 잔재들이 기본적으로 소멸된 변법운동 시기에 강유위 등 변법파의 세계관은 날로 진보하는 경쟁적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다원적·개방적 국제질서를 수용한 것이었다. 망국의 위기를 계기로 전통적 유교 士大夫의 청의는 근대 민족주의적 公論으로 전화해 갔다. 근대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이래 신사층, 궁극적으로는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민간사회의 활발한 정치적 동원이 진행될 때 출현했는데, 정치 주체로서 국민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방적 민간 공론의 제도화와 아울러 군주전제를 벗어난 근대적 法治의 도입이 필요했다. 또한 근대 서구의 이상주의적 문명관과 아울러 청말 사조를 지배한 사회진화론을 기반으로 신사·지식층의 學會에 이어 각종 직업·계층·신분·연령·성별로 확산되어 갈 各界 사회단체 조직은 국민 만들기의 토대로서 공공영역의 출현을 의미했다. 내정개혁을 의미하는 변법 관념은 아편전쟁 시기, 양무개혁 시기와 같은 제국 중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제 망국의 위기에서 국체의 변혁을 위한 전략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근대적 국권 관념을 확립한 강유위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와 인민·種族을 보존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유토피아적 大同사상을 통해 세계주의를 표방해 민족주의 형성 초기의 과도기적 이념 상황을 나타냈다. 전 지구적 세계 통합과 민족·계급·가족·성별을 초월한 평등적 세계주의 이념의 기원은 서구적 근대 문명관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전통적 중화제국의 대일통 세계의 관념에 소급할 수도 있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 半식민지 국가로 몰락한 중국의 반제국주의적 민족 평등의 待望이 전 지구적 보편성을 갖는 과학적 公理·公法으로서 미래 유토피아의 형태로 세계대동 이념에 투영된 것이었다.

강유위의 근대적 국권 사상과 이상주의적 세계주의는 잘 알려진 대로 제자 梁啟超를 통해 1901~1902년 일본 망명시기에 근대 민족주의 이론으로 전환했다. 변법운동 시기 강유위의 진보적 改新유교와 대동사상에 영향을 받은 양계초는 20세기 초두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이론적

전제로 강유위의 유교 국교화론과 이상주의적 세계주의를 폐기했다. 그러나 辛亥共和혁명 시기 일시 한족만의 小민족주의를 주장했던 共和派에 대립해 청조 제국의 다민족 국가 체제를 계승한 大민족주의를 추구했다. 양계초는 유교를 넘어 서구 근대의 정치적 결합으로서 국민국가론을 처음 도입했다. 그럼에도 다민족 제국 청조의 계승을 주장한 그의 대민족주의는 한족 중심의 민족 同化가 전제된 점에서 2천 년 이상에 걸친 오랜 중화제국의 국가 통합과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유교적 문화 통합이라는 대통일의 전통이 용해되어 있었다. 그의 민족주의 이론체계는 民權과 公德이라는 정치적 측면의 진보적 국민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으나 종족과 문화적 요소도 아울러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 근대적 종족·문화 민족주의는 이제 극복 대상이 된 유교적 중화주의 전통의 근대적 변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족제국주의로 발전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비취 중국의 장래가 근대 민족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다민족 통합의 세계적 대국을 지향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 양계초의 대민족주의 사상은 오늘날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가 이미 국내적으로는 제국적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너무나 잘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범위에 속하는 아편 전쟁 이후 20세기 초에 걸친 청말의 중화제국 해체 과정과 이를 배경으로 신해공화혁명 시기에 단기간 출현한 한족 중심의 單一民族 국가론은 오늘의 통일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청제국 이래의 다민족을 융합하는 새로운 ‘大중화민족’ 형성의 이념적 동인으로 이면에 잠류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閔斗基, 1973·1980, 「清朝의 皇帝統治와 思想統制의 실제－曾靜謀逆사건과 〈大義覺迷錄〉을 중심으로」, 『중국근대사 연구』, 일조각.
- 閔斗基, 1985, 「中體西用論考」, 『중국근대 改革運動의 연구－康有爲 중심의 1898년 개혁운동』, 일조각.
- 閔斗基, 1985, 「戊戌改革運動의 國際的 環境」, 『중국근대 改革運動의 연구』, 일조각.
- 閔斗基, 2001. 2, 「동아시아의 실체와 그 전망－역사적 접근」,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출판부.
- 曹秉漢, 1978. 12, 「曾國藩의 經世禮學과 그 역사적 기능－태평천국과 양무운동에 관련하여」, 『동아문화』 제15집.
- 曹秉漢, 1994. 12, 「乾嘉 考證學派의 體制統合 이념과 漢末 折衷思潮－阮元·焦循·凌廷堪의 古學과 實學」, 『명청사연구』 3집.
- 曹秉漢, 1996. 2, 「鴉片전쟁 시기 ‘저항파’ 林則徐의 개혁사상과 淸議」, 『동아시아역사연구』 제1집.
- 曹秉漢, 1997. 4, 「清 乾嘉朝 이래의 經世思潮 부흥－考證學 융성기의 桐城 古文派와 常州 公羊學」, 『명청사연구』 6집.
- 曹秉漢, 1999. 1, 「康有爲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中西文化 인식－근대 개혁 이데올로기의 탐색」, 『동양사학연구』 65집.
- 曹秉漢, 2002. 12, 「초기 洋務論의 형성과 上海지역」, 『中國近現代史研究』 제16집.
- 曹秉漢, 2007. 12, 「梁啓超의 國민국가론과 民權·民族 관념」, 『西江人文論叢』 22집.
- 崔熙在, 1985. 12, 「1974-5년 海防·陸防論의 성격」, 『동양사학연구』 22집.
- 崔熙在, 1996. 6, 「光緒初 淸議經世論의 발전과 그 지향」, 『사학지』(단국사학회) 29집.
- 崔熙在, 1997. 6, 「光緒初 관료기구의 정비와 法律行政의 정돈」, 『역사학보』 154집.
- 崔熙在, 2003, 「洋務運動期 民族意識 발전의 一端：同治末 光緒初의 國權과 華僑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85집.
- 康有爲, 1974, 「日本變政考」, 黃彰健 編, 『康有爲戊戌真奏議』, 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康有爲(湯志鈞 편), 1981, 『康有爲政論集』, 北京：中華書局.
- 康有爲, 1992, 『江南海自編年譜』, 北京：中華書局.

- 孔令謹, 1986, 「左宗棠生平及其學行」, 『左宗棠研究論文集』.
- 孔祥吉, 1988, 『戊戌維新運動新探』,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 龔自珍, 1975, 『龔定盒全集』, 臺北: 新文豐出版社.
- 郭松義, 1984, 「清代的人口增長和人口流遷」,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清史研究室 編, 『清史論叢』 제5집, 北京: 中華書局.
- 羅耀九, 1989, 「張格爾之亂與龔自珍的安邊策」, 『中國史研究』, 1989년 제47期.
- 羅爾綱, 1984, 「湘軍兵志」, 北京: 中華書局.
- 羅正鈞, 1982, 『左宗棠年譜』, 長沙: 岳麓書社.
- 唐上意, 2004, 『中法戰爭與張之洞』, 廣州: 暨南大學 출판사.
- 梁啓超, 1960. 3, 「中國積弱溯源論」, 『陰冰室文集』 5, 臺北: 中華書局.
- 梁啓超, 1960, 「新史學」, 『陰冰室專集』 제3책.
- 楊國楨, 1989, 『林則徐論攷』, 福州.
- 呂良海, 1980, 「魏源向西方學習問題的探討—兼與侯外廬同志商榷」, 『近代史研究』, 1980년 제2기.
- 寧靖 編, 1990, 『鴉片戰爭論文專集』 續篇 2冊, 北京.
- 吳昌綬, 1975, 「定盒先生年譜」, 『龔定盒全集』.
- 吳澤·黃麗鏞, 1963, 「魏源『海國圖志』研究」, 『歷史研究』, 1963년 4期.
- 王家儉, 1981, 『魏源年譜』 재판,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王春霞, 2005, 『排滿與民族主義』, 北京: 社會科學文獻 출판사.
- 王曉秋, 1997, 『近代中日關係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 출판사.
- 魏秀梅, 1985, 『陶澍在江南』,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魏源, 1847, 『海國圖志』, 道光27년 丁未 古微堂版, 60권본, 臺北: 成文出版社.
- 魏源, 1976, 『魏源集』, 北京: 中華書局.
- 魏源, 1980, 『聖武記』, 臺北: 世界書局.
- 李鴻章, 1965, 「籌議海防檔」,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臺北: 國風 출판사 영인본.
- 李鴻章, 1905, 『李文忠公全集』, 光緒 31년, 金陵刊, 臺北: 文海 출판사 영인본.
- 莊荊發, 1987, 『清高宗十全武功研究』, 北京: 中華書局.
- 章鳴九, 1989, 「論李鴻章的變法思想」, 『歷史研究』, 1989년 제6기.
- 張佩綸, 1917, 『澗于集』, 豐澗澗于艸堂, 臺北: 文海 출판사 영인본.
- 田濤, 2001, 「國際法輸入與晚清中國」, 濟南 출판사.
- 左宗棠, 1890, 『左文襄公全集』, 光緒 16년, 臺北: 文海 출판사 영인본.

- 朱孔彰, 1969, 『中興名臣史略』, 光緒 辛丑, 上海書局 石印, 臺北: 華文書局.
- 中國史學會 主編, 1978, 『第二次鴉片戰爭』(四), 上海人民出版社.
- 曾國藩, 1888, 『曾文正公全集』, 光緒 14년, 鴻文書局.
- 秦翰才, 1984, 『左文襄公在西北』, 長沙.
- 秦翰才, 1986, 「左宗棠是怎樣一個人」, 楊慎之 編, 『左宗棠研究論文集』, 長沙.
- 湯志鈞, 1984, 『戊戌變法史』, 北京: 人民 출판사.
- 太平天國歷史博物館 編, 1979, 『太平天國文書彙編』, 北京: 中華書局.
- 馮桂芬, 1897, 『郊廬抗議』, 光緒 丁酉, 聚豐坊校刻.
- 馮天瑜·何曉明, 1991, 『張之洞評傳』, 南京大學 출판사.
- 何烈, 1981, 「清咸同時期的財政」, 臺北.
- 胡濱, 1964, 『中國近代改良主義思想』, 北京.
- 洪亮吉, 1983, 『洪北江詩文集』, 臺北: 世界書局.
- 大谷敏夫, 1983, 「揚州・常州學術考—その社會的關連」, 小野和子 編, 『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東京.
- 鈴木智夫, 1974, 「中國における國權主義的外交論の成立」, 『歷史學研究』 404.
- 茂木敏夫, 2002, 「中華帝國の解體と近代的再編成への道」, 東アジア地域研究會・片山裕・西村成雄 編, 『東アジア史像の新構築』, 青木書店.
- 山室信一, 2004, 「國民帝國論の射程」, 山本有造 編, 『帝國の研究—原理・類型・關係』 2號, 名古屋大學出版會.
- 坂野正高, 1959, 「總理衙門の設立過程」, 『近代中國研究』 第3集, 東京大學出版會.
- 安部健夫, 1971. 2, 「清朝と華夷思想」, 『清代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の神話—人種・身體・ジェンダー—』, 東京: 岩波書店.
- Eastman, Lloyd E., 1967, *Throne and Mandarins: China's Search for a Policy during the Sino-French Controversy, 1880-1885*, Harvard University Press.
- Elman, Benjamin A., 1984, *Classicism, Politics, and Kinship: The Ch'ang-chou School of New Text Confucianism in Late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Hsu, Immanuel C.Y., 1965, "The Great Policy Debate in China, 1874 :

- Maritime Defense vs. Frontier Defense,” *Harvard Journal of Asiaic Syudies*, Vol. 25.
- Leonard, Jane K., 1972, “Chinese Overlordship and Western Penetration in Maritime Asia : A Late Ch’ing Reappraisal of Chinese Maritime Rel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 6, No.2.
- Leonard, Jane K., 1984,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enson, Joseph R.,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Berkeley & Los Angeles.
- Poter, Jonathan, 1972, *Tseng Kuo-fan’s Private Bureaucracy*,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hrecker, John, 1969, “The Reform Movement, Nationalism and China’s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4, No. 1, Nov.
- Spector, Stanley, 1964, *Li Hung-chang and the Huai army : A Study in Nineteenth-Century Chinese Regionalism*,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Wright, Mary C., 1957,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Formation of Nationalism and the Tradition of Chinese Empire in Modern China

Cho, Byonghan

The modern theory of Chinese nationalism was not yet appeared until Liang Qichao(梁啓超), an exile in Japan, wrote the famous enlightening essays on the new history and new nation from 1901 to 1902. It was evolved from the ideology of national sovereignty(國權), that was moulded from the tradi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of Chinese Empire, Sino-centric and Confucian culturalistic, under the powerful influence of Western imperialism since two Opium wars(1840~1860) and the Taiping rebellion. Qing(清) China still maintained to be the old regional empire in East Asia, even if faced with these outer and inner crises, and subordinated to unequal treaty system under the imperialist pressure of western powers. Qing government promoted the self-strengthening reforms in order to remain the imperial sovereignty, and tried to reintegrate the Confucian imperial system, and unify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nd splitted territory.

These Confucian currents to restore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tradition of the unified empire from the declining tendency of the universal empire, began to emerge through the New Textment school(今文經學), Gong Zizhen(龔自珍) and Wei Yuan(魏源), even before the Opium war, and more reinforced by western aggressions. These current thoughts of imperial restoration to reunify

and strengthen the declined and disrupted Qing empire were promoted greatly through the suppression of the Taiping rebellion(太平天國) under the leadership of Zeng Guofan(曾國藩), etc. This anti-Taiping officials and literati were influenced from the prophetic ideas of imperial restoration in the Opium war period, and enforced the Yangwu(洋務) reform. During the Yangwu era, the restoration trend encouraged Qing officials to incorporate the border regions and nations, loosely ruled so far, into China proper, and resist foreign pressure including the criticism on the unequal treaties. These showed the political phases that the idea of national sovereignty rised among some reformists or anti-foreign offici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Yangwu(洋務) reform. The recover of ritual and legal systems was insisted as the symbol of imperial restoration by all the political factions. However, the results of self-strengthening reforms were limited by the conservative efforts to guard the old polity of Confucian empire, as found in the maritime defense(海防) policy and factional politics in Confucian officialdom.

This premodern limits of national sovereignty in the reformed imperial polity would be overcome by the modern reform of national polity,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overeign state according to the disintegration of Imperial system, which was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by kang Youwei's(康有爲) party. This modern reform movement would be promoted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 by the modern laws, influenced by reformist's new vision to be adapted for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among the equal and competitive nation states. In the last phase converting to modern nationalism, Kang's utopian visions of the world unity,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universal empire, played the role of urging the absolute equality

among states in the current imperialist world. At last, Yang Qichao pursued the great-China nationalism to unify solidly the multi-nation empire inherited from the Qing dynasty under the modern national state, that would be reorganized after the western model of modern imperial nations. And his ideas of great unification and cultural assimilation derived itself in part from the Confucian culturalism in Chinese literati's tradition of statecraft. The modern China's nation-state has sustained the efforts to build the great nation to have the structure of empire in itself that reflected the enormous influence of the long Chinese imperial history.

keywords

Chinese Universal Empire, Imperial Polity Great Unity, Imperial Restoration, Modern Text School, North-West Historical Geography, Maritime Defense, Incorporation of Inner Asia regions, Confucian propriety and Law, National Sovereignty, Nation State, National Empire, Constitutional Government, Han Ethnic Nationalism, Great-China Nationalism

논문



고구려 고분벽화 회벽체의 재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진파리 4호분의 회벽체를 중심으로 -

임권웅 | 고구려발해학회 연구원

I. 서론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한 고대 한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에 대한 역사학, 고고학 그리고 미술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헌 이외에 고구려 문화와 역사의 1차적인 복원자료인 유적과 유물의 대부분이 중국과 북한에 현존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접근에 큰 제약이 있었다. 근래에 들어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구려 유적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학자들이 유적과 유물을 실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공동연구가 가능해진 것은 민족문화와 역사의 복원을 위해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뿐만 아니라 벽화는 기본적으로 장식적인 요소와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벽화는 제작 당시의 풍속이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벽화의 주제로 기념할 만한 특정한 사건

이나 장면이 묘사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수 세기에 걸쳐 동일한 정치사회집단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내세관, 당시의 풍속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연유로 전래되어 오는 문헌들과 함께 고구려의 사회상을 복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문화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듯이 과학기술에도 민족과 국가와 문화권에 따라 시기적 혹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종교문화적인 배경과 정치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특정 기술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재료적 한계에 따라서도 발생한다. 특히 벽화고분은 지배층에서 주로 건축하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기술과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술과 재료적 특징은 결국 다른 문화권과 고구려 문화를 구분짓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벽화 제작기술도 다른 문화요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문화권들 사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타문화권의 기술이 받아들여져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혹은 자연환경과 재료적 한계 때문에 변화과정을 거쳐 수용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벽화의 도상학적 변천이나 벽화고분의 구조적 변화는 미술사나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이미 많은 부분 규명되어 있지만 벽화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와 중국 벽화의 제작기법과의 비교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북한에 존재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보존처리와 관리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진행중이지만,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손상은 고분에 따라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진파리 1·4호분의 손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주관으로 2007년도에 진파리 1·4호분에 대해 손상현황파악, 표면오염물제거 그리고 응급보존처리용 수정성 석회 모르타르 제작과 실험이 기획·시행되었지만 현장의 상황과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벽화의 유실은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유실

이기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에 관한 기초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벽화의 보존처리는 약화된 벽체의 강화처리, 균열부위 보강, 박리된 벽화 편의 접착, 보수용 모르타르를 이용한 채움과 메움 등으로 구분 시행된다. 이들 재료제작과 처리는 현존하는 처리 대상 벽화의 벽체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처리되기 때문에 벽체 특성구명은 벽화 보존처리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에 소재한 진파리 4호분 벽체의 물성과 역학적 특성 그리고 구성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벽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보수용 모르타르 제작과 강화처리제 연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의 현황과 성과

고구려 고분벽화는 초기(4~5세기), 중기(5~6세기) 그리고 후기(6~7세기)로 제작시기를 구분한다. 고분의 평면 및 천정구조와 내용의 변화와 이로부터 내세사상의 변천 등은 이미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단편적이지만 한·중·일 삼국의 고분벽화 기법에 대한 비교연구와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고분이 중국과 북한에 분포해 있어서 유적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일본 학자들을 통해서만 자료와 사진을 접하던 때도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학자와 일반인이 고구려 고분벽화는 fresco(습식) 기법으로 제작된 벽화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¹⁾

1) 고구려 고분벽화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와 진영선이 대표적이지만 고구려 고분벽화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영선, 2003, 「고구려 벽화의 재료확장과 현대적 적용」, 『고구려연구』 제16집, 425~454쪽.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법과 재료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1989년에 발표된 「고구려 제작기법 시고」라고 할 수 있다.²⁾ 이 논문은 당시까지 발표된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련된 논문 중 유일하게 벽화의 제작기법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통구12호와 쌍영총의 벽화 편 그리고 출토지 미상의 벽화 편을 대상으로 채색층의 단면조사, 석회층의 구조와 성분 그리고 전자주사현미경(SEM/EDS)을 이용한 안료분석 결과를 언급하고, 채색층에 석회 결정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벽화제작기법이 습식기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2년에 발표된 「고구려고분벽화의 제작기법 연구-바탕벽 제작기법을 중심으로」는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회벽체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한 첫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인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법 연구」에서는 아교를 매제로 채색한 시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인위적으로 석회수를 분무한 결과 아교가 용해되고, 습식기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아교와 같은 안료의 매제 유무만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제작기법을 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⁴⁾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인 「고구려고분벽화의 이미지 복원을 위한 제작기법 제고」에서 다양한 채색기법으로 시편을 제작한 후 시편의 단면을 관찰해 비교 분석한 결과, 고구려 고분벽화가 대체적으로 건식기법으로 제작된 시편은 물론 습식과 건식을 혼용한 중간기법과도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을 보고하고 있다.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쌍영총 벽화 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고구려 쌍영총 벽화의 안료성분」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건식기법으로 제작되었을

2) 이상수 · 안병찬, 1998, 「고구려 제작기법 시고」, 『고구려연구』 제5집, 197~215쪽.

3) 안병찬, 2002, 「고구려고분벽화의 제작기법 연구 - 바탕벽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4집, 457~471쪽.

4) 안병찬, 2005,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법 연구」, *International Symposium : Mural Paintings from the Goguryeo Kingdom*, 1~8쪽.

5) 안병찬, 2005,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 복원을 위한 제작기법 제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 복원』, 63~86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XRF분석결과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흰색분말안료인 아라고나이트(aragonite)가 확인되었다.⁶⁾

보존과학자들이 참여한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연구는 남북공동으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10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실태를 조사했으며, 현장에서 휴대용 XRF를 이용한 안료 성분분석과 현장조사 후 수습된 시료로 박편을 제작하여 광학현미경과 전자주사현미경(SEM/EDS)을 이용 구성성분과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2차 조사는 진파리 1·4호를 대상으로 벽화제작 기법, 벽화안료 특성 비교조사와 응급보존처리 방안연구가 진행되었다. 응급보존처리는 사전에 진행된 실험을 근거로 응급처치를 요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⁷⁾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채색기법과 안료 성분분석에 치중하여 보존처리에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석회층의 특성규명 없이는 벽화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과학적인 보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연구 영역별로 유기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유혜선, 2005, 「고구려 쌍영총 벽화의 안료성분」, 『박물관 보존과학』 Vol. 6, 47~54쪽.

7) 국립문화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06,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분석」,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07,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처리연구보고서』.

II. 연구방법과 결과

진파리 4호분의 벽체는 다공성 무기질 재료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 회벽체의 특성은 석회와 무기질 혹은 유기질 첨가제에 의해 형성되는 공극과 특성 등에 따라 발현되는 물성과 역학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역학적 특성은 강도와 탄성계수 등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물성에 속하는 특성으로는 밀도, 공극률, 물흡수도, 물흡수속도, 총물흡수도, 수증기확산저항도, 수치안정성 등이 있다. 역학적 특성과 물성은 보존과학에서 벽화 보수용 모르타르를 제작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동일 혹은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는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벽체에 대한 특성규명 연구는 보존처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정밀한 실험과 정확한 결과 분석이 요구된다.

진파리 4호분의 회벽층은 크게 2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석벽의 표면에 백색 석회층 있으며 그 위에 갈색층이 존재하는데, 이 두 번째 층은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두께를 보이고 있다. 진파리 4호분의 주된 손상유형인 회벽층 손상이 전체면적의 50.74%에서 발생해 있는 상태이며,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 2).⁸⁾ 함께 조사된 진파리 1호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이 발생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색 석회층과 갈색 석회층의 물성과 역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습도변화 등 환경조건이 변화하면 백색과 갈색 석회층의 접촉면을 따라 부하가 발생한다. 이때 접촉면을 형성하고 있는 층간의 물성 차이가 클수록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크며, 누적피로도가 높아져 손상이 크고 빠르게 진행된다.⁹⁾ 이와 같은 이유로 두 개의 서로 다른

8) 한정순·임권웅, 2007, 「진파리 1, 4호 벽화고분 손상상태 조사 및 응급보존 처리방안연구」,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연구보고서』,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4~83쪽.

9) K. G. Boettger, 1997, *Moertel fuer die Erhaltung historische Kalkputze* :



〈그림 1〉 진파리 4호분 연도동벽의 박리현상 〈그림 2〉 진파리 4호분 연도서벽의 박리현상

재료로 제작된 회벽층으로 구성된 진파리 4호분의 보존처리에서 물성과 역학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특히 벽화에 발생해 있는 박리부위를 처리하는 채움제¹⁰⁾를 제작할 때 채움제가 적절한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 구성성분

구성성분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EDS)¹¹⁾을 이용한 석회모르타르 첨가물의 분석과 관찰을 통해 미세조직과 화학성분을 규명했다. X선 회절분석¹²⁾을 통해 벽체제작에 사용된 모르타르의 광물학적 구성을 규명하고,

Haftmoertel, Hinterfuellmoertel und Kalkputze, Logos Verlag Berlin, pp. 18~20.

- 10) 채움제는 벽화의 채색층과 벽체의 일부가 벽체에서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빈공간에 채워 넣어 분리된 벽체층과 벽체의 결합력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11)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시료의 미세부위의 형태관찰과 EDS를 이용한 미세부위에 대한 반정량반정성 분석을 위해 전계방사형 주사현미경(FE-SEM, 일본 HITACHI사, Model : S-4300, EDS : Oxford System)을 사용했다. 전자현미경은 광선과 광학렌즈 대신에 전자빔과 전자렌즈를 사용하여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전계방사형은 일반 주사전자현미경과 달리 휘도가 높아 저가속전압에서 고배율관찰이 가능하며, 분해능과 집점심도가 매우 우수하다.
- 12) X선 회절분석은 현미경 관찰이나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에 부착된 EDS로 동정이 불가능한 광물학적 조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

X선 형광분석¹³⁾을 이용해서 회벽체의 무기첨가물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구성성분은 X선 형광분석과 X선 회절분석 그리고 EDS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회벽체의 구성성분을 규명하였고, 회벽체 편에 포함된 수용성 염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와 고주파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ICP-OES)으로 증류수에 용출된 음이온과 양이온을 분석하였다.¹⁴⁾

회벽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편광현미경과 디지털실체현미경을 이용해서 시편의 표면이나 단면에 대한 1차적인 관찰을 실시해서 구성물질의 색과 질감, 형태에 따른 시각적 특징을 확인하고, 분류하여 화학적 성분분석과 미세부위 관찰시에 사용될 대표성을 갖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1) 색상

색은 물체의 시각적 특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물체

색은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X선을 분말상의 시료에 조사한 후 시료의 격자에서 굴절되어 발생하는 X선의 회절을 이용해서 물질의 정성분석과 결정구조,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System)는 일본 Rigaku사의 모델 D/MAX 2500V/PC이 사용되었다. 분석조건은 40kv/100mA의 CuK α 선을 사용했고 10~70° 범위를 0.02°/sec 속도로 측정하였다.

13) X선 형광분석은 X선을 시료에 조사한 후에 발산되는 2차 형광 X선을 검출하여 물질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에는 일본 Rigaku사의 모델 Primus 2가 사용되었다. 분석원소 범위는 4Be에서 92U까지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재질분석에 사용되는 X선 형광분석은 비파괴방식으로 표면에 X선을 조사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반정량분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시된 석회석 형광 엑스선 분석 방법에 의거 건조기를 이용해 100℃로 건조한 시료를 용융제로 테트라방산리튬을 첨가한 후 1400℃로 전기로에서 용융시켜 측정용 유리디스크를 제작해서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14)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미국 Dinex사, Model : DX-500)로 7종의 음이온을 정성·정량 분석하고,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분석법(ICP-OES, 프랑스 Jobin Yvon사, Model : Ultima 2 CHR)으로 6종의 양이온에 대해 정량·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가 나타내는 색은 구성성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색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색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색도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해 5지점을 5회 측정하여 최고와 최소 값을 제외한 값들을 평균하여 각 시료의 색을 정량적으로 측정했다(표 1). 색채학에서는 색을 일반적으로 L^* , a^* , b^* 값으로 표현하는데, L^* 은 명도를 나타내고, a^* 는 붉은색과 녹색의 비율을, b^* 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비율을 의미한다.

진파리 4호분 회벽체는 크게 백색과 갈색으로 구분할 때 아래쪽에 놓여 있는 백색층의 시편(JIN4-M01)은 전체적으로 옅은 분홍색이고, 부분적으로 갈색과 옅은 풍화토의 색을 보이고 있으며, 백색층의 위에 존재하는 석회층 시편(JIN4-M02)은 갈색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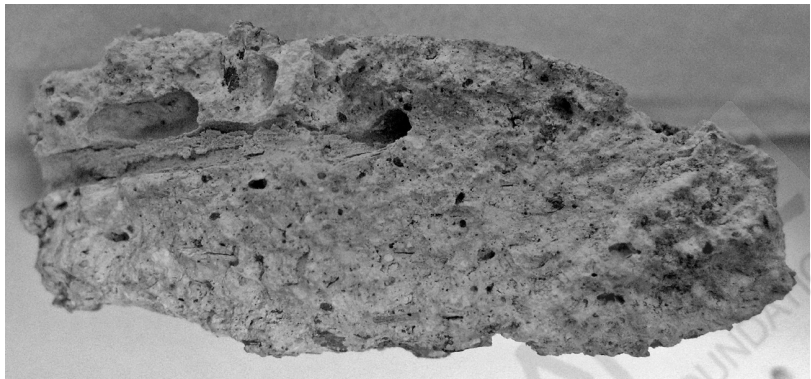
〈표 1〉 JIN4-M01와 -M02의 색도측정치

시료 No.	L^*	a^*	b^*
JIN4-M01	72.56	4.09	11.58
JIN4-M02	55.89	5.35	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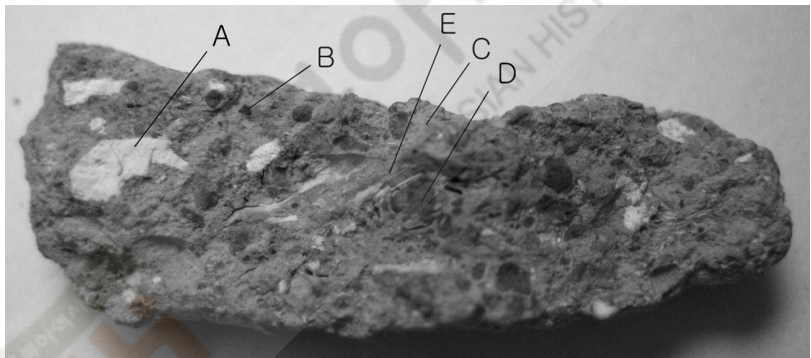
2) 화학적 구성성분

화학적 구성성분을 규명하기 전에 실시한 관찰에서 JIN4-M01의 단면에서 직경 0.26cm, 길이 2.08cm의 짙어물 자국이 관찰되었다(그림 3). 짙어물은 석회모르타르가 건조시 발생하는 수축으로 생기는 벽체의 균열을 방지하고 건조 후 벽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기질 첨가제이다.¹⁵⁾ 시편 JIN4-M02-S3에서 패각(E)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관찰되었고, 석회덩어리(A), 숯(B), 진한 갈색의 풍화토(D)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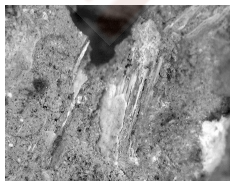
15) 짙어물뿐만 아니라 식물성으로는 삼여물 그리고 동물성 털을 사용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1999, 『문화재수리용 강회 혼합제 조사·연구』,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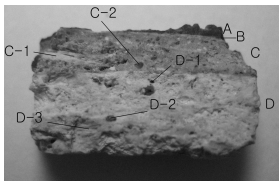
〈그림 3〉 JIN4-M01의 단면 침여물 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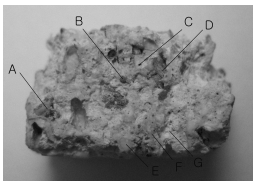
〈그림 4〉 JIN4-M02-S3의 단면



〈그림 5〉 JIN4-M02 패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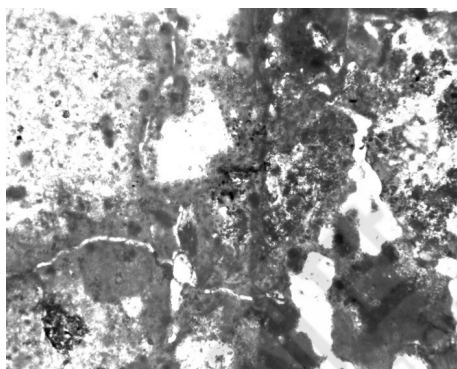


〈그림 6〉 JIN4-M01&M02-S1



〈그림 7〉 JIN4-M01-S2

들이 관찰되었다(그림 4). 또한 백색 석회층 시편인 JIN4-M01-S2에서는 석회 이외에 모래입자(A), 진한 갈색의 풍화토(B), 숯(C),¹⁶⁾ 패각(D)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관찰되었다(그림 7). 시편 JIN4-M02에서 발견된 덩어리 형태의 흰색과 시편 JIN4-M01과 시편 JIN4-M02에서 발견된 갈색



〈그림 8〉 백색층(왼쪽)과 갈색층(오른쪽) 경계면의 편광현미경 사진(10, 90°)

물질은 SEM-EDX분석 결과 석회와 풍화토로 확인되었다. 석회모르타르 제작시에 잘 혼합되지 않고 덩어리 상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JIN4-M01과 JIN4-M02의 경계면을 촬영한 편광현미경 사진에서도 왼쪽 아랫부분에 갈색 풍화토가 덩어리 형태로 JIN4-M01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8).

(1) 미세구조와 화학적 성분

저배율의 광학현미경과 디지털실체현미경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시료의 미세부위의 형태관찰과 EDS를 이용한 미세부위에 대한 반정량·반정성 분석에 전계방사형 주사현미경(FE-SEM, 일본 HITACHI사, Model : S-4300, EDS : Oxford System)이 사용되었다.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은 휘도가

16) 숯이 벽화의 석회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유럽의 벽화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관련 보고도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다. 유럽의 경우 석회모르타르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숯가루를 혼합하거나 석회모르타르의 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지만, 진파리 4호분의 경우 숯을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색 조절을 위해 첨가했다고 하기에는 관찰된 숯 입자의 수가 적다. 진파리 4호분의 경우에는 석회석이나 패각을 생석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 사용된 숯의 일부가 불순물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파리 4호의 경우 시료에서뿐만 아니라 벽체가 박락된 부위에서도 관찰되었다.

높아 저가속전압에서 고배율관찰이 가능하며, 분해능과 집점심도가 매우 우수하고, 시편에 따라서는 코팅처리 없이 관찰과 성분분석이 가능하여 문화재 분석과 같이 시편 채취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시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갈색층과 백색층이 함께 있는 시편(JIN4-M01&M02-S1, 그림 7)과 백색층(JIN4-M01-S2, 그림 8)과 갈색층(JIN4-M02-S3, 그림 5)에서 긴축의 형태에 백색을 띠고 있는 패각으로 추정되는 물질과 시편 S2와 시편 S3에서 점토질풍화토로 보이는 적갈색 덩어리 그리고 석회로 추정되는 백색 덩어리에 대한 미세부위 관찰과 EDS를 이용해 특정부위의 구성원소에 대한 반정량 분석을 실시했다(표 2).

시편 JIN4-M01&M02는 백색층(M01)과 갈색층(M02) 그리고 표면오염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백색 석회층인 D부분(그림 7)에 대하여 EDS분석을 실시했다(그림 9, 10). 주성분은 석회의 구성물인 Ca, C, O이며, 미량성분으로 Mg, Al, Si가 확인되었다. 석회로 구성된 회벽층에 약간의 불순물이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갈색층(M02)에 대한 EDS분석은 JIN4-M02-S3의 C부분에 대하여 실시했다(그림 11, 12). 백색석회층(M01)에 해당하는 JIN4-M01&M02-S1D와 비교할 때 점토광물과 석영의 구성성분인 Al과 K, Si의 함량이 높고, 주성분은 Ca으로 백색석회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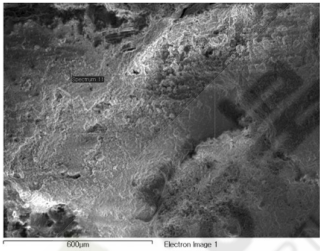
시편 JIN4-M02에서 석회로 추정되는 흰색 덩어리 형태의 혼합물에 대한 EDS분석 결과는 JIN4-M01&M02-S1D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점토질풍화토가 미량 혼합된 석회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3, 14).

SEM-EDS분석에 사용된 세 가지 시료 모두에서 진한 갈색 덩어리가 관찰되었는데, JIN4-M01-S2의 B부분과 JIN4-M02-S3의 D부분의 EDS를 이용한 성분분석 결과는 Fe를 함유하고 있는 점토질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그림 15, 16, 17, 18), JIN4-M01-S2B에서는 약간의 Ca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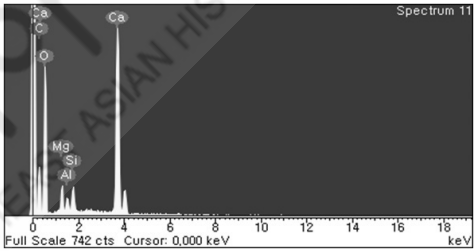
단면관찰에서 확인된 패각 추정물에 대해서도 EDS분석과 SEM관찰을 실시했다. 패각은 긴 막대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 패각을 둘러싸고 있는 백색석회

〈표 2〉 시료의 미세부위에 대한 EDS 성분분석 결과 (단위 : w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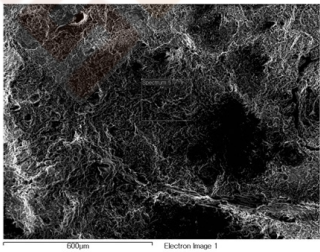
구분	시 료 No.	C	O	Mg	Al	Si	K	Ca	Fe	총 량
M01	JIN4-M01&M02-S1D	11.91	54.22	2.22	0.87	1.89	-	28.89	-	100
M02	JIN4-M02-S3C	5.75	57.28	-	3.8	8.68	0.81	23.68	-	100
석회	JIN4-M02-S3A	11.97	51.65	-	1.5	3.79	-	31.09	-	100
점토질	JIN4-M01-S2B	-0.37	58.71	-	7.81	18.57	1.7	7.48	6.1	100
풍화토	JIN4-M02-S3D	5.48	53	1.04	9.6	22.66	1.68	-	6.54	100
패각	JIN4-M01&M02-S1C	2.07	13.17	-	-	-	-	84.75	-	99.99
	JIN4-M01-S2D	-	61.08	-	-	-	-	38.92	-	100
	JIN4-M02-S3E	16.08	58.87	-	1.11	1.33	-	22.6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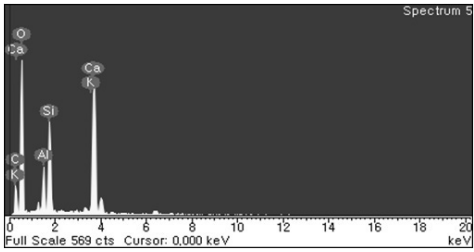
〈그림 9〉 JIN4-M01&M02-S1D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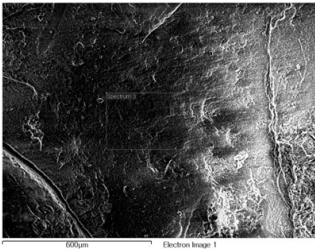
〈그림 10〉 JIN4-M01&M02-S1D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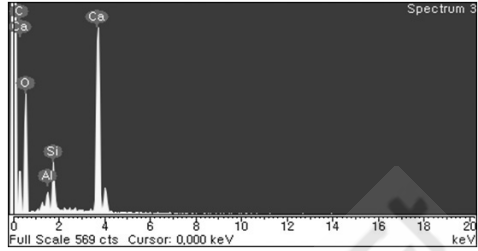
〈그림 11〉 JIN4-M02-S3C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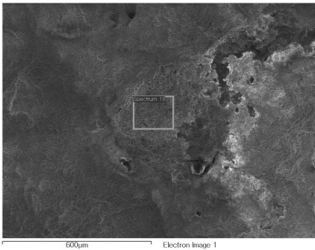
〈그림 12〉 JIN4-M02-S3C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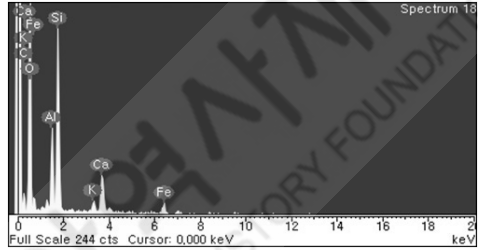
〈그림 13〉 JIN4-M02-S3A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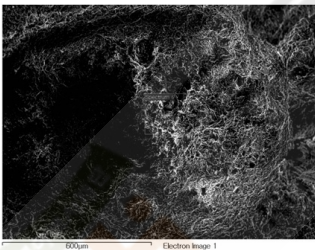
〈그림 14〉 JIN4-M02-S3A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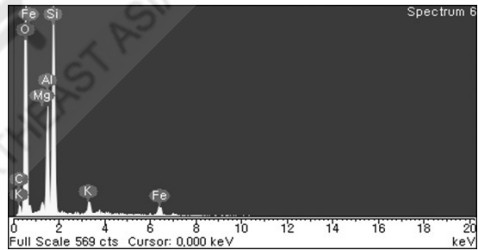
〈그림 15〉 JIN4-M01-S2B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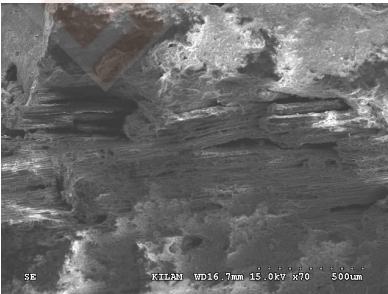
〈그림 16〉 JIN4-M01-S2B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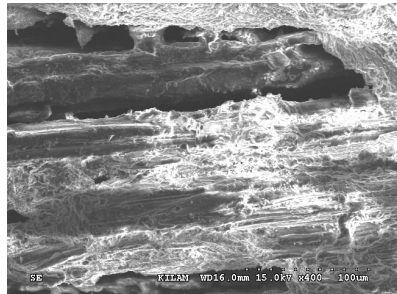
〈그림 17〉 JIN4-M02-S3D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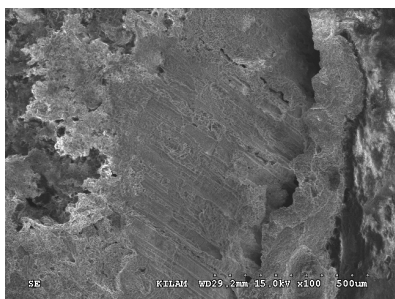
〈그림 18〉 JIN4-M02-S3D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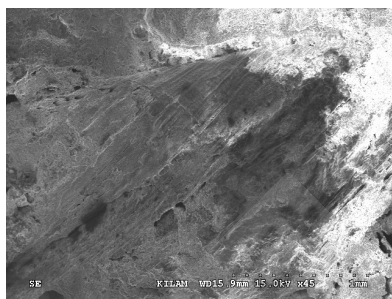
〈그림 19〉 JIN4-M01&M02-S1C 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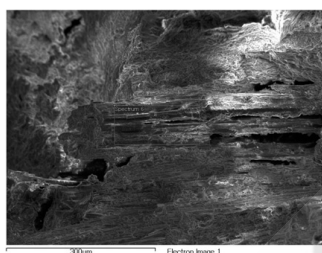
〈그림 20〉 JIN4-M01&M02-S1C 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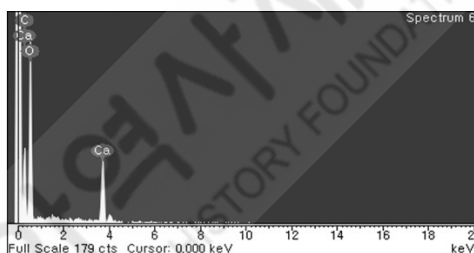
〈그림 21〉 JIN4-M01-S2D 패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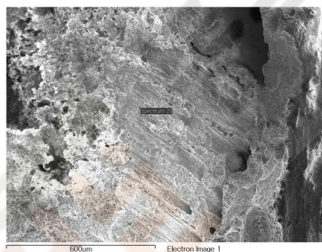
〈그림 22〉 JIN4-M02-S2E 패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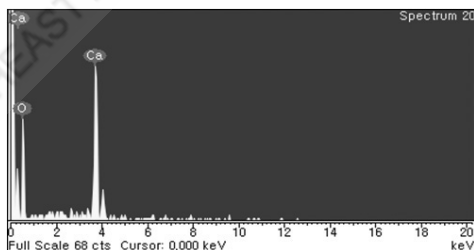
〈그림 23〉 JIN4-M01&M02-S1C 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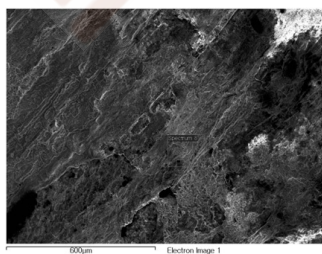
〈그림 24〉 JIN4-M01&M02-S1C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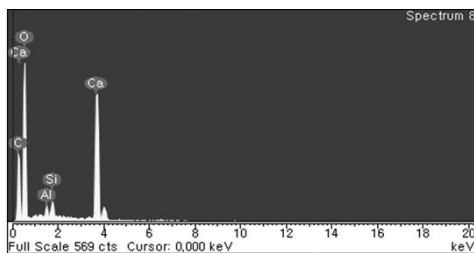
〈그림 25〉 JIN4-M01-S2D SEM 사진



〈그림 26〉 JIN4-M01-S2D의 EDS분석 결과



〈그림 27〉 JIN4-M02-S3E SEM 사진



〈그림 28〉 JIN4-M02-S3E의 EDS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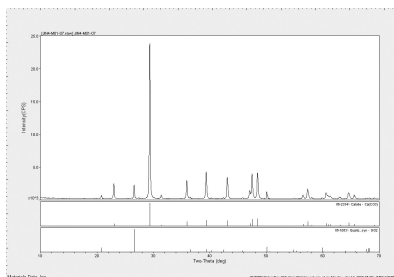
층 혹은 갈색석회층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그림 19, 20, 21, 22). JIN4-M01-S1의 C, JIN4-M01-S2의 D와 JIN4-M02-S3의 E에 대한 EDS분석 결과는 CaCO_3 가 주성분이며, JIN4-M02-S3E의 경우 미량의 Al과 Si가 검출되었다(그림 23, 24, 25, 26, 27, 28). Ca 측정수치의 경우 84.75 wt.%에서 22.61 wt.%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편차의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편차의 원인과 패각의 종류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2) 광물학적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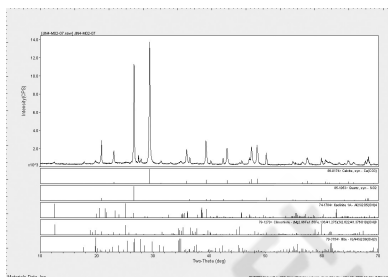
X선 회절분석¹⁷⁾은 현미경 관찰이나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에 부착된 EDS로 동정이 불가능한 JIN4-M01과 JIN4-M02의 광물학적 조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X선을 분말상의 시료에 조사한 후 시료의 격자로부터 굴절되어 발생하는 X선의 회절을 이용해서 물질의 정성분석과 결정구조,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다.

X선 회절분석결과 JIN4-M01은 방해석(calcite)과 석영(quartz)이 함께 검출되어, JIN4-M01은 석회에 무기질 첨가제로의 석영모래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9). 시료 JIN4-M02는 방해석(calcite)과 석영(quartz), 알루미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백운모(muscovite), 마그네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녹니석군의 점토광물인 클리노클로어(clinocllore), 운모와 같은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라이트(illite)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0). JIN4-M02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로 볼 때 석회에 모래와 점토광물이 혼합되어 있으며, 석회에 모래와 풍화토를 혼합했거나 석영모래가 함유된 풍화토를 혼합해서 갈색층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표 3).

17)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System)는 일본 Rigaku사의 모델 D/MAX 2500V/PC이 사용되었다. 분석조건은 40kv/100mA의 $\text{CuK}\alpha$ 선을 사용했고 10~70° 범위를 0.02°/sec 속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29〉 JIN4-M01의 X선 회절분석 결과



〈그림 30〉 JIN4-M02의 X선 회절분석 결과

〈표 3〉 진파리 4호분 회벽체의 광물학적 성분과 제작물질

	광물학적 성분	회벽체 제작물질
JIN4-M01	방해석(calcite), 석영(quartz)	석회, 모래
JIN4-M02	방해석(calcite), 석영(quartz), 백운모(muscovite), 클리노클로어(clinchlore), 일라이트(illite)	석회, 모래, 점토질 풍화토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원소들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해 X선 형광분석을 실시했다. X선 형광분석은 X선을 시료에 조사한 후에 발산되는 2차 형광 X선을 검출하여 물질의 조성·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에는 일본 Rigaku사의 모델 Primus 2가 사용되었다. 분석원소 범위는 4Be에서 92U까지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재질분석에 사용되는 X선 형광분석은 비파괴방식으로 표면에 X선을 조사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반정량분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시된 석회석 형광 엑스선 분석 방법에 의거 건조기를 이용해 100℃로 건조한 시편을 용융제로 테트라붕산리튬을 첨가한 후 1400℃로 전기로에서 용융시켜 측정용 유리디스크를 제작해서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측정용 유리디스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JIN4-M01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O_2), 탄소(C_2), 수분(H_2O) 등이 기체형태로 증발하여 전체중량 42.65%가 유실되었으며, JIN4-M02도 36.228%의 중량손실을 보였다.¹⁸⁾

18) 실험과 측정과정에서 유실되는 회벽체나 모르타르의 휘발성 원소들의 함량은 수학

JIN4-M01의 X선 형광분석 결과 CaO가 시료 전체에서 51.006 wt.%를 차지하고 있으며, SiO₂ 4.189 wt.%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iO₂는 무기물 첨가제로 포함된 석영모래의 성분이라고 추정되며, 진파리 4호분 벽화의 벽체 중에서 아래쪽의 백색석회층(M01)은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된 순도가 매우 높은 석회가 사용되었으며, 소량의 석영모래를 첨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iO₂ 외에 함유된 미량원소들로는 Fe₂O₃와 Al₂O₃, TiO₂, MgO, K₂O가 확인되었으며, 중량비가 0.05이하인 P₂O₅, Na₂O, MnO는 측정 유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미가 없다. 갈색층의 시편인 JIN4-M02에서는 CaO와 SiO₂가 전체 시편의 25.719 wt.%, 25.676 wt.%가 검출되었다. CaO와 SiO₂의 중량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풍화토에 석영입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거나 일라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규소로 추정된다. SiO₂ 외에 풍화토의 구성광물의 성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X선 회절분석에서 확인된 백운모, 클리노클로어와 일라이트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Al₂O₃가 JIN4-M01에 비해 6배 많은 양이 확인되었으며, 클리노클로어에 함유되어 있는 MgO와 Fe₂O₃가 각각 약 5배 그리고 약 6배 많이 검출되었다(표 4).

〈표 4〉 진파리 4호분 회벽체의 X선 회절분석 결과

	CaO	SiO ₂	Fe ₂ O ₃	Al ₂ O ₃	TiO ₂	MnO	P ₂ O ₅	MgO	Na ₂ O	K ₂ O	V.C.
JIN4-M01	51.006	4.189	0.628	1.008	0.058	0.023	0.02	0.339	-0.049	0.079	42.65
JIN4-M02	25.719	25.676	3.607	6.198	0.508	0.063	0.058	1.587	0.296	-0.092	36.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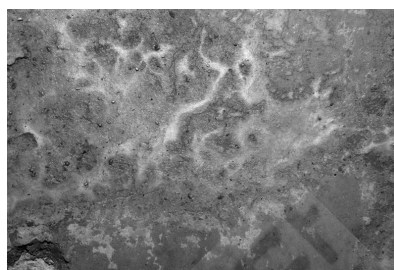
(3) 수용성 염

진파리 4호분의 내부환경은 영상 10℃, 상대습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연도 등 일부 벽면에서 수용성 염 결정과 무기물로 이루어

적 모델을 이용해 산정하기도 한다. M. Franzini, L. Leoni, M. Lezzerini, 2000, "A pocedure for determin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binder and aggregate in acient mortars : its application to mortars from some medieval buildings in Pisa",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Vol. 1, pp. 365~373.



〈그림 31〉 표면에 발생한 수용성 염 결정
(진파리 4호 연도동벽)



〈그림 32〉 백색피각(진파리 4호분 연도-현
실동벽)

어진 피각·피막 등이 확인 되었다(그림 33, 34). 시편 JIN4-M01/-M02는 연도바닥에서 수습된 것으로 고분 내의 환경에서 수용성 염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에서 수습된 시편에 축적된 수용성 염에 대한 분석은 수용성 염에 의해 손상이 발생해 있는 벽화의 하단부에 집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성의 염 성분추정, 고분내부 환경제어와 탈염처리 때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JIN4-M01과 JIN4-M02에서 1g씩을 채취한 후 막자사발을 이용해서 분말화하여, 100ml의 증류수에 침적시켜 24시간 동안 수용성 염을 용출시켰다. 24시간 경과 후 수용성 염이 이온으로 용출되어 나온 증류수를 거름종이로 걸러 낸 후 pH를 측정하였다. JIN4-M01 용액과 JIN4-M02의 pH는 거의 동일한 9.18과 9.17로 알칼리성을 나타냈다.

두 시료의 용액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미국 Dinox사, Model : DX-500)로 7종의 음이온을 정량·정성 분석하고,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분석법(ICP-OES, 프랑스 Jobin Yvon사, Model : Ultima 2 CHR)으로 6종의 양이온에 대해 정량·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양이온 분석에서는 Fe이온이, 음이온에서는 Br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이온의 총량과 각 이온별 검출량은 시편에 따라 편차를 보였는데, JIN4-M01에서 용출된 양이온의 총량이 JIN4-M02에서 확인된 양이온의 총량보다 많았고, 음이온의 경우에도 JIN4-M01에서 검출된 음이온의 총량이 JIN4-M02에서 검출된 음이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5).

〈표 5〉 진파리 4호분 회벽체 시료에 포함된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

(단위 : mg/kg)

양이온	Al ³⁺	Ca ²⁺	K ⁺	Mg ²⁺	Na ⁺	—	총량	pH
JIN4-M01	4.5	905	212	105	153.1	—	1379.6	9.18
JIN4-M02	2.7	529	179.8	151	315	—	1177.5	
음이온	F ⁻	Cl ⁻	NO ₂ ⁻	NO ₃ ⁻	PO ₄ ³⁻	SO ₄ ²⁻	총량	pH
JIN4-M01	7	248	8	124	11	91	489	9.17
JIN4-M02	6	189	17	128	14	71	425	

JIN4-M01에서 Ca²⁺은 905ppm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는데, JIN4-M01에 포함되어 있던 수용성 염의 양이온 총량의 65.60%에 해당된 양이었다. JIN4-M02에서도 Ca²⁺이 양이온 총량의 44.93%에 해당하는 529ppm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JIN4-M01과 M02에서 가장 많이 용출된 음이온은 Cl⁻로 JIN4-M01에서는 총량에서 50.72%에 해당하는 248ppm이 JIN4-M02에서는 189ppm이 용출되었는데, 총량의 44.47%이다. 수용성 염 중에서 벽화에 특히 피해를 많이 주는 CaSO₄와 NaSO₄를 형성하는 SO₄²⁻는 JIN4-M01과 JIN4-M02에서 각각 91ppm, 71ppm이 용출되었다.

이번 이온분석 결과가 2006년 실시된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조사에서 측정된 것보다 높은 것은 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형태와 채취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¹⁹⁾ 수용성 염을 형성하는 이온은 시료가 채취된 높이 혹은 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와 시료의 형태에 따라 수용성 염을 형성하는 이온의 종류와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²⁰⁾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벽화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벽화 하단부의 상황을 유추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계획적

19) 2006년 조사에서는 진파리 4호분 북벽과 동벽의 벽면에서 침출수를 채취해 분석하였다. 안병찬·홍종욱, 2006,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분석」,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조사보고서』, (주) 중앙문화인쇄, 200쪽.

20) A. Arnold, K. Zehnder, 1987, "Monitoring Wall Paintings Affected by Soluble Salts," *The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s*, pp. 109~112.

으로 시료의 채취 부위를 선정하여 수용성 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합리적인 탈염처리가 가능하다.

진파리 4호분의 회벽체에서 발견된 수용성 염들은 고분내부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염으로 결합하여 결정화된다.²¹⁾ 결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공극내벽에 작용하여 벽체나 안료층의 손상을 초래한다. 특히 고분내부의 온습도변화로 벽화의 표면이나 표면에 근접한 부위에 집적되어 있는 수용성 염이 반복적으로 용해·재결정될 경우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이러한 결정압력은 벽체의 박리를 유발시켜 벽화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²²⁾ 과거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분내부의 환경을 조절하여 벽화표면의 결로 현상 등을 방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손상이 촉진된 경우와 보존처리제가 수용성 염의 형태로 표면에 집적되어 손상을 가속화시킨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²³⁾ 이러한 현상은 벽화의 벽체내부에 존재

21) S. Laue, 2002, "Verwitterung von Naturstein durch lösliche Salze an wechselfeuchter Luft," *Salze im historischen Natursteinmauerwerk : Aktuelles zu Herkunft, Schadenswirkung und Restaurierungsmassnahmen*, p. 20 ; E. Fritz, 2001, "Reinigungs- und Rekonversionsverfahren an Wandmalereien : Der Einsatz physikalisch-chemisch wirkender Nassreinigungsverfahren und ihre Problematik," *Konservierung von Wandmalerei*, p. 83.

22) M. Tennikat, 1994, "Mechanismen der Zersetzung von Wandmalereien durch waasserlösliche Salze," *Forschungsprojekt Wandmalerei-Schaden*, pp. 93~89.

일반적으로 수용성 염에 의한 손상은 다습한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극히 건조한 이집트의 고분벽화에서도 수용성 염에 의한 손상이 보고되어 있다. F. Preusser, 1987, "Scientific and Technical Examination of the Tomb of Queen Nefertari at Thebes," *The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s*, pp. 4~6 ; C. Leblanc, A. Siliotti, 1998, *Nefertari : Ausgrabungen im Tal der Koeniginnen*, pp. 174~175.

23) 1901년에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중세벽화를 강화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barium hydroxide의 barium이 안료층 바로 아래에 집적되어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S. Cather, 2002, "Aqueous extraction of soluble salts from porous materials : alternatives and contra-indications," *Mauersalze und Architekturoberflaechen*, p. 170.

하는 수용성 염에 대한 기본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환경제어를 실시했거나 처리 약품과 온습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보존처리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성 염에 대한 분석과 고분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측정과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⁴⁾

벽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의 양에 따른 탈염처리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유럽에서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진파리 4호분은 벽면에서 수용성 염으로 형성된 피막과 염 결정이 육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탈염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진파리 4호분에 적합한 탈염처리방안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델연구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준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²⁶⁾

24) A. Anorl, K. Zender, A. Kueng, O. Emmenegger, 1991, "Wandmalereizerfall, Salze und Raumklima in der Klosterkirche von Muenstair," *Zeitschrift fuer Kunsttechnologie und Konservierung*, Jg. 5, pp. 171~200 ; I. Srša, 2004, "Mikroclimatic Meassurement and Labortory Research in historical Bildings with Medieval Wall Paintings at Croatian Adriatic Coast," *Klimastabilisierung und bauphysikalische Konzepte : Wege zur Nachhaltigkeit bei der Pflege des Weltkulturerbes*, pp. 99~108.

25) H. W. Zier, 2002, "Untersuchung der Salzbelastung – Analysenmethoden, bewertung, Grenzwerte," *Salze in historischen Natursteinmauerwerk : Aktuelles zu Herkunft, Schadenswirkung und Restaurierungsmassnahmen*, pp. 31~39.

26) 벽화의 탈염처리에는 주로 습포법이 사용된다. 습포제는 섬유, 모래, 점토 등을 혼합하여 제작하는데, 주변 기후환경과 수용성 염의 종류에 따라 혼합비율과 처리시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수용성 염의 탈염처리 모델연구에 사용되는 시편은 원래 회벽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을 때만 실험 결과가 유효하다. C. Tinzl, 1996, "Verminderung von Salzkonzentrationen in Kalkmoertel mittels Zellstoffkompressen–Ein Diskussionsbeitrag aus restauratorischer Sicht," *Salzschaden an Wandmareien*, pp. 70~74 ; I. Hammer, 1996, "Salze und Salzbehandlung in der Komservierung von Wandmalerei und Architekturoberflaeche," *Salzschaden an Wandmareien*, pp. 81~106.

2. 물성과 역학적 특성

1) 진파리 4호분 회벽체의 물성

회벽체와 같은 다공성 무기질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물성 중에서 참밀도, 겉보기밀도, 공극률, 포화도, 모세관물흡수계수, 모세관물흡수속도, 대기총물흡수도, 진공총물흡수도, 수증기확산저항도는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으로 고분의 내부환경과 수용성 염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벽체의 보존처리와 손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표 6).

〈표 6〉 JIN4-M01과 JIN4-M02의 기본물성

	G_m (g/cm ³)	γ_m (g/cm ³)	n (vol. %)	S.I. (-)	w (kg/m ² h ^{0.5})	B (cm/h ^{0.5})	WAa (w.t.%)	WAv (w.t.%)	WD (-)
JIN04-M01	1.64	1.23	25.30	0.92	5.65	3.79	18.90	20.59	11.12
JIN04-M02	1.83	1.28	30.54	0.92	4.04	2.06	21.90	23.82	12.74

* G_m : 참밀도, γ_m : 겉보기밀도, n : 공극률, S.I. : 포화도, w : 모세관물흡수계수, B : 모세관물흡수속도, WAa : 대기총물흡수도, WAv : 진공총물흡수도, WD : 수증기확산저항도

모세관물흡수계수는 진파리 4호분과 같이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중요한 재료학적 특성으로, 공극이 있는 물질이 단위면적당 일정 시간 동안 모세관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데, 습윤한 상태와 건조한 상태가 반복될 경우에 벽화를 구성하고 있는 벽체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JIN4-M01-07의 모세관물흡수계수가 JIN4-M0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밀도를 통해 유추해 볼 때 JIN4-M01-07 내부에 JIN4-M02-07보다 많은 공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세관물흡수속도계수는 공극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가 일정 시간 동안 단위면적당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을 흡수하는지 나타내는 계수로, 모세관물흡수계수와 함께 물에 대한 석회모르타르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수이다.

모세관물흡수속도는 JIN4-M01은 $3.79\text{cm/h}^{0.5}$, JIN4-M02은 $2.06\text{cm/h}^{0.5}$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세관물흡수속도는 표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했을 때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수분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기충물흡수도와 진공충물흡수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되는 모세관물흡수계수와는 달리 대기 혹은 진공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시편을 증류수에 함침시켜 흡수된 물의 총량을 중량비로 나타낸 것으로 장기적으로 수분에 노출될 때 일정 무게의 시편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의미한다. W_{Aa} 와 W_{Av} 모두 JIN4-M0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_{Aa} 와 W_{Av} 는 모세관물흡수계수나 모세관물흡수속도계수와는 달리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JIN4-M02의 대기 및 진공충물흡수도가 JIN4-M01보다 높은 것은 에커만(Eckermann)과 지거트(Ziegert)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회벽층에 물이 흡수되는 초기단계에서 모세관에 의해서만 흡수되지만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는 경우 점토광물의 층상구조에 흡수되는 것에서 기인한다.²⁷⁾ 수증기화산저항도는 수증기 형태의 H_2O 가 일정 두께의 시료 공극을 통해 증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시료의 공극률과 밀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특성이다.²⁸⁾ 진파리 4호분의 시료는 그림 39에서와 같이 JIN4-M02가 높은 저항도를 보이고 있는데, JIN4-M01은 11.12, JIN4-M02는 12.74로 JIN4-M02의 수증기화산저항도가 12.72%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두 석회모르타르가 같은 조건에서 건조된다면 JIN4-M01에 포함된 수분이 12.72% 정도 빠르게 증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파리 4호분의 석회모르타르 내부의 증발속도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진 벽체는 단일층으로 형성된 벽체보다 손상이 현저히 빠르게 나타난다.

27) W. Eckermann, C. Ziegert, 2006, *Auswirkung von Lehmbaustoffen auf die Raumluftfeuchte*, pp. 2~4.

28) 수증기화산저항도 측정방법으로는 Dry-cup과 Wet-cup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et-cup 방식으로 일정하게 조절된 상대습도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무게감소를 측정하여 시편의 표면면적과 두께에 따른 증류수의 감소를 계산하여 제시했다.

2) 무기질 첨가제의 입도분포

입도분포²⁹⁾는 벽화를 구성하고 있는 회벽체나 흙벽체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무기질 첨가제인 모래나 풍화토의 입자를 직경별로 분류한 것으로 벽체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입도분포는 보존처리 모르타르와 각종 실험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시편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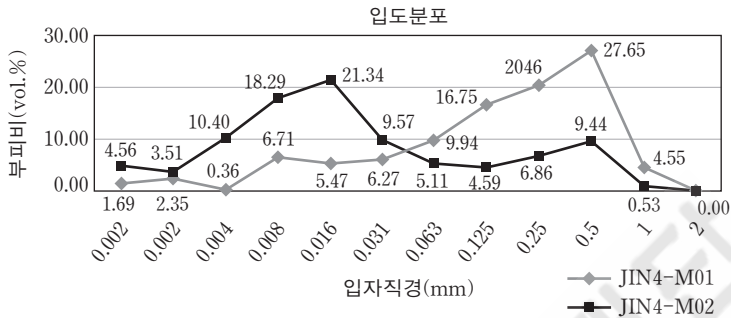
JIN4-M01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첨가제는 왕모래 0 vol.%, 극조립사 4.55 vol.%, 조립사 27.65 vol.%, 중립사 20.46 vol.%, 세립사 16.75 vol.%, 극세립사 9.94 vol.%, 극조립실트 6.27 vol.%, 조립실트 5.47 vol.%, 중립실트 6.71 vol.%, 세립실트 0.36 vol.%, 극세립실트 2.35 vol.%, 점토 1.69 vol.%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JIN4-M02에는 왕모래 0 vol.%, 극조립사 0.53 vol.%, 조립사 9.44 vol.%, 중립사 6.86 vol.%, 세립사 4.59 vol.%, 극세립사 5.11 vol.%, 극조립실트 9.57 vol.%, 조립실트 21.34 vol.%, 중립실트 18.25 vol.%, 세립실트 10.40 vol.%, 극세립실트 3.51 vol.%, 점토 4.56 vol.%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³¹⁾

29) 입도는 일반적으로 입자를 크기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입자 크기가 전체 입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중량비나 부피비로 제시된다. 입도분석 방식은 크게 건식과 습식이 있고, 기존에는 시험용 표준체를 사용하여 분류하거나 침강속도에 따른 입자 크기와 중량을 계산하는 침강법으로 분석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산란방식을 채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분포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입도분석기(미국 Beckman Coulter사, Model : LS 13320)를 사용했다. 측정 범위는 습식의 경우 0.04~2,000 μm 이며 건식으로 측정할 때는 0.4~1,000 μm 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입도분포와 정밀한 측정을 위해 습식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2,000 μm 이상 크기의 입자는 표준체를 이용한 건식측정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하는 입자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다.

30) 무기질 첨가제의 입도분포에 따른 공극형성에 관해서는 Fuller와 Ausfallkoernung 이론이 있다. B. Streicher, 1991, *Zuschlag und sein Einfluss auf Putzer-gaenzungsmassen und Hinterspritzmoertel*, pp. 19~21.

31) 토양의 입도분석은 광물학적인 분류가 아닌 토양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류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그림 33〉 JIN4-M01/M02의 입도분포

JIN4-M01과 JIN4-M02의 입도분포는 그림 33에서 보듯이 분급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JIN4-M01의 경우 직경 0.063mm 이상의 입자가 전체비율의 79.34%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JIN4-M02는 0.063mm보다 직경이 작은 입자가 전체의 67.63%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입도분포는 두 층을 물리적·역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하여 풍화와 손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JIN4-M02처럼 직경이 0.063mm보다 작은 입자가 현저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회벽층은 팽창률이 높아 수분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팽창을 덜하게 되는 JIN4-M02와 층간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어 박리와 같은 손상으로 발전한다.

3) 점하중강도

점하중강도는 다른 강도 측정법들이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정형 시편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한 데 비해 점하중강도는 부정형의 시편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압축강도로 전환하여 정형 시편에 대해 측정한 강도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질학,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채취된 부정형 시편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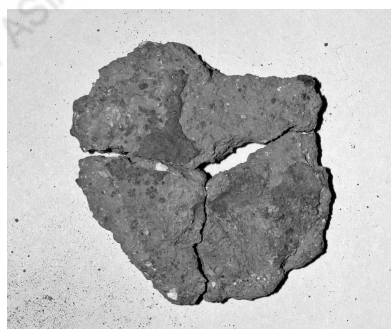
도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대상의 특성 때문에 압축 강도 등을 측정할 때 일정한 형태의 시편을 채취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강도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ASTM D 5731-05 등을 참고하여 제작된 한국암반공학회의 암석의 점하중강도 표준시험법에 의거하여 진파리 4호분에서 수습된 두 개의 시편(JIN4-M01/-M02)에 대해 분당 1mm로 압력을 가하여 점하중강도를 측정하였다.³²⁾ 점하중강도에 사용된 시편은 JIN4-M01이 시편 폭이 3.61cm이며, 두께가 1.86cm이었고, JIN4-M02는 폭 4.02, 두께 0.94cm이었다. 점하중강도는 측정 후 시편의 파손상태에 따라 측정값의 유효여부를 판단하는데, 시편 JIN4-M01과 JIN4-M02의 파손상태(그림 34, 35)는 한국암반공학회가 제시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측정값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된 점하중지수를 압축강도로 전환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점하중



<그림 34> JIN4-M01 (점제하측정 후)



<그림 35> JIN4-M02 (점제하측정 후)

32) 점하중강도 시험법에 대한 KS규격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ASTM D 5731-05과 암반공학회의 「암석의 점하중강도 표준시험법」, 75~82쪽을 기준으로하고 백승철, 1995, 「점하중시험과 강도시험에 의한 화강암의 일축압축강도 추정」, 『공업기술논문집』, Vol. 2, 안동대학교, 109~122쪽; K., Thuro, R. J. Plinninger, "Scale effects in rock strength properties Part 2 : Point load test and pointing load strength index," *Rock Mechanics*, pp. 175~180을 참고했다.

〈표 7〉 JIN4-M01과 JIN4-M02의 점하중강도(Is)와 압축강도

시료 No.	시편 폭 (cm)	시편 두께 (cm)	하중 (kgf)	점하중강도 (Is)	압축강도 (N/mm ²)
JIN4-M01	3.61	1.86	66.0	9.84	23.15
JIN4-M02	4.02	0.94	19.0	5.02	11.81

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압축강도는 JIN4-M01이 23.15N/mm²로 JIN4-M02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점토질 풍화토가 혼합된 JIN4-M02가 압축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점토질 풍화토를 적정량 이상으로 혼합하여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³³⁾

III. 결론

진파리 4호분에서 벽체는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는 백색층(M01)과 갈색층(M02)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층의 특성 차이로 말미암아 박리와 박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종류의 모르타르에 대해 FE-SEM을 이용한 미세부 관찰과 EDS를 사용한 미세부의 성분분석, XRF를 활용한 정량분석 그리고 XRD분석을 통해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르타르의 광물학적 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시편에 대해 비파괴와 파괴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측정했다.

33) 1999년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진행된 문화재 수리용 강회 혼합제 조사연구에 따르면 진흙의 혼합비가 높아지면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1999, 『문화재 수리용 강회 혼합제 조사·연구』, 54~59쪽.

디지털실체현미경과 미세부에 대한 FE-SEM관찰과 EDS분석을 실시한 결과, M01과 M02에 숯, 점토질풍화토 덩어리, 패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M02에서 관찰되는 백색의 덩어리가 석회임을 확인하였다. 숯은 석회나 패각을 가열해 생석회(CaO)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패각을 이용해 생석회(CaO)를 제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백색층(M01)과 갈색층(M02)에서 관찰되는 진한 갈색의 덩어리는 점토광물을 구성하는 Fe, Al, K, Si, Mg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르타르 제작시에 첨가한 점토나 풍화토가 잘 혼합되지 않은 것이다. M01의 갈색 덩어리에서는 Ca가 검출되기도 했다. M02에서 확인된 백색 덩어리는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로 확인되었다. 풍화토에 석회모르타르를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의 M02에 대한 EDS분석 결과에서 Fe가 확인되지 않아 한국산 업규격에 규정된 석회석 형광엑스선 분석에 의거 XRF분석을 실시한 결과 Fe가 M02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M01의 제작에 사용된 석회의 순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벽층의 광물학적 조성을 밝히기 위해서 XRD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백색 석회층(M01)은 방해석(calcite)과 석영(quartz)으로 구성되어 있고, 갈색 풍화토와 석회 혼합층(M02)은 방해석(calcite)과 석영(quartz), 알루미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백운모(muscovite), 마그네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녹니석군의 점토광물인 클리노클로어(clinocllore), 운모와 같은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라이트(illite)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RD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광물 조성을 EDS나 XRF 분석에 의해 동정된 원소와 비교 검토한 결과, 검출된 원소와 광물의 조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편에서 용출시킨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와 고주파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법(ICP-OES)으로 분석한 결과, Ca^{2+} 와 Cl^- 이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M01에서 용출된 Ca^{2+} 가 905mg/kg으로 M02에서 용출된 529mg/kg에 비교할 때 다른 이온의 편차보다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편에서 용출시킨 용액에 대한 이온분석 결과는 고분벽화의 탈염처리 방안과 고분내부의 환경제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회

벽층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겉보기밀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점토질풍화토와 석회로 구성된 JIN4-M02의 공극률이 석회모르타르로 제작된 JIN4-M01보다 크기 때문에 참밀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도는 두 시료 모두 0.92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실시한 회벽층에 혼합된 무기첨가제의 입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JIN4-M01과 JIN4-M02에 첨가된 모래나 점토질 황토의 분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JIN4-M01의 경우 직경 0.063mm 이상의 입자가 전체의 7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JIN4-M02의 무기첨가제는 0.063mm보다 작은 입자가 전체의 6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도분도를 볼 때 백색 회벽층 제작에 사용된 모르타르에는 석영모래를 첨가했지만, 갈색층에는 석영모래와 같은 무기질첨가제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고 점토질 황토에 석회를 첨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증기확산저항도는 시편 JIN4-M02의 공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편 JIN4-M01보다 12.72%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에커만(Eckermann)과 지거트(Ziegert)의 연구에 따르면 점토광물에 다량 함유된 황토로 제작된 흙벽체가 석회나 시멘트로 제작된 벽체와 비교할 때 대기의 습기를 40% 가량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흡수된 습기가 미세공극에서 결로현상을 일으켜 공극을 막을 경우에는 공극을 통한 수증기의 확산을 방해하여 수증기확산저항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고분벽화 벽체의 손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분과 관련된 특성들인데, 모세관물흡수계수, 모세관물흡수속도계수, 대기충물흡수도, 진공충물흡수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모세관물흡수계수와 모세관물흡수속도계수는 건조한 벽체가 수분에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흡수된 수분의 양과 벽체내부로 침투한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가지 수치 모두 석회모르타르로 제작된 회벽층이 점토질 풍화토 모르타르로 제작된 회벽층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흡수하는 수분의 총량을 나타내는 대기 및 진공충물흡수도의 경우에는 갈색 회벽층이 백색 회벽층보다 흡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편 JIN4-M01과 시편 JIN4-M02의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강도측정을 실시했다. 강도는 점하중강도를 측정

한 후 압축강도로 전환했다. 측정한 결과 석회모르타르 회벽층이 갈색 점토질 풍화토 회벽층보다 강도가 약 2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벽체의 구성성분, 물성과 역학적 특성은 기존의 연구가 벽화의 안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진파리 4호분 벽화보존처리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처리제나 처리방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실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입도분석 결과와 벽체의 구성성분을 근거로 공극과 모세관물흡수도, 모세관물흡수속도 등을 조절하여 탈염처리나 강화처리에 사용할 시편을 제작할 수 있으며, 고분 내의 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활용하여, 고분내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모의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실험결과를 보존처리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사사 :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본 연구가 수행된 것과 실험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의 정성운·이덕민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ABSTRACT]

Study on properties of lime plaster at mural in Goguryo Tomb : A case Study on Jinpari Tomb No.4

Lim, Kwonw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chemical substance and constituent mineral of lime plaster of Jinpari Tomb No. 4, which is a Goguryeo ancient tomb wall painting manufactured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measure physical property and dynamic feature of lime plaster and enable it to be used for study on preservation method, manufacture of preservation agent and experiment of appropriateness. In experiment, white lime plaster layer(M01) sample made of lime and sand and brown lime plaster layer(M02) sample made of clayish soil of weathered rock and lime.

By observing the use of FE-SEM and EDS in detail area and analyzing their substanc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ump-typed clayish soil of weathered rock, lime and shell in M01 and M02. It was also found that M01 consisted of Ca and Si and M02 consisted of Ca, Si and elements organizing clayish mineral such as Al and K. Although very fine charcoal was observed, it seemed that it was mixed in the process to manufacture quicklime. XRD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define the constituent mineral of lime plaster. It was found that M01 consisted of lime and quartz sand and M02 consisted of lime, quartz sand, muscovite and clayish minerals such as illite and clinochlor. In order to analogize constituent mineral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chemical substance of lime plaster, XRF analysis was performed by melting lime plaster sample at the temperature of 1400°C and manufacturing glass disk.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t was same as the result of EDS and XRD. From the result of performing qualitative analysis on ionized soluble salt contained in the lime plaster sample by using IC and ICP-OES, it was found that Ca^{2+} and Cl^- were contained as the largest ratio of positive ion and negative ion respectively.

Through physical property of sample, the researcher measured particle size analysis, water vapour permeability, capillary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capillary water absorption speed coefficient and total water absorption degree in air & vacuum status. Regarding water vapour permeability, it was measured that the porosity of M02 was larger than that of M01 but the permeability of M02 was better than that of M01. Regarding capillary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and capillary water absorption speed coefficient, M01 was higher than M02 but regarding absorption degree in air & vacuum status, M02 was higher. In the result of particle siz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01 mainly contained inorganic additive, whose diameter was 0.063mm and M02 contained inorganic additive, whose diameter was less than 0.063mm.

In the analysis on dynamic feature, the researcher calculated compressive strength by measuring point load strength index. It was foun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M01 was higher than that of M02.

keywords

Jinpari Tomb No. 4, Goguryo Tombs Mural, lime plaster (灰壁體), soluble salt, point load strength index, physical property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조인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 고구려사 중심의 고대사 서술

申采浩는 한국고대사를 檀君朝鮮-扶餘(夫餘)-高句麗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¹⁾ 그중에서도 그는 특히 고구려사를 중시하였다. 가령 신채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朝鮮上古史』²⁾의 목차(다음의 표 1)를 일별하기로 한다.

제1편은 서론에 해당한다. 제2편과 제3편은 고조선사이다. 삼국시대사는 제4편부터 제11편까지 총 9편이다. 그 가운데 고구려사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제5편 (1), 제5편 (2), 제9편, 제10편 등 모두 4편에 이른다.

제4편과 제6편에서도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목차를 정리

1) 李萬烈, 1977, 「丹齋 申采浩의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5 ; 李萬烈,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288~289쪽 ; 李萬烈, 1974, 「17~1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0 ; 李萬烈, 2007, 위의 책, 100~102쪽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 체계는 修山 李種微의 그것을 잇는 것이었다고 한다.

2) 『朝鮮史』, 『朝鮮日報』, 1931. 6. 10~10. 14 연재 ;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 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하 『조선상고사』라고 함.

〈표 1〉 『조선상고사』의 목차

편수	편 명
제1편	總論
제2편	수두時代
제3편	三朝鮮 分立時代
제4편	列國 爭雄時代(對漢族 激戰時代)
제5편(1)	高句麗 全盛時代
제5편(2)	高句麗의 中衰와 北扶餘의 滅亡
제6편	高百 兩國의 衝突
제7편	南方諸國 對高句麗 攻守同盟
제8편	三國血戰의 始
제9편	高句麗 對隋戰役
제10편	高句麗 對唐戰役
제11편	百濟의 强盛과 新羅의 陰謀

한 것이 〈표 2〉이다. 제4편의 제1장은 서론에 해당한다. 제2장은 동부여, 고구려, 百濟의 건국에 대한 것인데,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제 3장의 경우 4분의 3 정도가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다. 제6편의 제1장은 서론에 해당한다. 제2장은 백제의 전성에 대한 것인데, 고구려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다룬 제3장과 제4장은 전체 분량의 50%

〈표 2〉 『조선상고사』 제4편과 제6편의 세부목차

편 장	제4편 列國 爭雄時代 (對漢族 激戰時代)	제6편 高百 兩國의 衝突
제1장	列國의 總論	高·百 兩國 由來의 關係
제2장	列國의 分立	近仇首의 英武와 高句麗의 退縮 (附·百濟의 海外 征伐)
제3장	漢武帝의 侵寇	廣開太王의 北進政策과 鮮卑征服
제4장	鷄立嶺 以南의 兩 新國	長壽太王의 南進政策과 百濟의 遷都

이상을 점하고 있다. 제6장의 70% 정도가 고구려사 서술인 셈이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어림잡아 『조선상고사』 삼국시대사 부분의 절반 이상이 고구려사라고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자료의 양을 생각하거나 삼국 간 서술의 균형을 고려한다고 할 때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채호가 삼국의 역사 중 고구려사를 가장 중시하였음을 일러 준다.³⁾

한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고대사 서술에서도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⁴⁾ 북한에서는 1979년부터 1983년에 걸쳐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광복 이후 당시까지의 ‘조선사’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총 34권으로 달하는 『조선전사』를 펴낸 바 있다.⁵⁾ 『조선전사』에서 삼국시대를 다룬 것은 총 2권인데,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이하 『전사 3』이라고 함)

3) 이미 『독사신론』에서도 그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4) 북한의 고대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지 않은 연구가 있다. 朴性鳳, 1983, 「〈조선전사〉에 나타난 古代史觀 批判」, 『統一論叢』 3-2, 국토통일원; 李基東, 1989, 「북한 역사학의 특성과 고대사 서술」, 『문학과 사회』 5; 김정배 역음, 1991,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I)·(II)-연구성과와 평가』; 歷史學會 編, 1991, 『北韓의 古代史研究』; 김정배 편, 1994,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 이기동, 1991, 「북한에서의 韓國古代史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北韓의 韓國學 연구성과 분석(역사·예술편)』; 이기동, 1999, 『전환기의 韓國史學』. 고구려사 인식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朴性鳳, 1979, 「北韓의 高句麗史 敘述」, 『北韓學報』 3; 朴性鳳, 1990, 「北韓의 高句麗史 研究動向과 특성」, 『東方學志』 65; 申澧植, 1993, 「北韓의 「고구려사」(『조선전사』 3)의 分析和 批判」, 『東方學志』 81; 琴京淑, 1994, 「北韓의 高句麗史 認識」, 『北韓研究』 15; 이강래, 1994, 「대 이민족 투쟁과 애국심의 문제-고구려를 중심으로」,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 신형식, 1995, 「손영중 저 「고구려사」 (1)의 分析和 批判」, 『國史館論叢』 62; 박경철, 1996, 「最近 北韓學界의 高句麗史研究 動向에 關한 小考: 그 認識視點에 對한 批判的 檢討」, 『白山學報』 46; 전호태, 1997,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관」, 『한국사 시민강좌』 21; 이기동, 1999, 「北韓에서의 高句麗史 연구의 現단계-孫永鍾 著 《고구려사》를 읽고」, 『東國史學』 33; 신형식, 2000, 「손영중 저 「고구려사」 (2)의 분석과 비판」, 『慶北史學』 23; 李成制, 2004, 「北韓의 高句麗史 연구와 역사인식-孫永鍾 敎수의 敍論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8.

한편 전론은 아니지만 전호태, 1990,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한국사인식 [I]』(안병우·도진순 편)에서도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을 상세히 다루었다.

5) 박성봉, 1990, 앞의 글, 306쪽.

와 『조선전사 4 중세편 백제 및 전기신라사』 등이다.⁶⁾ 고구려사는 독립된 한 책으로 되어 있고, 자연히 서술 분량에서도 백제, 통일 전 신라, 가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⁷⁾ 1991년 개정된 『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3』⁸⁾(이하 『개전사 3』이라고 약함)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개인 명의의 고구려 통사로서는 손영종의 『고구려사 1』(1990), 『고구려사 2』(1997), 『고구려사 3』(1999)이 있다. 삼국 중 유일하게 고구려의 통사가 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조선단대사’를 간행 중에 있다. 총 38권으로 발간될 예정인 ‘조선단대사’는 고조선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왕조별 역사서인데, 고조선, 부여, 진국, 구려의 역사 4권, 고구려사 5권, 백제사 2권, 신라사 3권, 가야사 1권, 발해사 3권, 고려사 5권, 이조사 13권, 연표와 부록 2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⁹⁾ 고구려사의 저자는 역시 손영종으로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2)』(2007), 『조선단대사(고구려사 3)』(2008), 『조선단대사(고구려사 5)』(2008)는 이미 출판되었으며, 『조선단대사(고구려사 4)』는 미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백제사, 신라사, 가야사가 총 6권인데 비해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거니와, 요컨대 이상은 북한에서도 삼국 중 고구려의 역사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북한의 고대사 인식이나 체계에는 신채호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¹⁰⁾ 가령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6)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명의로 1979년 과학·백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7) 제3권은 424쪽, 제4권은 327쪽. 통일신라와 발해사를 다룬 제5권이 408쪽이라는 점과도 비교된다. 이상 申澁植, 1993, 앞의 글, 2~3쪽.

8)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명의로 1991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9) 『朝鮮新報』, 2005년 4월 18일 ; 『기호일보』, 2005년 4월 18일.

10) 金貞培는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이 북한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金貞培, 1986, 『丹齋의 史學과 北韓의 古代史』,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구체적으로는 고조선의 영역과 馬韓의 위치에 대한 신채호와 북한 학계의 설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北韓의 論考 속에서 丹齋의 書目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들의 古代史 서술에서 주요 논점은 역시 丹齋의 學說을 종종 채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글, 160쪽. 하일식도 북한에서 신채호의 업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고조선의 위치문제, 낙랑군 문제,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

발해의 건국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신채호의 주장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¹¹⁾ 북한에서 발행된 고구려사 관계 논저에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등을 인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¹²⁾ 최근에는 신채호의 고구려사 연구를 평가한 글이 발표된 바도 있다.¹³⁾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신채호와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특히 중시하였던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이 북한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전자가 후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신채호와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북한에서 고구려사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고 알려져 있거니와,¹⁴⁾ 이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적지 않은 논저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을 전부 다루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그것들 가운데 고구려 통사에 해당하는 『전사 3』, 『개전사 3』을 대상으로 하여¹⁵⁾ 거기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은 학설사적으로 신채호에 소급된다고 하였다. 金貞培, 1993, 「신채호-투쟁에 살다간 민족주의자」, 『역사비평』 1993년 봄; 金貞培, 1998,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113쪽.

- 11) 이와 관련하여 이기동, 1989, 앞의 글, 92쪽; 김영하, 1990, 「후기신라와 발해의 성립」,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안병우·도진순 편); 2007, 동 개제, 「북한학계의 후기신라와 발해론」, 『新羅中代社會研究』, 275~278, 282~284쪽; 하일식, 1993, 「신채호-투쟁에 살다간 민족주의자」, 『역사비평』 1993년 봄; 조인성, 2007, 「남북국시대론-1960년대 초 북한의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7, 202~208쪽 등을 참고.

- 12) 가령 손영중, 『고구려사 2』, 151, 212~213, 215쪽의 주 참고.

- 13) 한강휘, 2008, 「신채호의 고구려력사연구에 대한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 주제 97(2008)년 제2호(루게 제206호), 41~43쪽. 그는 우선 신채호가 “고구려를 철저히 우리 민족의 국가로 단군의 뒤를 이은 정통국가로 보았다”(43쪽)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으로는 “고구려를 중국의 역대 봉건국가들과 당당히 세력을 겨룬 강대한 나라로 보았다”(43쪽)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고, 필자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제 알아볼 것이지만 이러한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은 북한의 그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14) 『전사 3』 편찬 이전의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박성봉, 1990, 앞의 글, 297~306쪽 참고.

에서 고구려사의 어떤 측면을 특히 중요시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이해의 일치 여부보다는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큰 틀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II. 대외투쟁사의 중시

신채호는 이미 『讀史新論』¹⁶⁾에서 삼국 중 고구려를 부여족 고대사의 주인공이라고 설정하였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다음을 보도록 하자.

- 15) 손영중은 『개전사 3』의 중요 집필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제, 2004, 앞의 글, 235쪽.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개전사 3』과 손영중의 『고구려사』의 목차는 상당히 비슷하며, 사실 내용면에서도 그러하다. 『개전사 3』보다 1년 앞서 발행된 『고구려사 1』은 『개전사 3』 제5장까지의 저본이었다고 본다. 『개전사 3』보다 각각 6년, 8년 후에 출판된 『고구려사 2』와 『고구려사 3』은 『개전사 3』의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수정·보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손영중의 『고구려사』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사 3』과의 비교를 위해 이 글에서는 『개전사 3』을 대상으로 하고, 『고구려사』는 필요에 따라 인용하기로 한다. 한편 『고구려사』와 『조선단대사(고구려사)』의 차이점은 전자가 “고구려사 전반을 년대적 순차에 따라 서술한 것과 관련하여 매 장마다 해당시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변을 제목으로 하고 서술내용도 거기에 치중”하여 “그 밖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게 되는 편향”이 있었던 반면 후자에서는 “부문별 문제별로 서술함으로써 비록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라면 응당한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는 데 있다고 한다(『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6쪽). 형식적으로는 고구려사를 분류사적으로 정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종래 소홀했던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것이 『조선단대사(고구려사)』의 큰 특징으로 생각되는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구려의 대외투쟁사는 『고구려사』의 그것을 재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선단대사(고구려사)』는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사 3』과 『개전사 3』, 『개전사 3』과 『고구려사』, 『고구려사』와 『조선단대사(고구려사)』를 비교한다면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변화의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6) 『讀史新論』, 『大韓每日申報』, 1908. 8. 27~12. 13 연재;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 신채호전집 제3권 역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하 『독사신문』이라고 함.

A. 我 扶餘族이 三國初葉으로부터 東國에 分布하였으나, 嶺左에 趨하여 新羅된 者와, 漢南에 趨하여 百濟된 者는, 其 位置가 壹우에 僻處함으로 外方強國과 關係됨이 不多하고, 其 相角抗한 바는 本토 小部落 及 말갈 日本 等 小寇에 不過호므로, 當時 南方民族은 足히 我國史에 光榮을 垂호는 者ㅣ 無호고, 惟 高句려는 列強의 間에 處하여 曲踊距踊의 氣概로 東征西伐의 武力을 揮호였으니, 我 古代史를 編할 때, 扶餘族의 主人翁은 不得不 高句려로 認호지라. 故로 余가 此壹章에 特히 高句려의 對外歷史를 研究코즈 하난 바며,¹⁷⁾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채호는 新羅나 百濟는 반도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였던 까닭에 본토의 소부락과 싸우거나 외부 세력이라고 하여야 靺鞨이나 日本 등 '소국'과 투쟁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고구려는 열강과 맞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고 보고,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고구려를 부여족 고대사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실제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수백 년 동안 혈전을 거듭하였던 鮮卑族과 '支那族'과의 투쟁을 중시하였다. 그는 동명성왕 이래 선비족과의 투쟁이 모두 8차에 걸쳐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선비족 출신의 수 문제와 양제가 고구려를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나라마저 잃게 되었다고 하고는 "畢竟 優存劣亡의 公例를 莫逃호야, 自後로 鮮卑族의 光榮이 東洋史에 不見호니라"고 평하였다.¹⁸⁾

신채호에 따르면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는 제1기 東明王이 漢의 四郡을 정복하고 大武神王이 한의 高句麗縣을 격취하였던 때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魏의 毌丘儉의 침입과 紐由와 密友가 활약하였던 제2기, 唐 太宗의 침략과 淵蓋蘇文이 이를 격퇴하였던 제3기로 나누었다. 그 후 羅·唐 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피폐해진 제4기, 고구려가 내분으로 멸망에 이르고, 고구려를 계승한 渤海가 성립하였던 제5기로 구분하였다.¹⁹⁾

17) 『독사신론』, 329쪽.

18) 『독사신론』, 329~331쪽.

19) 『독사신론』, 331~334쪽.

이러한 대외투쟁사 중심의 고구려사 이해는 『조선상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 1>이 참고된다. 『조선상고사』의 제5편 (2)는 제1장 ‘高句麗의 對支那 戰敗’와 제2장 ‘高句麗 對鮮卑의 戰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외투쟁사 전문이라고 할 수 있다. 隋·唐과의 전쟁을 다룬 제9편과 제10편이 그 전문임은 물론이다. 전문이 아닌 다른 장에서도 고구려의 대외투쟁과 관련된 부분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제4편 제3장에서는 고구려가 漢族과 격전을 벌였음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6편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廣開土王과 長壽王의 정복활동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가 고구려사를 중시하였던 것도, 『독사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외투쟁사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전사 3』은 그 머리말에서 “지난 시기 우리 나라가 제일 강했던 때는 고구려 때였습니다”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고구려사람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개괄서술하는데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²⁰⁾ 이 교시는 『개전사 3』의 머리말 첫머리에도 등장하거나, 거기에서는 “자주성을 위한 고구려인민의 투쟁력은 우리 민족사의 자랑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였다.²¹⁾ 손영중은 『고구려사』에서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한) 고구려인민의 빛나는 투쟁업적을 부각시키기에 노력”하였으며, “국토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투쟁을 북방정세, 대외정세와의 호상관련 속에서 정확히 해명하기 위하여 힘썼다”고 하였다.²²⁾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중시하였던 것이 그 투쟁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였던 때문임을 알 수 있다.²³⁾ 이 점은 실제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20) 『전사 3』, 7~8쪽.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영웅한 투쟁을 벌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였고, “고구려의 발전의 전과정은 고구려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투쟁과정이었다”고 한 것(이상 『전사 3』, 63쪽)도 참고된다.

21) 『개전사 3』, 9쪽.

22) 『고구려사 1』, 11~12쪽.

23) 이 점은 이기동, 1989, 앞의 글, 92쪽; 전호태, 1990, 앞의 글, 120~125쪽 및 박성봉, 1990, 앞의 글, 314~315쪽 등 여러 글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한 전문으로는 이강래, 1994, 앞의 글이 있다. 한편 『전사 3』, 283쪽의 주에 따르면 1974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외래침략을 반대한 고구려인민의 투쟁』이 간행된 것으로

〈표 3〉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3』·『고구려사』의 목차

	『전사 3』	『개전사 3』	『고구려사』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고구려의 건국
제2장	봉건적제관계의 발전	고구려봉건국가의 초기 발전	고구려봉건국가의 초기 발전(기원전 3세기초엽~기원 1세기중엽)
제3장	중앙집권과 국방력의 강화	국력의 강화와 고조선 옛 땅의 완전수복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국력의 강화와 고조선 옛 땅의 완전수복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1세기 중엽~4세기 40년대)
제4장	료동회복, 영토의 확장	3~4세기 고구려에서의 봉건제도의 공고발전	고구려에서 봉건제도의 공고발전
제5장	평양으로의 수도옮김과 수도건설	겨레와 강토를 통일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겨레와 강토를 통일하기 위한 고구려의 투쟁(4세기말엽~6세기 전반기)(이상 제1권)
제6장	고구려국가의 강성	봉건적중앙집권체제의 가일층의 강화	고구려에서 봉건적중앙집권체제의 가일층의 강화
제7장	수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수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6세기~7세기중엽 국토 완정을 위한 고구려의 투쟁과 대외관계의 조정
제8장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수나라 침략을 반대한 고구려인민의 투쟁
제9장	문화	문화	당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고구려인민의 투쟁(640~660년대초)
제10장			고구려봉건국가의 종말, 고국회복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이상 제 2권)
제11장			문화
부록	서북지방에 있는 고구려에 의하여 통합된 소국들의 유적, 유물	조선 서북지방에 있는 고구려에 통합된 소국들의 유적, 유물	「고구려사 주요연대표」(이상 제3권)

위해 『전사 3』, 『개전사 3』²⁴⁾과 『고구려사』의 목차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전사 3』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4장, 제7장, 제8장은 고구려의 대외투쟁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한과의 투쟁, 제3장에서는 公孫氏 세력과 위와의 투쟁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²⁵⁾ 『개전사 3』에서도 고구려의 대외투쟁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제3장, 제5장, 제7장, 제8장은 전론 내지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기원전 2세기 말~기원 1세기 초의 한과의 투쟁을 중요하게 취급 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사』는 모두 3권,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2장, 제3장, 제5장 그리고 제7장에서 제10장까지가 대외투쟁사의 전론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다. 『고구려사』의 절반 이상이 대외투쟁사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중시하였던 이유는 그 대외투쟁사를 높이 평가하였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신채호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나오는데, 이는 입수하지 못했다.

- 24) 『전사 3』과 달리 『개전사 3』은 고구려사와 후부여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부여사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후부여사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후부여(봉건부여국)의 형성과 그 초기령역

제2장 후부여의 통치제도

제3장 생산의 발전

제4장 후부여의 역사적변천, 고구려에 의한 후부여의 통합

- 25) 이미 박성봉이 『전사 3』에서 대외투쟁사에 적지 않은 지면이 할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박성봉, 1990, 앞의 글, 314쪽; 申澁植, 1993, 앞의 글, 3~4쪽에 따르면 『전사 3』에서 대외투쟁과 영토 확장에 159쪽이 할애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38.2%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한다.

Ⅲ. 대외투쟁사의 관점

손영종은 고구려의 대외투쟁사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B-1. 인민들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4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에 수백 년 동안 계속 침입해온 강대한 외래침략세력들을 물리치고 동족의 나라였던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반침략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감으로써 전민족적 범위에서 국토와 겨레를 보위하는 방패의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2. 고구려는 4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 사회력사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섰던 국토와 겨레의 통일을 실현하는 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하였으며 통일위업을 거의 다 완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끌었던 강대국이었다.²⁶⁾

B-1에 따르면 고구려의 대외투쟁사의 의의는 동족의 나라였던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였던 것과 수·당 등 다른 나라에 맞서 국토와 민족을 지켜냈던 것으로 갈라 볼 수 있다. B-2에서는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아울러 통일을 이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하자면 고토회복과 민족보위, 통일지향이 될 터인데,²⁷⁾ 이러한 고구려사 인식도 신채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대순에 따라 고토회복, 통일지향, 민족보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6) 이상 『고구려사 1』, 10~11쪽.

27) 이미 전호태가 1990, 앞의 글에서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를 ① 고조선의 계승자(116~120쪽), ② 투쟁과 확장, 통일지향의 역사(120~125쪽), ③ 선진문화의 창조와 전파(125~131쪽)로 정리한 바가 있다.

1_ 고토회복

『독사신론』에서 신채호는 동명성왕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C-1. 말갈을攘히며 松讓을 降히며, 行人 肅愼 等 國을 滅히고, 扶芬奴를 遣히야 鮮卑를 驅히며, 扶尉厭을 用히야 沃沮를 服히야, 東으로 三韓을 滅히며 西으로 支那를 抗히니 於是乎, 檀君 疆域이 多勿(多勿은 麗語에 疆토恢復을 指함)의 榮을 모히며, 夫餘民族이 不拔의 基를 定히지라.²⁸⁾

동명성왕이 주변의 여러 종족과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중국에 대항하여 단군 강역을 회복하였으며, 부여족의 든든한(不拔)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C-2. 衛滿 劉徹이 交惡한 後 百餘年에 我 扶餘族의 聲勢가 漸大하야 東明聖王이 四郡을 征服하고, 大武神王이 漢의 高句麗縣을 擊取히매 漢光武 劉秀가 來爭하다가 畢竟 敗退히야 薩水 以南을 我에 讓渡히얏스니 此가 第(壹)期오.²⁹⁾

이를 보면 동명성왕이 한사군을 정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C-1에서 의 단군 강역의 회복이란 결국 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³⁰⁾

『조선상고사』 제5편 (1)의 제3장은 “太·次兩大王의 漢族驅逐과 古疆恢復”

28) 『독사신론』, 323쪽.

29) 『독사신론』, 331쪽.

30) 신채호는 단군왕조가 처음 卒本扶餘에서 시작하여 瀋陽(吉林省), 遼東(奉天省), 조선 本부로 영역을 확대하였다고 보았다(『독사신론』, 315~316쪽). 그 후 支那族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는데, 그것을 箕子가 조선의 封爵을 받고 平壤 일부를 다스리던 제1기, 기자의 후예가 遼東을 아우르고, 부여 왕조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던 제2기, 기씨왕조는 衛滿에게 무너지고, 그 후예는 南韓으로 들어갔으며, 위만왕조는 漢武帝에게 무너지고, 北韓 일대에 四郡이 설치되었던 제3기로 구분하였다(『독사신론』, 331쪽). 따라서 동명성왕이 한사군을 정복하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단군 강역의 전부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이다. 그에 따르면 후에 次大王이 되는 遂成이 105년부터 121년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한과 遼東을 두고 다투었다고 한다. 그 결과에 대해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D. (기원 121년 4월) 遂成이 다시 鮮卑兵 八千으로써 遼東의 遼陽縣을 칠 새, 高句麗 精兵을 新昌에 潛伏시켰다가 遼東太守 蔡諷의 救兵을 襲擊하여 蔡諷과 以下 將官 百餘人을 斬殺하고 無數한 士卒을 殺傷 或 俘虜하여 드대여 遼東郡을 占領하고, 同年 十二月에 또 百濟와 濊의 騎兵 一萬을 發하여 玄菟 樂浪 兩郡을 占領하여 이에 衛右渠가 漢에 일었던 故土-朝鮮의 故 烏列忽³¹⁾의 全部를 完全히 恢復하니³²⁾

위에 나오듯이 신채호는 121년 고구려가 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에 잃었던 衛滿朝鮮의 옛 강역, 구체적으로는 요동 일대를 되찾았다고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단군조선(신한)은 기원전 4세기경 ‘신·말·불’의 3조선으로 분립되었다고 한다.³³⁾ 그중 불조선은 蓋平縣 동북의 ‘安市 古墟’를 도읍으로 하고, 요동반도(開原 이남 興京 이서)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왕조의 성은 箕氏로서 위만에 쫓겨 南遷하여 馬韓을 탈취하였다가 후에 마한 여러 나라들에게 망하였다고 하였다. 『독사신론』에서와는 달리 신채호는 위만조선이 요동 지역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거니와, 그것은 여하튼 太祖王代 수성에 의해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옛 강역의 일부를 회복하였던 것이 된다.³⁴⁾ 단 그것

31) 王莽이 망하고 중국이 크게 어지러워지자 그 틈을 이용 고구려의 慕本王이 요동을 회복하고, 襄平城(요동성)의 이름을 고구려의 옛 이름인 烏列忽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三國史記』 고구려 본기에 모본왕대에 요동을 회복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령 太祖王 3년 遼西에 10城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요동은 그 이전에 일차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조선상고사』, 694~695쪽.

32) 『조선상고사』, 701쪽.

33) 『조선상고사』, 645~649쪽. 이하 신채호의 3조선에 대해서는 李萬烈, 1990, 『丹齋申采浩의 歷史學 研究』, 236~239쪽을 참고.

34) “王子 遂成이 임이 遼東을 恢復하고 漢의 歲幣를 받으며 …… 聲望이 天下에 떨치니, 遂成이 만일 이 聲望을 移用하여 나아가 遼西를 첫스면 三朝鮮의 西北故疆을

이 단군조선의 전 강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는 동명성왕이 정복활동을 통해 고구려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였을 뿐 단군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상고사』에서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약 120년 상향 조정하였다.³⁵⁾ 따라서 동명성왕이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였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단군조선이 東扶餘와 北扶餘 곧 고구려로 갈라졌고, 동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하였으므로 혈통적으로 고구려 왕실이 단군왕조의 직계가 된다고 설정하였다.³⁶⁾ 『조선상고사』에서는 신조선 왕실이 大檀君王儉의 자손으로서 성은 解氏이고, 그 중심지는 지금의 하얼빈에 비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조선은 북부여와 양 동부여(北東扶餘와 南東扶餘)로 분화되었고, 북부여 解慕漱의 아들 鄒牟가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양 동부여는 시간을 두고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적통을 이은 셈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요컨대 단군조선의 후계자인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던 셈이다.

『전사 3』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시기부터 한에 맞서 반침략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³⁷⁾ 특히 동명왕은 “고조선판도에 있던 수많은 ‘소국’들을 통합하였고, 멸망한 고조선의 옛주민들을 받아들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한나라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반침략투쟁을 조직지휘”함으로써 고구려 봉건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全部 恢復하기가 容易하였겠지만 ……”(『조선상고사』, 702쪽)한 것에서 신채호가 고구려의 요서 진출을 단군조선의 고토 회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3조선 분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신조선이 말·불·양 조선과 연합하여 요서 너머 北京 일대에까지 진출한 적이 있었고(『조선상고사』, 649쪽), 秦·漢 교체기에도 그러하였다는 것이다(『조선상고사』, 651쪽).

35) 『조선상고사』, 660~661쪽. 보다 자세한 것은 이만열, 1990, 앞의 책, 280~284쪽 참고.

36) 『독사신론』, 314쪽.

37) 『전사 3』, 25쪽.

평가하였다.³⁸⁾ 그로부터 “한나라침략세력을 룡동지방으로 물리치기 위한 투쟁”, “료동지방에 설치한 후한의 군, 현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 등 2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한과 투쟁하였던 것으로 보았다.³⁹⁾ 2세기 후반과 3세기에는 공손씨 세력과 위의 침략을 물리치고, 고조선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고 하였다.⁴⁰⁾ 그리하여 4세기 초반 고조선 땅에 설치되었던 낙랑, 대방, 현도군을 요서지방으로 완전히 축출하고, 그 영역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룡동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고구려의 고조선 고토 회복에 대한 『개전사 3』의 내용은 『전사 3』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제3장의 제목을 ‘국력의 강화와 고조선 옛땅의 완전수복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고조선 고토 회복 활동을 보다 분명히 정리하였다. 370년대 전연의 잔여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주로 진출하였다가 376년 초에 철수하였는데, “그러나 대릉하 하류-의무려산계선 이동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기원전 3세기 초 이후 시기 고조선의 옛땅을 완전히 되찾았다”⁴²⁾고 한 것은 『전사 3』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의의로 “동족의 나라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음으로써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고조선유민들의 세기적 념원을 풀어주었다”는 것에 더하여 “삼국통일위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여 고구려의 고조선 고토회복과 삼국 통일지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개전사 3』에는 동명왕이 한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동명왕이 한 세력과 투쟁하였다는 논리가 성

38) 『전사 3』, 26쪽.

39) 『전사 3』, 64~72쪽.

40) 『전사 3』, 86~92쪽.

41) 『전사 3』, 108~118쪽.

42) 『개전사 3』, 75쪽.

43) 『개전사 3』, 28쪽. 고구려 건국 기년 인상에 대해서는 금경숙, 1994, 앞의 글, 52~57쪽; 박경철, 1996, 앞의 글, 503~506쪽 및 이기동, 1999, 앞의 글, 8~11쪽 등 참고.

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전사 3』에 따르면 고구려는 본래 “고조선의 당당한 지방정치세력-후국”으로서 강력한 독자적인 봉건왕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고조선 유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강력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한나라 침략자들과 맞서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⁴⁾ 양자의 혈연적 관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는데,⁴⁵⁾ 『개전사 3』에서는 “고구려인민들은 동족의 나라 고조선의 각지 유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강점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였다”⁴⁶⁾고 하여 양자가 동족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채호와 북한 역사학계는 고구려가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의 후계자로서 동족 국가인 고조선의 옛 영토를 침략자들로부터 되찾았다고 인식하였다.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동명왕이 한과 투쟁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던 점도 유사하다.⁴⁷⁾ 단 신채호는 고구려 초기에 한정해서 고조선의 고토회복을 말하였던 반면, 북한에서는 4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의 서방(혹은 북방) 진출을 그 일환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에서 고구려의 고조선 고토 회복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지향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조선상고사』의 다음 구

44) 『전사 3』, 25쪽.

45) 북한 역사학계에 따르면 고대 우리 민족의 선조는 옛 문헌에 예, 맥, 한으로 나오는데, 이 세 종족은 “언어와 풍습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한 개 종족 집단들의 세 갈래”로서 예족은 고조선을, 맥족은 부여와 고구려를 그리고 한족은 진국을 세웠다고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41쪽). 그러므로 고조선과 고구려는 동족에 준하는 관계가 된다.

46) 『개전사 3』, 39쪽.

47) 이기동은 손영종이 신채호와 같은 근거에 입각해서 건국 기년을 인상하였음을 지적하였거니와(1999, 앞의 글, 10~11쪽), 손영종이 신채호의 설을 알고도 인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절이 주목된다.⁴⁸⁾

E-1. (장수왕은) 在位 年間이 七十九年이니, 이 七十九年 동안은 朝鮮 政治史에 가장 大變化를 일으킨 時期이다. 무삼 變化이나? 古 高句麗 歷代 帝王들이 或 北進主義를 쓰며, 或 南北并進主義를 썼고 從來로 惟一한 北守南進主義를 쓰는 者は 長壽太王으로 비롯하여, 드대여 南方三國對高句麗 攻守同盟을 喚起하였다. 무릇 南方의 百濟는 이미 强盛하고 新羅와 加羅도 차차 强盛하여 前日의 건줄 바가 안인즉, 高句麗 政治家가 되야는 不得不 南方을 안도라 볼 수 업지만, 廣開太王은 다만 外族 各國-支那, 鮮卑, 靺婁 등을 征服하여 同族 各國은 自然 그 旗下에 무릅 꼴토록 하였건 이와, 長壽太王은 이 政策을 危險視하여 먼저 同族 各國을 統一한 뒤에 外族과 싸움이 可하다 하여, 드대여 廣開太王의 政策을 變更하여 平壤으로 遷都하고 北守南進主義를 쏘에 일유했다.⁴⁹⁾

위에 따르면 역대 고구려왕들은 북진주의 혹은 남북병진주의를 택하였던 반면 장수왕으로부터 남진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백제, 신라와 가야가 강성해짐에 따라 고구려로서는 이들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광개토왕은 북방의 다른 민족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그 나라들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다고 한다. 이와 달리 장수왕은 먼저 남방의 동족 여러 나라들을 통일한 후에 북방의 다른 민족의 나라들과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구려의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신채호는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남진정책을 동족 국가들의 통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이민족 여러 나라들과의 투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신채호는 장수왕 이래 남진통일정책이 계속되었다고 파악하였다.

E-2. (고구려가 북방의 曹魏나 慕容氏의 燕과 투쟁하는 동안) 百濟와

48) 단 『독사신론』에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49) 『조선상고사』, 736쪽.

新羅가 南方에서 蹶起하여 高句麗와 對等되는 勢力을 가졌었고, 故國壤, 小豷林, 廣開 三 太王이 일어나 遼東을 쳤고, 또 西北으로 契丹을 征服하고 熱河 等地를 占領하며, 長壽太王이 七十年間 民力을 休養하매 人口가 蕃殖하고 國力이 膨脹하여 支那와 爭衡할만하나, 南方四國의 對高句麗 攻守同盟이 생기어 後面의 牽制를 바둑으로 長壽太王 以來로 드대어 北進主義를 바리고 南方 統一에 專力하였었다.⁵⁰⁾

E-3. 高句麗가 長壽太王 以來로 南進主義를 가져 西北의 支那와는 親交하고 南方의 新羅 百濟에 對하여 用兵하다가, 隋가 支那 南北을 統一하매, 高句麗가 이를 두려워하여 우리도 어서 新羅와 百濟를 滅하여 朝鮮을 統一하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주 南征軍을 일으키었다.⁵¹⁾

E-2에서는 광개토왕·장수왕대를 거치면서 고구려는 중국과 정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으나, 중국과 겨루기 위해서는 백제 남천 이후 신라·백제·임나·아라의 4국이 결성한 대고구려동맹의 배후 위협⁵²⁾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장수왕 이래 ‘남방통일’에 전력하였다고 하였다. E-3에서는 장수왕 이래 남진정책을 추진하다가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도 이에 맞서기 위해 조선 통일을 위한 정벌을 자주 행하였다고 보았다.

신채호는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점을 격하게 비판하였다.⁵³⁾ 그는 일반적으로 통일의 영웅으로 찬미되고 숭배되어 왔던 김춘추가 실상은 국가 쇠약의 근원이 된 자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당을 끌어들여 동족의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함으로써 이후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는 선례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채호는

50) 『조선상고사』, 770쪽.

51) 『조선상고사』, 774쪽.

52) 『조선상고사』, 740~741쪽.

53) 金瑛河, 1983,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김영하, 1990, 앞의 책, 40~41쪽.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면서⁵⁴⁾ 고구려의 남진을 삼국 통일을 위한 것으로 풀이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전사 3』에서는 “(4세기 후반) 서쪽 진출과 병행하여 진행한 고구려의 남방진출목적은 무엇보다도 전연을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이 쳐들어 올 때 배후에서 고구려를 위협할 가능성이 짙어진 백제의 책동을 미리 짓부셔버리며 세 나라를 통합하자는 데 있었다”고 고구려 남진의 배경을 설명하였다.⁵⁵⁾ 그리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목적은 “무엇보다도 세 나라 통일의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백제, 신라와의 접촉과 왕래가 더욱 긴밀하고 빈번해졌으며 그것은 삼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공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삼국통일의 기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⁵⁶⁾

『개전사 3』에서의 관련 서술도 대동소이하다.⁵⁷⁾ 다만 <표 3>에 제시하였듯이 제5장의 제목을 ‘겨레와 강토를 통일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활동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F.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삼국통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한 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이미 오래 전에 국토통일을 자기의 중요

54) 신채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삼국시대에 이어 “高句麗가 亡하여 渤海가 되고, 百濟가 亡하여 新羅에 合”한 ‘兩國時代’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이른바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것은 “半邊의인 統一”에 불과한 것이었다(이상 『독사신론』, 336~337쪽). 이에 대해서는 慎鏞廈, 1980, 「申采浩의 讀史新論의 比較分析-1908년경 市民的 近代民族主義史學의 成立」, 『丹齋申采浩와 民族史觀』; 慎鏞廈, 1984,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220~223쪽 참고. 이에 대한 전론으로서 김영하, 1983, 앞의 글이 있다.

55) 『전사 3』, 136쪽. “또한 농업발전에 유리한 지역을 더 많이 차지하며 로동력을 단꺼번에 많이 얻음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도 하였다.

56) 『전사 3』, 150~151쪽.

57) 가령 남진정책의 배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전사 3』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4세기 중엽 백제의 국력이 강화되고 고구려의 남하에 반대하여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야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하였다. 가야계 이주민들의 후예가 형성한 북규수의 왜국도 백제편에 서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개전사 3』, 101쪽).

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을 위한 투쟁은 4세기 70년대까지는 주로 외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남방으로의 진출도 오래전부터 추구하였으며 4세기에 들어와서 고구려는 황해도 일대까지 차지하였다. 370년대에 이르러 고구려가 동쪽의 나라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게 된 조건에서 삼국통일을 위한 남진정책은 고구려의 기본정책으로 되었다.⁵⁸⁾

위에 따르면 삼국 중 삼국통일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였던 나라는 고구려였다고 한다. 고구려의 국토통일정책은 4세기 중반까지는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그것이 일단락된 후에는 삼국통일을 위한 남진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양자를 계기적으로 파악하였다.

또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을 “4세기말-5세기초 남북 두 방면에서 국토 통일과 완정을 위한 투쟁”으로 정리하여 그 통일정책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분명히 하였다.⁵⁹⁾ 아울러 6세기 초엽 고구려가 서남방면으로 진출하여 아산만-금강계선을 확보함으로써 당시 삼국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겨레와 국토의 통일위업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⁶⁰⁾

신채호와 북한학의 역사학계는 삼국통일의 주역으로서 고구려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외족의 국가와 대항하기 위하여 먼저 남방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데, 가령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 삼국의 통

58) 『개전사 3』, 100~101쪽. 이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고구려사 1』, 283쪽과 『개전사 3』, 100쪽). 그런데 김정일은 이미 1960년 10월 29일에 발표한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에서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즐거운 투쟁을 벌려온 나라는 고구려”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김정일의 이 글에 대해서는 현명호, 1990, 『우리민족의 첫 통일국가 형성문제에 대한 연구』, 3~5쪽과 164~165쪽 참고.

59) 『개전사 3』, 105~115쪽.

60) 『개전사 3』, 157~159쪽.

합을 꾀하였던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되었다.⁶¹⁾ 이 점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고, 외세를 끌어들이 김춘추를 맹비난하였던 신채호의 인식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단 신채호에 비해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삼국통일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고조선 옛 영역의 회복에 이은 민족통일 사업으로 계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3_ 민족보위

신채호는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중시하였다. 그는 대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신채호

〈표 4〉 『조선상고사』 제10편 高句麗 對唐戰役의 구성

장	절
제1장 淵蓋蘇文의 西遊와 그 革命	1. 淵蓋蘇文의 出生과 그 少年의 西遊
	2. 淵蓋蘇文 歸國後의 内外情形
	3. 淵蓋蘇文의 革命과 大屠殺
	4. 淵蓋蘇文의 對唐政策
제2장 遼水戰役	
제3장 安市戰役	1. 安市戰役前 彼此의 交渉과 衝突
	2. 唐太宗의 戰略과 侵入의 路線
	3. 淵蓋蘇文의 防禦 兼 進攻의 戰略
	4. 上谷의 火燭과 唐太宗의 敗走
	5. 唐太宗이 毒箭에 죽음과 淵蓋蘇文의 征唐
	6. 淵蓋蘇文의 事蹟에 關한 誣錄
	7. 淵蓋蘇文이 死年의 差誤 十年
	8. 淵蓋蘇文의 功業의 略評

61) 『전사 3』, 150쪽; 宋基豪, 1991, 「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 『북한의 고대사연구』(역사학회 편), 172~173쪽.

는 1908년 『을지문덕전』을 지은 바 있었다. 『독사신론』에서는 연개소문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我東 四千載 以來로 第壹指를 可屈할 英雄”이라고 칭하고, 그를 피터대제, 나폴레옹, 크롬웰에 비겼다.⁶²⁾ 당과의 전쟁을 다룬 『조선상고사』 제10편의 상세 목차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제1장은 연개소문의 출생으로부터 대당 강경정책을 다룬 것으로 대당전쟁의 前史라고 할 수 있다. 제2장과 제3장의 제1절~제5절에서는 연개소문이 이끈 대당전쟁을 다루었다. 제3장의 제6·7절은 연개소문의 생애와 업적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신채호의 해명이다. 제8절은 연개소문의 공적에 대한 신채호의 결론이다. 이상을 보면 제10편은 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개소문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채호가 대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연개소문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G. 後來 新羅가 唐에 亡치 안코 그 區區한 半獨立이나마 가지고 온 것은, 高句麗의 多年 堅忍한 抵抗과 淵蓋蘇文의 猛烈한 進攻이 잇던 까닭이니, 만일 高句麗가 隋에 亡하였더라면 百濟나 新羅가 다 隋의 郡縣이 되고 말았을 뿐이 아니냐. 그럼으로 우리가 古史를 읽을 때에 新羅 百濟의 隋에 請援한 事實을 보고 책을 물니고 한숨을 지게 되는 것이라.⁶³⁾

위에서 신채호는 고구려가 수의 침입을 막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⁶⁴⁾ 고구려가 수로부터 백제와 신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런 까닭에 신라와 백제가 수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치기를 청하였던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는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화하였음을 민족사적인

62) 『독사신론』, 332쪽.

63) 『조선상고사』, 771쪽.

64) G에서 신채호는 신라가 반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당의 침입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이 당을 맹렬히 공격하였던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신라가 협조하였고, 당이 그 공로를 인정해 신라를 속국화하지 않았다는 파악이라고 보인다.

입장에서 해석해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사 3』과 『개전사 3』의 수·당 전쟁에 대한 서술에서도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이 중시되었다. 가령 두 책에는 두 사람의 초상이 실려 있다.⁶⁵⁾ 이는 두 책에서 유일한 배려이며, 고증세사 부분 전체를 놓고 보아도 특례라고 평가되고 있다.⁶⁶⁾ 단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투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신채호와와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전사 3』에는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 승리가 갖는 민족사적 의의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⁶⁷⁾ 『개전사 3』에서는 “고구려인민들은 기원전 2세기 말 이후 외래침략세력의 거듭되는 침공을 물리치고 전 민족적 범위에서 국토와 겨레를 보위하는 방패의 역할을 담당”⁶⁸⁾하였다고 하여 수·당 전쟁의 승리도 이러한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 된다.

한편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 승리가 갖는 민족사적 의의를 좀 더 분명히 한 예도 찾을 수 있다. 가령 “고구려 자체도 튼튼히 지켜냈으며 더 나아가서 신라와 백제의 안전”을 지켜 주었으며, 서쪽과 북쪽에서 침입하는 침략세력을 막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위해서도 튼튼한 방파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⁶⁹⁾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H.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비단 자기

65) 『전사 3』, 245쪽과 263쪽. 『개전사 3』, 231쪽과 248쪽.

66) 이강래, 1994, 앞의 글, 320쪽. 이와 아울러 “연개소문은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구려 인민들을 고무하였으며 자주적 립장에 선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자체 역량에 의거하여 3국 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인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다”라는 평을 소개해둔다. 김세익, 1965, 「연개소문의 정치, 군사 활동」, 『력사과학』 1965년 제1호, 16쪽.

67) 손영종·박영해, 1987, 『조선통사』(상)의 해당 부분도 역시 그러하다.

68) 『개전사 3』 9쪽.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고구려사 1』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앞의 B-1을 보라.

69) 전준현,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1995, 동 영인 『조선민족의 반침략 투쟁사-고조선·발해편』, 242쪽.

나라의 자주권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등 온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백제와 신라가 수, 당나라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음이 없이 오래 동안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구려인민들이 북방에서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놀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온 겨레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전이었다.⁷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채호와 북한의 역사학계는 수·당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수·당에 대한 투쟁의 주체로서 인민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북한 학계의 입장으로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당 전쟁에서의 승리는 동족의 국가 백제·신라를 보호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70) 전동철, 2004,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몰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인 조국방위항전」,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고구려연구재단 편), 119쪽. 이와 비슷한 평가는 각종의 한국사 개설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정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이러한 인식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임지현은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6, 120쪽에서 고대에 민족체의 형성조차 유동적인 상황에서 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외세에 대한 민족항쟁의 관점에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성시는 국정의 국사 교과서에 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관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 우리 민족을 중국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백제·신라·가야·발해 등을 모두 동일 민족의 국가로 취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02, 「한·일 역사교과서의 고대사서술을 둘러싸고」, 『지역과 역사의 투쟁』(역사 리포트 1, 2002년 당대비평 특별호), 140~141쪽.

Ⅳ. 맺음말 - 자강과 주체

지금까지 신채호와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을 비교하여 양자가 모두 고구려사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대외투쟁사를 중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외투쟁사의 성격을 살폈는데, 고토회복, 통일지향, 민족보위라는 관점의 측면에서 양자의 견해가 서로 통하는 예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고대사 체계나 인식이 신채호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이는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은 신채호에 기초하면서 그것을 변용 혹은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5년 말부터 ‘주체’의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1962년 ‘주체사상’으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역사학계도 ‘주체적 역사관’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역사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였던 신채호를 주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아마도 ‘주체’가 강조되면서 신채호의 영향력은 더 커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의 하나가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신채호가 고구려사를 중시하였던 것은 역사민족주의에 기초한 自强思想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⁷²⁾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00년대 신채호는 優勝劣敗, 適者生存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중국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외부의 세력과 투쟁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이른바 外競爭力을 크게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대외투쟁사를 중시하였다. 신채호는 이를 통해 애국심을 북돋아 亡國을 막고, 나아가 조선 독립의 소망을

71) 조인성, 2007, 앞의 글, 208~216쪽.

72) 이만열, 1980, 「단재사학의 배경」, 『韓國史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 이만열, 2007, 앞의 책, 342쪽, 394~395쪽.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다.

북한에서 고구려의 대외투쟁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자주성의 실현’을 중시하는 ‘주체사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자주성의 실현은 다시 계급적 자주성과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계급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후자는 민족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 곧 반침략투쟁을 가리킨다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사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주체성의 제고를 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⁷³⁾ 이를 통해 미국·일본과 같은 ‘신제국주의 세력’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그에 ‘의지하고 있는’ 동족의 국가 ‘남조선’의 해방(통일)에 대한 과업을 일깨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대외관계에 대한 투쟁적 시각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적 반제투쟁’이라는 현재적 관점이 과거에 적극 투영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술의 분위기에서 고구려와 대결한 수·당 세력을 오늘날 ‘신식민제국주의 세력’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⁷⁴⁾

73) 박경철, 1996, 앞의 글, 510~512쪽.

74) 전호태, 1990, 앞의 글, 113~114쪽과 이강래, 1994, 앞의 글, 305쪽.

참고문헌

- 琴京淑, 1994, 「北韓의 高句麗史 認識」, 『北韓研究』 15.
- 김세익, 1965, 「연개소문의 정치, 군사 활동」, 『력사과학』 1965년 제 1호.
- 金瑛河, 1983,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 2007, 『新羅中代 社會研究』, 일지사.
- 김영하, 1990, 「후기신라와 발해의 성립」,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한길사.
- 金貞培, 1986, 「丹齋의 史學과 北韓의 古代史」,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螢雪 出版社.
- 김정배 엮음, 1991,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I)·(II)- 연구성과와 평가』, 대륙연구소 출판부.
- 김정배 편, 1994,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 대륙研究所.
- 박경철, 1996, 「最近 北韓學界의 高句麗史研究動向에 關한 小考 : 그 認識視點에 對한 批判的 檢討」, 『白山學報』 46.
- 朴性鳳, 1979, 「北韓의 高句麗史 敘述」, 『北韓學報』 3.
- 朴性鳳, 1983, 「〈조선전사〉에 나타난 古代史觀 批判」, 『統一論叢』 3-2, 국토통일원.
- 朴性鳳, 1990, 「北韓의 高句麗史 研究動向과 特性」, 『東方學志』 65.
- 손영중·박영해, 1987, 『조선통사』 (상), 사회과학출판사.
- 손영중, 1990, 『고구려사 1』 ; 1997, 동 2 ; 1999, 동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 2007, 동 2 ; 2008 동 3 ; 2008, 동 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宋基豪, 1991, 「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 『北韓의 古代史研究』 (歷史學會 編), 一潮閣.
- 慎鏞廈, 1980, 「申采浩의 讀史新論의 比較分析-1908년경 市民的 近代民族主義史學의 成立」, 『丹齋申采浩와 民族史觀』, 螢雪出版社.
- 慎鏞廈, 1984,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 申采浩, 「讀史新論」, 『大韓每日申報』, 1908.8.27~12.13 연재 ;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 신채호전집 제3권 역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申采浩, 「朝鮮史」, 『朝鮮日報』, 1931.6.10~10.14 연재 ; 동 개제, 『朝鮮上古史』 ; 단재 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 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 申澁植, 1993, 「北韓의 「고구려사」(『조선전사』 3)의 分析和 批判」, 『東方學志』 81.
- 신형식, 1995, 「손영종 저 『고구려사』 (1)의 分析和 批判」, 『國史館論叢』 62.
- 신형식, 2000, 「손영종 저 『고구려사』 (2)의 분석과 비판」, 『慶北史學』 23.
- 歷史學會 編, 1991,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 이강래, 1994, 「대 이민족 투쟁과 애국심의 문제-고구려를 중심으로」,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 대륙研究所.
- 李基東, 1989, 「북한 역사학의 특성과 고대사 서술」, 『문학과 사회』 5.
- 이기동, 1991, 「북한에서의 韓國古代史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北韓의 韓國學 연구성과 분석(역사·예술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기동, 1999, 『전환기의 韓國史學』, 一潮閣.
- 이기동, 1999, 「北韓에서의 高句麗史 연구의 現단계-孫永鍾 著 《고구려사》를 읽고」, 『東國史學』 33.
- 李萬烈, 1974, 「17~1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0.
- 李萬烈,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 李萬烈, 1977, 「丹齋 申采浩의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5 ;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 이만열, 1980, 「단재사학의 배경」, 『韓國史學』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 李萬烈, 1990,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研究』, 文學과 知性社.
- 이성시, 2002, 「한·일 역사교과서의 고대사서술을 둘러싸고」, 『기억과 역사의 투쟁』 (역사 리포트 1, 2002년 당대비평 특별호).
- 李成制, 2004, 「北韓의 高句麗史 연구와 역사인식-孫永鍾 교수의 최근 저술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8.
- 임지현,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6.
- 전동철, 2004, 「수·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인 조국방위항전」, 고구려연구재단 편,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 전준현,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 1995, 동 영인, 민족문화사.
- 전호태, 1990,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Ⅰ]』, 한길사.

- 전호태, 1997,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관」, 『한국사 시민강좌』 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 (상), 과학원출판사.
-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출판사.
-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조인성, 2007, 「남북국시대론-1960년대 초 북한의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7.
- 하일식, 1993, 「신채호-투쟁에 살다간 민족주의자」, 『역사비평』 1993년 봄.
- 하일식, 1998,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 한강휘, 2008, 「신채호의 고구려력사연구에 대한 몇가지 고찰」, 『력사과학』, 주체 97(2008)년 제2호(루계 제206호).
- 『朝鮮新報』, 2005년 4월 18일 ; 『기호일보』, 2005년 4월 18일.

[ABSTRACT]

Shin Chae Ho's understanding of Koguryo History and It's Influence upon North Korea

Cho, Insung

Shin Chae Ho regarded Koguryo history as a mainstream in Korean ancient history, we can find the same kind of understanding in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history is influenced by Shin Chae Ho, so I compared Shin Chae Ho and North Korea's view of point of Koguryo history. They are similar in these points ;

① They highly estima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peoples which surrounded Koguryo, and its victory.

② They thought that Koguryo was a real descendant of Tangun Chosun (or Old Chosun) and interpre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as the fighting for getting the loosed territories of Tangun Chosun.

③ They thought that King Changsu's southward policy as a policy for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④ They thought that Koguryo's fighting with Sui and Tang Dynasty was the effort to protect Korean nation.

I concluded that these similarities in views means that North Korea, which have put greater importance on the Juche Ideology since 1960s, adopted the Shin Chae Ho's understanding of Koguryo History who was a eminent nationalist-historian in modern Korea.

keywords

Shin Chae Ho, North Korea, Koguryo History, the Juche Ideology



조선 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이철성 |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머리말

義州의 九龍淵 나루에서 鴨綠江을 건너 九連城-湯站-柵門에 이르는 약 120여 리는 조선 후기 朝鮮과 淸을 잇는 外交上 幹線道路이자 歷史·文化의 漸移地帶였다. 淸朝는 인조 22년(1644) 入關한 이후, 明朝와는 달리 그들의 발상지의 移住와 耕作을 제한하는 封禁政策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緩衝地帶·無人地帶·空曠地帶·間曠地帶·甌脫地帶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封禁地帶가 설정되었다.¹⁾

봉금지대는 조선 전기부터 明朝와의 越境 및 女眞 문제와 더불어 영토 인

1) 본고에서는 淸朝의 봉금지책으로 이주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란 점을 강조하여 封禁地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봉금지책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 대해서는 金慧子, 1982,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研究」, 『梨大史苑』 18·19집; 金旻春, 1987, 「韓·淸國境問題의 一視點-犯越을 중심으로」, 『慶州史學』 6; 張存武, 1987,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秋月望, 1983, 「鴨綠江北岸의 統巡會哨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1 등이 참조된다.

식상의 차이를 노정해 온 분쟁지역이었는데,²⁾ 淸朝 역시 柳條邊을 확대하면서 무인화정책을 유지하였다. 봉금지대는 이 유조변 바깥쪽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 韓·中間의 國境으로 굳어진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滿洲 지역과 대략 일치하며, 1860년대 이 지역으로의 移住가 사실상 인정될 때까지 존속하였다.³⁾ 까닭에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인식,⁴⁾ 국경무역,⁵⁾ 범월 문제⁶⁾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으로 변경지역을 다루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⁷⁾ 이 중에는 華夷秩序하에서의 만주 지역 지배와 중국과 조선의 인식을 대비해 보려는 연구, 역사 속의 ‘중심과 변경’이라는 시각에서 변경 주민들의 생활과 경험을 고찰해 보려는 연구 등 국경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발표되었다.⁸⁾ 그런데 이들 연구는

2) 남의현, 2008, 「明代 遼東政策의 性格」,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경인문화사; 유재춘, 2008, 「15세기 전후 조선의 北邊 兩江地帶 인식과 영토문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경인문화사.

3) 『安東縣志』 권1 地理 山脈(『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16);秋月望, 1983, 앞의 글;崔熙在, 2004, 「光緒初 淸朝의 滿洲開發과 中韓關係의 再調整」, 『東洋學』 35 참조.

4) 梁泰鎮, 1990, 『韓國邊境史研究』, 法經出版社; 김득황, 1993, 「조선의 북방강계에 관하여」, 『백산학보』 41; 李花子, 2008, 『朝鮮國境問題研究』, 集文堂 참조.

5) 이철성,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유승주·이철성, 2002,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고승희, 2003, 「19세기 후반 함경도 육진과 만주지역 교역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5; 고승희, 2005,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8 참조.

6) 김혜자, 1982, 앞의 글; 김정춘, 1987, 앞의 글.

7)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동향은 김춘선, 2002,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참조. 최근 동북변방에 대한 중국의 연구결과는 馬大正 主編, 2003, 『中國邊疆經略史』, 中州古籍出版社; 馬大正·劉澐, 조세현 옮김, 2004, 『중국의 국경·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馬大正 주편, 이영옥 옮김, 2004, 『중국의 동북변방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8) 김현영, 2004, 「조선후기 朝·淸邊境의 인구와 국경인식」, 『한국사론』 41; 박선영, 2003, 「국민국가·경계·민족-근대중국의 국경의식을 통해 본 국민국가 형성과 과제」, 『동양사학연구』 81; 박선영, 2004, 「중국학계의 조선과 청조간 국경영토 논리와 그 한계」, 『한국사론』 40; 임지현 엮음, 2005,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변경에

주로 조선 후기 두만강과 압록강 上流 對岸지역을 다룬 경우가 많았고, 압록강 下流 對岸地域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⁹⁾

하지만 압록강 下流 對岸의 봉금지대는 19세기 인구 유입의 증가와 청의 외교정책 노선 변경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 봉금지대에 대한 인식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19세기 朝淸間의 領土認識과 領土紛爭의 歷史文化的 배경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¹⁰⁾ 이 지역을 다룬 연대기 자료와 공식기록이 풍부하지 않다는 자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선 사행들이 남긴 연행록은 이 지역을 직접 걸으면서 보고 느낀 견문과 감회를 적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가 된다.¹¹⁾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燕行記錄과 의주부와 中國 측의 地理誌類 그리고 고지도와 각종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의주부 압록강에서 책문까지의 구간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중국의 邊疆을 확대 해석하려는 중국 학계에 대한 학문적 대응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 정혜중, 2006,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양국범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26.

9) 압록강 하류 대안지역을 다룬 연구로는 徐仁範, 2006,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영토분쟁」, 『明清史研究』 26 ; 김경춘, 1985, 「鴨綠江 下流 朝淸國境線形成問題考」,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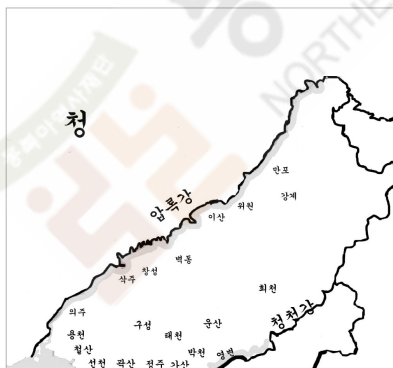
10)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적 인식을 다룬 연구는 충분치 않다. 압록강 하구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다룬 徐仁範, 2006, 앞의 글과 책문 주변의 봉황산을 안시성으로 보는 연행록의 인식을 추적한 이승수, 2006, 「燕行路上的 공간탐색, 鳳凰山城-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2 ; 최남희, 2004, 「고구려 지명 '안시성'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집 등을 대표적 연구로 꼽을 수 있다.

11) 연행록의 문헌학적 의미와 전승 현황에 대해서는 임기중, 2002, 『연행록 연구』, 일지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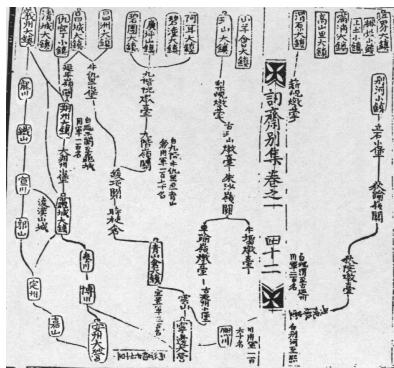
II. 義州府와 鴨綠江의 地理的 特性

義州府는 鴨綠江邊에 위치한 都市로, 對淸外交의 出口이자 국방의 要害處였으며 무역의 거점지였다. 義州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고려 때이다. 고려 예종 12년(1117) 遼나라 자사 常孝孫과 도통 耶律寧이 金의 공격을 받아 도망하면서, 고려 寧德城으로 문서를 보내 압록강 일대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군사가 그곳으로 들어가 무기·돈·곡식 등을 거두어들였는데, 임금이 기뻐하며 義州 방어사를 임명하였다.¹²⁾

이때 백관이 올린 축하 表文에는 “압록강 일대는 신라의 옛 지역으로서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의 관방이었는데, 우리의 일초일목이 다 다시 內地로 들어왔으니 여기에 농업을 장려하고 국토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¹³⁾라고 하여 이 지역 회복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의주라는 지명의 시작은 고려 때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領土의 開拓’이 아닌 ‘故土의 回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 1〉 강변 7읍 위치도



〈지도 2〉 평안도 주요 관방(崔暉, 『인재집』)

12) 『高麗史』 권14, 世家 14 睿宗 12년 3월 신묘.

13) 『고려사』 권14, 세가 14 예종 12년 3월 갑오.

고려에서는 원래 이 지역을 龍灣이라고 불렀다.¹⁴⁾ 압록강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이어져 의주의 삼면을 안고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모양이 마치 활을 당긴 것과 같다고 하여 지명에 ‘灣’이 붙었다고 한다.¹⁵⁾ 이처럼 의주는 압록강이 감싸고 바다와 접하는 서쪽 변방에 치우친 도시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의주는 평양·안주·영변·강계 등과 함께 평안도의 大都會로서, 압록강 방어선의 요충지였고 외교사신이 오가는 변화한 곳이었다.

의주의 중심부는 州內面이었는데, 이 주내면 官門에서 다섯 갈래로 큰 길 이 연결되었다.¹⁶⁾ 북쪽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따라 10리를 가면 天然의 해자 압록강이 나왔다.¹⁷⁾ 관문에서 동쪽으로 난 대로를 따라 板幕嶺을 넘으면 삭주였다. 이 길은 압록강을 따라 이어지는 일곱 고을의 방어 요충지 곧 의주·삭주·창성·벽동·이산·위원·강계를 잇는 길이었다.¹⁸⁾ 관문 남쪽 大路는 良策站으로 이어졌고 서쪽 大路는 용천의 船橋까지 연결되는데, 이 길이 철산, 선천, 꾀산, 정주 등으로 이어졌다. 동남쪽으로는 蕨城嶺을 넘어 구성에 이르는 큰 길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주를 찾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쪽의 먼 변방이로되 땅 기운이 상냥하고 산수가 맑고 아름다워 조금도 황량한 느낌이 없다”¹⁹⁾고 하였고, “성 안에는 상점과 민가, 관청과 누각들이 고기비늘과 바둑판처럼 퍼져 있어 그 정연한 규모가 참으로 국경의 관문이다”라고도 평가하였다.²⁰⁾ 조선 후기 의주부는 ‘사람의 목구멍’에 비유될 만큼, 외교·국방·무역의 기능을 아우른 大都會였던 것이다.²¹⁾

14) 『고려사』 권58, 志 12 地理志 3 안북대도호부 의주.

15) 『燕輶直指』(金景善; 순조 32, 1832) 권1 出疆錄 임진년 11월 21일 압록강기.

16) 『輿地圖書』 平安道 義州府; 『龍灣誌』(『조선시대 사찬읍지』 49·50, 한국인문과학원, 1990).

1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3 平安道 義州牧 형승.

18) 이철성, 2002, 「17세기 平安道 ‘江邊7邑’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 13.

19) 『戊午燕行錄』(徐有聞; 정조 22, 1798) 권1 무오년 11월 8일.

20) 『心田稿』(朴思浩; 순조 28, 1828) 燕薊紀程 무자년 11월 15일.

21) 『蕨山紀程』(저자 미상; 순조 3년 1803) 권1 출성 계해년 11월 12일.

의주를 감싸고 도는 鴨綠江은 그 강물이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달리 淸河江이라고도 불렸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말들도 은근히 트집을 잡는다”는 뜻의 馬訾江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압록강 지역에서는 “옛날 언제부터인가 강 상류에 三頭六臂의 괴물이 살면서 물을 흐렸는데, 백두산의 같은 젓 줄기를 물고 태어난 松花江神, 頭滿江神이 함께 힘을 합쳐 이 괴물을 몰아냄으로써 강물이 다시 맑아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²²⁾ 이 전설은 백두산에서 기원한 압록강의 맑은 물줄기가 송화강·두만강과 함께 이 지역을 살찌워 온 강줄기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아울러 ‘머리 셋에 팔 여섯 달린 괴물’이 압록강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평탄치 않았던 이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하여간 백두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압록강 물줄기는 의주부 북쪽에 이르러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압록강은 “三水, 甲山으로 해서 昌城, 朔州까지는 모두 높은 산과 준험한 고개를 따라 흐르다가, 灣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협곡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흐르면서 그 怒氣를 풀었다”²³⁾라는 말과 같이 의주 경계에 이르러 강줄기가 넓어지면서 몇 갈래 길로 나뉘었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한다. 강에 위치한 크고 작은 島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물에 잠기기도 하고 육지와 연결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의주부 북쪽 경계부터는 강줄기에 따라 그 이름을 구별하여 불렀다. 鴨綠江, 中江, 三江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기록을 남겨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18세기 『여지도서』에서는 의주부 어적도 동쪽에 이르러 물줄기가 세 갈래로 나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갈래는 남쪽으로 흘러 돌아서 구룡연이 되는데 압록강이라 하고, 다른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흘러서 西江이라 하며, 다른 한 갈래는 그 가운데로 흘러 小

22) 한정춘, 2006, 『두만강 압록강류역 지명전설』, 연변인민출판사, 143~145쪽.

23)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1일 압록강기.

西江”이라고 했다.²⁴⁾ 이로써 압록강은 구룡연 쪽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별도로 압록강이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서강은 압록강과 서강 사이에 있는 작은 물줄기로 장마철에는 강이 되지만 渴水期에는 말라 없어진다고 하였다.²⁵⁾ 따라서 소서강은 어적도 서쪽을 지나는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여지도서』에서의 西江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연원직지』에서 압록강은 “馬耳山 밑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 大撡江으로 흘러 麟山鎭 앞 바다로 들어가는데, 三江, 中江은 胡地에 있고, 鴨水는 곧 우리 땅이다”²⁶⁾고 하였다. 이는 압록강을 건너고 다시 中江을 건너면 곧 胡地라는 의미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古地圖上의 강 물줄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三江은 『여지도서』·『해동지도』·『동여도』·『龍灣地圖』²⁷⁾에서 보는 바와 같이 愛刺河, 즉 狹江 부근에 공통적으로 표기되어 쉽게 분간된다. 그런데 고지도 상의 中江은 지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즉 『여지도서』와 『동여도』는 중강을 서로 다른 곳에 표시하고 있으며, 강 가운데 섬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정약용은 “압록강의 물줄기가 갈라져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압록수라 하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서강이라 하는데 이를 中江互市處”라고 했다.²⁸⁾ 즉 西江과 中江은 같은 물줄기였던 것이다.

또한 “압록강은 검동도에 이르러 다시 하나로 합해지는데 蘭子島는 그 남쪽에 있고, 검동도는 체자도라고도 하였다.”²⁹⁾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여지도

24)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산천 압록강.

25)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지 권5 대동수경 1;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1일.

26) 『燕途紀行』(인평대군; 효종 7, 1656) 상 병신 8월 21일.

27) 『龍灣地圖』, 作者未詳, 年代未詳,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02-8].

28)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지 권5 대동수경 1. 한편 중강개시가 이루어졌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朱相吉, 2008, 『朝鮮後期 朝·淸邊市貿易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78~84쪽.

29)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지 권5 대동수경 1.

〈표 1〉 압록강 중 도서 일람표

연번	이름	위치(리)	둘레(리)	파수	비고
1	어적도	관아 북 7리	17	6	
2	검동도	관아 서 5리	15	6	〈도강루트〉, 일명 체자도, 삼씨량 위치
3	위화도	검동도 아래	40		
4	난자도	위화도 북쪽	25	7	관아 서남쪽 10리
5	금창도	관아 북 25			일명 수구도
6	구리도	관아 동북 9리	18	5	금창도 아래
7	소구리도	구리도 서			
8	소도	소구리도 아래			
9	대승아도	어적도 서	10		
10	소승아도	대승아도 아래			
11	노도	관아 서남 5리	2		
12	조물정도	관아 서남 7리	20		노도와 같은 섬처럼 보임
13	다지도	관아 서남 20리	6		노도 남쪽
14	원만도	관아 서쪽 25	3		다지도 남쪽
15	신도	관아 서남 25	8	2	원만도 남쪽/위화도로 파수변경(19세기)
16	마도	관아 서남 20리	13	5	다지도 서쪽/위화도로 파수변경(19세기)
17	임도	관아 서남 25리	4	1	마도 남쪽/위화도로 파수변경(19세기)
18	최복도	관아 서남 20리			다지도 남쪽
19	대상도	관아 서남 27리	7		위화도 서쪽
20	소상도				대상도에 붙어 있다
21	추도	관아 서남 30리	7		위화도 서상도 남쪽
22	유도	관아 서남 40리			인산진 북쪽

※ 자료 : 『輿地圖書』, 평안도, 의주부 및 『龍灣誌』(1768, 영조 44 · 1849, 헌종 15).

※ 주 : 음영은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지도에서 확인되는 섬이다.

에 따라 於赤洲 혹은 江心沱라고도 했다.³⁰⁾ 검동도와 난자도는 선조 38년(1605) 명나라와 조선이 경계를 구분한다는 비석과 연관된 섬이었다.³¹⁾

이로 미루어 보면 고지도에 표시된 島嶼는 모두 조선이 관할하는 섬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여지도서』와 『龍灣誌』의 島嶼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1>은 『용만지』에 나타나는 의주부 관할의 압록강 도서 22개의 섬을 정리한 것인데,³²⁾ 이것을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와 비교해 보면 그중 15개의 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여지도서』 단계에서는 於赤島에 6군데, 黔同島 6군데, 蘭子島 7군데, 九里島 5군데, 新島 2군데, 麻島 5군데, 任島 1군데를 비롯하여, 의주부 각 鎭堡에 모두 54개의 강변 把守處가 설치되어 있었다.³³⁾ 그리고 그 파수처에는 장 1명, 졸 2명 등 3명이 5일씩 번갈아 근무하면서 1년 내내 상시 운영되고 있었다.³⁴⁾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주부 주내면에 속한 蘭子島里, 多智島里, 黔同島里, 麻島里에는 131호에 501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어적도에는

<표 2> 『여지도서』 의주부 방리조 인구

	호구	남	여	인구 총계
난자도리	46	97	75	172
다지도리	38	81	72	153
검동도리	17	33	26	59
마도리	30	53	64	117
합계	131	264	237	501

※ 자료 : 『여지도서』 의주부 방리.

30) 『與猶堂全書』 地理集 권6 大東水經 其二 靈河水.

31) 『선조실록』 권194, 선조 38년 12월 갑인 ;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산천 압록강.

32) 『龍灣誌』(1768, 영조 44 · 1849, 헌종 15).

33) 이철성, 2002, 앞의 글, 315~317쪽. 조선 후기 북방 방어체제는 영조대에 기본 틀이 완성된 것으로,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석화, 2004,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34) 『용만지』(1768, 영조 44), 附 把守.

60여 日耕의 밭이 있었고, 검동도와 위화도는 모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여 사람들이 토지를 개간하며 살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鴨綠江中에 있는 섬의 대부분이 개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18세기 후반에도 계속되었는데, 의주부 전체의 屯田 430여 日耕 가운데 州內面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 그 중 96%가 어적도, 마도, 임도 등 주내면 관할의 섬에 있었다.³⁵⁾

이상에서 검동도와 어적도를 포함하여 중강을 건너기 이전에 있는 크고 작은 섬은 모두 조선이 관할하던 지역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중강은 『여지도서』에 표시된 것처럼 어적도와 검동도 서쪽 편의 마이산 밑을 흐르는 물줄기로서, 중강을 건너면 胡地라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청조의 봉금정책으로 압록강 對岸에서의 조선인의 경작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강을 건너기 이전에 있는 鴨綠江上의 크고 작은 섬은 모두 조선의 관할 지역이었다. 이에 의주부 강변부터 어적도와 검동도를 포함한 섬에는 조선의 파수처가 설치되어 1년 내내 인구가 상주하였고,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삶의 무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압록강 건너 봉금시대에는 어떠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명해 보도록 하겠다.

Ⅲ. 渡江과 使行路上의 歷史認識

1. 압록강 渡江 루트와 방식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공식적 루트는 ‘海東第一關’이라는 현판이 걸린 의주부

35) 박범, 2009, 「18세기 후반 의주부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조.

南門을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남문에서 4~5리쯤 가면 압록 강변에 닿았는데, 이곳에서 다시 九龍亭을 향해 동북쪽으로 3~4리를 더 올라갔다.³⁶⁾ 바로 이 구룡정 벼랑 아래에 九龍淵 나루가 도강의 출발지였다.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과 靜州戶長 金裕幹이 哈丹·指丹의 무리를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으로,³⁷⁾ 압록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깊어졌다.³⁸⁾

그런데 古地圖上의 압록강 도강 루트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지도 4>는 구룡연 나루에서 어적도를 거쳐 중강을 건너는 것으로, <지도 5>는 검동도와 난자도를 거치는 것으로, <지도 6>은 어적도와 대승아도를 거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제작자의 착오와 제작 시기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 압록강을 건너는 일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우선 여름철 강물이 불어나는 계절의 경우를 살펴보자. 압록강을 건너는 날의 일정은 의주부 북쪽의 구룡연에서 구련성까지인데,³⁹⁾ 강물이 불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강을 건너 주기 위한 過涉差員과 越川軍이 각각 임명되었다. 과섭차원은 江南差員과 江北差員으로 구분되었는데, 중강을 건너기 직전까지는 강남차원이 중강 도강부터는 강북차원이 담당하였다.

효종 7년(1656) 여름, 사은사 인평대군은 구룡연에서 큰 배에 올라타고 강북 쪽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중강을 건너고, 삼강의 얇은 여울로 건너가서 구련성 밑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일행 중에는 중강을 건너다가 물결이 급하고 바람이 높아 수십 리를 표류하다가 蘭子島에 정박했는데, 여기서 역류로 배를 이끌고 간신히 강을 건너 날이 저물어서야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다.⁴⁰⁾ 여름철에는 빠른 물살 때문에 도강이 쉽지 않았던

36) 『계산기정』 권1 출성 계해년 11월 16일 ;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산천.

37)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1일 ;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산천.

38) 『燕行日記』(金昌業 ; 속종 38, 1712) 권1 임진년 11월 25일.

39) 『연도기행』 중 병신 8월 22일 ; 『熱河日記』(朴趾源 ; 정조 4, 1780) 도강록 경자년 6월 24일.

40) 『연도기행』 중 병신 8월 22일.

것이다.

정조 4년(1780) 6월 압록강을 건넌 박지원의 일행도 여름철 장마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고생을 겪었다. 일행 중 일부가 빠른 물살에 강 언덕에 내리지 못하고 밑으로 떠내려갔는데, 물살을 거슬러 배를 끌어 올리려 했지만 워낙 물살이 세어서 한 치만큼 전진하면 한 자 가량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압록강과 중강을 건넌 일행은 갈대숲을 헤치고 10리를 가서 三江 곧 愛刺河에 이르렀는데, 그 폭이 우리 임진강과 비슷하다고 하였다.⁴¹⁾ 이처럼 여름철 물이 불어나면 강줄기를 따라 배가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渡江에만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⁴²⁾

한편 압록강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流量이 줄어들었는데, 따뜻한 겨울 날씨에는 강물이 얼어붙지 않는 때도 있었다. 순조 3년(1803) 『薊山紀程』에서는 겨울이었음에도, “압록강의 얼음이 두껍지 않아 그 위에다 바자를 깔고서 건너갔다”고 하였다.⁴³⁾ 순조 28년(1828) 朴思浩는 겨울 “날씨가 몹시 따뜻하여 압록강은 얼음 위를 건너고, 중강·삼강은 越川軍의 도움을 받아 건넜다”고 하였다.⁴⁴⁾

철종 6년(1855) 徐慶淳은 “내가 곧 보교를 타고 재촉하여 강을 건너게 하였는데, 강물이 얇고 좁아서 교군이 바지를 건너붙이고 물을 건너니 겨우 복사뼈만 잠긴다. 중강은 배로 건너고 삼강에서는 또 걸어 올리고 건넜다”고 하였다.⁴⁵⁾ 이처럼 겨울철에는 강물이 현저히 줄어 강물이 발목을 넘지 않았고, 날씨에 따라 도보 혹은 배를 사용하여 도강하였다.

하지만 숙종 38년(1712) 강물이 퐁퐁 얼어붙는 추위에 압록강을 건넌 김창업과 최덕중은 얼음 위를 썰매로 건넜다고 하였다.⁴⁶⁾ 서유문은 “압록강이 세

41) 『열하일기』 도강록 경자년 6월 24일.

42) 『赴燕日記』(저자미상; 순조 28년, 1828) 往還日記 무자년 5월 9일.

43) 『계산기정』 권1 출성 계해년 11월 16일.

44) 『심전고』 연계기정 무자년 11월 25일.

45) 『夢經堂日史』(徐慶淳; 철종 6, 1855) 馬警軫征紀 을묘년 10월 27일.

46) 『燕行錄』(崔德中; 숙종 38, 1712), 일기 임진년 11월 26일; 『연행일기』 권1, 임진년(숙종 38, 1712) 11월 26일.

가닥으로 나뉘어 이를三江이라 하는데,⁴⁷⁾ 이 세 강의 얼음이 두꺼워 여러 자가 되고 눈이 쌓였는지라, 말을 몰아 건너가니 강인 줄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⁴⁸⁾ 추위에 강물이 얼어붙으면 얼음을 밟고 육지처럼 지나갔던 것이다.

中江을 건너면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갈대밭이 이어졌고, 가끔 老木의 가지에 의관이 걸리는 황량한 지역의 조그만 길을 따라가야 했다. 땅은 모두 검은 모래이고 중간에는 습한 곳도 있었다. 이에 조선 후기 대부분의 연행록에는 하루 종일 가는 길이 모두 거친 들판과 황폐한 들뿐이요, 보이는 것은 모두 쓸쓸한 것뿐이라고 적었다.⁴⁹⁾

어떻든 압록강, 중강, 삼강을 건넌 후에는 고목이 숲을 이루었고, 이 숲을 뚫고 나가서 황량한 들판을 지나 20리쯤 가면 구련성에 이르렀다.⁵⁰⁾ 조선에서는 구련성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이 길을 북방의 군사 침입의 가능성이 있는 賊路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18세기 의주부에는 청수진, 청성진, 방산진, 옥강진, 수구진, 건천보를 비롯한 8개의 鎭을 구축하고 적의 침입에 대비했는데,⁵¹⁾ 검동도로 들어오는 전진 기지가 구련성이었다.⁵²⁾

그런데 이 구련성에서 봉황성의 책문까지는 조선과 청국을 잇는 외교·경제·문화교류의 루트였다. 이 길이 이른바 봉금지역 사행로인데, 無人之境이기 때문에 노숙하며 오가야만 하는 황폐한 곳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낯설거나 이국의 풍취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었다.

47) 이때의 三江은 압록강, 중강, 삼강을 일컫는다.

48)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 11월 19일.

49) 『연행록』 일기 임진년(숙종 38, 1712) 11월 26일; 『陶谷集』 雜識 庚子燕行雜識(李宜顯; 숙종 46, 1720) 상; 『燕行記事』(이압; 정조 1, 1777) 상 정유년 11월 26일.

50) 『부연일기』 왕환일기 무자년 5월 9일; 『연행록』 일기 임진년 11월 26일.

51) 『여지도서』에는 평안도 의주부에서는 청수진 국경 너머에는 小老土洞·大老土洞·麻田洞·家庄洞·山靑洞 다섯 洞에서 오는 賊路가 있으며, 청성진 국경 너머에는 金哥洞·甘昌洞 두 洞에서 오는 길이, 방산진 국경 너머에는 孫雲梁洞에서 오는 길이, 옥강진 국경 너머에는 辛後水洞에서 오는 길이, 수구진 국경 너머에는 金昌洞에서 오는 길이, 건천보 국경 너머에는 大猴洞에서 오는 길이, 그리고 검동도 국경 너머에는 九連城에서 오는 길이 있다고 하였다.

52) 이철성, 2002, 앞의 글, 316쪽.

2_ 山川認識과 自國史認識

압록강을 넘어 구련성-탕참-책문을 왕래하는 길을 중국에서는 조선이 入貢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入貢之道 곧 ‘貢道’라고 불렀다. 貢道는 규정상으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이 길을 명확히 고증하여 밝히기는 어렵다.⁵³⁾ 하지만 조선의 『通文館志』와 중국의 『安東縣志』로 그 대략을 가늠할 수 있다.⁵⁴⁾

〈표 3〉은 『通文館志』와 조선 후기 연행록에 의거하여, 압록강-봉황성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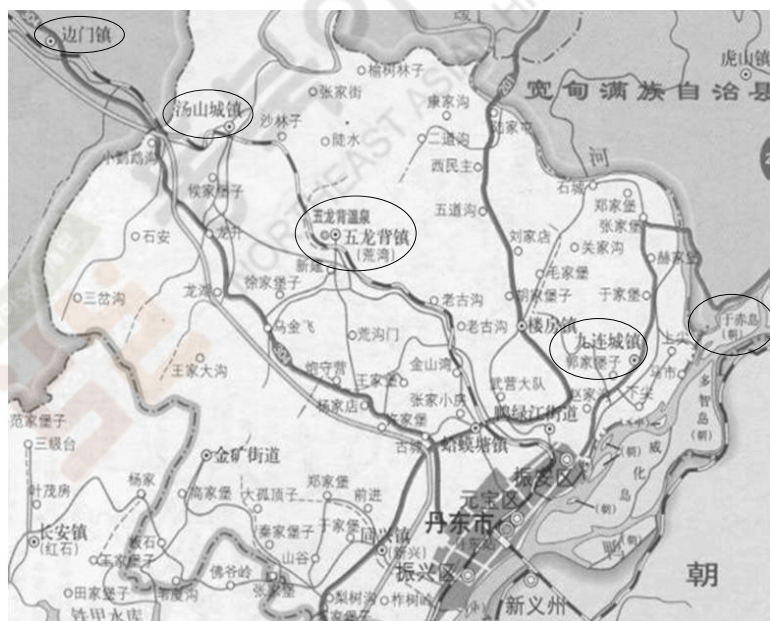
- 53) 도로의 폭이 10里였다는 기록도 있다. 光緒 初年(1875~)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여 10丈 정도의 폭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中日戰爭으로 조선이 연행사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이 길은 마침내 폐지되고 부근의 家戶들이 침탈하여 간신히 몇 丈 혹은 수 尺의 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록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다. (『安東縣志』 권1, 지리 도로).
- 54) 『통문관지』 권3 事大「中原進貢路程」; 『안동현지』 권1, 지리 도로.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연행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명을 비정하기 위해 1920년대 안동현의 행정구획 중 공도를 따라 존재했던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區	主村	公所 距離	附屬村		太湖村	15	碑礪子, 烏草溝, 東陡坎子, 西陡坎子, 大房身
제1구 : 구련성	太平村	6	珍珠泡, 土燕窩, 老龍頭, 南臺子, 年家堡	제3구 : 오룡배	老古村	15	尖頂子溝, 獨木橋, 簫祿溝, 業硃圈
	九連城村		官街, 小關家溝, 後溝, 橫道河, 孔家堡, 轉山子		小金山村	10	雙嶺子, 小金山灣, 石橋子, 金家溝
	蠶河村	5	中江臺, 蠶河下尖		大金山村	15	大黑溝, 偏坎子, 蠶場溝, 石展子岡
	虎山村	20	三道溝, 老邊牆, 豺狼溝, 二回來溝, 高力道溝, 礪子溝		烏金村	8	外五龍背, 孫家堡, 張大窩柵
	石城村	20	大葦子溝, 小葦小溝, 灣溝子, 青溝, 釣魚臺, 塘子溝, 礪臺頂, 榆樹溝, 馬溝		三級村	35	業茂房, 天橋溝, 葦莎溝, 前小東溝, 小河深溝, 蔣佛爺溝
	紅石村	35	八家子, 轉悠悠, 南北塘, 小孤嶺	제4구 : 탕산성	湯山城村		佛爺溝, 太平山, 沙溝子, 沙林子
제3구 : 오룡배	五龍背		黑嘴子, 產城子溝, 常家溝		榆林村	10	太平溝, 太平甸, 上甸子
					龍泉村	5	三道腰嶺, 關家嶺
					東安村	12	大東溝, 小東溝
					邊門村	20	余屯口, 邊門口
					高橋村	10	高力橋, 鞠家堡, 寺院溝

간의 路程記를 정리한 것이며,⁵⁵⁾ <지도 7>은 이 구간의 路程을 표시한 『동여도』이다. 압록강 도강 이후 구련성에서 노숙을 한 연행사 일행은 다시 탕참에서 하루를 더 노숙 한 뒤 책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 여정에 따라 봉금지대에 대한 조선의 역사·문화적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사신들이 압록강과 중강을 건너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은 마이산 곧 현재 虎山長城 부근이었다. 이곳에서 다시 삼강을 건넜는데,⁵⁶⁾ 이곳부터 책문까지가 바로 봉금지역이었다. 이를 『왕환일기』에서는 “압록강에서 서쪽으로 柵門까지의 120리는 交界가 되는 곳이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산림도 그대로 두어 풀이 한 길이나 자랐고 길을 찾을 수가 없다”⁵⁷⁾고 하여 황량한 지역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인상은 “이따금 산이 굽어 돌고 물이 감아 두른 곳



55) 『계산기정』 권5 부록 도리; 『湛軒書』 外集 권10 燕記 路程; 『부연일기』 노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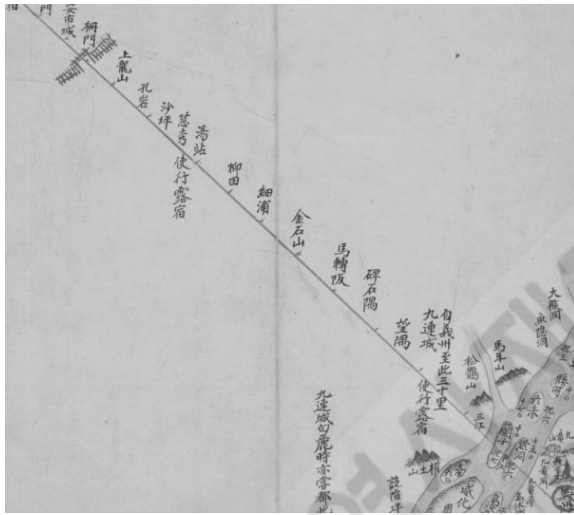
56) 『靑莊館全書』 권66 入燕記 上 정조 2년 4월 12일~15일.

57) 『부연일기』 왕환일기 무자년 5월 9일.

〈표 3〉 연행기록상의 압록강-봉황성 노정

연번	지 명	거리(里)	비 고
1	구룡연	7	
2	압록강(鴨綠江)	5	
3	소서강(小西江)	1	
4	중강(中江)	4	
5	방파포(防陂浦)-삼강(三江)	5	방파포(方坡浦)
6	구련성(九連城)	4	진강부(鎭江府)○ 1참
7	항두하자(恒頭河子)	2	
8	구련성참	4	
9	망우(望隅)	8	
10	자음복(者音卜)	4	하마당
11	비석우(碑石隅)	2	
12	송우(松隅)	3	
13	마전판(馬轉板)	1	사와자(沙窩子)
14	석우(石隅)	5	
15	금석산(金山)	7	
16	중아문(中衙門)	3	질광현(質光峴)
17	탕타자(湯他子)	5	만정평(漫井坪)
18	건포(乾浦)	3	
19	세포(細浦)	7	
20	유진(柳田)	2	
21	탕참(湯站)	9	탕산성(湯山城)○ 2참
22	총수참(蔥秀站)	3	
23	어룡퇴(魚龍堆)	1	지타이(知他爾)
24	차유장항(車踰獐項)	2	사평(沙平)
25	왕팔석(王八石)	10	공암(孔巖)
26	상룡산(上龍山)	3	
27	책문(柵門)	10	
28	안시성(安市城)	5	
29	진평(榛坪)	2	
30	봉지(鳳池)	4	
31	구책문(舊柵門)	3	
32	봉황산(鳳凰山)	12	
33	봉황성	4	

※ 자료 :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계산기정』 권5 부록 도리; 『담헌서』 외집 권10 燕記 路程; 『부연일기』 노정기.



〈지도 7〉 『동여도』 사행 노정

에 개가 짓고 닭이 울어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적지 않다. 산의 기운이 밝고 아름다워서 마치 우리나라의 東郊, 西郊와 같다”⁵⁸⁾고 하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사신들에게 이 지역의 산천 풍경은 故國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구련성을 지나 湯站으로 가는 도중 金石山에 대한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石隅를 지나 7~8리를 들어가면 동산이 연이어 솟았는데, 서로 마주 보는 산을 금석산·松骨山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金山이라고 했는데, 산에 황색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었다.⁵⁹⁾

金石山에 이르니 푸른 벼랑이 높고 험하여 금과 돌이 서로 섞인 듯하며, 크기가 우리나라 冠岳山에 비할 것으로되, 빼어나고 아름답게 빛나기는 관악산보다 더하며, 松鵲山이 금석산 오른쪽에 있어서 수목이 많으니 혹 이르되, “임경업 장군이 의주를 지킬 때에 이 산에 가만히 烽燧軍을 두었다” 하더라.⁶⁰⁾

58) 『연원직지』 권6 留館別錄 天地山川.

59) 『안동현지』 권1 지리 산맥.

60)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 11월 20일.

이처럼 금석산은 우리나라의 관악산과 같다고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도봉산에 비교하는 이도 있었다. 산천에 대한 이질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탕참을 지나 충수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정서가 표출되었다. 충수는 “석벽이 서 있고 샘이 둘러 있는 형상이 마치 우리나라의 平山을 지나는 것과 같았는데, 명나라의 文僖倪謙이 詔勅을 받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산 땅 충수의 수석이 이곳과 유사한 것을 보고 그대로 빌려다가 고장 이름으로 삼았다”⁶¹⁾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산천에 대한 同質性 표출은 곧 이 지역이 역사·문화적으로 異質의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山川에 대한 同質의 感情은 비록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自國史에 대한 회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는 압록강을 건너는 첫 노숙지 九連城부터 발견된다.⁶²⁾ 구련성은 9개의 성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⁶³⁾ 명나라 때의 鎮江堡였다. 그러나 이곳은 고려시대 尹瓘의 9성 개척사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진다.⁶⁴⁾ 물론 윤관의 9성과 구련성은 다른 것이었지만, 金의 幹魯가 고려와 대항하여 쌓은 성이라는 인식은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다.⁶⁵⁾

또한 구련성을 고구려의 國內城 혹은 薊陽城으로 誤認하는 기록도 있다.⁶⁶⁾

61) 『계산기정』 권1 만도 계해년 11월 25일.

62) 노숙의 장소는 압록강을 건너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숙은 구련성터와 탕참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압록강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 좌우되었는데, 『청장관전서』에 따르면 대략 아침 8시에 의주를 출발하여, 12시쯤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였고 오후 4시쯤에는 三江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했으니, 한나절은 족히 걸리는 셈이 된다(『청장관전서』 권66 입연기 상 정조 2년 4월 12일).

63) 『안동현지』 권1 지리 고적 참조. 한편 光緒 8년(고종 19, 1882)에는 예전의 중강개시를 혁파하고 이곳에서 무역을 하였다(『안동현지』 권1 지리 要塞).

64) 『東史綱目』 제8 上 무자년 예종 3년(1108) 3월; 『海東繹史』 권66 本朝 備禦考 6 北憂始末 天啓 5년(인조 10, 1632).

65) 『몽경당일사』 편1 마자인정기 을묘년 10월 27일.

66)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1일 九連城記; 『몽경당일사』 편1 마자인정기

이것 역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나 봉황성과 봉황책문을 고구려 국내성 혹은 안시성이라고 회상하는 기록은 상당히 많이 보인다.⁶⁷⁾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중국의 지방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鳳城縣志』는 “鳳邊門과 靈陽門은 고구려의 莫離支 蓋蘇文 등이 쌓은 문”이라고 하였다.⁶⁸⁾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만큼 조선과 깊은 역사·문화적 관련성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전기 구련성-탕참-책문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실제 의주부 백성들과 이곳 주민들이 농지 경작과 교역을 하였으며, 조선에서는 구련성에 연대를 쌓고 오랑캐들의 불법 경작을 적발 처리하기도 하였다.⁶⁹⁾ 또한 요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던 명청 교체기에 이곳은 후금에 대한 정보수집과 군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지 역할도 수행하였다.⁷⁰⁾

인조 병자년(1636)에 조정은 청나라와 화친의 관계를 끊었다. 忠愍公 임경업은 전쟁이 곧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의주부 人民들과 함께 백마산성에 의지하여 수비했다. 의주 사람 丁大器·文士立·韓景生 등을 보내 松鶴山·鳳凰山 두 산에 몰래 매복하고, 적의 동태를 엿보아 헛불을 들어 서로 알려 주도록 했다. 12월 12일 정대기 등이 과연 불을 올려 급보를 알렸는데, 압록강 북쪽 적의 선봉이 이미 九連城을 지나는데 멀리서 보였다.⁷¹⁾

즉 구련성-송골산-봉황산 구간은 청이 침략해 오는 賊路로서, 압록강 너머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諜報地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⁷²⁾ 또한 구련성과 책문은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을묘년 10월 27일.

67) 이승수, 2006, 앞의 글, 373~380쪽.

68) 『鳳城縣志』 권13, 古蹟, 柵城(『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14).

69) 『稗官雜記』 권1 패관잡기; 『練藜室記述』 별집 권18 邊圉典故 西邊 명종 원년 병오.

70) 『谿谷先生集』 권22, 奏本, 虜情奏本.

71) 『여지도서』 평안도 의주부 신증.

72)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9월 무진.

호위해 간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과⁷³⁾ 청과의 초기 외교적 갈등 관계 속에서 春信使와 秋信使 그리고 외교적 현안을 풀기 위해 파견되었던 술한 인물들에게는 역사적 회한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⁴⁾

요컨대 압록강 對岸에서 책문에 이르는 구간은 無人之境으로, 양국의 交界를 이루었으나, 조선 사람들에게 이곳의 산천은 祖國의 그것과 같다는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회상으로 이어졌고, 중국에는 이 지역이 고구려 이후 自國史의 활동무대였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이곳은 17세기 조청 간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요 외교적 통로로서 애환과 회한이 서린 길이었다. 봉금정책이 시행되던 18세기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무인지대에서 만나는 책문은 조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다가왔을까. 다음 절에서는 봉금지역 설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책문과 책문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柵門의 機能과 柵門村 認識

柵門은 柳條邊의 出入門을 의미하는데, 邊門 혹은 高麗門이라고 불렸다.⁷⁵⁾ 유조변은 淸朝의 중국 동북지방 지배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⁷⁶⁾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조변은 청조의 入關 이후 순치제가 시행한 遼東招民開墾令이 강

73) 『삼국유고』 권13, 神道碑銘, 吏曹判書南公神道碑銘.

74)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9월 정축;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1월 기사;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기유, 을묘;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1월 을미 참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심양생활 및 공녀, 피로인 쇄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中心으로』, 해안 참조.

75)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2일 책문기; 『연행기』.

76) 김현영, 2004, 앞의 글, 11~16쪽; 최소자, 1997,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종원, 1999, 앞의 책 참조.

희제 때 정지되면서, 청조의 발상지인 龍興之地를 보호하는 한편으로 흑룡강 유역으로 남하하는 러시아에도 대비해야 할 목적에서 수축되었다.⁷⁷⁾

유조변은 순치 초년에 정비된 老邊과 강희제 때 쌓은 新邊으로 구분된다. 노변은 동서 양단으로 구성되었는데, 東端은 봉황성 이남 바다에서 시작해 개원 동북의 위원보에 이르렀고, 西端은 위원보에서 시작해 산해관까지 이어졌다. 이 변장은 기본적으로는 명대의 요동변장을 따라 수축한 것으로, 길이가 총 1,950여 리에 달했다. 신변은 개원 위원보에서 동북으로 길쭉 북쪽 양자산까지 뻗었는데⁷⁸⁾ 전장 690여 리로 강희 9년(1670)에서 20년(1681)까지 수축되었다. 이로써 노변 안쪽의 邊內와 노변 동쪽과 신변 남쪽인 邊裏, 신변의 북쪽 바깥쪽인 邊外가 구분되었는데, 이는 광역의 요동을 삼분하여 각 민족의 활동 한계를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⁷⁹⁾

유조변은 버드나무를 꽃아 담장을 만든 형태로 높은 것은 3, 4척이고 낮은 것은 1, 2자였다. 중국의 대나무 울타리와 같지만 그 바깥에 壕를 팠으며, 條子邊이라고 하였다.⁸⁰⁾ <지도 8>은 백두산 정계비 설치 이후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된 관방지도의 하나인 『朝鮮女眞分界圖』인데, 변리 지역 즉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의 봉금지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⁸¹⁾ 이 가운데 노변인 봉황성에서 개원의 위원보까지는 6개의 변문이 있어 성정장군과 영고탑 장군이 지배하는 지역을 分界하였다.⁸²⁾

이 노변 가운데 조선의 압록강 對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은 鳳

77) 『盛京通志』 권23 戶口. 요동 지역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金成俊 編, 『鶴山李仁榮全集』 2卷, 國學資料院, 200~201쪽(李仁榮,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김현영, 2004, 앞의 글,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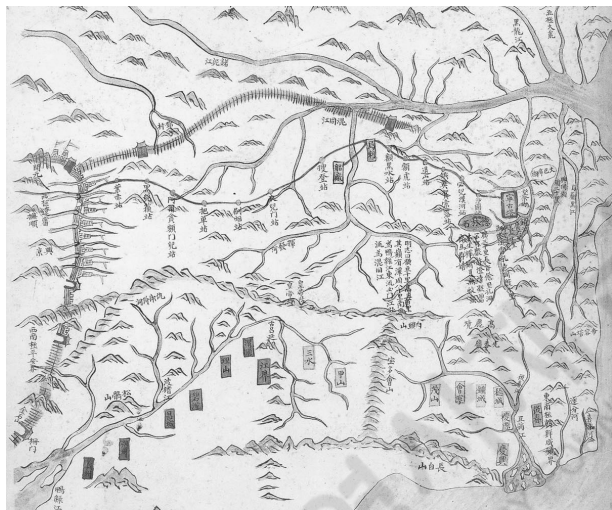
78) 『大清一統志』(曹學閔) 권39 奉天府 古蹟.

79) 김현영, 2004, 앞의 글, 11~16쪽;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567~569쪽.

80) 楊賓, 1936, 『柳邊紀略』 권1, 文殿閣書莊(국립중앙도서관 朝58-57).

81)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94; 박선영, 2004, 「近代 東아시아의 國境認識과 間島-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2.

82) 양빈, 1936, 『유변기략』 권1, 문전각서장(국립중앙도서관 朝58-57).



〈지도 8〉『海東지도』『朝鮮女眞分界圖』

城縣 境界를 따라 300여 리에 걸친 변장으로⁸³⁾ 그 출입문이 鳳凰城 邊門과 애양 변문이었다.⁸⁴⁾ 봉황성 변문은 청나라의 봉황성 소속으로 압록강에서 120리 떨어진 국경 관문이었다.⁸⁵⁾

봉황성 책문은 압록강을 건너 청으로 들어가는 사실상의 국경 관문으로서, 출입국 절차와 세관 통관절차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책문과 책문촌이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그러면 우선 책문은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형태였고, 그 출입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역사·문화 인식은 어떠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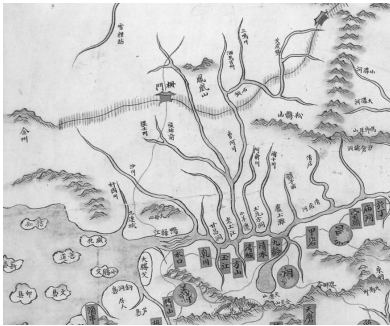
우선 책문은 봉황성에서 10리쯤 떨어진 봉황산 남쪽 기슭에 있었다.⁸⁶⁾ 柵

83) 『鳳城縣志』 권13, 古蹟, 柵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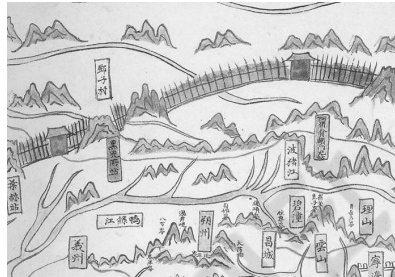
84) 『용만지』에 따르면 鳳凰城에서 叢陽 변문까지는 150리, 城廩 변문까지는 80리, 汪清 변문까지는 200리, 英額 변문까지는 150리, 威遠堡 변문까지는 180리라고 밝혀져 있다(『용만지』(현종 15) 강역).

85)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2일 책문기.

86) 任鴻魁, 2005, 『丹東史迹』, 遼寧民族出版社, 247~253쪽. 현재 단둥과 심양을 잇는 邊門鎮火車站 주변으로 비정된다.



〈지도 9〉『해동지도』 평안도 중 책문



〈지도 10〉『해동지도』 遼 關防圖 중 책문

門은 “판자로 문을 하고 풀로 덮개를 하였다”거나,⁸⁷⁾ “한 길 되는 나무막대기를 벌여 세운 것인데, 버드나무를 꺾어 圃田 울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문 1칸이 우뚝 서 있는데 띠로 덮었다”⁸⁸⁾ “1칸쯤 되는 草屋인데, 두 짝으로 만든 판자문의 높이는 겨우 한 길 남짓 된다”⁸⁹⁾고 한 것으로 미루어, 초옥 형태의 문 1칸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지도 9〉, 〈지도 10〉과 같은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문과 주변의 유조변은 매우 허술하여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남북의 경계를 갈라놓은 정도에 불과했다.⁹⁰⁾ 이에 “木柵이란 것이 마치 우리나라 牧場의 말 우리 같다”거나, “목책 사이로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몰더라도 제지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하였다.⁹¹⁾

그런데 이 책문은 淸初의 그것보다 20리를 조선쪽으로 더 진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도곡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柵門은 鳳凰山 남쪽에 있다. 鳳凰城將이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맡았다. 옛날에는 鴨綠江

87) 『연행기사』 상 정유년 11월 29일.

88) 『부연일기』 왕환일기 무자년 5월 10일.

89) 『몽경당일사』 마자인정기 을묘년 10월 28일.

90) 『연행기사』 상 정유년 11월 29일.

91) 일반적인 연행기록과는 달리 『연원직지』에는 사람이나 말이 드나들 틈이 없다는 기록도 있다(『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2일 책문기). 그러나 이는 경계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한 것일 뿐 실제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과의 거리가 130여 리가 되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는 이것을 20리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것은 비록 봉황성에 사람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압록강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으니 당초에 책문을 설치한 본의는 아니다. 책문 안에는 城將이 사는 집과 酒食을 파는 집이 있다. 民家は 대략 3, 40호가 사는데 모두 풀로 지붕을 덮었다”고 하였다.⁹²⁾ 또한 『연원직지』는 “옛날에는 봉황성 동쪽 5리에 있어 압록강과의 거리가 130여 리였다. 그 땅을 비워 거처하지 않기를 옛적의 완충지대와 같아서, 이쪽이나 저쪽에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강희 때에 봉황성에 인구가 많아지자 그 농토와 牧畜할 땅을 넓히려고 여기에 옮겨 설치하였다”⁹³⁾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청조는 봉금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초 압록강에서 130리 떨어진 곳 즉 봉황성에서 동쪽으로 5리 되는 지점에 책문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강희제 때 봉황성에 인구가 많아지자 그 농토와 목축지를 넓히기 위해 조선 쪽으로 다시 변문을 앞당겨 설치했다.⁹⁴⁾ 이에 淸初에 설치된 것을 舊柵門, 그 후에 설치된 것을 柵門이라고 인식하였다.⁹⁵⁾

그렇다면 이 책문은 누구의 책임하에 어떠한 기능을 했던 것일까. 책문의 출입절차를 통해 책문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 책문은 봉황성장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조선 사람이 이 책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종의 출입국 신고였던 것이다.

조선의 공식 사행 일행 역시 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역관에게 사행 목적과 正官의 명단 및 사행 인원과 말의 수효를 기록한 入柵報單을 책문의 수문장에게 주어 鳳凰城將에게 전달하였다.⁹⁶⁾ 그러면 다음 날 봉황성장이 책문 밖에 나와 영접하고, 입책보단에 실린 사람과 말의 수를 점검한 뒤 들여보냈다.

92) 『도곡집』 잡지 경자연행잡지 상.

93)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임진년 11월 22일 책문기.

94)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8월 신미.

95) 『부연일기』 路程記 무자년 5월 10일.

96) 『심전고』 연계기정 무자년 11월 26일.

그 과정에서 瀋陽의 郎中 한 사람이 물품세를 주관하였고, 門大使 한 사람은 查察과 搜索을 주관하였는데, 오직 나귀나 노새에 한하여 稅를 물게 하고 나머지 물품은 불문에 붙였다.⁹⁷⁾ 이후 사신 일행은 책문 안으로 들어가 봉황성장·受驗通官을 겸하는 門御使·迎送官·歲稅官·通官·章京 등의 청측 관원들과 入柵에 따른 의식을 행하였는데, 조선 사행은 入柵報單을 봉황성장에 내고 人情禮單을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조선에 入柵狀啓를 띄웠다.⁹⁸⁾ 이처럼 책문은 초창 간 출입국 절차와 물품 통관 및 관세를 부과하던 장소였던 것이다.⁹⁹⁾ 아울러 책문은 명청 교체기에는 兩國 간 정치 현안을 풀기 위한 만남의 장소였으며, 조선 사신은 중국의 정보를, 중국 사신은 조선의 정보를 듣는 곳이었다.¹⁰⁰⁾

이렇게 책문을 지나 만나는 첫 마을이 柵門村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이곳부터가 청나라 땅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책문촌은 술집과 찻집의 배치가 조선과 현격히 달랐고, 초옥을 짓는 법과 什器는 물론 민간 풍속에 이르기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¹⁰¹⁾

그러면 책문촌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조선과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숙종 28년(1702) 동지부사 李善溥는 關外の 13참이 17년 전에 비해 사람과 물화가 10배나 증가하였다고 하였다.¹⁰²⁾ 요동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97) 북경에 갔다가 책문에서 돌아 나올 때도 세금을 물어야 했다. 사행이 돌아올 때에는 서적·黑角 등 금지품도 있었지만, 매번 公用銀으로 그들에게 뇌물을 써 왔기 때문에 짐이 나올 때 다만 한두 개의 꾸러미만을 풀어 보아, 금법이 있는 형식만을 보여 줄 뿐이었다고 한다(『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 기략).

98)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 11월 21일.

99) 『현종실록』 권12, 현종 7년 7월 무자;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5월 갑자;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정축; 『담헌서』 외집 권8 燕記 希員外.

100)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1월 병술;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윤11월 정유;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1월 임자;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병자; 『현종실록』 권11, 현종 6년 12월 무진;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갑오.

101) 『부연일기』 왕환일기 무자년 5월 10일.

102) 『숙종실록』 권36, 숙종 28년 3월 기해.

그런 가운데 숙종 38년(1712) 金昌業은 책문 안에는 城將의 처소, 酒食店, 민가를 합쳐 대략 10여 호의 초가가 있다고 했으며, 숙종 46년(1720) 金宜顯은 대략 30~40호의 민가가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 책문촌은 그다지 큰 촌락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조 4년(1780) 박지원은 “책문 안에는 수많은 민가가 번듯하고 네거리가 쪽 곁에 펼쳐져 있으며, 사람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자들이 길에 질편하여, 그 제도가 어디로 보나 시골티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하였다. 이어 박지원은 “책문이 중국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오히려 이렇거늘 앞으로 더욱 변화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한풀 꺾여서 여기서 그만 발길을 돌릴까보다 하는 생각에 온몸이 화끈해진다”고 하였다.¹⁰³⁾

철종 6년(1855) 서경순도 “책문을 볼 때에는 남산골 샌님들의 100냥짜리 草家 같더니, 책문 안 시전을 우리나라 雲鍾街의 六矣廬에 비교하여 보면 10배 100배가 되니,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나 실속은 부자라고 하였다.”¹⁰⁴⁾ 이처럼 책문촌은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민가가 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상가도 한양 운중가의 육의전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이다.¹⁰⁵⁾

그러면 국경의 작은 마을이 이처럼 번성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 사행이 중국으로 갈 때와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올 때, 이곳 책문촌에서 대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¹⁰⁶⁾

홍대용은 “柵門은 변방의 황무하고 궁벽진 지방으로 습속이 유치하고 사나우며 입고 먹는 것을 오로지 朝鮮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이 도착할 때마다 땔나무 같은 모든 물건의 값이 때를 틈타서 마구 뛰어오르고 방세도 매우 비싸게 받는다”¹⁰⁷⁾고 하였다. 그러기에 출입국 관리와 통관 과정을 거친 조

103) 『열하일기』 도강록 경자년 6월 27일.

104) 『몽경당일사』 마자인정기 을묘년 10월 28일.

105) 18세기 후반에는 봉황성 책문은 물론이고 애양책문 밖에도 청인이 개간하여 외교상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다(『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4월 정해).

106) 책문 무역에 대해서는 이철성, 2000, 앞의 책 참조.

107)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기략.

선 사행단과 책문촌 주민의 만남은 서로의 안부와 近況을 나누고 담배도 나누어 줄 정도로 친숙했다.¹⁰⁸⁾

또한 조선 사행이 책문에 오는 때에는 중국 각지의 상인들도 여러 물화를 가지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金州·復州·海州·盖州의 면화, 瀋陽·山東의 大布三升, 中後所·遼東에서 운반해 온 모자를 실은 마차가 폭주하였고, 南方商船도 우가장의 해구를 통해 왔으며, 북경 상인 또한 絲貨를 싣고 책문에 이르렀다.¹⁰⁹⁾ 실제로 김창업은 “몇 리 바깥에서 책문 안을 바라보았을 때 산처럼 쌓아 놓은 흰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씨를 뺀 면화였다. 그것은 曆行들이 사 놓은 것으로 수량이 무려 수십만 근이나 되어 웅장하였다.”¹¹⁰⁾ 고 했다.

책문에서의 무역은 入燕期보다는 回還期에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사행이 돌아오는 때에 의주로부터 이들의 짐을 반아가기 위한 인마가 책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¹¹¹⁾ 이렇듯 책문 교역이 활기를 띠었으므로 조선 사행을 따라 들어간 각종 명색의 사행원역들은 자유롭게 물품을 교류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까닭에 정조 15년(1791) 조선 파견을 임명받은 중국인 신부 오 요한 레메디오스 신부가 조선의 밀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책문이었고, 주문모 신부가 의주로 잡입하기 위해 정조 18년(1794) 12월 3일 지황 등을 만난 것도 책문이었다.¹¹²⁾

요컨대 책문은 조선과 청 사이에 出入國 신고, 통관과정이 이루어지던 실질적인 국경 관문이었다. 그리고 국경도시 책문촌에서는 조선 사행의 빈번한 출입에 때맞추어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다.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서야 비로소 조선과 청국의 문물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그 이전 즉 압록강에서 이곳까지는 朝鮮에도 淸朝에도 속하지 않는

108) 『열하일기』 도강록 경자년 6월 27일 ;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 11월 21일.

109) 『통문관지』 권3, 사대, 開市.

110) 『연행일기』 권1 임진년 11월 28일.

111) 연복제와 여마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철성, 2000, 앞의 책, 53~59쪽 참조.

112) 이철성, 2003, 『戊午燕行錄을 통해 추적한 黃沁·金有山の 북경길』,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천주교호남교회사연구.

空閑地帶로, 역사·문화적으로 自國史의 범주에 있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다.¹¹³⁾

V. 맺음말

이 논문은 義州府 鴨綠江에서 柵門에 이르는 봉금지대 使行路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압록강 下流의 對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의주부 압록강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압록강은 강물이 오리 머리처럼 푸르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백두산에서 발원한 강물은 의주부 경계에 이르러, 江中 島嶼로 인해 물줄기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鴨綠江, 中江, 三江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압록강은 각종 고지도에 표시된 江中 島嶼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적도·검동도·난자도 등에는 의주부의 파수처가 설치되어 장졸이 1년 내내 근무를 했으며, 섬에는 인가와 경작지가 있었다.

제Ⅲ절에서는 압록강 도강 루트와 봉금지역 사행로에 대한 山川認識과 自國史 認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압록강 도강의 출발지는 의주부 동북쪽의 구룡연 나루였으며, 첫 노숙지는 압록강, 중강, 삼강을 거쳐 도착하는 구련성이었다. 고지도상의 압록강 도강 루트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작자의 착오와 시기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실제 압록강을 건너

113) 연행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조선 사람들의 역사·문화적 인식은 크게 심양을 기점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심양 이전까지는 과거 자국사에 대한 회상 즉 요동에 대한 故土認識이 표출되며, 심양 이후부터는 清朝 文化에 대한 충격과 이에 대한 해석이 표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는 지역과 방식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압록강 渡江은 過涉差員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다. 이들 중 江南差員은 중강을 건너기 직전까지를, 江北差員은 중강 이후의 도강을 맡았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물이 불어나 강줄기를 따라 배가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渡江에만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겨울철에는 강물이 현저히 줄어 발목을 넘지 않았는데, 날씨가 따뜻할 경우에는 도보 혹은 배를 사용하여 도강했으나 강물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는 썰매를 달려 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건너 도착한 구련성에서 탕참을 거쳐 책문에 이르는 동안, 조선 사람들은 이곳이 비록 수목이 뒤덮인 황량한 지역이었음에도, 산천에 대한 느낌은 조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질감은 비록 현재의 역사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自國史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졌다.

구련성과 봉황성 책문 일대가 고구려의 국내성이라거나 안시성이라는 기록이 많이 전해지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었다. 또한 17세기 조청 간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이 길은 조선 사람들에게 전략적 요충지이자 외교적 통로로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회한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었다.

제Ⅳ절에서는 청조 동북지방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柳條邊의 첫 관문이자 양국 간 출입국 관리와 세관 그리고 무역의 현장이었던 책문과 책문촌에 대한 상황과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책문은 봉황성에서 10리쯤 떨어진 봉황산 남쪽 기슭에 겨우 문 1칸 정도의 草屋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사행이 이곳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출입국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물품에 대한 통관과 관세 성격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 책문을 통과하면 柵門村이 있었다. 이곳부터는 청나라 땅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술집과 찻집의 배치도 조선과 현격히 달랐으며, 초옥을 짓는 법과 什器는 물론 민간 풍속에 이르기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문촌은 18세기 후반 민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가도 한양 운종가의 육의전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국경의 작은 마을이 이처럼

변성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조선 사행이 중국으로 갈 때와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올 때, 이곳 책문촌에서 대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국경촌인 책문촌에서의 활발한 무역과 교류는 반대로 그 이전 지역, 즉 압록강 對岸의 봉금지대가 朝鮮에도 淸朝에도 속한 지역이 아닌 이른바 ‘交界’라는 인식을 넘어서, 조선 사람에게 이곳의 산천이 故國과 다르지 않다는 同質性 표출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이후 이 지역이 역사·문화적으로 自國史의 범주라고 인식토록 하였다. 결국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 사회에서 한층 고조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도 봉금지대에 대한 이러한 역사·문화적 인식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輿地圖書』, 『通文館志』, 『龍灣誌』, 『新增東國輿地勝覽』, 『安東縣志』, 『鳳城縣志』, 『盛京通志』, 『大清一統志』, 『燕輶直指』, 『戊午燕行錄』, 『心田稿』, 『蔚山紀程』, 『谿谷先生集』, 『燕途紀行』, 『與猶堂全書』, 『燕行日記』, 『熱河日記』, 『赴燕日記』, 『夢經堂日史』, 『燕行錄』, 『陶谷集』, 『燕行記事』, 『湛軒書』, 『靑莊館全書』, 『東史綱目』, 『海東繹史』, 『稗官雜記』, 『練藜室記述』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中心으로』, 혜안.

馬大正 主編, 2003, 『中國邊疆經略史』, 中州古籍出版社.

馬大正 주편, 이영옥 옮김, 2004,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馬大正 · 劉遜, 조세현 옮김, 2004, 『중국의 국경 · 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楊賓, 1936, 『柳邊紀略』.

梁泰鎮, 1990, 『韓國邊境史研究』, 法經出版社.

유승주 · 이철성, 2002,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이철성,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임기중, 2002, 『연행록 연구』, 일지사.

임지현 엮음, 2005,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任鴻魁, 2005, 『丹東史迹』, 遼寧民族出版社.

張存武, 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최소자, 1997, 『명청시대 중 · 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일관계사학회, 2008,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경인문화사.

한정춘, 2006, 『두만강 압록강류역 지명전설』, 연변인민출판사.

강석화, 2004,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고승희, 2003, 「19세기 후반 함경도 육진과 만주지역 교역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5.

고승희, 2005,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활동」, 『조선시대사학

보』 28.

金炅春, 1987, 「韓·淸國境問題의 一視點-犯越을 중심으로」, 『慶州史學』 6.

김경춘, 1985, 「鴨綠江 下流 朝淸國境線形成問題考」,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김득황, 1993, 「조선의 북방강계에 관하여」, 『백산학보』 41.

김춘선, 2002,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김현영, 2004, 「조선후기 朝·淸邊境의 인구와 국경인식」, 『한국사론』 41.

金慧子, 1982,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研究」, 『梨大史苑』 18·19집.

박 범, 2009, 「18세기 후반 의주부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선영, 2003, 「국민국가·경계·민족-근대중국의 국경의식을 통해 본 국민국가 형성과 과제」, 『동양사학연구』 81.

박선영, 2004, 「近代 東아시아의 國境認識과 間島-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2.

박선영, 2004, 「중국학계의 조선과 청조간 국경영토 논리와 그 한계」, 『한국사론』 40.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94.

徐仁範, 2006,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영토분쟁」, 『明清史研究』 26.

이승수, 2006, 「燕行路上的 공간탐색, 鳳凰山城-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2,.

이철성, 2002, 「17세기 平安道 '江邊7邑'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 13.

이철성, 2003, 「戊午燕行錄을 통해 추적한 黃沁·金有山の 북경길」,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천주교호남교회사연구.

정혜중, 2006,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양국범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26.

최남희, 2004, 「고구려 지명 '안시성'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집.

崔熙在, 2004, 「光緒初 淸朝의 滿洲開發과 中韓關係의 再調整」, 『東洋學』 35.

秋月望, 1983, 「鴨綠江北岸の統巡會哨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1.

[ABSTRACT]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cognition of the Off-limits Zone between the Yalu River and Zahmen in Late Joseon

Lee, Chulsu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ception of the Chosun envoys' route from the Yalu River in Euijubu(義州府) to Zahmen(柵門) and, by doing so,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opposite side in the lower reaches of the Yalu River, which has been studied relatively less.

In this paper, Chapter II presented the finding that, reaching Euijubu, the current of the Yalu River is divided into three streams, Aprok River(鴨綠江), Jung River(中江), and Sam River(三江), by islands in the middle of the river. In addition, according to old maps, Yongmanji(龍灣誌), etc., some of islands in the middle of the Aprok River were inhabited and cultivated, and even guarded by Chosun soldiers all the year round. Accordingly, the land across the Jung River was perceived an uninhabited land.

Chapter III examine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perception of the Chosun envoys' route across the Aprok River and throughout the Off-limits Zone. The crossing of the Aprok River was slightly different according to season and weather. The departure point was the Guryongyeon(九龍淵) Ferry to the northeast of Euijubu, and the arrival point was Jiuliancheng(九連城). Then, the Chosun envoy

arrived in Zahmen via Tangzhan(湯站). Chosun people expressed a feeling of intimacy, thinking that the mountains and rivers in the region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their homeland. This intimacy was associated with their history that the area around Jiuliancheng, Zahmen and Fenghuangcheng(鳳凰城) had been Guknaeseong(國內城) or Ansiseong(安市城) of the Goguryo(高句麗) Dynasty.

Chapter IV studied the situation and historical perception of Zahmen, the first gateway to willow walls(柳條邊), and Zahmen village. Zahmen was a practical boundary gate between Chosun and Qing where entrance and departure were reported and goods passed the customs. Zahmen village was a border town that prospered in trade thanks to the Chosun envoys' frequent coming and going. In the city, Chosun people could feel realistically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Chosun and Qing. On the contrary, however, this became a firm background supporting the perception that the Off-limits Zone, a borderland belonging neither to Chosun nor to Qing, was included in their territory historically and culturally. After all, the Chosun society's heightened interest in the northern region since the mid 18th century was a consequence of such historical and cultural perception of the Off-limits zone and economic exchange with the area.

keywords

Jiuliancheng, Off-limits Zone, Chosun envoys' route, Yalu River, Sam River, Aprok River, willow walls, Euijubu, Jung River, Zahmen, Tangzhan

1880년대 전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 연구

이헌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I. 머리말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어 갔다. 朝貢과 冊封을 매개로 작동하였던 전통적인 中華秩序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서양의 근대 국제법인 萬國公法에 의해 규율되는 秩序로 변화되어 갔다. 서구 열강은 조약 체결을 통해 비서구 사회에 근대 국제법 질서의 수용을 강제하는 한편 社會進化論을 유포시킴으로써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사회진화론을 통해 '弱肉強食'·'優勝劣敗'의 제국주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三國의 지식인들은 당면한 시대조건 속에서 국가의 장래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고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양 삼국의 연대를 통해 서구 열강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 그 침략에 대응하자는 이른바 '아시아 連帶論'이 주장되었고, 조선의 개화지식인에게도 이러한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단위로 '連帶' 혹은 '團結'된 동아시아를 상정하는 논리는 논자에 따라 '아시아 연대론'·'아시아주의'·'동양주

의' · '삼국공영론' · '삼국제후론' · '동양평화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논리 구조나 내용상 비슷한 모습을 띠다는 이유로 '아시아 연대론' 등의 용어로 묶어 하나로 범주화하고는 있지만, 아시아 연대를 주장한 주체나 의도 등이 대단히 다양한 만큼 성격 또한 단순화시켜 말하기 어렵다. 19세기 후반 창립된 '興亞會' · '亞細亞協會'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아시아 연대의 논리에서부터 1940년대의 '대동아 공영권 논리'까지를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 '아시아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아시아주의'는 동아시아 삼국 모두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활발히 논의되고 사회적 영향도 광범했던 곳은 일본이었다. '아시아주의'는 근대 세계체제의 성립 및 팽창과 더불어 일어난 현상으로 서구에 대한 아시아의 고유한 대응 형태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연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는 '맹주'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아시아주의'가 지니는 '연대'와 '침략'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이러한 양면성은 서구적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침략정책을 채택했던 사실에서 비롯한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주의는 패전 이전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침략이념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지만, 188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에 대해 연대의식의 순수성을 인정하여 서양의 침략에서 아시아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 이에 반해 마루야마 마사오처럼 일본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특질 중의 하나로 '아시아주의'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²⁾ 전자의 경우 연대의 논리였던 '아시아주의'가 1880년대 중반을 고비로 변질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³⁾ 후자처럼 이

1) 다케우치 요시미, 1963, 「アジア主義の展望」, 『アジア主義』, 筑摩書店; 初瀬龍平, 1980, 『傳統的右翼内田良平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2)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95~96쪽.

3) 소박한 연대의식이 침략주의로 변질되어 간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변질을 매개한

해할 경우 '연대'는 어디까지나 침략주의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외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⁴⁾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아시아주의'도 일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양국의 '아시아주의' 논의가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그에 대한 대응 혹은 비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 연구자들에게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대체로 일제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 혹은 합리화하려 한 논리로 이해되어 왔다.⁵⁾ 따라서 일본 '아시아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 사회에서도 근대주의적 경향의 개화세력, 개신유학 계열,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세력 등 다양한 층위에서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이러한 '아시아주의'적 경향은 대체로 그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의 논리에 경사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에 적극 협력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미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했던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를 보지 못하고 人種的·文化的 共同體로서의 아시아의 연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었던 한국 사회의 '아시아주의'가 지니는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대응이 국가 혹은 민족을 기축으로 한 것이 아닌 인

아시아주의의 고유한 사상적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야마다는 바로 그러한 고유한 사상적 성격으로 '천황제 가족주의의 사이비 윤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山田昭次, 1981, 「自由民權期の興亞論과 脫亞論－아시아主義의 형성을 에워싸고」, 『國權論과 民權論』, 한길사, 324쪽).

- 4) 한편 서구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즉, 서양적 정체성을 추구한 脫亞의 立場과 아시아적 정체성을 중시한 '入亞'적 입장이 대립하면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아시아주의는 서구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함동주, 1997, 「明治期 아시아주의의 '아시아'像」, 『일본역사연구』 5, 66쪽).
- 5) 한상일, 1980,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2002, 『(개정판)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강재연, 1984, 「아시아주의와 일진회」, 『한국사회연구』 2; 함동주, 1995, 「明治期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국권인식」, 『일본역사연구』 2; 함동주, 1997, 「明治期 아시아주의의 '아시아'像」, 『일본역사연구』 5; 강창일, 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김채수, 2006, 「일본의 우익과 아시아주의」, 『일본문화연구』 20.

종적·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대한제국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계몽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삼국제휴를 주장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자 한 김도형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⁶⁾ 또한 대한제국 시기 삼국공영 논리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넓은 저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삼국공영론이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삼국 간의 무역을 통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던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존재했음을 밝힌 김윤희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⁷⁾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등장하여 20세기 중반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할 때까지 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이용되었던 이른바 ‘아시아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아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독립신문』·『황성신문』과 같은 신문들과 계몽운동단체에서 발행한 학회지 등 비교적 풍부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동아시아 삼국의 ‘아시아주의’ 논의의 동질성과 차별성, 변형과 분화 등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아시아주의’의 원형이 형성되는 1880년 전후로 돌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⁸⁾ 본 연구에서는 188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 연대론’이 등장하는 배

6) 김도형, 2000,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 ‘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3.

7) 김윤희, 2006, 「러일대립기(1898~1904) 『皇城新聞』의 이중지향성과 자강론-연대와 배제의 접합」, 『한국사학보』 25.

8) 1880년대 ‘아시아 연대론’을 다룬 국내의 연구는 1989년 발표된 이광린의 「開化期 韓國人의 아시아 連帶論」(『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이 있다. 이광린은 이 연구에서 188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한국인의 아시아 연대론을 개관하면서 1880년대 초반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이에 빠져들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박노자는 1880년대 전반 아시아주의의 등장과 홍아회의 조직 및 활동, 홍아회와 한국의 관계, 홍아회의 성공요인 등을 밝힌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였다(“Korea’s First Encounters with Pan-Asianism Ideology in the Early 1880s,” *Reviews of Korean Studies*, Vol. 5, No. 2, 2002 ; 2005, 「1880년대 아시아주의와의 조우」,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출판, 169~226쪽에 번역 수

경과 홍아회의 창립 문제를 살펴본 후 1880년대 전반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홍아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아시아 연대론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든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아회와 아세아협회에서 기관지로 발행했던 『興亞會報告』와 『亞細亞協會報告』를 들 수 있다. 홍아회나 1880년대의 '아시아 연대론'이 한국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였기에 이 잡지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홍아회보고』·『아세아협회보고』에는 이 단체들의 활동 내용과 '아시아 연대론'의 논리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조선 개화파 지식인들과 유학생의 글이 실려 있어 조선인들의 '아시아 연대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기관지라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주의'에 대한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관지에 대한 검토와 병행하여 1880년을 전후하여 일본을 방문했던 인사들이 남긴 기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金綺秀의 『日東記游』, 金弘集의 『修信使日記』, 朴泳孝의 『使和記略』 등 1880년을 전후하여 修信使로 일본을 다녀왔던 인사들이 남긴 기록과 1881년 朝士視察團의 朝士로 참여했던 이현영의 『日槎集略』과 같은 견문록에 주목하였다. 또한 1880년에는 제2차 수신사행의 일원으로, 1882년에는 김옥균을 수행하여 일본을 방문해서 홍아회 모임에 참석했던 개화사상가 姜瑋가 남긴 『古歡堂集』·『古歡堂收草』도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漢城旬報』·『漢城周報』 등의 신문 자료에 나타난 아시아 연대의식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것이다.

록). 그는 홍아회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첫째,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결합되어 일본 정부를 단순 대변하지 않았던 점, 둘째, 홍아회의 주장이 한국 개화파 인사들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에 강한 호소력을 지녔던 점, 셋째, '아시아주의' 개념의 모호함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 등을 들었다.

II. 아시아 연대론의 형성과 興亞會의 창립

‘亞細亞’라는 용어는 1602년 간행된 마테오 리치의 『坤與萬國全圖』가 전래되면서 일본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1700년 니시카와 죠켄[西川如見]이 쓴 『日本水土考』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西洋紀聞』에도 ‘亞細亞’에 대한 기술이 나타난다.⁹⁾ 하지만 ‘아시아’ 혹은 ‘아세야’가 일본인에게 구체적 의미를 지닌 실제로 다가가게 된 것은 서양의 동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막말기의 사쿠마 쇼오잔[佐久間象山]은 ‘東洋道德 西洋藝’라 하여 세계를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고 일본은 유교라는 윤리적 가치관을 지닌 동일한 문화권인 동양에 속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서양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아시아’ 즉, 동양이 단순한 지리적 구분법에서 문화적 일체성을 갖는 동질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물론 서양과의 관계 설정과 서구적 가치 수용에 관심이 집중되던 당시 상황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뒷전이었고, 18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시아를 서양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일반화되면서 아시아주의가 성립되었다.¹⁰⁾

메이지유신 이전에도 이미 서세동점이라는 상황 전개 속에서 아시아가 연대하여 서양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그 농도가 약하고 추상적인 모습을 띠기는 했지만 일본이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인 한국이나 중국과 제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쿠가와막부 말기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가쓰 가이슈[勝海舟] 등 막부 말기의 선각자와 정치지도자들은 서세동점이라는 당시의 정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강한 연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脣齒輔車’라는 비유로 표현되는 연대의 이념

9) 松田宏一郎, 1998, 「‘亞細亞’의 ‘他稱’性—アジア主義以前のアジア論」, 『日本外交におけるアジア主義』, 日本政治學會, 41쪽.

10) 함동주, 1997, 앞의 글, 74~75쪽.

은 공동의 적인 서양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同生共死의 운명공동체인 중국·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었다.¹¹⁾ 하지만 연대의식의 이면에서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에 앞서 차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막부 말기의 아시아 침략론은 외압에 따른 위기감에서 생겨난 착상일 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정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론으로 발전해 갔는데, 그 결과 征韓論이 등장하게 되었다.¹²⁾

메이지유신을 통해 도쿠가와막부를 무너뜨린 유신지도부는 서세동점의 국제적 추세 속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민족적 독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1873년 '征韓論爭'을 벌였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놓고 벌어진 정한파와 비정한파의 충돌은 국내개혁을 통한 국력 충실을 주장한 비정한파의 승리로 끝나고, 실각한 정한파의 반발은 급기야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이끄는 '서남전쟁'이라는 士族들의 반란으로 이어져 절정으로 치달았다. 서남전쟁이 메이지 정부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메이지 체제에 대한 반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후 정한론자들의 활동은 自由民權運動과 아시아 연대운동이라는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¹³⁾

자유민권운동은 정한론 분쟁으로 사임했던 참의들이 1874년 1월 메이지 신정부에 '民選議院 設立 建白書'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건백서 제출 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愛國公黨'을 결성하지만 곧 소멸되고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고향에 정치결사인 '立志社'(1874년 4월)를 조직하여 운동을 지속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은 서서히 발전하여 1880년에는 자유민권 단체의 전국 연합체인 '愛國社'가 운동의

11)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28쪽.

12) 하다다 다카시, 李基東 譯, 1983,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16~17쪽. 가쓰 가이슈는 유럽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합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한국과 연합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의 요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한상일, 2002, 앞의 책, 22~26쪽.

당면 목표를 국회 개설의 실현에 둘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민권파들은 1880년 국회 개설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藩閥政治’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회 개설 필요성을 압박한 결과 1881년, 1890년에 국회를 개설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고무된 자유민권파는 1881년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당수로 하는 自由黨을, 1882년에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당수로 하는 立憲改進黨을 창당하였다. 하지만 이 운동은 지지기반이 되어야 할 부르주아 계급의 미성숙이라는 한계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1882년부터 시작된 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정당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1884년 자유당이 해산하고 입헌개신당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¹⁴⁾

아시아 연대운동은 자유민권운동과 달리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소수에 국한된 지역활동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주로 자유민권 좌파들은 일본이 열강의 압력하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같은 열강의 침략하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생각했다. 이런 점은 앞 시기 정한론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복을 통해 구미 열강에 대항하려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¹⁵⁾ 이들의 주요 관심은 국내정치가 아닌 대륙문제였고,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열도를 벗어나 대륙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일본의 독립 보전과 영토 확장을 위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네 도시토라[曾根俊虎]의 興亞會,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의 玄洋社, 고노에 아쓰마[近衛篤磨]의 東亞同文會 등이 아시아 연대주의를 주장하였던 대표적인 단체였다.¹⁶⁾

이제 근대 일본 최초의 아시아주의 조직이었고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흥아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興亞會는 1877년 봄 청국에서 귀국한 소네 도시토라가 주도하여 마에다 겐키치[前田獻一]¹⁷⁾ 등과 협의하여 창립했던 振亞社를 모태로 하여 1880년 2월

14) 오카 요시타케, 장인성 역, 1996, 『근대 일본 정치사』, 소화, 31~40쪽.

15) 하다다 다카시, 1983, 앞의 책, 22쪽.

16) 한상일, 2002, 앞의 책, 24쪽.

17) 마에다는 1879년 5월 17일 한국에 파견되어 釜山港 駐在 管理官으로 근무했던 인

13일 설립된다.¹⁸⁾ 소네가 흥아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돌파구는 1878년에 마련되었다. 오쿠보 도시미치의 주선으로 메이지 천황을 알현하여 아시아주의 사업에 대해 호소할 기회를 갖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물론 천황의 지원 약속이 곧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고, 1879년 琉球 점령으로 대중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원했던 일본 외무성이 소네의 흥아회 설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¹⁹⁾ 소네는 이후 가네코 야헤에[金子彌兵衛], 나가오카 모리요시[長岡護美], 와다나베 고키[渡邊洪基], 사토 초[佐藤暢], 구사마 도키요시[草間時福], 미야자키 순지[宮崎駿兒] 등과 의견을 나눈 결과 도쿄에서 진아사의 명칭을 興亞會로 바꾸고 투표를 통해 나가오카를 회장으로 하여 부회장 1인, 간사 3인의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같은 달 16일에는 東京 西久保巴町 59番地에 興亞會 支那語學校를 세우고 청국인 張滋昉을 초빙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간사 2명을 추가로 늘리고 아시아 지방의 형세를 연구하여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公報局을 설치하였다. 다음 호부터 『흥아회보고』로 개제되는 『흥아공보』 1집이 간행되는 1880년 3월 24일 현재 회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하게 된다.²⁰⁾

흥아회 회원은 創立員과 同盟員의 둘로 구분되었다. 入會할 때에 10엔 이상을 내면 창립원이 되고, 2엔을 내면 동맹원이 되는데, 월 회비는 양자 모두

물이다. 그는 원산항이 개항되자 1880년 2월 2일 원산 주재 일본 총영사로 부임하여 1882년 7월 말까지 일했고, 이후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로 자리를 옮겨 1886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하원호, 2009, 「개항기 재조선 일본공관 연구」,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8쪽).

18) 흥아회는 1883년 1월 20일 亞細亞協會로 개칭되었다가 1900년 東亞同文會로 흡수 합병되었다(이광린, 1989, 앞의 글, 140쪽).

19) 박노자 2005, 앞의 책, 191쪽.

20) 『興亞公報』 제1집(1880년 3월 24일), '興亞會創立ノ歴史', 4~7쪽. 興亞會 설립의 연원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로부터 찾는 견해도 있다. 다만 침략 이후 교섭차 청국에 가서 李鴻章과 면담한 이후 청일 양국의 제휴 필요성을 느끼게 된 오쿠보가 1877년 주일공사로 도일한 何如璋과 의견을 모아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던 중 암살되어 계획이 좌절되지만, 오쿠보의 뜻을 계승한 태정관 비서관 미야자마 세이치로[宮島誠一郎]가 소네와 뜻을 같이하여 흥아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山田昭次, 1981, 앞의 글, 327쪽).

1인이었다. 회의 운영을 맡는 役員(회장, 부회장, 간사, 의원)은 매년 4월 정기 대회에서 창립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창립원은 役員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졌고, 동맹원은 선거권만 있었다.²¹⁾

창립 당시의 임원과 대체적인 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²⁾

회장 : 나가오카 모리요시[長岡護美] - 舊 구마모토[熊本] 번주의 아우로서 미국 유학을 한 최초의 메이지 학생 중 하나였고, 外務省의 御用 掛를 맡고 있었다. 후에 東亞同文會의 부회장을 지냄.

부회장 :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제자로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1873년에는 오스트리아·이탈리아에서 이등서기관으로 주재한 경력을 지닌 外務省 大書記官. 이후 도쿄제국대학 총장, 원로원의관을 지냄.

간사 : 소네 도시토라[曾根俊虎] - 해군 대위로 주로 청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청일전쟁 이후 대만 관리가 되었다.

가네코 야헤에[金子彌兵衛] -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로서 청국공사관의 통번을 거친 중국어 교사였다. 후에 大藏省 관리가 되었다.

구사마 도키요시[草間時福] - 게이오 기주쿠 졸업생으로 당시 朝野新聞 기자였다.

(증설된 간사)

미야자키 순지[宮崎駿兒] - 淸國 厦門領事館員을 거쳐 宮內省 役員을 맡고 있었다.

사토 초[佐藤暢] - 미상

창립 당시 흥아회의 임원진을 보면 정부 관료와 군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흥아회는 임원진뿐 아니라 흥아회 회원의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관리·군인·언론인이었고, 한때 天皇의 하사금까지 받아 운영 경비로 사용한

21) 黒木彬文, 1993, 「興亞會・亞細亞協會の活動と思想」, 『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5쪽.

22) 흥아회 임원의 경력은 山田昭次, 1981, 앞의 글, 327쪽과 黒木彬文, 1993, 위의 글, 3~4쪽 및 박노자, 2005, 앞의 책, 189~20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³⁾ 창립 직후의 도쿄 본회 회원명부를 통해 회원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창립원은 외무성 직원, 통상무역업자, 내무성 직원, 해군성 군인, 신문인, 궁내성 직원, 대장성 직원, 홍아회 어학교 학생의 순서로 많았다. 동맹원의 경우는 해군성 군인, 내무성 직원, 신문인, 통상무역업자, 修史館 직원, 홍아회 어학교 학생, 외무성 직원의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戊辰戰爭에서 賊軍, 舊幕臣에 속했고, 메이지 신정부의 反主流, 非主流 관리이거나 자유민권론자였다.²⁴⁾

홍아회 회원에는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도 있었다. 중국인으로 駐日公使 何如璋, 黎庶昌을 비롯하여 공사관원 張斯桂, 姚文棟, 香港『循環日報』 사장 王韜²⁵⁾ 등 약 26인이었고, 김옥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숫자의 조선인도 회원에 가입하고 있었다.²⁶⁾

홍아회에서 표방했던 논리는 바로 동양 삼국이 연대하여 서구 열강의 멸시와 침략을 막아내고 共存共榮할 것을 주장하는 '아시아 연대론'이었지만, 워낙 다양한 입장을 가진 회원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사상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적지 않은 편차가 있었다. 와타나베 고키 등 정부 관계자와 스에히로 시게야스[末廣重恭] 등 민권론자 사이에 있었던 아시아 제휴의 성격을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상의 청일 양국 정부의 제휴, 즉

23) 이광린, 1989, 앞의 글, 140쪽.

24) 黒木彬文, 1993, 앞의 글, 6쪽.

25) 이광린은 王韜가 홍아회 설립 전 해인 1879년 일본에 초빙되어 문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홍콩으로 돌아간 후 홍아회 설립 소식을 듣고 비판의 글을 『循環日報』에 게재했다고 하였다(이광린, 1989, 앞의 글, 141~142쪽).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에서 다소 오류가 있는 지적이다. 왕도는 홍아회가 창립될 당시 홍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스스로 1880년 5월경 홍아회 회원에 가입하기까지 했던 것이다[『홍아회보고』 제4집(1880년 5월 14일), 19쪽]. 또한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일본에서 國命을 받아 해외 유력에 나섰다 홍콩에 들른 일본 관리 요시다 마사하루[吉田正春]와 어울려 酒樓에서 술을 마시며 그를 위해 賦詩를 짓기도 했다[『홍아회보고』 제13집(1880년 12월 15일), '文苑雜識', 18~20쪽]. 이를 통해 王韜가 『순환일보』의 비판 논설을 쓴 후에도 홍아회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지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 黒木彬文, 1993, 앞의 글, 7쪽.

‘體制的 아시아提携論’이었던 데 대해 민권론자들은 전제적인 현 정부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개혁정부의 상호 제휴를 지향하는 ‘改革的 아시아 제휴론’이었다. 홍아희의 주류적 성향에 가까웠던 소네 도시토라의 경우는 양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⁷⁾

하지만 자유민권론자의 경우도 다카하시 기이치[高橋基一]처럼 중일연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속에서 문명개화된 일본, 뒤늦은 중국이라는 탈아의식에 기반한 대중국 지도론의 입장에 서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스에히로 시게야스처럼 아시아 여러 민족이 서구 열강의 침략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전제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인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을 연대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즉, 메이지 전제정부와의 대결이 같은 전제주의 아래에 놓인 아시아 인민과의 연대의식을 낳게 한 것이다.²⁸⁾

하지만 이들의 아시아 연대론은 연대의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된 관념적 운동에 그친 한계가 있었고, 연대의식 속에는 연대와 모순되는 침략을 긍정하는 의식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들의 아시아 연대의식은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을 아시아의 지도자로 보는 강한 지도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개명화를 돕는다는 의식하에 내정 간섭·침략을 긍정할 우려가 다분히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자유민권운동이 급격히 퇴조하여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단념하자, 이들의 아시아 연대의식도 함께 퇴조하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간섭·침략을 합리화하는 말만 남게 되었다.²⁹⁾

27) 黒木彬文, 1993, 위의 글, 18쪽. 소네의 연대론은 국내의 변혁이나 인민의 해방이 빠진, 동문동종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의 것이었다(山田昭次, 1981, 앞의 글, 329쪽).

28) 山田昭次, 1981, 앞의 글, 331~332쪽.

29) 하다다 다카시, 1983, 앞의 책, 23~26쪽.

Ⅲ. 조선 개화지식인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

1_ 조선 개화지식인의 興亞會 참여

조선 개화지식인들이 흥아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흥아회가 창립된 직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의 수행원이었던 이조연, 윤웅렬, 강위 등이 흥아회의 초청을 받아 9월 5일 모임에 참여하였고,³⁰⁾ 이에 앞서 이동인이 도쿄에 도착한 직후부터 흥아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아회 창립 이전에도 일본인의 '아시아 연대론'적 인식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金綺秀가 남긴 「日東記游」의 '商略'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나타난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 그러므로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가 우리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 몹시 그 의관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때의 일본 관인은 모두 洋夷의 의관을 따랐다. 이때에 간혹 사람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그 세 손가락을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귀국과 중국이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구라파를 족히 두려워하겠습니까?’** 운운하였다. 이는 그 사람이 족히 더불어 서양을 방어하는 술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대가 使行을 가서 반드시 그 실상을 고취시키고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³¹⁾

김기수는 어느 시점엔가 모리아마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던 어떤 이가 전하는 모리아마의 말과 그에 대한 인물평을 위와 같이 전하고 있다. 인용문 중 밑

30) 『興亞會報告』 제11집(1880년 10월 9일), ‘與朝鮮修信使隨員 堂上官李容肅 殿中御史李祖淵 某官姜瑋三氏書’, 19~20쪽.

31) 金綺秀, 「日東記游」, '商略' 『修信使記錄』(국사편찬위원회, 1958), 5쪽. “或云 …… 故森山茂之與我人言 絕絕然自愧其衣冠時日本官人, 皆從洋夷衣冠也 時或屏人 自立其三指謂我曰 我與貴國與中國 苟能如是焉 何歐羅巴之足畏也云 此其人 足與語禦洋之術者也 子其行 必敲其實而結之也.”

줄 처 강조한 부분은 모리야마의 말이다.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能如是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본다면 모리야마의 말은 조선, 중국, 일본 삼국이 연대하여 힘을 합친다면 구라파 세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수가 말한 어떤 이가 누구며, 또 언제 나는 대화를 전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조일수교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 중 한 사람이 협상과정에서 만난 모리야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³²⁾ 둘째는 모리야마가 일본 外務省 六等出仕로 부산에 와 있을 당시인 1874년 8월 28일 3명의 수행원을 보내 그와 접촉하게 했던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정양이 전한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³³⁾ 모리야마는 박정양이 보낸 인사들에게 서양의 위협,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연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³⁴⁾ 훗날 흥아회의 후신인 아세아협회 회원³⁵⁾이 되는 모리야마가 1874년 8월 혹은 1876년 초에 이미 ‘아세아 연대론’적인 인식을 조선 측 인사에게 전했던 셈이다. 또한 제1차 수신사 방일에 즈음하여 바로 그 조선 측 인사는 모리야마를 ‘더불어 서양을 방어하는 술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평가하며 김기수에게 아시아 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³⁶⁾

32) 김기수는 출국 전 신현을 만난 자리에서 매사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와 상의하라는 조언을 듣는다(『일동기유』, ‘문답’, 위의 책, 50쪽).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기수에게 모리야마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한 인물도 역시 신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33) 韓國日本問題研究會 편, 1971, 『暗行御使一行中三官吏と森山の問答』, 『朝鮮外交事務書』 9, 성진문화사, 469~512쪽.

34) 윤소영, 2003, 「1870년 전후 조선의 대일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15~216쪽.

35) 黒木彬文・鱒澤彰夫 解説, 1993, ‘亞細亞協會在京會員名簿(1887년 1월 27일)’, 『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290쪽.

36) 김기수는 일본에 머물고 있을 때 모리야마의 방문을 받았다. 모리야마는 자신들이 김기수에게 누누이 유람을 권유하는 것은 외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면서, “귀국에 돌아가서 정확하게 의론을 세워 부국강병을 도모함으로써,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듯이 (두 나라가) 함께 외환을 방어하는 것이 구구한 희망입니다”라고 하였다(김기수, 앞의 책, ‘問答’, 49쪽).

가장 이른 시점에 흥아회와 접촉하고 최초로 흥아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했던 조선인은 李東仁이었다.³⁷⁾ 이동인은 1879년 6월 초순 오쿠무라 엔싱[奥村圓心]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밀항한 후 교토의 本願寺에서 약 10개월간 머문 뒤 1880년 4월 도쿄로 가 東本願寺 淺草別院에 기숙하였다.³⁸⁾ 『흥아회보고』 4집에 이동인이 4월에 흥아회 회장 앞으로 보낸 ‘興亞會參’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도쿄에 도착한 직후부터 흥아회와 관련을 맺었음이 확인된다.³⁹⁾ 이동인이 흥아회에 가입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880년 7월 13일에는 그가 이미 同盟員 자격으로 ‘흥아회회원성명록’에 올라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흥아회참’에서 스스로 학자금 30금을 설립비용 명목으로 출연했다고 한 점을 본다면, 회원 가입 시점이 도쿄에 온 직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⁰⁾

이동인은 1880년 4월 ‘흥아회참’ 기고를 계기로 흥아회와 관련을 맺은 후 기록상 흥아회 모임에 두 차례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1880년 9월 5일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을 대신하여 李祖淵, 尹雄烈, 姜瑋 등이 우에노의 精養軒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가 회원의 한 사람으로 함께 한 일이다.⁴¹⁾ 두 번째는 그가 귀국했다가 고종의 密使가 되어 다시 渡日한 직후인

37) 1880년 7월 13일 조사한 ‘興亞會會員姓名錄’에는 이동인의 일본 이름인 ‘朝野繼允’이 興亞會 東京支部의 동맹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동인의 주소는 淺草區 小島町 3番地 東本願寺 小教校内로 기록되어 있다(黒木彬文·鱒澤彰夫 解説, 1993, 앞의 책, ‘興亞會會員姓名錄’, 280쪽).

38) 이광린, 1973, 「開化僧 李東仁」, 『開化黨研究』, 일조각, 95~96쪽. 東本願寺 釜山別院을 설립했던 오쿠무라 엔싱도 1881년 1월경 同盟員으로 興亞會 회원이 된다(『흥아회보고』 제14집(1881년 1월 6일), 5쪽).

39) 『흥아회보고』 제4집(1880년 5월 14일), ‘興亞會參’, 3~5쪽. ‘흥아회참’의 기고자는 스스로 ‘東派本願寺遊學生某’로 소개하고 있는데 유학생모가 이동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이광린, 1986,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史料,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일조각, 4쪽; 1989,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 연대론」,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141쪽).

40) 『흥아회보고』 제4집, ‘흥아회참’, 5쪽. “傾出學資本三十金以助設費日.”

41) 이동인은 모임에 참석했던 회원 명단에 ‘朝野東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흥아회보고』 제10집(1880년 9월 20일), ‘本會記事’, 2쪽). 이광린은 김홍집이 이동인으로 하여금 일행을 안내하여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광린, 1989, 앞

1880년 11월 18일의 일이었다. 『홍아회보고』 제13집의 ‘告白’란에 “朝鮮人 李東仁君이 前에 까닭이 있어 朝野繼允이라 칭했는데, 근래에 옛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⁴²⁾ 이동인의 모임 참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하지만 1880년 11월 22일자 『東京日日新聞』에서는 이동인이 18일 홍아회의 월례회에 참석했음을 전하고 있다.⁴³⁾ 이동인이 주일청국공사관을 방문하여 고종의 대미수교 희망을 전달하라는 밀명을 받고 도일했음에도 청국공사관 방문에 앞서 홍아회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스스럼이 없었던 점을 보면 이동인과 홍아회의 관계는 표면상 드러난 것보다 한층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신사·조사시찰단 등의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의 개화파 관료나 지식인들도 홍아회 모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에서 외교사절이 파견되었을 때 홍아회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880년대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던 조선 개화세력에게 홍아회와 홍아회에서 주장하는 ‘아시아 연대론’은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881년 6월 23일자 홍아회 모임에는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인사들 중 金鏞元·洪英植·魚允中和 李元會의 隨員 沈直永, 趙準永의 隨員 李鳳植 등이 참여하였고, 이 중 홍영식·어윤중·이봉식 등은 홍아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시를 짓고 있다.⁴⁴⁾ 조사시찰단 일행은 8월 19일 요코스카[橫須賀] 軍港을 시찰하고 하룻밤을 묵었는데, 朝士 嚴世永·沈相學·朴定陽과 수원 俞鎮泰·姜晉馨·李商在 등이 홍아회 간사인 해군대위 소네 도시토라와 어울려 시를 지었다.⁴⁵⁾ 또한 1881년 12월 12일에는 제3차 수신사 趙秉鎬의 수행원이었던 玄昔運, 高永喜, 李鶴圭, 鄭舜鎔, 金弘培 등이 홍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⁴⁶⁾

의 글, 141쪽).

42) 『홍아회보고』 제13집(1880년 12월 15일), ‘告白’, 17쪽. “朝鮮人李東仁君 前有故稱 朝野繼允 近復舊名.”

43) 이광린, 1986, 앞의 글, 4쪽.

44) 『홍아회보고』 제18집(1881년 8월 10일), ‘本會記事’, 3쪽 및 ‘文苑雜識’, 34쪽.

45) 이광린, 1989, 앞의 글, 143쪽 ; 『홍아회보고』 제20집(1881년 9월 20일), 34~36쪽.

46) 『홍아회보고』 제24집(1882년 1월 30일), ‘本會記事’, 1쪽.

1882년 6월 21일에는 쓰키지[築地] 壽美屋에서 열린 興亞會 懇親會에 金玉均, 徐光範, 姜瑋, 俞吉濬 등이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⁴⁷⁾ 이 자리에서 청국 공사 黎庶昌이 시로 “아시아 삼국 淸, 韓, 和는 나라가 서로 이어져 마치 일가와 같구나! 歐州와 더불어 雄長을 겨루려 하는데 人和 이외에는 방책이 많지 않구나!”라고 하자, 서광범은 “東洲 삼국은 의로움이 서로 잇닿아 있고, 천하의 유지됨은 만년이나 함께 하는구나! 하늘의 뜻이 원래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거늘 어찌하여 세계에는 수심이 그치지 않는가!”라 화답하였다.⁴⁸⁾ 김옥균은 두 번째 일본 방문 중이던 1883년 1월 27일 亞細亞協會로 이름이 바뀐 모임에도 참석하였다.⁴⁹⁾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나 조사시찰단 일행의 흥아회 주최 모임 참석은 사실 의례적인 사교모임 참여나 다름없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 보인다.⁵⁰⁾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동인의 경우처럼 정식으로 흥아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내며 활동한 경우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흥아회보고』와 『아세아협회보고』를 통해 확인되는 조선인 회원은 이동인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다. 앞서 살펴본 이동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흥아회 혹은 아세아협회 회원에 가입한 조선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47) 『興亞會報告』 제30집(1882년 7월 30일), ‘吾會紀事’, 1쪽. “上月二十一日午後四時 興亞會諸人 開會筵于築地壽美屋 請朝鮮通訓大夫經筵侍讀官金玉均 承政院記注官徐光範 隨員姜瑋俞吉濬 晤敘 誌親睦也.” 동일한 사실은 1882년 6월 23일자 『東京朝日新聞』에도 전하고 있다(이광린, 1989, 앞의 글, 144쪽).

48) 『흥아회보고』 제30집(1882년 7월 30일), ‘文苑雜識’, 35~36쪽.

49) 김옥균의 아세아협회 모임 참석은 1884년 1월 31일자 『朝野新聞』에 전한다(이광린, 1989, 앞의 글, 144쪽).

50) 수신사 혹은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도일했던 인사 중 姜文馨, 趙秉稷, 閔種默, 이현영 등이 직접 흥아회와 관계를 맺은 흔적은 『흥아회보고』나 신문 등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조선 측 인사들의 흥아회 월례회 참석 기록이 적지 않게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데다가, 이현영과 같이 나가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시게노 야쓰쓰구[重野安禪] 등 흥아회 회원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현영은 흥아회 회장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의 초청을 받지만 요코하마에 가 있는 탓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음 날 방문할 것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이현영, 『日槎集略』 人, 『書札錄』, 『東京興亞會長書』 및 『答書』).

가장 이른 시점인 1881년 8월경에 홍아회 동맹원이 되었던 인물은 조사시찰단 朝士 중 한 사람인 金鏞元이었다.⁵¹⁾ 그는 1876년 김기수가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될 때 副司果로서 畫員의 직책을 띠고 수행한 바 있고,⁵²⁾ 원래는 ‘東萊暗行御史’가 아니었지만 이동인이 실종된 후 기선 운항에 관계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뒤늦게 합류하게 된 인물이다.⁵³⁾ 1881년 6월 23일 조사시찰단 일행이 대저 홍아회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도 홍아회원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왕래로 서로 친숙했던 김용원에게 부탁함으로써 성사된 것이었다.⁵⁴⁾ 그는 ‘興亞會 列位’ 앞으로 보내는 글을 써서 홍아회의 취지에 적극적인 찬의를 표현하기도 했다.⁵⁵⁾ 그는 다른 朝士들이 귀국한 후에도 일본에 남아 공부를 계속했는데,⁵⁶⁾ 1882년 말 『홍아회보고』에 이이 나오키[井伊直弼]의 비문을 지어 게재한 것을 통해 홍아회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⁵⁷⁾

1881년 11월에는 조사 魚允中의 隨員으로 따라왔다가 留學生이 된 金亮漢이 同盟員으로 홍아회 회원이 된다.⁵⁸⁾ 김양한은 東萊의 선비로 동래에서 어윤중의 隨員이 되어 도일한 후 조사시찰단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머물며 요코스카 조선소에 들어가 조선기술을 배웠고 1883년 5월에 졸업증서를 받는 인물이다.⁵⁹⁾ 1882년 6월 『홍아회보고』에 “地方會員 韓人 金亮漢, 橫須賀 白濱 52번

51) 『興亞會報告』 제19집(1881년 8월 31일), ‘본회기사’, 3쪽.

52) 김기수, 앞의 책, 『隨率』, 2쪽.

53) 허동현, 1986, 「1881年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一研究」, 『한국사연구』 52, 104쪽.

54) 『홍아회보고』 제18집(1881년 8월 10일), ‘본회기사’, 3~5쪽.

55) 『홍아회보고』 제19집(1881년 8월 31일), ‘文苑雜識’, 35~36쪽.

56) 김용원은 일본에 머물며 오사가 조페국에서 금은분석술을 배우던 중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도일해서 연구를 계속했고 1883년 8월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였다(이광린, 1986, 「開化初期 韓國人의 日本留學」,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48~49쪽).

57) 『홍아회보고』 제35집(1882년 12월 22일), ‘文苑雜識’, 「日本幕府元老井伊直弼公碑文」, 29~30쪽.

58) 『홍아회보고』 제23집(1881년 12월 30일), ‘본회기사’, 1쪽.

59) 이광린, 1986,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앞의 책, 48쪽.

지"라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요코스가 조선소에서 조선술을 배우는 가운데서도 홍아회와의 관계를 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⁶⁰⁾

1882년 4월경 또 한 사람의 조선인이 北海雲翼이라는 이름으로 홍아회에 동맹회원으로 가입하였다.⁶¹⁾ 그러나 다음 호인 28집에 '北海雲翼氏興亞會頌'을 실으면서 본명 孫鵬九를 함께 사용하였다.⁶²⁾ 손봉구는 朝士 김용원의 수행원으로 도일한 인물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대학 입학에 시도하였으나 언어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이후 김용원과 마찬가지로 금은분 석술을 공부하여 그와 함께 졸업하였는데, 이후 홍아회와의 특별한 관련을 가졌던 점이 확인되지는 않는다.⁶³⁾

한편 임오군란 사후 수습을 위해 파견된 제4차 수신사의 正使 朴泳孝와 副使 金晩植도 1882년 12월경 홍아회의 創立員 자격으로 회원 가입하였다.⁶⁴⁾ 하지만 두 사람은 12월 하순에 修信使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귀국하기 때문에 홍아회와의 관계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김옥균은 1882년 6월 21일 홍아회 모임과 아세아협회로 이름이 바뀐 직후인 1883년 1월 말의 모임에도 참석했으나,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1883년 10월의 일이었다. 10월 25일에 열린 간친회에 김옥균은 탁정식과 함께 참여하였고, 그 직후 通常會員으로 가입하였다.⁶⁵⁾ 아세아협회 임원 선거가 있었던 1884년 1월 24일에도 그가 참석했음이 확인되지만, 이후 국채 모집에 실패하고 귀국하는 1884년 4월까지 별다른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⁶⁶⁾

눈길을 끄는 것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督辦이던 金允植과 統理軍國事

60) 『홍아회보고』 제29집(1882년 6월 30일), '오회기사', 4쪽.

61) 『홍아회보고』 제27집(1882년 4월 30일), '오회기사', 1~2쪽.

62) 『홍아회보고』 제28집(1882년 5월 31일), '오회기사', 「北海雲翼氏興亞會頌」, 9~10쪽.

63) 이광린, 1986, 앞의 글, 48~49쪽.

64) 『홍아회보고』 제35집(1882년 12월 22일), '오회기사', 1~2쪽.

65) 『아세아협회보고』 제10편(1883년 11월 16일), '본회기사' 1~2쪽. 기사의 내용에 김옥균과 함께 卓提植이 손님으로 참석한 것으로 나오는데, 卓提植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김옥균이 모임에 '賓'으로 참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옥균의 회원 가입 시점은 10월 25일 이후라 여겨진다.

66) 『아세아협회보고』 제13편(1884년 2월 25일), '본회기사', 1~2쪽.

務衙門의 主事였던 池運永의 아세아협회 회원 가입이다. 김윤식이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은 1885년 9월에서 1886년 1월 사이인데, 이 기간 중 김윤식이 일본을 방문한 일이 없었으니 경위는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회원 가입을 했던 셈이다. 通常會員으로 가입하였고 거주지와 이름은 '朝鮮京城 統理外衙門 金允植君'이라 기록되어 있다.⁶⁷⁾ 池運永은 1886년 5월 통상회원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거주지는 '僑居東京芝區 南佐久間町 1丁目 2番地 越前屋'으로 되어 있고 '朝鮮國統理軍國事務衙門 主事'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⁶⁸⁾ '渡海捕賊使'의 밀명을 받고 김옥균 암살을 위해 도일한 그가 김옥균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세아협회 인사들과의 연결을 시도했던 결과로 보인다.

2_ 1880년대 전반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이 침략적인 의도를 은폐한 채 자신의 弱勢를 보충해 보려는 의도에서 설립했다고 간주되는 홍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에 조선의 개화파 관료와 개화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 개화파 관료나 지식인들의 인식의 한계만 지적되었을 뿐 그들이 왜 홍아회에 참여했고 '아시아 연대론'에 공감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80년대 일본 사회 일각에서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흐름이 나온 것이 침략주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본의 의도가 설령 홍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을 매개로 아시아 침략을 한층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이 단체와 논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찌 이해했고 왜 수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이른 시기 '아시아 연대론'을 접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金綺秀는 일본

67) 『아세아협회보고』 제1편(1886년 1월 25일), '본회기사', 3~4쪽.

68) 『아세아협회보고』 제5편(1886년 5월 30일), '본회기사', 1쪽.

에 체류하는 동안 모리아마를 비롯한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연대론에 대해 전통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⁶⁹⁾ 제1차 수신사행에서 돌아온 후 '아시아 연대론'에 대한 김기수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김기수가 德源府使로 재직하던 1880년 말 興亞會 會員인 오쿠 기세이[奥義制]⁷⁰⁾와 주고받은 서신이 『홍아회보고』에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元山에 주재한 일본 외무성 관리 오쿠는 이탈리아 군함이 원산 근해에 내박한 사건을 언급하며 輔車相依에 있는 조선, 일본, 청국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亞細亞洲의 衰運을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歐米의 위에 凌駕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답신에서 김기수는 구미 열강과 외교관계를 맺을 의향이 없다는 조선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하기만 할 뿐 아시아 연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⁷¹⁾ 일본 체류 중에 전통적인 조청관계의 틀을 흔드는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 보였던 소극적인 태도를 4년여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쿄에 온 직후부터 홍아회와 긴밀히 접촉했던 이동인이 홍아회 회장에게 '홍아회참'이라는 글을 보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홍아회참'은 홍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에 대한 이동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에 개략적이거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⁷²⁾

69) 한철호는 김기수가 접한 '아시아 연대론'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장된 '조일연대론'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한철호, 2006, 「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일본인식과 그 의의」, 『사학연구』 84, 166~168쪽].

70) 오쿠 기세이[奥義制]는 외무성 관리로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요코하마에서부터 영접하여 숙소인 遼遠館에 함께 머물렀고(김기수, 앞의 책, 「結識」, 34쪽), 1884년 8월 18일부터 1886년 8월 21일까지 약 2년 동안 원산 주재 일본 대리영사를 지낸 인물이다(김원보, 1984,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대출판부, 268쪽). 그가 홍아회의 創立員으로 회원에 가입한 것은 1880년 5월경의 일이었다[『홍아회보고』 제4집(1880년 5월 14일), 19쪽].

71) 『興亞會報告』 제14집(1881년 1월 6일), 「高麗來稿」, 11~14쪽; 『興亞會報告』 제15집(1881년 3월 7일), 「金氏復函」 및 「奧氏再與金某書」, 7~10쪽.

72) 이광린은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를 통해서 '홍아회참'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박노자는 '홍아회참'의 내용 검토를 통해 이동인이 서양세력의 침탈에 대한 불안감과 '문명진보' 지향적

이동인은 오늘날 아시아가 쇠약해져 떨치지 못하여 서양인들에게 곤욕을 당하는 것은 남의 장점을 취하지 못해 변통할 때 변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와는 달리 서양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본받아 수시로 변통하여 편리함을 좇기 때문에 동양인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서양인은 갈수록 강해진다고 안타까워했다.⁷³⁾ 이후 영국이 청국과 인도에서 저지르는 무도한 죄를 지적한 후,⁷⁴⁾ “저들이 부강하다고 믿어서 스스로 거만하게 구는 것은 대개 상공업의 이익과 함포의 정밀함 때문이다. 수년 뒤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 그 기술을 습득하면 저들이 장차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모멸을 줄 것인가”라 하였다.⁷⁵⁾ 우리가 서양의 기술만 습득하면 능히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동양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東道西器’적인 사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동인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이 영국에 대항해 독립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전 세계 인구의 70%에 달하는 7억 인구를 지닌 아시아주에도 人士가 없을 수 없으니 아시아의 인사들도 스스로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홍아회 창설 소식을 접한 후 자신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마침 도쿄에 오자 이 회(홍아회)가 창설된 일을 처음 듣고서 땅에 엎드려 합장하였는데, 스스로 모르는 결에 감격의 눈물이 흥건히 얼굴을 덮

서사를 조화시키는 데 아시아주의 패러다임을 잘 이용했다고 평했다(박노자, 2005, 앞의 책, 208쪽).

73) 「興亞會報告」 제4집(1880년 5월 14일), ‘興亞會參’, 3~4쪽. “今我洲之委靡不振 受困於歐人者無他 坐於局見 不能取善於人 當其變通 而不能變通也 歐米之所以權強於海外者無他 皆由於交集群居 互師其長 隨時變通 以從其便故也 是以我益困 而彼益強 嗚呼痛哉.”

74) 이동인은 영국인의 아편 제조를 아시아인들의 이익을 거두어가기 위해 아시아 민에게 독을 쓴 것이고 청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까지 아편 판매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이해했다. 아편문제를 청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인 공동의 문제로 이해한 것이다(위의 글, 4쪽. “英人始造鴉片 將以網我洲之利 毒我洲之人民 清人焚之 實出於不得已之政 若清人不焚 則必載而之他邦.”)

75) 위의 글. “然彼所持以富強自傲者 蓋工商之利 艦砲之精已而 數歲之後 我民皆得其術 彼將恃何以侮我耶.”

었습니다. 학자금 30金を 출연하여 설립비 명목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나, 물방울이 보탬이 되지 못함을 압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말로 말미암아 분발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神農氏와 黃帝의 옛 업적을 미루어 확충해서 正法을 주지하고 大局을 한번 바로잡아 我洲(아시아)를 億萬이 사는 이 시대의 宗洲로 만든다면 보탬이 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⁷⁶⁾

이동인은 당시 정세를 '我洲(아시아)'와 '歐米'가 대립하고 구미인에게 아시아인이 곤궁함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해했고, 구미국가를 '彼'로, 아시아를 '我'로 칭하며 이분법적인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이미 서양의 침략에 대한 아시아인의 공동 대처를 주장하는 '아시아 연대론'에 입각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주가 쇠미해져 서구 열강에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던 그에게 홍아회 창설 소식은 몹시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쁜 나머지 없드려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학자금으로 지니고 있던 30금을 기꺼이 출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홍아회참'의 내용이 이동인의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회지 게재를 염두에 두고 홍아회의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회장 앞으로 보낸 글이기에 홍아회에 대한 의례적인 치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을 쓴 시점이 홍아회와 관계를 맺은 초기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럴 개연성이 더욱 커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이후 홍아회 동맹원으로 가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점을 감안하면 이동인이 '아시아 연대론'에 공명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홍아회 회장 다테 무네나리의 초청에 대한 답신에서 “지금 欽使 何公(淸國公使 何如璋)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名士가 또한 회원이 되고, 일의 형세를 살피면 저도 또한 마땅히 異同이 없습니다”라며 홍아회

76) 위의 글, 5쪽. “適謁東都 始聞此會勸設事 伏地攢手 自不覺感淚汪汪被面 傾出學資本三十金 以助設費目 知涓滴無補大海 然或因此言而有奮起者 追廣神農黃帝之舊績 主持正法 一匡大局 使我洲爲宗洲於億萬斯歲 則不無所補矣.”

의 취지에 찬동하였다. 하지만 사신의 법도에 구애받기 때문에 자신은 참여할 수 없고 屬官을 보낸다며 다테 會長의 초청을 완곡히 거절하였다.⁷⁷⁾ 주목되는 점은 김홍집이 주일청국공사 일행에게서도 아시아 연대에 대한 권유를 듣는다는 점이다.⁷⁸⁾ 사실 황준현의 『조선책략』에 제시된 ‘親中國, 結日本’론 자체가 동아시아 3국이 연대하여 서구(직접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조선책략』이 제시하는 아시아 연대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안정화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과 명백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⁷⁹⁾ 하지만 귀국 후 김홍집은 복명서에서 “일본인들이 근래 사사로이 한 결사를 열어 이름하기를 興亞會라 하였는데, 淸 公使와 중국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뜻은 청, 일본, 우리나라 삼국이 더불어 동심동력하여 구라파의 수모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함으로써 동아회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전달 이외에는 어떠한 의사 표명도 회피하였다.⁸⁰⁾

1881년 1월 朝士視察團의 朝士로 파견되었던 이현영이 興亞會나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日槎集略』에는 이현영이 1881년 6월 8일 홍영식·어윤중의 숙소에 갔다가 興亞會 동맹원인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방문을 받고 『興亞會規則』 2책을 기증받은 데 이어 다수의 동아회원과 접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⁸¹⁾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일사집략』의 말미에 동아회원으로 보이는

77) 이광린, 1989, 앞의 글, 140~141쪽. 이광린은 김홍집이 동아회의 취지에 크게 호응했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회신의 핵심은 모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데 있었다.

78) 『大清欽使筆談』에는 “그들(일본)이 조선에 바라는 것은 강력히 조선과 더불어 聯衡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실로 진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황준현의 말(8월 2일자)과 “현재 일본은 근일의 정세가 위급한 것을 알고 귀국과 더불어 唇齒의 交를 맺어 동양 大局을 유지하려는 것이 거의 사실”이라는 하여장의 말(8월 3일자)이 나타난다. 하여장은 잘 알려진 대로 동아회 회원이지만, 황준현이 회원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79) 『조선책략』에 대해서는 이현주, 2006,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의 도입」, 『한국사학보』 25 참조.

80) 김홍집, 「수신사 김홍집복명서」, 『수신사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58), 151쪽.

81) 이현영, 『일사집략』 地, 1881년 5월 12일. 주 50) 참조.

나카다 다케오[中田武雄]의 글을 전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왜는 同胞요, 同人입니다. 옛날부터 서로 친했고 王仁이 경서를 전하여 왜의 문화를 도와 그 업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하는 눈 푸른 놈들이 동양에서 발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東亞 여러 나라가 連衡하여 저들에게 위엄을 보이지 않으면 동양 모든 나라는 망해서 거의 초토가 될 것입니다. …… 왜와 청과 한국이 더욱 交情을 통하게 되어 각각 안으로 병력을 기르고, 밖으로 위엄을 보여서 만약 하루아침에 왜가 영국에게 비상한 일이 있으면, 청국과 한국이 그 뒤를 끊되, 청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나 한국이 프랑스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국의 침공과 러시아의 새매가 날뛰는 것이 무엇이 두려우며, 눈 푸른 놈들의 탐욕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계획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한 국면만을 지키고 거만하게 나만 옳고 남을 그르다고 한다면, 동양 모든 나라는 모두 서양 사람의 계교에 빠지고 말 것이니, 이른바 입술이 상하면 이가 시리다는 것으로 …… 좋은 기술을 저들에게서 취하여, 동양 여러 나라의 천부의 용맹을 가지고 배양해서 활발하게 만든다면, 東亞의 國旗를 서양 하늘에 드날릴 것은 날짜를 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가지 큰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능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연형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⁸²⁾

나카다는 혈통과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동양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유례없는 서양의 침략 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아시아 연대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나카다의 주장을 이현영이 어찌 생각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책 말미에 그대로 싣고 있는 점은 그가 나카다의 논지에 공감하는 바가 컸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귀국에 임박해서 나카다에게 보낸 다음 詩를 통해서도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82) 이현영, 『일사집략』 人, 「散錄」, '中田武雄書'. 번역은 『국역 해행총제』 11(민족문화추진회, 1982)의 내용을 따랐다.

이곳에서는 누구를 선비라고 하는가? 처음 모인 자리에서 그대를 허락했네.

문장은 일찍부터 功業을 이루었으며, 뜻과 기백은 못사람들을 따르지 않았네.

어찌 자주 찾아 줌이 다행이 아니겠는가? 매번 견문을 많이 얻음을 기뻐했네.

어느덧 헤어질 날이 임박하니, 바다는 넓어 하늘에 닿았구나.⁸³⁾

첫 만남부터 나카다의 학식과 지조를 인정하여 기쁜 마음에 자주 만나 많은 견문을 얻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별을 앞두고 건넨 贈詩이기에 의례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어렵겠지만, 이 현영이 나카다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는 조선이 당면한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도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을 동아시아 삼국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연대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1884년 7월 3일자 『한성순보』에서는 중국의 신문 『申報』의 내용을 아무런 논평 없이 전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흥아회, 아세아협회의 취지를 소개하고 그 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매번 일본 人士가 한 단체를 만들어 興亞라고 이름하였다가 얼마 후 아세아협회라고 개명하였다 하니 대개 협력동심하여 피차가 서로 유익하게 하여 부강의 위치에 나아가 힘써 아시아 全洲의 대세를 진작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릇 협력동심하여 피차가 서로 유익하게 하여 부강하게 하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굳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내 지난날 평소 이 논리를 주장해 왔는데 지난 번 그 협회의 회원 源仲謀君의 隣交論을 보니 나의 의사와 극히 부합되므로 여기에 기록하여 여럿이 함께 보게 한다.⁸⁴⁾

83) 『일사집략』 인, 「詩句錄」, 贈中田武雄. “此地誰稱士 初筵即許君 文詞曾就業 志氣不隨群 何幸頻過訪 每欣多見聞 忽焉相別近 海闊接空雲.”

84) 『漢城旬報 漢城周報 번역판』, 한성순보(1884년 7월 3일), 「各國近事」, 「隣交論」(관

별다른 논평 없이 『신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은 적어도 인용된 부분이 『한성순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신보』의 내용을 옮겨 놓는 방법으로 '아시아 연대론'에 찬동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려 했던 것이다.

1886년 3월 8일자 『한성주보』의 기사를 보자. ‘論天下時局’에서는 유럽의 列國만이 부강을 독점하고 나머지 五洲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凌夷를 면치 못하는 형세에 있음을 지적한 후 “五洲의 대륙과 만국의 인민들이 거개가 유럽의 각국에 臣服당하고 있는 셈이다. 유독 스스로 지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뿐인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獨立 自強하여 영원히 걱정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고 自問하고 대처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양 각국의 위정자들은 의당 신중히 살펴서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事變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는 智人이나 達士라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國勢의 강약은 병졸의 多寡에 있는 것은 아니고, 國計의 빈부는 판도의 대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임금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부강해지기 위한 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는 한편 위태하기 전에 안전을 도모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림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괴리 분열되는 걱정이 없고, 밖으로는 兩國이 결탁하는 후원을 얻게 되면, 비록 백만의 유럽인이 있더라도 그 틈을 엿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시국에 대응하는 방법인 것이다.⁸⁵⁾

동양 각국의 임금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부강을 이룰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위태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은 전통적인 內守策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君民이 서로 화합하여 굳건한 내수 기반을 닦는 것만으로는 유럽인이 틈을 엿보는 것을 막는 대안

홍클럽 영신연구기금, 1983).

85) 『漢城旬報 漢城周報 번역판』, 한성주보(1886년 3월 8일), 「私議」, 「論天下時局」.

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직 굳건한 내수 기반 위에 중국과 일본 두 나라와 결탁하는 후원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시국에 대응하는 방법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제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을 수행하여 도일했고, 1882년 봄에는金玉均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그때마다 興亞會 모임에 참석했던 姜瑋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위는 1880년 흥아회 모임에 참여하여 ‘興亞會上屬題’라는 제목의 詩를 짓기도 하지만,⁸⁶⁾ 두 차례의 일본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하였는데, 그중 興亞會 관련 인사도 적지 않았다. 강위가 1882년 일본 여행에서 남긴 「東游續草」에는 興亞會 창립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마에다 겐키치에게 화답하는 詩가 두 편이나 실려 있고,⁸⁷⁾ 1880년 수신사행 때 남긴 「東游草」에는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의 시에 화답한 ‘奉和大使次宮本大丞韻却寄’가 수록되어 있다.⁸⁸⁾

강위는 흥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1882년 봄 당시 나가사키 현령 우쓰미 다다카쓰[内海忠勝]와 그가 주고받았던 서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⁹⁾

먼저 우쓰미가 강위 일행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청국과 조선과 일본이 亞細亞 동부의 疆土가 인접하고 인종과 政教도 같은 이른바 “魯衛와 같은 兄弟國이요, 虞나라와 虢나라 같은 臂齒의 관계”라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⁹⁰⁾

86) 이광린, 1979, 「강위의 인물과 사상」,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35쪽.

87) 『古歡堂收草』, 「東游續草」, ‘赤馬關舟中奉和前田獻吉總領事’ 및 ‘東京長祿亭奉和前田總領事’가 그것이다.

88) 『姜瑋全集(上)』, 아세아문화사, 321~322쪽. 일본의 외무대승이었던 미야모토가 흥아회 동맹원으로 입회하는 것은 1881년 5월경이었다. 같은 시기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도 역시 동맹원으로 가입한다(『흥아회보고』 제16집(1881년 5월 7일), ‘본회기사’, 2~3쪽).

89) 『흥아회보고』나 「흥아회회원성명록」에서 우쓰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가 회원인지 여부는 명확히 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서신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형적인 ‘아시아 연대론’인 점을 본다면 흥아회 회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90) 이때 강위 일행과 우쓰미 영사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古

지금 대저 萬國公法에서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獨立의 칭호가 있는 자는 대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서양 각국이 동양 여러 나라를 대하는 것은 공법에 비추어 하지 않고, 친목을 표현하지도 않으며, 맹약의 체결은 위협과 협박으로 이루어지고, 定約은 강제에서 나와서 저들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해로우니 이른바 대등한 권리가 과연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동양의 여러 나라는 독립이라는 칭호는 있으나 독립의 실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아! 서양인의 輕侮와 동양인의 汚辱은 또한 이미 심합니다. 이와 같이 경모당하고, 이렇게 오욕을 입는 까닭은 그 근원이 다만 開化의 더디고 빠름과 국력의 강약에 있을 따름입니다. …… 청국과 조선과 일본 三者는 더욱 이웃간의 우호관계를 도답게 하고, 변치 않을 것을 盟誓하며, 제후하고 받들어 돕는 데에 형제와 같이 하고,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에 스승 삼고 벗 삼아서 손잡고 더불어 開明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행동을 같이하여 함께 부강한 근원으로 나아가면, 대등한 권리는 이에 얻어지고 독립의 실질이 이에 얻어질 것인 즉 어찌 오직 삼국만의 洪福일 따름이겠습니까? 실로 동양 全洲의 洪福일 것입니다.⁹¹⁾

우쓰미는 만국공법에서 동서양의 독립국이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양 여러 나라가 공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서양 열강으로부터 오욕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동양 여러 나라가 이러한 오욕을 받게 된 것은 開化의 지연과 약한 국력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하고, 동양 삼국이 서로 단합하여 開明과 富強을 달성하여 대등한 권리를 얻도록 힘쓰자고 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편지는 강위 등에게 동양 삼국의 연대 필요성, 즉 홍아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모임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歡堂集, 『與韓客書』. “駐駕長崎數日 因屢得與清國領事余君瑞 接警欵同譙席.”

- 91) 『古歡堂集』, 『與韓客書』. “今夫萬國之公法 不問洋之東西 有獨立之稱者 有對等之權者也 然而西洋各國之遇東洋諸邦也 不照公法 不表親睦 締盟成于威迫 定約出于強制 利於彼而害於我 所謂對等之權 果安在哉 故曰東洋諸邦 有獨立之稱 而無獨立之實者也 嗚呼 西洋人之輕侮 東洋人之汚辱 亦既甚矣 所以如此見輕侮 如此被汚辱者 其原只在開化之遲速 與國力之強弱耳 …… 清韓和三者 益厚隣好 盟誓不渝 提携捧扶 如兄如弟 切磋琢磨 是師是友 携手而與進 開明之域 聯袂以同達 富強之原 對等之權斯得矣 獨立之實茲舉矣 則豈惟三國之洪福而已哉 實東洋全洲之洪福也.”

우쓰미의 편지에 대한 강위의 답신은 『고환당집』에 「復長崎縣令內海忠勝君」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글은 代作인데다 의례적인 말이 오가는 편지의 속성 때문에 그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담긴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⁹²⁾ 제한적이거나 그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내용을 소개하겠다.

내려주신 誨諭는 밝고 두터우며 매우 자상하여 이치가 다하지 않음이 없어서 비록 스스로 하기를 바랄지언정 능히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 비록 盟約이 있는 후에도 문득 자그마한 이해에 동요되어 萬國이 일제라는 큰 법도를 돌아봄이 없고, 미묘한 말에 전쟁을 도발하여 여러 해 동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기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진군 속도도 더욱 빨라졌으며, 전략도 한층 넓어져서 사람을 살상함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성을 함락시켜 사람들을 屠戮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게 하고 천하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했습니다. 덕으로써 하지 않고 힘으로써 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부림을 받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부림을 받으니 孟子가 말씀하신 바의 無道인 것입니다. 대개 春秋時代의 覇者의 속임수와 군사동원도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⁹³⁾

강위의 답장은 우쓰미가 전한 홍아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가 “그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92) 『고환당집』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이 「復長崎縣令內海忠勝君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는 제목 옆에 ‘代人作 故非僕意如此’라는 협주를 붙여 이 글이 대작이며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밝혔다. 누구를 위한 代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古歡堂詩草」에 “到長崎後 子重與同行金東億往東京 余與(邊)遂留從侍讀”이라는 내용이 있고, 6월 21일 김옥균과 함께 홍아회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아 김옥균 대신 쓴 편지로 여겨진다.

93) 『고환당집』, 「復長崎縣令內海忠勝君」, “賜誨諭 誨諭 懇到靡理 不屈 雖使自爲之願 不能過也 何快如之 何感如之 …… 雖在盟約之後 輒動於小利害 而不顧萬國一體之大度 微言起釁 積年構兵 器械益精 步伐益捷 輟略益廣 而殺人益衆 屠城夷國 而今無嘉矜之意 使隣國寒心 而天下缺望 以力不以德 小役大 弱役強 孟氏所謂無道也 夫以春秋覇者之譎兵 不至於此.”

그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라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그가 ‘아시아 연대론’에 공감하고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아시아 삼국이 연대하여 開明과 富強을 달성함으로써 서양 열강에게서 받는 모멸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에 대해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약소국 조선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1880년대 초반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인들이 흥아회 모임에 참석하여 흥아회 인사들과 가깝게 어울린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강위는 서구 열강들이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횡포를 말하면서 당시를 孟子가 말한 無道의 시기이며 春秋時代의 覇者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무도한 행위를 비판한 이 표현은 비단 서구 열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일본이 저지른 1874년의 대만침략, 1879년의 琉球 병합 등의 행위는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강위는 아시아에서 침략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의 행위도 함께 重義的으로 비판했던 것이다.⁹⁴⁾ 우쓰미의 글에 따르면 삼국의 굳건한 연대는 서양의 침략을 막고 부강과 독립의 실질을 가져와 동양 삼국 뿐 아니라 동양 全洲의 큰 복이 되는 것이므로, 이웃 나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천하의 희망마저도 잃게 하는 사건은 삼국의 연대를 해치는 일본의 행위 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서구 열강의 침략행위에 빚대 일본의 침략성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진정한 아시아 연대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1880년대 초반 일본을 방문하여 興亞會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자료가 이들의 인식의 편린만을 보여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 탓에 인식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1880년대 초반 방일했던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흥아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흥아회 회원들

94) 표면적으로는 서구 열강을 겨냥한 비판임이 분명하지만, 조일관계나 중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이는 ‘鄰疆寒心’, ‘小役大 弱役強’을 저지르는 주체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주승택, 1991, 「강위의 개화사상과 외교활동」, 『한국문화』 12, 168쪽).

과 긴밀히 접촉했고,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홍아회 회장의 초청을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⁹⁵⁾

홍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 조선 개화지식인들이 적극 호응했던 사실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어떤 이유와 의도에서 이처럼 호응했던가 하는 점에 답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할 것이다. 자료적 한계로 말미암아 이상의 물음에 대해 명확히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종적·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동양 삼국의 연대를 통해 이질적인 서구 침략세력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아시아 연대론’의 논리 구조가 ‘화이론적 국제질서관’을 갖고 있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세계를 규정했던 국제질서는 화이론적인 질서였고, 그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중국을 정점으로 中華와 오랑캐를 구분짓는 階序의인 질서였다. 이때의 中華는 혈통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이 결합된 개념이었고, 조선은 스스로 小中華를 자임함으로써 화이질서 속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연대론’의 논리 구조는 동아시아 삼국이 형제적 관계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계서적인 화이질서와 구분되지만 동양적 가치를 수호할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친숙했던 것이다. ‘아시아 연대론’은 전근대 화이론적 국제질서 관념에서 근대적 국제질서 관념으로 나아가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국제질서 관념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둘째, 일본 주재 淸國 公使館員들의 홍아회 활동과 ‘아시아 연대론’적 사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청국공사 하여장의 홍아회 참여를 비롯한 중국의 명사가 회원임을 언급하며 홍아회의 취지에

95) 김홍집의 초청 거절은 斥邪的 輿論이 팽배한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지만, 그러한 그조차도 屬官들을 대신 보내어 홍아회 모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찬동한 것이나, 하여장·황준현으로부터 꾸준히 아시아 연대를 권유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⁹⁶⁾ 방일했던 수신사나 조사시찰단 등이 홍아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자리에는 적지 않은 청국인들이 동석하여 함께 시를 지으며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⁹⁷⁾ 청국 관리들의 이와 같은 행동과 말은 일본에 대해 일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조선 개화지식인들이 의심을 견고 홍아회 회합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시아 연대론'은 서세동점의 대외적 위기에 봉착한 약소국 조선의 입장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색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연대론'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해 제시된 침략논리라는 것이고,⁹⁸⁾ 이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은 단순히 '친일의 논리' 혹은 '침략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었다.⁹⁹⁾ 하지만 이 시기 대외적 위기 극복을 모색 중이던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아시아

96) 하여장과 황준현은 일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김홍집에게 아시아 연대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을 강변하기까지 하였다. 주 78) 참조.

97) 이광린은 홍아회에 참여하였던 중국인들은 이내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고 홍아회를 의심하여 손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순진하게도 홍아회의 취지를 믿고 일본을 방문하면 홍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광린, 1979, 앞의 글, 142쪽). 하지만 중국인이 홍아회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지적은 사실과 어긋난다. 1882년 6월 21일 김옥균·서광범 등과 함께 홍아회 주최 연회에 참석했을 때 淸國公使 黎庶昌·淸國公使隨員 姚文棟 등 적지 않은 청국인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즈음부터 여서창은 정식으로 홍아회 창립원에 입회하여 활동하였다(『興亞會報告』 제30집(1882년 7월 30일), '吾會紀事' 1~3쪽). 홍아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요문동이었는데, 이는 『홍아회보고』와 『아세아협회보고』 곳곳에서 확인된다.

98) 앞서 지적했듯이 홍아회 회원들의 아시아 연대의식이 갖는 스펙트럼은 몹시 다양하였다. 적어도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추구했던 자유민권운동이 급격히 퇴조하여 아시아 인민과의 연대의식도 함께 소멸되어 갔던 188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아시아 연대론'을 일본의 침략논리로 단정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99) 아시아주의에 적극 호응한 1880년대 개화파 지식인들의 행동에 대해 박노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평가하였다. "문화전통에 대한 애착과 개화의 신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아시아주의 패러다임을 이용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일본의 노선만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 이동인을 대표한 초기 개화파들의 대외의존 지향이 일본 이외의 여러 대상을 포함했다는 점 등은 분명하다"(박노자, 2005, 앞의 책, 208~209쪽).

연대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진의를 의심하는 김홍집에게 오히려 청국공사 일행이 안심시키고 있는 점이나, 강위가 1882년 우쓰미에게 보낸 답장에서 일본의 침략성을 중의적으로 비판하고 진정한 아시아 연대를 이룰 것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침략성에 대한 무지'로 단정짓기도 어렵다. 다만 '국가 또는 민족'이 아닌 '동양 또는 인종'이 서구의 침략에 맞서는 주체로 상정된 '아시아 연대론'은 연대의 축 가운데 하나가 침략세력으로 변질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¹⁰⁰⁾ 대한제국 시기의 '동양 삼국공영론'은 바로 아시아 연대주의의 그러한 한계를 잘 드러내 주는 사조였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사회는 이른바 '서세동점'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 국제질서로 급격하게 재편되어 갔다. 서구 열강의 외압에 문호를 개방하고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양 삼국의 연대를 통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고 부강을 이루자는 '아시아 연대론'이 주창되었고, 조선의 개화지식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아시아 연대론'을 표방하면서 창립된 대표적인 단체이면서 조선 개화지식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홍아회는 1877년 봄 소네 도시토라 주도

100) 인종 대신 민족을 경쟁의 단위로 사고하게 되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 국권상실에 임박해서 일본의 침략성을 목도하면서부터였다(백동현, 2001,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543~547쪽).

로 설립되었던 진아사를 모태로 하여 1880년 2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설립되었다. 1883년 1월에는 단체의 명칭이 아세아협회로 개칭되어 활동하다가 1900년 3월에 이르면 동아동문회로 흡수 합병되게 된다. 홍아회의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임원진뿐 아니라 회원의 대부분은 정부의 관리, 군인, 언론인, 무역업자 등이었고, 하여장·여서창 등 청국공사를 포함한 중국인과 김옥균·이동인 등 조선인과 같은 외국인 회원도 적지 않았다.

홍아회가 표방했던 '아시아 연대론'은 조직 내에서도 적지 않은 편차가 있었다. 정부 사이의 제휴를 의도했던 '체제적 아시아 제휴론'이 있었는가 하면, 전제적인 현 정부의 민주적 개혁에 의해 개혁정부의 상호 제휴를 지향했던 '개혁적 아시아 제휴론'도 존재했고, 脫亞意識에 기반을 둔 對中國 지도론의 입장에 선 연대론도 존재하였던 것이다.

1880년대 초반 방일했던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홍아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홍아회 회원들과 긴밀히 접촉했고,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이처럼 홍아회와 '아시아 연대론'에 대해 적극 호응했던 이유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아시아 연대론'에 쉽게 호응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논리 구조가 '화이론적 국제질서관'을 갖고 있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아시아 연대론'의 논리 구조는 동아시아 삼국이 수평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계서적인 화이질서와 구분되지만 동양적 가치를 수호할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아시아 연대론'은 전근대 화이론적 국제질서 관념에서 근대적 국제질서 관념으로 나아가던 과정 중에 나타난 과도기적 국제질서 관념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또한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원들의 홍아회 활동과 '아시아 연대론'적 사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국 관리들은 스스로 홍아회에 적극 참여하며 삼국의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일본에 대해 일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조선 개화지식인들이 의심을 견고 홍아회 회합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아시아 연대론'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성

을 은폐하기 위해 제시된 침략논리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은 단순히 '친일의 논리' 혹은 '침략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대외적 위기 극복을 모색 중이던 조선의 개화지식인들이 '아시아 연대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시아 연대론'은 서세동점의 대외적 위기에 봉착한 약소국 조선의 입장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색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또는 민족'이 아닌 '동양 또는 인종'이 서구의 침략에 맞서는 주체로 상정된 '아시아 연대론'은 연대의 축 가운데 하나가 침략세력으로 변질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 시기의 '동양 삼국공영론'은 그러한 '아시아연대론'의 한계를 잘 드러내 주는 사조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姜瑋全集(上, 下)』(아세아문화사, 1978).

『古歡堂收草』.

『古歡堂集』.

『修信使記錄』(국사편찬위원회, 1958).

『新聞集成明治編年史』.

『漢城旬報』.

『漢城周報』.

『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

이현영, 『日槎集略』(『(국역)해행총재XI』, 민족문화추진회, 1977).

〈연구서〉

강창일, 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道園相公記念事業推進委員會, 1977, 『開化期の金總理』,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노자, 2005,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출판.

역사학회 편, 1984, 『日本の侵略政策史研究』, 일조각.

역사학회 편, 1986, 『露日戰爭 前後 日本の 한국침략』, 일조각.

이광린, 1973, 『開化黨研究』, 일조각.

이광린, 1979, 『韓國開化思想研究』, 일조각.

이광린, 1986,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일조각.

이광린, 1989,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일조각.

이광린, 1997, 『開化期研究』, 일조각.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오카 요시타케, 장인성 역, 1996, 『근대 일본 정치사』, 소화.

古屋哲夫 편, 1996,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綠陰書房.

旗田巍, 李基東 譯, 1983,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伊東昭雄, 1990, 『アジアと近代日本』, 社會評論社.

竹内好, 1963, 『現代日本思想大系—アジア主義』, 筑摩書房.

初瀬龍平, 1980, 『傳統的右翼内田良平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논문〉

- 김정일 · 강창일, 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 김도형, 2000,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 '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3.
- 김윤희, 2003, 「삼국공영론의 경제발전 방안과 경인지역 대자본가의 경제적 지향」, 『한국근현대사연구』 26.
- 김윤희, 2006, 「러일대립기(1898~1904) 『皇城新聞』의 이중지향성과 자강론-연대와 배제의 접합」, 『한국사학보』 25.
- 백동현, 2001,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 이광린, 1989,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연대론」,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일조각.
- 이현주, 2006,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의 도입」, 『한국사학보』 25.
- 정문상, 2004, 「19세기말 ~ 20세기초 '개화지식인'의 동아시아 지역 연대론」, 『亞細亞文化研究』 8.
- 조재곤, 2001, 「19세기말 삼국제휴론 대두 배경과 인식론의 방향」, 『亞細亞文化研究』 5.
- 함동주, 1993, 「戰後 日本知識人の 아시아주의론-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0 · 21.
- 함동주, 1995, 「明治期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國權意識」, 『일본역사연구』 2.
- 함동주, 1997, 「明治期 아시아주의의 아시아상」, 『일본역사연구』 5.
- 山田昭次, 1969, 「自由民權期における興亞論と脱亞論-アジア主義の形成をめぐ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6, 朝鮮史研究會(현대일본연구회 편, 1981, 『국권론과 민권론』, 한길사에 번역수록).
- 矢澤康祐, 1960, 「明治前半期 부르주아 民族主義의 두 개의 발현형태-아시아 連帶意識을 둘러싸고」, 『歷史學研究』 238.
- 鱒澤彰夫, 1993, 「興亞會의 中國語教育」, 『興亞會報告 · 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 黒木彬文, 1993, 「興亞會 · 亞細亞協會의 活動と思想」, 『興亞會報告 · 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ABSTRACT]

The Study on the Korean Enlightened Intellectuals' Recognition of 'Theory of Asia-Solidarity' in early 1880s

Lee, Heonjoo

Since the mid 19th century, northeast Asian society has confronted the so-called crisis of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West on the East(西勢東漸)'. The traditional Sinocentric order collapsed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reorganized the society quickly. Amidst this situation, intellectuals in Japan and China began to advocate the 'Solidarity of Asia', which means to defend the invasion of the Western powers and to establish wealth and power through solidarity among three Eastern countries, and the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Korea were more than glad to act in concert with this assertion.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advocacy of 'the Theory of the Solidarity of Asia', Heungaheui(興亞會) was found in Tokyo, Japan on February 13, 1880 with the matrix of Jinasa(振亞社), which had been established mainly by Sone Doshitora(曾根俊虎) in the spring of 1877. Also, Heungaheui drew no small amount of attention also from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Korea. In January 1883, Heungaheui changed its name to the Asian Association and pursued its activities. Then, it was absorbed and merged into Donga Dongmunheui beginning in March 1900. The 'Solidarity of Asia' advocated by Heungaheui had no small vari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 'systemic Asia coalition ideology' appeared which was

aimed at the coali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re also existed a 'reformative Asia coalition ideology' that aspired to a mutual coalition between reformative governments through the democratic reformation by the then despotic government. Also, there emerged a solidarity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uiding ideology against China based on out-of-Asianism sentiment, in the organization.

Figures, who visited Japan during the early 1880s, mostly participated in the Heungaheui meeting or maintained a close contact with Heungaheui members. Also, they responded positively to the 'Solidarity of Asia'.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Korea could easily favor the 'Solidarity of Asia' because its logical structure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traditional 'worldview of the Sinocentric international order'.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olidarity of Asia' is different from the hierarchal Sinocentric order as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horizontally coupled. However, it is analogous to the Sinocentric order in that it established an oriental value as a target to guard. The 'Solidarity of Asia' was characterized by the notion of a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which appeared during the shift from the notion of a pre-modern Sinocentric international order to that of a modern international order.

This means that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Joseon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Heungaheui activity of legation in the Ching Dynasty, in Japan, as well as a thinking based on the 'Solidarity of Asia'. Legation staffs from the Ching Dynasty actively joined Heungaheui independently and stressed the need for solidar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s prepared an opportunity for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Korea to participate in the gathering of Heungaheui,

shaking off a certain level of their doubts about Japan.

The existing perspective viewed the 'Solidarity of Asia' as an invader's logic proposed for hiding the invasive nature of Japan to Asia. Subsequently, the attention of the Korean people was commonly denounced simply as the 'logic of Japanophilism' or the result of 'ignorance about the invasive nature'. Nevertheless, it was rather so natural that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Korea, who were seeking to overcome this international crisis during this period, became interested in the 'Solidarity of Asia'. This was because the 'Solidarity of Asia' was one of the diverse options available for Korea, which faced the international crisis of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West on the East', to choose as a lesser power. However, the 'Solidarity of Asia' assumed its subjects resisted the invasion of the West, not 'as a country or nation' but 'as the East or one race'. Thus, it bore a limitation such that it was hard for the countries to take appropriate actions when any one of the countries in solidarity was transformed as an invading force. It is deemed to be 'the ideology of Mutual Prosperity of Three Eastern Countries' during the Great Korean Empire period, which was a trend that well-demonstrated such a limitation on Asian solidarism.

keywords

Theory of Asia-Solidarity, Heungaheui(興亞會), Susinsa(修信使, Special Envoy), Josa Sichaldan(朝土視察團,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 Kim Ki-soo(金綺秀), Lee Dong-in(李東仁), Kang Wi(姜瑋), Kim Ok-kyun(金玉均), Moriyama Sigeru(森山茂), Sone Doshitora(曾根俊虎)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장 신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1910년 일제는 한일합병을 강제로 체결한 뒤 동화주의 통치방침 아래 식민지 지배정책을 펼쳐 갔다. 일제의 조선 지배는 강력한 헌병경찰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치였으나 한편으로 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지배도 병행했다. 후자는 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역사도 주요하게 활용했다. 이른바 식민사학이었다. 이미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일본의 관학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조직하여 식민통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 사업이 1915년 7월에 시작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의도, 성격 등이 뚜렷했던 만큼 연구논문은 많지 않지만 대강의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김성민은 조선사편수회의 설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다루었다. 그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경과를 정리한 후, 중추원의 조선반도사 편찬 계획을 “일제에 의한 관찬 사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면서 “이후의 사서편찬에 기본방향을 설정해 준 것”으로 평가

했다. 또 편찬 계획은 박은식의 『한국통사』와의 대항의식에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사서를 보급한다는 목적만 앞세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완성된 『조선반도사』의 수준이 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1922년에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되던 1924년 말에 『조선사』 편찬사업으로 통일되었다고 정리했다.¹⁾

조동걸은 조선반도사 편찬을 “침략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기능했던 식민사학”이 아니라 “합방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는 역사서술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²⁾ 이성시는 “민족의 기원과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한민족 입장에서 기술한 역사서” 곧 『한국통사』 등의 보급에 위기감을 느끼고 조선총독부가 조선반도사 편찬에 나선 것으로 보았다.³⁾ 김성민 · 조동걸과 이성시의 차이점이라면 조선역사서 편찬을 언제부터 기획했느냐, 곧 강점 직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통사』 등의 위협이 드러난 이후인가 정도이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는 가운데⁴⁾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이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선사편수회의 전사로서 간주되는 평가는 대개의 연구나 사학사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⁵⁾

필자도 선행 연구의 결론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맞추어 이 사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

첫째,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보통 조선사편수회의 전사로서만 다루어지

1) 金性玟, 1989, 「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지식산업사, 123~130쪽.

2) 조동걸, 1993, 「식민사학의 성립과정과 근대사 서술」,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55~56쪽(원 출전은 『역사교육논집』 13 · 14합집, 1990).

3) 이성시, 2001, 「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만들어진 고대』, 삼인, 213쪽.

4) 이승일은 조선총독부의 역사기록 수집 작업의 하나로서 『조선반도사』 편찬 계획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승일, 2007, 「조선총독부의 고기록 정리와 기록물 수집정책」, 박성진 · 이승일 지음, 『조선총독부 공문서 -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338~341쪽.

5) 송찬섭, 1994, 「일제의 식민사학」, 조동걸 · 한영우 · 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308~309쪽.

는데, 10여 년 동안 추진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사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목적·방향과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비교하여 그 계승점과 차이점을 선명히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 간행되지 못했지만 각 집필자가 쓴 원고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이 사업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동화를 위해 필요한 역사상과 방법은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편찬 주안점 세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곧 ‘동족’이란 무엇이며, 조동걸이 지적했던 ‘병합의 당위성’을 어떠한 역사서술로 확보할 것이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술할 계획이다.

셋째, 이 사업은 조선총독부의 관찬사업으로서 학자들이 결합했다. 조선사를 타율적으로 바라보고 식민통치와 동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도 일치하나 구체적 역사상에서는 학자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질성보다 차이점에 주목하여 미세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추적했다.

넷째,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서술했다. 특히 집필진과 편찬 방침의 변화, 목차의 확정과 부록 등의 제작방침 확정 등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기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 외에 새로 발굴한 자료의 덕을 크게 보았다. 종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연구할 때 주요하게 이용한 자료는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였다. 이 자료는 제목 그대로 구관제도조사사업의 개요를 기록한 것인데, 그 조사사업의 하나였던 조선반도사 편찬과 그 부속 사업을 함께 정리하였다.⁶⁾ 그 외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에도 『朝鮮史』 편수 작업의 전단계로서 반도사 편찬사업을 간략히 정리했다.⁷⁾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 외에 새로 발굴된 아래 자료를 적극 이용했다. 하와이대학 해밀튼도서관에는 『朝鮮半島史要項』, 『朝鮮半島史要項細目』, 『半島史編纂打合事項』, 『朝鮮半島史(一篇·二編)』 등이 소장되어 있다.⁸⁾ 또 경상

6)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37~160쪽.

7)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4~7쪽.

8) 이 자료의 존재를 알게 해 주고 여러 정보와 직접 촬영한 파일까지 제공해 주신 국제

대학교 도서관에 『朝鮮半島史』 第一篇, 第二篇, 第三篇, 第五篇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민대학교 도서관에도 第六篇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1920년 4월에 작성된 ‘타합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작성 또는 제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⁹⁾

II.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착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1915년 7월 중추원의 업무로 시작되었다. 중추원이 반도사 편찬사업을 주관하게 된 데는 구관조사사무를 담당하던 참서관실의 사무대부분이 1915년 5월 1일자로 중추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출범과 함께 구관조사를 전담했던 취조국은, 1912년 4월 관제개정으로 폐지되고 그 업무를 참서관실로 이관했다. 참서관실의 분장사무는 “조선의 제도와 관습의 조사”로서 추진한 주요 업무는 구관조사, 考事資料(조선금석문, 조선도서, 고문서와 冊版 등) 수집, 조선활자 정리, 版木 정리, 대장경 奉獻 등이었다.¹⁰⁾ 이 중에서도 ‘반도사 편찬’과 관련 있는 업무는 역사편찬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考事資料, 곧 사료수집이었다. 이 업무는 1913년 2월 정무총감 명의로

일본문화연구센터의 松田利彦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 필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직할 때 함께 하와이대학에서 며칠 동안 자료를 촬영하고 통역을 맡아 주신 조진영 선생님, 자료 열람과 복제의 편의를 제공해 준 하와이대학 해밀튼도서관 아시안컬렉션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9) 이 논문의 초고를 제출한 뒤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사료집(『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2008』)으로 펴냈다. 필요할 때마다 본문에서 자료의 출처와 성격을 설명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사료집에 수록된 해제(김성민, 「해제 :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33~60쪽.

각도장관에 내린 통첩 「조선 고서 및 금석문·탁본 수집에 관한 건」에서 시작되었다. 통첩에서는 총독부 참서관실에 소장된 많은 서적은 考古 재료로 삼을 만한 게 적지 않지만 사료수집에서는 여전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고, 특히 삼국 시대와 고려의 문헌은 현존 역사에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의 도서는 정확히 經史子集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子와 集에도 가끔 正史의 缺漏를 보완할 기사가 있다면서 총독부가 소장하지 않은 민간에 산재한 1894년 이전에 저작된 도서를 수집함으로써 규장각 도서를 완비하여 조선에 관한 완전한 ‘제국의 문고’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 같은 이유로써 금석문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통첩에서 총독부는 “본년(1913년-인용자)부터 모든 재야의 도서와 古碑의 탁본을 수집”할 것임을 천명했다.¹¹⁾

정무총감의 통첩 이래 수집사업은 착착 진행되었다. 금석문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1913년 말에 벌써 신라시기 29종, 고려시기 87종을 비롯해 모두 1,040여 종의 탁본 등을 수집하여 그 일부를 총독부에서 전시했다. 1915년 말의 금석문 총수는 1,579종에 이르렀다. 또 참서관실이 소장한 도서 이외의 것으로서 조선인이 저작과 편찬에 관계한 도서는 구입·차입·등사·기부 등의 방법으로 56종 191책을 수집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5월에 구관조사사무를 이관하면서 중추원 직원이 담당할 첫째 업무로서 역사편찬을 들었다.¹²⁾ 중추원은 그 업무뿐 아니라 오랫동안 구관조사를 담당한 참서관실의 인력과 수집자료, 그리고 경험도 인계받았다. 특히 1913년 정무총감 통첩에 근거한 사료수집의 성과는, 중추원이 참서관실의 사무를 인계받자마자 바로 반도사 편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이었다.

중추원은 반도사 편찬사업에 착수한 첫 해에 반도사 편찬의 부대사업인 朝鮮人名彙考의 편찬에 착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담당할 인력의 인선과 조직에 주력했다. 구관제도조사를 시작으로 금석문과 典籍調査 경험이 풍

11)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40~41쪽.

12)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37쪽 ; 이성시, 2001, 앞의 글, 212쪽.

부한 증추원서기관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가 전체 기획을 맡았다.¹³⁾ 1916년 1월에 증추원 찬의 南奎熙, 柳正秀, 李建春, 鄭仁興, 부찬의 魚允迪, 趙秉健, 洪運功, 朴齊嘯, 李度翼, 吳在豐, 羅壽淵, 宋之憲, 朴熙陽, 柳興世, 李晚奎 등 15명을 조사주임으로 임명했다. 조사주임의 임무는 자료수집으로서 3개월마다 수집한 자료를 서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이었다.

또 3월에는 京都帝大 교수 미우라 가네유키[三浦周行]와 강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東京帝大 조교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등을 촉탁으로 위촉하여 편집주임을 맡겼다. 편집주임은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를 포함해 5인이었는데 1916년 9월 현재 1명은 미정이었다.¹⁴⁾ 오다를 제외한 세 촉탁의 임무는 조선반도사의 집필이었다. 東京과 京都 두 제국대학을 대표하는 교수와 최초의 조선사 박사를 안배한 인선이었다.¹⁵⁾ 이와 함께 이완용 등 모두 12명의 조선 귀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¹⁶⁾

원래 반도사 편찬사업의 순서는, 조사주임이 자료를 수집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증추원 서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서기관장은 이를 편집주임에게 교부하고, 편집주임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집필한 후 그 원고를 다시 서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이었다. 서기관장은 제출된 원고를 등사판으로 만들어 심사위원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받는다. 심사위원의 의견은 附箋으로 표시하는데, 서기관장이 이 의견을 편집주임과 심사위원의 협의회에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13) 中村榮孝, 1969,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655쪽.

14) 나머지 1명의 편집주임이 위촉되었는지, 또 위촉되었다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편집주임의 한 사람인 黑板勝美가 언론과 인터뷰 도중 “조선사편찬을 谷井 문학박사가 맡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黑板의 말이 맞다면 나머지 1명은 谷井濟一로 추정된다. 「朝鮮史編纂の方針—黑板博士を語る」, 『朝鮮新聞』, 1917. 8. 28(3).

15) 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石井紫郎, 1976, 「三浦周行」, 永原慶二·鹿野政直 編,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111~115쪽; 松島榮一, 1976, 「黑板勝美」, 永原慶二·鹿野政直 編, 위의 책, 126~136쪽; 田中俊明, 1994, 「今西龍」, 江上波夫 編, 『東洋學の系譜 第2集』, 大修館書店, 58~67쪽.

16) 朝鮮總督府 編, 1916,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 6~9쪽(이하 『편성요지』로 줄임).

최후의 成案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안은 의장과 총독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었다. 최초의 사업기간은 1916년 1월부터 1917년 12월까지 약 2년 예정이었다.¹⁷⁾

Ⅲ. 조선반도사 편찬의 목적과 방향

1. 편집주임의 조선사 인식

조선반도사 편찬 계획을 조선총독부가 세웠지만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학자, 곧 편집주임들의 몫이었다. '반도사 편찬'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지만 학자의 특성상 조선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었다. 또 편찬사업을 의뢰한 조선총독부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세 학자의 서로 다른 朝鮮史像을 반영하면서도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전달·조절·관철시키는 역할은 기획을 맡았던 관료 오다 간지로¹⁸⁾의 몫이었다.

따라서 편찬될 『조선반도사』는 사업의 발주처인 조선총독부의 총론을 바탕으로 편집주임들의 머릿속에 있는 조선사를 끌어내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하 세 편집주임의 조선사 인식의 특징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

17) 위의 자료, 7~8쪽.

18) 小田幹治郎은 1901년부터 나가노[長野]구재판소에서 사법관료로 지냈다. 1906년 한국 정부에 용병되어 평안북도재판소법무보좌관, 법전조사국 사무관·서기관으로 근무했다. 강점 후 조선총독부 취조국과 참서관실에서 사무관으로 일했으며 중추원 조사과장·서기관장을 지냈다. 또 조선사서(辭書)심사위원, 조선총독부월보편찬위원, 조선회보편찬위원, 고적조사회 간사, 박물관협의위원, 조선어사전심사위원, 조선민사령·민적법개정조사위원, 구관(舊慣)심사위원, 구관·제도조사위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1923년 3월 관계를 떠나 일본 고베[神戸]에서 변호사로 지내다가 1929년 3월 1일 사망했다. 小田栢 編, 1931, 『小田幹治郎遺稿』.

략히 집어 보았다.

미우라 가네유키[三浦周行]는 일본의 神代부터 일본과 조선이 국가 또는 통치영역을 같이했다는 日韓一域論의 지지자였다. 그는 병합 당시 간행된 『歷史地理』 조선호에서 “태고에 日韓 양국의 地續했던 일은 지리학자, 지질학자가 증명했고, 양국의 언어·유물이 가까운 동일계통이라는 일도 언어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 등이 고증하여 이미 명료”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아국의 신화, 出雲風土記의 유명한 國引條의 文採” 등 여러 사료를 보더라도 “日韓이 원래 지리적으로 同域”이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素戔鳴尊·五十猛命 부자를 시작으로 피아의 왕래가 일찍부터 빈번해서 적어도 남선지방이 우리 영유로 돌아온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¹⁹⁾

미우라의 조선사 인식은, 조선은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타율성론을 바탕으로 했다. 그는 “조선사의 대부분은 지나의 藩屬國, 곧 附庸國의 시대로 가득 차” 있으며 “事大는 조선의 國是”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옛 역사는 “中華, 곧 지나의 역사”라고 폄하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조선사는 일본사의 견지에서 크게 개조되어야 하며 조선사의 출발을 중국사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래 조선사가 중국의 속국이었던 까닭에 모두 북방문화로부터 출발했으나 일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사는 남방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선지방의 조선 문화가 중국에서 독립되어 있음은 일본의 신화와 전설 등을 통해서 인정되었으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본과 남부 조선의 교섭관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²⁰⁾ 이처럼 미우라는 조선사를 각각 중국과 일본에 부속된 역사로 보면서 조선의 남부를 일본과 同域으로 보았다.

또 미우라는 열렬한 동화정책의 지지자였다. 일본의 한국 강점을 ‘일대盛事’로 부르면서 “한국 병합의 성패가 新附 동포의 동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19) 三浦周行, 1910, 「日韓の同化と分化」, 『歷史地理(臨時増刊 朝鮮特號)』, 三省堂書店, 164쪽.

20) 三浦周行, 1917. 10, 「朝鮮史の將來」, 『朝鮮及滿洲』 124, 60~62쪽; 文學博士 三浦周行, 1916. 12, 「朝鮮最古の地理書に就て」, 『朝鮮彙報』 12월호, 17쪽.

다.²¹⁾ 미우라의 생각은 10년이 지난 3·1운동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일본이 자위의 목적으로 다년간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병합한 조선을 손에서 놓아주기란 절대로 불가능하고,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동경은 공중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인은 독립의 역사가 없고 산업도 빈약하여 경제적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근거였다. 따라서 조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화를 요구하여 정치적·사회적 차별을 철저히 철폐하는 것만이 조선인이 취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과거 일본 역사가 조선인의 동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대우를 받는 특수부락민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음도 경고했다.²²⁾

동화정책을 지지하기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도 마찬가지였다. 강점 당시 그는 동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조선인이 순일본국민과 같이 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인은 “이천오백여 년의 역사를 함께 하고 존엄한 황실을 중심으로 오늘에 이른 일본국민”과 역사와 풍속인정을 달리하기 때문이었다.²³⁾ 그랬던 그가 1918년에는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어를 급속하고 철저히 보급하는 것을 동화정책의 근본적 묘책이라 주장했다. 다소 강제로 실행하는 것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²⁴⁾

반면에 구로이타는 고대 한일관계사를 미우라와 다르게 인식했다. 그는 미우라 등 日韓一域論자 등의 주요 근거였던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素戔鳴尊의 사적과 稻飯命이 海原으로 갔다는 것, 新撰姓氏錄의 新良貴氏條, 出雲風土記의 國引條와 우리 古書의 朝鮮을 기록한 것, 조선의 전설 중 瓠公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갔다는 것, 단군 이야기 등”을 열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태고의 草昧한 시대에 조선의 어떤 부분과 일본의 어떤 부분이 일국

21) 三浦周行, 1910, 앞의 글, 163쪽.

22) 文學博士 三浦周行, 1921. 7, 「朝鮮人は同化すべきや」, 『民族と歴史』 제6권 제1호, 106~112쪽.

23) 黑板勝美, 1910, 「偶語」, 『歴史地理(臨時増刊 朝鮮特號)』, 154쪽.

24) 文學博士 黑板勝美, 1918. 8, 「同化の第一義は鮮人の改名に在り - 朝鮮人を日本式の姓名に改めよ」, 『朝鮮公論』 65, 29~32쪽.

을 이루었다는 것”을 수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²⁵⁾

게다가 구로이타는 ‘神功皇后의 조선 정벌’도 『일본서기』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것은 후세에 다소 변형된 것으로서 옛날에 그 같은 말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라의 압박을 받은 대가야의 구원 요청을 받아 아들이 정치적 간섭을 하여 ‘현재의 통감부 같은’ 일본부를 설치한 것일 뿐 영토적 의미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때 일본은 조선보다 문화상태가 극히 뒤떨어진 원시상태였고, 조선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구가 번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선에서 사람의 이주를 희망해도 그 역을 생각하기 어려웠다.²⁶⁾ 이것이 일본과 조선 간에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라 했다.²⁷⁾

미우라나 구로이타와 다르게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현안에 대한 발언을 즐겨하지 않은 듯하다. 이마니시가 한국 병합을 합리화하는 『역사지리』 조선 호의 의도를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했다지만,²⁸⁾ 엄밀히 말하면 이때의 원고는 素戔鳴尊=檀君이라면서 경성에 신사를 설립하려던 神道 세력²⁹⁾을 겨냥하고 있었다.³⁰⁾ 이후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는 민족의 단일기원으로서 단군을 숭배하는 조선인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³¹⁾

이마니시의 조선사 인식에서 주목할 것은 日本府에 대한 태도였다. 1917년에 과거 임나로 추정되는 낙동강 서부지역의 고분을 조사·정리한 이마니시는 일본부를 大和朝廷, 곧 일본 천황의 명령을 받드는 使(직책)로 정리했다. 달리 말해 대화조정이 가라제국에서 연공 징수 등의 일을 맡아 행한 것이 일본부이며, 이것이 임나 전체를 감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부라는 용어는 후대에

25) 黑板勝美, 1910, 앞의 글, 156쪽.

26) 文學博士 黑板勝美, 「朝鮮의 歴史的 觀察(4)」, 『毎日申報』, 1921. 9. 22(1).

27) 文學博士 黑板勝美, 「朝鮮의 歴史的 觀察(3)」, 『毎日申報』, 1921. 9. 21(1).

28) 林直樹, 1999,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 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58쪽.

29) 徐永大, 2001, 「한말의 檀君運動과 大倭教」, 『韓國史研究』 114, 250~252쪽.

30) 文學士 今西龍, 1910, 「檀君의 說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 朝鮮號)』, 223~224쪽.

31) 今西龍, 1929, 『檀君考』, 1~2쪽.

만들어진 것이며, 마치 지금의 총독부처럼 여기고 그 자취를 구하려는 것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했다.³²⁾

이후 이마니시는 중추원에 제출한 『조선반도사』 제2편에서 이를 상세히 서술했다. 神功皇后는 일본의 보호를 받던 가라 諸國을 존치하고 각 왕에게 자치를 맡겼다. 일본 조정은 예의상 조세·공물을 징수하고, 이 지역의 나라를 일본의 宮家라 불렀다. 가라 제국 사이에는 일본 조정의 직할지가 섞여 있었고, 각 직할지에는 조정에서 파견된 宰가 인근 국가의 정치와 공물 징수를 감독했다. 그리고 역시 일본 조정에서 파견된 유력한 장군이 약간의 병사를 이끌고 통감했는데, 『國史』에는 장군의 주재소를 일본부라 기록했다. 일본부는 대군을 거느릴 수 없었고 소재도 일정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이동해서 일본부라 불리는 게 반드시 하나만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일본부는 고정된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편의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다.³³⁾

2. 편찬 목적

1916년 1월 중추원 서기관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縑]는 조사주임에게 사령장을 교부하면서 “새로이 정확한 조선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그들을 선발·임명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종래 조선에 역사에 관한 책이 많지만 아직 정확하다고 인정되어 준거할 만한 역사책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정확한 조선 역사’를 편찬한다고 했다. 기존의 역사서는 편찬 당시의 시대사상에 사로잡혀 공평무사한 기술을 한 게 적다는 것이었다. 그 예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신라를 소외시키고 고려 초기의 일을 과대하게 존송했으며,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도 고려를 평범하게 기술한 반면에 조선의 일은 善美하게 과장적으로 기재했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은 조선 역사만 아니라 서양 역사

32)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助教授 今西龍, 1918. 2, 「任那に就て」, 『朝鮮叢報』 2월호, 61~62쪽.

33) 今西龍, 『朝鮮半島史』 第二篇(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 -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203쪽).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도사 편찬의 목적은 “현재의 입장에서 냉정한 태도로 역사상의 사실을 편벽되거나 누락시킴 없이 오직 善意로 기술하여 유일하게 완전무결한 조선사를 편찬”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³⁴⁾

고마쓰 미도리는 “현재의 입장”에서 “유일하고 완전무결한 조선사”를 편찬한다고 했지만 조선역사의 ‘통사’를 만든다는 것 외에는 그 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1916년 7월에 이르러서야 「조선반도사편성요지」(이하 ‘편성요지’로 줄임)가 작성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편성요지는 편집주임으로 임명된 세주임과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다 간지로의 논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⁵⁾ 『조선반도사』의 편찬 목적과 관련해서는 다음 문장이 눈에 띈다.

조선인은 여타의 식민지의 야만반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지는 바가 없다. 고래로 史書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缺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을追想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서 일청·일로 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韓國痛史라고 일컫는 한 재외조선인의 저서 같은 것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은 실로 말로써 이루 다 할 수 없는 바 있다. 이를 멸절시킬 방책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헛되이 힘을 들고 성과는 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혹은 그 전파를 장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舊史의 禁壓 대신 공명적확한 사서로써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침경이고 또 그 효과가 현저할 것임은 달리 비할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이다.³⁶⁾

조선에는 예부터 역사서가 많고 새로 저작에 착수된 게 적지 않다는 표현

34)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38~139쪽.

35) 이성시(앞의 글, 212쪽)는 『편성요지』를 데라우치 총독의 생각처럼 서술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36) 『편성요지』, 2~4쪽.

에서 보듯이 당시 조선에는 조선사를 다룬 다양한 서적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다만 그 서적들은 총독부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다. ‘독립시대’가 언제를 지칭하는지 애매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1905년 보호국으로 되기 이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이전에 쓰인 역사서의 문제점은 현대와의 관계, 곧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을 전후한 역사를 다루지 않은 ‘결합’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헛되이 조선왕조나 대한제국 시기를 여전히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한 것’은 1910년을 전후해 출간된 것으로서 일청·일로전쟁 등 당대를 다룬 역사서를 의미했다. 이 책들은 『한국통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한말의 국제정세를 논하면서 조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제의 한국 강점을 비판했다. 이것은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병합’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복고를 꿈꾸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만약 이러한 서적의 편찬이 없다면 조선인은 무심코 병합과 관련 없는 古史 또는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만을 읽는 일에 그칠 것이다. 그러한 세월이 점점 흐르고 눈앞에 다가오는 현상에 익숙해져 오늘의 밝은 세상이 첫째로 오로지 병합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하고 부질없이 舊態만을 회상하여 도리어 진보에의 기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찌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³⁷⁾

일제는 강점 전부터 ‘새로이 저작에 착수’한 책에 대해서 출판법으로 여러 차례 발매반포를 금지했다. 또 강점 직후에도 출판법 이전에 발행된 서적에 대해 발매반포를 금지함으로써 ‘병합’에 대해 불온한 생각을 갖게 하는 서적의 ‘멸절’을 시도했다.³⁸⁾ 이처럼 국내에서는 철저히 통제를 가했지만 『한국통사』

37) 위의 자료, 4쪽.

38) 『美國獨立史』 등 51종의 서적을 발매반포금지한 1910년 11월 19일자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 제72호가 대표적이다. 『朝鮮總督府官報』, 1910. 11. 19.

처럼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외로 유통되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통사』는 1915년 6월 중국 상하이 大同編譯局에서 발간된 이래 한글 번역판이 출간될 정도로 미주와 노령 등지에서 급속히 퍼졌다.³⁹⁾ 국내 유통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 조선으로 반입되는 신문에 『한국통사』 관련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압수한 것으로 볼 때⁴⁰⁾ 일제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압과 금지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병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공명적확한 사서’로써 대체할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적이 참서관실에서 중추원으로 개편되던 1915년 5월 당시의 방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조선반도사의 편찬이 1915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1916년 1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완전무결한 조선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1915년 6월에 상해에서 발간된 『한국통사』의 확산이 조선반도사 편찬의 목적을 선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이렇게 하여 편찬될 조선반도사는 “일선관계의 수많은 사적 중의 표준전거”가 되며, 또 “日本全史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역사교과서로 사용될 계획은 없다고 단정했다.⁴²⁾ 교과서와 관련해선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조선반도사가 당시 교과서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⁴³⁾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

39) 미주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는 1915년 8월 9일자에 처음으로 『한국통사』의 출간 소식을 알렸다. 이어 9월 2일부터 『한국통사』를 요약·연재하였고, 11월 25일자부터 『한국통사』의 보급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알리는 광고를 수차례 게재했다. 또 한 문본 『한국통사』의 한글판 번역본은 1917년 6월 김병식의 번역으로 하와이에서 출간되었다. 黃元九, 1980,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東方學志』 23·24합집.

40) 高圖秘發 第154號, 「新聞紙差押ノ件通報(1916. 4. 12)」,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收 제225호, 「新聞紙差押ノ件通報(1917. 6. 29)」,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 제14, 296호, 「新聞紙差押ノ件通報(1917. 8. 15)」,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41) 김성민은 『한국통사』의 발간으로 『조선반도사』 편찬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았는데(김성민, 1989, 앞의 글, 125쪽), 그것보다는 목적이 선명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42) 『편성요지』, 5쪽.

43) 김성민, 1989, 앞의 글, 128쪽.

1910년대 초중등학교의 역사교육을 보면, 주로 일본인이 다니는 6년제 소학교에서는 문부성 편찬의 『심상소학국사』를 교과서로 사용했다. 또 5년제 중학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부대신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사용했다. 반면에 주로 조선인이 다니는 4년제 보통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다. 4년제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조선총독의 검정을 거친 것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교과서 규정이 다른 이유는, 일본과 학제·수업시수 등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별도로 고등보통학교에서 사용할 일본사 교과서의 편찬을 추진하고 있었다.⁴⁴⁾

단 국정이나 검정교과서가 없을 경우, 달리 말해 학무국의 고등보통학교용 ‘국사’ 교과서가 아직 편찬되지 않았을 때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른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 모두 편찬요지의 표현처럼 “내지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일본역사”, 곧 문부대신 검정의 도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고등보통학교의 역사과목은 본방역사(일본사)와 외국역사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사만을 다룬 조선반도사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었다.

3. 편찬 방향

「편찬요지」는 조선반도사의 편찬 목적을 일본과 조선 관계의 진상을 이해하여 조선통치의 동화방침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성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선반도사가 주안으로 삼을 사항으로 세 가지를 예시했다. 첫째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同族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둘째는 상고부터 이조에 이르는 群雄의 興亡起伏과 역대의 易姓革命으로 민중이 피로해지고 빈약에 빠진 실황을 서술하고 금대에 이르러 聖世의 혜택을 입어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갖

44) 張信, 2004, 「韓末·日帝強占期の教科書發行制度와 歴史教科書」, 『歴史教育』 91, 12~16쪽.

출 수 있게 된 사실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편성할 것이었다.⁴⁵⁾

우선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이라는 문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동족’을 살펴보자. 『편찬요지』의 앞부분에는 “疆域이 서로 인접해 있고 인종이 서로 같으며 그 제도 또한 쌍방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여 혼연한 일대 영토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이해휴척을 함께하여 왔던 것”이란 문장이 있다. 서구의 식민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비교하면서 나온 문장이다. 이것과 비슷한 구절을 중추원 서기관장인 고마쓰 미도리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人種이 근본적으로 相異함에 關함이니 一方은 西洋의 白色人이오 他方은 東洋의 黑色人 又는 銅色人이라. 然한대 내지인과 조선인은 一葦帶水를 隔호 차름인 인접지에 거주하고 且 人種은 英米人의 印度·比律賓 土人에 대함과 如호 相異가 無호 畚安이라 同一호 東洋人이오 實을 言하면 同一人種이니 遠代의 祖先은 同一함이 無違호리라.⁴⁶⁾

고마쓰는 인종이라 쓰고 그 차이를 백인종, 흑인종, 동인종으로 나누었다. 『편찬요지』도 서구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교했다. 이로 볼 때 ‘同族’이라는 표현은 ‘同種’, 곧 같은 황인종 또는 銅人種이라는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동족’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시조가 같다는 ‘同祖’가 아님도 확실하다. 앞서 보았듯이 편집주임 중 神代 日韓同域을 주장한 이는 미우라 가세유키가 유일했다. 구로이타 가쓰미는 日韓同域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일본부 설치를 조선과 일본의 첫 만남이라 보았다. 이마니시 류도 上代 일본과 조선의 교류를 인정했지만,⁴⁷⁾ 1919년 8월 京都帝大 하기강연회에서 조선사를 강의할 때 “세상

45) 『편찬요지』, 4~5쪽.

46) 小松幹長 述, 『朝鮮施政의 眞義(2)』, 『毎日申報』, 1916. 8. 8(1).

47) 今西龍에게 上代란 일본에서는 大化革新(645), 조선에서는 신라 통일(668) 전을 의미했다. 東京 文學士 今西龍, 1910. 9, 『日韓上代の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1, 39쪽.

의 日韓同域論者의 說 같은 것은 내가 채택하지 않는 바”라고 단언했다.⁴⁸⁾

목차를 보면 「제2편 삼국, 제3기 삼국정립시대」 제5장에 ‘일본민족과 반도민족의 混交’가 나오며, 그 아래에 ‘일본민족의 반도거주, 반도민족의 일본 귀화’라는 절이 나온다.⁴⁹⁾ 앞 「편찬요지」의 “혼연한 일대 영토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이해후적을 함께한” 내용이다. 정복이나 점령이 아닌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 목차에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같은 문장이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목차의 다른 곳에서는 ‘일본과 삼한과의 관계’처럼 교류사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목차대로라면 친밀한 교류와 이주를 통해 역사상의 어느 시대에 피가 섞인 같은 인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로 왕조의 흥망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병합’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역시 고마쓰 미도리의 글에서 살펴보자.

朝鮮은 建國 以來에 實로 多難한 處로 有史 以後의 事實을 見할지라도 辰韓族의 擁立한 新羅는 當時의 小邦을 征服하고 朝鮮의 統一을 圖하였는데 千年이 못되어 高麗에게 滅亡되었고 高麗도 亦 五百年에 李太祖에게 滅亡한 바- 되었스니 其滅亡될 때마다 滅亡식이는 者의 一派는 滅亡되는 者의 一派를 虐待하여 慘狀을 極하였고 人民도 더욱 塗炭에 陷하여 貧弱의 度를 加함에 至하였도다. 近代에도 日淸戰爭으로 因하여 支那의 勢力이 半島에 驅逐되기까지는 朝鮮이 支那의 屬隸이니 卽 支那의 正朔을 奉하였도다. …… 然한디 如斯히 盛衰興亡이 無常하던 朝鮮은 併合에 由하여 一躍하여 日本帝國의 一部分이 되었스니 즉 日本帝國으로 昇進한 것이라.⁵⁰⁾

조선은 건국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조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었다. 그 때마다 승자가 패자를 확대하는 참상이 극에 달했고 인민의 생활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게다가 중국의 역대 왕조는 조선을 속국삼아 매년 조공을

48) 今西龍, 1935, 「朝鮮史概說」, 『朝鮮史の葉』, 近澤書店, 66쪽.

49) 『朝鮮半島史要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앞의 책, 51쪽).

50) 小松幹長 述, 「朝鮮施政의 眞義(1)」, 『每日申報』, 1916. 8. 5(1); 小松幹長 述, 「朝鮮施政의 眞義(2)」, 『每日申報』, 1916. 8. 8(1).

요구했다. 청일전쟁은 중국을 조선에서 몰아낸 계기였다. 그런데도 조선은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또다시 외세에 굴복하거나 ‘群雄의 興亡起伏과 易姓革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반면에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며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였다. 따라서 조선인은 병합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국민이 됨으로써 왕조의 흥망에 따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었다.⁵¹⁾ 게다가 그것은 조선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복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이 고마쓰 미도리 또는 조선총독부가 강조한 ‘병합의 의의’이며 조선인이 적극적으로 동화에 따라야 할 이유였다.

이 방침은 목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선반도사는 크게 6편으로 나누고, 각 편마다 期 목차를 정했다. 이를 보면 제1편은 원시시대와 漢領土시대, 제2편은 삼국성립시대, 삼국과 가라시대(일본의 보호시대) 그리고 삼국정립시대, 제3편은 용성시대와 쇠퇴시대, 제4편은 隆興시대, 遼蕃附시대, 무신정권시대, 元服屬시대, 제5편은 용성시대, 외란시대, 淸服屬시대, 제6편은 청세력 감퇴시대, 독립시대, 일본보호정치시대였다. 목차만 보아도 조선사는 漢, 遼, 元, 淸 등 중국에 종속된 역사로서 ‘일본의 보호’가 없었으면 존속조차 어려웠음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또 그 외의 목차는 성립, 隆興, 용성, 쇠퇴 등을 반복하여 왕조흥망사로 서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셋째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종래 일본이나 조선 어느 한쪽의 기록에 의지하던 것을 양국의 자료를 비교해 서술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미우라 가네유키는 규장각의 문헌을 조사한 뒤 “종래 일선 양국의 관계와 일본 측 사료의 사실을 한층 정확하게”⁵²⁾ 하며 “일선 상호의 개개 독립된 史實의 잘못을 바로잡을”⁵³⁾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말 자체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하며 어떠한 사실의 잘못을

51) 장신, 2008, 「일제하 초등학교 교사의 조선사 인식」, 『정신문화연구』 111, 109쪽.

52) 文學博士 三浦周行氏談, 「半島史蹟調査に就て(1)」, 『京城日報』, 1916. 10. 24(1).

53) 文學博士 三浦周行氏談, 「半島史蹟調査に就て(2)」, 『京城日報』, 1916. 10. 25(1).

바로잡는 것인가에 들어가면 그 의도는 명확히 드러난다.

미우라는 규장각에서 『慶尙道地理志』를 열람하면서 “일선관계의 어떤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서 특별히 흥미를 느꼈다. 역대로 조선은 중국에 대해 事大主義로 立國하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은 까닭에 조선 역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예로 옛날부터 南鮮地方은 중국과 물고섬한 상태였는데도 삼국의 왕과 인민을 모두 중국계통으로 결부시켰고 원래 단군이나 기자, 위만조선은 모두 北鮮地方에 국한된 것인데 후대에 조선 민족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옛날 일본과 조선의 친밀했던 사실을 말살시켰으며 그 유래도 오래되었다고 보았다. 임나는 일본 역사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었지만 조선 역사에는 거의 흔적이 끊겼다는 게 중요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광개토왕비 같은 古碑나 지방 전설을 기록한 읍지에 임나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숨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⁵⁴⁾

미우라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 전래의 역사서에 대한 불신은 오래되었다. 강점 당시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는 조선에 고대사를 다룬 책으로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通鑑』 등이 있지만 이 책들은 심히 불완전해서 모순과 오류를 면할 길 없는 중국 역사서의 東夷傳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게다가 편찬자료도 거의 믿을 만한 고기록이 없어서 겨우 傳聞으로 불완전한 기사를 모은데 지나지 않은 중국의 고기록을 참고하고, 俗說俗書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의 가치를 알 만하다고 했다. 덧붙여 일본에 명확하게 전해지나 조선에서는 임나를 볼 수 없다면서 조선 역사서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⁵⁵⁾

조선 역사서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朝鮮史』를 편찬할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 역사서는 “사물의 기원·유래를 설명하는 지리를 고찰할 때는 건강 부회설을 만들고, 史籍 편찬은 무비판 자료의 잡다한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도

54) 文學博士 三浦周行, 1916. 12, 「朝鮮最古の地理書に就て」, 『朝鮮叢報』 12월호, 16쪽.

55) 喜田貞吉, 1910, 『韓國の併合と國史』, 三省堂, 20~22쪽.

저히 끊어지지 않는 支那文明의 浸潤을 받은” 것이어서 누군가 “반도문화의 유래나 민족의 역사를 알려는 사람이 읽을 만한 史乘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⁵⁶⁾ 결국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란 고대 일본의 한국 지배 또는 밀접한 교류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를 보완하거나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IV.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정비와 추진

1. 집필진 교체와 증추원 편집과의 설치

증추원은 1916년에는 편찬사업에 참여할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편찬사업의 목적과 순서를 정하는 등 편찬계획의 수립에 주력했다. 이어 1917년부터 사료 수집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동시에 조선반도사를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최근세의 네 시대로 나누어 오다 간지로를 제외한 네 명의 편집주임이 각자의 집필 범위를 분담하도록 했다.⁵⁷⁾

앞서 보았듯이 조선총독부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사료수집에서 시작하여 2년 안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편집주임들은 편찬사업의 순서를 정할 때 기한을 1년 연장하여 1918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변경했다.⁵⁸⁾ 이후 사업은 다시 연장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사료수집에 예상하지 못했던 곤란, 곧 사료가 광범하고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까닭으로 설명했다.⁵⁹⁾ 미우라 가네유키는 조선에서 고적조사와 사료수집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56) 中村榮孝, 1932. 9, 「新刊『朝鮮史』に就いて」, 『朝鮮』 208, 40쪽.

57)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43~144쪽.

58) 『편성요지』, 6쪽.

59)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47쪽; 中村榮孝, 1969, 앞의 글, 655쪽.

此를 일반의 古文書記錄에 就하야 云할지라도 内地에서 史料를 採記함에 僅僅 一週를 費할지라도 行李에 充滿하도록 收穫이 有함은 奇異하지 아니하나 朝鮮에서는 一個月 二個月을 費할지라도 得하노마 數함에 足치 못하다.⁶⁰⁾

곧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일본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조선에서는 古物舊事を 존중치 않는 조선인 탓에 옛것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남은 것도 보존이 아니라 파괴하기 힘들어서 雨露에 노출되어 방치된 채로 겨우 잔존했을 뿐이었다. 또 조선인들이 이 사업을 역사기록을 埋滅시키는 것으로 ‘오해’한 탓에 쉽지 않았음도 내비쳤다.⁶¹⁾ 구로이타 가쓰미는 많은 古物이 파괴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이유의 하나로 일본인의 골동품 수집을 지적했다.⁶²⁾

한편 조선총독부는 종래의 구관조사와 별도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만을 전담하기 위해 1918년 1월 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로 「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중추원에 조사과 외에 새로 편찬과를 설치하여 “사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⁶³⁾ 이 규정으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중추원의 고유 업무가 되어 기한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편찬사업이 최초의 2년에서 2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집필진도 대폭 교체되었다. 편집주임 중에서 이마니시 류를 제외한 미우라 가네유키와 구로이타 가쓰미가 필진에서 빠지고 새로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 스기모토 쇼스케[杉本正介],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가 가세했다. 집필진의 교체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기는 오기야마 히데오⁶⁴⁾가 ‘조

60) 京大教授 三浦 博士談, 「朝鮮歷史古蹟調査에 對하야(2)」, 『每日申報』, 1919. 10. 9(1).

61) 京大教授 三浦 博士談, 「朝鮮歷史古蹟調査에 對하야(2)」, 『每日申報』, 1919. 10. 9(1).

62) 東京帝國大學教授 文學博士 黑板勝美 氏談, 「南鮮史蹟의 踏査(3) - 貴重한 朝鮮의 事蹟과 其保存」, 『每日申報』, 1915. 8. 1(1).

63)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45, 147쪽.

64) 荻山秀雄은 1883년 일본 愛媛縣 출신으로, 1909년 京都帝大 사학과를 졸업했다.

선반도사편찬에 관한 사무촉탁'으로 발령받은 1916년 10월로 추정된다. 스기모토 쇼스케⁶⁵⁾도 이 무렵에 발령을 받은 듯하다. 두 번째 시기는 세노 우마쿠마⁶⁶⁾가 조선인명사서 편찬을 담당하다가 조선반도사 편찬업무를 맡게 된 1918년 2월 무렵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 편찬을 관장하는 학무국 편집과장으로서 중추원 편찬과장을 겸임하게 된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오다 간지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⁶⁷⁾

조선총독부가 4편으로 구상했던 조선반도사는, 편집주임의 논의를 거쳐

〈표 1〉 조선반도사 집필자 변천

시대	편목차	시기별 담당			조선사강좌일 반사(1923)
		1916년 7월	1916년 10월	1918년 2월	
상세사	제1편(삼한 · 상고)	今西龍	今西龍	今西龍	小田省吾
	제2편(삼국)	今西龍	今西龍	今西龍	小田省吾
	제3편(통일신라)	今西龍	今西龍	今西龍	小田省吾
중세사	제4편(고려)	?	荻山秀雄	荻山秀雄	荻山秀雄
근세사	제5편(조선)	?	杉本正介	瀨野馬態	瀨野馬態
최근세사	제6편(조선최근사)	?	杉本正介	杉本正介	杉本正介

1914년 5월부터 이왕직 도서관의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1916년 10월에 중추원으로 옮겨 조선반도사 편찬에 관한 사무 촉탁으로 일했다. 1923년 11월 조선총독부 도서관 관장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중추원의 반도사 편찬과 학무국의 교과용도서 편찬 사무 등에 종사했다. 貴田忠衛 編,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97쪽; 阿部薰 編, 1935, 『朝鮮功勞者名鑑』, 民衆時論社, 79쪽; 朝鮮總督府, 1935,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595쪽.

65) 京都帝大에서 서양사를 전공했으며 역사보다 어학에 능통했다. 1924년 1월에 사망했다. 김성민, 1989, 앞의 글, 129~130쪽.

66) 1874년 일본 熊本縣 출신으로 1892~1895년까지 早稻田大學 문학과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秋田中學校의 교원심득으로 영어와 한문 강사로 6년간 근무했다. 1906년 12월부터 대만총독부에서 문서편찬과 土匪討伐史 편수업무를 3년간 맡았고, 1910~1914년까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조사부의 촉탁으로 근무했다. 1916년 10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중추원 촉탁으로 조선반도사 편찬업무를 맡기 전까지 朝鮮人名辭書 편찬을 담당했다. 池内宏, 1936, 「序」, 『瀨野馬態遺稿』, 2~3쪽.

67) 小田幹治郎은 중추원 조사과장을 맡았다.

신라시대를 상고·삼한, 삼국, 통일신라의 세 편으로 나누어 전편 6편으로 재구성되었다.⁶⁸⁾ 필진은 통일신라 이전의 세 편을 상세사로 묶어 이마니시 류, 중세사를 오기야마 히데오, 근세사를 스기모토 쇼스케가 맡는 것으로 했다. 곧 이어 1918년 2월에 세노 우마쿠마가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투입되면서 새롭게 근세사를 맡고 이전에 근세사를 맡았던 스기모토 쇼스케는 최근세사의 집필을 맡는 것으로 조정했다.⁶⁹⁾ 이상의 경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2. 목차와 세부 편찬방침의 확정

최초의 집필진은 우선 모아진 사료를 토대로 전 시기를 6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장·절로 나누어 세목을 작성한 뒤 이를 골자로 초고를 작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⁷⁰⁾ 『朝鮮半島史要項』에는 제1편부터 제6편까지 장·절까지 목차를 차례대로 작성했다. 이보다 조금 늦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半島史要項細目』에는 고려사 이후인 제4편부터 제6편까지는 절 아래 목차까지 작성하고, 특히 제4편과 제5편에는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요항’과 ‘세목’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목차나 일부 단어를 수정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실제 집필과정에서는 필자에 따라 제목뿐 아니라 배치도 상당히 달라졌다. 현재 남아 있는 이마니시 류의 초고와 목차 중 「제1편 上古·三韓」의 「제2기 漢領土時代」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 목차에서 볼 수 있는 큰 변화는 처음에 설정한 제1장과 제2장을 집필하면서 1장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4장 부여민족의 남하」와 「제5장 백제 신라의 흥기」를 삽입했다. 삽입된 제4장과 제5장은 원래 ‘요항’에서 「제2편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의 「제1기 삼국성립시대」에 해당된다.⁷¹⁾ 이로 볼 때 ‘요

68) 『편성요지』, 7쪽.

69) 池內宏, 1936, 앞의 글, 3쪽.

70)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7쪽.

71) 세부목차는 제1장 한민족의 흥기, 제2장 부여민족의 남하, 제3장 한군현의 멸망,

〈표 2〉 편찬 사업 초기와 최종 원고의 목차 비교

조선반도사 요약	조선반도사(경상대본)
제1장 漢의 郡縣 建置 1절 四郡의 設置와 그 疆域 2절 四郡과 韓種族의 관계	제1장 漢의 郡縣 設置 1절 四郡의 建置와 그 疆域 2절 漢昭帝의 개혁 3절 낙랑의 융성 4절 대방군의 신설 5절 낙랑 대방의 쇠퇴
제2장 漢郡縣의 연혁 1절 漢昭帝의 개혁 2절 낙랑의 융성 3절 고구려의 侵迫 4절 대방군의 신설 5절 낙랑 대방의 쇠퇴	제2장 半島에서 漢人의 문화·사회상태 1절 낙랑 대방의 문화 2절 낙랑 대방의 사회상태
제3장 半島에서 漢人의 문화·사회상태 1절 낙랑 대방의 문화 2절 낙랑 대방의 사회상태	제3장 韓種族의 諸國 1절 마한 2절 진한 변한 3절 일본과 삼한의 관계 4절 濊
제4장 韓種族의 諸國 1절 마한 변한 진한 2절 삼한의 사회상태 3절 일본과 삼한의 관계	제4장 부여민족의 남하 1절 부여민족 2절 고구려의 건국 3절 고구려의 强盛과 南進 4절 백제의 유래
	제5장 백제 신라의 흥기 1절 신라의 유래와 그 흥기 2절 백제 신라의 흥기에 대한 韓諸國의 상태 高麗의 興起 3절 일본과 신라 및 高麗의 交通 4절 神功皇后의 高麗의 保護

항'과 '세목'은 집필할 때 참고하기 위해 집필 담당자가 구상한 계획으로 그렇게 구속력이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우라 가네유키와 구로이타 가쓰미는 집필에서 빠졌지만 촉탁으로서 편

제4장 漢文化의 전파, 제5장 일본과 南韓과의 關係 등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49쪽.

찬업무에는 계속 관여했다. 구로이타는 1916년 7월에 출범한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였기 때문에 고적조사와 사료수집을 겸해 조선 각 지역을 답사했다. 구로이타는 1916년 8·9월에 대동강 유역과 평안남북도·황해도 일부, 1917년 8·9월에 만주와 낙동강 유역의 신라유적을 답사했다.⁷²⁾ 고적조사위원인 이마니시도 조선총독의 명으로 1917년에 과거의 '임나'에 해당하는 경북 선산·고령과 경남 함안·창녕 등지의 고분을 조사하고 정리했다.⁷³⁾ 미우라도 1916년 10월 조선반도사 편찬을 위해 평남지방의 사적을 답사하고 규장각의 도서를 조사했다.⁷⁴⁾

답사 외에도 세 사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조선에 와서 조선반도사 편찬을 위한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⁷⁵⁾ 남아 있는 회의자료는 하나밖에 없다. 1920년 4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사의 총면수와 각 편의 비율, 紀年法, 연표·系圖·沿革圖 등의 제작방침과 담당자, 부록과 색인의 담당자를 결정했다.

총원고량은 보통활판본(30자 14행)으로 1천 면 내외를 목표로했다. 글자 수로는 420,000자 분량이었다. 구체적으로 서론과 상고조선에 70면(29,400자), 삼국과 신라통일에 180면(79,600자), 왕씨고려에 250면(105,000자), 최근세 100면(42,000자)을 포함하여 이씨조선에 400면(168,000자), 부록에 100면(42,000자)을 할애했다. 총 2권으로 편찬하되 상권에 450면, 하권에 550면을 배당했다.⁷⁶⁾

72) 黑板勝美, 「大同江の流に乗って朝鮮の古文明は傳へられた」, 『京城日報』, 1916. 9. 17(3); 「朝鮮史編纂の方針－黑板博士を語る」, 『朝鮮新聞』, 1917. 8. 28(3).

73)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学助教授 今西龍, 1918. 2,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2월호, 46쪽.

74) 文學博士 三浦周行氏談, 「半島史蹟調査に就て(1)」, 『京城日報』, 1916. 10. 24(1); 文學博士 三浦周行, 1916. 12, 「朝鮮最古の地理書に就て」, 『朝鮮彙報』 12월호, 7쪽.

75) 三浦周行은 1917년 9월, 1921년 3월, 黑板勝美는 1918년 7월에 경성에 체재했음이 확인된다. 文學博士 三浦周行, 1917. 10, 「朝鮮史の將來」, 『朝鮮及滿洲』 124, 60쪽; 文學博士 三浦周行, 1921. 4, 「日本民族と國體」, 『朝鮮及滿洲』 164, 30쪽; 文學博士 黑板勝美, 1918. 8, 「同化の第一義は鮮人の改名に在り」, 『朝鮮公論』 65, 29쪽.

76) 「朝鮮半島史頁數割宛」, 「半島史編纂二付打合事項」, 1920. 4(친일반민족행위진상

기년법은 ‘아무개왕 몇 년’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본 연호와 중국 연호를 註記하도록 했다. 또 건양 원년(1896) 이후는 조선 연호를 중심으로 일본 연호를 註記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 연호와 서기를 註記했다. 皇記나 서기는 ‘황기 2580년, 서기 1830년’ 등으로 쓰도록 했다. 그리고 각 왕의 기년을 쓸 때 신라 멸망 이전은 삼국사기 연표, 고려는 고려사 연표, 조선은 국조보감에 따르도록 했다.⁷⁷⁾ 특히 종래 조선에서 사용된 연표가 조선의 기년에 착오를 가져왔으므로 정확한 연표를 제작해 반도사 편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⁷⁸⁾

각 왕조의 系譜에는 王諱, 혈족관계, 부모, 재위년수, 薨年, 陵寢의 명칭과 소재지, 復辟을 수록하고, 계보를 완성한 다음에 系圖를 제작하도록 했다. 또 각 시대의 유명한 進軍路와 교통로 등 연혁도와 조선반도사에 삽입될 圖畵의 제작방침도 정했다. 이 중 계보의 제작 책임을 조선인 촉탁 중에서 맡고, 나머지 계도, 연혁도, 도화 선택 등은 각 시대 담당자, 곧 집필자가 제작을 맡았다.⁷⁹⁾ 그 외 부록으로 일본·중국·서기를 대조한 大事年表, 각 왕조 系圖, 歷朝職官表, 각 시대 행정구획연혁표와 지명, 인명, 역사적 名辭로 구성된 색인의 제작방침을 정했다.⁸⁰⁾

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39쪽).

77) 「朝鮮半島史所用紀年法」, 『半島史編纂二付打合事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39쪽).

78)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앞의 책, 7쪽.

79) 「朝鮮半島史關係年表系圖沿革圖等」, 『半島史編纂二付打合事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40쪽).

80) 「朝鮮半島史附錄及索引」, 『半島史編纂二付打合事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40쪽).

V.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귀결

1. 미완의 조선반도사

직제가 개편되고, 집필진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적 제작방침이 정해졌지만 제1편·제2편·제3편의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제5편을 맡은 세노 우마쿠마[瀬野馬熊]만 원고를 제출했다.⁸¹⁾

상세사를 맡은 이마니시 류는 1919년 8월 京都帝大 하기강연회에서 조선사개설을 강연했다. 강연제목이 조선사개설로, 상고부터 최근세사를 제외한 조선시대까지 다루었지만 전체 분량의 3분이 2 이상이 고려 이전의 역사였다. 이때의 강연원고를 7월 27일에 기초해 8월 7일에 탈고했는데,⁸²⁾ 열흘 남짓 기간에 인쇄본으로 100쪽 이상을 집필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저본을 참고한 듯하다. 이렇게 볼 때 그 저본은 조선반도사의 상세편으로서 이마니시 류는 이미 1919년 상반기에 자신의 집필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니시 류의 초고 중 하와이대학 소장본은 12자 25행의 조선총독부중추원 400자 원고지에 작성되었다. 원고량은 「제1편 상고·삼한」 132면, 「제2편 삼국」 231면으로서 모두 145,200자 정도로서 원래 계획보다 초과 집필했다. <표 2>의 경상대학교본 목차와 비교할 때 「제1장 한의 군현설치」 다음에 제2장이 누락된 채로 바로 「제3장 반도에서 한인의 사회·문화상태」가 나오는 것처럼 군데군데 목차가 일목요연하지 못하다. 내용상 차이가 없지만 목차를 확정하지 못한 초고였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제1편과 제2편, 그리고 신라통일을 다룬 제3편을 소장 중이다.⁸³⁾ 제5편과 합쳐된 제1편은 13행의 조선총독부 용지에 작성되었다.

81)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47쪽.

82) 今西龍, 1935, 『朝鮮史の梗』, 近澤書店, 166쪽.

83) 이 자료들은 모두 경상대학교 도서관 춘추문고에 속해 있다. 춘추문고는 2002년 8월 25일 재일교포 허영중씨가 기증한 6만 8,000여 점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하와이대학 소장본과 필체가 다르고 24면의 韓人 위에 붉은 잉크로 漢人으로 고친 것처럼 중간중간 교정을 본 흔적이 많다. 이로 볼 때 중추원에 제출된 이마니시 류의 원고를 내부에서 옮겨 쓴 것 같다. 합철된 제2편과 제3편은 1면 13행으로서 제1편과 달리 등사본이다. 제2편의 오른쪽 위에 ‘小田藏書’라고 찍힌 藏書印을 볼 수 있다. 조선반도사의 편찬순서에 “서기관장은 제출된 원고를 등사판으로 만들어 심사위원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였는데, 이때 회람용으로 제작된 원고를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소장한 듯하다. 각각의 분량은 상고조선 138면, 삼국 238면, 신라통일 170면 등 총 546면이었다.

세노 우마쿠마가 집필한 제5편도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제1편과 합철되어 있다. 단 제5편이 ‘제1기 隆盛時代, 제2기 外難時代, 제3기 淸服屬時代’의 각 4장으로 짜였는데, 경상대학교에는 「제1기 융성시대」 원고만 남아 있다. 1920년 4월에 열린 반도사편찬회의에서 미우라 가네유키가 언급한 ‘이조시대’를 집필할 때 유의할 점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⁸⁴⁾ 1920년 4월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스기모토 쇼스케는 원고의 극히 일부인 제6편 중 「제3장 일본과의 수교」의 「제1절 왕비의 책립과 민씨의 융성」 부분만을 집필한 채로⁸⁵⁾ 1924년 1월에 병사했다. 또 제4편 고려를 맡은 오기야마 히데오는 원고를 전혀 쓰지 못한 채 1923년 11월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으로 전출되었다.

원고집필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원고 완성을 독려하고 그 성과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관제 역사단체로서 오다 쇼고가 회장을 맡고 있던 朝鮮史學會는 ‘조선사강좌 일반사’의 출간 계획을 세웠다. 목적은 “조선반

고서적은 문천각, 일반서적은 중앙도서관에 분산 소장 중이며 『조선반도사』는 문천각에 있다. 춘추문고의 전신은 일본 도쿄의 KKJ(주)의 ‘일본한국문화센터’였다(『解題』, 『春秋文庫目錄』, 慶尙大學校圖書館, 2005, 1~2쪽). 자료 열람에 도움을 주고 춘추문고의 내력을 설명해 준 문천각의 이정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경상대 소장 『朝鮮半島史』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지파일을 제공해 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은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84) 「三浦囑託主意ノ事項」, 『半島史編纂ニ付打合事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40~41쪽).

85) 국민대도서관에 『史料』라는 표제로 소장 중이다. 25자 12행의 조선총독부중추원 원고지에 한 줄씩 띄워 원고를 작성했다.

도의 연혁과 조선민족의 과정을 가장 온건한 태도로 가능한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이었다. 강좌는 조선 일반사를 상세·중세·근세·최근세의 네 시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기·중기·후기의 세 시기로 세분해 약 1년간 완결하는 것이었다. 그 담당자는 상세사(조선 개창부터 통일신라 끝까지) 오다 쇼고, 중세사(고려시대) 오기야마 히데오, 근세사(조선시대) 세노 우마쿠마, 최근세사(李太王의 즉위부터 병합까지) 스기모토 쇼스케였다.⁸⁶⁾ 이마니시 류 대신에 오다 쇼고가 들어갔을 뿐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집필진 그대로였다.

이마니시 류가 제외된 데는 오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자의 견해로서 이마니시의 초고를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제한은 필요했다. 한 예로 이마니시는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본부를 사실로서 역사교과서에 수록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구체적 실례로서 거론되는 일본부는, 조선통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곧 1921년부터 1922년까지 보통학교에서 사용된 임시역사교재에 「4 일본부(1)」 장을 두고 “神功皇后는 신라를 정벌한 후에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韓土를 다스리셨다”고 서술했다.⁸⁷⁾ 학무국 편집과장으로서 총독부 교과서 편찬의 총괄 책임자인 오다로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기야마 히데오와 스기모토 쇼스케는 완고를 내지 못했다. 오기야마는 「조선중세사」의 제2장까지, 스기모토는 『조선최근세사』의 전체 260여 면 중 73면까지 집필했다. 그 때문에 세노 우마쿠마는 1923년 8월부터 근세편을 1년여 동안 집필한 뒤 다시 「조선중세사」의 제3장부터 제15장을 마무리했다.⁸⁸⁾ 스기모토의 사망으로 미집필된 부분은 『조선상세사』를 쓴 오다 쇼고가 마무리했다.⁸⁹⁾ 일찍이 1910년대에 오다는 개략이나마 조선역사를

86) 朝鮮史學會, 「總序」, 『朝鮮一般史』, 3~4쪽.

87) 朝鮮總督府 編纂, 1920,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一 兒童用』, 8쪽.

88) 池內宏, 1936, 앞의 글, 4쪽.

89) 朝鮮史學會, 「朝鮮史講座 一般史 目次」, 『朝鮮一般史』, 11쪽.

강의하고 집필한 경험이 있었다.⁹⁰⁾

당시 조선사학회의 연구 성과는 일본 학계에서조차 ‘조선총독부 관찬의 역사’로 규정되었다.⁹¹⁾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조선일반사 = 조선반도사’라 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오다와 세노 두 집필자 모두 조선반도사의 취지와 편찬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조선일반사』는 ‘정확한 조선역사’라는 공적 성격보다 개인 연구의 성과로 남았다.⁹²⁾ 이마니시의 초고도 공간되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에 초고를 바탕으로 집필된 강연원고가 단행본 속에 수록됨으로써 일부나마 빛을 보게 되었다.⁹³⁾

2. 통사에서 자료집으로

이 무렵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1922년 12월에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의 활동 결과에 좌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⁹⁴⁾ 위원회의 목적은 조선사의 편찬과 자료수집이었다. 위원회의 설치 두 달 전인 10월에 중추원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편찬과를 없애고, 그 업무를 조사과로 넘겼다. 이관된 업무는 “사료의 수집과 편찬”이었다.⁹⁵⁾ 기존 중추원 편찬과의 업무가 ‘사료의 편찬’인데 비해 위원회는 ‘조선사’, 곧 사서편찬이 주요 업무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조선사 편찬의 주도권이 어디에 흘러갈지 잘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초기 계획안을 보면 위원회의 주 목적은 조선사의 편찬이 아니라

90) 文學史 小田省吾, 1913, 5~7, 「朝鮮史要略」, 『朝鮮教育研究會雜誌』 제16~18호; 朝鮮總督府編輯課長 小田省吾, 1915, 「朝鮮歷史講演」,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公立普通學校教員講習會講演集』.

91) 박걸순, 2004,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103쪽.

92) 1927년 조선사학회는 『조선일반사』를 토대로 전4권의 『朝鮮史大系』를 발행했다. 각 권의 필자는 『조선일반사』와 동일했다.

93) 今西龍, 1935, 앞의 글, 63~166쪽.

94)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진행 도중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김성민, 2008, 앞의 글, 14쪽.

9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 181쪽.

사료의 수집이었다. 1923년 1월 8일에 개최된 제1차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에서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는 조선사 편찬에 총 10년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처음 3개년을 사료수집에, 다음 5개년을 사료수집과 편찬·기고에, 마지막 2개년을 초고 정리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⁹⁶⁾

종래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기 위해 사료를 수집했다면, 이제는 사료수집과 편찬을 주 목적으로 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선사’를 편찬하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 이후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행로는 아래와 같았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 결과 새로운 사실이 다수 발견되어 이미 완성된 원고도 정정할 부분이 있고, 미완성된 부분을 재촉하여도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간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사편찬사업으로 통일해 훗날 이미 집필된 부분을 訂補하고 미집필 부분을 편찬하는 것으로 했지만, 1924년 말에 이르러 중단했다.⁹⁷⁾

그런데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업방향은 조선반도사의 그것을 계승하면서도 차이를 보였다. 첫째로 편찬될 사료집은 編年史로서 원칙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하한으로 삼았다.⁹⁸⁾ 이것은 『한국통사』를 겨냥하여 왕조의 흥망성쇠를 서술함으로써 병합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조선반도사 편찬의 두 번째 방향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사실 병합 후 조선총독부가 선전했던 제도개선 등 조선인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는 3·1운동으로 그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임을 밝힌다’는 첫 번째 방침도 애매해졌다. 그 실례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함께 그 부대사업으로 추진된 日韓同源史 편찬이 중단되었다. 일한동원사는 “일선 양민족의 同源을 밝혀 친밀했던 과거의 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1921년 4월부터 3년을 기한을 두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일한동원사는 자료집으로서 “첫째 내선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

96)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앞의 책, 11쪽.

97)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48쪽.

98)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앞의 책, 12~13쪽.

는 신화, 전설, 史乘의 事實, 둘째 고래 내선 간에 이주하거나 혹은 왕래한 인물의 閱歷과 事蹟, 셋째 내지에 있는 조선인 귀화촌의 事蹟, 넷째 언어, 문자, 미술, 공예, 습관, 종교, 법제, 유적, 유물 등에서 본 내선관계” 등에서 유익한 자료를 수집하여 임시로 편찬·인쇄·배부할 계획이었다.⁹⁹⁾

그런데 위원회에서 편찬할 사료집은 일한동원사와 달랐다. 위원회의 사료수집 범위는 문서류, 기록류, 금석문 등을 주로 하되 이미 간행된 史籍도 포함시켰다.¹⁰⁰⁾ 곧 ‘정확한’ 문자 사료가 중심이었다. 반면에 일한동원사는 신화·전설 등의 전승과 유물·유적 등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후자에는 수록되지만 전자의 수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 설화는 고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왕래가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사적의 하나였다. 설화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普通學校國史』에 실리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와¹⁰¹⁾ 『普通學校國語讀本』에만 수록되었다.¹⁰²⁾ 또 위원회의 사료집은 인종적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주장하는 인류학이나 고고학의 성과를 담을 방법이 없었다.

오직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편찬의 준거로 한다는 세 번째 방침만 더 강조되었다. 이 방침은 당장 처음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부딪히고 그 의도를 선명히 드러내었다. 제1회 위원회에서 정만조는 삼국이전이라는 시기구분을 단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지 질문했다. 이능화는 민족정신을 발휘하는 건국신화를 꼭 수록하자면서 기존에 경시된 단군을 기자와 같은 비중으로 취급할 것을 제안했다. 어윤적도 단군과 기자를 삼국 앞에 수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한지를 질문했다. 이상의 질문들은 단군과 기자를 역사적 사실로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三國遺事』 등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¹⁰³⁾

99)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앞의 책, 160쪽.

100)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앞의 책, 14쪽.

101) 朝鮮總督府, 1923,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 16~20쪽.

102) 朝鮮總督府, 1924, 「第十四日の神と月の神」, 『普通學校國語讀本 卷八』, 55~58쪽.

103)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앞의 책, 19~23쪽.

이에 대해 구로이타 가쓰미는 단군과 기자 관련 기사를 수록할 계획이지만 연대가 분명치 않으므로 어디에 수록할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하며,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각 위원의 의견을 모두 수록한 해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인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한 듯하지만 사실상 완곡한 거부 의사였다. 오다 쇼고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제의 최고 권위자는 이날 불참한 이마니시 류였고, 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반복했다.¹⁰⁴⁾

이마니시는 이미 1910년에 단군은 고려 중엽 이후에 불교로 분식된 것이라 주장했고,¹⁰⁵⁾ 조선반도사의 목차를 정할 때도 「조선 개국의 제전설」이란 항목 아래 기자와 단군 개국전설을 조선 민족의 근간이라 주장한 韓民族 고유의 개국전설과 구분했다. 또 그가 집필한 원고에서도 “조선 민족이 전민족 일국가를 형성하여 출현해 나중에 분열시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다고 오해하여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구분하여 이를 고조선”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서 편견에 빠진 종래 역사가의 올바르지 못한 비판으로 서술했다.¹⁰⁶⁾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때도 원고의 최종 심사단계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조선 귀족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조선인의 동의를 거쳤다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조선인 위원도 나름대로 역사에 정통했지만 그것은 일본인 위원들이 비판해 마지않는 조선역사서에 근거한 지식이었다. 오히려 조선인 위원들의 역할은 뛰어난 한문 실력과 명망성으로 지역 문중에 소재한 자료수집에 있었다. 다만 위원회 첫 회의부터 예기치 않은 조선인 위원들의 질문으로 옛 기록에 대한 일본인 학자들과 조선총독부의 변치 않는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4) 위의 자료, 21·24쪽.

105) 今西龍, 1910, 「檀君說話に就いて」, 『歴史地理(臨時増刊 朝鮮叢書)』, 223~230쪽.

106) 今西龍, 『朝鮮半島史』第一篇, 8~9쪽(하와이대 소장본).

VI. 맺음말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일제의 조선 동화정책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초기의 목적은 일본의 입장에서 유일하고 완전무결한 조선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내 이 목적은 『韓國痛史』의 출판·유통으로 일제의 한국 병합의 의의를 선명히 부각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반도사 편찬에는 조선 귀족(심사위원), 중추원 의원(조사주임), 역사학자(편집주임), 관료(편집주임)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도 편찬사업의 핵심은 편찬주임이었다. 이들은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편집주임으로 참여한 세 학자는 일제의 조선통치와 동화주의를 지지했지만 조선사의 구체상을 놓고는 일부 의견을 달리했다. 1916년에 발표된 조선반도사 편찬요지는 세 학자의 차이보다 조선총독부의 편찬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합의에 따른 조선반도사를 편찬할 때 주안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同族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동족이란 과거 두 나라의 친밀한 교류와 이주를 통해 역사상의 어느 시대에 피가 섞인 같은 인종이란 의미였다. 둘째로 조선 역사는 왕조의 흥망성쇠 때문에 그때마다 민중이 고통을 받았지만 萬世一系の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과의 병합으로 조선 민중은 왕조의 흥망에 따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역사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셋째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편찬하는 것이었다. ‘모두’는 일본인 학자였고, 한국의 옛 기록 중에서 고대 일본의 한국 지배 또는 밀접한 교류를 증명하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상의 방침은 목차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사업은 1915년 7월부터 중추원이 참서관실의 사료수집 업무를 인계하여 시작했다. 처음에는 2년을 예정했지만 최종적으로 1924년 말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다. 몇 차례의 변동 끝에 조선반도사의 체제는 三韓·上古, 三國, 통일신라, 고려, 조선, 조선최근세사의 6시기로 나누어졌다. 세부 목차와 부록

등의 제작방침도 정해졌다. 필진이 정해지고 필요한 사료를 수집했지만 최종 원고는 3분의 2만 탈고되었다. 편찬 방향과 다르게 집필된 원고의 일부는 총독부의 공식 견해를 수용하기보다 학자로서의 소신을 따랐다. 통사를 목적했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사료집 편찬을 목적으로 한 조선사편찬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조선사편수회의 사료집 『조선사』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부분이나마 집필된 조선반도사의 원고는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개인 연구의 성과로 일부 빛을 보았다.



참고문헌

〈1차 사료〉

『京城日報』.

『每日申報』.

『朝鮮新聞』.

『民族と歴史』.

『歴史地理』.

『朝鮮』.

『朝鮮公論』.

『朝鮮教育研究會雜誌』.

『朝鮮及滿洲』.

『朝鮮總督府官報』.

『朝鮮彙報』.

『半島史編纂二付打合事項』(1920) (하와이대학 소장본).

『史料』(국민대 소장본).

『朝鮮半島史』第一篇, 第二篇 (하와이대학 소장본).

『朝鮮半島史』第一篇, 第二篇, 第三篇, 第五篇 (경상대학 소장본).

『朝鮮半島史要項』(하와이대학 소장본).

『朝鮮半島史要項細目』(하와이대학 소장본).

今西龍, 1935,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瀨野馬熊, 1936, 『瀨野馬熊遺稿』.

小田梢 編, 1931, 『小田幹治郎遺稿』.

朝鮮教育研究會 編, 1920,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 卷一』, 朝鮮總督府.

朝鮮史學會, 『朝鮮一般史』.

朝鮮總督府, 1923,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

朝鮮總督府, 1924, 『普通學校國語讀本 卷八』.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1915, 『公立普通學校教員講習會講演集』.

朝鮮總督府 編, 1916,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
 朝鮮總督府 編纂, 1920,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一 兒童用』.

〈연구서〉

박길순, 2004,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張信 編, 2005, 『朝鮮總督府教科書叢書(歷史篇)』 1~2권, 청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江上波夫 編, 1994, 『東洋學の系譜 第2集』, 大修館書店.
 永原慶二・鹿野政直 編, 1976,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연구논문〉

金性玟, 1989, 「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지식산업사.
 徐永大, 2001, 「한말의 檀君運動과 大倭敎」, 『韓國史研究』 114.
 송찬섭, 1994, 「일제의 식민사학」,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이성시, 2001, 「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만들어진 고대』, 삼인.
 이승일, 2007, 「조선총독부의 고기록 정리와 기록물 수집정책」, 박성진·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 -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장 신, 2004, 「韓末・日帝强占期の 教科書 發行制度和 歷史教科書」, 『歷史教育』 91.
 장 신, 2008, 「일제하 초등학교 교사의 조선사 인식」, 『정신문화연구』 111.
 조동걸, 1990, 「식민사학의 성립과정과 근대사 서술」, 『역사교육논집』 13·14합집.
 黃元九, 1980,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東方學志』 23·24합집.
 林直樹, 1999,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 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中村榮孝, 1969,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の事業」,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ABSTRACT]

A Study on Project of 'Joseonbandosa'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Jang, Shin

Korean Historiography Project was carried out to historically back up Japan's assimilationism. As a part of the project, Japanese Government-General planned to compile a book 'Joseonbandosa(朝鮮半島史)' At first,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compile a unique Korean history in perfection from the viewpoint of Japan. In line with the purpose, the book 'Hankooktongsa(韓國痛史)' was published and circulated so as to justify what Japan assimilated Korea.

The project was focused on three aims.

First, it aimed at proving that Japanese and Koreans are of the same race, that is, two countries had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d also their people has emigrated to each other and therefore they had been of the same blood at an age.

Second, it aimed at maintaining that Korean people, who had suffered from the rise and fall of the dynasty, would be free from suffering as Korea was assimilated by Japan.

Third, it aimed at compiling historical facts that are deserving of the public reliability. Herein, 'the public' means Japanese historians, and 'reliability' is based on ancient records related to Japan's ruling over Korea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wo countries.

Such goals were naturally reflected in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earnest from July 1915, under the leadership of ‘Jung-Chu-Won’ the consultative committee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after taking over historical data from an affiliated bureau. The project was scheduled to be completed within two years, but was carried out until the end of 1924, that is, for about 10 years. After many complications, the parts of the book was classified into six, that is, the Pre-History Three Stages, Ancient Times, Three States, Unified Silla Dynasty, Joseon Dynasty and Modern Times. In addition, its contents and supplement were detailedly planned. Writers were appointed and historical data were collected, but just two-thirds of the final draft was completed. Afterward the draft was not published in the name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t was recognized as several scholars’ achievements.

keywords

Joseonbandosa, Miura Hiroyuki, Kuroita Katsumi, Imanishi Ryu, Jung-Chu-Won

전근대 베트남의 對中國 認識

- 조공과 대등의식의 양면성 -

유인선 |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강사

I. 머리말

베트남 역사의 기원은 대략 기원전 7세기 동 췌[東山] 청동문화 시기의 반 랑[文郎] 왕국 성립까지 소급할 수 있다. 반 랑 왕국의 뒤를 이어 어우 락[甌貉] 왕국이 기원전 208년에 세워졌으나, 이는 다시 중국에서 진시황 사후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기원전 207년 중국인 관리였던 찌에우 다[趙佗]가 번우[番禺]를 중심으로 세운 남 비엣[南越]에 기원전 179년 병합됨으로써 광둥과 광시 두省外 북부 베트남을 포함하는 독립왕조가 성립되었다. 남 비엣은 사마천의 『史記』에서 외국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나,¹⁾ 그 후의 중국 학자들은 이단적이기는 하지만 중국 지방정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 역사학계의 주

1) 최병욱, 2006, 「중국 역대 왕조의 베트남 인식-『25사』를 통해서 살펴봄」, 『북방사논총』 11호, 277~279쪽. 당시 양쯔 강 이남에서 베트남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중원과 다른 하나의 문화권으로, 찌에우 다는 중국 관리였음에도 남 비엣을 세울 때는 이미 현지화되어 있었다. 『史記』 권97, 陸賈傳, 1996, 北京: 中華書局, 2697쪽; 松本信廣, 1942, 『印度支那の民族と文化』, 東京: 岩波書店, 295~313쪽.

류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견해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이다.²⁾

그러나 전근대 베트남 역사가들과 지배자들은 모두 남 비엣이 분명 베트남의 왕조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272년 당시 황제인 쩌 타인 동[陳聖宗]의 명을 받들어 『大越史記』를 편찬한 레 반 흐우[黎文休]는 베트남 역사가 찌에우 부 데[趙武帝], 즉 찌에우 다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그로부터 리 왕조[李朝, 1009~1225]의 마지막 군주인 찌에우 호앙[李昭皇]까지 서술하였다.³⁾ 한편 1479년 『大越史記全書』를 편찬한 응오 씨 리엔[吳士連]도 남 비엣을 베트남 왕조로 간주하면서, 그 멸망 후 뒷날 왕조들이 찌에우 다의 故土를 회복하지 못한데 대해 한탄하고 있다.⁴⁾ 그뿐만 아니라 쩌 왕조[陳朝, 1225~1400]에 대한 원의 제2차 침입시(1284~1285) 항복하여 중국으로 가 『安南志略』을 쓴 레 딱[黎鞏]조차도 남 비엣이 베트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⁵⁾

반랑과 어우 락, 두 왕조가 한국사에서 말하는 고대국가 이전 단계에 속하는데 대해, 남 비엣에 이르러 베트남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고대국가 형성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이 남 비엣 때에 처음 맺어져 1883년과 1884년 베트남이 프랑스와의 두 차례 조약에 따라 그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 2천 년간 지속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만 볼 때, 2천 년간의 양국관계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 전기 천 년은 베트남이 중국의 직접지배를 받은 이른바 ‘北屬期’이며,⁶⁾ 10세기 독립한 이후의 천 년은 베트남이

2) Phan Huy Le, et al., 1991, *Lich Su Viet Nam*(베트남 역사), tap 1, Ha Noi : Nha Xuat Ban Dai Hoc va Giao Duc Chuyen Nghiep, pp. 139~145 ; Nguyen Quang Ngoc, 2000, *Tien Trinh Lich Su Viet Nam*(베트남역사의 전개과정), Ha Noi : Nha Xuat Ban Giao Duc, p. 34. 곧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전근대 베트남에 서는 남 비엣을 베트남 왕조로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현재 역사가들은 이를 중국 변경정권이라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3) 陳荊和 編校, 1984~1986, 『大越史記全書』, 東京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이하 『전서』로 약함), 384쪽.

4) 『전서』, 120~121쪽.

5) Le Tac, 2001, *An Nam Chi Luoc*, Hue : Nha Xuat Ban Thuan Hoa, p. 467.

6) 「북속기」의 시작 연대에 대해, 하노이 학계는 남 비엣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 비엣이 어우 락을 점령한 기원전 179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외국 학계는漢 무제에 의해 남 비엣이 점령당하는 기원전 111년으로 보고 있다. Nguyen

중국과 조공외교를 통해 친선을 맺은 '朝貢關係期'라고 할 수 있다.

북속기에는 중국 관리의 수탈에 끊임없는 저항이 있었으며, 조공관계기에도 중국의 역대 왕조는 여러 차례나 침입하였고, 더욱이 명나라는 20년 동안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기까지 하였다. 베트남 역사학회 회장인 판 후이 레(Phan Huy Le)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역사 이래 1975년까지 15차례 외침이 있었으며 그중 11번이 중국의 침략이었다고 한다.⁷⁾ 그리하여 베트남 역사가들은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관계를 '北拒'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⁸⁾ 때문에 베트남 역사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흔히 '독립에의 불굴의 의지', '외국 침략자에 대한 끈질긴 투쟁'이라든가 '민족독립에의 강한 집념'이라는 표현을 쓰며, 역사의 영웅으로는 쯔[徵] 자매 · 쩌 흥 다오[陳興道] · 레 리이[黎利] · 응우옌 반 후에[阮文惠] 등을 들고 있는데,⁹⁾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지배와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전근대시기를 통해 베트남이 중국의 정치적 지배를 받았거나 무력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또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료는 베트남 것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 것은 보충적으로만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Quang Ngoc, 2000, p. 36 ; Phan Huy Le, et al., 1991, tap 1, p. 144 ; Le Thanh Khoi, 1981, *Histoire du Vietnam des origines 1858*, Paris : Sudestasia, pp. 84, 89 ; 川本邦衛, 1967, 『ベトナムの詩と歴史』, 東京 : 文藝春秋, 31~32쪽.

7) Phan Huy Le, 1998, *Tim ve coi nguon*(근원의 탐구), tap 1, Ha Noi : The Gioi Publishers, p. 495. 중국의 11번 침입 중에는 진시황과 찌에우 다의 두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진시황의 남방정략이 광둥과 광시 두 성까지만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외국학자들이 입증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찌에우 다의 남 비엠토 베트남 왕조로 보는 경향이 강한 추세인 만큼 실질적인 중국의 베트남 침략은 9번으로 계산되어야 옳지 않을까 한다.

8) Li Tana, 1998, *Nguyen Cochinchina :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thaca : Cornell Southeast Asia Publications, p. 19.

9) Jean Chesneaux, 1968, *Le Vietnam - Etudes de Politique et d'Histoire*, Paris ; 藤田和子 譯, 1969, 『ベトナム - 政治と歴史の考察』, 東京 : 青木書店, 33~38쪽.

사료는 자기네 관점에서 베트남을 종속국으로 간주하고 서술하여 베트남 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전근대시기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주로 중국 측의 관점에서 베트남 문제를 논했을 뿐 베트남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다룬 글은 별로 없다. 더욱이 베트남인들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은 전무하지 않은가 한다.

II. 對中危機意識과 조공외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만이 문화민족이고, 이웃 나라 사람들은 모두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여 東夷·西戎·南蠻·北狄, 즉 四夷라고 불렀다. 흔히 말하는 華夷觀인 것이다. 이러한 화이관에 입각하여 중국과 주변국가들 사이에는 이른바 조공제도라 하여 중국은 종주국, 주변국들은 종속국이라는 상하관계가 성립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中華的 世界秩序가 존속하면서 종속국은 규정에 따라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는 종속국의 지배자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 국왕에 봉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인들은 중화적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가 우수한 문화와 풍부한 물자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小國들이 來附한다고 믿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왕조의 무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의 힘이 강하면 조공제도를 주변 제국에 강요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적 세계질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¹⁰⁾

10) Benjamin I. Schwartz, 1968,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찌에우 다가 남 비엣을 건국한 후 몇 년 안 되어 중원을 재통일한 漢 高祖는 긴급한 국내안정 때문에 대외전쟁을 피하고 화평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고조는 陸賈를 보내 찌에우 다를 남 비엣 브영[南越王]에 봉해 줌으로써(B.C. 196) 남쪽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회유책을 썼다. 찌에우 다로서도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漢과의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양국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한에서 呂后가 정권을 잡고는 關市를 폐지하고 교역을 금지하자, 찌에우 다는 제위에 올라 남 비엣 부 데[南越武帝]를 칭하면서 장사 왕(長沙王)의 간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변경지방을 침범하였다.¹¹⁾ 이에 노한 여후는 군대를 보내 남 비엣의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악천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 여후가 사망하고 文帝가 제위에 올랐다. 문제는 다시금 육가를 파견하여 찌에우 다가 황제를 칭한 사실을 꾸짖자, 찌에우 다는 稱臣을 약속했으며, 景帝 때는 조공사절을 보내기까지 하였다(B.C. 144). 그는 여후 때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과의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帝號를 사용한 것을 보면, 조공사절이란 표현은 중국인의 생각이고, 찌에우 다는 『대월사기전서』에서 ‘遣使如漢’이라고 했듯이 실질적으로는 ‘친선사절’을 보낸 데 불과했을 것이다.¹²⁾

찌에우 다의 사후, 손자인 호(胡), 즉 반 브영(文王)과¹³⁾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자(嬰齊)인 민 브영(明王)도 한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한은 압

and Present,”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p. 278 ; 猪口 孝, 1975, 「傳統的東アジア世界秩序—十八世紀末の中國のベトナム干渉を中心として」, 『國際法外交雜誌』 73-5, 44~47쪽.

11) 『史記』 권113, 南越列傳, 2969쪽.

12) 「遣使如漢」이란 『대월사기전서』 찬자의 표현이지만, 찌에우 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전서』, 110, 113쪽 ; 『史記』 권113, 2970쪽.

13) 찌에우 다의 손자인 호는 『대월사기전서』에 시호가 반 브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1983년 광저우에서 발굴된 ‘南越王墓’의 부장품 가운데 ‘文帝行璽’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찌에우 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황제라 칭했던 것 같다. 吉開將人, 1998, 「印からみた南越世界」(前篇),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6冊, 95쪽 참조.

력을 가해 두 왕에게 親朝를 요구하였으나, 한의 간섭을 예방하는 한편 국가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으려 이들은 병을 구실로 직접 가지 않고 대신 태자를 볼모로 보내어 독립을 지켰다.¹⁴⁾ 그러나 남 비엣의 독립은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그의 팽창주의와 남해 물산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졌다. 기원전 113년 민 브영이 사망하고, 그와 중국인 繆씨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왕자 흥(興, 즉 아이 브영, 哀王)이 왕위에 오르자 한의 압력은 母后인 규씨를 통해서 급격히 강화되었다. 이에 승상 르 자[呂嘉]를 중심으로 하는 토착세력은 반기를 들어, 왕과 모후 및 현지에 와 있던 한의 사신을 살해하고 민 브영의 장자인 끼엔 득[建德, 시호는 衛陽王]을 왕으로 옹립했다.

한 무제는 이를 구실로 대군을 보내 번우를 점령케 하니 남 비엣은 멸망하고 말았다(B.C. 111). 한의 군대는 더 나아가 자오 찌[交趾]까지 이르니, 남 비엣이 파견했던 관리들은 하등의 저항도 없이 오히려 선물을 가지고 와 항복했다. 한은 남 비엣을 정복한 후 그 영토에 9개郡을 설치했는데, 오늘날 베트남의 북부와 중북부에는 자오 찌, 꼬우 쩌[九眞]과 넷 남[日南]의 세 군을 두었다.¹⁵⁾ 이로부터 938년 응오 꾸옌[吳權]이 바익 당[白藤] 강의 전투에서 南漢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듬해 독립을 선언하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천여 년 동안 베트남은 북쪽 중국의 정치적 지배하에 놓였기 때문에 북속기라고 한다. 이 천년간의 특징이라면, 중국 지배에 대한 베트남인의 저항과 중국의 탄압, 그리고 탄압에 대한 새로운 투쟁의 연속이었다.

레 반 흐우는 응오 꾸옌이 남한의 군대를 물리쳐 더 이상 北人[중국인]이 올 수 없게 한 공을 인정하면서도, 왕을 칭했을 뿐 제위에 오르지 않고 연호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한 독립이라고 보았다.¹⁶⁾ 완전한 독립은 966년 딘 보 린[丁部領]이 제위에 오름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결과 찌에우 브영[趙王, 즉

14) 『전서』, 108~109쪽.

15) 당시 베트남하면 넷 남까지이며, 그 이남에서 현재의 판 티엣(Than Thiet) 부근에 이르는 중남부지역은 참파[占婆] 왕국의 영역이었다.

16) 『전서』, 172쪽.

찌에우 다]의 전통이 회복되었다고 하였다.¹⁷⁾ 응오 꾸옌이 독립할 수 있던 것은 마침 중국이 五代十國의 분열이란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가 델타의 중심부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들은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을 황제로 칭할 생각까지는 못했을지 모르겠다. 당시 남한의 지배자조차도 왕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응오 씨 리옌은 응오 꾸옌의 지배를 독립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치세를 『대월사기전서』에서 外紀가 아닌 本紀에 포함시켰다.¹⁸⁾ 이에 대해 1514년 『越鑑通考總論』을 쓴 부 꾸인[武瓊]은 다시 레 반 호우의 견해를 받아들여 응오 꾸옌은 아직 독립을 완성하지 못한 과도기적 인물이었으며, 황제를 칭하는 딘 보 린에 이르러 베트남은 참으로 독립을 성취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응오 꾸옌의 시대를 외기에 두고 딘 보 린에서 본기를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월사기전서』의 체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응오 꾸옌에 대한 해석은 뒷날 모든 역사서술의 典範이 되었다.¹⁹⁾

응오 꾸옌이 재위 수년 후 사망하자, 친족 간의 불화로 왕조는 멸망하고 베트남은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는 十二使君의 동란시대를 맞는다. 이를 통일한 것이 전술한 딘 보 린으로, 그는 966년 국호를 다이 꼬 비엣[大瞿越]이라²⁰⁾ 하는 동시에 자신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丁朝, 966~980]. 이듬해에는 아들 리 옌[璣]을 찌에우 다가 처음 칭했던 남 비엣 브엉에 봉했다. 이들을 고려하면 딘 보 린은 베트남을 중국과 拮抗하는 대등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곧 이어 중국 황제처럼 연호[太平]도 제정하여 사용하였

17) 『전서』, 180쪽. 『대월사기전서』에는 딘 보 린의 즉위연대가 968년으로 되어 있으나, 河原正博이 이를 966년으로 고증하여, 베트남 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河原正博, 1970, 「丁部領の即位年代について」, 『法政大學文學部紀要』 15, 29~46쪽.

18) 陳荊和, 「大越史記全書の撰修と傳本」, 『전서』, 8쪽.

19) 『전서』, 86~87쪽. Cf. Keith Taylor, 1983, *The Birth of Vietnam*, pp. 270~271.

20) 다이 꼬 비엣의 이름은 1054년 리 왕조[李朝]의 3대 왕 타인 퉁[聖宗]이 ‘꼬’자를 빼고 국호를 다이 비엣[大越]으로 바꿀 때까지 사용되었다.

다.²¹⁾ 이는 이후 모든 베트남 왕조 군주들의 전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딘 보 린은 중국과의 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송이 대륙을 통일하고 남한을 멸한 때라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970년 딘 보 린은 송에 사신을 보내[遣使如宋] 친선관계를 맺고자 하였고, 2년 뒤에는 또다시 아들 리 엔으로 하여금 聘物을 바치게 하였다. 이에 975년 송에서는 그를 자오 찌 군왕[交趾郡王]에 봉해 줌으로써, 독립 후 베트남과 중국의 공식적 외교관계가 처음 시작되었다.²²⁾

우리는 딘 보 린의 사신파견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신파견에 ‘貢’자를 쓰지 않고 ‘如’자를 썼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상하질서가 아닌 평등관계로 간주한 때문이었다. 『대월사기전서』를 보면, 베트남의 각 왕조는 원·명·청에 대하여도 사신을 보낼 때 모두 ‘如’자를 쓰고 있다.²³⁾ 더욱이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에서는 건국 초부터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如淸使’라고 불렀다.²⁴⁾

다른 하나는 딘 보 린이 송에 보내는 사신을 남 비엠티 브엉에 봉해진 아들 리 엔의 이름으로 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지배자인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들로 대신하게 했다는 것은 황제로서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²⁵⁾ 당시 송에서는 베트남의 실권자가 딘 보 린임을 알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를 자오 찌 군왕에 봉해 주었다. 그러나 딘 보 린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리 엔의 이름으로 송과 접촉하고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21) 『전서』, 180쪽.

22) 『전서』에는 973년, 『월사략』에는 97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중국 사료에 근거한 片倉樓의 연구를 따랐다. 片倉樓, 1972. 2, 「ベトナム・中國の初期外交關係に關する一問題」, 『東方學』 44, 91~93쪽.

23) 『越史略』에서도 宋에의 사신파견을 如宋이라 하였다. 陳荊和 編校, 1987, 『大越史略』, 東京: 創價大學アジア研究所, 43, 46, 51, 60, 64쪽.

24) 『大南正編列傳初集』(이하 『列傳初集』이라 약함), 권11, 鄭懷德傳, 1962,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4b쪽.

25) 山本達郎, 1943, 「安南が獨立國を形成したる過程の研究」,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 116쪽.

레 반 호우의 평처럼 딘 보 린은 유능한 지도자요 용맹한 장수였지만, 제위 계승을 제대로 정하지 못함으로써 왕조를 단명으로 끝나게 했다. 친족 간의 불화 가운데서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레 호안(黎桓)이 반대파를 물리치고 980년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前黎, 980~1009). 레 호안의 즉위에 앞서 송은 베트남의 내분을 이용, 이를 병합하여 이전같이 직접지배하에 두려고 수륙 양군으로 구성된 대군을 출병시켰다.²⁶⁾ 레 호안은 사절을 파견하여 조공품을 바치며 송 군대의 침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그 의중을 간파한 송 태종은 이미 출병한 뒤라 답례도 하지 않았다.²⁷⁾ 981년 봄, 레 호안은 침입해 온 송의 군대를 물리쳤으나, 이듬해 곧 사절을 보내 친선을 도모했고, 985년에는 또다시 사절을 파견하여 절도사에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해 송은 986년 레 호안을 ‘安南都護 靜海郡節度使 京兆郡侯’에 봉해 줌으로써 양국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되었다.²⁸⁾ 이어 990년 송은 레 호안의 작위를 올려 주기 위해 사절을 보냈는데,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레 호안이 송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 절하기를 기피했다는 점이다. 구실은 그가 蠻族과 싸우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하의 예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²⁹⁾

레 호안이 1005년 세상을 떠나자, 여러 아들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간신히 셋째 아들 룡 비엠휴(龍鉞)이 제위에 올랐으나, 곧 동생 룡 딘(龍鋌)이 그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룡 딘은 송의 간섭을 두려워하여 사절을 보내니, 송 황제는 그를 자오 찌 군왕에 봉해 주었다. 그러나 臥朝로 불리는 룡 딘의 통치는 잔악함으로 악명이 높아, 그의 사후에 띠엔 레 왕조는 곧 멸망하고

26) 『전서』, 185쪽.

27) 『宋史』 권488, 交趾傳, 1995, 北京: 中華書局, 14058~14059쪽; 河原正博, 1977a, 「ベトナム獨立王朝の成立と發展(905-1009)」,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18~19쪽.

28) 『宋史』 권488, 交趾傳, 14060쪽; 『전서』, 191쪽.

29) 『宋史』 권488, 交趾傳, 14061쪽; 『전서』, 192~193쪽; O.W. Wolters, 1979, “Historians and Emperors in Vietnam and China,” Anthony Reid and David Marr, eds.,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Singapore: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p. 74.

리 쑹 우언[李公蘊]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李朝].

신왕조를 건설한 리 쑹 우언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 즉위 이듬해 송에 사절을 보냈다. 송 황제는 그의 ‘찬탈’은 밋지만 蠻夷의 일이니 책할 바 못된다고 하면서 靜海節度使 직과 함께 자오 쯔 군왕에 봉했다.³⁰⁾ 송이 이처럼 리 쑹 우언의 찬탈을 문제삼지 않고 쉽게 자오 쯔 군왕에 봉해 준 것은 遼의 위협 때문이었다. 사실 요의 대거 남진으로 1004년 ‘遼淵의 맹약’이 맺어졌다.

리 쑹 우언은 이후 거의 매년 혹은 격년으로 송에 ‘조공’을 바쳤으나, 그 아들 타이 퉁[太宗] 때는 三年一貢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타이 퉁의 뒤를 이은 타인 퉁[聖宗] 치세 이후에는 조공이 계속 행해졌지만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³¹⁾

이러한 정기적 조공 외에 임시 사절로는 책봉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에서는 리 왕조의 군주를 우선 자오 쯔 군왕에 봉해 주고, 이어 남 빈 브영[南平王]으로 進封한 다음 사후에 이르러 남 비엣 브영[南越王]으로 追封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³²⁾ 관례가 바뀐 것은 1174년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남송은 리 왕조의 아인 퉁에게 ‘安南國王’의 칭호를 제수하여, 비로소 베트남을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었다.³³⁾ 이런 변화는 송이 북방에서 여진족의 金에 밀려 이미 南遷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회유할 목적에서였다. 『대월사기전서』를 보면, 1168년 송과 金의 사절이 거의 동시에 방문하여, 베트남 측에서는 이들이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느라 고심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⁴⁾ 이는 전근대

30) 『宋史』 권488, 交趾傳, 14066쪽; 『전서』, 207~209쪽 참조.

31) 河原正博, 1977b, 「李朝と宋との關係(1009-1225)」,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69~82쪽.

32) 片倉穰, 1972, 2, 앞의 글, 91~92쪽.

33) 『大越史略』, 77쪽. 『전서』에는 1164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여러 先學들에 의해 오류임이 밝혀졌다. 片倉穰, 1972, 2, 앞의 글, 95쪽.

34) 『전서』, 298쪽. 『전서』에는 韃靼를 원의 사신이라 하였으나, 『欽定越史通鑑綱目』에 金使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정확하다. 『欽定越史通鑑綱目』 정편, 권5, 1969, 영인본, 臺北(이하 『강목』으로 약함), 14a쪽; 片倉穰, 1972, 2, 앞의 글, 99쪽.

동아시아의 중화적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세력의 약화가 베트남의 지위를 격상시켜 준 좋은 본보기이다.

송에 대한 리 왕조의 친선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일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단은 두 나라 사이 국경지대에 살던 소수민족의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송에서는 신법으로 유명한 왕안석을 등용하면서 리 왕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송의 의도를 감지한 리 왕조에서는 1075년 리 트영 끼엣[李常傑]이 대군을 이끌고 광둥과 광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송은 이에 맞서 토벌군을 조직하여 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으나 리 트영 끼엣 군에게 큰 타격을 입은 데다 무더운 기후로 많은 병사를 잃었다. 한편 리 왕조는 장기간의 전쟁이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뿐이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측은 화의에 도달하였고 1079년에는 이전과 같은 조공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³⁵⁾

리 왕조를 대체하여 건립된 쩐 왕조 역시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신경을 썼다. 왕조 초기의 국내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타이 푹은 1229년 남송에 사절을 파견하여, 송으로부터 安南國王에 봉해졌다.³⁶⁾ 이때 중국은 송원교체기로, 쩐 왕조는 몽골과도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몽골군은 그에 앞서 원난 지방을 토벌한 후 1257년 베트남으로 쳐들어왔다. 목적은 베트남을 경유하여 남송을 공략하려는 것이었다.³⁷⁾ 쩐 왕조에서는 쩐 흥 다오에게 방비를 맡겼지만, 몽골군은 쉽사리 수도인 탕 룡[昇龍]을 점령했다. 그러나 몽골군의 목적은 베트남 점령이 아니었던데다 습한 기후 때문에 곧 철수를 시작했고, 이를 이용하여 쩐 왕조의 군대는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 큰 피해를 입혔다. 쩐 왕조에서는 또 다른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듬해 곧 사절을 파견하여 화약을 맺고 3년에 한 번 入貢할 것을 약속했다.³⁸⁾

35) 『전서』, 248~250쪽; 『대월사략』, 62~63쪽; 河原正博, 1977b, 앞의 글, 41~62쪽.

36) 『전서』, 324쪽.

37) Le Tac, 2001, p. 407.

38) 『전서』, 340쪽; Le Tac, 2001, pp. 407, 492.

몽골과의 화약이 맺어진 후 타이 푹은 아들 타인 푹[聖宗]에게 제위를 넘겨 주고 자신은 太上皇으로 물러났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황제의 사망 후 있을지도 모를 왕위계승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었으나, 또 다른 의도는 딴 보 린이 했던 것처럼 중국과의 교섭에서 황제가 자신을 신하로 비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자는 의도도 있었다.³⁹⁾

한편 원으로 이름을 바꾼 몽골의 베트남에 대한 조공압박이 강화되어, 금·은·상아·진주 등의 공납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치하여 쩌 왕조의 내정에 간섭하려 들었다. 이처럼 원과의 관계가 힘든 상황에서 조정은 문사들에게 사절의 임무를 맡겨, 원의 무리한 요구를 완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 내에서 문사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⁴⁰⁾ 이전에는 쩌 황실귀족의 철저한 과두정치체제였다.

쩌 왕조의 화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1284년 원의 군대는 또다시 베트남을 침입했다. 이유는 원이 1282년 참파[占婆] 원정에 필요한 군대의 파견 경유지로서 베트남에 길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때문이었다.⁴¹⁾ 원은 해로로 참파 원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다시금 증원군의 베트남 통과를 주장하며 공격해 온 것이다. 원군이 도달하기 전 쩌 왕조에서는 사절을 보내 사태의 완화를 도모했지만 원의 강경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⁴²⁾

쩌 흥 다오가 이끄는 베트남 군대는 원군을 맞아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1285년 탕 룡이 함락되었다. 쩌 왕조의 장수와 병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여러 곳에서 원군을 격파하니 이들은 물러가고 말았다. 원의 世祖 쿠빌라이[忽必烈]는 패배에 격노하여 1287년 말 3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

39) 藤原利一郎, 1971, 「ヴェトナム諸王朝の變遷」, 『岩波講座 世界歴史』 12, 東京: 岩波書店, 452~453쪽.

40) O. W. Wolters, 1979, "Assertions of the Cultural Well-being in Fourteenth-Century Vietnam (Part on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2, September, pp. 436~437.

41) 『전서』, 355쪽.

42) 『전서』, 356쪽; Le Tac, 2001, p. 493; 『元史』 권209, 安南傳, 1995, 北京: 中華書局, 4641~4642쪽.

공케 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탕 룡을 쉽게 점령했으나, 군량 공급 선단이 격파되면서 육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쩐 흥 다오는 이들을 바 의 당 강에서 대패시키니(1288), 원의 세 번째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쩐 왕조의 황제인 년 통[仁宗]은 원과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곧 사신을 보내 사죄하면서 조공을 바쳤고, 이듬해에도 사절을 파견하는 등 원과의 화친에 노력했다. 1293년 아인 통[英宗]이 즉위하자, 원에서는 친조를 요구했지만 질병을 구실로 가지 않고 대신 사절을 보내 베트남 산물을 바쳤다. 이리하여 2년 뒤에는 원에서 대장경을 하사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호전되어,⁴³⁾ 그로부터 쩐 왕조 말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명이 등장하며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때문에 쩐 왕조는 명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인 1359년 명에 사신을 보내 그곳 정세를 살피게 하는 동시에 화친을 도모하였다.⁴⁴⁾ 사실 베트남의 모든 왕조는 이처럼 중국의 정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베트남에 곧바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368년 명 태조 洪武帝가 즉위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오자, 쩐 왕조는 곧 답례로 사신을 보내 聘物을 바침으로써 이듬해에는 안남국왕으로 봉해지는 동시에 조공사절은 3년에 한 번 보내도록 결정되어 통상적인 조공관계가 성립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쩐 조정은 국내에서 軍民에게 중국식 의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대등한 의지를 보였다.⁴⁶⁾ 한편 명은 1384년 윈난 지방에서의 소요를 계기로 쩐 조정에 막대한 양의 군량미를 요구하기 시작한 후 뒤이어 거듭 압력을 가해 왔다. 당시 쩐 왕조의 실권자였던 호 꾸이 리[胡季犛]는 명의 위협이 두려워 이들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 주었다.

1400년 쩐 왕조를 찬탈한 호 꾸이 리는, 명에 쩐씨의 후손이 끊겨 외손인

43) 『전서』, 374쪽.

44) 『전서』, 431쪽.

45) 『明史』 권321, 安南傳, 1997, 北京: 中華書局, 8309~8310쪽; 『전서』, 436쪽; 山本達郎, 1977a, 『陳朝と元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144쪽.

46) 『전서』, 446쪽.

호 한 트엉[胡漢蒼]이 뒤를 이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호 한 트엉은 영락제가 1402년 즉위한 후 안남국왕에 봉해져 양국 간에는 친선관계가 맺어졌지만, 2년 뒤에는 곧 형세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첫째는 두 나라 사이의 국경분쟁이었고, 둘째는 참파에 대한 베트남 측의 공격을 둘러싼 명의 간섭이며, 셋째는 전 왕조의 유신인 부이 바 끼[裴伯耆]가 호씨의 찬탈을 전하고 이어 전씨의 일족이라는 전 티엠 빈[陳天平]이 와서 명의 출병을 요청한 때문이었다.⁴⁷⁾

영락제는 호씨 부자의 죄로, 안남왕을 시해했다는 것과 중국의 정삭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황제를 칭했다는 것 등 20여 가지 죄상을 들면서 전 왕조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1406년 겨울 대구모 원정군을 보냈다.⁴⁸⁾ 이들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한 지 2개월 만에 동 도[東都, 즉 탕 룡]와 호씨의 수도인 띠이 도[西都, 현 타인 호아]를 쉽사리 점령하고, 남으로 진군을 계속하여 1407년 여름 호씨 부자를 하 띠[河靜] 지역에서 붙잡아 金陵(현 남경)으로 압송하였다.⁴⁹⁾ 이제 베트남은 독립한 지 400여 년 만에 또다시 중국의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명은 안남을 ‘자오 짜’로 고치고 직접지배하에 두어 이후 20년간 통치함에 따라 명과 베트남 사이에 조공관계는 없었다.

베트남이 명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레 러이의 10년 동안의 독립투쟁 결과였다. 1426년 패색이 짙은 명군은 레 러이 측과 협상하여, 철군의 명분으로 전 왕실의 후손을 찾아내어 그를 왕위에 앉히라고 하였다. 레 러이 역시 베트남인들이 오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화평을 원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전 까오[陳晷]라는 인물을 옹립하고 연호를 티엔 카인[天慶]이라 하였다.⁵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철수하지 않고 있다가, 1427년 이들을

47) 『明史』 권321, 安南傳, 8313~8314쪽; 山本達郎, 1950, 『安南史研究』 I, 東京: 山川出版社, 277~279쪽.

48) 山本達郎, 1950, 위의 책, 333~335쪽.

49) 『전서』, 495~496쪽; 『明史』 권321, 安南傳, 8315쪽.

50) 『전서』, 530쪽.

도우러 온 증원군이 큰 타격을 입자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앞서 레 리이는 쩐 까오를 국왕에 봉해 달라는 求封書를 보냈다. 명 황제는 이를 받고 쩐 까오를 안남국왕에 봉해 주면서 조공은 洪武 때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⁵¹⁾

1428년 봄 동 도에 돌아온 레 리이는 제위에 올라 연호를 투언 티엔(順天), 국호를 다이 비엠티라 하였다[黎朝, 1428~1788]. 그는 즉위 후 곧 명에 사절을 보내 쩐 까오의 사망과 쩐씨 후손이 없음을 알리는 동시에 金人(자신의 대제물)을 바쳤다.⁵²⁾ 독립전쟁의 지도자로서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국력이 중국에 비할 바가 못되므로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면 명과의 조공외교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429년 레 리이는 명에 사절을 파견하여 책봉을 요청했고, 이어 1431년 또다시 사절을 보냈다. 이에 명은 마침내 레 리이를 ‘權署安南國事’로 임명했다.⁵³⁾ 권서안남국사란 안남의 국사를 맡은 임시 통치자라는 의미인데, 양국관계는 이로써 일단 정상화되었고 조공은 3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10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기적인 使行 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많은 사절이 파견되었다. 후지와라 리이치로[藤原利一郎]에 따르면, 1428년부터 1527년 사이에 레 왕조는 명에 모두 114회에 걸쳐 사신을 보냈는데, 그중 정기적인 歲貢은 29회뿐이고 나머지 85회는 모두 임시 사행이었다.⁵⁴⁾ 임시 사행의 예로는 求封·謝恩·告哀·賀即位·賀立太子·求冠服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전 왕조들에 서와 마찬가지로 대등의식에 변함이 없었다. 황제의 칭호라든가 사절의 파견을 如明이라 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거니와, 명과의 관계에 처음으로 ‘交邦’

51) 『전서』, 544~545, 549쪽; 山本達郎, 1977b, 「明のベトナム支配とその崩壊」,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239~240쪽.

52) 『전서』, 556쪽. 『전서』는 쩐 까오가 음독자살했거나 아니면 레 리이에게 살해되었다고 하였으나,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전서』, 551쪽.

53) 『전서』, 562, 563쪽; 『明史』 권321, 安南傳, 8325쪽. 명은 1437년 2대 타이 퉁(Thai Tong, 太宗) 때에 이르러 그를 안남국왕에 봉해 주었다. 『전서』, 592쪽.

54) 藤原利一郎, 1977, 「黎朝前期の明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317~329쪽 도표 참조.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⁵⁵⁾ 교방은 국가 간의 상하질서보다 평등한 외교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떠이 썬 정권시대(西山, 1771~1802)에 ‘邦交’로 쓰이기 시작하여,⁵⁶⁾ 응우옌 왕조에서 완전히 정착되었다.⁵⁷⁾

베트남과 명의 안정적이던 관계는 1527년 막 당 중(莫登庸)이 레 왕조의 제위를 찬탈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즉위 이듬해 명에 사신을 보내 레씨의 자손이 끊겼음을 알리고, 통치권의 허락을 요청하였다.⁵⁸⁾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혹 있을지도 모를 명의 무력개입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권위와 명분을 얻자는 의도였다.

한편 막 당 중에 대항하는 레씨 부흥세력도 1534년 사절을 파견하여 막씨의 찬탈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入貢하지 못했음을 알렸다.⁵⁹⁾ 그렇지 않아도 막씨 정권을 의심하고 있던 명 조정은 막 당 중의 죄상을 들어 토벌하자는, 이른바 중화사상에 입각한 명분론과 당시 국내외 사정상 대규모 원정은 불가하다는 현실론 사이의 논쟁 끝에, 막씨가 투항하면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토벌한다는 和戰의 두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는 전권을 毛伯溫에게 맡겨 상황을 보아 결정토록 하였다.

1540년 모백온이 군대를 이끌고 광시성에 도착하자, 막 당 중은 국내에서 레씨 부흥세력과 대치한 가운데 명에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여 명과의 화친방침을 택했다. 그는 40명의 신하들과 함께 鎮南關(현 友誼關)으로 가 맨발로 기어서 모백온의 진영에 이르러 항복문서를 바치는 동시에 변경 지대의 일부를 명에 넘겨 주었다. 명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해 안남국을 安南

55) 『전서』, 713쪽. 『강목』에는 邦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강목』이 편찬된 응우옌 왕조 시대 용어의 반영인 것이다. 『강목』 정편, 권23, 23b쪽.

56) 吳時任(Ngo Thi Nham), 『邦交好話』, Vien Nghien Cuu Han Nom, VHv. 1831. 이 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淸에의 외교문서를 수록한 것이다.

57) 『大南寔錄』(東京: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1981), 정편 I, 권23, 3a. 응우옌 왕조에서는 이전 역대 왕조의 對中關係도 방교로 보았다. 레통[黎統]이 1819년 편찬한 『邦交錄』(EFEO, microfilm A, 614 & A, 691/1-2) 참조.

58) 『전서』, 837쪽.

59) 『전서』, 845쪽; 『明史』 권321, 安南傳, 8331쪽.

都統司의 등급으로 내리고 막 당 중을 ‘安南都統使’에 임명하였다.⁶⁰⁾ 이로 인해 베트남은 명목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나, 여하튼 막씨는 명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동안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1592년 레씨 부흥세력에게 동 킨[東京]에서⁶¹⁾ 쫓겨난 다음에도 중국에 인접한 까오 방(Cao Bang)에 근거를 두고, 명과 그 뒤를 이은 청의 보호하에 1677년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⁶²⁾ 이는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조공외교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막씨를 축출한 레 왕조에서는, 막씨에의 까오 방 지역 할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은 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문제가 해결되자 1597년 명에 사절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청해 명으로부터 막씨와 동일하게 안남도 통사에 봉해졌다.⁶³⁾ 레 왕조는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이를 수용하여 양국 관계는 확립되었다.

1644년 명이 망하고 중국 남부에 망명정권인 南明이 서자, 레 왕조는 1646년 사절을 보내 책봉을 요청했다. 남명의 永曆帝는 태상황인 神宗을 안남국왕에 봉하고 이듬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⁶⁴⁾ 이는 마치 남송이 금과의 대립 속에서 리 아인 통을 안남국왕에 책봉해 준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중국세력의 약화가 베트남·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레 왕조는 1659년 청에 사절을 보내고, 이어 1660년에는 안남국왕으로서 다시 방물을 바쳐 청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⁶⁵⁾ 결국 레 왕조는 명청교체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안남국

60) 『전서』, 847~848쪽; 『明史』 권321, 安南傳, 8333~8334쪽; 大澤一雄, 1977, 「黎明朝中期の明・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361~362쪽.

61) 동 도[東都]는 1430년 동 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서』, 563쪽.

62) 『明史』 권321, 安南傳, 8335~8336쪽; 『전서』, 917쪽.

63) 『전서』, 909쪽; 『明史』 권321, 安南傳, 8336~8337쪽; 『강목』 정편, 권30, 18b~19b, 26a~27a쪽; 大澤一雄, 1977, 앞의 글, 378쪽.

64) 『전서』, 950~951쪽; 『강목』 정편, 권32, 3b~4a쪽.

65) 『清史稿』 권527, 越南傳, 1998, 北京: 中華書局, 14627쪽; 大澤一雄, 1977, 앞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양국 간 몇 차례 접촉이 있는 다음, 레 왕조의 요청에 따라 1668년에 이르러 청은 조공을 六年兩貢竝進으로 하도록 허락하였다.⁶⁶⁾

이후 두 나라 사이의 문제는 당시 까오 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막씨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다. 레 왕조는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 점거했던 까오 방 지역을 막씨에게 돌려주었다.⁶⁷⁾ 그러다가 1677년에 이르러 막씨가 吳三桂의 난을 도왔다는 구실로 이를 완전히 평정하였다.⁶⁸⁾ 막씨가 평정된 다음 청과 레 왕조 사이에는 원난 변경의 영토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일 없이 조공관계가 순조롭게 지속되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레 왕조에서 청에 갔다 돌아온 사신을 1722년 ‘淸使’라고 한 점으로,⁶⁹⁾ 응우옌 왕조에서의 ‘如淸使’라는 말은 이로부터 기원한 것 같다.

그러다가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1771년 떠이썬 지방의 응우옌씨 삼형제가 일으킨 이른바 떠이썬黨의 반란이 1780년대 후반에 레씨 부흥운동의 주동세력이었던 찐[鄭]씨와 응우옌씨에 의한 남북분단에 종지부를 찍으면서였다. 응우옌씨 삼형제의 막내인 응우옌 반 후에는 1786년 탕 룡을 점령하여 찐씨를 제거한 다음 유명무실했던 레 왕조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고는 남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귀환 후 어린 찌에우 통 황제[昭統帝]가 즉위하자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고 1788년 다시 탕 룡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 겁을 먹은 찌에우 통 황제는 청의 도움을 청했고, 이에 응해 청은 베트남 원정을 결정하였다.

양광총독 孫士毅는 레씨를 구하는 것은 청의 의무인 동시에 안남도 지배할

글, 382쪽.

66)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28쪽. 『전서』와 『강목』에 1669년으로 된 것은 사신이 베트남에 돌아와 보고한 해이다. 『전서』, 987쪽; 『강목』 정편, 권33, 26a~b쪽.

67)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29쪽; 『전서』, 988쪽; 『강목』 정편, 권33, 25a~26b쪽.

68)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29~14630쪽; 『전서』, 1008쪽; 『강목』 정편, 권34, 3b~4a쪽.

69) 『전서』, 1053쪽.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건륭 황제에 주청하여 허락을 받았다.⁷⁰⁾ 1788년 10월 청군은 손사의의 지휘하에 국경을 넘어 11월에는 탕 룡에 들어왔다. 응우옌 반 후에는 베트남의 합법적 지배자로서 청에 대항하기 위해 11월 푸쑤언[富春, 현 후에]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연호를 광중[光中]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북진을 시작하여 1789년 음력 1월 5일 새벽에 청군 기지를 기습하니, 청군은 대패하여 물러가고 말았다. 이에 앞서 청 조정에서는 ‘天厭黎氏’라는 논의가⁷¹⁾ 일어나 레씨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손사의에게 철병을 지시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건륭제는 원정군의 패배 직후 양광총독에 새로이 福康安을 임명하여 평화적으로 베트남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광중 황제도 꾸이년[歸仁]을 근거지로 한 말청 응우옌 반 닌[阮文岳]과의 대립 및 남부에 있는 응우옌씨의 일족인 응우옌 폭 아인[阮福映]과 그가 끌어들이는 사이암 군대의 위협을 고려하여 청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⁷²⁾ 그리하여 그는 응우옌 광빈[阮光平]이란 가명으로 사절을 보내 명년 건륭제의 팔순만수축전에 친조를 약속하며 책봉을 요청했다. 건륭제는 기뻐서 즉시 안남국왕에의 책봉을 허락해 주었다.⁷³⁾ 그러나 광중 황제는 속으로 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 룡에서의 책봉식이나 북경의 만수축전에 직접 가지 않고 용모가 비슷한 생질 판공 쯔[范公治]를 자신인 것처럼 하여 대신 보냈다.⁷⁴⁾ 여하튼 친조로 인해 건륭제는 1792년엔 응우옌 반 후에의 조공을 二年一貢, 兩貢並進으로 하고 조공품

70) 『전서』, 1209쪽; 『강목』 정편, 권47, 32b~33a쪽; 『大南正編列傳初集』 권30, 阮文惠傳, 30b쪽.

71) 鈴木中正, 1977, 「黎朝後期の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444쪽; Truong Buu Lam, 1968, “Intervention Versus Tribute in Sino-Vietnamese Relations, 1788-1790,”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pp. 170~171.

72)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38쪽; 鈴木中正, 1977, 앞의 글, 451쪽; Truong Buu Lam, 1968, 173~174쪽.

73) 『列傳初集』 권30, 阮文惠傳, 38b쪽;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39쪽.

74) 『列傳初集』 권30, 阮文惠傳, 38b~39a쪽.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40쪽 참조.

도 많이 삭감해 레 왕조보다 우대하여 주었다.

건륭제 치세에 우호적이던 청과 떠이 썬 정권의 관계는 1799년 嘉慶帝가 친정을 하면서, 떠이 썬 측의 중국인 해적 비호문제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폭 아인의 공세로 떠이 썬 정권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나 청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1801년 6월 푸 쑤언을 점령한 응우옌 폭 아인은 이듬해 5월 제위에 오르고 [阮朝, 1802~1945] 연호를 자 룡[嘉隆]이라 정한 후 쩌 화이 득[鄭懷德]을 如清正使로 하여 광둥으로 보냈다.⁷⁵⁾ 그러나 사절의 도착 보고를 받은 청 조정은 응우옌씨가 아직 통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번속국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우옌 폭 아인은 다시 응우옌 팡 딘[阮光定]을 請封使로 보내 국호를 남 비엠티로 하고 자신을 왕에 봉해 줄 것을 요청했다.⁷⁶⁾ 청 조정은 책봉에 대해서는 쉽게 응했으나, 국명을 남 비엠티로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남 비엠티 예전 찌에우 다가 세운 남 비엠티 이름이 같아, 암묵적으로 광둥과 광시 두 성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응우옌 폭 아인이 재삼 남 비엠티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청은 마침내 두 글자를 바꾸어 비엠티 남[越南]이란 이름을 제시함으로써 종주국으로서의 권위를 보이려 하였다. 응우옌 왕조에서는 자기 조상 전래의 땅인 비엠티 트엉[越裳]의 '비엠티'가 먼저 오고 새로 획득한 안남(安南, 쩌씨 영역)의 '남'자가 뒤에 오는 것에 만족하여 청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⁷⁷⁾

75) 『列傳初集』 권11, 鄭懷德傳, 4b쪽.

76) 남 비엠티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왕조가 안남(중국에서 베트남을 일컫는 이름으로, 당시 찌씨 세력하의 지역을 지칭)과 비엠티 트엉(Viet Thuong, 越裳, 응우옌씨 영토로 후에 이북에서 남부까지의 지역)을 포괄하여 이전 쩌 왕조나 레 왕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였다. 『大南正編列傳初集』 권11, 阮光定傳, 2a쪽;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Ithaca :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p. 131.

77) 국호문제에 대하여는 『淸實錄』과 청의 실무담당자였던 廣西巡撫 孫玉庭이 쓴 『延釐堂集』에 의거하여 鈴木中正이 자세히 논하고 있다. 鈴木中正, 1966, 「淸·越南關係の成立」, 『愛知大學文學論叢』 33・34 合併號, 353~358쪽. 『大南寔錄』 정편 1,

국호문제가 해결되자 두 나라의 사이의 우호관계는 공식화되어, 『大南寔錄』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로부터(1803) ‘邦交의 禮’가 성립했다.⁷⁸⁾ 청조에서는 곧 宣封使를 보냈고, 이를 맞은 응우옌 폭 아인은 1804년 1월 지금의 하노이에서 선봉의 의식을 행하고 ‘越南國王’의 위에 올랐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원만히 해결을 보자 ‘邦交’는 때이 켜 정권 때와 같이 二年一貢, 四年一次遣使, 兩貢並進으로 규정되었다.⁷⁹⁾ 이후 중국적 관점의 조공관계는 80년 동안 계속되다가 1884년 파트노트르 조약에 따라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상기한 조공규정은 시대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 망 황제[明命帝] 말년인 1839년 琉球, 暹羅와 동일하게 四年朝貢一次로 수를 줄여 주고, 조공품도 액수를 절반으로 해 주었다.⁸⁰⁾ 한편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1851~1864)이 일어났을 때는 청조가 조공을 중지시켜 16년 동안 사절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재개된 것은 1868년에 이르러서였다.⁸¹⁾ 응우옌 왕조의 최종 사절파견은 히엵 호아 황제의 뒤를 이은 끼엔 폭[建福帝, 1883~1884]에 의한 책봉사였는데,⁸²⁾ 재위 반년여 만에 병사하고로 책봉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프득 황제 때 프랑스가 침입하여 1862년 남부의 동부 3성을 점령하고, 또 1867년에는 서부 3성까지 손에 넣었지만 베트남은 청에 원조를 요청하기는커녕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1873년 프랑시스 가르니에(Francis Garnier)의 통킹 공격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보면 청에의 조공은 이전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권23, 1b~2a 및 『列傳初集』 권11, 阮光定傳, 2a쪽 참조.

78) 『大南寔錄』 정편 I, 권23, 3a.

79) 『大南寔錄』 정편 I, 권23, 4a ; 鈴木中正, 1966, 앞의 글, 358쪽.

80) 『大南寔錄』 정편 II, 권207, 41b~42a쪽 ; 『淸史稿』 권527, 越南傳, 14644쪽 ; 鈴木中正, 1966, 앞의 글, 358쪽.

81) 『大南寔錄』 정편 IV, 권38, 44a~b쪽 ; John K. Fairbank, 1968, “The Early Treaty System in the Chinese World Order,”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p. 269 ; 和田博徳, 1977, 「阮朝中期の淸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566, 581쪽.

82) 『大南寔錄』 정편 V, 권1, 25a~b쪽 ; 和田博徳, 1977, 앞의 글, 589~590쪽.

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베트남 역대 왕조가 중국의 조공체제를 받아들인 주요 이유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왕조의 안전을 유지하자는 외교적 전략이었다.⁸³⁾ 레 호안과 레 러이가 각각 송과 명의 침입을 물리친 다음 곧 사절을 파견한 것이 이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베트남이 중국을 적대시하여 이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하면 왕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 호 꾸이 리 정권의 붕괴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런가 하면 막 당 중은 徒跣匍匐하고 항복한 결과 정권을 유지했음은 물론 후일 레씨에게 탕 룡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중국 왕조들의 옹호로 수십 년 동안 지방정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베트남 역대 왕조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긴 이상 그들은 조공외교를 위해 파견한 사절로 하여금 중국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살피도록 했다. 명이 세력을 확고히 하기 전 수호를 요청하자 쩐 왕조는 사신을 보내 그곳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응우옌 왕조에 들어와 청의 움직임에 대한 군주들의 관심은 더욱 컸다. 자 룡 황제는 여청사가 돌아오면 즉시 불러 청의 정세를 묻는 것이 상례였다.⁸⁴⁾ 민 망 황제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청사에게 『使程日記』를 써 그들이 청에서 보고 들은 국정과 민정을 정확히 기록토록 하였다.⁸⁵⁾ 이렇게 본다면 베트남 왕조들의 조공외교란 중국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서 취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베트남의 조공외교는 가능한 한 중국에 대해 중

83) 유인선, 1987. 6, 「中越關係와 朝貢制度－假像과 實像」, 『역사학보』 114집, 108~109쪽.

84) 『大南寔錄』 정편 I, 권58, 11a~b쪽; 竹田龍兒, 1977, 「阮朝初期の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498쪽.

85) 『大南寔錄』 정편 II, 권79, 17a~18b쪽; Alexander B. Woodside, 1971,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Vietnamese and Chinese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8~119; 竹田龍兒, 1977, 앞의 글, 498쪽.

속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딘 보 린이 아들의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한 것, 레 호안이 송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 절하기를 거부한 태도, 쩌 왕조 때의 태상 황제도, 팡 쑹 황제가 건륭 황제 팔순만수축전에 가짜 대리인을 보낸 일, 응우옌 폭 아인이 국호를 남 비엠티로 고집한 것 등등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교섭에서 가능한 한 대등한 태도를 취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대등의식의 문제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北拒와 중국에의 대등의식

베트남은 전근대 2천 년 중 전기 천 년 동안 중국의 정치적 지배하에 있었고, 10세기 독립한 후에도 일곱 차례나 중국 왕조들의 침입을 받았다. 더욱이 명은 20년 간 베트남을 지배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지배와 침입에 대하여 베트남인들은 끊임없이 저항한 때문에 전근대 베트남의 對中關係를 ‘北拒’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거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베트남인들의 저항정신은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최초 침략은 전술한 기원전 111년 한 무제 때 있었다. 그는 남 비엠티를 정복하고 이를 지배하에 두었다. 후일 레 반 흐우는 무제의 침입 구실을 준 르 자가 한에의 복속을 거부토록 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나라를 끝까지 사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 지배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⁶⁾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저항정신의 부족과 독립의 상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 남 비엠티를 정복한 후 그 지역에 郡을 설치하기는 했어도 직접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고 토착지배계층을 통한 간접통치의 형태를 취했다. 때문에 이

86) 『전서』, 120쪽.

후 150여 년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평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전한 말부터 중국 관리의 동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신들의 지위에 불안을 느낀 지배 계층이 적대관계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한 표시가 기원후 40년에 일어난 쯡 짩[徵側]과 쯡 니[徵貳] 자매의 저항운동이었던 것이다.

베트남 역사상 유명한 이 저항운동의 계기는, 당시 자오 찌 태수였던 蘇定이 쯡 짩의 남편인 티 싸익[詩索]을 체포하여 한나라 법에 따라 처형한 데 있었다. 쯡 짩은 곧 동생 쯡 니와 함께 자오 찌 중심부를 공격하니 소정은 북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65개 城이 동조하여 저항은 성공을 거두었다.

쯡 자매의 반란 소식을 들은 후한은 馬援을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하여 반란 진압의 임무를 맡겼다. 마원의 군대는 우기 때문에 랑 박[浪泊] 전투에서 고전도 했으나 마침내 쯡 짩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그리고는 메 린의 탄 비엔 산[傘圓山]으로 후퇴하는 쯡 자매를 43년 1월 포로로 하여 참수한 후 그 머리를 낙양의 조정에 바쳤다.⁸⁷⁾ 이와 달리 베트남 史書는 쯡 자매가 전사한 것으로 서술하여 굴욕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있다.⁸⁸⁾ 이는 그들이 후일의 역사가와 군주들을 통해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541년 자오 찌우의 토호인 리 본[李賁]은 쯡 자매 이래 최대 규모의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梁은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병사의 60~70%를 질병과 리본 군대의 공격으로 잃어 진압은 실패하고 말았다. 543년 남쪽에서 린 이[林邑]의 공격을 물리친 후 544년 리 본은 자신을 남 비엣의 황제라 칭하고,

87) 『後漢書』 권14, 馬援傳, 1996, 北京: 中華書局, 838쪽; Bui Quang Tung, 1961, "Le soulèvement des Sœurs Tru'ng,"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Etudes Indochinoises*, Nouvelle Serie, Tome 36-1, p. 77; Keith Taylor,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40.

88) 『전서』, 127쪽; Ly Te Xuyen, 1960, *Viet-Dien U-Linh Tap*[越甸幽靈集], Saigon: Nha Sach Khai-Tri, p. 11. 베트남 전설은, 쯡 자매가 홍강 지류인 핫강[喝江]에 몸을 던져 자살한 것으로 하여 이들의 죽음을 더욱 미화하고 있다. 川本邦衛, 1967, 앞의 책, 73~74쪽 참조.

연호를 티엔 득[天德]이라 하는 한편, 나라 이름을 만 춘[萬春]이라 했다. 남 비엣 황제라는 칭호는 이전 남 비엣을 세우고 한에 저항했던 찌에우 다의 예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레 반 호우의 말대로, 리본은 평범한 장수였던 데다 더욱 불운하게도 陳霸先 같은 뛰어난 梁의 장수와 대결하게 되어 성공할 수 없었다.⁸⁹⁾

리본의 사후 독립운동은 찌에우 팡 폭[趙光復]과 리 펫 뜨[李佛子]를 통해 이어지다가 찌에우 팡 폭이 먼저 몰락하고, 리 펫 뜨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자진해 그에 복속하였다. 응오 씨 리엔은 남북의 강약은 있을 수 있지만 리 펫 뜨가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한 것에 대해 혹독히 비난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비난은 레 리이가 명과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에 대비하여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가 단명으로 끝나고 당이 뒤를 잇자 자오 찌는 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당은 679년 安南都護府를 두었는데,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베트남을 '안남'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도호부는 당이 새로 정복한 주변민족들 중 몇몇 강력한 민족을 감시하기 위해 둔 관청이었다. 그런데 당이 한 무제 이래 800년 가까이 중국의 직접지배하에서 군현제가 실시되었던 베트남에 새로이 정복한 지역과 동일하게 도호 행정을 실시한 것은 분명 중국 지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퇴는 수백 년에 걸친 베트남인들의 계속된 저항을 막을 수 없어 취해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⁹¹⁾

당 지배하에서도 적지 않게 저항운동이 일어났지만 베트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대표적 저항운동으로는 722년 현재의 하 띵[河靜] 시 부근에서 마이 푹 로안[梅叔鸞]이, 782년 오늘날 썬 떠이[山西] 지방 호족인 풍 흥[馮興]이 일으킨 것을 들 수 있으나 어느 것도 당 지배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가 安史의 난(755~763) 후 기울어진 당 국운에 다시 黃巢의 난

89) 『전서』, 150쪽; 유인선, 2001. 1, 「전근대 베트남인의 歷史認識 - 黎文休와 吳士連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73, 182쪽.

90) 『전서』, 153쪽.

91) 後藤均平, 1975, 『ベトナム救國抗爭史』, 東京: 新人物往來社, 234~240쪽.

(875~884)이 일어나 그 운명을 재촉하면서 베트남에는 자주 독립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베트남 토호인 쿡[曲]씨 3대의 절도사 자칭은 그러한 실마리였다고 하겠다. 이때 베트남은 일시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남한의 지배를 받았지만 곧 즈영 딘 응예[楊廷藝]에 의해 회복되었다. 그가 살해된 뒤 남한은 재정복을 시도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응오 꾸옌이 이들을 바익 당 강 전투에서 대패시킨 후 당의 관직인 절도사라는 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939년 왕을 칭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인들은 바익 당 강의 승리가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으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한다.⁹²⁾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속지로 간주하였다. 이는 『宋史』 열전에 베트남을 ‘交趾’라고⁹³⁾ 한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교지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일개 郡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송은 딘 왕조의 뒤를 이은 레 호안이 稱帝改元한 것에 대해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⁹⁴⁾ 그에 앞서 딘 왕조 말의 내분을 틈타 이를 다시 점령하려고 출병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송은 리 왕조가 성립한 지 반세기여 만에 또다시 베트남 정벌을 시도하였다. 1075년과 1077년 사이의 충돌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평시 자치를 누리던 양국 변경지방의 소수민족을 지배하려는 다툼의 결과였다. 1076년 말 송의 원정군은 탕 룡에서 30리 거리의 푸 르엡[富良, 지금의 홍강] 강에 이르렀으나 리 트엡 끼엣은 전함 4백여 척을 배치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때 리 왕조 군대의 진영 근처에는 마침 6세기 짜에우 비엡 브엡[趙越王, 즉 짜에우 팡 폭]을 도와 싸웠던 두 장군의 사당이 있었는데, 리 트엡 끼엣은 부하를 시켜 그 속에서 “남국의 산하에는 南帝가居한다고 天書에 분명히 나와 있거늘”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군사들은 그 노래 소리에 사기가 크게

92) 오늘날 하노이 사학계는 응오 꾸옌이 걸출한 재능의 소유자로 민족독립을 쟁취했다고 하여, 레 반 흐우보다는 응오 씨 리옌의 평가에 동조하는 경향이다. Phan Huy Le, 1998, tap 1, p. 495 ; Nguyen Quang Ngoc, 2000, pp. 62~63.

93) 『宋史』 권488, 交趾傳.

94) 『전서』, 187쪽.

충천하여 밤에 강을 건너가 송군을 패퇴시켰다고 한다.⁹⁵⁾

이 노래는 베트남을 '남국'으로 하고 중국을 '북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베트남의 군주를 남제로 하여 중국의 천자, 곧 북제와 대비시키고 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종속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등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하늘이 정했다고 함으로써 그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보아 베트남인의 대등의식이란 중국의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베트남인의 對中 대등의식이 그 침략에 대한 항거와 연관됨은 레 반 흐우의 『대월사기』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쩌 왕조 때 원[몽골]이 3차에 걸쳐 베트남을 침입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전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쩌 왕조는 가능한 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원의 무력행사를 사전에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원이 무력으로 침입하면 이를 피하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싸웠다. 원의 1차 침입시에는 쩌 왕조의 실질적 창건자인 쩌 투 도[陳守度]가 강력히 주장하여 대결하게 되었다.⁹⁶⁾

원의 2차 침입 때, 쩌 왕조는 50만 몽골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감안하여 당시 上皇이던 타인 동[聖宗]은 전국의 父老들을 지엔 홍 자이[延洪墜]에 모아 저항과 항복 중 택일할 것을 물으니 모두들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다.⁹⁷⁾ 한편 쩌 홍 다오는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타인 동의 물음에 “먼저 臣의 머리를 벤 후에 그렇게 하소서”하면서⁹⁸⁾ 최후까지 저항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檄將士’라는 글을 써 장수와 병사들에게 왕조의 위급함을 호소하였

95) 『전서』, 249쪽 ; Ly Te Xuyen, 1960, p. 24 ; Truong Buu Lam, 1967, *Patterns of Vietnamese Response to Foreign Intervention : 1858-1900*, New Haven : Yale Southeast Asia Studies, Monograph Series No. 11, pp. 47~48. 베트남 사료에는 이 전투가 느 응우엣[如月] 강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河原正博은 송 측의 자료를 인용하여 이는 오류라고 하였다. 『전서』, 249쪽 ; 『대월사략』, 62쪽 ; 河原正博, 1977b, 앞의 글, 52~54쪽.

96) 太師守度 對曰, “臣首未至地 陛下無煩他慮”, 『전서』, 339쪽 ; 『강목』 정편, 권6, 41a~42b쪽.

97) 『전서』, 357쪽 ; 『강목』 정편, 권7, 30a쪽.

98) 『전서』, 380쪽.

다.⁹⁹⁾ 사기가 오른 쩌 왕조의 군대는 각지에서 원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일시 점령당했던 탕 룡을 다시 빼앗자, 원의 군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물러가고 말았다.

레 반 흐우의 『대월사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 다시 말해 몽골의 1차 침입이 있은 후 언제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원의 침략을 앞둔 1272년에 편찬되었다. 당시 쩌 왕조의 원에 대한 분위기는 강경한 편이었다. 『元史』를 보면, 1269년 코끼리 몇 마리를 바치라는 요구에 이 침승은 체구가 매우 커서 보행이 느려 上國의 말과 같지 않으니 후일에 보내겠다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이듬해엔 쩌 왕조의 왕이 황제의 조서를 받고도 절을 하지 않았다는 조항이 실려 있다.¹⁰⁰⁾ 이처럼 왕조의 분위기가 강경하면서도 다른 한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사의 편찬을 명령받은 레 반 흐우는 무엇보다 어떻게 왕조의 독립을 유지하며, 더욱이 몽골이라는 야만족 국가에 굴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머리에 이상적으로 떠오른 인물이 찌에우 다였다.¹⁰¹⁾ 왜냐하면 그는 한에 굴복하지도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찌에우 다는 한을 통해 남 비엣 브엉에 봉해졌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한과 대등한 길을 걸으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가가 처음 왔을 때, 그는 북상투를 틀고 두 발을 앞으로 쭉 뻗고서 앉은 채 맞았다고 한다. 육가가 그 태도를 꾸짖자 남방풍습에 익숙해 예절을 잃어버려 그랬노라고 변명하면서도, “나와 황제[고조]는 누가 더 현명한가?”라고 한 질문이¹⁰²⁾ 이를 입증해 준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육가의 두 번째 방문 때도 帝號를 사용 않고 稱臣하기로 약속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황제를 칭했다는 사실은 찌에우 다가 한과 자신은 어디까지나 대등하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레 반 흐우는 찌에우 다의 이러한 태도에 착목해 베트남의 역사를 남 비엣에서 시작한

99) Truong Buu Lam, 1967, pp. 49~54 참조.

100) 『원사』 권209, 安南傳, 4636쪽; 최병욱, 2006, 앞의 글, 295쪽.

101) 유인선, 2001.1., 앞의 글, 179~180쪽.

102) 『사기』 권97, 陸賈傳, 2697~2698쪽; 『전서』, 108쪽.

것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찌에우 다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평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찌에우 부 데[趙武帝]는 우리 비엠텐을 개척하고 그 황제가 되어 한과 抗衡하면서 비엠텐 제왕의 기틀을 놓았으니 그 공은 가위 크다고 하겠다.¹⁰³⁾ 결국 그가 원의 침입 앞에서 중시한 것은 베트남의 독립유지와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이었다.

레 반 흐우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면, 그가 르 자를 비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리 본은 황제를 칭하고 연호도 제정하는 등 찌에우 부 데의 전통을 이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로서는 부족하다고 평을 받은 것 역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레 반 흐우가 중국의 침입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지키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을 중시했다면, 응오 꾸옌이 남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일을 절반의 달성일 뿐이라고 본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응오 꾸옌은 풍 홍과 같은 고향인 홍강 델타의 썬 떼이 출신으로 지난날 영웅의 저항정신을 들으며 자라나 그 영향에 따라 즈엥 딘 응에의 부하가 되었다가 그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출생지이자 세력기반인 델타 남부 아이 찌우(愛州, 지금의 응에 안과 하띤 두 지방)의 관할권을 위임받았다. 그는 즈엥 딘 응에가 살해된 후 권력을 계승한 다음 바익 당 강 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므로써 천 년 이상 계속된 중국의 속박에서 베트남을 해방시켰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바익 당 강에서 남한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풍 홍이 神兵으로 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⁴⁾ 그러나 응오 꾸옌이 왕위에 오른 후 실시한 많은 제도는, 심지어 관리들의 복색까지도 중국 것을 모방했다. 이는 그가 델타의 중심부에서 태어나 중국 문화에 익숙하여 다른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으로, 여기에 그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¹⁰⁵⁾

이러한 응오 꾸옌에 비한다면 딘 보 린은 확실히 레 반 흐우가 추구하는 이

103) 『전서』, 114쪽.

104) Ly Te Xuyen, 1960, pp. 6~7 ; Keith Taylor, 1983, p. 269.

105) Keith Taylor, 1983, p. 270.

상적인 지도자였다. 딘 보 린은 12인의 군웅이 할거하는 혼란한 시대를 즉시 통일한 후 제위에 오르고 국호를 제정했으며, 곧 이어 연호까지 사용하였다. 중국인들은 천하에 황제는 중국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베트남의 군주가 황제를 칭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대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딘 보 린이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완전히 독립시켜 예전 찌에우 부 데의 전통을 이었다고 레 반 호우가 평한 것은, 그가 처했던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쩐 왕조를 찬탈한 호 꾸이 리는 자기 정권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 강압적 요구들을 가능한 들어 주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명이 무력으로 간섭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첫 번째 노력이 정권장악 이전인 1397년 현 타인 호아[淸化] 지방에 띠이 도를 건설한 것이었다.¹⁰⁶⁾ 주목적은 찐氏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장차 있을 명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1400년 제위에 오른 그는 우선 군사력의 강화에 힘썼다. 1401년 북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력을 증강한다는 목표하에 호적을 재정비하니 15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 수가 배가하였다고 한다.¹⁰⁷⁾ 전함 또한 개량하여 상하로 나누어서, 상부는 전투에 활용하고 하부에서는 노만 짓게 하였다. 아울러 각지에 말뚝을 제공토록 명하여 군대를 시켜 바다와 강의 요충지에 이를 박아 적의 수군을 저지케 하는 방법도 썼다.¹⁰⁸⁾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명 영락제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호 정권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명의 베트남 지배는 쉽지만은 않았다. 찐 왕조 후손들의 저항이 있었고, 이들이 실패한 다음에는 레 러이의 10년간의 투쟁에 직면해 1427년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명이 물러가자 레 러이는 명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응우옌 짜이[阮鵬]로 하여금 ‘平吳大誥’라는 글을 짓게 했

106) 『전서』, 472쪽; 『강목』 정편, 권11, 26a~b쪽.

107) 『전서』, 479쪽; 『강목』 정편, 권11, 6쪽.

108) 『전서』, 484~485쪽; 『강목』 정편, 권12, 8a쪽; 山本達郎, 1950, 앞의 책, 293쪽.

다.¹⁰⁹⁾ 첫 부분은 “우리 다이 비엣 國은 진실로 문명화된 국가이다. 산천의 封域이 다르듯이 남북의 풍속 또한 다르다. 우리는 짜에우(趙) · 딘[丁] · 리[李] · 쩐[陳]의 창업에서부터 한 · 당 · 송 · 원과 더불어 각각 그 나름의 영토에서 帝國을 이루었다.”로 시작된다.

이 글 역시 중국에 대한 저항이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대등의식을 갖게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平吳大誥’에서의 吳는 춘추시대 越王 句踐에 멸망당한 나라를 암시하는 동시에 명의 창건자인 주원장이 1364년 吳王을 칭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사실상 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 베트남 사료들이 越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레 러이는 자신을 구천의 계승자로 생각하면서 적국인 명이 오나라나 마찬가지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¹⁰⁾

전술한 리 트엉 끼엣의 노래에 비하면 ‘平吳大誥’는 훨씬 더 체계적이다. 양자 모두 베트남을 남국, 중국을 북국이라고 하여 대등시한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리 트엉 끼엣은 남북의 대등성이 단순히 하늘에서 정해졌다고만 하였다. 이와 달리 응우옌 짜이는 남[베트남]과 북[중국]이 지리적으로 다르고 풍습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한 · 당 · 송 · 원의 왕조가 있었듯이, 베트남에도 이들과 대등한 짜에우 · 딘 · 리 · 쩐의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응우옌 짜이는 또한 ‘平吳大誥’에서 베트남을 ‘문명화된 국가(文獻之邦)’로 부각시켜 ‘南蠻’의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문화적으로도 중국과 동격의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¹¹⁾ 이러한 문화 강조의 배경에는 쩐 왕조 말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109) 阮鷹, 1972, 『抑齋集』 上, Saigon : Phu Quoc-Vu-Khanh Dac-Trach Van-Hoa Xuat Ban, 319쪽 ; 『전서』, 546쪽 ; Stephen O'Harrow, 1979, “Nguyen Trai's Binh Ngo Dai Cao of 1428,”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1, March, pp. 159~174.

110) Stephen O'Harrow, 1979, pp. 166~167.

111) Stephen O'Harrow, 1979, p. 168.

시작한 유가사상이 불교를 대체하여 이 무렵에는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응우옌 짜이는 정치적 독립과 대등의식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레 반 호우와도 달랐다. 레 반 호우는 유가적 지식층이었지만 왕조가 외침으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던 반면, 응우옌 짜이는 전쟁의 승리 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다.

명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대등의식과 유가문화의 강조는 응오 씨 리엔의 『대월사기전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¹¹²⁾ 그는 베트남 역사의 기원을 중국 고대 전설상의 군주인 炎帝 神農氏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는 역사로 보아도 베트남이 중국에 뒤질 것이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¹³⁾ 신농씨의 3세 손자인 데 민[帝明]에게는 두 아들, 즉 데 응이[帝宜]와 이복동생인 낀 즈영 브영[涇陽王]이 있었다. 데 민은 작은 아들이 더 총명해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으나 끝내 사양하였기 때문에 형은 북방 중국을 다스리고 동생은 남방 베트남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다.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응오 씨 리엔이 베트남의 시조가 중국을 다스린 형보다 뛰어난 인물로 그려놓고 있음은 흥미롭다. 응오 씨 리엔은 또한 유가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으로 베트남을 중국과 동격의 위치에 올려 놓으려 노력하고 있음이 눈에 뜨인다. 당시는 마침 레 타이 동[黎聖宗] 치세로 베트남 역사상 누구보다 유학을 강조하고 있던 때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그는 신유학의 관점에서 어긋나는 행위면 이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비난의 대표적인 예는, 쩌 타이 동[陳太宗]이 쩌에우 타이[昭聖] 황후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미 임신 중인 형의 부인 투언 티엔[順天] 공주를 새로이 황후로 삼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당시 실권자였던 堂叔 쩌 투 도가 왕위계승 문제를 확

112) 『전서』는 레 타이 동[黎聖宗]의 명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실은 응오 씨 리엔 개인이 스스로 찬술한 것이다. 陳荊和, 「大越史記全書の撰修と傳本」, 『전서』, 8쪽.

113) 『전서』, 97쪽 ; Tran The Phap, 1961, *Linh-Nam Chich-Quail* [嶺南撫怪], Saigon : Nha Sach Khai-Tri, p. 5 ; 유인선, 2001.1, 앞의 글, 196쪽.

실히 하기 위해 강제로 행한 일이었다. 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후일 주 퉁[裕宗, 1341~1369]의 사망 후 후사가 없자 쩌 황실의 직계 후손이 아닌 異姓의 즈영넛 레[楊日禮]가 제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¹¹⁴⁾ 사실 월터스 교수는 응오 씨 리엔이 『대월사기전서』를 편찬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확고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나 참조하여 국가의 안녕과 질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직도 유교문화적인 면에서는 확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동시대인들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에서 『대월사기전서』를 찬술했다는 것이다.¹¹⁵⁾

한편 응오 씨 리엔은 명의 침입에 대해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전술한 베트남 역사의 기원을 중국 역사의 기원과 동등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명 지배 초기에 저항했던 쩌 왕조의 후손인 쩌 꾸이[陳頤]와 쩌 꾸이 코앙[陳季攢]의 시기를 『대월사기전서』에서 허우 쩌[後陳]이라 하여 하나의 독립된 왕조로 다루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울러 그는 이들을 군주로 모시고 명과 싸웠던 응우옌 까인 쩌[阮景眞]과 당 떳[鄧悉] 및 그 아들들인 당 중[鄧容]과 응우옌 칸 지[阮景異]를 훌륭한 인물들로 평가하고 있는데,¹¹⁶⁾ 이는 후세 사람들이 이들을 귀감삼으라는 의도에서 그랬지 않을까 한다. 또한 그가 쩌 타인 퉁이 상황으로서 원의 제2차 침입에 당면하여 지엔 흥 자이에 전국의 父老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이를 높이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타인 퉁은 이 회의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뉘으로썬 년 퉁[仁宗]으로 하여금 신하들과 힘을 합쳐 외적을 물리치게 하였다는 것이다.¹¹⁷⁾ 그런가 하면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지도 않은 인물

114) 『전서』, 329, 438쪽.

115) O.W. Wolters, 1996, "What Else May Ngo Si Lien Mean? A Matter of Distinctions in the Fifteenth Century," Anthony Reid, ed., *Sojourners and Settlers*, St. Leonards, Australia, pp. 97~98.

116) 『전서』, 499~500, 505, 507~508쪽.

117) 『전서』, 357, 368쪽; 유인선, 2001. 1, 앞의 글, 196쪽.

에 대하여는 혹평을 서슴지 않았다. 1257년 몽골의 제1차 침입 때 쩌 타이 푹의 동생인 쩌 넷 자오[陳日咬]가 방어책을 마련키는커녕 겁에 질려 도망간 것을 두고 그런 인물이 장차 무엇에 쓸모가 있겠느냐고 하였다.¹¹⁸⁾ 응오 씨 리엔은 쩌 넷 자오가 황실 친족임을 고려하여 더욱 가혹하게 비난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레 왕조 건국 이후 평온했던 명과의 관계는 1527년 막 당 중의 레 왕조 왕위 찬탈로 인해 위기를 맞는 듯했다. 이때 레씨 부흥세력을 의식한 막 당 중은 명에 항복문서를 바쳤고, 명 또한 내림세에 있어 대규모 원정이 불가능하였던 때문에 양자는 무력충돌 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베트남은 명이 安南都統司를 두어 통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명목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외국사신에 대한 명 황제의 賜宴도 막씨 사절에게는 폐지되었다.¹¹⁹⁾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최종 무력침공은, 떠이 쩌 정권의 응우옌 반 후에를 두려워한 레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찌에우 통 황제가 1788년 청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행해졌다. 청군이 탕 룡에 입성했다는 소식에 접한 응우옌 반 후에, 즉 팡 쯡 황제는 12월 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선포했다.¹²⁰⁾ “중국인은 우리와 다른 인종으로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다. 漢 이래 저들은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는가? 이제 청이 또다시 쳐들어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장졸들은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 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응우옌 반 후에 역시 베트남과 중국은 인종이 서로 다르고 또한 나라도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응우옌 반 후에의 공격 앞에 청의 군대는 탕 룡에 들어온 지 한 달여 만에 대패하여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찌에우 통 황제는 황후를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청으로 달아나 1793년 북경에서 사망했다. 레 러이가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세운 레 왕조는 마지막 지배자가 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패하자

118) 『전서』, 339쪽; 유인선, 2001. 1, 앞의 글, 196~197쪽.

119) 『전서』, 849쪽.

120) Truong Buu Lam, 1967, pp. 63~65.

중국으로 달아남으로써 막을 내렸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청군을 격퇴한 응우옌 반 후에는 곧 청과 조공외교를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승리자로서 결코 종속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그는 청군을 물리친 다음 청 황제에 보낸 表文에서 자신을 안남국왕으로 책봉해 주도록 요청하면서도,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¹²¹⁾ 한편 건륭 황제가 그를 안남국왕에 책봉하려고 사절을 탕 룡에 보냈을 때는, 그곳은 이미 왕성한 기운이 쇠하였으니 사절이 푸 쑤언에까지 오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청 사절이 이에 반대하자 그는 병을 구실로 탕 룡 행을 늦추다가 마침내 생질 팜 쵸 켜를 자기로 거짓 꾸며 보내 책봉을 받게 하고 공물을 바쳤다.¹²²⁾ 뿐만 아니라 응우옌 반 후에는 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베트남에 이익이 된다면 중국의 반감은 개의치 않고 이를 추구했다. 일례로, 그는 광서지방에 있는 反清 비밀결사인 天地會를 도와주었다. 이유는 고대 베트남에 속했던 兩廣 지방을 재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²³⁾ 응우옌 반 후의 이러한 행동은 그 역시 켜에우 다의 남 비엣을 베트남의 왕조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꽁 쯡 황제의 사후 급속히 쇠퇴한 떠이 썬 정권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영토를 포괄한 베트남 최초의 왕조를 건설한 자 룡 황제도 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떠이 썬黨의 난을 피해 남부지방에 있을 때 청이 침입한 사실을 그가 모를 리가 없다. 전술한 1801년 썬 화이 득의 파견은 베트남 내의 혼란을 틈타 청이 또다시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 룡 황제는 처음부터 청에 대해 대등한 정책을 취했다. 청에의 사절을 ‘여청사’라 하고 청과의 외교관계를 ‘방교’라고 한 것이 이를

121) 『列傳初集』, 권30, 阮文惠傳, 37a쪽; 鈴木中正, 1967. 2, 「乾隆安南遠征考」(下), 『東洋學報』 50-3, 308쪽.

122) 『列傳初集』, 권30, 阮文惠傳, 38b쪽.

123) Truong Buu Lam, 1968, p. 177.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국호도 ‘남 비엣’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중국에서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부른 것이 당 지배하의 안남도호부에서 유래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의 요구에 따라 비엣 남으로 되었지만, 자 롱 황제는 청이 간섭한 이 이름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였는지 1812년에는 다이 비엣이라 고쳤다.¹²⁴⁾ 다이 비엣이란 국호는 베트남 역대왕조가 중국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용해 왔던 이름이다.

제2대 민 망 황제는 자 롱 황제보다 더 대등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838년 국호를 다시 ‘다이 남[大南]’이라 바꾸고 이듬해부터 사용케 했다.¹²⁵⁾ 이유인즉 왕조의 영토가 처음으로 南海까지 이르러 대제국을 형성했으니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나라 이름을 아름다운 글자로 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만주국의 청나라가 大清이라 한 예를 들고 있다. 이로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가 이민족 왕조라 하여 멸시했던 청에 대한 대항심리에서 다이 남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라 이름이 바뀐 1839년에는 청과의 대등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중국 황제의 옥새와 같이 玉으로 ‘大南天子之璽’를 만들어 국내의 모든 문서와 [청을 제외한] 다른 외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케 하였다.¹²⁶⁾ 그의 뒤를 이은 티에우찌(Thieu Tri, 紹治) 황제 역시 1844년 ‘大南皇帝之璽’를 제작하여 조칙에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²⁷⁾

베트남의 청에 대한 멸시적인 태도는 응우옌 왕조 이전 레 왕조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제21대 히 퉁[熙宗] 때인 1696년 베트남에 들어오는 복인[중국인]들은 머리 모양이나 옷을 모두 베트남 풍습에 따르도록 하라는 칙령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만주의 습속’을 따랐기 때문에 베트남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이었다.¹²⁸⁾

124) 『國史遺編』, 1965, 홍콩: 中文大學 新亞研究所, 81쪽.

125) 『大南寔錄』 정편 II, 권190, 1a~2a쪽 및 권200, 8a~b쪽; 『國史遺編』, 278쪽.

126) 『大南寔錄』 정편 II, 권200, 16a~b쪽.

127) 『大南寔錄』 정편 III, 권40, 1a~b쪽.

128) 『강목』 정편, 권34, 35b~36a쪽; 藤原利一郎, 1986, 「黎朝後期鄭氏の華僑對策」,

응우옌 왕조에서의 청에 대한 우월의식 또는 비판적 태도는 훨씬 강도가 높았다. 베트남을 중국이라고 했는가 하면 베트남인을 漢人 또는 漢民이라 하고, 중국인은 唐人이라든가 淸人이라 불렀다.¹²⁹⁾ 이는 청인을 夷狄視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문화민족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민 망 황제의 문화적 자부심은 대단하여, 1830년 신하들에게 『淸會典』 내 조정 관리들의 衣冠規定을 보면 만이의 풍습을 따르고 있으니 경망스럽게 이를 본받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¹³⁰⁾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건륭 황제의 시에 대하여도 주저 없이 평을 가했다. 황제가 지은 시는 많으나 이들은 모두 情景를 묘사하고 있을 뿐 詩語가 제대로 가다듬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¹³¹⁾ 민 망 황제의 이러한 태도는 청이 만주족의 왕조이므로 자신들이 중국 문화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자처한 때문이었다.

청조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원 또한 몽골족이 세웠기 때문에 전 왕조에서도 이들을 야만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원의 군대가 침입했을 때 그들을 ‘胡虜’라든가 ‘北虜’라고 불렀는가 하면,¹³²⁾ 후일 응오 씨 리엔 역시 원의 군사들을 ‘胡虜’라고 비하하였다.¹³³⁾

응우옌 왕조는 자신들이 문화국이라고 자칭하였기 때문에 이 방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여청사의 선발에서 외교적 수완과 함께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였다. 1840년 민 망 황제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즉 여청사는 반드시 문학과 언어에 뛰어난 자라야 하며 貪鄙한 자가 되면 타국의 멸시를 살 뿐이라는 것이다.¹³⁴⁾

중국에 가는 사절의 자격으로 문장력을 중시한 것은 이전 왕조들에서도 동

藤原利一郎, 『東南アジア史の研究』, 東京: 法藏館, 245~246쪽.

129) 『大南寔錄』 정편 I, 권26, 22a; 권38, 12a; 권44, 19a; Alexander Woodside, 1971, pp. 18~19; Choi Byung Wook, 2004, p. 137.

130) 『大南寔錄』 정편 II, 권70, 2a쪽; 竹田龍兒, 1977, 앞의 글, 539~540쪽.

131) 『大南寔錄』 정편 II, 권159, 29b쪽; 竹田龍兒, 1977, 앞의 글, 541쪽.

132) 『전서』, 366, 380쪽.

133) 『전서』, 353, 357, 368쪽.

134) 『大南寔錄』 정편 II, 권218, 33a쪽; Alexander Woodside, 1971, p. 115.

일하였다. 쩌 왕조 때인 1308년 원에 갔던 막 딘 찌[莫挺之], 레 왕조 시대인 1597년과 1760년에 각각 명과 청에 보내졌던 풍 각 코안[馮克寬]과 레 꾸이 돈[黎貴惇]은 모두 중국에서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려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민족적 긍지의 대상이 되었다.¹³⁵⁾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가는 사절뿐만 아니라, 중국 사절을 접대하는 사람의 문화적 소양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송은 987년 국자감 박사 李覺을 베트남에 사절로 보냈다. 이때 레 호안은 승려인 팜 투언[法順]을 뱃사공으로 꾸며 송의 사절을 강에 유람시키면서 그가 시를 읊자 곧 운을 따서 시를 짓게 했다고 한다.¹³⁶⁾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베트남에서는 뱃사공까지도 시문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의 역대 왕조가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에 비길 만한 문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또 다른 하나의 본보기였던 것이다. 이 이면에는, 응우옌 짜이의 ‘문명화된 국가’라는 표현과 더불어 중국이 베트남을 야만인의 나라로 생각하여 쉽게 침범하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저항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베트남인들은 북속기에 끊임없이 중국의 지배에 투쟁하였음을 물론, 독립한 후인 조공관계기에도 중국 왕조들이 침입하면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끝까지 싸웠다. 굴복은 곧 중국에의 예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 속에서 대등의식은 자연스레 강화된 것이다. 대등의식이란 다름 아닌 베트남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보나 풍속으로 보나 별개의 국가인데, 중국이 침범하는 것은 천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중국이 자신들만 문화국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을 야만시하는 생각 또한 잘못으로, 베트남도 중국에 못지않은 문화국이니 더욱더 중국의 침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군주가 황제를 칭했다든가 베트남과 중국을 각각 남국과 북국으로 대비시켰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대등의식의 표현이었다.

135) 『전서』, 390, 909~910쪽 ; Alexander Woodside, 1971, p. 115.

136) 『전서』, 191~192쪽.

IV. 맺음말

베트남의 역사 2700년 중 초기 고대국가 형성 이전 사회를 제외한 전근대 2천 년 동안 베트남은 좋은 싫든 중국과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는 무엇보다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중국 왕조들의 남방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이 자신들만 문화국이고 이웃 나라들은 모두 야만족이라는 중화 중심적 세계질서 관념도 작용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전근대 중국 역대왕조들의 베트남에 대한 정치적 위협과 침략에 중점을 두어 베트남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아울러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위협에 가능한 한 조공외교 정책을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공외교에도 불구하고 친선이 유지되지 못하여 중국이 침입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싸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대등의식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중국이 베트남을 종속국으로 생각하여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조공외교의 선례는 남 비엣의 찌에우 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는 한나라로부터 제후국의 지배자라는 의미인 남 비엣 브엉에 봉해지자 이를 받아들이고 한과의 평화 유지를 위해 조공사절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과 한 황제는 대등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겉으로는 한에 대해 신하를 칭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뒷날 찌에우 다의 예를 따른 인물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후 몇 년 지나 던 왕조를 세운 딘 보 린이었다. 그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나라 이름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송의 통일제국이 성립하자 위협을 느끼고는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사절을 보냈다. 이때 사절파견에 조공을 의미하는 ‘貢’자 대신, 평등을 뜻하는 ‘如’자를 써 如宋이란 한 것은 주목할 일

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절의 파견도 아들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중국 황제에 대해 자신을 신하로 칭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딘 보 린의 뒤를 이은 베트남 모든 왕조의 군주들도 예외 없이 것처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연호를 제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중국에의 사절파견에는 역시 如宋·如元·如明·如淸이라는 용어를 썼다. 응우옌 왕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에의 사절을 여청사라고 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방교라 하였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황제는 중국 황제에 대해 자신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 쩌 왕조는 태상황 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응우옌 반 후에는 응우옌 팡 빈이란 가명을 썼다.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한 예는 그에 앞서 띠엔 레 왕조, 쩌 왕조, 레 왕조에서도 보인다.¹³⁷⁾ 이렇게 본다면, 조공외교란 베트남이 중국의 조공체제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모르지 않았던 것 같지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삼을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¹³⁸⁾

다른 한편, 베트남 모든 왕조는 중국의 무력침략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의 세 차례 침략과 명의 지배에 대한 쩌 홍 다오와 레 러이의 철저한 저항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쩌 홍 다오는 항복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싸워 승리를 가져왔다. 레 러이 역시 불굴의 투지로 10년간 명 지배에 저항하여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베트남이 천 년 동안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한 저항정신의 소산이었다. 테일러(Keith Taylor)는 베트남이 중국 지배기 동안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간직함으로써 저항정신을 키워 그 결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¹³⁹⁾ 사실 응오 꾸

137) 河原正博, 1976, 「前黎朝と宋朝との關係—黎桓の諸子を中心として」, 『法政史學』 29, 15~24쪽; 山本達郎, 1950, 앞의 책, 36~39쪽; 유인선, 1987, 6, 앞의 글, 118쪽.

138) 「[黎]利雖受勅命 其居國稱帝 紀元順天」, 『明史』 권321, 安南傳, 8326쪽.

139) Keith W. Taylor, 1980, "An Evaluation of the Chinese Period in Vietnamese History," *Journal of Asiatic Studies*(Seoul) 23-1, pp. 139~164.

옌의 독립에 기반을 닦아 놓은 인물은 아이 찌우 출신인 즈영 딘 응에였다. 아이 찌우 지방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反中國의 정서가 강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풍 홍의 저항정신이 더해졌던 것이다.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은 위와 같은 식민지배나 무력침략에의 저항정신 속에서 절로 잉태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레 반 호후가 베트남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월사기』를 찬술한 시기가 원의 침입이 임박한 때였다든가, 응우옌 짜이가 ‘平吳大誥’를 써 베트남인들의 대등의식을 강조한 시점이 10년간의 투쟁 끝에 명 지배에서 벗어난 직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항정신과 대등의식의 상관관계는 쉽게 이해가 간다. 응오 씨 리옌이 베트남 역사의 기원을 중국 역사의 기원과 같은 시기까지 끌어올린 것이나 응우옌 반 후에가 청군의 침입을 물리친 다음 가진 협상에서 대등한 태도를 취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이민족에게 지배될 때 베트남은 응우옌 왕조의 경우처럼 대등성을 넘어 우월성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내적으로만 그러했을 뿐 중국에 대한 공식적 태도는 아니었다. 요컨대 전근대시기 베트남은 대외적인 면과 대내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그들이 추구한 것은 실리적이면서 동시에 자존심의 보존이었다.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양면성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이 미국과 1960년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20년 후인 1995년 7월엔 경제적 필요에 따라 과거는 잊고 국교를 정상화해 미국 회사들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에 앞서 1992년 12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는 베트남인들이 얼마나 실리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일차사료〉

- 黎統, 『邦交錄』, EFEO, microfilm A, 614 & A, 691/1-2.
- 吳時任(Ngo Thi Nham), 『邦交好話』, Vien Nghien Cuu Han Nom, VHv. 1831.
- 阮鷹, 1972, 『抑齋集』上, Saigon : Phu Quoc Vu Khanh Dac Trach Van Hoa Xuat Ban.
- Le Tac, 2001, *An Nam Chi Luoc*[安南志略], Hue : Nha Xuat Ban Thuan Hoa.
- Ly Te Xuyen, 1960, *Viet-Dien U-Linh Tap*[越甸幽靈集], Saigon : Nha Sach Khai-Tri.
- Tran The Phap, 1961, *Linh-Nam Chich-Quai*[嶺南摭怪], Saigon : Nha Sach Khai-Tri.
- 『國史遺編』, 1965, Hong Kong : 中文大學 新亞研究所.
- 『大南寔錄』, 1963~1981, 東京 : 慶應義塾大學 言語文化研究所.
- 『大南正編列傳初集』, 1962, 東京 : 慶應義塾大學 語學研究所.
- 『大越史記全書』, 1984~1986, 陳荊和 編校, 東京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 『大越史略』, 1987, 陳荊和 編校, 東京 : 創價大學アジア研究所.
- 『明史』 권 321, 安南傳, 1997, 北京 : 中華書局.
- 『史記』 권 97, 陸賈傳, 1996, 北京 : 中華書局.
- 『宋史』 권 488, 交趾傳, 1995, 北京 : 中華書局.
- 『元史』 권 209, 安南傳, 1995, 北京 : 中華書局.
- 『清史稿』 권 527, 越南傳, 1998, 北京 : 中華書局.
- 『後漢書』 권 14, 馬援傳, 1996, 北京 : 中華書局.
- 『欽定越史通鑑綱目』正編, 1969, 臺北, 영인본.

〈이차사료〉

- Bui Quang Tung, 1961, "Le soulèvement des Sœurs Trùng,"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Etudes Indochinoises*, Nouvelle Srie, Tome 36-1.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1820~1841)*, Ithaca :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Fairbank, John K., 1968, "The Early Treaty System in the Chinese World Order,"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Le Thanh Khoi, 1981, *Histoire du Vietnam des origines à 1858*, Paris : Sudestasie.
- Li Tana, 1998, *Nguyen Cochinchina :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thaca : Cornell Southeast Asia Publications.
- Nguyen Khac Kham, 1989, "Dai Co Viet Revisited," 『創大アジア研究』 10.
- Nguyen Quang Ngoc, 2000, *Tien Trinh Lich Su Viet Nam*(베트남역사의 전개과정), Ha Noi : Nha Xuat Ban Giao Duc.
- O'Harrow, Stephen, 1979, "Nguyen Trai's Binh Ngo Dai Cao of 1428,"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1.
- Phan Huy Le, 1998, *Tim ve coi nguon*(근원의 탐구), tap 1, Ha Noi : The Gioi Publishers.
- Phan Huy Le, et al., 1991, *Lich Su Viet Nam*(베트남 역사), tap 1, Ha Noi : Nha Xuat Ban Dai Hoc va Giao Duc Chuyen Nghiep.
- Schwartz, Benjamin I, 1968,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Keith W., 1980, "An Evaluation of the Chinese Period in Vietnamese History," *Journal of Asiatic Studies*(Seoul) 23-1.
- Taylor, Keith W.,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ruong Buu Lam, 1967, *Patterns of Vietnamese Response to Foreign Intervention : 1858-1900*. New Haven : Yale Southeast Asia Studies, Monograph Series No. 11.
- Truong Buu Lam, 1968, "Intervention Versus Tribute in Sino-Vietnamese Relations, 1788-1790,"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more, John K., 1985, *Vietnam, Ho Quy Ly, and the Ming(1371-1421)*, New

- Haven : Yale Southeast Studies.
- Wolters, O.W., 1979a, "Assertions of the Cultural Well-being in Fourteenth-Century Vietnam (Part on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2.
- Wolters, O.W., 1979b, "Historians and Emperors in Vietnam and China," Anthony Reid and David Marr, eds.,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Singapore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 Wolters, O.W., 1996, "What Else May Ngo Si Lien Mean? A Matter of Distinctions in the Fifteenth Century," Anthony Reid, ed., *Sojourners and Settlers*, St. Leonards, Australia.
- Woodside, Alexander B., 1971,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 A Comparative Study of Vietnamese and Chinese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유인선, 1987, 「中越關係와 朝貢制度—假象과 實像」, 『歷史學報』 114집.
- 유인선, 2001, 1, 「전근대 베트남의 歷史認識」, 『東洋史學研究』 73.
- 최병옥, 2006, 「중국 역대 왕조의 베트남 인식—「25사」를 통해서 살펴봄」, 『북방사논총』 11.
- 吉開將人, 1998, 「印からみた南越世界」(前篇),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6冊.
- 大澤一雄, 1977, 「黎朝中期の明・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 山川出版社.
- 藤原利一郎, 1971, 「ヴェトナム諸王朝の變遷」, 『岩波講座 世界歴史』 12, 東京 : 岩波書店.
- 藤原利一郎, 1977, 「黎朝前期の明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 山川出版社.
- 藤原利一郎, 1986, 「黎朝後期鄭氏の華僑對策」, 藤原利一郎, 『東南アジア史の研究』, 東京 : 法藏館.
- 山本達郎, 1943, 「安南が獨立國を形成したる過程の研究」,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
- 山本達郎, 1950, 『安南史研究』 I, 東京 : 山川出版社.
- 山本達郎, 1977a, 「陳朝と元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 山川出版社.

- 山本達郎 1977b, 「明のベトナム支配とその崩壊」,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松本信廣, 1942, 『印度支那の民族と文化』, 東京: 岩波書店.
- 鈴木中正, 1966, 「清・越南關係の成立」, 『愛知大學文學論叢』 33・34 合併號.
- 鈴木中正, 1967, 「乾隆安南遠征考」(下), 『東洋學報』 50-3.
- 鈴木中正, 1977, 「黎朝後期の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猪口孝, 1975, 「傳統的東アジア世界秩序—十八世紀末の中國のベトナム干涉を中心として」, 『國際法外交雜誌』 73-5.
- 竹田龍兒, 1977, 「阮朝初期の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川本邦衛, 1967, 『ベトナムの詩と歴史』, 東京: 文藝春秋.
- 片倉穰, 1972, 「ベトナム・中國の初期外交關係に關する一問題」, 『東方學』 44.
- 河原正博, 1970, 「丁部領の即位年代について」, 『法政大學文學部紀要』 15.
- 河原正博, 1976, 「前黎朝と宋朝との關係—黎桓の諸子を中心として」, 『法政史學』 29.
- 河原正博, 1977a, 「ベトナム獨立王朝の成立と發展(905-1009)」,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河原正博, 1977b, 「李朝と宋との關係(1009-1225)」,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和田博徳, 1977, 「阮朝中期の清との關係」,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後藤均平, 1975, 『ベトナム救國抗爭史』, 東京: 新人物往來社.

[ABSTRACT]

The Vietnamese Perception of China in the Premodern Period

Yu, Insun

Vietnam had close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China for two thousand years from the year of 207 B.C. when Nam Viet was founded up until to the 1880s A.D. when Vietnam fell into a French colony by a treaty made with the latter. The two thousand year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be divided into the two terms : The first term of a thousand year is the so-called *Bac Thuoc Ky*, which literally means the period of Vietnam's belonging to China, and the next thousand years after Vietnam's independence in the 10th century can be referred to the period of tributary relations during which Vietnam maintained the friendship with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Vietnam perceived China, and how it dealt with her threats in the pre-modern period, when it was politically ruled by China or when it was exposed to her military threat.

Based upon the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dynasties traditionally called themselves as a suzerain state and regarded their surrounding nations as subordinate states. And if these states did not acknowledge China's authority, it often threatened them with military power or even invaded them. Thereupon, Vietnam has flattered itself as a dependent state willing to keep its dynasty safe by

avoiding conflicts and cultivating friendship with China. It was thus customary practice that the Vietnamese dynasties sent an envoy even after defeating China's invasion. The reason was that, even if they would repulse the invasion, they had difficulty to keep their safety due to consumption of national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remember, however, that they were internally on an equal footing, not having taken a subordinate attitude, even though they officially had the tributary relation with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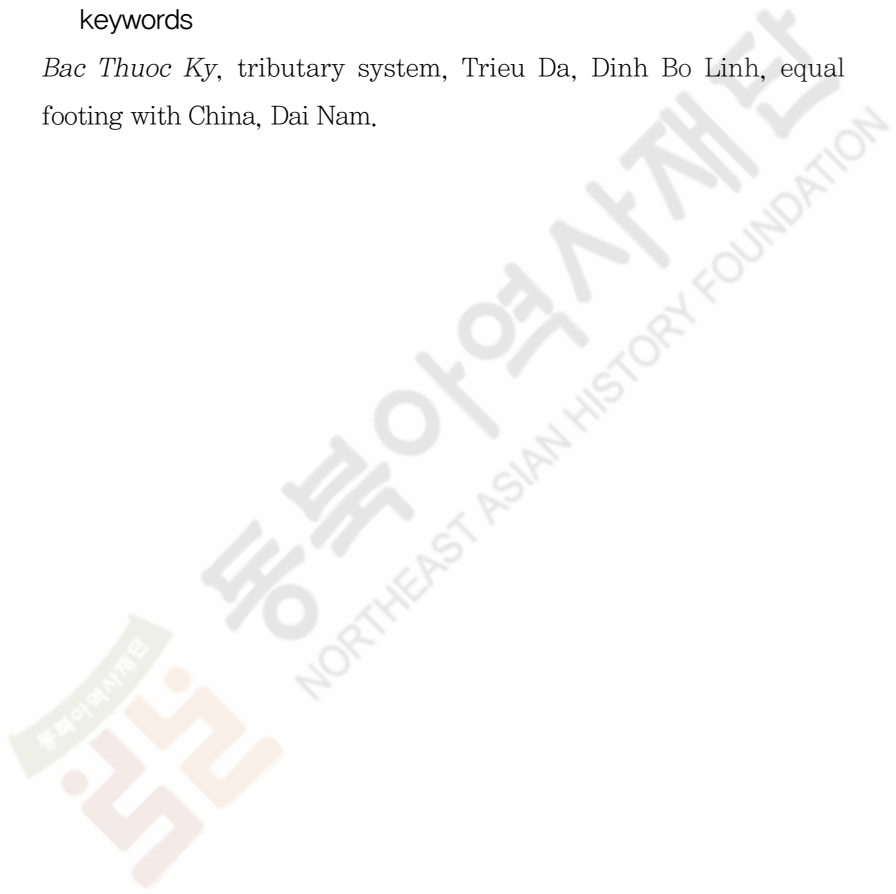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all of the Vietnamese dynasties had never yielded to China's force and fought against it to the last. Two of the typical examples are the drastic resistance against the invasion of the Yuan dynasty and the twenty-year fight against the rule of the Ming dynasty. The reason that Vietnam could gain independence after the thousand-year Chinese rule is an outcome of firm resistance. In pre-modern time, Vietnam's consciousness of an equal footing with China was naturally conceived from such a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colonization or against military invasion.

To sum up, Vietnam's burning concern was how it could avoid the threat from a huge nation like China which it was bordering throughout the premodern period. The measures that they had taken to meet the situation was the two ways : Vietnam did its best to keep the friendly relationship through the tributary system with China and it also did its best to fight against the Chinese invasion when the tributary relation did not work out. Nonetheless, Vietnam was never deprived of its spirit of equality with China in any case. This kind of consciousness is certainly different from what China regarded Vietnam as its subordinate state and wanted to reign over it. In short, Vietnam had the two contrasting aspects in the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that is, pursuing utility on the one hand and conserving an equal footing on the other.

keywords

Bac Thuoc Ky, tributary system, Trieu Da, Dinh Bo Linh, equal footing with China, Dai Nam.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충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충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3호(2009. 3)

초판 1쇄 인쇄 2009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3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